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06-07-01
협동연구 2006-01-1

저출산 및 인구고령화 대응 연구

미래세대의 결혼·출산 친화적 가치관 정립을 위한 종합연구

이삼식 외

주관연구기관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협력연구기관 : 한국교육개발원 한국여성개발원
한국교원대학교

본 보고서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주관하는 **「경제 · 인문사회연구회 2006년도 협동연구사업」**의 일환으로 연구회 소관 국책연구기관과 외부단체가 협동으로 수행한 연구과제 결과입니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저출산 및 인구고령화 대응 연구"

1. 협동연구총서 시리즈

협동연구총서 일련번호	연구보고서명	연구기관
06-07-01	미래세대의 결혼·출산 친화적 가치관 정립을 위한 종합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교원대학교 한국여성개발원 한국교육개발원
06-07-02	2006년 전국 청소년 결혼·자녀·성평등 가치관 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06-07-03	초·중등학생의 결혼 및 자녀 가치관 정립방안 연구	한국교원대학교
06-07-04	미래세대의 성평등한 가족문화 및 고용문화 조성을 위한 연구	한국여성개발원
06-07-05	건강한 미래세대 육성을 위한 성교육 방안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06-07-06	출산·가족 친화적 가치관 형성을 위한 초·중등 교육내용 개선 방안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2. 참여연구진

연구기관		연구책임자	참여연구진
주관연구기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이삼식 부연구위원 (총괄책임자)	김안나 연구위원 도세록 부연구위원 윤홍식 교수 이윤석 교수 신인철 선임연구원 김필숙 연구원 김정연 연구원 임주연 연구원
협력연구기관	한국교원대학교	김태헌 교수	손준종 교수 김지경 교수 박강용 연구사 김혜환 연구원
	한국여성개발원	박수미 연구위원	오은진 연구위원 박기남 교수 문현아 연구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오영희 부연구위원	조남훈 선임연구위원 이주열 교수 김경래 선임연구원 유혜영 연구원
	한국교육개발원	박효정 연구위원	정미경 부연구위원 박종효 부연구위원 김태은 부연구위원 한세리 연구조원

발 간 사

우리나라에서는 1983년 이래 저출산현상이 지속되어 왔으며, 특히 2000년대 중반에는 세계 최저인 1.1명 수준의 초저출산현상을 겪고 있다. 저출산현상 지속은 인구규모의 감소뿐 아니라 인구구조의 고령화를 가속시켜 복합사회시스템에서 상당한 비용과 위험을 발생시킬 것이다. 평균수명 상승과 세대간 인구규모의 격차로 인하여 향후 노인인구는 필연적으로 급증하는 반면, 이들 노인을 부양할 노동인구는 저출산현상으로 급격히 감소할 것이기 때문이다. 특히, 급증하는 중기·후기 고령층인구의 생활보호와 의료보호 등의 욕구가 높아짐에 따라, 노동세대의 사회적 부담은 더욱 가중될 것이다. 결국 사회보장 지출(연금, 건강보험 등)의 증가로 재정수지가 악화되는 등 지속가능한 사회발전과 개인의 삶의 질이 위협받게 될 것이다. 혈연기반이 없는 사회적 부양체제 아래서 후세대의 부담이 가중될 경우 세대간 갈등이 격화될 가능성이 크다.

한국 사회에서의 저출산 원인은 다양하며 복합적이며, 그 중에서도 사회경제 환경의 변화와 가치관의 변화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볼 수 있다. 출산에 영향을 미치는 가치관으로는 가족관, 결혼관, 양성평등관 혹은 성역할관이 있다. 또한, 출산건강에는 성(性)에 대한 의식과 이해가 영향을 미친다. 한국사회에서 거의 모든 사람들이 결혼을 하고 자녀를 가짐으로써 다른 어떤 사회제도보다도 가족이라는 제도는 안정적이라고 간주되어 왔다. 그러나 한국사회의 급속한 변동이 가치관의 급격한 변화를 가져왔으며, 그 가치관들은 "옳고 그름"이나, "정상적 또는 비정상적" 여부를 떠나 적어도 결혼과 자녀에 부정적인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다. 사회가 늘 변동하듯이 그 사회 속에서 작동하는 제도와 가치도 변동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가치관들은 인구학적 및 사회경제적 특성간의 차이가 있으며, 이는 어린 시절부터 각자가 자라온 가족 내에서 그리고 학교 및 사회생활 등 여러 상황 속에서 오랜 시기에 걸쳐 형성되었기 때문이다.

정부가 최근 발표한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2006~2010)에서 가치관과 관련된 정책의 방향을 제시하고 있는 것도 이러한 이유에서이다. 이러한 정책들이 실질적으로 수행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미래세대에게 결혼 및 출산 관련 가치관들을 어떻게 정립하고, 어떻게 전달하는가가 중요하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는 전국 청소년 결혼·출산·성평등 가치관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한국사회의 미래를 이끌 세대의 결혼·가족·자녀·성평등에 관한 제 가치관의 현황을 정밀하게 진단하고, 향후 정책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구체적으로 친 결혼관, 친 자녀관을 형성하기 위한 사회적 노력을 규명하고, 출산력 수준의 회복과 성평등을 동시에 실현하기 위한 성평등한 가족문화 및 고용문화 모형을 실험적으로 제시하고, 학생들이 올바른 성지식과 건전한 성가치관을 겸비토록하고 현실적이고 효율적인 학교 성교육 방안을 마련하며, 이들에 대한 학교교육을 통한 전달방법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본 보고서가 저출산에 대한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대응의 노력에 일조하기를 기대하며, 관련 학계, 전문가, 정부부처 및 교육기관의 담당관들에게 일독을 권하고 싶다. 우선 본 협동연구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한국교육개발원, 한국여성개발원, 한국교원대학교 연구진에 감사드린다. 「전국 청소년 결혼·자녀·성평등 가치관 조사」를 위해 협조해 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정책본부), 교육인적자원부, 각급 교육청 및 132개 표본학교의 관계자들에게 깊은 감사드린다. 그리고 연구진은 이 보고서를 읽고 조언해준 본 원의 정경희 박사와 김미숙 박사에게 감사드리고 있다.

2006년 12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원장 김 용 문

목 차

Abstract ····· 19

국문초록 ····· 21

제1장 서 론 ····· 23
제1절 연구배경 및 목적 ····· 23
제2절 연구내용 ····· 28
제3절 연구방법 ····· 31
제4절 청소년 결혼·자녀·성평등 가치관 조사 설계 ····· 34

제2장 이론적 고찰 ····· 47
제1절 가치와 가치관에 관한 이론적 고찰 ····· 47
제2절 가족가치관에 관한 이론적 고찰 ····· 49
제3절 결혼가치관에 관한 이론적 고찰 ····· 52
제4절 자녀가치관에 관한 이론적 고찰 ····· 57
제5절 성평등가치관 및 성역할관에 관한 이론적 고찰 ····· 60
제6절 성가치관 및 성교육에 관한 이론적 고찰 ····· 63
제7절 연구틀 ····· 65

제3장 청소년의 결혼·출산·성평등 가치관 실태 ····· 67
제1절 청소년의 가족 가치관 ····· 67
제2절 청소년의 결혼가치관 ····· 74
제3절 청소년의 자녀가치관 ····· 95
제4절 청소년의 성역할과 성평등 가치관 ····· 119
제5절 성교육에 관한 청소년의 태도 ····· 146
제6절 청소년 가치관 실태의 소결 및 정책적 건의 ····· 157

제4장 초·중등학생의 결혼 및 자녀 가치관 정립 방안 ····· 169
제1절 개요 ····· 169
제2절 청소년의 결혼·자녀 가치관의 의미와 본질 ····· 170
제3절 청소년의 결혼·자녀 가치관 개념과 특성 ····· 180
제4절 외국 청소년의 가치와 가치교육 ····· 192
제5절 미래세대의 결혼·자녀 가치관 정립 방안 ····· 199
제6절 초·중등학생의 가족·결혼 친화적 가치관 형성을 위한 교육방안 ··· 213
제7절 소결 및 미래세대의 친 결혼·출산 가치관 제고를 위한 제언 ····· 254

제5장 미래세대의 성평등 가족문화·고용문화 조성 ····· 258
제1절 개요 ····· 258
제2절 성평등수준과 출산수준간의 관계 ····· 259
제3절 청소년의 가족 및 성평등 가치관 현황 ····· 267
제4절 성평등한 가족문화와 청소년 ····· 285
제5절 성평등한 고용문화와 청소년 ····· 307
제6절 소결 및 미래세대 성평등의식 고취를 위한 제언 ····· 329

제6장 건강한 미래세대 육성을 위한 성교육 방안 ····· 333
제1절 개요 ····· 333
제2절 청소년 성문제와 성교육의 개념 ····· 336
제3절 학교 성교육관련 교과내용체계 ····· 345
제4절 학교 성교육·성상담에 대한 학생 및 교사의 행태 ····· 367
제5절 외국의 성교육 사례 ····· 380
제6절 학교 성교육 개선방안 ····· 392
제7절 소결 및 성교육 실효성 제고를 위한 제언 ····· 404

제7장 출산·가족 친화적 가치관 형성을 위한 초·중등 교육내용 개선 방안 407
제1절 개요 ····· 407
제2절 저출산·고령사회와 교육의 과제 ····· 408

제3절 초·중등학생 대상 가치교육의 개념과 실태 ····· 411
제4절 출산·가족 친화적 가치관에 관한 학교교육 실태 ····· 418
제5절 출산·가족 가치관 관련 교육내용체계 및 개선방안 ····· 436
제6절 출산·가족 친화적 가치관 교육을 위한 지도자료 지도 지침 ····· 450
제7절 소결 및 출산·가족 친화적 가치관 형성을 위한 교육내용 개선에 관한 제언 ·· 490

제8장 결론 및 정책적 제언 ····· 495

참고문헌 ····· 505

부 록 ····· 529

표 목 차

〈표 1- 1〉 전국의 지역별·학교급별 학교수 ····· 35
〈표 1- 2〉 전국 지역별·학교급별 학급수 ····· 36
〈표 1- 3〉 지역별·학교급별 표본 학교수 ····· 36
〈표 1- 4〉 학령별 표본 학급수 및 학생수 ····· 37
〈표 1- 5〉 조사항목 분류 체계 ····· 39
〈표 1- 6〉 지역별 조사결과 ····· 40
〈표 1- 7〉 성별 조사결과 ····· 40
〈표 1- 8〉 조사완료 학생의 개인적 특성 ····· 41
〈표 1- 9〉 조사완료 학생의 가족적 특성 ····· 43
〈표 1-10〉 조사완료 학생의 부모 특성 ····· 45
〈표 1-11〉 조사완료 학생이 주관적으로 판단한 가구의 경제수준 ····· 46
〈표 2- 1〉 가족가치관의 하위영역 ····· 51
〈표 3- 1〉 "아버지나 어머니가 혼자서도 자녀를 잘 키울 수 있다"에 관한 학생의 태도 ····· 71
〈표 3- 2〉 "결혼하지 않아도 자녀를 가질 수 있다"에 관한 학생의 태도 ·· 72
〈표 3- 3〉 "사별이나 이혼 후에도 재혼을 해서 새 삶을 시작하는 것이 좋다"에 관한 학생의 태도 ····· 72
〈표 3- 4〉 "입양한 아이도 내가 낳은 자식과 같이 애정을 갖고 잘 키울 수 있다"에 관한 학생의 태도 ····· 73
〈표 3- 5〉 "남녀가 사랑한다면 결혼하지 않고 함께 사는 것도 괜찮다"에 관한 학생 태도 ····· 73
〈표 3- 6〉 결혼 필요성에 대한 학생의 태도 ····· 76
〈표 3- 7〉 남녀의 이상적인 결혼연령에 관한 학생의 태도(평균연령) ····· 77

〈표 3- 8〉 "결혼은 개인보다 가족간의 관계를 먼저 생각해야 한다"에 관한 학생의 태도 ····· 81
〈표 3- 9〉 "마땅한 사람을 만나지 못하면 결혼을 꼭 할 필요는 없다"에 관한 학생의 태도 ····· 82
〈표 3-10〉 "직장을 구하지 못하거나 안정된 직장을 가지지 못하면 결혼을 늦추거나 안할 수도 있다"에 관한 학생의 태도 ····· 82
〈표 3-11〉 "결혼생활을 유지할 정도로 수입이 충분해야 결혼을 할 수 있다"에 관한 학생의 태도 ····· 83
〈표 3-12〉 "내가 하고 싶은 공부나 일을 하기 위해 결혼을 안 할 수도 있다" 에 관한 학생의 태도 ····· 84
〈표 3-13〉 "독신의 삶을 즐기기 위해서는 결혼을 안 할 수도 있다"에 관한 학생의 태도 ····· 84
〈표 3-14〉 "결혼생활이 부담스러우면 결혼을 안 할 수도 있다"에 관한 학생의 태도 ····· 85
〈표 3-15〉 "결혼은 보통사람들이 결혼하는 나이에 해야 한다"에 관한 학생의 태도 ····· 86
〈표 3-16〉 "사귀는 사람이 있으면 결혼은 그 사람과 해야 한다"에 관한 학생의 태도 ····· 86
〈표 3-17〉 "부부간의 갈등을 해결할 수 없다면 이혼하는 게 낫다"에 관한 학생의 태도 ····· 87
〈표 3-18〉 학생의 개인적 특성별 향후 결혼 의향 ····· 88
〈표 3-19〉 학생의 가족적 특성별 향후 결혼 의향: ····· 89
〈표 3-20〉 학생의 가족적 특성별 배우자 조건(1순위) ····· 91
〈표 3-21〉 학생의 개인적 특성별 자녀 필요성에 관한 태도 ····· 96
〈표 3-22〉 학생의 가족적 특성별 자녀필요성에 관한 태도 ····· 97
〈표 3-23〉 자녀가치에 관한 학생의 긍정적 태도(찬성+매우 찬성) ····· 98
〈표 3-24〉 "부모가 되는 것은 인생에서 가치 있는 일이다"에 관한 학생의 태도 ····· 103

〈표 3-25〉 "자녀를 낳아야만 부부가 사회적으로 인정받는다"에 관한 학생의 태도 ····· 104
〈표 3-26〉 "자녀가 있으면 부부관계가 더 좋아진다"에 관한 학생의 태도 104
〈표 3-27〉 "자녀가 있는 사람들은 노년에 덜 외롭다"와 "자녀가 있으면 노후에 경제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다"에 관한 학생의 태도 105
〈표 3-28〉 "자녀를 통해 부모의 꿈을 이루는 것은 바람직하다"에 관한 학생의 태도 ····· 106
〈표 3-29〉 "집안의 대를 잇기 위해 자녀를 두는 것은 당연하다"에 관한 학생의 태도 ····· 107
〈표 3-30〉 "자녀를 갖는 것은 사회에 대한 의무이기도 하다"에 관한 학생의 태도 ····· 108
〈표 3-31〉 "자녀의 양육도 중요하지만 부모의 생활이 더 중요하다"에 관한 학생의 태도 ····· 108
〈표 3-32〉 "자녀의 교육은 힘들더라도 끝까지 시켜야 한다"에 관한 학생의 태도 · 109
〈표 3-33〉 학생의 개인적 특성별 향후 자녀출산 의향 ····· 110
〈표 3-34〉 학생의 가족적 특성별 향후 자녀출산 의향 ····· 111
〈표 3-35〉 학생의 개인적 특성별 희망자녀수 ····· 112
〈표 3-36〉 학생의 가족적 특성별 희망자녀수(출산의향 자녀수) ····· 113
〈표 3-37〉 학생의 개인적 특성별 향후 자녀출산 희망 이유 ····· 116
〈표 3-38〉 학생의 개인적 특성별 자녀출산 불원 이유 ····· 117
〈표 3-39〉 학생의 개인적 특성별 부부간 가사분담에 관한 태도 ····· 122
〈표 3-40〉 학생의 가족적 특성별 부부간 가사분담에 관한 태도 ····· 123
〈표 3-41〉 학생의 개인적 특성별 부부간 자녀 돌보기 분담에 관한 태도 124
〈표 3-42〉 학생의 가족적 특성별 부부간 자녀 돌보기 분담에 관한 태도 125
〈표 3-43〉 학생의 개인적 특성별 부부간 의사결정에 관한 태도 ····· 126
〈표 3-44〉 학생의 가족적 특성별 부부간 의사결정에 관한 태도 ····· 127
〈표 3-45〉 학생의 특성별 일반적인 부부 역할에 대한 태도(찬성비율) ··· 128

〈표 3-46〉 "남편은 직업을 가지고 아내는 가정을 돌보는 것이 좋다"에 관한 학생의 태도: 가족적 특성별 ····· 129
〈표 3-47〉 "맞벌이 부부의 경우에도 가족의 생계는 남편이 책임져야 한다"에 관한 학생의 태도: 가족적 특성별 ····· 130
〈표 3-48〉 "남편도 아내와 마찬가지로 자녀를 잘 돌볼 수 있다"에 관한 학생의 태도: 가족적 특성별 ····· 132
〈표 3-49〉 성평등에 관한 학생의 태도 종합 비교 ····· 133
〈표 3-50〉 성평등에 관한 학생의 태도 비교(성평등점수): 학교급·성별 ··· 134
〈표 3-51〉 "집, 땅과 같은 재산을 남편과 아내 공동 이름으로 하는 것을 찬성 한다"에 관한 학생의 태도: 가족적 특성별 ····· 136
〈표 3-52〉 "집안의 대를 이어가기 위해서 아들이 있어야 한다"에 관한 학생의 태도: 가족적 특성별 ····· 137
〈표 3-53〉 "여자는 사업에 관한 중대한 결정을 남자만큼 잘 내리지 못한다"에 관한 학생의 태도: 가족적 특성별 ····· 138
〈표 3-54〉 학생의 개인적 특성과 아버지와 어머니의 가정 일 공평성 정도 ·· 139
〈표 3-55〉 학생의 가족적 특성과 아버지와 어머니의 가정 일 공평성 정도 ··· 141
〈표 3-56〉 남성의 혼전 순결에 대한 학생의 태도 ····· 148
〈표 3-57〉 여성의 혼전 순결에 관한 학생의 태도 ····· 149
〈표 3-58〉 혼전임신에 관한 학생의 태도 ····· 150
〈표 3-59〉 학생이 경험한 성교육 내용(복수응답) ····· 151
〈표 3-60〉 학생의 성교육 도움 정도 ····· 152
〈표 3-61〉 학생의 성교육 이외 성에 대한 정보 ····· 153
〈표 4- 1〉 학생의 개인적 특성별 조부모 동거 선호도 ····· 185
〈표 4- 2〉 출산 및 자녀관에 대한 일반적 경향 ····· 186
〈표 4- 3〉 일반적 가치에 대한 학생의 태도 ····· 187
〈표 4- 4〉 청소년의 가치관 변화: 1979, 1998 ····· 190
〈표 4- 5〉 가족가치관의 일반적 경향 및 세대별 차이 ····· 191
〈표 4- 6〉 일본 소자화 사회 대책의 관점과 주요 과제, 2005. ····· 192

〈표 4- 7〉 성·연령별 결혼에 대한 희망, 2004(일본) ····· 193
〈표 4- 8〉 육아관, 2004(일본) ····· 194
〈표 4- 9〉 가족·일·공동체에 대한 청소년의 태도: 12학년 중심, 1999(미국) · 195
〈표 4-10〉 호주 청소년들의 가치 우선 순위(2006) ····· 197
〈표 4-11〉 인간 존엄성을 유지하는 핵심 가치와 관련된 가치들 ····· 200
〈표 4-12〉 가치관 교육의 주요 모형(Oser) ····· 202
〈표 4-13〉 출산정책 중 본인에게 자녀출산을 고려하게 만드는 정책 ····· 204
〈표 4-14〉 저출산의 파급효과에 대한 초·중·고 학생의 인식 ····· 214
〈표 4-15〉 가치분석 모형 ····· 219
〈표 4-16〉 가치관 발달을 위한 두 가지 교육적 접근 방식의 비교 ····· 221
〈표 4-17〉 가치화 과정 ····· 222
〈표 4-18〉 가치 체계 분류 ····· 225
〈표 4-19〉 Kluckhohn의 가치관 분류 ····· 226
〈표 4-20〉 교과내용 오류 수정 방향 ····· 239
〈표 4-21〉 인식 차원의 비교 ····· 241
〈표 5- 1〉 남녀학생별 가족에 관한 태도 차이 ····· 269
〈표 5- 2〉 청소년의 결혼 필요성에 대한 태도의 성별·학교급별 차이 ···· 272
〈표 5- 3〉 청소년의 자녀 필요성에 대한 태도의 성별·학교급별 차이 ···· 273
〈표 5- 4〉 성평등관 2002년과 2006년 비교 ····· 277
〈표 5- 5〉 청소년의 성평등 설문항에 대한 태도 차이: 가족영역 ····· 279
〈표 5- 6〉 청소년의 성평등 설문항에 대한 태도 차이: 직업영역 ····· 280
〈표 5- 7〉 부모 가사분담 정도와 성평등의식의 상관관계 ····· 281
〈표 5- 8〉 청소년의 일반적 가치관 성평등의식의 상관관계 ····· 284
〈표 5- 9〉 중학교 도덕 교과서의 특징 ····· 310
〈표 6- 1〉 초등학교 1학년 성교육 교과내용 ····· 348
〈표 6- 2〉 초등학교 2학년 성교육 교과내용 ····· 349
〈표 6- 3〉 초등학교 3학년 성교육 교과내용 ····· 350
〈표 6- 4〉 초등학교 4학년 성교육 교과내용 ····· 351

〈표 6- 5〉 초등학교 5학년 성교육 교과내용 ····· 352
〈표 6- 6〉 초등학교 6학년 성교육 교과내용 ····· 353
〈표 6- 7〉 성교육 영역별 초등학교 교과내용체계 ····· 354
〈표 6- 8〉 중학교 1학년 성교육 교과내용(체육) ····· 356
〈표 6- 9〉 중학교 1학년 성교육 관련 내용(기술·가정) ····· 357
〈표 6-10〉 중학교 1학년 성교육 교과내용(도덕) ····· 358
〈표 6-11〉 중학교 2학년 성교육 교과내용(과학) ····· 358
〈표 6-12〉 중학교 2학년 성교육 교과내용(사회) ····· 359
〈표 6-13〉 중학교 3학년 성교육 교과내용(과학) ····· 359
〈표 6-14〉 중학교 3학년 성교육 교과내용(도덕) ····· 359
〈표 6-15〉 성교육 영역별 중학교 교과내용체계 ····· 361
〈표 6-16〉 고등학교 성교육 교과내용(체육) ····· 363
〈표 6-17〉 고등학교 성교육 교과내용(도덕) ····· 364
〈표 6-18〉 고등학교 성교육 교과내용(사회문화) ····· 364
〈표 6-19〉 고등학교 성교육 교과내용(가정·과학) ····· 364
〈표 6-20〉 고등학교 성교육 교과내용(인간과 사회 환경) ····· 365
〈표 6-21〉 고등학교 성교육 교과내용(인간발달, 시민윤리) ····· 365
〈표 6-22〉 성교육 영역별 고등학교 교과내용체계 ····· 367
〈표 6-23〉 학교급별 성교육 경험률, 중복응답 ····· 371
〈표 6-24〉 과거 받아온 성교육 및 향후 희망하는 성교육 내용, 중복응답 371
〈표 6-25〉 초·중·고 학생의 학교성교육과 성지식수준간의 상관계수 ····· 374
〈표 6-26〉 교과서 성교육 내용이 올바른 가치관 형성에의 도움정도에 대한 교사의 태도 ····· 378
〈표 6-27〉 미국 성정보교육위원회의 포괄적 성(sexuality)교육프로그램의 기본개념 ····· 382
〈표 6-28〉 성과 관계 교육(SRE)의 3가지 요소 및 그 내용 ····· 385
〈표 7- 1〉 민족주의와 민주주의 가치 체계 ····· 414
〈표 7- 2〉 저출산·고령화 사회를 대비한 교육 목적 및 목표 ····· 416

〈표 7- 3〉 초등학교 사회과 교육과정 분석 ····· 441
〈표 7- 4〉 초등학교 5학년 사회교과서 내용분석(대영역: 2. 우리가 사는 지역) ·· 443
〈표 7- 5〉 사회과 교육과정 내용 체계표 ····· 445
〈표 7- 6〉 중1 도덕 교과서 내용분석(대영역 2: 가정·이웃·학교생활 예절: 중등학교 도덕 교과서 내용 분석 및 개선 방안(일부) ····· 447
〈표 7- 7〉 중1 사회 교과서 내용 분석(대영역 6: 유럽의 생활): 중등학교 사회 교과서 내용 분석 및 개선방안(일부) ····· 448
〈표 7- 8〉 고1 사회 교과서 내용 분석(대영역 : 가정생활의 설계): 중등학교 가정 교과서 내용 분석 및 개선방안(일부) ····· 449

그림목차

[그림 2- 1] 미래세대의 결혼·출산 친화적 가치관 정립을 위한 연구틀 ··· 66
[그림 3- 1] 다양한가족 관련 학생의 긍정적인 태도(%) ····· 69
[그림 3- 2] 다양한가족에 관한 남녀학생의 긍정적인 태도 ····· 70
[그림 3- 3] 생애경로 이행과정별 결혼관련 다양한 견해에 관한 학생의 태도 변화 ····· 79
[그림 3- 4] 학교급 및 성별 결혼에 관한 학생의 태도 ····· 80
[그림 3- 5] 남녀학생별 배우자 조건(1순위): 초(5-6학년)·중·고 학생 ··· 90
[그림 3- 6] 생애경로별 자녀가치관 변화: 긍정적 태도(찬성+매우 찬성) 비율 · 99
[그림 3- 7] 자녀가치에 관한 남녀비교: 긍정적 태도(찬성+매우 찬성) ·· 101
[그림 3- 8] 생애경로 단계별 희망자녀수 분포 ····· 114
[그림 3- 9] 생애경로 단계별 평균 희망자녀수 ····· 115
[그림 3-10] 학교급별 성관련 지식수준의 남녀 차이 ····· 155
[그림 4- 1] 편안한 생활의 중요도별 희망자녀수 ····· 188

[그림 4- 2] 화목한 가정의 중요도별 희망자녀 수 ····· 188
[그림 4- 3] 미국 10대의 출산율 추이, 1950～2001 ····· 196
[그림 5- 1] 미국의 맞벌이 가구의 가사분담과 둘째아이 출산 ····· 262
[그림 5- 2] OECD 국가의 출산율과 여성고용률 ····· 265
[그림 5- 3] 4인 가족의 모습 ····· 287
[그림 5- 4] 성역할 고정관념의 전도 ····· 288
[그림 5- 5] 정보화 사회의 중심에 있는 남성 ····· 309
[그림 5- 6] 아이를 등에 업고 전자 투표하는 여성 ····· 311
[그림 5- 7] 정보화의 주역으로 묘사되는 남성 ····· 314
[그림 6- 1] 학교 성교육의 영역 및 주제 ····· 346
[그림 6- 2] 초(5~6학년)·중·고 학생의 학교 성교육 경험률(교육내용별): 중복 응답 ····· 370
[그림 6- 3] 초(5~6학년)·중·고 학생들이 느끼는 학교 성교육 내용의 도움정도 ····· 372
[그림 6- 4] 초(5～6학년)·중·고 학생의 성관련 인지도 ····· 373
[그림 6- 5] 초·중·고 학생의 학교이외 성정보 습득경로 ····· 375
[그림 6- 6] 초·중·고 학생의 성관련 상담자(원) ····· 376
[그림 6- 7] 청소년의 상담내용 변화, 1999년·2005년 ····· 377
[그림 6- 9] 교사의 학교 성교육 수업시 애로사항 ····· 379
[그림 6-10] 지역사회의 성교육 사업의 연계방안 ····· 400
[그림 7- 1] 초·중·고 학생의 출산관련 내용의 학습 시간 ····· 418
[그림 7- 2] 출산에 관한 내용 학습 후 학생의 인식 변화 ····· 419
[그림 7- 3] 초·중·고 학생이 가족에 관한 내용을 배운 학습시간 ····· 420
[그림 7- 4] 가족관련 내용 학습 후, 학생의 의식 변화 ····· 421
[그림 7- 5] 출산관련 교과서내용의 적절성에 관한 교사의 태도 ····· 422
[그림 7- 6] 출산관련 교과서 소재의 시대성과 현실성 반영에 대한 교사의 태도· 423
[그림 7- 7] 가족관련 교과서내용의 적절성에 관한 교사의 태도 ····· 424

〔그림 7- 8〕 가족관련 교과서내용의 적절성에 관한 교사의 태도:
담당교과 여부별 ····· 425
〔그림 7- 9〕 가족관련 교과서 소재의 시대성과 현실성 반영에 대한
교사의 태도 ····· 426
〔그림 7-10〕 가족관련 수업시 애로사항: 교사의 교직경력 차이별 ····· 427
〔그림 7-11〕 출산관련 가치관 교육의 적절한 수업시간에 대한 교사의 의견 ·· 428
〔그림 7-12〕 가족 친화적 가치관 교육의 적절한 수업시간에 대한
교사의 의견 ····· 429
〔그림 7-13〕 출산·가족 친화적 가치관 교육시 필요사항에 대한 교사의 의견 ·· 431
〔그림 7-14〕 출산·가족 친화적 가치관 교육 시 필요사항: 주 담당교과 여부 ·· 432

Abstract

Study on Response to Low Fertility and Population Aging

- Comprehensive Study on Fostering Fertility and Marriage-Friendly Values for the Future Generations -

Continuation of low fertility will accelerate dwindling of population size as well as population ageing. Population ageing, meaning imbalance of population structure, will cause considerable costs and risks under complex societal system. Resultant from low fertility phenomenon, the labor supply will decrease, deteriorating labor shortage and labor ageing, which will be eventually linked to slowdown of economic growth. Along with the population ageing, demands of the elderly for social security such as pension and health insurance will considerably grow, increasing social burdens on the labor-providing generations. Thus, low fertility phenomenon will eventually threaten to sustainable social development and individuals' quality of life.

In Korea, low fertility phenomenon results mainly from complex interaction of socio-economic environment and various values. Specifically, values of the future generations are of importance in determining marriage- and fertility- friendly, and gender equal society in the future. Form this viewpoint, Gov't puts an emphasis on the policies on values in The 1st Basic Plan for Low Fertility and Aged Society(2006~2010). This study aimed at identifying values of the youth(children at primary, middle and high schools), building up marriage-, family- and gender equality-friendly values, and deliberating schemes for delivering such values to the youth.

In more details, this study identified social efforts to form the people's values,

friendly to marriage and children, explored the ways of fostering family culture and employment culture on the basis of gender equity to simultaneously achieve recovery of fertility level and gender equity, made suggestions for effective sexuality education at schools to improve the reproductive health of the future generations, and established the directions toward improving school curriculum and text-content system to educate the fertility- and family-friendly values, with development of education materials for teachers.

According to the 「2006 National Survey on Values of Marriage, Children, and Gender Equality for the Youth」, Behaviors of marriage, fertility, and gender role of the children at schools will not differ from their seniors, currently at ages of 20~30s. Then, the fertility rate in the future, after the children at schools become old to the childbearing ages, will continue to maintain at the very low level. When the children at schools become old, their behaviors of marriage, fertility, and gender role cannot be determined not only by the improvement in social conditions. The children's values need to be changed in favor of marriage, children and gender equality. In doing so, the lifetime education system should be established, appropriate for each stage of growth development.

국문초록

저출산 지속은 인구규모의 감소뿐 아니라 인구구조의 고령화를 가속화시킬 것이다. 인구고령화는 인구구조의 불균형을 의미하는 것으로, 복합사회시스템에서 상당한 비용과 위험을 발생시킬 것이다. 장기적인 저출산현상에 따른 노동공급 감소는 노동력 부족과 산업인력 고령화를 심화시켜 결과적으로 노동생산성 저하와 경제력 약화를 초래할 것이다. 반면, 고령화로 노인의 사회보장지출 욕구가 높아져, 노동세대의 사회적 부담이 증가하고, 사회보장 지출(연금, 건강보험 등)의 증가로 재정수지가 악화되는 등 지속가능한 사회발전과 복지가 위협받게 될 것이다.

한국 사회에서의 저출산현상은 무엇보다도 사회경제환경 변화에 따른 가치관의 변화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이다. 미래를 이끌고 나갈 현재 청소년들의 가치관은 결혼과 출산 및 가족 친화적이면서 성평등한 미래 사회 구현 여부를 좌우할 만큼 중요하다. 이는 정부가 최근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2006~2010)에서 가치관과 관련된 정책의 방향을 제시하고 있는 이유이기도 하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협동연구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을 중심으로 한국교육개발원, 한국여성개발원 및 한국교원대학교의 관련 전문가들이 대거 참여하여, 청소년의 가치관을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결혼·가족·성평등에 친화적인 가치관을 정립하고, 미래 세대들에게 그러한 가치관을 심어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였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첫째, 친 결혼관, 친 자녀관을 형성하기 위하여 사회적 노력을 규명하였다. 둘째, 출산율 회복과 성평등을 동시에 실현시킬 수 있도록 하는 성평등한 가족문화 및 고용문화 조성 방안들을 강구하였다. 셋째, 미래 가임세대의 생식보건 증진을 위한 효율적인 학교 성교육의 강화 방안들을 마련하였다. 넷째, 학교교육을 통해 출산·가족 친화적인 가치관을 학습할 수 있

도록 교과정 및 교과내용체계의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 실질적인 교수학습 지도 자료를 개발하였다. 끝으로, 학교이외에서의 가치관 교육으로 미취학아동교육, 가정교육, 사회교육의 방향을 도출하였다.

본 연구에서 실시한 「2006년 전국 청소년 결혼·자녀·성평등 가치관 조사」 결과로서 현재 청소년들의 가치관을 종합하면, 향후 그들의 결혼·출산 행위나 성역할관 등은 현재 20~30대와 크게 다를 것 같지 않다. 예를 들어, 현재 청소년층은 자녀를 희망하나 본인들을 희생시키거나 경제적으로 큰 부담을 감수하면서까지 자녀를 갖으려고 하지 않을 것이다. 결국 현재의 사회적 상황이 크게 달라지지 않는 한, 현 청소년들이 혼인기와 가임기에 들어서는 10년 내지 15년 후 한국의 출산율은 여전히 낮은 수준을 유지할 것 같다. 이에 정부 차원에서는 실효성 있는 정책의 지속적 추진이 중요하다. 장애요인이 되고 있는 사회적 여건이 개선될 때, 현재 청소년들이 자신이 희망하는 시기에 결혼하고 희망자녀수에 근접하는 수의 아이를 가지려고 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청소년의 결혼 및 출산 행위는 사회적 여건의 개선만으로 결정되지는 않는다. 이는 무엇보다도 청소년의 가치관 변화가 뒷받침되어야함을 의미한다. 이를 위해서는 청소년들의 사고와 성장발달단계에 적합하도록 가정교육, 취학전 교육, 학교교육, 사회교육 등을 망라한 평생교육체계가 확립되어야 할 것이다.

제 1 장 서 론

제 1 절 연구배경 및 목적

최근 우리나라는 동서고금을 통해서도 출산율이 가장 낮은, 그야말로 극저출산현상을 겪고 있다. 여성 1명이 가임기간(15~49세) 동안 낳은 자녀수로 측정되는 합계출산율이 1983년에 인구대체수준(2.1명)에 이미 도달하였으며, 1990년대 말 외환위기 이후에는 더욱 낮아져 2000년대 초에는 1.0명 수준에 근접한 실정이다.

저출산 지속은 인구규모의 감소뿐 아니라 인구구조의 고령화를 가속화시킬 것이다. 인구고령화는 인구구조의 불균형을 의미하는 것으로, 복합사회시스템에서 상당한 비용과 위험을 발생시킬 것이다. 사회적으로 노인은 그 특성상 의료보호, 생활보호, 복지서비스 등에 대한 수요가 높을 뿐만 아니라 그 비용 역시 높다. 반면, 증가하는 노인들을 부양하여야 할 생산가능인구는 저출산현상으로 급격히 감소할 것이다. 결국, 노동세대의 사회적 부담이 증가하고, 사회보장 지출(연금, 건강보험 등)의 증가로 재정수지가 악화되는 등 지속가능한 사회발전과 복지가 위협받게 될 것이다. 전 세계적으로 혈연에 기반한 가족간 상호부양체제에서 공적연금 등을 통한 세대간 사회적 부양체제로 전환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사회보장재정의 한계와 공공인프라 확충의 제한으로 가족의 노인부양 역할을 전적으로 사회화하는 데에는 한계가 존재할 것이다. 특히 혈연기반이 없는 사회적 부양체제 아래서 후세대의 부담이 가중될 경우 세대간 갈등이 격화될 가능성이 크다. 개인적으로도 저출산현상은 상대적으로 적은 자녀수가 노부모를 장기간에 걸쳐 부양하여야 하는 가족구조를 야기하여, 자녀는 물론 부모에게도 경제적 및 정신적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다.

경제적으로 장기적인 저출산현상은 노동시장에의 신규진입 인구를 감소시켜

노동력 부족과 산업인력 고령화를 동시에 야기할 것이다. 노동력이 고령화되는 경우 노동이동성이 감소하고 노동생산성이 낮아질 것이며, 그에 따라 직업간, 산업간, 지역간 노동력 수급의 불균형 문제가 발생될 것이다. 또한, 저출산현상은 저축률 하락을 가져오고, 소비·투자를 위축시키는 등 자본시장의 성장을 둔화시킬 것이다. 결과적으로 저출산현상은 대내적으로 경제성장을 둔화시키며, 대외적으로 국가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작용을 할 것이다.

한국 사회에서의 저출산 원인은 다양하며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이삼식 외, 2005). 인구학적 원인으로 만혼 현상과 유배우부인의 자녀출산 축소가 전체적인 출산수준을 낮추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러한 인구학적 요인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사회경제적 요인으로는 크게 사교육비를 포함한 자녀양육비용 부담 증가, 소득 및 고용 불안정, 주거 불안정, 일-가정 양립 곤란, 근로자의 결혼 및 출산에 대한 노동시장에서의 차별 관행, 출산관련 건강수준 악화(불임, 자연유산 및 사산) 등을 들 수 있다. 여성가족부의 정책방향(2005)에 의하면 출산율 감소나 이혼율 증가와 같은 가족위기적 징후의 발생은 사회구조 및 가족구조 변화, 여성의 경제활동참여 증가 등에 따른 가족 내 부양기능 변화에도 불구하고 국가적 차원에서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한데서 비롯되었다고 보고 있으며, 가족문제는 주로 여성의 사회적 지위나 역할 변화와 직·간접적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사회 내 젠더 관계의 변화라는 성인지적 접근이 요구된다고 한다(송다영, 2005).

사회경제적 요인들은 가치관 변화를 매개로 인구학적 요인에 영향을 미친다. 출산에 영향을 미치는 가치관으로는 가족관, 결혼관, 성평등관 혹은 성역할관이 있다. 또한, 출산건강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성(性)에 대한 의식과 이해를 하나의 가치관 변수로 포함시킬 수 있다.

실제 과거 출산율의 급격한 저하가 정부의 정책에 의하여서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경제적, 문화적, 가치관적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이루어진 결과이다(권용은·김의철, 2004). 1960년대 이후 산업화·근대화를 통한 경제성장으로 인하여 전반적인 생활수준이 향상되었다. 문화적으로는 서구문화의 유입으로 개인주의·자유주의·민주주의가 사회구성원들의 의식에 확산되면서 개인의

의식구조도 변화하여 그 동안 우리사회에서 지배적이었던 전통적인 유교적 가치관은 점진적으로 근대적 가치관으로 대체되었다. 이 과정에서 우리 사회는 물질생활, 사회관계 및 정신적인 면에서 현저한 변화를 겪게 되었는데 이는 가정의 생활양식과 가족이 갖는 가치관에도 많은 변화를 초래하여 가족제도와 가족생활의 규범, 가족성원의 인간관계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이현옥·김양희·이경희, 1993). 한국사회에서 거의 모든 사람들이 결혼을 하고 자녀를 가짐으로써 다른 어떤 사회제도보다도 가족이라는 제도는 안정적이라고 간주되어 왔다. 결혼에 관한 가치, 의식, 태도도 한 개인에게 일단 형성되면 잘 변하지 않고 비교적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가치나 태도라고 생각되어 왔다. 그러나 한국사회의 급속한 변동이 가족이라는 비교적 안정적인 사회제도에도 큰 변화를 일으키고 있다(은기수, 2001). 결혼을 비롯한 가족제도 및 가족가치는 어느 시대, 어느 사회를 막론하고 언제나 "옳고", "정상적"인 형태로 존재하지 않는다. 사회가 늘 변동하듯이 그 사회 속에서 작동하는 제도와 가치도 변동할 수밖에 없다. 현재 한국사회에서 결혼에 대한 태도가 변하고 있다면 이는 일시적인 변화가 아니고 한국사회에서 성별 분업, 성역할 등에 대한 근본적인 가치와 태도가 변하고 있음을 반영하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겪었던 경제위기 등 단기적인 주변여건의 변화도 결혼에 대한 태도 등과 같은 가족가치에도 변화를 야기하고 있다(은기수, 2001).

결혼관과 자녀관 그리고 성역할관은 개인적인 신념이나 가치에 의한 것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에 편재해 있는 다양한 가치규범이 이들의 가치관 형성에 미치는데, 이러한 가치관의 개인간, 세대간의 차이는 가족 내에서나 사회에서 갈등을 심화시킬 수 있다. 건전하고 건강한 가정생활은 개인뿐만 아니라 사회나 국가의 발전에 있어서 초석이 된다는 점을 인식한다면, 건강한 가족 형성의 입문인 결혼에 대한 가치관과 자녀관 그리고 성역할관이 가지는 의미는 크다고 하겠다(양명숙, 1996).

가족, 결혼, 성역할관 등에 대한 가치관의 변화는 사회·경제 현상에 의해 어느 정도 설명할 수 있다. 즉, 가정생활에 대한 만족이나 경제여건의 변화 등과 같은 현재 자신이 처하고 있는 상황에 대한 평가에 따라 결혼에 대한 태도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은기수, 2001). 그러나 이러한 가치관들은 인구학적 및 사회경제적 특성간에 차이가 있고 이는 어린 시절부터 각자가 자라온 가족 내에서, 그리고 학교 및 사회생활 등 여러 상황 속에서 오랜 시기에 걸쳐 형성되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가치관의 변화는 최근 우리사회에서 발생하고 있는 저출산현상과 불가분의 관계를 가지고 있다. 물론 가치관의 변화가 결혼 및 출산의 행위를 직접적으로 결정하기보다 사회경제환경의 변화에 대한 정부 정책의 대응이 미흡하여 결과적으로 가치관이 변화할 수밖에 없고 이에 따라 결혼 및 출산의 행위를 기피하는 것으로 인식되기도 한다. 다른 한편으로는 가치관이 사회경제환경에 의해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아 변화하기는 하나 일부는 가족생활과 학교 및 사회생활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는 측면도 있다. 가치의 변화가 행위의 변화의 원인인지, 아니면 행위의 변화가 가치의 변화의 원인인지는 아직 확실하지 않으며, 연구자에 따라서 가치의 변화가 행위의 변화의 원인으로 보기도 하고, 행위의 변화가 이미 일어난 후에 사회 전반적으로 가치의 변화가 뒤를 잇는다는 해석도 존재한다(은기수, 2001). 따라서 결혼에 관한 행위의 변화와 가치의 변화를 둘러싸고 인과관계를 해명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의 저출산현상은 가족관, 결혼·이혼·재혼, 자녀, 성평등·성역할 등의 가치관 변화와 밀접하게 맞물려 있는 것으로 규명되고 있다(이삼식 외, 2005). 또한 이러한 결혼, 자녀 등 가족에 대한 가치관의 변화로 인해 가족의 구성 측면에서 뿐만 아니라 가치의식적인 측면에 있어서도 신구전환의 과도기적 단계에 처해 있어 갈등과 혼란을 유발하고 있으며, 최근 증가하고 있는 여러 사회문제의 원인으로서 작용하기도 한다. 정부가 최근 발표한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2006~2010)에서 가치관과 관련된 정책의 방향을 제시하고 있는 것도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가족 및 자녀 가치에 대한 인식 전환, 산모의 모성·건강 보호 및 생명 존중 의식 제고, 성평등 의식 강화,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사회문화 조성, 가족의 다양성을 이해하는 가치관 함양 등이 포함된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들이 실질적으로 수행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미래세

대에게 전달되어야 할 결혼 및 출산관련 가치관들을 어떻게 정립하여야 할 것인가가 중요하다. 물론 여기에서 결혼 및 출산 관련 가치관들에는 가족가치관, 결혼가치관, 자녀가치관, 성평등가치관, 성역할관, 성관련 가치관 등이 포함된다. 사회가 급변하고 있는 현실에서 보다 근본적이고 고정불변할 것만 같았던 이들 가치관도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으며, 가치관의 변화에 대한 시각도 다양한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협동연구는 청소년의 제 가치관들을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결혼·가족·성평등에 친화적인 가치관을 정립하며, 미래 세대들에게 그러한 가치관을 심어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자 한다. 세부적인 연구목적은 다음과 같으며, 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세부연구들은 저출산·고령화 대응 협동연구의 틀 안에서 유기적으로 추진되었다.

첫째, 전국 청소년 결혼·자녀·성평등 가치관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한국사회의 미래를 이끌 세대의 결혼·가족·자녀·성평등·성역할 등 제 가치관의 현황을 정밀하게 진단하고, 향후 정책방향을 제시한다. 특히, 여기에서 파악된 청소년의 가치관 실태는 이하 연구의 목적들을 구체화시키는데 기초가 될 것이다.

둘째, 친 결혼관, 친 자녀관을 형성하기 위하여 어떤 사회적 노력이 필요한지를 명확하게 밝혀서 초·중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학교교육에 효율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한다. 이를 통해 초·중·고등학교 인구관련 교과서내용 중에서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한 보완 방향과 내용을 제시한다.

셋째, 우리 사회 출산력 수준의 회복과 성평등을 동시에 실현하기 위하여 성평등한 가족문화 및 고용문화 모형을 실험적으로 제시하고 청소년의 성평등 의식 제고를 위한 방안들을 모색한다. 그러한 방안들은 개인이 사회적 지원을 바탕으로 낳고 싶은 만큼 낳아서 남녀가 함께 일하고 돌보는 미래를 꿈꿀 수 있는 가정과 일터에서의 성평등한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것이다.

넷째, 학생들이 올바른 성지식과 건전한 성가치관을 겸비토록하고 현실적이고 효율적인 학교 성교육 강화 방안을 마련한다. 이러한 방안들은 인구재생산과 관련될 뿐 아니라 윤리적 가치관과 자기정체성, 사회적 행태의 형성에 밀접하게 결부되어 있는 청소년의 성(性)건강에 대해 바람직한 가치관 형성을 지원

하는 교육적 과제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한다.

끝으로, 가족과 공동체에 대한 가치관이 형성되기 시작하는 초등학교 시기와 사회적 책임감이 형성되는 중·고등학교 시기에 학교교육을 통해 출산·가족 친화적인 가치관을 학습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실질적인 교수학습 지도 자료를 개발한다. 여기에서 제시되는 개선방안과 교수학습 지도 자료는 교육적 접근을 통해 지나친 개인주의적 가치관을 지양하고 가족친화적 가치관을 고양시킴으로써 결혼 및 출산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갖도록 가치관의 변화를 유도하는데 기여할 것이다.

제 2 절 연구내용

본 협동연구는 총 8개의 장(章)으로 구성된다. 제1장의 서론부문에서는 연구 배경과 연구목적을 명료하게 밝힌다.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연구내용과 그 방법을 제시한다. 특히, 제3절 연구방법은 본 협동연구의 가장 기초가 되는 「2006년도 전국 청소년 결혼·자녀·성평등 가치관 조사」 설계 등에 할애된다. 연구의 목적에 부합하도록 조사대상(범위)을 설정하는 한편, 표본을 추출하고 조사방법을 결정한다. 조사대상인 청소년의 특수성, 조사내용의 적절성, 항목수 등을 고려하여 구조화된 조사표를 설계한다. 그리고 조사결과로서 응답자(각급학교 학생)의 기본적인 특성을 분석한다. 학생의 기본특성은 개인특성과 가족특성으로 구분하여 제시한다. 학생의 개인특성으로는 거주지, 재학 중인 학교(학교급, 남녀공학 여부, 인문고와 실업고 등), 학년, 성별, 주 양육자, 종교, 희망교육수준 등이 포함된다. 학생의 가족특성으로는 청소년의 가치관 형성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형제자매수, 부모의 생존여부, 부모의 특성(교육수준, 결혼상태, 취업형태 등), 부모간의 관계, 부모-자녀간의 관계, 조부모와의 동거 여부, 가구의 경제수준 등이 포함된다.

이어서 제2장에서는 이론적 고찰을 통해 본 연구의 이론적인 틀을 제시한다. 본 연구에서는 우선적으로 선행연구 및 이론서를 토대로 가치와 가치관의 개념

과 범주를 고찰한다. 본 연구의 대상이 되는 가치관들로서 가족가치관, 결혼관, 자녀관, 성평등관 및 성역할관에 대한 이론적 고찰을 실시한다. 그리고 성교육 및 성관련 지식에 관한 선행연구를 고찰한다. 이러한 작업을 통해 제 가치관과 인구현상 변화간의 관계성을 규명하는 한편, 청소년의 가치관 형성에 있어서 학교교육의 중요성을 조망한다. 이는 본 연구의 연구가설의 기본 틀을 제공하는 이론적 근거가 되기도 한다. 이론적 고찰의 결과는 궁극적으로 본 연구에서 실시하는 청소년 가치관 조사의 기본틀을 설정하고, 그 결과를 분석하는데 활용한다.

제3장은 본 협동연구의 제2권에 해당하는 「2006년도 전국 청소년 결혼·자녀·성평등 가치관 조사」에 관한 내용이다. 여기에서는 조사 결과를 활용하여 초(5~6학년)·중·고 청소년의 가치관을 심층 분석하고, 동시에 학교교육과의 연계성을 파악한다. 분석 결과를 토대로 학생의 가치관 실태의 시사점을 제시하고, 정책적 건의를 한다. 구체적으로 가족가치관, 결혼관, 자녀관, 성평등 및 성역할관, 성교육 및 성관련 의식 및 태도, 저출산·인구고령화 관련 청소년의 의식 등으로 구분하여 분석을 실시한다. 이를 종합화하는 의미에서 학교교육이 학생의 가치관과 성관련 지식수준에 미치는 효과성을 분석한다. 즉, 회귀모형 결과를 토대로 학생들의 가치관 형성 및 성관련 지식수준 제고에 있어서 학교교육의 중요성을 진단한다.

제4장은 본 협동연구의 제3권에 해당하는 「청소년의 결혼·자녀관련 가치정립방안 연구」에 관한 내용이다. 여기에서는 가족의 형성인 결혼과 자녀출산에 영향을 주는 자녀에 대한 가치관의 실태와 친 사회적 가치관의 형성을 위한 방안을 강구한다. 이를 위해 우선 장래 출산력 회복을 위한 초·중등학생 가치관의 중요성을 검토한다. 이어서 실태조사 결과를 심층 분석하여 결혼과 자녀에 대한 초·중등학생의 가치관의 특성을 진단하고, 외국 사례를 분석하여 한국사회에 맞는 방안을 강구한다. 그 중의 하나로 초·중등학생에 대한 결혼과 자녀 친화적 가치관의 형성을 위한 교육방향을 제시한다. 여기에서 교육과정 개편의 일정에 맞추어 가치교육의 단계적 반영 방향과 효과적인 교육을 위한 접근 단계(교사교육 포함)에 대한 제안을 하여 다음 후속연구(교과서 내용보완, 교사교육 및 교재개발 등)에 도움이 되도록 한다.

제5장은 본 협동연구의 제4권에 해당하는 「미래세대의 성평등한 가족문화 및 고용문화 조성을 위한 연구」에 관한 내용이다. 여기에서는 청소년들의 성평등 의식, 가족 및 인구현상에 대한 태도, 일반적 가치관 등의 실태와 상관관계를 분석한다. 초·중등 교과서 내용 분석을 통해 교과서에 나타난 한국사회의 현행 가족문화와 고용문화를 점검한다. 아울러 이론적 검토와 외국의 법, 제도 및 사례들을 검토하여 성평등한 가족문화 및 고용문화를 모색한다. '성평등한 가족문화 및 고용문화 발전 방향'을 토대로 청소년의 성평등 의식 제고 방안을 제안한다.

제6장은 본 협동연구의 제5권에 해당하는 「건강한 미래세대 육성을 위한 성교육방안 연구」에 관한 내용이다. 여기에서는 우선 '성'과 '성교육'의 개념을 명료화하고, 우리나라 학교 성교육의 발전과정을 진단한다. 이어서 학교 성교육의 교과내용체계를 심층 분석하고, 실태조사 결과를 활용하여 학교 성교육에 대한 학생 및 교사의 행태를 파악한다. 주요 선진국의 성교육 운영현황을 분석하기 위하여 일본, 미국, 스웨덴, 덴마크, 독일 등의 성교육 제도를 검토하고, 그 시사점을 도출한다. 또한, 현행 제7차 초·중·고 교과서의 성교육 내용을 분석하여 그 현황 및 개선점을 제시한다. 이들 결과를 종합화하여, 학교 성교육의 개선방안으로서 학교 성교육의 기본방향, 성교육의 내용과 방법, 그리고 지역사회와의 연계방안을 제안한다.

제7장은 본 협동연구의 제6권에 해당하는 「출산·가족 친화적 가치관 형성을 위한 초·중등 교육내용 개선 방안 연구」에 관한 내용이다. 여기에서는 학교교육에서의 가치관 형성 교육의 의미를 살펴보고, 동시에 그 실태를 진단하여 문제점을 도출한다. 이어서 조사결과를 활용하여 출산·가족 친화적 가치관 교육의 실태를 심층 분석한다. 특히, 초·중등학교 교사들의 출산·가족관련 교육 실태 및 교육의 수준, 교육내용의 적합성, 문제점, 개선방안 등에 대한 의견을 심층 분석하여, 교육내용 개선 방안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한다. 아울러 출산·가족 친화적 가치관관련 교육내용체계를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구체적으로 현행 교육과정의 목표, 교과구성 및 편성시수, 교과내용 등의 차원에서 출산 및 가족생활에 대한 비중과 중요성에 대한 검토를 하고, 교육과정 및 교과서 내용 분석을 위한 분석 모형을 정립한다. 이를 토대로 초·중등학교 도덕, 사회, 가정

(실)과 교육과정의 문제점을 진단하는 한편, 교과서 분석을 통해 출산 및 가족에 관한 긍정적 혹은 부정적 태도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교육내용을 탐색한다. 이를 기초로 초등학교 5학년에서부터 고등학교 1학년까지의 도덕과, 사회과, 가정과(실과)에서 출산·가족 친화적 가치관 교육의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또한, 출산·가족 친화적 가치관 교육을 위한 교과별 교수-학습 지도 자료를 초·중등 도덕과, 사회과, 가정과(실과)를 대상으로 개발한다.

끝으로 제8장에서는 본 연구를 결론을 제시하고, 향후 연구에 대한 제언을 한다.

제 3 절 연구방법

본 연구에서 적용한 주요 연구방법으로는 문헌 조사, 국내외 사례 연구, 실태 조사, 심층면접 조사, 기존조사 심층 분석, 교수자료 개발, 전문가회의 개최 등이 포함된다.

우선 문헌 조사는 결혼 및 출산과 관련한 이론을 고찰하기 위한 것이다. 문헌조사는 결혼 및 출산과 관련한 가치 영역별로 실시한다. 구체적으로 가족관련 가치, 결혼관 가치, 자녀 가치, 성평등, 성에 관한 의식 및 태도 등의 변화와 함의에 관한 선행연구를 고찰하고 그 시사점을 도출한다. 또한, 문헌 연구를 통해 '가치교육', '출산력과 성평등간의 관계', '성', '성교육' 등의 개념을 파악한다. 성교육이나 가치관 형성교육 등 교육의 역할 내지 기능에 관한 선행연구고을 실시하고, 그 중요성을 포함한 시사점도 도출한다.

국내는 물론 외국의 기존 연구 자료를 수집하여 초·중등학생 가치 형성을 위한 각종 방안을 강구하는데 참고한다. 예를 들어, 외국 청소년의 가치와 가치교육의 운영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일본, 미국, 호주 등의 사례를 분석한다. 성평등한 가족문화 및 고용문화와 관련하여 외국의 실험적 사례 자료를 수집하여 검토한다. 여기에는 성평등한 고용문화에 관한 스웨덴, 미국, 프랑스 등의 사례들이 포함된다. 그리고 주요국의 성교육 운영현황을 분석하기 위하여 일본, 미국, 스웨덴, 덴마크, 독일 등의 성교육 제도를 검토하고, 시사점을 도출한다.

본 연구에서 적용하고 있는 가장 주된 연구방법으로 미래의 가임세대인 초등학교(5~6학년), 중학교(1~3학년), 고등학교(1~3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결혼 및 출산관련 제 가치관(의식 및 태도)을 조사한다. 실태조사를 위해 전국의 초·중·고 학교 중 일부를 표본추출하고, 조사원에 의한 조사표 배포-회수 방법으로 실시한다. 한편, 선행연구 고찰, 협동연구 연구진 회의, 전문가 회의 등을 토대로 조사항목을 선정하고, 구조화된 조사표를 설계한다. 조사설계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이 장의 제4절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으며, 개발된 조사표(양식)는 본 보고서의 부록에 제시하였다.

조사 결과는 가치관 영역별로 구분하여 심층분석을 실시한다. 그러한 영역들로는 가족가치관, 결혼관, 자녀관, 성평등관 및 성역할관, 성관련 의식 등이 포함된다. 영역별로 학생의 가치관과 개인적·가족적 특성간의 연계성을 분석하고, 저출산·고령사회와 연관하여 정책적 함의를 도출한다. 조사결과의 기술적(記述的) 분석 즉, cross-sectional 분석, x^2분석 등을 위해 통계패키지 SPSS(12.0 version)을 활용하였다. 특히, 학교교육이 학생의 가치관 형성 및 성관련 지식수준에 미치는 영향력을 분석하기 위해 다변량분석을 실시한다. 모형에는 독립변수로서 가족, 자녀, 성평등, 성역할, 성지식 관련 학교교육 정도(학생 개인의 수업경험 여부)가 포함되며, 통제 목적으로 학생의 개인특성과 가족특성이 포함된다. 종속변수로는 학생의 가치관(가족관, 결혼관, 자녀관, 성평등관 및 성역할관)과 성지식 수준이 포함된다.

또한, 초등학교 5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학생 11,240명의 성평등 의식을 살펴보기 위해 조사된 성평등 의식 관련 10문항에 대해서 요인추출 모델 가운데 공통요인분석(common factor analysis)을 실시한다. 구체적으로 공통요인분석방법의 하나인 주축요인분석(Principal Axis Factor-PAF)을 실시한다. 요인수를 지정하지 않고 직각회전 방식인 베리믹스 방식으로 주축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모두 여섯 번의 회전후 고유치(eigenvalue)가 1이 넘는 두 개의 요인이 나타난다. 먼저 가족영역의 5문항은 각각 '전통적·가부장적 가족관'과 '성평등 가족관'의 두 유형으로 요인 적재되었다. 다음으로 직업영역의 5문항은 각각 '성차별적 직업역할 및 관계'와 '성평등한 직업관'으로 요인 적재되었다.

한편, 미래 가임세대와 현재 가임세대로서 미혼남녀와 기혼여성간의 가치관

차이를 분석하기 위한 방법으로 기존 조사결과를 비교·분석하도록 한다. 이를 위해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실시한 「2005년 전국 결혼 및 출산 동향 조사」 결과를 활용하였다. 실제 2005년 조사 결과와의 비교·분석이 가능하도록, 청소년 실태조사에 2005년 조사항목의 일부를 동일하게 유지시켰다. 특히, 본 조사에서 활용된 가치관련 모듈화 항목들은 국내 조사로서 통계청의 사회통계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전국 결혼 및 출산동향조사, 한국여성개발원의 전국가족조사 등이 참조되었다. 국외 조사로는 일본의 출생동향기본조사, 전국가족동향조사, 전국가족계획조사 등과 유럽의 출산가족조사(Fertility and Family Surveys Project)를 참조하였다.[1] 미국의 조사로는 NLSY(National Longitudinal Survey of Labor Market Experience for Youth: 패널) 등이 참조되었다.

초·중등학생의 가치관과 원인을 정확하게 측정한다는 것이 어려우므로 양적 조사결과에서 얻기 어려운 내용이나, 보완이 필요할 경우에는 심층면접을 실시한다. 심층면접조사의 대상으로는 여러 분야의 전문가들은 물론 현장 교사들이 포함된다. 특히, 연구결과를 학교교육에 반영하기 위해서 각급 학교 현장과 교원 교육기관을 직접 방문하여 면담을 실시한다.

학교교육 현장에서 결혼, 가족, 출산 및 자녀, 성평등 및 성역할, 성교육 등에 관한 가치관 내지 지식이 교육과정 및 교과내용 체계에서의 반영·적용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 초·중등 교과과정 및 교과서의 내용분석을 실시한다. 또한, 출산·가족 친화적 가치관 교육을 위한 교수-학습 지도자료를 개발한다.

저출산 및 고령사회에 적합한 가치관을 정립하고, 이에 관한 교육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실증적인 연구결과를 기반으로 각계각층의 공감대 형성이 중요하다. 이와 관련하여, 본 연구에서는 연구 결과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연구 전 과정에 걸쳐 필요시마다 전문가회의와 평가회의 등을 개최하여 의견을 수렴·반영하도록 한다.

---

1) FFS는 1990년대 이래 ECE 23회원국과 뉴질랜드가 참여한 프로젝트 형식의 다국적 조사로서 출산력을 포함한 서구사회의 가족 변화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개인적 상황 및 의식과 사회경제 변화간의 연계를 도모하는 등 미시적, 거시적 접근방법을 동시에 적용하고 있다. 조사대상에는 여성과 남성, 모든 결혼상태, 미혼모 등이 포함된다.

제 4 절 청소년 결혼·자녀·성평등 가치관 조사 설계

1. 조사대상

신뢰도 높은 통계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가능하면 많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조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그러나 예산과 조사기간이 한정된 현실에서 조사규모는 전국 132개 학교에서 약 13,000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하였다. 표본추출을 위한 기초 자료는 2005년 교육통계연보를 활용하였고, 표본추출 단위는 선정된 학교에서 각 학년별로 1개의 학급을 선정하여 모든 학생을 조사하였다.

초등학생의 경우에는 응답능력 및 신뢰성을 고려하여 5~6학년(각 1학급)만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중·고등학생의 경우 전 학년(각 1학급)을 대상으로 하였다. 본 보고서에서는 이들 초(5~6학년)·중(1~3학년)·고(1~3학년) 학생들을 '학생', '청소년', '미래세대' 등의 용어로 혼용하여 사용하였다. 전국 모집단을 토대로 한 학생조사는 통계청의 승인에 따라 국가통계로서 지정받았다(정부승인통계 승인번호 06021호). 한편, 교사조사는 학생조사의 부가조사 형태로 실시되었다. 즉, 교사조사 대상은 학생조사 대상 초·중·고 학교에서 근무하고 있는 일부 교사로 선정하였다. 초등학교의 경우에는 담당과목 교사가 지정되어 있지 않은 관계로 5~6학년 담임 중 무작위로 설정하였다. 조사 교사는 초등학교 2명(5~6학년 담임 2명), 중학교와 고등학교 각 9명(1~3학년 담임 3명, 도덕교사 1명, 기술·가정교사 1명)으로 약 1,000명이 포함되었다.

2. 조사수행체계 및 조사방법

본 조사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출산·고령사회정책본부)가 공동으로 실시하였으며, 교육인적자원부 및 각급 교육청의 협조를 받았다. 본 조사는 2006년 9월 21일부터 10월 21일까지 약 1개월에 걸쳐 실시되었다. 일부 학교를 제외하고는 표본학교의 교사가 직접 조사를 실시하였다.

3. 표본추출

가. 모집단

본 조사의 모집단은 11~18세에 속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다. 본 조사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므로 학교에 재학하지 않거나 시설에 보호되는 청소년도 포함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청소년에 대한 규모 파악은 별도의 자료 수집이 필요한 사항이며 전체 모집단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음으로 전국의 초등학교 5~6학년, 중등학교 재학생(각 1~3학년)을 표본설계 모집단으로 하였다. 표본설계 모집단으로 하는 전국의 지역별 학교수는 <표 1-1>과 같다.

〈표 1-1〉 전국의 지역별·학교급별 학교수

(단위: 학교)

학교급		지역			전체
		대도시	중소도시	농촌	
초등학교		1,513	1,460	3,233	6,206
중학교		919	769	1,307	2,995
고등학교	인문계	535	488	360	1,383
	실업계	204	207	327	738
계		3,171	2,924	5,227	11,322

자료: 교육인적자원부, 「2005년 교육통계연보」, 2005.

나. 표본추출 방법

최종 조사단위인 학생을 표본추출하기 위해서는 조사 연령의 학생에 대한 학년, 이름, 성별, 연령, 거주지 등에 대한 명부(표본틀)를 구축하여 표본 추출하는 방법을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표본 추출은 표본틀 구축에 많은 시간과 경비가 소요되므로 다단계 집락표본추출을 사용하였다. 즉 1단계로 학교를 추출하고 추출된 학교에서 학급을 추출하는 방법을 택하였다. 전국의 학교를 지역(대도시, 중소도시, 농촌)과 학교급(초등학교, 중학교, 인문계고등학교, 실업계고등학교)으로 층화하여, 각 층에서 조사대상 학교를 선정하였다. 132개 표본 학교의 각 층별 배분은 층의 학급수에 비례하되 상대적으로 학급수가 많

은 초등교는 0.8의 가중치를 주었고 학급수가 적은 실업계고등학교는 1.2의 가중치로 학교수를 배정하였다.

〈표 1-2〉 전국 지역별·학교급별 학급수

(단위: 학급)

구분	지역			전체
	대도시	중소도시	농촌	
초등학교(5~6학년)	18,519	18,693	4,089	41,301
중학교(1~3학년)	25,749	25,145	5,078	55,972
인문계 고등학교(1~3학년)	18,518	16,072	2,398	36,988
실업계 고등학교(1~3학년)	6,577	7,570	2,467	16,614
계	69,363	67,480	14,032	150,875

자료: 교육인적자원부, 「2005년 교육통계연보」, 2005.

〈표 1-3〉 지역별·학교급별 표본 학교수

구분	지역			전체
	대도시	중소도시	농촌	
초등학교(5~6학년)	14	12	5	31
중학교(1~3학년)	22	20	5	47
인문계 고등학교(1~3학년)	19	15	4	38
실업계 고등학교(1~3학년)	6	6	4	16
계	61	53	18	132

표본 학교 추출은 학교를 특성(남학교, 여학교, 남녀공학)과 지역(시·군·구)에 의하여 분류한 후 학교의 학급수에 확률 비례한 계통추출로 표본 학교를 추출하였다(표 1-3 참조). 추출된 학교 내에서 학년별 1개 학급은 난수표를 사용하여 무작위 추출하였다.

다. 표본추출 결과

표본추출 결과 전국의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10,690개 학교에서 1.6%에 해당하는 132개 학교를 추출하였고 학년 당 1개 학급을 조사대상으로 한 결과 학급당 학생수를 35명으로 가정 할 경우 약 12,775명이 조사대상 학생으로 선정되었다(표 1-4 참조).

〈표 1-4〉 학령별 표본 학급수 및 학생수

(단위: 천명, 개, %)

구분	모집단 학생수 (천명,%)	모집단 학교수 (개)	1.6% 표본학교 (개)	표본 학급수·학생수(추정)	
				표본학급수 (학년당 1학급)	표본학생수 (학급당 평균 35명 기준)
초(5~6학년)	1,380(26.8)	5,642	31	62	2,170
중(1~3학년)	2,010(39.0)	2,935	47	141	4,935
고(1~3학년)	1,763(34.2)	2,113	54	162	5,670
계	5,153(100.0)	10,690	132	365	12,775

4. 모집단 추정방법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모집단에 대한 추정은 표본추출 확률, 조사무응답 조정, 기지의 정보를 활용한 사후층화 과정을 거친다. 본 조사는 어떤 특성 Y를 갖는 학생수에 대한 학령, 지역, 성별로 신뢰도 높은 추정을 주된 목적으로 하며 층화추출로 조사되었음으로 가중표본합계치(weighted sample total)에 의한 평균 및 구성비를 사용한다. 또한 이용의 편의를 위하여 조사 결과에 나타난 총 학생수를 가중표본합계치와 일치되도록 하였다. 가중표본합계치(Weighted Sample Total)와 표본오차는 다음의 방법에 의하여 계산하였다.

① 학생 총수 추정용 승수 공식(1)에 의하여 산출하였다.

$$M_{hi} = \frac{N_h}{n_h} \quad \frac{A_{hi}}{B_{hi}} \tag{1}$$

이 공식에서 M_{hi}=학생총수 추정용 승수, h=층의 첨자(1, 2, 3, ··, 12)
i = 학급을 나타내는 첨자 j = 학급내의 학생을 나타내는 첨자
n = 표본학급수 A = 학급내 총학생수(미조사 학생 포함)
B = 조사완료 학생수

② 공식 (1)의 승수를 학급별 조사완료 학생수에 곱하고, 이를 합산하여 조사모집단의 총학생수를 추정하였다.

$$\hat{B} = \sum_h \sum_i \sum_j M_{hi} B_{hij} \tag{2}$$

③ 조사완료학생수를 집계 다음과 같이 계산하였다.

$$B = \sum_h \sum_i \sum_j B_{hij} \tag{3}$$

④ 공식 (2)의 총학생수 추정치를 (3)의 조사완료 학생수로 조정하기 위하여 공식 (1)의 총수 추정용 승수를 가중표본합계치 산출용 승수로 변환하였다.

$$W_{hi} = M_{hi} \left(\frac{B_{hi}}{\widehat{B_{hi}}}\right) \tag{4}$$

⑤ 공식 (4)의 승수를 조사완료 학생수에 적용하여 합산하는 방법으로 가중표본합계치를 산출하였다.

$$\widehat{Y} = \sum_{h}\sum_{i}\sum_{j} W_{hi}\, Y_{hij} \tag{5}$$

추정치의 표본오차는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⑥ 층 h에서의 추정치 $\widehat{Y_h}$ 의 분산은

$$Var(\widehat{Y_h}) = \sum_{i}^{n_{hi}} N_{hi}^2 \left(\frac{N_{hi} - n_{hi}}{N_{hi}}\right)\frac{s_{hi}^2}{n_{hi}} \tag{6}$$

$$\text{여기서 } s_{hi}^2 = \frac{1}{n_{hi}-1}\left(\sum_{j}^{n_{hi}} y_{hij}^2 - \frac{(\sum_{j}^{n_{hi}} y_{hij})^2}{n_{hi}}\right)$$

⑦ 표본오차 $SE(\widehat{Y_h}) = [Var(\widehat{Y_h})]^{1/2}$ (7)

⑧ 상대표본오차 $RSE(\widehat{Y_h}) = \dfrac{SE(\widehat{Y_h})}{\widehat{Y_h}} \cdot 100$ (8)

5. 조사항목

조사항목의 선정 기준으로는 연구주제에 적합하도록 학생 및 가족의 일반사항 이외 가족관, 결혼관, 자녀관, 성역할관, 성교육 등에 직접 연관성이 있는 항목들을 우선적으로 배정하였다. 또한, 학생대상 조사의 특수성과 조사항목수 등 제약점을 감안하여 지나치게 광범위한 주제에 해당하는 조사항목은 가급적 배제하도록 하였다. 이렇게 선정된 조사항목은 <표 1-5>와 같다(조사표는 부록 참조).

〈표 1-5〉 조사항목 분류 체계

구분	문항수	문항내용
개인·가족 사항	13	성별, 학교급, 학년, 지역, 종교, 희망 교육수준 형제자매수, 형제자매수에 대한 태도, 양육대상자 부모생존여부, 부모 이혼여부, 부모의 학력, 부모의 취업상태 가족구성(확대·핵가족), 가구의 경제상태
가족관계	2	본인과 부모와의 관계, 부모간의 관계
가족관	9	학생의 가족관(6) 과목별 가족내용, 학습한 가족내용, 가족내용 이해도
결혼관	16	결혼에 대한 태도, 결혼 적령기에 대한 의견, 결혼관(12) 학생본인의 결혼 의향, 배우자의 조건
자녀관	15	자녀의 필요성, 학생의 자녀관(10) 학생본인의 자녀 출산 의향, 희망 자녀수, 남아 선호 여부 자녀양육에 대한 교육 경험
성역할관	8	부모의 가사분담 정도 부부간 가사분담, 자녀양육분담, 의사결정권자에 대한 태도 학생의 성역할관(3) 남학생의 자녀양육 교육에 대한 태도
양성평등의식	1	양성평등에 대한 일반적 의식
성교육	16	학교 성교육 내용, 도움 정도, 학교 성교육 담당 과목 학교 성교육외 성지식 습득경로, 습득내용, 성지식 정도(5) 성문제 상담 대상자 남성·여성의 혼전순결, 혼전임신, 인공유산에 대한 태도 이성교재 경험
정책	2	학교의 저출산고령화 교육경험 여부, 저출산고령화정책 인지도
고령화	4	조부모와의 동거에 대한 선호도 노인부양의 책임에 대한 태도, 부모부양의 책임에 대한 태도 노인이 된 본인 부양의 책임에 대한 태도

6. 조사결과 및 조사대상의 기본특성

가. 조사결과

132개 학교에 대하여 조사를 실시한 결과 1개 학교를 제외한 총 131개 학교에서 조사가 완료 되었다. 최종적으로 조사가 완료된 학생들은 총 11,250명이다(표 1-6 참조). 성별로는 남자가 여자보다 약간 많게 조사되었고 남녀공학인 학급에서 10명의 성별 미상이 발생하였다(표 1-7 참조).

〈표 1-6〉 지역별 조사결과

(단위: 명)

구분	대도시	중소도시	농촌	전체
초등학교(5~6학년)	761	808	328	1,897
중학교(1~3학년)	2,146	1,837	519	4,502
인문고등학교(1~3학년)	1,722	1,679	528	3,929
실업고등학교(1~3학년)	439	405	78	922
계	5,068	4,729	1,453	11,250

〈표 1-7〉 성별 조사결과

(단위: 명)

구분	남자	여자	무응답	전체
초등학교(5~6학년)	1,005	889	3	1,897
중학교(1~3학년)	2,394	2,104	4	4,502
인문고등학교(1~3학년)	2,020	1,907	2	3,929
실업고등학교(1~3학년)	447	474	1	922
계	5,866	5,374	10	11,250

나. 조사완료 학생의 기본 특성

1) 개인적 특성

조사완료 학생의 개인적 특성으로 거주지, 성별, 학년구분(연령에 준함), 희망 교육수준, 믿고 있는 종교를 살펴보았다. 우선 조사완료 학생의 거주지로는 대도시가 43.9%, 중소도시가 44.0%로 유사하며, 나머지 12.1%는 농촌(군지역)에 거주하고 있었다(표 1-8 참조).[2)]

2) 본 연구에서 대도시는 서울특별시와 광역시에서 자치구를 포함하며, 광역시에 소재한 군(郡)은 농촌에 포함된다.

〈표 1-8〉 조사완료 학생의 개인적 특성

(단위: %, 명)

구분	전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인문계	실업계
거주지					
대도시(광역시 이상 구)	43.9	42.0	45.6	42.0	46.7
중소도시	44.0	42.7	44.8	45.2	38.0
농촌(군지역)	12.1	15.4	9.6	12.8	15.3
성별					
남자	52.1	51.9	52.8	50.9	53.0
여자	47.8	47.9	47.1	49.0	46.9
무응답	0.1	0.2	0.1	0.1	0.1
학년구분					
초등학교 5학년	9.1	53.6	-	-	-
초등학교 6학년	7.8	46.4	-	-	-
중학교 1학년	13.8	-	32.8	-	-
중학교 2학년	14.3	-	33.8	-	-
중학교 3학년	14.1	-	33.4	-	-
고등학교 1학년	13.9	-	-	35.0	30.5
고등학교 2학년	14.2	-	-	33.6	39.3
고등학교 3학년	12.7	-	-	31.4	30.2
희망 교육수준					
중학교	0.6	0.6	1.2	0.1	
고등학교	5.6	6.0	6.2	2.6	13.4
대학교	73.2	66.3	73.2	75.3	79.1
대학원	20.4	26.7	19.3	21.9	7.4
무응답	0.2	0.4	0.1	0.1	0.1
종교					
불교	18.0	20.8	18.9	15.3	18.0
개신교(기독교)	31.1	38.9	31.0	28.7	25.2
천주교	8.5	8.5	9.6	7.7	5.8
기타 종교	2.0	2.5	2.0	1.5	3.3
종교 없음	40.3	29.3	38.3	46.6	47.7
무응답	0.1	0.1	0.1	0.1	-
전체(명)	100.0(11,250)	100.0(1,900)	100.0(4,750)	100.0(3,630)	100.0(959)

조사완료 학생의 성별은 남학생(52.1%)이 여학생(47.8%)에 비해 다소 높았으며, 이는 남아선호사상에 따른 높은 출생성비와 진학률 차이에 기인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일부 학생의 경우 1~2세 편차가 있을지라도, 대체적으로 학년구분은 학생의 연령과 일치하는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조사완료 학생의 학년은 모집단의 분포에 따르는 것으로 중학교 2~3학년과 고등학교 2학년은 14%대,

중학교 1학년과 고등학교 1학년은 13%대, 고등학교 3학년은 12%대로 큰 차이가 없는 반면, 초등학교 학생은 10% 미만(5학년 9.1%, 6학년 7.8%)으로 상대적으로 적었다. 이는 지속적인 저출산현상에 따른 출생아 감소와 관련이 있다고 하겠다.

조사완료 학생들이 희망하는 교육수준은 대학교 73.2%, 대학원 20.4%로 93.5%가 대학 이상의 진학을 희망하고 있으며, 고등학교에서 학업을 마치겠다는 비율은 5.6%에 불과하였다. 조사완료 학생의 종교로는 종교없음이 40.3%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개신교(기독교) 31.1%, 불교 18.0%, 천주교 8.3% 순으로 나타났다.

2) 조사완료 학생의 가족적 특성

조사완료 학생의 가족적 특성으로 형제자매수, 학생의 주양육자, 부모의 생존여부, 부모의 혼인상태, 조부모와 동거여부, 학생-부모 관계를 살펴보았다.

조사완료 학생의 형제자매수는 학생 본인을 포함하여 2명이 63.4%로 압도적으로 높았으며, 다음으로 3명이 19.3%, 1명이 12.6% 순으로 나타났다. 4명 이상 형제자매를 둔 학생도 4.6%나 되었다. 조사완료 학생의 주된 양육자로는 부모(함께)가 73.1%로 나타났으며, 모가 주로 돌본 경우는 13.9%였다. 조모·외조모가 주로 양육한 학생의 비율은 9.2%로 비교적 높게 나타난 반면, 부가 주로 돌본 비율은 1.7%에 불과하였다. 부모 모두가 생존해 있는 학생은 전체의 96% 수준이며, 모만 생존하고 있는 비율은 2.6%, 부만 생존하고 있는 비율은 1.2%, 그리고 부모 모두 사망한 비율은 0.3%로 나타났다. 조사학생 중 부모가 결혼상태에 있는 비율은 86.5%이며, 이혼·별거 중인 비율은 8.6%로 나타났다(표 1-9 참조).

〈표 1-9〉 조사완료 학생의 가족적 특성

(단위: %, 명)

구분	전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인문계	실업계
형제자매수(본인 포함)					
1명	12.6	9.6	14.1	12.3	12.0
2명	63.4	66.6	61.7	64.9	60.3
3명	19.3	20.0	19.4	18.3	21.3
4명 이상	4.6	3.8	4.7	4.4	6.5
학생의 주된 양육자					
부모 함께	73.1	73.9	74.0	72.6	68.3
모가 주로	13.9	12.9	12.8	15.2	15.8
부가 주로	1.7	2.4	1.7	1.3	2.1
조모·외조모	9.2	8.8	9.3	9.0	10.3
조부·외조부	0.4	0.4	0.5	0.2	1.0
형제자매	0.3	0.3	0.3	0.2	0.4
이웃	0.2	0.4	0.1	0.2	0.2
도우미	0.3	0.1	0.3	0.4	0.1
기타	1.0	0.8	1.0	0.9	1.8
부모 생존 여부					
모두 생존	95.7	96.6	96.0	96.0	90.9
부만 생존	1.2	1.2	1.4	0.9	1.2
모만 생존	2.6	1.5	2.1	2.7	7.1
모두 사망	0.3	0.4	0.3	0.3	0.7
무응답	0.2	0.4	0.2	0.1	-
부모 이혼·별거 상태					
예	8.6	6.4	8.7	7.6	16.6
아니오	86.5	90.0	86.8	87.9	73.8
무응답	0.5	0.2	0.5	0.6	0.5
부 또는 모 사망	4.3	3.5	4.0	4.0	9.0
학생과 부모와의 관계					
매우 좋은 편	38.8	59.2	38.2	31.7	28.9
좋은 편	38.2	25.1	39.4	43.4	38.4
보통	16.5	10.3	16.3	18.3	23.3
나쁜 편	1.9	0.6	1.6	2.6	3.4
매우 나쁜 편	0.4	0.2	0.4	0.4	0.8
모르겠음	3.0	2.8	2.9	2.9	4.2
무응답	0.6	1.0	0.8	0.2	0.3
부모 사망	0.5	0.8	0.5	0.4	0.7
조부모와 동거여부					
예	17.7	18.2	19.9	14.3	18.2
아니오	82.3	81.7	80.0	85.7	81.8
무응답	0.1	0.2	0.1	-	-
전체(명)	100.0(11,250)	100.0(1,900)	100.0(4,750)	100.0(3,630)	100.0(959)

조사완료 학생 중 부모와의 관계는 좋은 편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38.2%, 매우 좋은 편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38.8%로 전체적으로 77.0%가 긍정적인 관계로 응답하였다. 부모와의 관계가 보통이라는 학생의 비율은 16.5%이며, 부정적인 관계라고 응답한 비율은 2.3%(좋지 않은 편 1.9%, 매우 좋지 않은 편 0.4%)로 나타났다. 그러나 상급학교 학생일수록 부모와의 관계를 긍정적으로 보는 비율이 감소하는 반면, 보통이라는 응답과 좋지 않은 편이라는 응답 학생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조부모와 동거하고 있는 학생은 17.7%로 나타났으며, 학교급별로는 특이하게 인문계 고등학생의 경우 14.3%로 상대적으로 낮았다.

3) 조사완료 학생의 부모 특성

조사완료 학생의 부모 특성으로는 부모의 학력수준, 경제활동상태, 부부관계 등이 조사에 포함되었다. 부모의 학력수준은 공히 고등학교와 대학 이상의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부의 경우 고등학교 39.0%, 대학교 28.0%, 대학원 5.8%, 모의 경우 고등학교 48.7%, 대학교 20.2%, 대학원 2.6% 순으로 나타났다. 부의 학력으로 대학교 이상 고학력 비율이 34.6%로 모의 22.8%에 비해 높았다. 상급학교 학생의 부모일수록 학력수준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는 이유로는 최근일수록 즉, 젊은 층 부모일수록 학력수준이 높아지고 있는 추이와 관련이 있다(표 1-10 참조).

부모의 경제활동상태를 보면, 조사 당시 부모 모두 취업 중인 비율은 62.0%, 부만 취업하고 있는 비율은 30.1%, 모만 취업하고 있는 비율은 4.5%, 부모 모두 취업하고 있지 않은 비율은 2.4%로 나타났다.

조사완료 학생 중 2/3 정도(좋은 편 34.5%, 매우 좋은 편 32.7%)가 부모간의 관계를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보통이라고 응답한 학생의 비율은 17.5%이며, 부정적인 응답은 6.0%(나쁜 편 4.0%, 매우 나쁜 편 2.0%)로 비교적 낮았다. 그러나 상급학교 학생일수록 '보통' 응답과 부정적인 응답 비율은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패턴은 두 가지의 이유로 설명될 수 있다. 학생들이 성장하면서 부모간의 관계를 보다 현실적으로 판단하기 때문일 수 있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실제 결혼생활이 길어지면서 부모간의 관계가 나빠질 수 있다는 점이다.

〈표 1-10〉 조사완료 학생의 부모 특성

(단위: %, 명)

구분	전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인문계	실업계
부의 학력					
무학	0.2	0.2	0.2	0.1	0.5
초등학교	3.0	1.2	2.4	3.5	7.5
중학교	5.9	2.0	5.6	7.4	10.0
고등학교	39.0	22.9	38.3	46.0	47.5
대학교	28.0	29.8	30.0	28.1	13.6
대학원	5.8	5.4	6.0	7.0	1.0
모르겠음	14.8	35.8	14.6	4.8	11.9
무응답	0.2	0.5	0.2	0.1	0.3
사망	3.1	2.3	2.6	3.1	7.7
모의 학력					
무학	0.3	0.1	0.3	0.2	0.9
초등학교	3.2	1.0	2.4	4.0	8.6
중학교	7.2	2.7	5.8	9.6	13.8
고등학교	48.7	31.1	47.7	58.5	51.4
대학교	20.2	24.3	22.4	18.2	8.4
대학원	2.6	3.1	3.1	2.3	0.3
모르겠음	15.6	35.5	15.7	5.6	13.9
무응답	0.5	0.3	0.7	0.2	0.6
사망	1.7	1.9	1.9	1.3	2.0
부모의 취업상태					
부모 모두 취업	62.0	60.9	62.1	62.5	62.1
부만 취업	30.1	32.8	30.6	30.0	23.3
모만 위업	4.5	2.7	4.0	4.7	9.9
부모 비취업	2.4	1.8	2.5	2.2	3.4
무응답	0.4	0.9	0.3	0.2	0.5
부모간의 관계					
매우 좋은 편	32.7	43.1	34.9	27.4	21.3
좋은 편	34.5	29.9	33.5	38.8	32.3
보통	17.5	15.2	16.7	19.0	20.4
나쁜 편	4.0	2.9	3.6	4.6	5.8
매우 나쁜 편	2.0	1.6	1.5	2.2	4.3
모르겠음	3.4	2.7	4.0	2.7	4.2
무응답	1.6	1.1	1.9	1.4	2.7
부 또는 모 사망	4.3	3.5	4.0	4.0	9.1
전체(명)	100.0(11,250)	100.0(1,900)	100.0(4,750)	100.0(3,630)	100.0(959)

주: 부모의 학력은 중퇴, 재학은 졸업으로 간주하여 해당 학력에 포함시킴.

4) 조사완료 학생의 가구경제 특성

끝으로 조사완료이 주관적으로 판단한 가구의 경제상태에 관한 조사 결과이다. 이와 같은 주관적인 경제상태는 가구의 경제수준을 파악하기 위해 대체변수(proxy variable)로 질문하였으며, 그 배경에는 학생들을 통해 가족의 경제수준을 정확하게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조사결과, 가족의 경제수준이 보통이라는 응답이 64.2%로 가장 높았다. 가족경제가 좋다는 판단은 15.6%(잘사는 편 13.7%, 매우 잘사는 편 1.9%)로 나쁘다는 판단 16.2%(못사는 편 14.7%, 매우 못사는 편 1.5%)로 유사하게 나타났다. 그러나 학교급별로 비교하여 보면, 상급학교 학생일수록 가족경제를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비율이 아주 높게 나타나며, 반대로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비율이 낮게 나타났다. 특히, 실업계 고등학생 중 32.8%가 가족경제수준을 부정적으로 생각하여,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비율 5.9%에 비해 아주 높았다. 이러한 차이는 실제 가구경제의 차이에 기인하기보다 성장단계로 간주할 수 있는 학교급에 따라 학생들의 가족경제에 대한 판단이나 태도가 변화하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상급학교일수록 교육비 등 가족의 자녀양육비 부담이 증가하여, 학생들 스스로가 가족경제의 곤란성을 체감하고 있기 때문으로도 설명할 수 있겠다(표 1-11 참조).

〈표 1-11〉 조사완료 학생이 주관적으로 판단한 가구의 경제수준

(단위: %, 명)

구분	전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인문계	실업계
주관적 가구경제수준					
매우 잘 사는 편	1.9	4.6	1.9	1.0	0.4
잘 사는 편	13.7	24.3	14.4	9.2	5.5
보통	64.2	59.0	65.8	66.5	58.3
못 사는 편	14.7	5.6	11.8	19.2	30.0
매우 못사는 편	1.5	0.4	1.5	1.6	2.8
모르겠음	3.9	5.8	4.4	2.4	2.9
무응답	0.1	0.2	0.1	0.1	-
전체(명)	100.0(11,250)	100.0(1,900)	100.0(4,750)	100.0(3,630)	100.0(959)

제 2 장 이론적 고찰

제 1 절 가치와 가치관에 관한 이론적 고찰

가치는 행동의 방향과 선택에 영향을 주는 바람직한 것 또는 하여야 할 것에 관한 일반적인 개념으로서(박수현, 2003), 부분적으로 지적인 동시에 감정도 포함하는 정신적인 구성개념이며, 태도, 행동, 선택의 기초가 되는 근본적인 신념이다(최연실, 1995). 가치가 적용되는 범위보다 훨씬 넓으며 더 일반적인 행동장면을 포함하는 가치관은 여러 가지 인간문제에 관하여 바람직한 것과 해야 할 것에 관한 일반적인 생각 또는 개념으로 이해된다(유영주 외, 2000). 유사한 맥락에서, 가치관을 사람들로 하여금 어떤 행동을 일으키게 하는 심리적 요인으로 파악되기도 한다(김태길, 1996). 또한 가치관은 개인의 행동을 구속하는 평가적 표준이나 이념 내지 신념으로 규정되기도 한다(정원식, 1969). 가치관의 이러한 속성으로 인하여 행동방향을 결정해주고 나아가 만족감이나 행불행의 판단의 기준이 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김경신, 1998).

가치나 가치관은 한 개인뿐만 아니라 사회집단의 특성일 수도 있으므로 궁극적으로 한 사회집단 또는 한 국가의 가치관이란 그 사회의 성원 각자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의 집결체라고 볼 수 있다(박수현, 2003). 그 결과 개인적으로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가치관은 공동의식을 형성하는데 중요한 요인이 되며 그 사회의 각종 활동을 영위해 나가는데 필수 불가결한 규율을 제공하게 된다(김경신, 1998).

한 사회의 가치관은 이러한 한 때의 평면적인 총화로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사회집단의 역사적인 경험의 축적과 그 성원들이 이루는 사회적 관련 및 구조 여하에도 크게 관계되어 있다(유영주 외, 2000). 최근의 많은 연구들은 한국인의 가치관이 집단주의적 가치관에서 개인주의적 가치관으로, 권위

주의적 가치관에서 평등주의적 가치관으로, 숙명적 자연관에서 정복 지향적 자연관으로, 인본주의적 가치관에서 물질주의적 가치관으로 변천하고 있으며, 한편으로는 두 대립하는 가치관 사이에서 혼동을 경험하고 있다고 제시하고 있다(박수현, 2003).

Mead는 인간은 태어나면서 부모와 가족들의 상호작용으로 사회화가 시작되어 소년기를 지나면서 사회의 일반적 규범과 가치가 무엇인가를 인식하게 되고 또 스스로 바람직한 규범체계나 가치체계를 내면화시킴으로서 공동체 내에서 가치관을 보다 체계적으로 완성시킨다고 하였다(유영주 외, 2000). 이는 곧 개인의 태도와 가치관은 그가 속하고 있는 집단의 신념, 가치, 규범 등의 영향을 받아 형성됨을 의미한다.

가치관과 생활행동이라는 생활문화는 다양한 조건에 의해 영향을 받는데, 사회문화적 경험을 공유하는 특성을 지닌 세대는 다른 사회·인구학적 변인보다 가치관과 생활행동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임을 짐작할 수 있다(박수현, 2003). 정명숙·김혜리(2005)에 의하면, 동일 연령집단에 속하는 사람들은 동일한 문화권에서 비슷한 시기에 출생하였기 때문에 서로 비슷한 역사적·사회적·문화적 경험을 하게 되고 이러한 유사한 삶의 경험을 통해 사고방식과 행동방식에 공통점을 갖게 된다는 점에서 하나의 세대로 규정할 수 있다. 삶의 경험과 성장 배경이 서로 다를 때 사람들이 보이는 가치관이나 행동특성도 달라지게 되며, 이를 흔히 세대차라 부른다(Elder, 1984; 박재홍, 1999). 따라서 각 세대의 경험이 그 세대만의 의식을 형성하고, 행위 양식을 특징짓게 된다(박수현, 2003).

우리나라는 미국, 일본, 중국 등 다른 여러 나라에 비해 사회의 변화 속도가 빠르고 그로 인해 세대 차이도 그 어느 나라보다 더 크게 나타난다고 지적되고 있다(나은영·민경환, 1998; 나은영·차재호, 1999). 출생년도에 관계없이, 높은 탈물질주의 또는 낮은 탈물질주의(즉, 물질주의) 가치관을 지니고 있는 선진국이나 후진국과는 달리, 한국과 같이 급격하게 변화하는 사회에서는 고연령층은 물질주의에 머물고 있는 데 반해 젊은 층은 급속히 탈물질주의 쪽으로 이동하기 때문에 세대차이가 커지게 된다는 것이다(Inglehart, 1997).

선행연구들은 일반적인 가치관과 마찬가지고 가족가치관에서도 젊은 세대에

이르러 전통적 의식이 많이 약화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지만, 영역에 따라 아직도 전통적인 가치가 많이 남아 있음도 아울러 보여주고 있다(공미혜, 1993; 양명숙, 1996; 조소연·오윤자 2001). 김경신(1998)은 중년과 청소년들은 남성이 여성보다 더 가족 중심적이고 가부장적인 데 반해, 노년에는 남녀 간에 차이가 없거나 또는 여성이 더 가족중심적임을 보여주었다.

한 사회 또는 개인의 욕구 내지 관심이 변화하면 그 사회나 개인이 인정하는 가치에도 변화가 나타나므로(김태길, 1996) 우리 사회의 급격한 변화가 가치의 변화를 동반함은 당연한 사실이다(김경신, 1998). 그러나 오늘날의 세대들은 이전 세대들보다 더 많은 선택에 직면하고 있으며 시대의 복잡성으로 인하여 선택하는 것이 더욱 어렵게 되어 있다(유영주 외, 2000). 이러한 변화는 필연적으로 세대간 혹은 연령집단간 가치 차이를 초래하는데, 이러한 가치 차이가 심화될 때 여러 가지 가족갈등이나 사회문제가 파생되기도 한다(김경신, 1998). 사회와 문화가 급속도로 변화하여 가치관의 혼돈이 있는 오늘날에는 한번 선정한 가치관을 계속 고수하기가 어렵고 재평가, 재선별의 과정이 필요한 실정이다(박수현, 2003).

제 2 절 가족가치관에 관한 이론적 고찰

Ackerman은 "가족의 기능이란 생물학적으로는 가족을 유지하는 일이며, 심리적으로는 가족원간의 상호의존으로 애정적 욕구를 충족시키는 것이며, 경제적으로는 상호협력·협동에 의한 생활의 안정을 꾀하는 것이며, 사회문화적으로는 사회의 도덕이나 관습에 적응하는 일"이라고 정의하고 있다(Ackerman, 1960; 박수현, 2003에서 재인용).

Murdock은 이러한 가족의 기능을 성적기능, 자녀출산, 교육, 경제적 기능의 4가지 기능으로 구분하고 있다. 이에 대해 많은 학자들이 동의하고 있으며, 사회의 사회문화적 특성, 경제적 특성, 연구자 자신의 이념 등에 따라 조금씩 달리 표현하고 있을 뿐이다(박수현, 2003). 한 예로, 유계숙·유영주(2002)는 세부적인

가족의 기능으로 가족성원들을 위한 기능과 사회를 위한 기능으로 구분한 바 있다. 전자에 애정교환과 정서적 지지·유대기능, 성적욕구의 충족기능, 자녀출산 기능, 자녀양육과 사회화기능, 생산기능, 소비기능, 자녀의 교육기능, 가족성원들의 재산보호기능, 휴식처로서의 기능, 오락 및 여가 기능, 종교적 기능이 포함된다. 후자로 성적욕구의 통제기능, 종족보존·사회성원 충원 기능, 노동력 제공기능, 경제 질서 유지기능, 문화의 세대간 전달기능, 사회 안정화 기능이 있다.

인간을 둘러싼 환경 중 일차적이면서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 가족이라고 볼 때, 가족과 관련된 가치관은 여러 가치관 영역 중에서 가장 기본적인 것이라 할 수 있다(김경신, 1998). 가족가치관은 가족에 관하여 바람직성 여부를 판단하는 일반화되고 조직화된 관념체계로서, 가족에 관한 포괄적인 태도이다(박혜인, 1990). 가족가치관은 과거로부터 전해오는 가풍, 가훈과도 연결되며 사회변화에 영향을 받고 미래의 생활 철학과 관련되어 가족을 통합하며 가족원의 의식 등에 기여하고 다음 세대가 자신의 가족을 설립하는 기본적 태도를 형성해 주는 개념이다(박수현, 2003). 또한 가족가치관이란 가족에 대하여 다양한 측면에서 갖는 바람직성의 일반적이며 지속적인 신념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와 같은 신념은 시대적, 문화적 배경에 따른 변화와 차이를 내포한다고 하겠다. 가족가치관은 가족에 대한 행동의 경향 또는 행동을 일으키는 원동력으로서의 심리적 요인, 즉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행동의 동기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이러한 가치관은 인간의 기본적 성격형성에 직접적인 요인으로 인간사회에서는 어떤 문제보다도 중요하다(박수현, 2003).

이러한 가족가치관은 일반적으로 여러 하위개념으로 분류하여 분석되곤 한다. 예를 들어, 옥선화(1984)는 가족가치관을 가족 형성 전후로 나누어 배우자 선택과 결혼관, 그리고 가족관계에 대한 가치관으로 구분한 바 있다. 김일명(1988)은 효도관, 조상숭배의식, 성역할관, 가부장권이나 친족의식 등으로 분류하고 있다. 박혜인(1990)은 가족가치관을 자녀관, 노후관, 여성관, 전통의례관 등으로 나누어 분류하고 있다. 김경신(1998)은 가족가치관을 결혼관, 성역할관, 자녀관, 부양 및 효도관, 가족주의 가치관 등으로 구분하고 있다.

〈표 2-1〉 가족가치관의 하위영역

연구자	연도	가족가치관의 하위영역
홍승직	1969	결혼관, 가문관, 자부관, 궁합관, 자녀교육관, 효도관, 제사관, 형제관
옥선화	1984	배우자 선택, 결혼관, 가족관계에 대한 가치관
박진숙	1984	가(家)의식, 혼인의식, 부모부양의식
김순옥·류점숙	1984	결혼관, 역할관, 부모부양관, 가족중요도
이동원	1987	가(家)의식, 친자관계, 부부관계, 부부역할분담
김일명	1988	효도관, 조상숭배의식, 성역할관, 가부장권, 친족의식
박혜인	1990	자녀관, 노후관, 여성관, 전통의례관
정영숙 외	1997	가정자원관리관, 부부관, 자녀관, 부모관, 미래관, 가정생활 및 행사에 관한 의식과 태도
김경신	1998	결혼관, 성역할관, 자녀관, 부양 및 효의식, 가족주의 가치관

자료: 조소연·오윤자, 「부모의 가족가치관 및 관련변수가 미혼성인자녀의 가족가치관에 미치는 영향」, 『대한가정학회지』 39(12):271~284, 2001; 유계숙·유영주, 2002에서 재인용.

현재 우리 사회에서 정의하는 가족개념은 과거처럼 부부와 그들이 낳은 자녀로 구성된 순수한 핵가족만을 고수하는 단일한 개념에서 벗어나 편부모가족, 재혼가족, 입양가족 등도 가족의 한 형태로 점차 수용하는 경향이 있다(유계숙·유영주, 2002). 그러나 인지적 측면의 가족개념에서는 이혼, 재혼, 입양 등으로 형성된 관계를 가족으로 규정하면서도 행동 지향적 측면의 가족가치관에서는 혈연중심의 초혼 핵가족 이데올로기에 긍정적인 태도를 보임으로서 가족의 다양성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과 행동 간에 격차가 있다. 이러한 현상은 한국사회의 집단주의와 획일적 가족규범이 성원들에게 매우 큰 압력으로 작용하여 개인과 가족의 생활방식에 영향을 미쳤기 때문이다(유계숙·유영주, 2002: 박수현, 2003에서 재인용).

이는 전통사회에서 유교의 가치이념에 입각한 가족개념과 가족가치관이 전수되어 왔으나, 오늘날에는 개인주의의 영향으로 다소 근대성을 띤 수정된 가족개념과 가족가치관이 점차 확산되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박수현, 2003). 즉, 현대의 도시가족은 친자 중심의 전통적인 가족개념에서 부부 중심의 근대적 가족 이념으로 변모해가는 경향이며, 전통적인 의식과 근대적인 의식이 공존하는 이원적 의식구조를 가진 과도적 단계에 있다고 할 수 있겠다. 이에 대해 신수진(1998)은 사회가 복잡해짐에 따라 같은 문화권에 속한 개인들이라도 주어진 사회적 환경이 과거에 비해 매우 다양하고, 또 가족 내에서도 서로 다

른 위치를 점유하는 개인들이 자신의 상황에 맞추어 주어진 문화를 서로 다른 수준으로 받아들여 이에 적응함으로 한 문화권이라 하더라도 다양한 성향의 개인들이 존재하고 있음을 유추해볼 수 있다고 한다(박수현, 2003).

제 3 절 결혼가치관에 관한 이론적 고찰

가족을 혈연과 결혼, 그리고 양자를 통해 결합되는 인간들의 집단으로 볼 수 있다면, 결혼이란 가족관계가 어떻게 형성되고 유지되어 가야 하는가를 규정한 법과 관습의 체계로 정의할 수 있다(한남제, 1984). 따라서 결혼과 가족간에는 불가분의 관계가 있으며, 이들 두 현상은 어떤 사회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 보편적인 것이다. 결혼은 성인남녀가 사회적으로 정한 의식을 거쳐 부부가 되는 것으로 혼례는 도덕과 이상(異相), 관습의 총체이며 사회적 법률적 제한을 받는 제도로서 인간생활에 불가결한 문화적 요소를 내포한다(이정우 외, 2000). 따라서 결혼제도는 사회문화여건에 따라 상당히 다르며 근대화와 산업화에 따라 점차 변화하여 왔다(옥선화·정민자, 1993).

결혼관이란 결혼과 배우자 선택에 대한 태도 및 가치관을 말한다(김경신·이선미, 1998). 현대사회의 급속한 도시화·산업화와 더불어 가족의 형태는 점점 다양화되고 많은 변화가 있어 왔으나, 가족을 이루는 근간이 되는 결혼은 여전히 대다수의 사람들에게 자연스러운 삶의 과정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김혜선·신수아, 2002). 결혼을 하는 동기는 성적인 욕구충족, 경제적 안정유지, 정서적 안정유지, 자녀출산의 기회, 성인으로서의 신분획득, 그리고 사회적 기대의 부합 등이다(이정우 외, 1994).

한국사회에서 결혼은 남성에게 가족으로부터 또 사회로부터 독립된 인격체로서 합법적으로 인정받고, 여성에게 부모의 통제와 간섭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으로 받아들여져 왔다(김경신·이선미, 1998). 즉, 결혼은 한 개인이 지금까지 생활해 온 가족을 벗어나 자신이 중심이 되는 독립적인 가족을 형성하는 전환점이며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는 출발점으로 큰 의미를 갖고 있다(김양희·이형실,

1997). 특히, 인간은 결혼해서 가족을 이루고 살아야 한다는 결혼 규범은 한국 사회에서 자식으로서의 의무요, 인간으로서는 필수적으로 거쳐야 하는 통과의례로서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졌다(문소정, 1994). 또한 여성은 결혼을 지위부여와 지위상승의 중요 통로로 여겨왔기 때문에, 적령기에 달하면 결혼을 당연히 하는 것으로 여겨왔다. 인간은 결혼을 통해 가정이라는 공동체를 형성하여 욕구와 의무의 균형 속에 각자 책임감 있는 역할을 수행해 가면서 성숙된 인격체로 완성되며, 또한 사회 구성원을 생산하며 사회화시킨다(김혜선·박혜인·옥선화, 2002).

결혼에 대한 인식은 그 사회의 시대적 배경이나 상황 그리고 개인에 따라 나름대로의 특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결혼형태는 다양성을 지니고 있다(Kwon, 1997). 결혼관도 가족중심에서 개인중심으로 점차 바뀌어가고 있다(김두헌, 1982). 최근에는 결혼은 필수가 아닌 선택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어, 생활능력이 있고 불편이 없으면 안 해도 괜찮다는 식의 결혼의 필요성에 대한 부정적 태도도 증가하고 있다(김경신·이선미, 1998). 결혼에 대한 가치관은 결혼의 의미뿐 아니라 전통적으로 갖고 있던 결혼에 대한 의식 및 태도에서도 상당한 변화를 보이고 있다. 자본주의 경제체제의 모순적 측면으로 나타난 물질만능주의와 과소비 풍조는 결혼예식의 규모를 점차 커지게 하였고, 이러한 현상은 일반적인 결혼관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이현옥·김양희·이경희, 1993). 결혼으로 이루어지는 가정생활은 인간의 복지와 질적 향상을 위해서도 자녀에 대한 기대와 가치관의 변화는 필연적인 것일 것이다(김성혜·김초강, 1991).

결혼이란 어느 관점에서는 결합하는 당사자간에 관련된 문제라고 볼 수 있으므로 주위 환경요건은 단지 고려의 대상으로 작용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대두되고, 다른 관점에서는 인간사회의 특수성에 비추어 결혼이 비록 당사자간의 결합으로 새로운 가정을 형성한다 하여도 부모와 형제간의 관계라는 조직사회의 테두리를 벗어날 수 없다는 상치되는 주장이 대두되고 있다. 이와 같이 대립되는 의식구조 하에서도 결혼관은 시대의 흐름과 사회의 변천에 따라 변화하는 것으로써 배우자의 선택방법이나 기준 또한 변화하게 된다(김영옥, 1999).

종래의 전통사회에서의 결혼에서는 일차적으로 부모의 의도 하에서 이루어

지는 것이 관례였기 때문에 결혼하는 당사자보다 상대방의 집안의 사회적 배경에 많은 비중을 두어 왔는데 비해 의식구조가 많이 변화된 현대사회에서는 당사자간의 개인적 배경에 더 많은 비중을 두고 있는 경향이다. 이러한 상황 하에서 당사자간의 객관성이 무시되거나 또는 개인적 배경에만 비중이 많이 주어지는 결혼에 있어서는 특히 여성에 있어서 결혼 후 배우자의 가정과의 관계정립, 구조역학적인 면 등에서 많은 갈등이 표출되기도 한다. 따라서 배우자의 선택이나 결혼관에 있어서 결혼을 향한 개인적, 심리적 욕구가 다양하고 또한 시대나 사회적 배경 그리고 성장해 온 가정의 인습 등 제반여건에 따라 많은 의식의 차이를 보일 수 있다(김영옥, 1999).

많은 연구들에 의하면, 여성은 남성의 경제적 조건에 그리고 남성은 여성의 비경제적 조건에 더 관심을 두고 있으며, 이러한 결과를 통해 결혼을 통한 여성의 지위상승 욕구와 남성에 대한 여성의 예속화를 알 수 있다(김경신·이선미, 1998). 구체적으로 한국의 대학생과 미혼남녀를 대상으로 배우자 기준을 조사한 결과(김혜선·김영희, 1984; 박진숙, 1984; 홍준숙, 1987), 대체로 남녀 모두 성격과 건강을 최우선 순위로 삼고 있으며, 남자의 경우는 외모를 그 다음 순위로 꼽고 있는 반면, 여자의 경우는 학벌이나 직업을 중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김경신·이선미, 1998). 여성은 자신보다 3~5세 정도 연령이 많고, 학력수준이 높은, 그리고 경제력이 높은 가문의 배우자를 원하는 경향을 보였다(강은숙 1981; 홍준숙, 1987; 송재희 1988).[3] 결혼 시 상대방의 선택조건으로 가정배경, 외모, 건강, 공통의 관심도, 행동의 기준, 경제력 등의 동질적 요인 및 이질적 요인 등이 조건의 대상으로 작용한다고 제시되기도 한다(김영옥, 1999).

여성의 입장에서 배우자의 개인적 조건으로 학력이나 직업이 외모나 출신지역 또는 종교보다 중요시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김영, 1999). 결혼 후 가정의 경제적 안정은 필수적이지만 배우자의 직업이 단순히 수입 면에서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안정성과 장래성이 있고, 또한 사회적으로 인정을 받는 직장 또는 직종인가에 더 높은 관심을 보이면서 그 사회적 인정이나 장래성의 보장을 위

3) 여대생의 결혼관에 대한 한 조사 결과, 배우자와의 연령 차이에 있어서는 55% 정도의 학생들이 여전히 3~4세 차이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다(김영옥, 1999).

해서는 학벌도 제외될 수 없는 요인으로 작용되기 때문에 많은 관심을 보일 수 있다고 한다.

결혼관에서 볼 수 있는 남녀의 성차별적 이데올로기를 결혼이데올로기라 한다. 여성은 결혼을 통해 가정이라는 제한된 영역 속에서 남성에게 경제적, 정서적, 성적인 종속적 삶을 살기 쉬운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결혼의 불평등성에 좌절되기보다 오히려 많은 미혼여성에게 자신의 구원처는 결혼이며, 기혼여성도 결혼생활에서 이타적, 헌신적 삶을 사는 것이 행복한 여성의 길이라고 믿게 된다. 이러한 성차별 이데올로기는 두 성의 공존의 삶을 보장해야 할 결혼에까지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이처럼 결혼관에 나타난 남녀의 성차별적 이데올로기를 결혼이데올로기라 한다. 여성은 자신에게 보다는 남편에게 경제적, 사회적, 정서적, 성적 의존을 함으로써 남편의 성공을 통한 대리만족, 대라보다는 결혼에 더 큰 비중을 두게 되고, 신데렐라complex, 성complex, 착한여자complex, 등 여러 성차별적 complex에 얽매이게 되었다(김경신·이선미, 1998).

결혼에 대해 어떠한 가치를 두고 어떠한 태도를 보이는가는 결혼을 언제 하는가와 관련이 있다(최새은·옥선화, 2003). 개인의 자유를 중시하는 사람일수록 결혼에 대해 덜 긍정적인 태도를 보인다고 하며(Lesthaeghe and Surkyn, 1988), 결혼이 중요하지 않다는 태도를 가진 경우에 결혼이 늦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Teachman, Polonko, and Leigh, 1987). 남자가 여자보다 결혼하기를 더 꺼려하는 부정적인 결혼관을 가지고 있다는 연구가 있고, 국내에서는 남자가 결혼을 중요시하고, 결혼생활 유지에 중점을 둔다는 연구결과도 있다(김혜선, 이정웁, 2003).

여성은 긍정적인 결혼관을 가질수록 결혼에 대한 규범을 강하게 인식할수록 초혼연령이 빨랐다(Simon and Marcussen, 1999). Simon과 Marcussen은 결혼을 바람직하고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 영속성에 대해 신뢰하는 사람일수록 결혼을 덜 스트레스적인 사건으로 지각한다고 하였던 것과 같이, 결혼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가진 여성일수록 결혼전이가 수월하게 이뤄지고 초혼연령이 빠른 경향을 보인다고 해석할 수 있다(최새은·옥선화, 2003). 그리고 결혼에 대한 규범을 강하게 인식한다는 것은 결혼에 대해 정상이라고 여겨지는 것이 있으며, 이것을 어길 경우 명시적, 암시적으로 끊임없는 압력을 받는 것을 의미하므로,

이러한 규범을 강하게 인식할수록 초혼연령이 늦어지지 않는 것이라 추론할 수 있다(최새은·옥선화, 2003). 남자의 경우 안정된 직업을 갖춘 후에 결혼을 해야 한다는 순서규범이 강하게 작용하는 한편, 여자의 경우에는 결혼 전의 경제활동과 상관없이 연령규범의 영향을 강하게 받는 것으로 보인다(은기수, 1995).

언제 결혼할 것인가 하는 결혼시기의 결정은 일견 매우 개인적 문제인 듯 보이나, 실제로는 그 개인이 위치한 사회의 거시적, 역사적 상황에 의해 직접적 영향을 받는다(한경혜, 1993). 사회경제적 여건의 변화에 따른 이러한 결혼행동의 변화와 함께 소위 사회적 시간표 형태로 존재하는 결혼연령 규범 또한 변화하게 된다. 사회적 시간이란 개념은 사람의 생애과정상의 주요 전이의 시기에 대하여 사회구성원들에 의해 공통적으로 인식되어지는 규범적 시간표가 연령기대나 규범의 형태로 존재한다는 것이다. 즉 결혼하기에 적절한 나이, 자녀를 가질 나이, 은퇴할 나이 등에 대해 사회구성원들이 대개 동의하는 그런 기대연령이 존재한다는 것이다(한경혜, 1993). 연령의 사회심리적 의미를 강조하면서 사람들은 이러한 기대연령을 내재화하며, 이 규범에서 벗어났다고 지각할 때 불편하게 느낀다(한경혜, 1993). 이러한 연령규범의 제도화는 각 사회의 자원의 분배나 여러 제도간의 상호작용, 그리고 인간발달의 생물학적 리듬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이루어진다. 따라서 역할전이의 시간표는 고정된 것이 아니고 사회의 여건이 변화하게 되면 역시 변화하게 되며, 또한 사회적 시간표의 변화 자체가 사회 내의 제도에 영향을 끼치면서 사회 변화의 동인으로 작용하기도 한다(한경혜, 1993).

한부모 가족의 자녀의 경우에는 불행하고 복잡한 환경으로부터의 도피처로서 결혼을 생각하기 때문에 일찍 결혼하는 경향이 높다는 연구가 있는 한편(Goldsheider and Waite, 1986; Axinn and Thornton, 1992), 불행한 원가족에서 성장한 자녀는 결혼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늦게 결혼하는 경향을 보인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Avery, Goldscheider and Speare, 1992: 최새은·옥선화, 2003에서 재인용).

가족환경도 결혼시기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최새은·옥선화, 2003). 예컨대, 부모의 생활수준이 높을수록 여성의 초혼연령이 빨랐다. 부모의

자원이 풍부한 경우 기대하는 가족생활의 질적 수준이 높기 때문에 결혼연령이 늦어진다는 선행연구와는 일치하지 않는다(MaLaughlin, Lichter, and Johnston, 1993). 또한 가정형편이 어려운 가정의 여성일수록 '결혼'을 통해서 원가족으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욕망을 가지고 있으나(Avery, Goldscheider and Speare, 1992), 가난한 여성일수록 실제 결혼 행동에 있어서 많은 제약과 장애가 있으므로(MaLaughlin and Lichter, 1997), 가정의 생활수준이 낮을수록 결혼이 늦어지는 양상을 보인 것이라 해석할 수 있다. Lloyd와 South(1996) 연구 결과와는 반대로 부모의 생존여부가 남성의 초혼연령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최새은·옥선화, 2003). 이는 부모가 생존해 있지 않을 경우, 장남이 다른 형제에 대해 부모의 역할을 담당하는 한국사회의 특징과 연계되는 것으로 보인다.

제 4 절 자녀가치관에 관한 이론적 고찰

사회가 점차로 발전되고 도시화됨에 따라 가족형태도 자녀를 재산적 가치로 여겼던 전통적인 가족제도에서 유지되던 다산현상이 가족개념의 변화와 더불어 핵가족화 되었다(유영주, 1988). 1960년대 이래 정책적인 사업과 시대의 흐름으로 인해 가족 기능에 영향을 미치는 소자녀 가치관의 형성도 출산력 저하에 영향을 주었다(김초강, 1987). 부인이 교육을 많이 받을수록 초혼연령이 높아지므로 부인의 생물학적 가임능력이 줄어들고, 자식이 곧 재산이라는 전통적 가치관이 교육을 통해 서서히 변함에 다라 출산력을 낮추는 하나의 변수로 작용한 것이다(김성혜·김초강, 1991).

Hoffman과 Hoffman(1973)이 제시한 VOC(value of child)연구의 개념모형은 자녀관에 관한 5가지 측면 즉, 자녀가치, 자녀가치에 대한 대치가치, 자녀의 부담감, 자녀가치 형성장애요인, 자녀가치 형성촉진요인 등을 포함하고 있다(권용은·김의철, 2004). 그의 모형에서 자녀에 대한 가치는 경제적 가치, 사회적 가치 및 심리적 가치로 설명되고 있다. 자녀의 경제적 가치는 자녀가 어렸을 때와 성인이 되었을 때에 부모에게 제공할 것으로 기대되는 물질적 이익과 비용을

의미한다. 자녀의 사회적 가치는 자녀를 가짐으로써 사회로부터 얻게 되리라 기대되는 이익과 불이익을 의미하며, 여기에는 사회적 승인과 사회적 지위, 가계계승 등이 속한다. 자녀의 심리적 가치에는 행복, 즐거움 등과 반대로 자녀에 대한 기대로 겪게 되는 스트레스와 불편 등이 포함된다. 이와 같이, 자녀에 대한 가치는 모두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 모두를 포함하고 있다.

가족뿐 아니라 전반적인 사회의 변화도 매우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 그에 따른 가치의 변화의 속도도 빠르며 세대간의 차이도 커지고 있다. 문화와 환경은 전 생에 걸쳐 심리와 행동에 영향을 주며, 문화적 맥락 내에서 부모는 자녀에게 또한 자녀는 부모에게 서로 영향을 준다.

Erikson(1950)은 부모가 되는 것에 대한 이론을 정립하였는데 개인이 인생에 있어서 성인 단계에 접어들게 되면, 다른 사람을 돌보려는 생득적인 동기를 갖게 되는데, 이는 아이를 낳고 부모의 역할을 함으로써 실현된다고 하였는데 이것이 생산성의 생득적 본능이다(권용은·김의철, 2004). Rabin(1965)은 부모가 되는 데에는 4가지 이유가 있다고 했다(권용은·김의철, 2004). 첫째는 자녀를 갖는 것이 그들이 존재하는 이유라고 하는 "숙명적"인 이유이다. 둘째는 "이타주의적" 이유인데 부모가 되어 자녀에 대한 관심과 애정을 표현하고자 하는 비이기적인 바램과 욕구이다. 세 번째 동기는 "자기도취적(narcissistic)"동기인데 자녀를 갖는 것은 자신의 선(善)을 나타내 주고, 아기를 갖기에 적당할 만큼 성인으로 성숙했음을 구체적으로 나타내며 부모가 되는 것이 성인의 동족의식 형성에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자녀를 갖는 데 대한 또 다른 "자기도취적"인 이유는 부모가 됨으로써 정서적인 안정을 기대하는 것인데 이것은 애완동물을 친구처럼 원하는 것과 비슷하다. 네 번째 이유로 "도구적(instrumental)" 이유로서 자식이 부모를 대신하여 어떤 목적을 이루어 주기를 바라는 것이 이에 해당한다.

Kirchner와 Seaver(1977)는 부모됨의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긍정적 동기는 영속성 추구, 출산과정의 경험, 애정과 인생의 충만한 의미의 경험, 자신의 아동기에 대한 기억 및 재 경험, 노후보장, 파트너와 유대감, 양육을 통한 역할 수행, 자극과 자부심 획득, 개인 성장의 기회, 타인에게 도움을 주고 애정을 받으려는 욕구, 실용주의와 규범적 행동, 재미 등을 들었다. 부정적 동기로는 사회

적·개인적 제약, 부모로서의 능력에 대한 회의, 장애아를 낳을 가능성, 비관적 세계관, 재정 문제, 자녀양육에 대한 걱정·책임, 임신의 불편함, 인구문제에 우려, 정서적 미숙, 교육 및 직업상의 제약 등이 포함된다(권용은·김의철, 2004).

자녀수 결정을 이해하기 위한 개념적인 틀로서 선택과 교환의 이론(choice-exchange theory)을 이용하였는데(Esaterlin, 1975; Hoffman and Hoffman, 1973), 개개의 부부들이 선택을 통해서 자녀로 인한 이점을 최대화하고 손실점을 최소화하여 가장 유용한 자녀로 인한 점과 손실점이 같아졌을 때, 부가적인 자녀를 가짐으로서 얻게 되는 만족을 대신해줄 수 있는 만족, 특히 여성이 가정 밖에서 일할 수 있는 역할에 대한 관심이 생긴다고 한다(권용은·김의철, 2004). 자발적으로 자녀를 갖지 않는 사람들은 교육수준이 높고 전문직에 종사하며, 경제수준이 낮고 그들 자신이 첫째 아이인 경우가 많다고 한다(권용은·김의철, 2004).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남아선호사상이 매우 강한 사회였으나 이러한 변화를 보이는 원인은 여성지위향상, 자녀의 도구적 가치(대를 잇는다)의 낮은 지각 등을 들 수 있겠다(양명숙, 1996). 역으로 딸에 대한 선호가 증가하는 것은 자녀의 정서적 가치(기르는 즐거움, 나이 들어서 정서적으로 지원을 해준다)때문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권용은·김의철, 2004). Rossi와 Rossi(1990)의 선행연구에서도 밝혀졌듯이 딸은 결혼 이후에도 어머니와 자녀양육방식 교환을 통해서 친밀한 시간을 많이 보내게 되며, 여자들이 정서적 관계를 통해서 유대감을 개발하는 경향이 있다고 한다. 김명자(1980), 양명숙(1996)의 연구에서도 아들선호의식에 있어서 비교적 근대적 관점을 보여주고 있으나 남성은 여전히 전통적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편, 노후대책으로 남아를 선호하던 전통적인 사고방식에서 벗어나 아들과 딸을 구별하지 않음으로 인해 성비불균형의 감소뿐만 아니라 출산율 저하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한다(한유미·곽혜경, 2004).

제 5 절 성평등가치관 및 성역할관에 관한 이론적 고찰

1. 성평등가치관

최근에는 생물학적으로 태어날 때부터 결정된 성과 생물학적 성을 기반으로 하여 여러 가지 사회화를 통하여 사회·심리적으로 습득하게 되는 성을 구분하는 것이 보편적이다. 즉 생물학적으로 결정된 성(sex), 즉 남성과 여성이 생식기관과 가능의 차이는 어느 사회나 어느 시기에서나 동일하고 불변하지만, 사회문화적으로 결정되는 성(gender)은 공간적, 시간적으로 다르며 계속적으로 변화되는 속성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생물학적 차이와 사회적으로 형성된 성별 차이를 구분하지 않고 그대로 동일시하는 과정에서 여성과 남성에 대한 많은 그릇된 관념과 믿음이 형성되어 왔다(이호숙, 2003).

고정관념이란 특정한 인간 집단에 대하여 일상적으로 가지는 그러나 상대적으로 경직되고 과잉적으로 단순화된 관념을 의미하며 이에는 특정한 집단에 속한 사람들이 획일적으로 동질적인 특성을 공유한다는 견해가 포함된다(Wrighstman, 1977: 김동일, 1991 재인용). 따라서 성 고정관념이란 성별에 따른 신체적, 심리적 또는 사회적 특성이 뚜렷한 실체인 것으로 착각 또는 오인하여 남자는 이렇고 여자는 이렇다고 획일적으로 규정해 버리는 태도나 자세를 일컫는 말이다(김동일, 1991).

남성과 여성은 기본적으로 생물학적 차이만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계사회의 오랜 역사를 통해 남성우위의 성차별이 사회문화적 지지를 받아 옴으로서,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남성중심의 성차별주의(sexism)가 하나의 이데올로기로 유지되어 왔다(김경신·이선미, 1998). 성차별 사회가 형성한 성고정관념은 개인의 특성을 무시한 채 개인을 남성다움, 여성다움의 틀 속에 고정시켜 버린다. 그러나 서구를 중심으로 확산된 남녀 평등사상과 더불어 여성들의 교육수준이 높아져 감에 따라 점차 각 분야에서 남녀의 평등권을 주장하게 됨으로서 기존의 성역할 고정관념과 편견은 새로운 평등주의적 사고방식과 마찰을 이루게 되었다(양명숙, 1996). 이렇게 사회가 형성한 성 불평등성은 여성뿐만 아니

라 남성의 삶도 제한, 왜곡시키고 있으며 이러한 현상은 성차별 언어나, 대중매체, 교육, 가족과 같은 주요한 사회 기제에 의해 끊임없이 재생산되고 있어 남녀불평등의 사회구조가 유지·강화되고 있다(김경신·이선미, 1998).

인간은 성장하면서 양성 모두 결혼을 통해 부모의 가부장적 통제로부터 독립을 기대한다. 여성은 결혼으로 부모의 통제와 간섭으로부터 벗어나려는 강한 동기를 갖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남편 통제 하의 결혼생활이 일종의 독립으로 여겨진다. 그리고 결혼의 현실이 가져다주는 남편의 통제와 남편에의 종속은 전통형의 여성에게는 운명으로 받아들여져 체념이라는 생존전략으로 처리된다. 또 현대형의 여성에게는 의사(擬似)평등관계-서로 이름을 부른다든가, 남편이 설거지를 한다든가하는 피상적인 평등관계-속으로 묻혀버리게 된다. 결국 결혼은 남성에게는 성취, 여성에게는 의존이라는 결과를 초래한다(이영자 외, 1993).

김아영(1999)은 '교사와 학생의 성역할 태도 분석과 중등교사의 성평등 교육 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연구'를 하였는데 연구에서 얻어진 결론을 살펴보면, 교사와 학생들의 성역할 태도를 비교한 결과, 학생이 교사보다 더 진보적인 성역할 태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교사의 성별, 연령, 결혼여부, 교직경력에 따른 교사들의 성역할 태도를 살펴 본 결과로는 교사의 성별에 따라서는 여교사가 남교사보다 더 진보적인 성역할 태도를 가지고 있었다. 또한 학생의 성별, 학년, 학교유형에 따른 학생들의 성역할 태도를 살펴 본 결과,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더 진보적이 성역할 태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에서 실시된 조사에 의하면 학생들의 평등한 성역할 사회화를 위해서는 먼저 교사들을 대상으로 하는 재사회화 교육프로그램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2. 성역할관

최근의 출산율저하는 출산, 혼인, 이혼 등 가족제도 및 가족가치관의 변화 전반에 관련되어 있으며, 여성의 경제활동참여가 증가하면서 가정생활과 직장생활간의 갈등이 해결되지 못하고 이들 여성 개인의 희생으로 짐 지워지는 결과에 기인한다(장혜경, 2003). 서구산업사회에서는 여성취업의 증가가 출산율저

하를 일으키지만 개발도상국에서는 여성의 취업과 출산율 간의 상관관계가 뚜렷하지 않다(한유미·곽혜경, 2004). 개발도상국가에서는 여성들이 대부분 양육과 노동이 양립할 수 있는 비공식적 영역에서 일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는 모두 여성취업의 증가가 반드시 출산율저하 자체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님을 시사한다(한유미·곽혜경, 2004).

가치관체계에서 가정지향성이 높은 여성들은 자녀양육이나 가족중심적 가치를 중요시한다. 따라서 이들은 직업과 가정에서의 이중 역할을 성공적으로 해야 한다는 부담으로 결국 출산과 더불어 취업을 중단하는 경향이 높다. 가정지향적인 여성들보다 직업지향적인 여성들은 출산과 취업 중에서 취업을 선택할 가능성이 많다. 성역할 태도 역시 여성이 직업과 자녀양육을 병행하는 능력이나 경향성을 결정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성역할 태도가 평등적일수록 그리고 가정 밖에서 일하는 것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갖고 있을수록 임신 후 직장에 복귀하게 된다(한유미·곽혜경, 2004). 더욱이 남녀 평등적 태도와 양성적 성역할 지향성은 임신 횟수 자체와 부적인 관계가 있다(Booth and Duvall, 1981). 따라서 현대여성의 가족가치관의 변화를 사회가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자세를 취하지 않으면 효과적인 정책수립에 어려움이 따를 것이다.

여성의 사회경제적 활동의 증가는 성역할 개념에 근거한 가족윤리의식에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김경신, 1998). 김정옥(1980)은 도시화 및 여성의 취업 증가 등으로 가족 내 부부의 역할분화의 경계가 점차 무너지고 있다고 지적하였으나, 옥선화(1980)는 역할 분화의 경계가 무너지는 것 같으나 실제로는 역할구분이 지켜지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서병숙·김윤(1983)의 연구에서는 대도시의 경우 근대적 역할의식을 가지고 있으나 실제행동에서는 완전히 평등해지지 못하고 있다고 하였다. 김명자(1985)의 연구에서도 성역할에 관한 고정관념이 아직도 지속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으나 최근에 들어 결혼·육아에 상관없이 원하면 직업을 가질 수 있다는 여성이 증가하여, 여성직업관의 획기적인 변화를 엿볼 수 있다. 가정 내 의사결정권도 항목별 구분이 지어지나 비교적 아내의 역할을 더 뚜렷하게 규정짓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양명숙(1996)의 연구에서도 미혼 남녀의 성역할관은 비교적 진보적으로 변화하였음을 보여주고 있다.

제 6 절 성가치관 및 성교육에 관한 이론적 고찰

우리 사회는 결혼 전까지 성적 행동을 억제하도록 기대하면서, 동시에 남녀에게 각기 다른 이중적 성윤리를 적용하는 성문화로 가고 있다. 그러나 최근에 들어 여성의 사회활동의 확대, 청년기의 연장, 상업 성문화의 발달 및 남녀평등주의 같은 가치의 변화가 혼전 성에 대한 태도와 행동을 영향을 미치고 있다(김영옥, 1983). 청소년기는 성적 욕구가 강렬한 시기인 반면, 사회는 혼전의 성을 규제하므로 사회적 규범과 갈등을 일으킬 수 있다. 따라서 혼전 성행동에 대해 합의된 규범이 없는 현 상황에서 청년기 연장 현상은 새로운 성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박희성·이진숙·박초아·정민자, 1995).

청소년의 혼전 성형태는 개인요인으로서 종교, 가족요인으로서 자녀들이 취업이나 학업상의문제로 부모를 떠나 생활할 경우에는 부모의 직접적인 통제나 감독이 소홀해 질 가능성이 있어 거주형태, 부모의 교육 등이다. 이는 교육수준이 높은 부모가 목표나 성취, 직업에 대해 보다 높은 가치를 부여하며 낮은 교육목표와 성취는 보다 높은 성행동 수준과 관련 된다(Miller and Sneesby, 1988). 한편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Small과 Luster(1994)의 연구에서는 부모의 교육이 여학생의 경우에만 유의한 관련이 있었다. 청년기 자녀의 행동에 대한 부모의 통제 정도가 높아질수록 자녀의 성경험률이 낮아졌다는 연구결과(김영옥, 1983)로 볼 때, 부모의 감독 정도도 성행동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사회요인으로서 대체로 동료가 부모보다 허용적이므로 동료가 준거점일 경우 성경험률이 높다고 보고되고 있다(Reiss, 1967; Kaats and Davis, 1970). Newcomer 등(1980)은 성행동과 태도는 동료집단의 실제 행동보다 그들의 행동과 가치관이라고 '지각'되는 것과 더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주장했다. 동료의 성경험 정도에 대한 지각과 동료로부터의 성경험 압력이 성행동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된다(박희성·이진숙·박초아·정민자, 1995).

산업화와 근대화의 촉진과 함께 자유민주주의적 개인주의에 입각한 결혼관이 수립되어 결혼의 목적이 개인의 행복과 만족을 위한 것으로 변하였고 결혼형태 또한 연애결혼을 선호하게 되었다. 배우자 선택 기준이 변화하면서 혼전

순결에 대한 의식도 결혼외의 성관계도 허용될 수 있다는 경향으로 변화하고 있다(양명숙, 1996).

그러나 순결관의 변화 양상에서 성별에 따라 이중적 가치관을 나타나고 있다. 남성은 여성에 비해 혼전순결이나 혼외정사에 더 관대하고, 남성 자신은 혼전 성관계가 괜찮지만 배우자는 절대 안 된다는 이중적 성관념 내지 전통적인 성고정관념이 보편적인 것으로 나타났다(박진숙 1984; 홍준숙 1987; 송재희 1988; 권오주 1989; 장휘숙 1994; 양명숙 1996). 또 다른 연구들에서는 남성은 결혼과 관계없이 서로 사랑한다면 성관계를 가져도 무방하다는 입장과 남녀 모두 순결해야 한다는 이중적 성관념을 유지하고 있다(김경신·이선미, 1998).

우리 사회에서도 에이즈를 비롯한 질병, 매춘, 미혼모, 낙태, 성폭력, 성차별 등과 같은 많은 사회적인 문제가 청소년에게도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성에 대한 의식은 인간의 발달 과정상 급격한 신체 변화와 함께 자기 존재에 대한 회의로 심리적 위기에 빠지기 쉬운 청소년기에는 자칫 반인간적으로나 반사회적으로 발현될 수 있다. 또한 성인잡지, TV, VTR, 컴퓨터 등과 같은 대중매체에 의해 전달되는 자극적이고 흥미위주의 성적 정보 속에 무방비 노출되어 올바른 성지식이나 성태도가 형성하기도 전에 성에 대한 호기심만 높아져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기도 한다(오덕자, 2003).

오덕자(2003)는 청소년의 그릇된 성의식을 첨단기기의 발달과 무분별한 서구문화의 유입, 물질만능의 풍토, 어른들의 무분별하고 이중적인 성 의식 등 뿐 아니라, 성을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것으로 여기는 교육풍토로 인한 성교육이나 인성교육의 비체계성과 가정이나 지역사회의 열악한 잠재적 교육환경 및 공교육으로서의 학교교육 기능의 무력화에 돌리고 있다.

채팅을 통한 소위 '번섹'의 피해자가 속출하기도 하고 최근에는 상당수의 청소년들이 음란물 중독증에 걸리는 사례까지 생기고 있다. 이 뿐만 아니라 청소년들은 각종 성범죄의 피해에 가장 많이 노출되어 있으며 또한 가해자로서 성일탈의 행위자가 되기도 하여서 학교에서의 성교육이 얼마나 필요한가를 말해주고 있다(이경희, 2000).

사이버 시대라고 일컬어지는 요즘의 청소년들은 그들이 궁금해 하고 또 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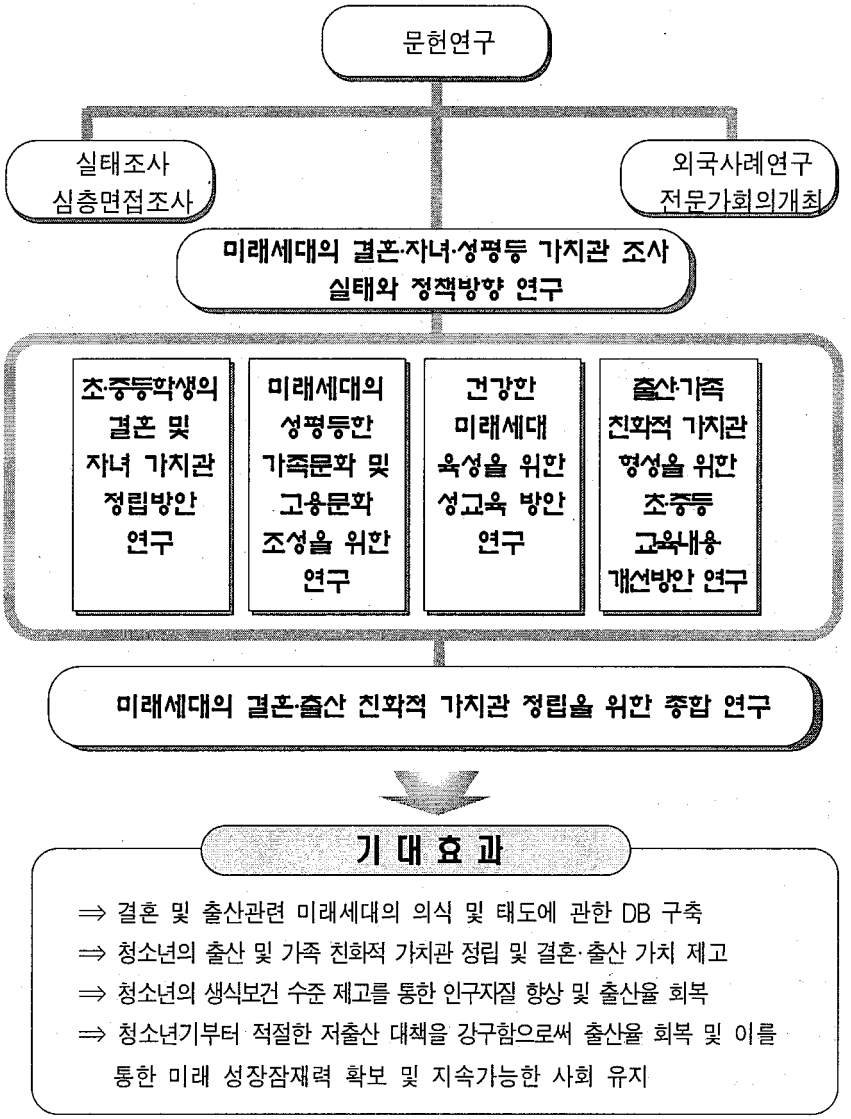
민하고 있는 성 문제를 학교교육, 부모님, 친구 등으로부터 해결하는 것이 아닌 다양한 사이버 매체에 쉽게 접함으로서 개인적으로 해결하는 경우가 많다(오덕자, 2003). 청소년기에 자극적인 음란물들, 채팅, 원조교제, 음란사이트 등은 이들에게 무엇이 옳고 그런 것인가에 대한 판단을 흐리게 하고 있다(윤가현, 1997). 심지어는 청소년들에게 금기하는 내용조차 아무런 제약 없이 접할 수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성 의식이 부족한 청소년들은 혼란을 초래하여 성 문제로 인한 많은 성 일탈의 문제가 발생되고 있는 실정이다(오덕자, 2003).

이구실(2001)의 연구에서 성교육을 받은 경험 유무에 따른 성태도와 성 행동을 보았을 때 성교육을 받지 않은 학생보다 성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는 학생이 성태도와 행동에서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고하고 있다. 많은 연구들은 청소년들이 성에 대해 지식이 높을수록 긍정적인 성태도를 가진다는데 일치하고 있다(김진선, 1995; 윤명선, 2000; 이구실, 2000; 배성미, 2002 등). 그러나 실제 학교에서 실시하고 있는 성교육은 정규 성교육 시간이 아니라 가정, 체육, 과학, 도덕 등의 교과목 수업을 통해 실시하고 있어 그 학생들에게 많은 성 관련 지식을 전달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는 등 학교 성교육의 효과는 점점 그 효능을 상실해 가고 있는 실정이다(오덕자, 2003). 학교 성교육 시간, 교재, 내용과 담당교사의 열의에 대한 만족도 조사에서 대부분의 학생들이 만족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오덕자, 2003).

제 7 절 연구틀

앞서 제1장에서는 본 협동연구의 목적을 제시하였으며, 이에 따라 제2장에서는 연구목적과 관련된 선행연구들을 고찰하였다. 이들 연구목적을 구체적으로 추이에 따라 본 연구의 연구방법연구와 지금까지 제시한 연구목적과 이에 따른 이론적 고찰을 토대로 본 연구의 기본틀(research framework)은 [그림 2-1]과 같이 도식화할 수 있다.

[그림 2-1] 미래세대의 결혼·출산 친화적 가치관 정립을 위한 연구틀



제3장 청소년의 결혼·출산·성평등 가치관 실태

제1절 청소년의 가족 가치관

1. 문제제기

전통적으로 가족은 사회의 가장 기본적인 구성단위로서, 출산 및 자녀양육과 사회화가 이루어지며, 정서적 안정 및 유대를 통해 감정적인 안식과 위안을 받고, 경제·소비생활을 영위하는 단위로서 기능하였다. 가족형태도 혼인을 통한 양성부모와 자녀로 이루어진 소위 정상가족이데올로기가 유지 및 공고화되어 왔다.

그러나 최근 한국사회는 가족, 결혼, 자녀 등에 대한 가치관의 변화와 함께 가족을 둘러싼 환경의 변화로 많은 측면에서 다양한 가족형태가 출현하고 있다. 법적관계 및 이성애관계로 이루어진 부부와 혈연으로 맺어진 자녀가 존재하는 핵가족 형태뿐만 아니라 한부모가족, 재혼가족, 동거가족, 미혼단독가구, 입양가족 등 다양한 형태의 가족이 나타나고 있다. 사회변화와 다양한 가족형태 출현에 따라 기존의 가족의 기능으로 간주되어 오던 출산기능, 자녀양육 기능, 정서적 기능, 경제적 기능 중 일부는 상실 또는 약화되고 일부는 강화되는 등 변화하고 있다. 현대 한국의 가족을 살펴보면 가족의 구성 및 유형과 관련하여 과거의 전통적인 가족형태로 칭해졌던 3세대 가족 즉 '조부모-부부-자녀'는 급격히 감소하고 있으며, 2세대로 구성된 '부부-자녀'가족 역시 다양한 유형의 변화를 겪고 있다. 예컨대, 핵가족이라는 전형적 가족형태의 비율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반면, 다양한 형태의 가족은 증가하는 것이다.

특히 2002년 '출산율 1.17 쇼크' 이후 전통적·보수적인 입장에서는 이러한 현상을 '가족위기' 혹은 '가족해체'로 이해해 왔으며, 이와 같이 전통적인 가족기능의 약화를 우려하는 가족위기 담론은 국가의 존폐 위기로까지 확대되어 '가

족의 정상화'를 위한 시급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였다. 다시 말해, 가족의 다양성과 가족의 변화를 수용하고 있기보다 특정 가족형태를 지지하여 전형적 형태인 핵가족은 정상이며, 그외 보편적인 가족형태와 상이한 유형의 가족형태는 비전형적 가정으로서 결손·비정상, 불완전한 것, 문제적인 것으로 구분하였다.

그러나 가치관의 변화로 인해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가족의 변화를 문제가족 혹은 위기가족으로 낙인해서는 안되며, 그 보다는 다양한 유형 혹은 다양한 생활양식을 가진 가족이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강화하는데 초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한편으로 좀더 진보적인 입장에서는 이러한 정상가족 담론이 다양한 삶의 방식을 선택하고 가족에 준하는 가구공동체를 이루고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을 배제하고 차별하는 근거가 되기 때문에 전형적 가족상을 지향할 것이 아니라 증가하고 있는 다양한 가족형태의 가능성을 수용해야 할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Beck/Beck-Gernsheim, 1999). 즉, 사람들은 결혼·이혼·재혼을 하며, 이러한 과정은 다양한 새로운 가족을 창출해 내며, 새로운 유대관계를 형성하게 된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 이혼을 억제하며 기존의 가족 유지만을 강조할 것이 아니라, 변화하는 가족이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적 대처방안에 보다 초점을 두어야 한다는 것이다.

아직 한국사회에서는 이혼, 입양, 동성애, 동거, 미혼부모 등 형태가 대중에게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질 정도로 정착된 상태라고는 볼 수 없으며, 실제로 이러한 다양한 형태의 가족유형에 대해 사람들이 어느 정도 공감하고 사회적으로 인정받고 있는지에 대해 연구된 바는 적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장에서는 미래세대인 청소년을 대상으로 이들의 가족관 및 다양한 가족형태에 대한 태도 및 인식 수준을 파악함으로써 미래사회의 가족가치관에 대해 추론해 보고자 한다.

2. 가족가치관에 관한 청소년의 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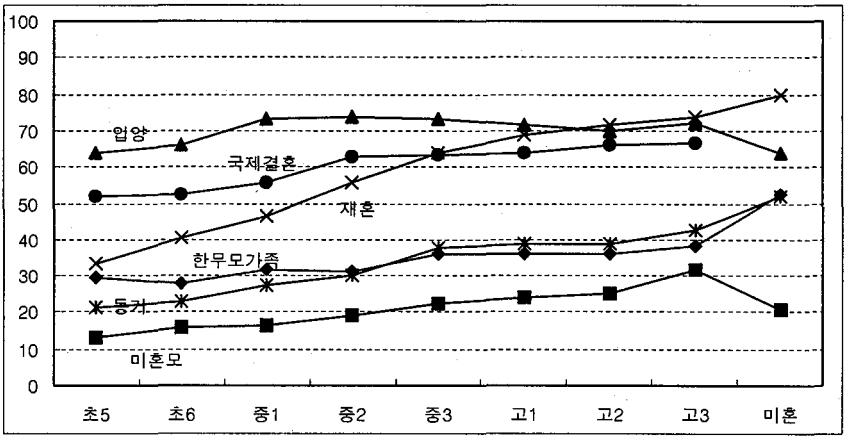
가. 개인적 특성별 태도

다양한 가족에 관한 학생의 긍정적인 태도(매우 찬성+찬성)는 "입양한 아이도 내가 낳은 자식과 같이 애정을 갖고 잘 키울 수 있다(71.1%)"에 대해 가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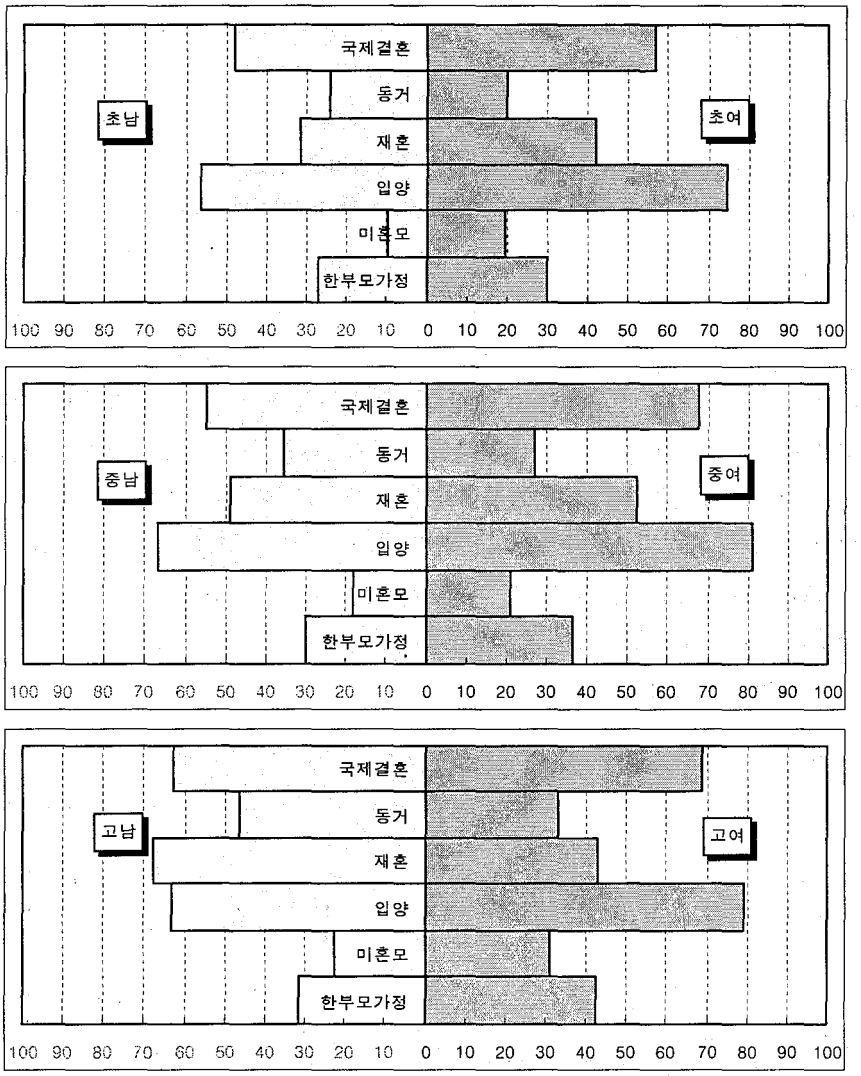
높고, 다음으로 "외국인과 결혼해도 상관없다(61.3%)", "사별이나 이혼 후에도 재혼을 해서 새 삶을 시작하는 것이 좋다(58.7%)", "아버지나 어머니가 혼자서도 자녀를 잘 키울 수 있다(33.7%)", "남녀가 사랑한다면 결혼하지 않고 함께 사는 것도 괜찮다(33.4%)", "결혼하지 않아도 자녀를 가질 수 있다(21.6%)" 순으로 나타났다. 즉, 입양, 국제결혼, 재혼 등에 대한 학생의 태도는 긍정적이나, 한부모가족, 동거, 미혼모 등에 대한 태도는 부정적으로 나타났다.

학교급별 학년은 연령으로 간주할 수 있으므로, 학년별 각종 견해에 대한 태도의 차이를 통해 성장과정상 가치관의 변화를 유추해볼 수 있다. 입양에 관한 긍정적인 태도는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로 올라가면서 더 높아지나, 그 후 고등학교까지 큰 변화를 보이지 않고 70% 수준을 유지하였다(그림 3-1 참조). 국제결혼에 관한 긍정적인 태도도 입양과 마찬가지의 궤적을 보여주고 있다. 재혼, 동거 및 한부모가족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는 초, 중, 고, 청년기의 과정을 거치면서 점차 높아지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특히 재혼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는 고등학생 2학년부터 가족유형 중 가장 높았다. 미혼모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는 성장과정에서 점차 높아지는 경향성을 보이나, 그 수준은 여전히 다른 가족 유형들에 비해 낮았다.

[그림 3-1] 다양한가족 관련 학생의 긍정적인 태도(%)



〔그림 3-2〕 다양한가족에 관한 남녀학생의 긍정적인 태도



상급학교로 올라갈수록 남녀학생간의 태도가 점차 좁혀지고 있었다(그림 3-2 참조). 한편, 초등학생과 중학생의 경우 한부모가족, 미혼모, 입양, 재혼, 국제결혼에 관해 여학생이 더 긍정적인 반면, 동거에 관해서는 남학생이 더 긍정적이

었다. 고등학생의 경우에도 한부모가족, 미혼모, 입양, 국제결혼에 대해 여학생이 더 긍정적인 태도를 보였다. 다만, 재혼과 동거의 경우에는 그 반대로 나타났다. 이러한 패턴은 성인 미혼층에서도 마찬가지로 나타난다. 「2005년 전국 결혼 및 출산 동향조사」에 의하면, 한부모가족, 미혼모, 입양, 재혼에 대해 미혼남성에 비해 미혼여성의 태도가 더 긍정적이며, 동거에 관한 태도는 그 반대였다.

나. 가족적 특성별 태도

부모가 이혼·별거 중인 학생의 절반수준이 한부모가족에 대해 긍정적이었으며, 그렇지 않은 학생은 30.8%만이 긍정적이었다(표 3-1 참조). 이는 부모의 이혼이 학생의 가치관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시사해 준다. 유사하게 부모간관계가 나쁠수록 한부모가족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가 높았다. 한부모가족에 대한 태도는 부모 또는 부만 일하는 경우에 비해 모만 일하는 경우 더 긍정적(약 60%)이었다.

〈표 3-1〉 "아버지나 어머니가 혼자서도 자녀를 잘 키울 수 있다"에 관한 학생의 태도

(단위: %, 명)

구분	매우 찬성	대체로 찬성	별로 찬성안함	전혀 찬성안함	계(명)	x^2
부모 이혼·별거 여부						
예	14.4	36.7	33.5	15.3	100.0 (972)	205.8 ***
아니오	5.8	25.0	43.7	25.5	100.0 (9,730)	
부모간의 관계						
매우 좋은 편	7.2	21.1	40.4	31.4	100.0 (3,678)	349.0 ***
좋은 편	4.4	26.0	47.9	21.7	100.0 (3,879)	
보통	5.6	30.1	43.8	20.4	100.0 (1,966)	
나쁜 편	11.4	36.1	31.8	20.6	100.0 (446)	
매우 나쁜 편	20.6	29.6	29.6	20.2	100.0 (223)	
모르겠음	9.0	32.3	36.0	22.8	100.0 (378)	
부모 취업여부						
부모 모두 일함	6.6	26.6	42.5	24.3	100.0 (6,970)	208.6 ***
부만 일함	6.1	24.5	44.5	24.9	100.0 (3,388)	
모만 일함	18.5	41.2	27.0	13.2	100.0 (507)	
부모 모두 일을 안함	9.6	26.5	37.9	26.1	100.0 (272)	

주: † p<0.1, * p<0.05, ** p<0.01, *** p<0.001

부모간관계가 나쁠수록 미혼모관련 태도도 긍정적인 태도가 강하였다. 학생-부모관계와 미혼모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도 정(正)적 관계를 보였다(표 3-2 참조).

〈표 3-2〉 "결혼하지 않아도 자녀를 가질 수 있다"에 관한 학생의 태도

(단위: %, 명)

구분	매우 찬성함	대체로 찬성함	별로 찬성안함	전혀 찬성안함	계(명)	x^2
부모간의 관계						
매우 좋은 편	4.5	15.0	32.8	47.7	100.0 (3,678)	120.3***
좋은 편	3.0	18.3	39.3	39.4	100.0 (3,875)	
보통	4.2	19.3	37.9	38.6	100.0 (1,965)	
나쁜 편	5.6	19.5	31.8	43.0	100.0 (446)	
매우 나쁜 편	8.1	22.0	26.9	43.0	100.0 (223)	
모르겠음	5.6	16.2	37.4	40.8	100.0 (377)	
학생-부모간 관계						
매우 좋은 편	4.4	15.0	33.1	47.5	100.0 (4,365)	144.2 ***
좋은 편	3.4	18.3	39.2	39.1	100.0 (4,293)	
보통	4.3	19.9	37.1	38.6	100.0 (1,855)	
나쁜 편	4.2	22.0	33.2	40.7	100.0 (214)	
매우 나쁜 편	20.5	20.5	20.5	38.6	100.0 (44)	
모르겠음	7.5	20.1	34.4	38.0	100.0 (334)	

주: † p<0.1, * p<0.05, ** p<0.01, *** p<0.001

예상외로 부모의 생존여부별 재혼관련 학생의 태도 차이는 통계적으로 무의미하였다(표 3-3 참조). 부모가 이혼·별거 중인 학생의 경우 63.5%가 찬성하며, 그렇지 않은 학생의 58.4%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3-3〉 "사별이나 이혼 후에도 재혼을 해서 새 삶을 시작하는 것이 좋다"에 관한 학생의 태도

(단위: %, 명)

구분	매우 찬성함	대체로 찬성함	별로 찬성안함	전혀 찬성안함	계(명)	x^2
부모 이혼·별거여부						
예	17.4	46.2	21.7	14.7	100.0 (972)	19.5***
아니오	13.4	45.0	26.9	14.7	100.0 (9,719)	

주: † p<0.1, * p<0.05, ** p<0.01, *** p<0.001

형제자매가 많을수록 입양에 대해 긍정적이었다(표 3-4 참조). 형제자매들과 지낸 경험으로 입양아와도 잘 살수 있다는 가치관이 형성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학생-부모관계는 입양에 관한 태도와 부적 관계를 보이고 있다. 자신의 처지를 통해 입양아와 양부모간의 관계를 조망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표 3-4〉 "입양한 아이도 내가 낳은 자식과 같이 애정을 갖고 잘 키울 수 있다"에 관한 학생의 태도

(단위: %, 명)

구분	매우 찬성함	대체로 찬성함	별로 찬성안함	전혀 찬성안함	계(명)	x^2
형제자매수						
1명	27.5	42.9	20.0	9.6	100.0 (1,413)	24.1**
2명	28.0	42.0	20.7	9.3	100.0 (7,119)	
3명	30.7	43.5	17.3	8.5	100.0 (2,173)	
4명이상	32.4	43.5	16.4	7.7	100.0 (519)	
학생-부모간 관계						
매우 좋은 편	33.9	37.9	18.2	9.9	100.0 (4,363)	192.3***
좋은 편	23.8	48.0	20.7	7.5	100.0 (4,295)	
보통	26.3	43.0	21.6	9.0	100.0 (1,857)	
나쁜 편	30.8	36.4	20.1	12.6	100.0 (214)	
매우 나쁜 편	31.8	25.0	15.9	27.3	100.0 (44)	
모르겠음	33.0	35.4	19.2	12.3	100.0 (333)	

주: † p<0.1, * p<0.05, ** p<0.01, *** p<0.001

부모의 이혼·별거여부와 학생의 동거관련 태도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표 3-5 참조). 그러나 부모간의 관계가 나쁠수록 동거에 관한 학생의 부정적인 태도가 약화되고 있는 경향이 나타났다.

〈표 3-5〉 "남녀가 사랑한다면 결혼하지 않고 함께 사는 것도 괜찮다"에 관한 학생 태도

(단위: %, 명)

구분	매우 찬성	대체로 찬성	별로 찬성안함	전혀 찬성안함	계(명)	x^2
부모간의 관계						
매우 좋은 편	7.2	22.6	38.7	31.5	100.0 (3,675)	153.6***
좋은 편	5.4	27.9	43.4	23.3	100.0 (3,876)	
보통	9.2	27.9	39.4	23.5	100.0 (1,965)	
나쁜 편	9.4	28.6	37.1	24.8	100.0 (447)	
매우 나쁜 편	14.3	22.9	35.0	27.8	100.0 (223)	
모르겠음	8.2	31.2	35.2	25.4	100.0 (378)	
학생-부모간 관계						
매우 좋은 편	6.7	22.0	39.0	32.3	100.0 (4,362)	199.0***
좋은 편	6.2	28.7	42.7	22.4	100.0 (4,293)	
보통	8.5	29.9	39.3	22.3	100.0 (1,858)	
나쁜 편	12.2	31.0	33.8	23.0	100.0 (213)	
매우 나쁜 편	15.9	27.3	31.8	25.0	100.0 (44)	
모르겠음	11.6	29.6	32.2	26.6	100.0 (335)	

3. 청소년 가족가치관의 시사점

우선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첫째, 다양한 가족형태에 대한 학생의 수용도(긍정적 태도)는 입양(71.1%), 국제결혼(61.3%), 재혼(58.7%), 한부모가족(33.7%), 혼전동거(33.4%), 미혼모(21.6%) 순이다. 입양, 국제결혼 및 재혼에 대한 학생의 수용도는 높은 편이나, 한부모가족, 동거 및 미혼모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태도가 우세하다. 둘째, 남녀학생별로는 동거를 제외한 한부모가족, 미혼모, 입양, 재혼, 국제결혼에 대한 수용도가 남학생에 비해 여학생이 상대적으로 높다. 동거에 대한 수용도는 남학생이 더 높다. 셋째, 성장과정별로 입양과 국제결혼에 대한 학생의 수용도는 중학생 시기까지 높아진다. 재혼, 동거 및 한부모가족에 대한 수용도는 성장과정에서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다. 미혼모에 대한 학생의 수용도도 성장하면서 점차 높아지나, 그 수준은 여전히 낮아 거부감이 심하다.

저출산·고령화 현상은 사회·경제 환경의 변화에 기인할 뿐 아니라 가족가치관의 변화에도 기인한다. 그러나 부록에 수록된 교사조사 결과를 참조하여 보면, 전체 응답교사 중 50% 정도만이 해당학교에서 가족관련 교육이 실시되고 있는 것으로 답해, 기본적으로 가족에 대한 교육 자체가 확충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전체 응답교사의 75%가 넘는 수가 가족관련 교육내용이 진부하거나 관련 자료가 부족하다고 답변하여, 관련 자료의 확충 및 내용의 개선이 시급하다고 평가하고 있다.

제 2 절 청소년의 결혼가치관

1. 문제제기

많은 젊은이들이 결혼을 늦게 하거나 아예 하지 않고 있다(변화순, 2002). 혼인상태의 변화는 다양한 개인적·사회적 결과를 가져온다. 개인적으로 혼인상태는 삶의 질에 큰 영향을 준다. 예를 들어 30세 이후 동일연령 기혼자에 비해

미혼자는 여러 가지 이유로 사망할 확률이 6배가 높다. 미혼자들은 영양 불균형과 불균형한 수면, 잦은 흡연 및 음주 등으로 사망률이 높다는 것이다. 사회적으로도 큰 결과를 초래한다. 예를 들어 늦은 결혼은 최근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저출산 문제의 주요한 원인 중 하나이다(이삼식 외, 2005b).

이러한 혼인 행위의 변화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많은 학자들은 가치관의 변화를 들고 있다(이삼식 외, 2005c). 최근 성인의 미혼남녀들은 결혼은 꼭 해야 할 필요는 없는 일종의 선택이라고 생각한다. 26세에서 35세까지 젊은이를 대상으로 한 조사에 따르면, 이들은 절반 가까이(43.3%)가 혼전 동거에 긍정적이며 여성들은 결혼은 의무가 아닌 선택(50.0%)이며 싱글도 좋다(62.8%)고 말한다(제일기획, 2005). 이 젊은이들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나'이기 때문에 "아이에게 매이면 자기 시간을 못 가지니까 아이에게 들여야 할 돈·노력·정성을 나에게 쏟고 싶다"고 말하고 "나이 더 먹기 전에 성공을 하기 위해서" 자기계발을 열심히 해야 하며 "가만히 있으면 밀려난다"고 생각한다.

청소년들은 미래의 주인으로 이들의 가치관은 한국의 미래를 가름해볼 수 있는 척도역할을 한다. 청소년들이 결혼에 부정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있다면, 저출산 등 많은 부정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최근 혼인 형태가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계속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그 경우 개인 및 사회의 가치관을 변화시킬 수 있는 학교교육의 중요성이 커지며, 결혼 등 가족에 대한 가치관이 사적인 영역에도 불구하고 공적인 접근이 불가피해진다.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본 연구는 청소년들의 결혼에 대한 가치관에 대해 탐구해보고자 한다. 전국적으로 모아진 자료를 통해 10대 학생들이 결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아본다. 특히 다양한 개인적·가족적 배경에 따라 청소년들의 결혼에 대한 여러 가지 태도가 어떻게 다른지에 초점을 맞춘다. 이를 통해 청소년 가치관 교육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찾아가는데 도움을 주고자 한다.

2. 결혼 필요성에 관한 청소년의 태도

결혼의 필요성에 대한 초·중·고 학생의 긍정적인 태도(반드시 해야 한다 +

하는 편이 좋다)가 66.5%이나 '반드시 결혼해야 한다'는 태도는 16.8%에 불과했다(표 3-6 참조). 결혼에 대해 유보적(29.3%)이거나 부정적(1.6%)인 태도도 40%에 육박하였다. 2005년 조사결과와 비교하여 보면, 청소년들은 성인미혼남녀보다 결혼의 필요성을 덜 느끼고 있다. 성별로 결혼의 필요성에 대한 긍정적 태도는 여학생의 경우 56.8%로 남학생 75.5%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았다. 학교급·학년별로 결혼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는 큰 차이가 없다. 그러나 '반드시 해야 한다'는 태도는 상급학교·고학년일수록 높아지는 경향이 있다.

〈표 3-6〉 결혼 필요성에 대한 학생의 태도

(단위: %, 명)

구분	반드시 해야함	하는편이 좋음	해도·하지 않아도좋음	하지않는게 낫음	모르겠음	계(명)
전체	16.8	49.7	29.3	1.6	2.5	100.0 (11,236)
성별(x^2=649.1***)						
남학생	22.8	52.7	20.4	1.1	3.1	100.0 (5,850)
여학생	10.4	46.4	39.1	2.2	1.9	100.0 (5,377)
학년구분(x^2=173.3***)						
초 5학년	13.5	52.1	25.9	1.9	6.7	100.0 (1,020)
초교6년	15.1	52.2	27.6	0.9	4.2	100.0 (877)
중교1년	16.9	50.1	28.3	1.5	3.2	100.0 (1,552)
중교2년	15.6	50.6	30.3	1.1	2.4	100.0 (1,608)
중교3년	14.9	49.5	32.5	1.6	1.5	100.0 (1,589)
고교1년	17.6	51.8	27.4	1.8	1.4	100.0 (1,561)
고교2년	19.7	46.5	30.0	2.2	1.6	100.0 (1,599)
고교3년	19.6	46.3	30.7	2.0	1.3	100.0 (1,431)
부모간의 관계(x^2=172.6***)						
매우 좋은 편	20.2	49.8	26.8	1.1	2.0	100.0 (3,674)
좋은 편	15.1	53.2	28.5	1.1	2.1	100.0 (3,879)
보통	14.5	46.1	33.5	2.6	3.3	100.0 (1,966)
나쁜 편	17.3	43.6	34.6	2.7	1.8	100.0 (445)
매우 나쁜 편	16.6	41.3	31.8	5.4	4.9	100.0 (223)
모르겠음	13.0	47.2	31.3	2.4	6.1	100.0 (377)
가구경제수준(x^2=255.7***)						
매우 잘 사는 편	35.0	32.7	22.9	2.8	6.5	100.0 (214)
잘 사는 편	18.8	50.9	27.7	1.0	1.6	100.0 (1,536)
보통	16.1	50.9	29.5	1.3	2.2	100.0 (7,221)
못 사는 편	15.7	48.4	30.7	2.8	2.4	100.0 (1,654)
매우 못사는 편	23.6	35.2	32.1	6.7	2.4	100.0 (165)
모르겠음	14.1	44.6	28.9	2.5	9.9	100.0 (433)

일반적으로 부모의 이혼·별거가 자녀의 결혼가치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 결과가 있으나, 학생 조사의 결과는 유의미하지 않았다. 대신, 부모간의 관계는 결혼 필요성에 대한 학생의 태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부모간의 관계가 나쁠수록 결혼 필요성에 대한 학생의 긍정적인 태도가 일관성 있게 낮은 반면, '하지 않은 것이 낫다'는 부정적인 태도는 높게 나타났다. 동 가치관은 학생-부모관계와 U자 형태의 관계를 보이고 있다. 부모와의 관계가 매우 좋거나 매우 나쁘면 반드시 결혼해야 한다고 응답하는 편인데 비해, 관계가 보통인 경우는 반드시 결혼해야 한다는 의견이 줄어들고 있다. 아주 못산다는 학생의 결혼필요성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가 가장 낮으며, 부정적 태도도 상대적으로 높았다. 가구의 경제수준이 좋지 않은 경우, 부모의 결혼생활에 대한 회의감으로 결혼에 대한 태도도 부정적인 방향으로 변화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3. 이상적 결혼연령에 관한 청소년의 태도

학생들이 생각하는 여성과 남성의 이상적인 결혼연령들이 어떻게 다른지 살펴보았다(표 3-7 참조).

〈표 3-7〉 남녀의 이상적인 결혼연령에 관한 학생의 태도(평균연령)

(단위: 세)

구분	전체	초5	초6	중1	중2	중3	고1	고2	고3
전체학생									
남성의 이상결혼연령	27.9	27.1	27.0	27.2	27.6	27.8	28.5	28.9	29.2
여성의 이상결혼연령	26.1	25.7	25.8	25.9	26.3	26.4	27.0	27.3	27.5
차이	1.4	1.4	1.2	1.3	1.3	1.4	1.5	1.6	1.7
남학생 태도									
남성의 이상적 결혼연령	27.4	26.9	26.7	26.7	27.1	27.0	27.8	28.3	28.7
여성의 이상적 결혼연령	25.8	25.5	25.3	25.4	25.5	25.5	26.0	26.5	26.6
차이	1.6	1.4	1.4	1.3	1.6	1.5	1.8	1.8	2.1
여학생 태도									
남성의 이상적 결혼연령	28.6	27.3	27.3	27.7	28.3	28.7	29.4	29.7	29.9
여성의 이상적 결혼연령	27.2	25.9	26.2	26.3	26.9	27.2	27.7	27.9	28.3
차이	1.4	1.4	1.1	1.4	1.4	1.5	1.7	1.8	1.6

학생이 생각하는 남성과 여성의 이상적인 결혼연령간의 차이는 전자가 후자에 비해 평균 1.4세가 높으며, 상급학교·고학년일수록 그 차이는 점차 커지는 경향이 있다. 여기에서 주목할 만한 결과는 남학생이 남녀의 이상적인 결혼연령을 낮추어 보는 경향이 있는 반면, 여학생의 경우에는 그 반대로 나타났다는 점이다. 이러한 경향은 상급학교·고학년일수록 더 뚜렷하게 나타났다. 이를 통해, 기대 결혼시기에 있어서 남녀간의 불일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것이라는 유추가 가능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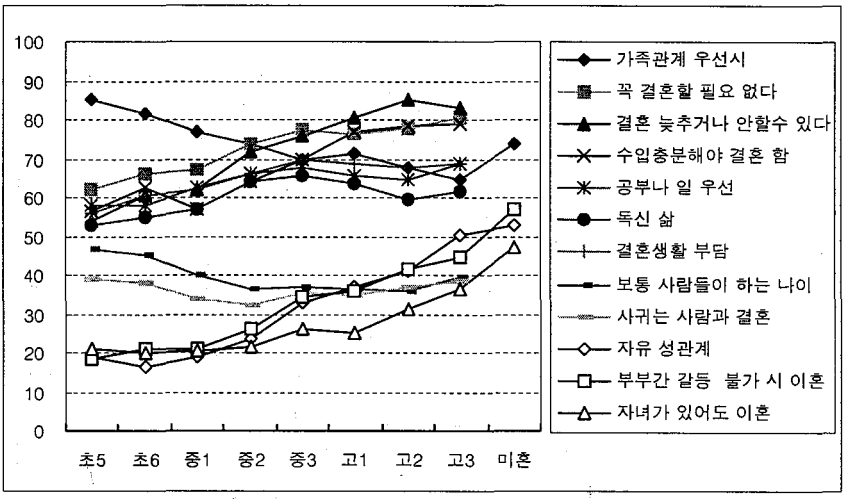
4. 결혼에 관한 청소년의 태도

가. 개인적 특성별 태도

결혼관련 가치들에 대한 학생의 긍정적인 태도는 대부분 학교급 이행과정에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3-3 참조). 그러한 결혼가치관들로는 '마땅한 상대를 만나지 못하면 결혼을 꼭 할 필요는 없다', '직장을 구하지 못하나 안정된 직장을 가지지 못하면 결혼을 늦추거나 안 할 수도 있다', '결혼생활을 유지할 정도로 수입이 충분해야 결혼을 할 수 있다', '내가 하고 싶은 공부나 일을 하기 위해 결혼을 안할 수도 있다', '독신 삶을 즐기기 위해서는 결혼을 안 할 수도 있다', '결혼생활이 부담스러우면 결혼을 안할 수도 있다', '결혼과 관계없이 성관계를 가질 수 있다', '부부간의 갈등을 해결할 수 없다면 이혼 하는 게 낫다', '자녀가 있어도 이혼할 수 있다' 등이 포함된다. 성장 과정에서 여건에 따라 만혼, 비혼, 혼전성관계, 이혼 등을 선택할 수 있다는 경향이 강화되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반면, '결혼은 개인보다 가족간의 관계 먼저 생각해야 한다', '결혼은 보통 사람들이 결혼하는 나이에 해야 한다', '사귀는 사람이 있으면 결혼은 그 사람과 해야 한다' 등 결혼의 가족주의적 가치관, 결혼 연령규범 준수, 순결가치관 등은 성장과 더불어 점차 약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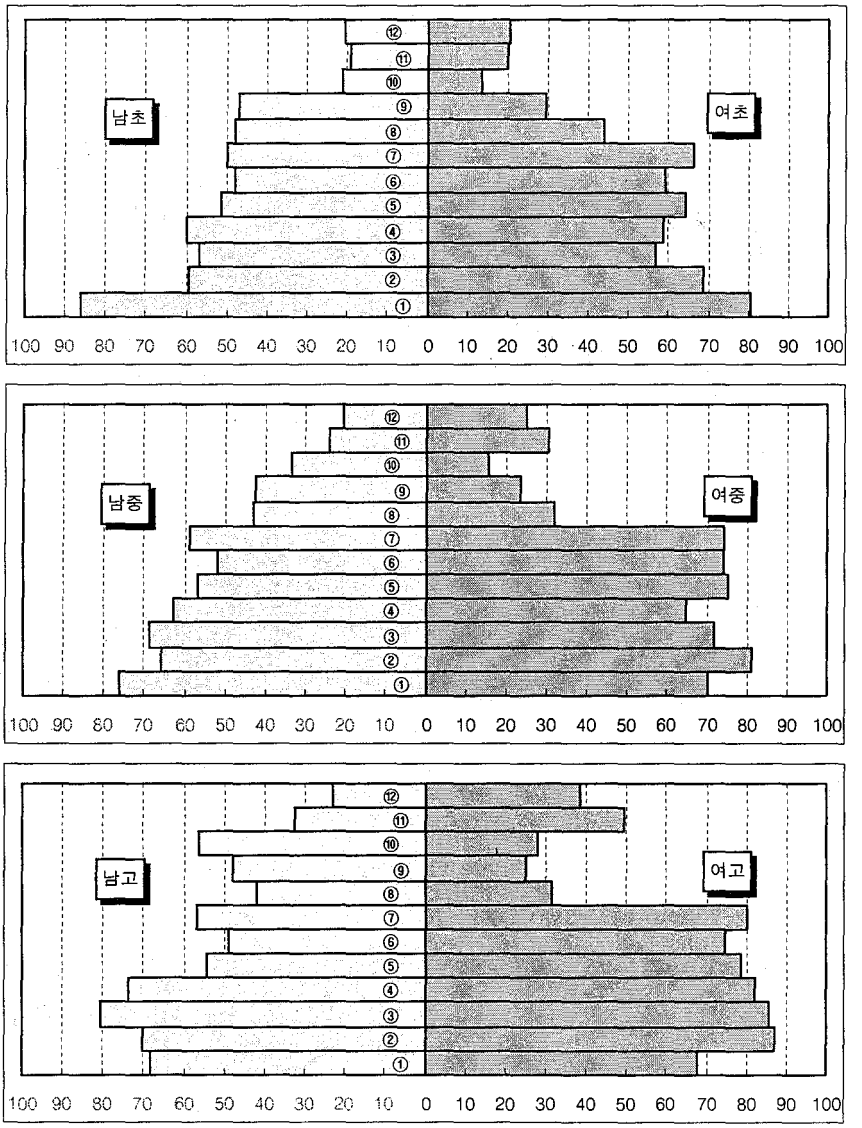
[그림 3-3] 생애경로 이행과정별 결혼관련 다양한 견해에 관한 학생의 태도 변화



여학생에게서 상대적으로 강하게 나타나는 가치관들은 '마땅한 상대를 만나지 못하면 결혼을 꼭 할 필요는 없다', '직장을 구하지 못하나 안정된 직장을 가지지 못하면 결혼을 늦추거나 안 할 수도 있다', '결혼생활을 유지할 정도로 수입이 충분해야 결혼을 할 수 있다', '내가 하고 싶은 공부나 일을 하기 위해 결혼을 안 할 수도 있다', '독신의 삶의 즐기기 위해서는 결혼을 안 할 수도 있다', '결혼생활이 부담스러우면 결혼을 안 할 수도 있다' 등이다(그림 3-4 참조).

나머지 가치관들은 남학생에게서 상대적으로 강하게 나타났다. 즉, 전통적이고 보수적인 특성이 내재된 결혼가치관에 대해서는 남학생이 더 긍정적인 반면, 현대생활 여건에 따라 만혼, 비혼, 이혼 등을 선택할 수 있다는 태도는 여학생에게서 상대적으로 높았다. 전체적으로 여학생의 결혼관이 더 부정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림 3-4] 학교급 및 성별 결혼에 관한 학생의 태도



주: ① 결혼은 개인보다 가족간의 관계 ② 마땅한 상대를 만나지 못하면 결혼을 꼭 할 필요는 없다
③ 안정된 직장을 가지지 못하면 만혼/비혼 ④ 수입이 충분해야 결혼 ⑤ 공부나 일을 위해 비혼가능
⑥ 독신의 삶의 즐기기 위해 비혼, ⑦ 결혼생활 부담시 비혼 ⑧ 보통 사람들이 결혼하는 나이에
⑨ 사귀는 사람과 결혼해야 ⑩ 결혼과 관계없이 성관계 ⑪ 부부간의 갈등을 해결할 수 없다면 이혼
⑫ 자녀가 있어도 이혼

나. 가족적 특성별 태도

"결혼은 개인보다 가족간의 관계를 먼저 생각해야 한다" 견해에 관한 학생의 태도는 부모간의 관계가 안 좋은 학생일수록 긍정적이었다(표 3-8 참조). 학생과 부모간의 관계가 나쁘다고 하는 학생일수록 동 견해에 대해 덜 긍정적이었다. 즉, 가족성원간의 관계가 좋지 않을수록 결혼에 대한 가족주의적 가치관은 부정적인 영향을 받는 것으로 보인다.

〈표 3-8〉 "결혼은 개인보다 가족간의 관계를 먼저 생각해야 한다"에 관한 학생의 태도

(단위: %, 명)

구분	매우 찬성함	대체로 찬성함	별로 찬성안함	전혀 찬성안함	계 (명)	x^2
부모간의 관계						
매우 좋은 편	29.2	47.6	19.6	3.6	100.0 (3,678)	166.7***
좋은 편	19.4	52.1	25.3	3.3	100.0 (3,877)	
보통	22.1	46.5	26.3	5.1	100.0 (1,963)	
나쁜 편	24.4	44.4	24.4	6.7	100.0 (446)	
매우 나쁜 편	29.3	39.2	24.8	6.8	100.0 (222)	
모르겠음	25.5	45.9	22.3	6.4	100.0 (377)	

주: † p<0.1, * p<0.05, ** p<0.01, *** p<0.001

"마땅한 사람을 만나지 못하면 결혼을 꼭 할 필요는 없다" 견해에 관한 학생의 태도는 부모간의 관계가 나쁠수록 더 긍정적이었다(표 3-9 참조). 가구의 경제수준이 나쁜 학생일수록 동 견해에 더 긍정적인 태도를 보였다. 즉, 부모간의 관계가 원만하지 못할 경우와 가구경제수준이 열악할 경우, 학생은 그 영향으로 자신의 배우자 선택에 더 신중한 태도를 보일 가능성이 높다.

결혼 조건으로서 직장 안정성에 관한 학생의 태도는 가족적 배경과도 깊은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3-10 참조). 구체적으로 부모가 이혼·별거중인 학생의 경우 그렇지 않은 학생에 비해 결혼조건으로서 직장의 안정성을 상대적으로 더 중요시 여기고 있었다. 유사한 맥락으로 부모간의 관계가 나쁜 학생일수록 그렇지 않은 학생들에 비해 동 견해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가 더 우세하게 나타났다. 한편, 가구경제수준이 좋지 않을수록 결혼의 조건으로서 직장의 안정성에 대한 학생들의 태도는 더 강하게 나타났다. 요컨대, 가족구성원간의 관계가 원만하지 않고 가구경제 수준이 열악할 경우, 그 영향으로 학생들은

보다 원만한 결혼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조건으로서 직장의 안정성을 상대적으로 더 중요시 여기고 있다고 하겠다.

〈표 3-9〉 "마땅한 사람을 만나지 못하면 결혼을 꼭 할 필요는 없다"에 관한 학생의 태도

(단위: %, 명)

구분	매우 찬성함	대체로 찬성함	별로 찬성안함	전혀 찬성안함	계 (명)	x^2
부모간의 관계						
매우 좋은 편	23.8	48.3	22.4	5.4	100.0 (3,680)	78.2***
좋은 편	20.7	52.8	22.4	4.0	100.0 (3,876)	
보통	25.7	49.4	20.2	4.6	100.0 (1,962)	
나쁜 편	30.6	49.0	14.5	5.8	100.0 (447)	
매우 나쁜 편	34.7	45.0	14.4	5.9	100.0 (222)	
모르겠음	23.9	48.7	21.5	5.9	100.0 (376)	
가구 경제상태						
매우 잘 사는 편	26.4	35.6	20.8	17.1	100.0 (216)	144.9***
잘 사는 편	24.5	45.2	24.2	6.1	100.0 (1,536)	
보통	22.5	51.6	21.7	4.2	100.0 (7,217)	
못 사는 편	27.0	50.7	18.0	4.3	100.0 (1,653)	
매우 못사는 편	29.4	44.2	17.8	8.6	100.0 (163)	

〈표 3-10〉 "직장을 구하지 못하거나 안정된 직장을 가지지 못하면 결혼을 늦추거나 안할 수도 있다"에 관한 학생의 태도

(단위: %, 명)

구분	매우 찬성함	대체로 찬성함	별로 찬성안함	전혀 찬성안함	계 (명)	x^2
부모 이혼·별거 상태						
예	25.1	51.0	19.4	4.4	100.0 (972)	12.5**
아니오	20.6	52.3	22.1	5.0	100.0 (9,709)	
부모간의 관계						
매우 좋은 편	20.7	48.8	24.1	6.5	100.0 (3,674)	128.7***
좋은 편	18.6	55.5	22.0	3.9	100.0 (3,874)	
보통	22.3	53.8	19.8	4.1	100.0 (1,957)	
나쁜 편	28.4	50.1	17.2	4.3	100.0 (447)	
매우 나쁜 편	35.9	38.1	17.0	9.0	100.0 (223)	
모르겠음	22.1	52.3	20.5	5.1	100.0 (375)	
가구의 경제수준						
매우 잘 사는 편	23.7	35.8	24.7	15.8	100.0 (215)	193.3***
잘 사는 편	21.1	46.4	25.7	6.8	100.0 (1,535)	
보통	19.5	54.0	22.0	4.5	100.0 (7,213)	
못 사는 편	26.2	53.5	16.8	3.6	100.0 (1,652)	
매우 못사는 편	36.2	35.6	19.6	8.6	100.0 (163)	

주: † p<0.1, * p<0.05, ** p<0.01, *** p<0.001

부모가 이혼·별거 중이거나 부모간의 관계가 나쁠수록 결혼 조건으로서 수입의 안정성에 대한 학생의 긍정적인 태도는 높아지는 경향이 있다(표 3-11 참조). 가구의 경제수준이 나쁠수록 결혼조건으로서 수입의 안정성에 대한 긍정적 태도도 더 강하였다. 소득이 불안정하여 부모간의 관계가 좋지 않은 학생들이 결혼조건으로서 수입 안정성을 중요시 여기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표 3-11〉 "결혼생활을 유지할 정도로 수입이 충분해야 결혼을 할 수 있다"에 관한 학생의 태도

(단위: %, 명)

구분	매우 찬성함	대체로 찬성함	별로 찬성안함	전혀 찬성안함	계 (명)	x^2
부모간의 관계						
매우 좋은 편	22.8	43.2	26.9	7.1	100.0 (3,670)	102.1***
좋은 편	19.1	51.0	25.4	4.4	100.0 (3,869)	
보통	23.4	48.9	23.1	4.7	100.0 (1,957)	
나쁜 편	25.2	44.7	24.5	5.6	100.0 (445)	
매우 나쁜 편	32.0	37.4	21.6	9.0	100.0 (222)	
모르겠음	23.1	44.5	26.0	6.4	100.0 (373)	
가구의 경제수준						
매우 잘 사는 편	27.8	38.7	23.6	9.9	100.0 (212)	72.0***
잘 사는 편	23.6	42.4	26.6	7.3	100.0 (1,529)	
보통	20.8	48.6	25.4	5.2	100.0 (7,205)	
못 사는 편	23.7	47.9	23.7	4.8	100.0 (1,644)	
매우 못사는 편	28.5	39.4	22.4	9.7	100.0 (165)	

주: † p<0.1, * p<0.05, ** p<0.01, *** p<0.001

일부 가족적 배경도 자아성취를 위한 결혼 포기에 관한 학생들의 태도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다(표 3-12 참조). 대체적으로 자아성취를 위한 결혼 포기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는 부모간의 관계가 나쁠수록 높아지는 경향이 나타났다. 가구의 경제수준이 열악할수록 자아실현을 위한 결혼포기관련 태도도 증가하고 있다. 가구성원간의 관계나 가구경제수준이 열악할수록 학생들은 자아성취욕구과 결혼포기를 연계하는 경향이 있다.

부모간의 관계가 나쁠수록 대체적으로 독신관련 학생의 태도는 더 긍정적이며, 학생-부모간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이다(표 3-13 참조). 가구경제수준이 나쁠수록 대체적으로 학생의 독신태도도 더 긍정적이었다. 이는 가정환경이 열악할수록 학생들이 결혼생활에 대한 기대 대신 독신주의적 사고방식이 더 강화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표 3-12〉 "내가 하고 싶은 공부나 일을 하기 위해 결혼을 안 할 수도 있다"에 관한 학생의 태도

(단위: %, 명)

구분	매우 찬성함	대체로 찬성함	별로 찬성안함	전혀 찬성안함	계 (명)	x^2
부모간의 관계						
매우 좋은 편	22.7	40.4	26.9	9.9	100.0 (3,667)	90.8***
좋은 편	19.0	44.9	28.9	7.2	100.0 (3,876)	
보통	24.6	42.6	25.7	7.0	100.0 (1,959)	
나쁜 편	28.1	38.9	22.2	10.8	100.0 (445)	
매우 나쁜 편	26.9	38.6	22.9	11.7	100.0 (223)	
모르겠음	27.9	37.7	26.5	8.0	100.0 (377)	
가구의 경제수준						70.0***
매우 잘 사는 편	24.3	31.8	27.6	16.4	100.0 (214)	
잘 사는 편	22.7	38.6	28.4	10.4	100.0 (1,535)	
보통	21.8	43.2	27.4	7.5	100.0 (7,203)	
못 사는 편	23.4	43.7	25.0	8.0	100.0 (1,651)	
매우 못사는 편	29.9	36.0	22.0	12.2	100.0 (164)	

주: † p<0.1, * p<0.05, ** p<0.01, *** p<0.001

〈표 3-13〉 "독신의 삶을 즐기기 위해서는 결혼을 안 할 수도 있다"에 관한 학생의 태도

(단위: %, 명)

구분	매우 찬성함	대체로 찬성함	별로 찬성안함	전혀 찬성안함	계 (명)	x^2
부모간의 관계						
매우 좋은 편	22.4	36.8	24.2	16.6	100.0 (3,673)	92.8***
좋은 편	19.0	41.1	26.3	13.5	100.0 (3,877)	
보통	26.0	37.5	22.4	14.0	100.0 (1,955)	
나쁜 편	25.6	35.7	22.7	16.0	100.0 (445)	
매우 나쁜 편	33.5	35.7	16.1	14.7	100.0 (224)	
모르겠음	26.3	36.5	25.7	11.5	100.0 (373)	
학생의 부모와의 관계						
매우 좋은 편	23.1	35.9	24.3	16.7	100.0 (4,359)	102.1***
좋은 편	19.7	40.4	26.5	13.4	100.0 (4,290)	
보통	23.2	41.0	22.8	12.9	100.0 (1,848)	
나쁜 편	31.2	34.4	20.0	14.4	100.0 (215)	
매우 나쁜 편	20.5	34.1	15.9	29.5	100.0 (44)	
모르겠음	33.6	33.6	19.1	13.6	100.0 (330)	
가구의 경제수준						
매우 잘 사는 편	29.9	22.9	20.6	26.6	100.0 (214)	78.2***
잘 사는 편	22.2	36.0	25.0	16.8	100.0 (1,535)	
보통	21.5	39.4	25.2	13.9	100.0 (7,208)	
못 사는 편	24.6	39.7	21.9	13.7	100.0 (1,646)	
매우 못사는 편	23.6	34.5	22.4	19.4	100.0 (165)	

"결혼생활이 부담스러우면 결혼을 안 할 수도 있다"는 견해에 대한 학생의 태도는 가족구성원간의 관계 및 가구의 경제수준에 의해 영향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표 3-14 참조). 부모간의 관계가 나쁠수록 결혼생활 부담으로 인한 결혼포기에 더 찬성하며, 가구경제수준이 나쁜 경우에도 유사한 경향이 나타났다.

〈표 3-14〉 "결혼생활이 부담스러우면 결혼을 안 할 수도 있다"에 관한 학생의 태도

(단위: %, 명)

구분	매우 찬성함	대체로 찬성함	별로 찬성안함	전혀 찬성안함	계 (명)	x^2
부모간의 관계						
매우 좋은 편	20.0	43.5	25.0	11.5	100.0 (3,673)	104.6***
좋은 편	17.0	48.4	26.0	8.5	100.0 (3,877)	
보통	23.6	45.1	23.3	8.0	100.0 (1,958)	
나쁜 편	27.4	41.7	21.5	9.4	100.0 (446)	
매우 나쁜 편	30.2	41.0	18.9	9.9	100.0 (222)	
모르겠음	25.3	42.7	24.5	7.5	100.0 (375)	

주: † p<0.1, * p<0.05, ** p<0.01, *** p<0.001

"결혼은 보통 사람들이 결혼하는 나이에 해야 한다" 견해에 대해 부모가 이혼·별거 중인 학생의 태도가 그렇지 않은 학생들에 비해 더 부정적이었다. 부모간의 관계나 학생-부모간의 관계가 나쁠수록 동 견해에 대한 학생의 태도는 더 부정적이었다. 가구의 경제수준이 낮을수록 동 견해에 대한 학생의 태도는 부정적으로 강화되었다. 즉, 학생의 가족적 배경이 열악할수록 결혼의 연령규범에 따르지 않으려는 경향이 더 강하다고 하겠다.

"사귀는 사람이 있으면 결혼은 그 사람과 해야 한다"는 견해에 대한 학생의 태도는 부모의 이혼·별거여부별로 차이가 없었다(표 3-16 참조). 부모간의 관계별 태도 차이는 부정적인 태도만을 고려할 경우 그 방향성은 뚜렷하지 않다. 학생의 가족적 배경과 동 견해에 대한 태도는 부분적으로 일정한 방향성을 제시해주지 못하는 편이라고 할 수 있으나, 대체적으로 가정환경이 원만한 학생일수록 이성교제와 결혼을 연계하려는 경향이 상대적으로 강하다고 할 수 있다.

〈표 3-15〉 "결혼은 보통사람들이 결혼하는 나이에 해야 한다"에 관한 학생의 태도

(단위: %, 명)

구분	매우 찬성함	대체로 찬성함	별로 찬성안함	전혀 찬성안함	계 (명)	x^2
부모 이혼·별거 상태						
예	8.9	25.9	42.7	22.5	100.0 (973)	11.0*
아니오	9.2	30.3	41.2	19.3	100.0 (9,720)	
부모간의 관계						
매우 좋은 편	11.0	28.8	39.8	20.4	100.0 (3,675)	41.4***
좋은 편	8.2	32.0	42.6	17.1	100.0 (3,878)	
보통	7.1	30.4	41.9	20.5	100.0 (1,962)	
나쁜 편	10.1	26.4	43.6	19.9	100.0 (447)	
매우 나쁜 편	6.7	22.9	39.5	30.9	100.0 (223)	
모르겠음	9.3	26.8	39.0	24.9	100.0 (377)	
학생의 부모와의 관계						
매우 좋은 편	11.3	29.0	39.4	20.3	100.0 (4,360)	115.6***
좋은 편	7.6	31.2	43.7	17.4	100.0 (4,296)	
보통	6.9	30.0	42.2	20.9	100.0 (1,856)	
나쁜 편	10.7	25.2	41.1	22.9	100.0 (214)	
매우 나쁜 편	11.4	25.0	31.8	31.8	100.0 (44)	
모르겠음	9.3	22.7	35.5	32.5	100.0 (335)	
가구의 경제수준						
매우 잘 사는 편	19.9	26.4	29.6	24.1	100.0 (216)	101.9***
잘 사는 편	11.5	31.1	37.1	20.2	100.0 (1,536)	
보통	8.6	30.5	42.5	18.4	100.0 (7,216)	
못 사는 편	7.3	27.3	41.8	23.6	100.0 (1,651)	
매우 못사는 편	7.9	25.5	37.0	29.7	100.0 (165)	

주: † p<0.1, * p<0.05, ** p<0.01, *** p<0.001

〈표 3-16〉 "사귀는 사람이 있으면 결혼은 그 사람과 해야 한다"에 관한 학생의 태도

(단위: %, 명)

구분	매우 찬성함	대체로 찬성함	별로 찬성안함	전혀 찬성안함	계 (명)	x^2
부모간의 관계						
매우 좋은 편	9.6	26.6	42.2	21.6	100.0 (3,678)	68.9***
좋은 편	6.6	29.2	46.3	18.0	100.0 (3,878)	
보통	8.0	25.7	45.4	20.9	100.0 (1,963)	
나쁜 편	9.4	30.0	43.0	17.7	100.0 (447)	
매우 나쁜 편	13.0	22.4	39.5	25.1	100.0 (223)	
모르겠음	8.5	27.9	40.1	23.6	100.0 (377)	

주: † p<0.1, * p<0.05, ** p<0.01, *** p<0.001

학생의 가족적 특성은 이혼에 관한 태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3-17 참조). 구성원간의 관계가 나쁠수록 이혼에 대해 개방적이다. 부부 갈등시 이혼에 관한 학생의 태도는 부모를 포함한 가족환경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 한부모가족에서 자라는 청소년이 부모와 함께 자라는 청소년에 비해 이혼에 대해 개방적이다. 또한, 부모간의 관계가 나쁠수록, 부모-학생간의 관계가 나쁠수록, 그리고 가구경제수준이 낮을수록 부부 갈등시 이혼에 관한 긍정적인 태도는 약화되고 있다. 환언하면, 일반적으로 학생들 대부분은 이혼에 대해 반대하나, 가정환경이 상대적으로 열악할수록 부부 갈등시 이혼에 관한 가치관이 긍정적인 것으로 변화하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표 3-17〉 "부부간의 갈등을 해결할 수 없다면 이혼하는 게 낫다"에 관한 학생의 태도

(단위: %, 명)

구분	매우 찬성함	대체로 찬성함	별로 찬성안함	전혀 찬성안함	계 (명)	x^2
부모 이혼·별거 상태						
예	10.5	23.5	37.7	28.4	100.0 (972)	12.9**
아니오	7.4	23.7	40.5	28.4	100.0 (9,718)	
부모간의 관계						
매우 좋은 편	6.6	20.2	38.7	34.5	100.0 (3,676)	258.6***
좋은 편	5.9	24.5	43.6	26.0	100.0 (3,879)	
보통	9.7	27.4	39.8	23.1	100.0 (1,961)	
나쁜 편	13.1	26.8	34.2	25.9	100.0 (444)	
매우 나쁜 편	22.9	23.8	27.4	26.0	100.0 (223)	
모르겠음	9.5	27.1	39.0	24.4	100.0 (377)	
학생의 부모와의 관계						
매우 좋은 편	7.2	20.4	37.8	34.5	100.0 (4,362)	220.9***
좋은 편	6.8	25.5	42.7	24.9	100.0 (4,293)	
보통	9.5	26.2	41.9	22.4	100.0 (1,855)	
나쁜 편	13.6	30.0	31.9	24.4	100.0 (213)	
매우 나쁜 편	32.6	14.0	30.2	23.3	100.0 (43)	
모르겠음	11.7	24.3	35.3	28.7	100.0 (334)	
가구의 경제수준						
매우 잘 사는 편	9.3	16.3	30.2	44.2	100.0 (215)	95.4***
잘 사는 편	7.2	19.6	39.0	34.2	100.0 (1,534)	
보통	7.4	24.3	41.3	27.0	100.0 (7,217)	
못 사는 편	9.3	25.5	38.9	26.3	100.0 (1,649)	
매우 못사는 편	14.5	22.4	32.1	30.9	100.0 (165)	

주: † p<0.1, * p<0.05, ** p<0.01, *** p<0.001

5. 자신의 결혼에 관한 학생의 태도

가. 향후 결혼 의향

초·중·고 학생에게 향후 결혼할 의향을 질문한 결과, 결혼할 의향이 있는 경우는 73.2%로 나타나며, 결혼할 의향이 없는 경우는 6.1%로 비교적 낮았다(표 3-18 참조). 결혼할 의향이 없는 비율은 남학생(4.2%)에 비해 여학생(8.2%)이 높다. 상급학교·고학년일수록 결혼의향이 높으나, 고등학생의 경우 거의 80% 수준이었다. 그러나 결혼하지 않으려는 의향은 대체적으로 6% 수준으로 학교급·학년간 뚜렷한 차이를 보여주지 못했다.

〈표 3-18〉 학생의 개인적 특성별 향후 결혼 의향

(단위: %, 명)

구분	결혼할 생각이 있음	결혼할 생각이 없음	모르겠음	계 (명)	x^2
전체	73.2	6.1	20.7	100.0 (11,222)	
성별					
남자	77.0	4.2	18.8	100.0 (5,844)	118.3***
여자	69.1	8.2	22.7	100.0 (5,369)	
학교구분					
초등학교	61.8	6.4	31.8	100.0 (1,893)	259.8***
중학교	72.0	5.8	22.1	100.0 (4,742)	
인문고	79.7	6.0	14.3	100.0 (3,627)	
실업고	76.9	7.1	16.1	100.0 (959)	

주: † p<0.1, * p<0.05, ** p<0.01, *** p<0.001

가족환경에 따른 향후 학생 본인의 향후 결혼의향 차이는 뚜렷하게 나타났다(표 3-19 참조). 부모간의 관계가 나쁠수록 그리고 부모-학생간의 관계가 나쁠수록 결혼의향 학생의 비율은 상대적으로 낮은 대신에 결혼의향이 없는 학생의 비율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대체적으로 주관적 가구경제수준과 학생의 결혼의향은 정적인 관계를 보인 반면, 결혼의향 없는 비율은 부적 관계를 보였다. 이러한 결과를 미루어볼 때, 가족환경은 학생의 향후 결혼관에 보다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사료된다.

〈표 3-19〉 학생의 가족적 특성별 향후 결혼 의향

(단위: %,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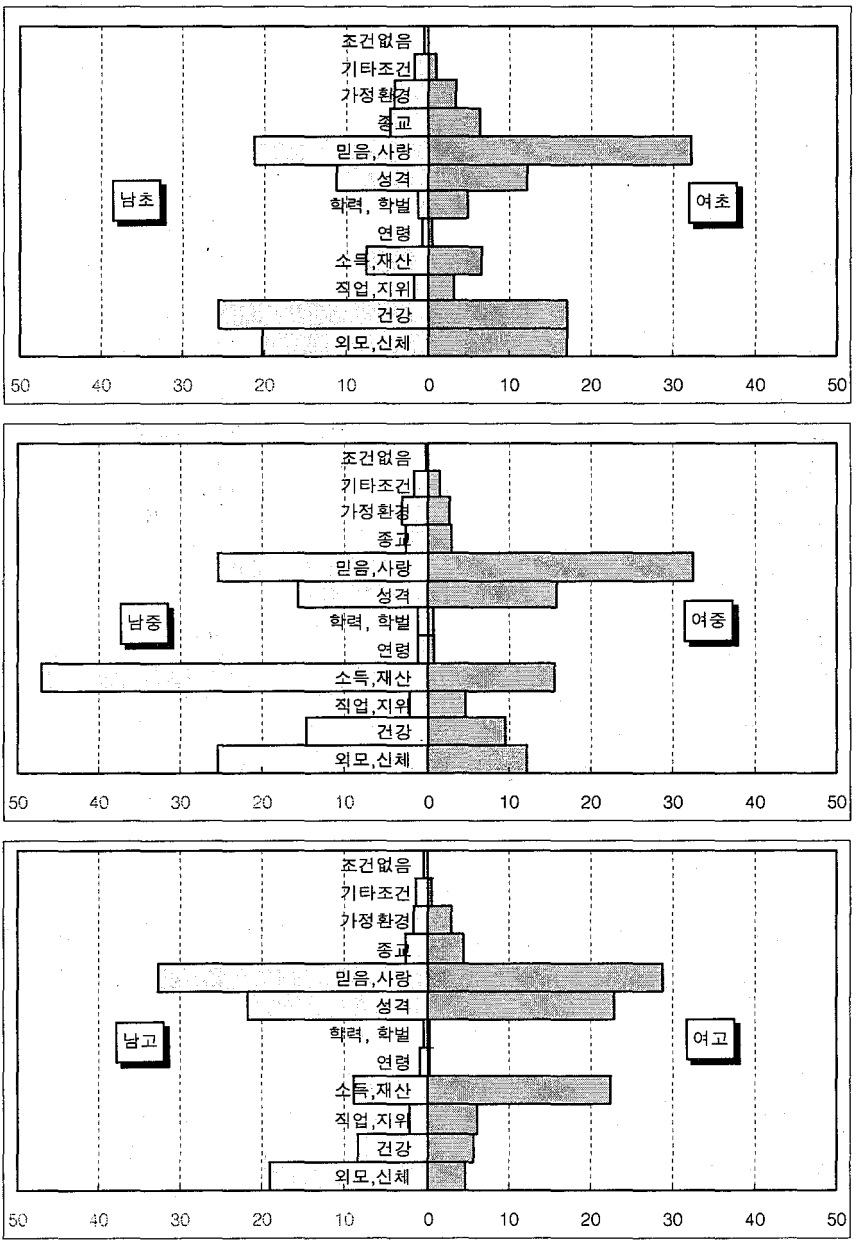
구분	생각 있음	생각 없음	모르겠음	계 (명)	x^2
부모 이혼·별거 상태					
예	69.2	7.5	23.3	100.0 (972)	8.6*
아니오	73.5	6.0	20.5	100.0 (9,713)	
부모간의 관계					
매우 좋은 편	75.7	5.3	19.0	100.0 (3,674)	74.0***
좋은 편	74.6	5.6	19.9	100.0 (3,873)	
보통	69.2	8.0	22.8	100.0 (1,960)	
나쁜 편	70.6	8.7	20.6	100.0 (446)	
매우 나쁜 편	63.7	9.9	26.5	100.0 (223)	
모르겠음	63.2	6.9	29.9	100.0 (378)	
학생-부모간의 관계					
매우 좋은 편	74.7	5.6	19.6	100.0 (4,362)	90.6***
좋은 편	74.5	5.4	20.2	100.0 (4,286)	
보통	69.4	6.9	23.7	100.0 (1,854)	
나쁜 편	74.3	13.1	12.6	100.0 (214)	
매우 나쁜 편	63.6	18.2	18.2	100.0 (44)	
모르겠음	60.3	11.0	28.7	100.0 (335)	
가구의 경제수준					
매우 잘 사는 편	75.3	7.0	17.7	100.0 (215)	69.0***
잘 사는 편	72.3	5.4	22.3	100.0 (1,536)	
보통	74.1	5.7	20.1	100.0 (7,213)	
못 사는 편	73.4	8.2	18.4	100.0 (1,648)	
매우 못사는 편	69.1	7.9	23.0	100.0 (165)	
모르겠음	60.4	6.3	33.3	100.0 (432)	

주: † p<0.1, * p<0.05, ** p<0.01, *** p<0.001

나. 배우자 조건

초·중·고 학생들이 향후 결혼하는 경우 배우자 선택의 조건으로 믿음·사랑(29.4%), 성격(18.1%), 외모 및 신체조건(16.4%), 경제력(소득, 재산)(12.2%), 건강(11.4%), 직업·직위(3.4%), 종교(3.4%), 가정환경(2.3%), 연령(0.7%), 학력·학벌(1.7%) 순으로 나타났다. 조건이 없다고 응답한 학생의 비율은 0.2% 이었다. 결혼조건에 대한 청소년과 미혼인 성인들이 비슷한 생각을 갖고 있다. 전체 미혼 성인 중 32.1%는 배우자의 제1조건으로 성격을 꼽았다(이삼식, 2005c).

〔그림 3-5〕 남녀학생별 배우자 조건(1순위): 초(5-6학년)·중·고 학생



남녀별로는 배우자 선택의 조건은 전체 패턴과는 다소 달랐다(그림 3-5 참조). 남학생의 경우 배우자 조건으로 믿음·사랑(28.1%), 외모·신체조건(21.9%), 성격(17.8%), 건강(13.4%), 경제력(소득, 재산)(8.0%) 순으로 중요시 여기는 반면, 여학생의 경우 믿음·사랑(30.9%), 성격(18.4%), 경제력(소득, 재산)(17.3%), 외모·신체조건(9.7%), 건강(9.1%) 순으로 중요시 하였다. 특히, 남학생은 배우자 선택의 조건으로서 외모 등 신체적 조건, 건강 등을 상대적으로 더 중요시 여기며, 여학생은 경제력, 직업·지위, 믿음·사랑, 성격 등 상대적으로 더 중요시 여기고 있다. 여학생의 이러한 생각은 성인이 되면 더욱 굳어질지 모른다. 미혼인 여성들은 배우자 조건으로 경제력을 제1조건으로 뽑았다(이삼식, 2005c). 상급학교 및 고학년일수록 배우자 선택조건으로 믿음·사랑, 성격, 경제력, 직업 등을 중요시 여기며, 건강, 외모·신체조건, 종교 등은 덜 중요시 여기고 있다.

〈표 3-20〉 학생의 가족적 특성별 배우자 조건(1순위)

(단위: %, 명)

구분	외모 신체	건강	직업 직위	소득 재산	연령	학력 학벌	성격	믿음 사랑	종교	가정 환경	기타 조건	조건 없음	계 (명)
부모간의 관계(x^2=119.5***)													
매우좋은편	16.1	13.4	3.2	10.7	0.6	0.6	16.6	30.3	4.1	3.2	1.1	0.1	100.0 (3,249)
좋은 편	15.9	10.2	3.5	13.4	0.7	0.9	19.1	29.2	3.1	2.8	1.2	0.1	100.0 (3,181)
보통	17.1	9.4	4.0	13.0	0.9	0.5	19.7	28.9	2.3	2.2	1.3	0.5	100.0 (1,283)
나쁜 편	16.9	8.1	1.3	13.1	1.3	1.3	20.6	29.4	5.6	1.9	0.6	-	100.0 (160)
매우나쁜편	25.0	3.6	-	21.4	-	-	17.9	28.6	3.6	-	-	-	100.0 (28)
모르겠음	21.8	8.9	3.5	14.9	0.5	-	17.8	22.8	3.5	2.5	3.0	1.0	100.0 (202)
가구경제상태(x^2=151.3***)													
매우잘산편	27.8	16.7	3.7	11.7	0.6	1.9	14.8	19.8	0.6	2.5			100.0 (162)
잘 사는 편	18.8	13.4	4.2	8.5	0.8	0.7	15.6	29.7	2.5	4.2	1.4		100.0 (1,106)
보통	15.9	11.1	3.4	12.2	0.7	0.7	18.6	30.0	3.4	2.6	1.2	0.2	100.0 (5,337)
못 사는 편	13.4	10.1	2.9	16.0	0.7	0.4	19.8	28.6	4.2	2.4	1.2	0.2	100.0 (1,202)
매우못산편	18.9	9.0	3.6	13.5		0.9	9.0	29.7	9.9	3.6	0.9	0.9	100.0 (111)
모르겠음	20.7	13.8	2.7	10.3	1.9	1.1	15.7	25.3	3.8	3.4	0.8	0.4	100.0 (261)

주: † p<0.1, * p<0.05, ** p<0.01, *** p<0.001

부모의 이혼·별거 여부에 따른 배우자조건의 차이는 무의미하였으나(p<0.05), 부모간 관계는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3-20 참조). 사례수

가 극히 적은 '아주 나쁜 편'을 제외하면, 배우자 선택조건 중 성격, 외모·신체조건, 소득·재산(경제력) 등의 비중은 부모간 관계가 나쁠수록 증가하는 반면, 믿음·사랑, 건강 등은 부모간 관계가 좋을수록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한편, 부모간 관계가 여타 조건에 미치는 영향은 일정하지 않거나 미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의 경제수준이 좋다고 여기는 학생일수록 배우자 선택조건으로서 외모·신체조건과 건강의 비중이 높게 나타나는 반면, 가구경제수준이 좋지 않다고 생각하는 학생일수록 소득·재산, 성격, 종교 등 조건들을 더 중요시 여기고 있었다.

6. 청소년 결혼가치관의 시사점

지금까지 설문조사를 통해 초등학교 5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학생의 결혼관에 대해 알아보았다. 주요 시사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를 통해 청소년들은 결혼에 대해 개방적인 면과 보수적인 면을 동시에 갖고 있음이 드러났다. 과반수의 청소년들이 독신의 삶이 매력 있다면 결혼을 안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편이다. 또한 반이 넘는 청소년들이 하고 싶은 일이나 공부가 있으면 결혼을 포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편이다. 하지만 결혼과 관련이 없는 성관계에 대해 많은 청소년들이 대체로 반대하거나 매우 반대하는 견해를 보이고 있다. 또한 갈등하는 부부들이 이혼을 선택하는데 찬성하는 비율은 그리 크지 않았다. 이러한 점은 미혼 성인남녀들과 비교에서 더욱 뚜렷하다.

둘째, 다양한 개인적 특징이 결혼에 대한 의견과 관련이 있었다. 그 중 결혼에 대해서 남녀 간 뚜렷한 차이를 별견할 수 있었다. 결혼에 대한 거의 전 문항에서 남학생과 여학생은 견해차를 드러냈다. 예를 들면, 남자 청소년들은 결혼에 대해 상당히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으며 꼭 결혼을 해야 한다는 생각도 강하다. 반면 여자 청소년들은 긍정과 부정이 혼재되어 있었다. 이러한 성차는 한국의 사회적 특징과 관련이 있을 것이다. 많이 개선되기는 했지만 아직도 가정에서나 사회에서나 결혼은 여성에게 굴레가 되고 있다. 특히 여성이 취업을 희망하게 되면 그 굴레는 더욱 힘겨워진다. 이러한 상황에서 여학생들은 결

혼을 과거처럼 보편적이고 당위적인 과정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선택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크다. 또한 연령에 대한 차이도 뚜렷하다. 대체로 학년이 올라갈수록 결혼에 대해 현실적이고 자유주의적인 사고를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학년이 올라감에 따라 적절한 혼인연령이 올라갔으며 결혼에서 직업이나 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은 커갔으며 대신 가족이 차지하는 비중은 줄어들었다.

셋째, 다양한 가족적 특징에 의해 결혼에 대한 의견이 달라졌다. 가족적 특징 중 가장 중요한 변수는 하나는 가족 구성원 간 관계였다. 부모간의 관계, 학생과 부모와의 관계에 따라 결혼에 대한 생각은 달렸다. 대체적으로 가구원간 관계가 좋을수록 결혼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였으며 결혼에서 가족을 소중하게 생각했다. 반면 구성원간 관계가 좋지 않을수록 결혼에 대해 개방적인 태도를 갖게 된다. 부모 간 관계가 매우 나쁜 학생은 이혼을 가능한 선택으로 선택하는 경향이 크다.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결혼에 대해 청소년들은 많이 개방적인 사고를 갖고 있다. 특히 여학생들과 고등학생은 그러한 경향이 매우 크다. 그리고 청소년들의 결혼에 대한 가치관에 자신의 가족 관계가 큰 영향을 갖는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몇 가지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첫째, 교육의 내용이 학생들의 사고에 조응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가장 시급한 일이 교과서 내용을 시대에 맞게 손질하는 일이다. 이전 연구에 따르면 교과서는 아직도 전통적인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이삼식 외, 2005a). 예를 들면, 가정에서 남녀역할에 대한 고정관념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 교과서에서는 여전히 남자는 일하고, 여자는 살림만 하고 있다. 이러한 기술은 여기저기에도 발견되고 있다. 교과서에 게재된 삽화에서 어머니는 바느질이나 뜨개질하는 사람으로 묘사된다. 반면 아버지는 모녀가 설거지를 하고 상 치우는 것을 바라보고 있는 존재(중1 기술가정)다. 일하는 여성에 대한 편견을 불러일으키는 서술도 있다. 중2 사회교과서(교학사)에서는 아들이 있는 직장여성을 예로 들어 '집안일에 신경 쓰지 않아 살림이 엉망이 되곤 한다'는 표현을 쓰고 있다.

둘째, 학생들의 가치관은 성별이나 연령 등 개인적 변수와 경제적 상황이나 가족 관계 등 가족적 특징에 따라 매우 다양하다. 그렇기 때문에 학생에 대한

교육도 이러한 개인적 사회적 변수에 따라 달라져야할 필요가 있다. 남학생들은 대를 잇는데 가치관을 부여하고 있는데 비해 여학생들은 자아실현을 중시하고 있다. 초등학생들은 이혼에 대해 부정적인데 비해 고등학생들은 이혼을 가능한 선택이라고 생각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에 맞는 교육 내용이 필요하다. 우선 학년별로 학생들의 생각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이에 맞는 교과 및 교육 내용을 구성해야 할 것이다.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가족의 중요성에 대한 내용은 저학년 학생에게 적절한 주제라면 이혼 등 새로운 가족에 대한 내용은 고학년 학생에게 적당한 주제일 것이다. 또는 남학생들에게 집안일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역시 고학년에서 가르치는 것이 좋을 듯싶다. 고학년들이 맞벌이나 양육 등 현실적인 문제에 눈을 뜨게 되기 때문이다.

셋째, 나이에 맞는 가치관 형성은 부모의 양육 태도에도 반영되어야 한다. 예를 들면 초등학교 때는 부모가 가능하면 자녀와 많은 시간을 보내며 가족, 결혼 등에 대한 기본적 태도 형성에 도움을 주어야 한다. 중학교 때는 여러 가지 현실에 노출이 시작되는 시기라고 할 수 있다. 부모가 다양한 현실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주지 않으면 자녀들은 부모가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사회화 될 것이다. 고등학교 때는 결혼과 가족에 대해서는 이미 자녀들은 독립적인 사고를 하고 있음을 엿볼 수 있다. 이들은 이혼이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일 때문에 결혼을 미룰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때는 자녀의 의견을 존중하면서 자녀에게 다가가야 할 것이다.

넷째, 본 연구 결과 청소년의 결혼관에 가정의 영향이 매우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특히 가족 구성원 간 관계가 매우 중요했다. 이러한 결과는 가정교육이 상대적으로 빈약한 우리나라에 심각한 시사점을 주고 있다. 우리나라 청소년은 부모와 많은 시간을 보내지 않고 있다. 특히 많은 학자들이 아버지의 부재를 지적하고 있다. 한국의 부모님들은 자녀의 건전한 가치관 형성을 위해서라도 자녀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그리고 정부도 캠페인을 벌이는 등 다양한 정책적 수단을 통해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고양시키는데 노력해야 한다. 한 예로, 남성의 적극적인 육아참여를 도울 수 있는 정책방안들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제 3 절 청소년의 자녀가치관

1. 문제제기

많은 학자들은 이러한 저출산 문제의 가장 큰 원인의 하나로 가치관 변화를 꼽는다. 우선 많은 성인들은 꼭 자녀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2005년 실시된 전국조사에 따르면 미혼여성의 35.0%가 자녀의 필요성에 대해 부정적 이었다(이삼식 외, 2005c). 같은 조사에 대해 2000년 10.0%, 2003년에는 12.6%가 자녀가 없어도 무관하다고 답변했다. 최근 5년 사이에 그 비율이 3-4배가 늘어난 것이다. 그리고 자녀의 가치에 대해서도 인식 변화가 있다. 기혼 여성들은 자녀의 의미를 '부모가 되는 것은 가치 있는 일'(찬성 97.6%), '부부관계를 더 굳건하게 해 준다'(찬성 95.8%)는데 두었습니다. 자녀가 '노후의 경제적 버팀목'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 기혼여성은 20.3%에 불과했습니다(이삼식 외, 2005c).

그러면 과연 한국의 미래를 책임질 청소년 세대들은 어떤 자녀관을 갖고 있을 것인가. 이는 저출산현상에 대한 미래를 가늠하는 데 중요한 시금석 역할을 할 것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에 근거하여 본 연구는 학생들의 자녀에 대한 가치관에 대해 연구를 한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들의 가치관이 개인적·가족적 특성에 따라 어떻게 다른지에 초점을 맞춘다.

2. 자녀필요성에 관한 태도

"사람들이 어른이 되면 반드시 자녀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세요"라는 질문에 대해 초·중·고 학생들 중 '자녀가 꼭 있어야 한다' 27.0%, '자녀가 있는 것이 없는 것보다 낫다' 48.2%로 총 75.2%가 긍정적인 태도를 보였다(표 3-21 참조). '자녀가 없어도 상관없다'는 17.3%, 모르겠다는 판단유보는 7.5%를 각각 차지하였다. 즉, 학생들 전체적으로 자녀필요성에 대한 긍정적인 가치관이 형성되어 있으나, 부정적인 태도도 20%에 육박하였다. 「2005년 전국 결혼 및 출산 동향조사」에서 "결혼을 한 부부는 반드시 자녀가 있어야 한다"는 견해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는 미혼남성(20~44세) 61.1%, 미혼여성(20~44세) 53.8%, 기혼여성(20~44세) 63.4% 등으로 나타났다. 즉, 학생들은 미혼남녀 및 기혼여성에 비해 더 긍정적이나, 이들이 성장 및 사회화 과정에서 여러 여건들을 직면하게 되면서 자녀필요성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는 감소할 것이라고 유추해볼 수 있겠다.

대부분의 개인적 특징에 따라 자녀의 필요성에 대한 태도는 달랐다. 지역별로 대도시에 거주하는 학생일수록 자녀가 꼭 있어야 한다는 태도는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는 반면, 없어도 상관없다는 부정적인 태도는 높게 나타났다. 자녀가 꼭 있어야 한다는 태도는 남학생 중 30.8%로 여학생의 23.0%에 비해 높은 반면, 없어도 상관없다는 태도는 여학생의 경우 21.8%로 남학생의 13.2%보다 월등히 높게 나타났다. 앞서 제시한 20~44세 미혼남녀간 자녀 필요성에 대한 긍정적인태도의 비교에서 미혼남성보다 미혼여성이 다소 낮았다. 초·중·고 학생의 경우도 남학생(78.2%)에 비해 여학생(71.8%)이 자녀필요성에 대해 덜 긍정적인 태도를 보였다. 상급학교·고학년일수록 자녀가 없어도 상관없다는 부정적인 태도는 상급학교 및 고학년일수록 뚜렷하게 높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 환언하면, 학생들의 자녀필요성에 대한 긍정적 가치관은 성장과정에서 부정적 방향으로 전환하고 있다고 하겠다.

〈표 3-21〉 학생의 개인적 특성별 자녀 필요성에 관한 태도

(단위: %, 명)

구분	꼭 있어야 함	있는것이 없는것보다 나음	없어도 상관없음	모르겠음	계 (명)	x^2
전체	27.0	48.2	17.3	7.5	100.0 (11,230)	
지역						
대도시	26.8	48.0	18.2	7.0	100.0 (4,937)	17.8**
중소도시	26.5	48.5	17.1	7.9	100.0 (4,947)	
농촌	30.2	47.2	14.5	8.0	100.0 (1,356)	
성별						
남자	30.8	47.4	13.2	8.6	100.0 (5,852)	202.2***
여자	23.0	48.8	21.8	6.3	100.0 (5,378)	
학교구분						
초등학교	29.8	45.9	11.5	12.8	100.0 (1,898)	244.4***
중학교	25.4	49.0	16.9	8.6	100.0 (4,752)	
인문고	26.1	49.2	20.8	3.9	100.0 (3,631)	
실업고	33.9	44.0	17.0	5.2	100.0 (960)	

주: † p<0.1, * p<0.05, ** p<0.01, *** p<0.001

<표 3-22>에서 편부모가족(부 또는 모 사망의 경우) 학생들이 부모 모두가 생존하고 있는 학생들에 비해 자녀가 없어도 무관하다는 부정적인 태도는 낮았고, 자녀가 꼭 있어야 한다는 태도는 다소 높았다. 학생의 형제자매수와 부모 이혼·별거 여부가 자녀필요성에 대한 학생의 태도에 미치는 영향은 $p<0.0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무의하였다. 그러나 부모간의 관계가 좋지 않을수록 자녀필요성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는 상대적으로 약화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관계성은 학생과 부모간의 관계에서도 명백히 나타나고 있다. 한편, 가구경제수준이 좋지 않을수록 자녀필요성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는 감소하였다.

〈표 3-22〉 학생의 가족적 특성별 자녀필요성에 관한 태도

(단위: %, 명)

구분	꼭 있어야 함	있는 것이 없는 것보다 나음	없어도 상관없음	모르겠음	계 (명)	x^2
부모 생존 여부						
모두 생존	27.1	48.2	17.4	7.3	100.0 (10,754)	39.2***
부만 생존	30.1	39.1	13.5	17.3	100.0 (133)	
모만 생존	28.0	51.5	14.0	6.5	100.0 (293)	
모두 사망	15.4	43.6	17.9	23.1	100.0 (39)	
부모간의 관계						
매우 좋은 편	31.7	45.8	15.2	7.2	100.0 (3,677)	143.9***
좋은 편	25.4	51.7	16.6	6.3	100.0 (3,877)	
보통	23.7	47.9	20.3	8.1	100.0 (1,967)	
나쁜 편	26.8	46.5	19.5	7.2	100.0 (447)	
매우 나쁜 편	25.9	37.1	29.0	8.0	100.0 (224)	
모르겠음	19.9	44.0	22.3	13.8	100.0 (377)	
학생-부모간 관계						
매우 좋은 편	32.6	45.3	14.6	7.5	100.0 (4,365)	238.4***
좋은 편	24.3	52.4	16.7	6.6	100.0 (4,294)	
보통	23.1	46.2	22.3	8.4	100.0 (1,858)	
나쁜 편	17.8	54.2	22.9	5.1	100.0 (214)	
매우 나쁜 편	29.5	29.5	40.9		100.0 (44)	
모르겠음	19.0	39.0	28.9	13.1	100.0 (336)	
가구의 경제수준						
매우 잘 사는 편	43.5	33.8	13.4	9.3	100.0 (216)	179.8***
잘 사는 편	30.5	45.6	16.9	7.0	100.0 (1,536)	
보통	26.7	49.2	17.1	7.0	100.0 (7,223)	
못 사는 편	24.4	50.2	19.0	6.5	100.0 (1,655)	
매우 못사는 편	34.5	38.8	20.6	6.1	100.0 (165)	
모르겠음	21.7	42.6	14.7	21.0	100.0 (434)	

주: † p<0.1, * p<0.05, ** p<0.01, *** p<0.001

3. 자녀가치(효용성)에 관한 태도

가. 개인적 특성별 태도

<표 3-23>에는 자녀가치(효용성)별 응답집단의 긍정적인 태도(찬성+매우찬성)를 제시하였다. '자녀를 가지는 것이 부모가 되는 것은 인생에서 가치 있는 일'(92.0%), '자녀 교육을 완수'(84.9%), '노후 정서적 의존'(78.3%), '부부관계 공고화'(75.4%), '노후 경제적 의존'(63.6%), '자녀양육보다 부모생활 더 중요'(60.0%) 등의 순으로 긍정적인 경향이 우세하였다. 반면, '자녀를 갖는 것은 사회적 의무'(25.9%), '자녀를 낳아야 부부가 사회적으로 인정받음'(30.2%), '자녀를 통한 부모 꿈의 실현'(40.2%), '가문계승에 필요'(49.7%) 등의 순으로 부정적인 경향이 우세하였다.

〈표 3-23〉 자녀가치에 관한 학생의 긍정적 태도(찬성+매우 찬성)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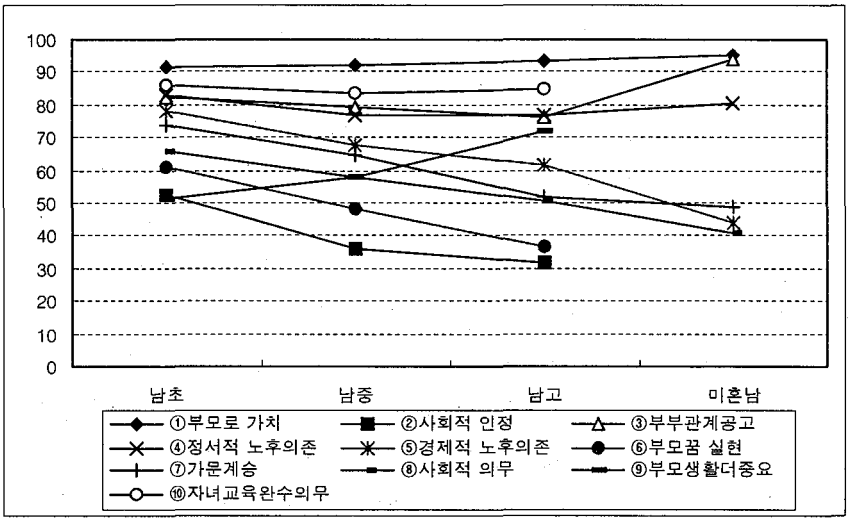
구분	초등	중학	고등	미혼남성	미혼여성	기혼여성
① 부모로 가치	91.6	91.4	92.8	95.0	92.5	97.6
② 사회적 인정	47.2	29.3	24.1	-	-	-
③ 부부관계공고	79.8	76.4	72.6	93.8	90.7	95.8
④ 정서적 노후의존	83.3	76.9	77.9	80.6	79.2	78.9
⑤ 경제적 노후의존	76.5	64.0	57.7	43.9	43.2	21.3
⑥ 부모꿈 실현	57.1	42.9	30.4	-	-	-
⑦ 가문계승	65.0	52.8	40.1	48.5	29.9	27.2
⑧ 사회적 의무	63.8	54.5	46.8	40.7	35.5	37.9
⑨ 부모생활더중요	47.4	55.4	70.0	-	-	-
⑩ 자녀교육완수의무	87.3	84.0	84.5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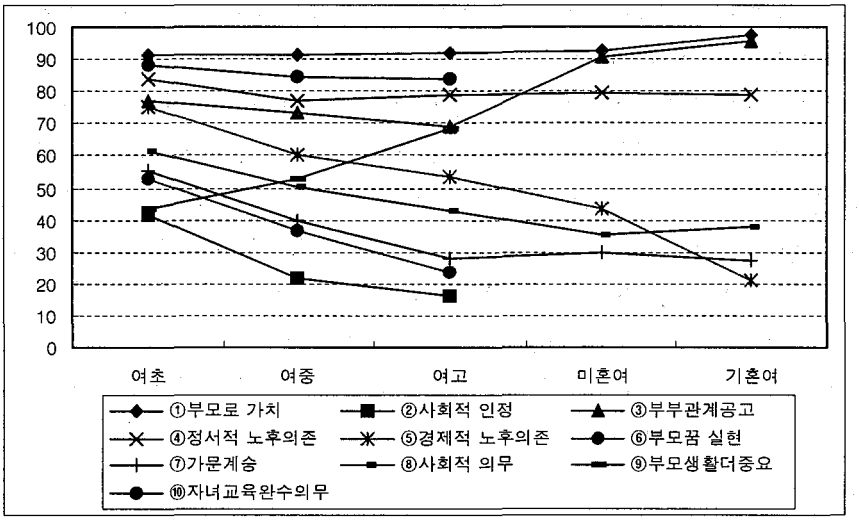
주: ① 부모가 되는 것은 인생에서 가치 있는 일이다. ② 자녀를 낳아야만 부부가 사회적으로 인정받는다
③ 자녀가 있으면 부부관계가 더욱 좋아 진다 ④ 자녀가 있는 사람들은 노년에 덜 외롭다
⑤ 자녀가 있으면 늙어서(노후에) 경제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⑥ 자녀를 통해 부모의 꿈을 이루는 것은 바람직하다 ⑦ 집안의 대를 잇기 위해 자녀를 두는 것은 당연하다.
⑧ 자녀를 갖는 것은 사회에 대한 의무이기도 하다
⑨ 자녀의 양육도 중요하지만 부모의 생활이 더 중요하다
⑩ 자녀의 교육은 힘들더라도 끝까지 시켜야 한다.

자녀 관련 가치관을 생애경로별로 파악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본 조사의 대상인 초등학생, 중학생 및 고등학생의 태도와 함께 「2005년 전국 결혼 및

출산 동향조사」 결과 중 성인미혼남녀와 기혼여성의 태도를 시간흐름의 연속선상으로 가정하여 분석하였다(그림 3-6 참조).

[그림 3-6] 생애경로별 자녀가치관 변화: 긍정적 태도(찬성+매우 찬성)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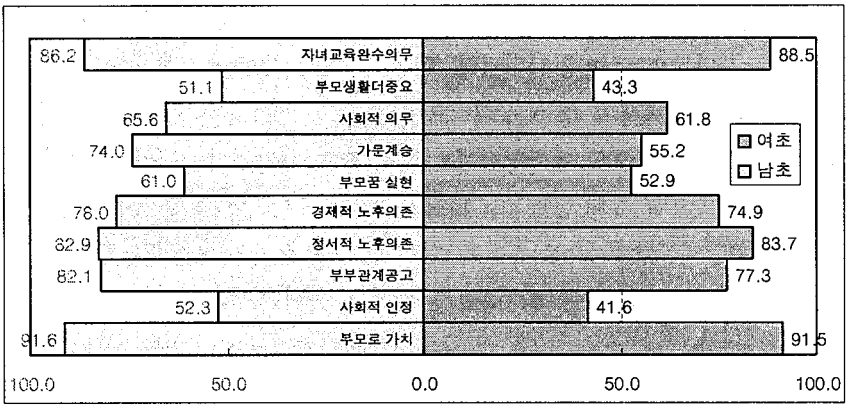
우선 "자녀를 가지는 것이 부모가 되는 것은 인생에서 가치 있는 일"에 관한 긍정적인 태도는 모든 집단에서 90% 이상으로 아주 높았다. 그 차이는 미세할지라도 인생경로 이행에 따라 더 강화되었다. 부부관계 공고화에 자녀의 가치를 두는 태도는 초등학생 79.8%, 중학생 76.4%, 고등학생 72.6%, 미혼남녀(20~44세)와 기혼여성(20~44세)의 경우 90% 이상으로 높았다. 동 자녀가치를 학령아동들이 긍정적으로 수용하고 있으며, 성인이 되어서는 더 중요시 여기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자녀의 가치를 노후 정서적 의존에서 찾은 태도는 전 단계에서 80% 내외 수준으로 일정하게 나타나 보편화되었음을 알 수 있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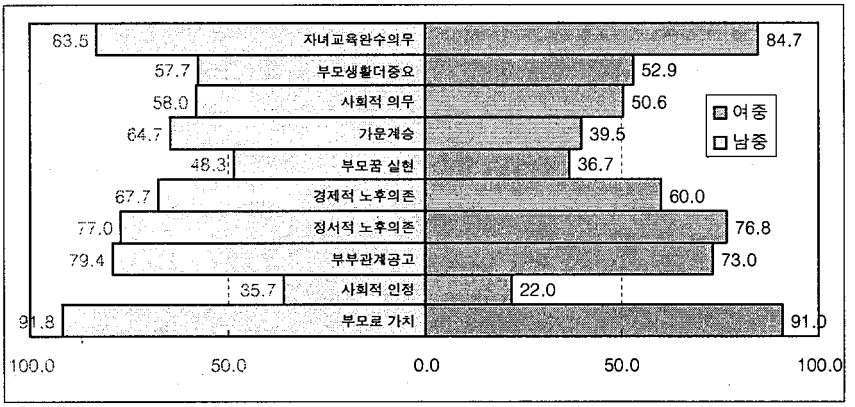
반면, 자녀가치로 노후 경제적 의존대상을 중요시 여기는 경향은 초등학생의 경우 76.5%로 다소 높으나, 이후 생애경로에서 점차 약화되어가고 있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동 가치관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는 학령기에 점차 감소하여, 성인기(미혼남녀, 기혼여성)에는 오히려 부정적으로 강화되었다(기혼여성 21.3%만 찬성). 이러한 경향은 자녀 가치를 가문계승과 사회적 의무에 두는 견해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났다. 즉, 가문계승의 수단으로서의 자녀 가치에 대한 태도도 생애경로 진행에 따라 급속하게 약화되는 양상을 보였다. 초등학생의 65.0%, 중학생의 52.8%가 찬성하였으나, 고등학생부터는 부정적 태도가 우세하여 기혼여성의 27.2%만이 찬성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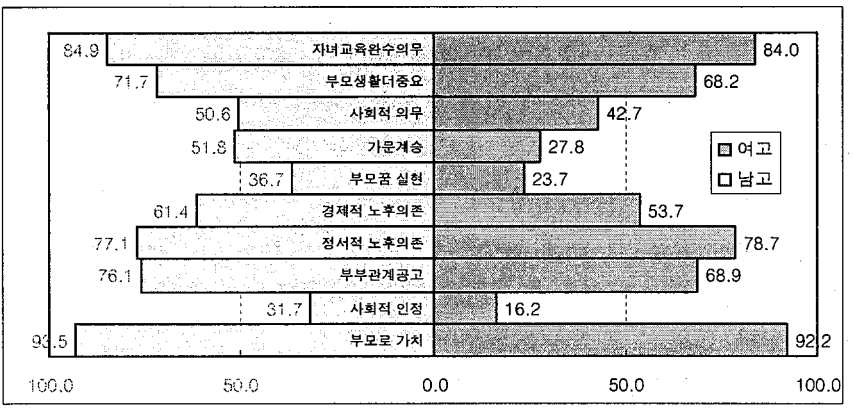
이외 2005년도에 조사되지 않은 것으로서 자녀가치를 부부에 대한 사회적 인정의 매개체로서 여기거나 부모의 꿈을 실현시키기 위한 수단으로서 여기는 태도는 생애경로 단계의 진행에서 더욱 부정적인 것으로 변화하고 있었다. 전자의 자녀가치에 대해서는 초등학생부터 부정적이었으며, 후자의 가치에 대해서는 초등학생의 경우에만 긍정적으로 나타났다. 부모의 자녀교육에 대한 의무의식은 전 학령기에서 80% 이상으로 높게 유지하였다.

이러한 결과들을 통해 볼 때, 대체적으로 학생들은 자녀의 정서적 가치를 중요시 여기는 반면, 자녀의 수단적 가치에 대해서는 부정적이라고 할 수 있다. 예외적으로 학생들은 노후 경제적 의존 대상으로서의 자녀가치도 중요시 여기는 경향이 나타났다. 생애경로 이행과정에서 자녀의 정서적 가치는 점차 강화되는 반면, 도구적(수단적) 가치는 점차 약화되어 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림 3-7] 자녀가치에 관한 남녀비교: 긍정적 태도(찬성+매우 찬성)







자녀의 가치별 남녀 비교를 실시하였다(그림 3-7 참조). 초등학생의 경우 정도 차이가 있으나, 자녀가치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는 대부분 여학생에 비해 남학생에게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다만, 자녀의 가치를 노후 정서적 의존에 두는 정도는 여학생이 경우 상대적으로 높았다. 부모로서 자녀교육을 끝가지 책임져야한다는 태도도 여학생에게서 다소 높게 나타났다. 중학생의 경우에도 모든 자녀 가치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가 여학생보다 남학생에게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예외적으로 부모가 자녀 교육을 끝가지 완수해야한다는 책임성은 여학생이 상대적으로 더 중요시 여기고 있었다. 고등학생의 경우에는 '노후 정서적 의존'의 자녀 가치를 제외하곤, 모든 가치관에서 여학생보다 남학생의 긍정적인 태도가 상대적으로 높았다.

요컨대, 생애경로 이행단계에서 그 정도는 변화하고 있으나, 남녀간의 비교에서는 남학생이 여학생에 비해 일반적인 가치관에 대해 상대적으로 더 긍정적인 태도를 지녔다. 다만, 모든 생애경로의 이행과정에서 여학생은 자녀교육에 대한 부모의 책임성을 더 강조하고 있으며, 노후의 정서적 의존과 관련하여 자녀 가치를 좀 더 중요시 여기는 경향이 있음을 볼 수 있다.

나. 가족적 특성별 태도

부모되기의 가치에 관한 태도는 양부모가족의 학생에 비해 편부모가족의 학생이 상대적으로 부정적이었다(표 3-24 참조). 특히, 편모가족보다 편부가족 또는 부모가 없는 학생의 태도가 더 부정적이었다. 부모간관계가 좋거나 나쁜 학생은 부모 되기를 중시하는데 비해 관계가 보통인 학생은 상대적으로 덜 중시한다. 학생과 부모의 관계에서도 유사한 패턴을 확인할 수 있다. 부모와 관계가 매우 좋거나 매우 나쁜 학생들이 부모되기에 큰 의미를 부여한다. 가구의 경제적 사정이 좋을수록 부모 되기를 중시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부모 모두 일을 하고 있는 학생의 경우 동 가치에 대해 상대적으로 긍정적인 태도가 강하게 나타났다. 반면, 부모 모두가 일을 하지 않고 있는 경우, 동 견해에 대한 학생의 태도는 상대적으로 부정적이었다.

〈표 3-24〉 "부모가 되는 것은 인생에서 가치 있는 일이다"에 관한 학생의 태도

(단위: %, 명)

구분	매우 찬성함	대체로 찬성함	별로 찬성안함	전혀 찬성안함	계 (명)	x^2
부모 생존 여부						
모두 생존	46.3	45.9	6.7	1.1	100.0 (10,753)	19.4*
부만 생존	41.8	45.5	11.9	0.7	100.0 (134)	
모만 생존	47.4	42.3	7.8	2.4	100.0 (293)	
모두 사망	31.6	52.6	10.5	5.3	100.0 (38)	
부모간의 관계						
매우 좋은 편	54.4	39.9	4.7	1.0	100.0 (3,677)	213.0***
좋은 편	42.3	50.3	6.7	0.7	100.0 (3,881)	
보통	39.8	49.2	9.2	1.8	100.0 (1,964)	
나쁜 편	43.8	46.5	7.6	2.0	100.0 (447)	
매우 나쁜 편	49.5	39.2	9.0	2.3	100.0 (222)	
모르겠음	42.5	44.6	11.3	1.6	100.0 (379)	
학생-부모 관계						
매우 좋은 편	55.6	38.9	4.6	0.9	100.0 (4,368)	428.3***
좋은 편	42.6	50.1	6.5	0.8	100.0 (4,294)	
보통	35.4	52.4	10.6	1.6	100.0 (1,854)	
나쁜 편	36.4	45.8	12.1	5.6	100.0 (214)	
매우 나쁜 편	42.2	33.3	15.6	8.9	100.0 (45)	
모르겠음	37.4	44.9	14.4	3.3	100.0 (334)	
부모 취업 여부						
모두 일 안함	46.3	45.9	6.7	1.1	100.0 (6,969)	17.5*
부만 일함	45.8	46.2	6.9	1.1	100.0 (3,388)	
모만 일함	48.7	42.4	6.7	2.2	100.0 (507)	
모두 일을 안함	46.5	41.0	10.0	2.6	100.0 (271)	

주: † p<0.1, * p<0.05, ** p<0.01, *** p<0.001

부부의 사회적 인정수단으로서 자녀 가치에 관한 학생의 태도는 형제자매수와 부모의 이혼·별거 여부별로 $p<0.0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표 3-25 참조). 부모간의 좋은 관계 정도는 동 견해에 대한 학생의 태도와 부적 상관성을 나타내고 있다. 유사한 맥락으로 부모와의 관계가 좋지 않은 학생일수록 사회적 인정도구로서 자녀가치에 대해 더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부부관계 공고화의 자녀가치에 관한 학생의 태도는 형제자매수, 부모취업상태 및 부모의 이혼·별거여부와 $p<0.0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무의미하였다(표 3-26 참조). 그러나 가족구성원간의 관계(부모간 관계, 학생-부모간 관계)가 안 좋을수록 동 가치를 덜 수용하고 있었다.

〈표 3-25〉 "자녀를 낳아야만 부부가 사회적으로 인정받는다"에 관한 학생의 태도

(단위: %, 명)

구분	매우 찬성함	대체로 찬성함	별로 찬성안함	전혀 찬성안함	계 (명)	x^2
부모간의 관계						
매우 좋은 편	7.3	25.8	52.0	14.9	100.0 (3,677)	92.1***
좋은 편	4.1	24.3	58.2	13.4	100.0 (3,880)	
보통	4.5	23.9	54.0	17.5	100.0 (1,964)	
나쁜 편	5.8	22.1	52.2	19.9	100.0 (448)	
매우 나쁜 편	5.0	18.1	56.1	20.8	100.0 (221)	
모르겠음	6.1	25.9	49.2	18.8	100.0 (378)	
학생-부모 관계						
매우 좋은 편	7.0	27.2	50.5	15.3	100.0 (4,367)	127.4***
좋은 편	4.5	23.3	58.0	14.1	100.0 (4,294)	
보통	4.3	21.8	57.8	16.1	100.0 (1,855)	
나쁜 편	4.6	20.4	49.5	25.5	100.0 (216)	
매우 나쁜 편	2.3	16.3	44.2	37.2	100.0 (43)	
모르겠음	6.9	25.1	46.9	21.2	100.0 (335)	

주: † p<0.1, * p<0.05, ** p<0.01, *** p<0.001

〈표 3-26〉 "자녀가 있으면 부부관계가 더 좋아진다"에 관한 학생의 태도

(단위: %, 명)

구분	매우 찬성함	대체로 찬성함	별로 찬성안함	전혀 찬성안함	계 (명)	x^2
부모간의 관계						
매우 좋은 편	27.4	53.2	16.2	3.2	100.0 (3,673)	271.1***
좋은 편	16.7	58.9	21.7	2.7	100.0 (3,878)	
보통	16.0	53.4	25.3	5.2	100.0 (1,959)	
나쁜 편	17.0	50.2	27.6	5.2	100.0 (446)	
매우 나쁜 편	19.5	48.2	25.5	6.8	100.0 (220)	
모르겠음	17.2	52.4	24.1	6.3	100.0 (378)	
학생-부모 관계						
매우 좋은 편	27.8	53.0	16.4	2.8	100.0 (4,364)	413.2***
좋은 편	16.3	59.2	21.5	3.1	100.0 (4,288)	
보통	13.9	52.4	28.3	5.3	100.0 (1,852)	
나쁜 편	12.2	47.9	30.5	9.4	100.0 (213)	
매우 나쁜 편	18.2	47.7	20.5	13.6	100.0 (44)	
모르겠음	17.7	46.8	27.0	8.4	100.0 (333)	

주: † p<0.1, * p<0.05, ** p<0.01, *** p<0.001

노후 정서적 및 경제적 의존 대상으로서 자녀의 가치에 관한 학생의 태도는 학생-부모간의 관계가 좋지 않을수록 덜 긍정적인 입장을 취하였다(표 3-27 참조). 가구경제수준이 낮을수록 이들 자녀의 가치에 대한 학생의 긍정적인 태도

는 상대적으로 약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요컨대, 구성원간의 관계가 원만하지 않거나 가구의 경제상태가 좋지 않아 가족생활이 각박해질 경우, 학생들은 노후 대비 자녀의 정서적 및 경제적 가치를 상대적으로 덜 인정하려는 경향을 짐작할 수 있다.

〈표 3-27〉 "자녀가 있는 사람들은 노년에 덜 외롭다"와 "자녀가 있으면 노후에 경제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다"에 관한 학생의 태도

구분	매우 찬성함	대체로 찬성함	별로 찬성안함	전혀 찬성안함	계 (명)	x^2
노후 정서적 의존						
학생의 부모와의 관계						
매우 좋은 편	33.6	48.2	14.3	3.9	100.0 (4,363)	239.2***
좋은 편	23.5	55.3	17.4	3.8	100.0 (4,294)	
보통	20.4	52.1	21.3	6.2	100.0 (1,852)	
나쁜 편	22.8	43.7	25.1	8.4	100.0 (215)	
매우 나쁜 편	27.3	47.7	15.9	9.1	100.0 (44)	
모르겠음	24.5	45.7	22.1	7.8	100.0 (335)	
가구 경제상태						
매우 잘 사는 편	40.0	37.7	13.5	8.8	100.0 (215)	103.8***
잘 사는 편	30.9	49.7	15.7	3.7	100.0 (1,536)	
보통	26.6	52.8	16.6	4.0	100.0 (7,217)	
못 사는 편	24.2	50.3	20.3	5.3	100.0 (1,654)	
매우 못사는 편	27.4	38.4	22.0	12.2	100.0 (164)	
모르겠음	26.4	48.8	18.5	6.3	100.0 (432)	
노후 경제적 의존						
학생의 부모와의 관계						
매우 좋은 편	19.1	48.1	26.6	6.1	100.0 (4,362)	201.5***
좋은 편	11.9	51.0	31.5	5.6	100.0 (4,286)	
보통	12.1	46.7	32.5	8.7	100.0 (1,852)	
나쁜 편	11.2	45.6	28.4	14.9	100.0 (215)	
매우 나쁜 편	23.3	30.2	23.3	23.3	100.0 (43)	
모르겠음	11.9	43.3	33.7	11.0	100.0 (335)	
가구 경제상태						
매우 잘 사는 편	34.4	38.1	18.1	9.3	100.0 (215)	152.7***
잘 사는 편	18.0	50.6	25.0	6.3	100.0 (1,533)	
보통	13.9	49.3	30.8	6.0	100.0 (7,210)	
못 사는 편	13.1	46.9	31.3	8.7	100.0 (1,653)	
매우 못사는 편	15.3	42.9	25.2	16.6	100.0 (163)	
모르겠음	16.9	46.2	29.0	7.9	100.0 (431)	

주: † p<0.1, * p<0.05, ** p<0.01, *** p<0.001

부모 이상의 실현수단으로서 자녀의 가치에 관한 학생의 태도는 형제자매수 및 부모의 이혼·별거여부와 $p<0.0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련성을 보여주지 못했다(표 3-28 참조). 학생-부모간의 관계가 좋지 않은 할생들이 동 가치를 더 부정하였다. 또한, 가구경제수준이 낮을수록 동 견해에 대한 학생의 부정적인 태도가 더 강하였다. 결국 구성원간의 관계나 가구의 경제수준이 좋지 않을 경우, 학생들은 부모의 자아실현에 대한 자녀의 수단화나 그 가능성에 대해 더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하겠다.

〈표 3-28〉 "자녀를 통해 부모의 꿈을 이루는 것은 바람직하다"에 관한 학생의 태도

(단위: %, 명)

구분	매우 찬성함	대체로 찬성함	별로 찬성안함	전혀 찬성안함	계 (명)	x^2
학생의 부모와의 관계						
매우 좋은 편	15.9	28.1	35.5	20.5	100.0 (4,363)	163.3***
좋은 편	9.6	29.0	40.3	21.1	100.0 (4,287)	
보통	8.4	27.0	40.0	24.6	100.0 (1,853)	
나쁜 편	7.5	26.6	31.8	34.1	100.0 (214)	
매우 나쁜 편	20.9	18.6	27.9	32.6	100.0 (43)	
모르겠음	10.5	25.7	34.1	29.6	100.0 (334)	
가구의 경제수준						
매우 잘 사는 편	31.0	25.0	28.2	15.7	100.0 (216)	172.7***
잘 사는 편	16.6	30.4	33.5	19.5	100.0 (1,534)	
보통	10.7	28.9	38.9	21.5	100.0 (7,214)	
못 사는 편	9.7	24.8	38.4	27.1	100.0 (1,651)	
매우 못사는 편	12.3	22.1	36.2	29.4	100.0 (163)	
모르겠음	13.4	28.3	38.9	19.4	100.0 (434)	

† $p<0.1$, * $p<0.05$, ** $p<0.01$, *** $p<0.001$

가문계승의 매체로서 자녀의 가치에 관한 학생의 태도도 다른 자녀가치와 마찬가지로 가족적 특성 중 형제자매수 및 부모의 이혼·별거여부와 $p<0.0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련성을 보여주지 못했다(표 3-29 참조). 가족구성원간의 관계(부모간의 관계 및 학생-부모간의 관계)나 주간적인 가구경제수준에 따른 자녀의 가문계승 가치에 대한 학생의 태도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구체적으로 부모간의 관계나 학생-부모간의 관계가 원만할수록 동 가치관에 대한 학생의 태도는 긍정적으로 나타났다. 반대로 가족구성원간의 관계가 원만하지 않

을수록 학생의 태도는 부정적인 경향성이 상대적으로 더 강하였다. 유사한 특징으로서 주관적 가구경제수준이 높을수록 동 견해에 대한 학생의 태도는 긍정적이었으나, 가구경제수준이 낮을수록 학생의 태도는 부정적이었다. 결국, 자녀의 가치로 가문계승의 전통적·수단적 가치는 학생의 개인적 및 가족적 특성에 의해 부정적 또는 긍정적으로 수용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결과는 자녀의 전통적·수단적 가치관이 점차 약화되어 가고 있는 과도기적인 특징때문으로 설명될 수 있다.

〈표 3-29〉 "집안의 대를 잇기 위해 자녀를 두는 것은 당연하다"에 관한 학생의 태도

구분	매우 찬성함	대체로 찬성함	별로 찬성안함	전혀 찬성안함	계 (명)	x^2
학생의 부모와의 관계						
매우 좋은 편	18.0	35.5	32.9	13.5	100.0 (4,364)	196.2***
좋은 편	9.7	38.1	37.5	14.7	100.0 (4,288)	
보통	10.4	35.7	36.3	17.7	100.0 (1,854)	
나쁜 편	8.4	35.8	31.6	24.2	100.0 (215)	
매우 나쁜 편	9.3	27.9	39.5	23.3	100.0 (43)	
모르겠음	11.7	30.3	35.7	22.2	100.0 (333)	
가구의 경제수준						
매우 잘 사는 편	32.1	35.3	19.1	13.5	100.0 (215)	199.9***
잘 사는 편	18.5	37.8	32.3	11.5	100.0 (1,537)	
보통	12.1	36.8	36.4	14.6	100.0 (7,211)	
못 사는 편	10.1	33.7	36.0	20.3	100.0 (1,654)	
매우 못사는 편	15.2	31.7	26.8	26.2	100.0 (164)	
모르겠음	14.1	38.0	34.3	13.6	100.0 (434)	

† p<0.1, * p<0.05, ** p<0.01, *** p<0.001

사회적 의무로서 자녀의 가치에 관한 학생의 태도도 다른 자녀 가치와 마찬가지로 가족적 특성 중 형제자매수 및 부모의 이혼·별거여부와의 관계가 $p<0.0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성이 상실된 것으로 파악되었다(표 3-30 참조). 반면, 학생-부모간의 관계가 원만하지 않을수록 동 가치관에 대한 학생의 긍정적인 태도는 약화되는 경향이 있으며, 이러한 패턴은 가구경제수준과의 관계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났다. 특히, 학생-부모간의 관계가 보통 이하일 경우 동 견해에 대한 학생의 태도는 전체적으로 부정적인 경향이 더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자녀 출산의 사회적 의무 의식이 성장과정에서 점차 약화되어 가고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드러내주는 결과라 할 수 있겠다.

〈표 3-30〉 "자녀를 갖는 것은 사회에 대한 의무이기도 하다"에 관한 학생의 태도

(단위: %, 명)

구분	매우 찬성함	대체로 찬성함	별로 찬성안함	전혀 찬성안함	계 (명)	x^2
학생-부모 관계						
매우 좋은 편	16.5	40.3	31.5	11.6	100.0 (4,365)	207.2***
좋은 편	10.0	42.8	35.8	11.4	100.0 (4,287)	
보통	8.7	37.5	40.1	13.7	100.0 (1,854)	
나쁜 편	9.3	32.7	36.0	22.0	100.0 (214)	
매우 나쁜 편	9.3	27.9	27.9	34.9	100.0 (43)	
모르겠음	10.7	34.6	34.9	19.7	100.0 (335)	
가구의 경제수준						
매우 잘 사는 편	28.8	37.7	21.9	11.6	100.0 (215)	111.9***
잘 사는 편	15.2	42.5	29.5	12.8	100.0 (1,536)	
보통	11.6	40.5	36.0	11.9	100.0 (7,214)	
못 사는 편	10.5	40.5	34.6	14.3	100.0 (1,655)	
매우 못사는 편	14.1	37.4	29.4	19.0	100.0 (163)	
모르겠음	12.7	35.9	39.1	12.3	100.0 (432)	

주: † p<0.1, * p<0.05, ** p<0.01, *** p<0.00

자녀양육보다 부모생활이 더 중요하다는 견해에 대한 학생의 태도는 형제자매수와 무의미한 관련성을 보였다(p<0.05)(표 3-31 참조). 부모가 이혼·별거 중인 학생의 긍정적 태도는 57.3%로 그렇지 않은 학생의 60.1%에 비해 다소 낮았다. 학생-부모관계가 원만할수록 자녀양육보다 부모생활이 더 중요하다는 의식은 상대적으로 낮았으나, 여전히 긍정적인 태도가 우세하였다.

〈표 3-31〉 "자녀의 양육도 중요하지만 부모의 생활이 더 중요하다"에 관한 학생의 태도

(단위: %, 명)

구분	매우 찬성함	대체로 찬성함	별로 찬성안함	전혀 찬성안함	계 (명)	x^2
부모 이혼·별거 상태						
예	14.2	43.1	35.1	7.6	100.0 (968)	9.9*
아니오	13.2	46.9	34.3	5.6	100.0 (9,721)	
학생-부모 관계						
매우 좋은 편	14.0	43.7	35.1	7.2	100.0 (4,364)	102.1***
좋은 편	12.3	49.4	34.6	3.7	100.0 (4,289)	
보통	13.2	48.7	31.9	6.2	100.0 (1,854)	
나쁜 편	14.9	46.0	32.6	6.5	100.0 (215)	
매우 나쁜 편	27.3	38.6	25.0	9.1	100.0 (44)	
모르겠음	18.0	39.6	32.4	9.9	100.0 (333)	

자녀 교육을 끝까지 시켜야 한다는 견해에 관한 학생의 태도는 형제자매수 및 부모의 이혼·별거 여부와 무의미한 관계를 보였다($p<0.05$)(표 3-32 참조). 부모간 관계 또는 학생-부모간 관계가 원만하지 않을수록 또한 가구경제수준이 낮을수록 청소년의 자녀교육에 대한 열의는 다소 덜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정환경이 원만하지 않을 경우 그 영향으로 학생들은 자녀교육에 대한 의무감이 상대적으로 약화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겠다.

〈표 3-32〉 "자녀의 교육은 힘들더라도 끝까지 시켜야 한다"에 관한 학생의 태도

(단위: %, 명)

구분	매우 찬성함	대체로 찬성함	별로 찬성안함	전혀 찬성안함	계 (명)	x^2
부모간의 관계						
매우 좋은 편	45.6	40.3	11.2	2.9	100.0 (3,675)	160.0***
좋은 편	34.7	51.0	12.3	2.0	100.0 (3,880)	
보통	36.0	46.3	14.0	3.8	100.0 (1,965)	
나쁜 편	40.8	40.6	15.0	3.6	100.0 (446)	
매우 나쁜 편	41.9	40.5	10.8	6.8	100.0 (222)	
모르겠음	36.2	44.4	16.4	2.9	100.0 (378)	
학생-부모 관계						
매우 좋은 편	46.3	40.6	10.4	2.6	100.0 (4,368)	274.4***
좋은 편	35.2	50.3	12.5	2.0	100.0 (4,293)	
보통	33.3	47.5	15.4	3.8	100.0 (1,854)	
나쁜 편	37.4	38.8	14.5	9.3	100.0 (214)	
매우 나쁜 편	32.6	34.9	14.0	18.6	100.0 (43)	
모르겠음	35.8	41.2	17.3	5.7	100.0 (335)	
가구의 경제수준						
매우 잘 사는 편	52.1	32.6	9.3	6.0	100.0 (215)	113.6***
잘 사는 편	45.2	40.9	10.9	3.1	100.0 (1,537)	
보통	37.6	47.3	12.7	2.4	100.0 (7,219)	
못 사는 편	39.1	45.1	12.8	3.0	100.0 (1,655)	
매우 못사는 편	41.5	37.8	11.0	9.8	100.0 (164)	
모르겠음	43.3	38.5	12.7	5.5	100.0 (434)	

주: † $p<0.1$, * $p<0.05$, ** $p<0.01$, *** $p<0.00$

4. 청소년의 향후 자녀출산 의향

가. 향후 자녀 출산 의향

초·중·고 학생 중 총 82.9%가 자녀를 가질 의향을 보였다(표 3-33 참조). 반면, 학생의 7.8%는 향후 자녀를 가질 의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무

자녀를 선호하는 정도는 무시하지 못할 수준이며, 판단유보까지 감안하면 자녀 출산에 대한 회의적 반응이 상당한 수준이다. 학생의 향후 자녀 출산의향은 「2005 전국 결혼 및 출산 동향조사」에서 파악된 미혼남성(20~44세)의 93.1%(54.4% 반드시, 38.7% 가능하면)과 미혼여성(20~44세)의 88.7%(반드시 42.1%, 가능하면 46.6%)에 비해서도 낮다.

초·중·고 학생의 향후 자녀 출산의향은 지역별로 $p<0.05$ 수준에서 통계적인 유의미한 차이를 보여주지 못하였다. 성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며, 그 결과는 남학생의 경우 84.5%(반드시+가능하면 가지고 싶다)로 여학생의 81.0%보다 높게 나타났다. 향후 자녀출산 의향이 없는 정도는 상급학교·고학년일수록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나 그 차이는 미세하였다.

〈표 3-33〉 학생의 개인적 특성별 향후 자녀출산 의향

(단위: %, 명)

구분	반드시 가지고 싶음	가능하면 가지고 싶음	별로 안가지고 싶음	전혀 안가지고 싶음	모르겠음	계 (명)	x^2
전체	33.8	49.1	6.7	1.1	9.4	100.0 (11,232)	
성별							
남자	34.4	50.1	4.9	0.9	9.7	100.0 (5,855)	69.1***
여자	33.1	47.9	8.6	1.2	9.1	100.0 (5,378)	
학교구분							
초등학교	26.0	54.3	6.3	1.1	12.3	100.0 (1,898)	218.6***
중학교	31.1	50.6	6.1	1.0	11.3	100.0 (4,754)	
인문고	39.5	45.2	8.0	1.1	6.2	100.0 (3,631)	
실업고	41.0	45.7	5.6	1.1	6.6	100.0 (961)	

주: † p<0.1, * p<0.05, ** p<0.01, *** p<0.00

가족 특성에 따라 학생의 자녀출산 의향은 달랐다(표 3-34 참조). 부모의 생존여부별로 양부모가족 또는 편모가족에 비해 편부가족의 학생들이 자녀를 출산할 것이라는 의향이 상대적으로 낮았다. 부모의 이혼·별거가 청소년의 출산의향에 미치는 영향은 통계적으로 무의미하였다. 이혼가족 청소년의 생활양태(모와 동거, 부와 동거 등)가 서로 다를 수 있고, 가치관에 대해서도 보다 다양한 반응할 것이다. 그 결과 이혼가족 청소년의 태도나 의식은 일정한 방향으로 나타나지 않을 개연성이 있을 것이다.

부모간의 관계가 원만하지 않을수록 자녀출산의향은 대체적으로 낮아지는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그러한 경향성은 학생-부모간의 관계에서도 명확하게 나타났다. 학생-부모간의 관계가 매우 좋을 경우 학생의 자녀출산의향은 85.8%인 반면, 좋지 않을 경우에는 75.3%, 매우 좋지 않을 경우에는 72.8%로 큰 차이가 있었다. 학생들의 주관적인 가구경제수준은 향후 자녀출산 의향과 정(+)적 관계를 보여주고 있다. 약하나마 가구경제수준이 좋지 않다고 생각하는 학생일수록 향후 자녀출산의향이 낮게 나타났다. 요컨대, 가족구성원의 관계와 가구의 경제수준은 학생의 향후 자녀 출산에 대한 사고에 심리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설명될 수 있겠다.

〈표 3-34〉 학생의 가족적 특성별 향후 자녀출산 의향

(단위: %, 명)

구분	반드시 가지고 싶음	가능하면 가지고 싶음	별로 안가지고 싶음	전혀 안가지고 싶음	모르겠음	계 (명)	x^2
부모간의 관계							
매우 좋은 편	39.5	46.3	5.6	0.6	8.0	100.0 (3,680)	177.5***
좋은 편	31.8	51.9	6.4	0.9	9.0	100.0 (3,880)	
보통	29.7	49.0	9.1	1.8	10.4	100.0 (1,965)	
나쁜 편	33.4	49.1	7.6	1.8	8.1	100.0 (446)	
매우 나쁜 편	35.4	42.6	9.4	0.9	11.7	100.0 (223)	
모르겠음	25.2	47.5	6.1	1.6	19.6	100.0 (377)	
학생-부모의 관계							
매우 좋은 편	39.3	46.5	5.5	0.8	8.0	100.0 (4,368)	275.3***
좋은 편	32.6	51.1	6.4	0.7	9.3	100.0 (4,295)	
보통	27.4	50.9	9.1	1.3	11.3	100.0 (1,856)	
나쁜 편	30.2	45.1	11.6	4.7	8.4	100.0 (215)	
매우 나쁜 편	27.3	45.5	11.4	11.4	4.5	100.0 (44)	
모르겠음	21.5	47.2	9.6	3.3	18.5	100.0 (335)	
가구의 경제수준							
매우 잘 사는 편	45.1	37.7	4.7	1.4	11.2	100.0 (215)	130.6***
잘 사는 편	33.9	50.2	6.2	1.1	8.6	100.0 (1,538)	
보통	33.4	49.6	6.8	0.8	9.3	100.0 (7,225)	
못 사는 편	35.6	47.7	7.5	1.9	7.2	100.0 (1,653)	
매우 못사는 편	37.0	45.5	6.7	1.8	9.1	100.0 (165)	
모르겠음	25.9	47.3	4.4	0.7	21.7	100.0 (433)	

주: † p<0.1, * p<0.05, ** p<0.01, *** p<0.00

나. 학생의 희망자녀수

학생들이 향후 갖기를 희망하는 희망자녀수는 2자녀가 57.9%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3자녀 18.3%, 1자녀 9.4%, 무자녀 8.9%, 4자녀 3.1%, 5자녀 이상 2.3% 순으로 나타났다(표 3-35 참조). 이와 같은 선호 자녀수의 분포에 따라 학생들이 갖기를 희망하는 희망자녀수는 평균 2.04명으로 산출되었다.

학생 특성별 희망자녀수의 분포는 대체적으로 전체 패턴과 유사하였다. 구체적으로 학생들 사이에 2자녀 출산의향이 보편적이며, 이에 따라 평균 희망자녀수도 2명 내외로 나타났다. 다만, 일부 특성에 따라 무자녀와 1자녀간의 희망수준이 역전되기도 하며, 극히 예외적으로 3자녀보다 1자녀 선호도가 높았다. 따라서 학생의 개인적·가족적 특성에 따른 희망자녀수 분포보다 평균 희망자녀수의 차이를 비교·분석하였다. 상급학교·고학년일수록 1~2자녀 출산의향 비율이 낮은 반면, 3명 이상 출산의향 비율이 높았다. 상급학교·고학년 학생일수록 무자녀 선호도가 높아, 고등학생의 경우에는 1자녀 선호도보다도 높았다. 그러나 3자녀 선호도의 상승폭이 무자녀의 경우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았다. 그 결과 학생의 평균희망자녀수는 초등학교 5~6학년생의 경우 1.95명이며, 중학생 2.02명, 인문계고등학생 2.09명, 실업계고등학생 2.17명 등으로 상급학교·고학년 학생일수록 많았다. 환언하면, 저학년일수록 소자녀관이 더 뚜렷하다.

〈표 3-35〉 학생의 개인적 특성별 희망자녀수

(단위: %, 명)

구분	0명	1명	2명	3명	4명	5명+	계 (명)	평균
전체	8.9	9.4	57.9	18.3	3.1	2.3	100.0 (9,736)	2.04
성별(x^2=114.8***)								
남자	6.7	8.9	60.3	19.1	2.2	2.8	100.0 (5,018)	2.10
여자	11.3	9.9	55.4	17.5	4.2	1.8	100.0 (4,710)	1.99
학교구분(x^2=117.8***)								
초등학교	8.8	12.8	57.8	17.3	2.1	1.3	100.0 (1,591)	1.95
중학교	8.4	9.8	60.4	16.7	2.4	2.3	100.0 (3,999)	2.02
인문고	10.1	7.5	55.3	20.6	3.9	2.6	100.0 (3,285)	2.09
실업고	7.5	8.0	56.5	19.0	5.8	3.1	100.0 (862)	2.17

주: † p<0.1, * p<0.05, ** p<0.01, *** p<0.00

가족적 특성 중 부모의 생존여부와 이혼·별거 여부가 희망자녀수에 미치는 영향은 통계적으로(p<0.05 수준) 무의미하였다(표 3-36 참조). 학생-부모관계가 좋지 않은 학생일수록 2자녀 선호도가 낮은 반면, 무자녀 선호도가 높았다. 다른 희망자녀수의 선호도는 방향성이 뚜렷하지 않았다. 결과적으로 학생의 평균 희망자녀수는 학생-부모간의 관계가 좋지 않을수록 적게 나타났다. 예를 들어, 학생-부모간 관계가 매우 좋은 학생의 평균희망자녀수는 2.10명인 반면, 나쁜 편인 경우우 1.89명이었다. 가구경제수준이 아주 좋은 편인 학생의 희망자녀수 선호도는 3자녀 이상에서 높게 나타났다.

〈표 3-36〉 학생의 가족적 특성별 희망자녀수(출산의향 자녀수)

(단위: %, 명)

구분	0명	1명	2명	3명	4명	5명이상	계 (명)	평균
부모간의 관계(x^2=78.3***)								
매우 좋은 편	7.0	9.4	57.7	20.1	3.3	2.6	100.0 (3,259)	2.11
좋은 편	8.4	9.6	59.4	17.6	3.1	2.0	100.0 (3,376)	2.03
보통	12.8	9.4	56.9	16.0	2.7	2.2	100.0 (1,686)	1.93
나쁜 편	10.9	7.5	56.0	19.2	2.8	3.6	100.0 (386)	2.06
매우 나쁜 편	12.0	7.3	52.6	19.3	5.7	3.1	100.0 (192)	2.09
모르겠음	10.4	9.7	60.1	15.5	2.9	1.4	100.0 (278)	1.95
학생-부모 관계(x^2=136.9***)								
매우 좋은 편	7.1	8.4	59.6	19.4	3.1	2.4	100.0 (3,860)	2.10
좋은 편	8.2	9.6	58.3	18.8	3.1	2.0	100.0 (3,738)	2.05
보통	12.4	10.6	55.7	15.1	3.5	2.6	100.0 (1,561)	1.95
나쁜 편	18.2	8.9	49.0	17.2	3.1	3.6	100.0 (192)	1.89
매우 나쁜 편	25.6	20.5	28.2	23.1	-	2.6	100.0 (39)	1.59
모르겠음	17.3	11.7	50.0	15.7	2.0	3.2	100.0 (248)	1.82
가구의 경제수준(x^2=83.0***)								
매우 잘 사는 편	7.7	9.3	50.8	19.7	3.8	8.7	100.0 (183)	2.30
잘 사는 편	8.2	10.6	58.5	18.2	2.4	2.1	100.0 (1,349)	2.02
보통	8.8	9.5	58.9	17.8	3.0	2.1	100.0 (6,280)	2.03
못 사는 편	10.6	7.3	55.3	20.4	3.8	2.5	100.0 (1,468)	2.07
매우 못사는 편	9.7	12.4	44.1	22.8	6.2	4.8	100.0 (145)	2.17
모르겠음	7.3	9.9	58.9	16.9	4.0	3.0	100.0 (302)	2.0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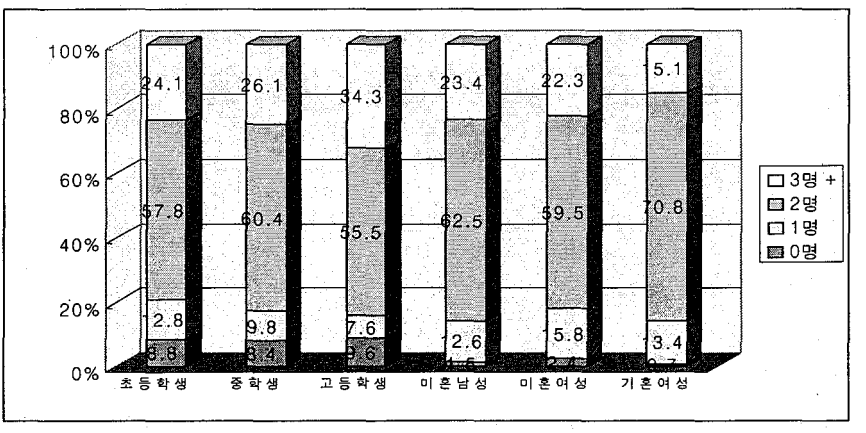
주: † p<0.1, * p<0.05, ** p<0.01, *** p<0.00

저소득층 청소년의 경우 2자녀 선호도보다 3자녀 선호도가 높아 평균희망자녀수는 다소 많았다. 결과적으로 가구경제수준과 청소년의 평균희망자녀수는 U

자 형태를 띄고 있다. 이러한 경향성은 실제 소득계층간의 출산력 차이에서도 나타난다. 이삼식 외(2005)에 의하면, 우리나라 소득계층별 출산율 수준은 저소득층과 고소득층의 경우 상대적으로 높고, 중산층의 경우 가장 낮다는 연구결과를 제시한 바 있다.

「2005년 전국 결혼 및 출산 동향조사」 결과로서 미혼남녀(20~44세) 및 기혼여성(20~44세)의 희망자녀수와 학생의 희망자녀수를 비교하면, 생애경로 이행단계에서의 변화를 간접적으로 추정할 수 있을 것이다(그림 3-8 참조). 우선 초등학교나 중학교에서는 무자녀를 선호하는 경향성이 다른 단계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그 결과 평균희망자녀수도 초등학생의 경우 1.95명으로 가장 낮고, 중학생의 경우 2.02명으로 다음으로 낮았다. 아무래도 가치관이 확립되기 이전의 연령기로 최근의 저출산현상의 영향을 그대로 수용하는 경향성을 엿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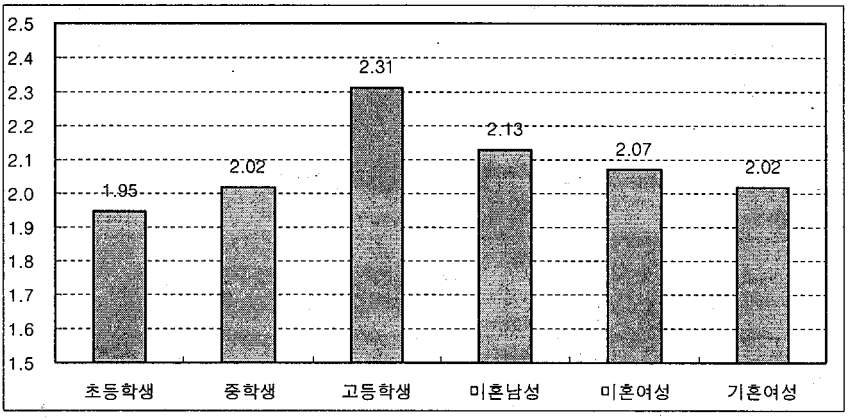
[그림 3-8] 생애경로 단계별 희망자녀수 분포



그러나 다음 생애경로단계인 고등학생의 경우 3자녀 선호도가 상대적으로 높아, 평균희망자녀수도 2.3명으로 가장 많았다. 최근 저출산현상에 대한 심리적인 반등일수도 있고, 다른 한편으로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단순한 희망일 수도 있다. 이후 생애경로 단계에서 희망자녀수는 무자녀나 3자녀 이상의 비중이 감소하는 반면, 2자녀와 1자녀의 비중은 증가하고 있다. 성장과정의 청소년이

아주 많거나 적은 자녀수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면, 결혼을 앞둔 성인 미혼남녀(20~44세)는 현실 여건을 고려하여 1자녀 또는 2자녀를 보다 희망하고 있다. 특히, 기혼여성(20~44세)은 실제 결혼생활에서 현실을 반영하여 2자녀를 집중 선택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요컨대, 어린 시기에 형성된 다자녀관은 생애경로 이행과정에서 현실적 여건으로 인해 점차 축소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림 3-9〕 생애경로 단계별 평균 희망자녀수



다. 청소년의 자녀출산 희망 및 불원 이유

1) 향후 자녀출산 희망 이유

초·중·고 학생들이 향후 자녀를 두고자 하는 이유로는 "자녀를 키우는 것은 삶의 중요한 가치이자 보람" 비율이 63.9%로 압도적으로 높았다(표 3-37 참조). 다음으로 가문계승 10.2%, 노후에 외롭지 않기 위해(노후 정서적 의지) 5.9%, 부부관계 공고화 5.1%이다. 정서적 이유(보람 또는 가치, 노후 정서적 의존, 부부관계 공공, 부모 만족)가 76.1%를 차지하고 있는 반면, 수단적 이유(가문계승, 노후 경제적 의존)는 13.0%에 불과하였다. 앞서 자녀가치관련 태도에서도 살펴보았듯이, 학생들도 수단적인 이유보다 정서적인 이유에 의해 자녀를 가지려는

경향이 높았다.

남학생의 경우 가문계승과 부부관계 공고의 이유가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 여학생의 경우에는 부모로서 삶의 보람·가치, 노후 정서적 의지, 노후 경제적 의지의 이유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상급학교·고학년일수록 자녀출산의향 이유로서 삶의 가치·보람, 부부관계 공고, 노후 정서적 의지 등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 반면, 가문계승과 노후 경제적 의지 등의 비율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요컨대, 성장과정에서 자녀출산의향 이유로서 자녀의 정서적 가치를 더 중요시여기고 있으며, 그러한 경향은 여학생의 경우 상대적으로 더 강하다고 하겠다.

〈표 3-37〉 학생의 개인적 특성별 향후 자녀출산 희망 이유

(단위: %, 명)

구분	① 가문계승	② 노후 정서적 의지	③ 노후 경제적 의지	④ 부부 관계 공고	⑤ 보람 가치	⑥ 결혼후 당연	⑦ 부모 만족	기타	모르겠음	계 (명)	x^2
전체	10.2	5.9	2.8	5.1	63.9	3.0	2.2	3.5	3.4	100.0 (9,246)	
성별											
남자	16.7	4.7	2.7	6.3	58.2	2.9	2.6	3.1	2.8	100.0 (4,914)	572.7***
여자	2.8	7.2	2.9	3.7	70.4	3.1	1.8	4.0	4.2	100.0 (4,328)	
학교구분											
초등학교	18.2	4.6	3.3	4.2	55.8	1.6	5.9	2.3	4.2	100.0 (1,514)	372.4***
중학교	10.5	5.0	2.9	5.4	64.3	3.2	2.1	3.2	3.5	100.0 (3,855)	
인문고	5.8	7.5	2.5	4.8	68.4	3.2	0.8	4.2	2.9	100.0 (3,051)	
실업고)	10.1	6.3	2.7	6.4	60.2	4.1	1.6	4.8	3.9	100.0 (829)	

주: 1) ① 대를 이어야 하니까, ② 늙어서(노후에) 외롭지 않기 위해서, ③, 자녀를 키우는 것은 삶의 중요한 가치이자 보람이니까, ④, 부부관계가 더욱 좋아지니까, ⑤, 자녀를 키우는 것은 삶의 중요한 가치이자 보람이니까, ⑥ 결혼하면 아이는 당연히 생기는 것이니까, ⑦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
2) † p<0.1, * p<0.05, ** p<0.01, *** p<0.00

2) 향후 자녀출산 불원 이유

초·중·고 학생들이 향후 자녀출산을 희망하지 않은 이유는 '내 일에 전념' 33.2%, '자녀 양육·교육비 부담' 24.9%, '부부만의 시간·행복 감소' 8.1%, '자녀가 힘든 공부를 해야 하므로' 4.0%, 부모부양 곤란 2.5%, '자녀 왕따·체벌 우

려' 2.2% 순으로 나타났다(표 3-38 참조). 자녀 불원 이유 중 '내 일에 전념'과 '부부만의 시간·행복 감소'는 개인주의적 사고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자녀 양육비용 부담, 자녀의 힘든 공부 우려, 자녀의 왕따·체벌 우려, 부모 부양문제 등은 가족주의적 사고에 기인한 이유로 간주할 수 있다. 개인주의적 이유들이 41.3%를 차지하는데 비해, 가족주의적 이유는 33.6%로 상대적으로 낮았다. 이러한 경향성은 대체적으로 학생의 개인적 및 가족적 특성별로도 유사하였다.

지역별로 학생의 자녀불원 이유는 통계적으로 유의미($p<0.05$ 수준)하지 않았다. 성별 자녀불원이유로는 여학생의 경우 내 일에의 전념하고자와 자녀의 왕따(체벌) 우려만이 남학생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았을 뿐, 다른 이유들은 그 반대로 나타났다. 내 일에 전념하고자 이유의 비중은 여학생의 경우 40.4%로 남학생 21.2%에 비해 두 배 정도 높았다. 상급학교·고학년일수록 학생의 자녀불원이유 중 양육·교육비 부담, 부부만의 시간·행복 감소 등의 비중이 높은 반면, 내 일에의 전념과 자녀의 공부 힘듦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았다.

〈표 3-38〉 학생의 개인적 특성별 자녀출산 불원 이유

(단위: %, 명)

구분	양육 교육 비부담	부부 시간 행복 감소	내일 전념	자녀 공부 힘듦	자녀 왕따 우려	부모 부양 곤란	기타	모르겠음	계 (명)	x^2
전체	24.9	8.1	33.2	4.0	2.2	2.5	10.1	15.0	100.0 (726)	
성별										
남자	31.9	8.8	21.2	4.4	1.5	5.5	7.3	19.4	100.0 (273)	53.7***
여자	21.0	7.9	40.4	3.3	2.9	0.7	11.5	12.4	100.0 (453)	
학교구분										
초등학교	16.3	2.9	34.6	2.9	5.8	1.9	9.6	26.0	100.0 (104)	55.2***
중학교	23.8	5.7	33.8	2.8	1.8	4.3	9.6	18.1	100.0 (281)	
인문고	29.3	12.1	33.1	4.5	1.4	1.4	9.7	8.6	100.0 (290)	
실업고	24.1	9.3	27.8	7.4	3.7		16.7	11.1	100.0 (54)	

주: 1) ① 자녀에 대한 양육비와 교육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② 부부만의 시간과 행복이 줄어드니까
③ 내 일에 전념하고 싶어서
④ 자녀가 힘든 공부를 하게 되므로
⑤ 자녀가 학교나 사회에서 왕따(체벌) 당할까 염려 되어
⑥ 부모님을 돌보는 것이 어려울 것 같아서
2) † p<0.1, * p<0.05, ** p<0.01, *** p<0.001.

5. 청소년의 자녀가치관의 시사점

지금까지 청소년들의 자녀관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대체적으로 청소년들은 자녀를 갖는데 대해 큰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90% 정도의 청소년들이 부모가 되는 일이 가치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또한 자녀는 2명 정도 갖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제일 높았으며 3명을 선호하는 청소년도 많았다. 마지막으로 반 이상의 청소년이 자녀를 갖는 것이 사회적 책무라는데 동의한다. 하지만 동시에 자녀 때문에 부모의 삶이 희생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또한 자녀들이 노후를 보장해 줄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이러한 결과로 놓고 볼 때 청소년들의 출산행위는 현재 20대 30대의 크게 다를 것 같지는 않으며, 이에 따라 향후 한국의 출산율은 큰 변화가 없는 한 현재의 낮은 수준이 유지될 것 같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는 하루라도 빨리 준비 중인 정책을 시행하고 그 결과를 예의주시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도 국민들의 의식이 중요하다. 큰 변화가 있다는 생각을 심어주어야 한다. 그래야지 안심하고 미래세대인 청소년들도 나중에 자신의 희망자녀수에 근접하는 수의 아이를 가지려고 할 것이다.

연구 결과 중 주목을 끄는 결과는 아직도 많은 청소년들이 자녀를 갖는 것이 사회에 대한 의무라고 생각하는 점이다. 그렇기 때문에 청소년들에게 자녀에 대해 교육을 시킬 때 이 부분을 강조할 수 있을 것이다. 실제로 호주에서는 애국심에 호소하는 출산 장려책을 펴서 큰 성공을 거두었다. 호주는 2년 전 피터 코스텔 재무장관이 국민에게 출산의 의무를 강조하며 자녀 한 명은 부인을 위해, 다른 한 명은 남편을 위해, 또 한 명은 국가를 위해 낳아야 한다고 호소했다. 그 결과 2005년 신생아 수가 1992년 이후 최고 수준인 26만1400명을 기록했다.

제 4 절 청소년의 성역할과 성평등 가치관

1. 문제제기

출산력 저하로 대표되는 인구학적 변화는 단순히 인구학적 위기를 넘어 한국사회 전반의 전환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출산력의 문제는 미시적인 측면에서 보면 개인의 합리적 행위와 관련된 선택의 문제일 수 있지만 거시적 차원에서 이해한다면 한국사회의 전반적인 사회구조와 연관되어 있음을 부인하기 어렵다. 최근 출산력의 급격한 저하로 인해 사회적으로 심각한 위기에 직면한 한국사회서 출산력의 저하는 단순히 출산장려정책으로 대표되는 몇 개의 정책들만을 통해서 완화·해소될 수 없다는 것은 공지의 사실이다. 실제로 1980년대 이후 산업화된 복지국가들에서 출산력은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율, 일과 가족생활의 양립, 성평등 가치관, 빈곤율 등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Sleebos, 2003). 출산력과 관련된 이러한 객관적 사실들에도 불구하고 한국사회는 저출산에 대한 대응을 본질적인 측면에서 고민하기 보다는 현상적 대응만을 양산하고 있다. 여성주의 학자들은 국가가 공식적으로 출산을 증대시키기 위한 정책을 추진한다는 것은 출산율 저하라는 현상에만 집착할 뿐 문제의 본질을 인식하고 있지 못한 결과라고 비판하고 있다(이재경·조영미·이은아·유정미, 2005). 지난 2003년에 법제화된 건강가정기본법(현재 전면개정안이 국회에서 논의 중이다) 제8조제1항에서 "모든 국민은 혼인과 출산의 사회적 중요성을 인식하여야 한다"는 조문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대안을 어디서 찾아야 하는 것일까? 현재의 출산력 저하는 출산력 저하라는 인구학적 변화 자체가 문제아니라 출산력 저하 현상은 전통적 젠더역할에 기반한 국가와 가족, 시장과 가족, 국가와 시장의 사회구조에 기반 한다. 그러므로 대안은 전통적 젠더역할에 근거한 한국사회를 보다 더 성 평등한 사회로 전환하는 지향 속에서 찾아야한다. 특히 Esping-Andersen(2002)이 지적한 바와 같이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의 증가가 후기산업사회의 복지국가재편의 핵심적 요인이라는 주장에 동의한다면 성 평등한 사회의 실현은 한국사회가 선택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한국사회가 이루어야할 당위적 과제인 것이다. 일본이 1989년 합계출산율이 1.57로 떨어지자 저출산 문제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증대시키고 적극적인 정책대응을 전개했음(장혜경·이미정·김경미·김영란. 2004)에도 불구하고 출산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이유는 바로 일본사회가 여전히 전통적 성별분업의 이념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인구학적 분석에서 만혼 및 미혼인구의 증가를 출산력 감소의 중요한 인구학적 요인으로 지적하고 있지만 이러한 현상은 단지 한국이나 일본만이 직면한 문제가 아니라 대부분의 산업화된 국가들이 공통으로 직면한 문제임을 인식을 할 필요가 있다. 즉, 왜 한국사회가 합계출산율 1.08이라는 초저출산율을 기록하고 있는가에 대한 천착이 필요한 것이다. 실제로 OECD 14개국의 출산력을 분석한 연구에 따르면 성 평등 가치관이 출산력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윤홍식·김수정·김은지, 2005).

그러나 문제는 젠더역할로 지칭된 가치관은 단기적 정책대응을 통해서는 변화할 수 없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에 근거한다면 미래 한국사회를 이끌어갈 세대들의 가치관에 대한 이해는 장기적으로 한국사회가 어떠한 사회로 변화할 수 있는지의 가능성을 진단해보는 리트머스 시험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더욱이 현재 한국 청소년들의 가치관을 정확히 이해한다는 것은 이들에 대한 장기적인 정책개입과 대안을 마련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가 된다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연구가 아닐 수 없다. 물론 가치관이라는 것이 반드시 실제 행동과 연관된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가치관에 대한 분석을 통해 실제 행동을 예단하는 것은 다소간의 문제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개인의 실제행위가 (외생적으로 고정되었는지 여부를 떠나)개인의 내생적 변수인 가치관과의 관련되어 결정된다는 사실을 부정할 수는 없다(Pollak and Watkins, 1993).

구체적 분석내용에 들어가지 전에 남녀역할과 성평등과 관련된 청소년의 태도와 가치관을 중심으로 분석을 전개한 이유는 저출산으로 대표되는 한국사회의 문제가 기본적으로 남성생계부양자에 기반한 (또는 성별분업에 근거한) 사회구조에 기반하고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점증하는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로 인해 가구는 남성생계부양자가구에서 이인 생계부양자가구로 전환되고 있는

데 반해 현재의 사회구조는 여전히 성별역할 분업에 근거하고 있다. 특히 성별 분업 해체를 통한 보편적인 일과 가족의 양립체계의 확립이 복지국가 재편의 핵심적 과제라는 점을 상기한다면 이러한 사회적 전환의 기반이 되는 성별분업과 성평등 가치관에 대한 분석은 변화와 전환을 위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전제인 것이다. 더 나아가 남녀역할과 성평등 가치관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전환되지 않을 때 저출산, 불평등, 빈곤 등의 한국 사회문제가 심화될 것이라는 우려를 인식한다면 남녀역할과 성평등과 관련된 한국 청소년의 가치관 분석은 매우 중요한 연구주제가 되는 것이다.

2. 부부간 역할분담에 관한 청소년의 태도

가. 부부간 가사분담에 관한 태도

부부간 가사분담(식사준비, 설거지, 빨래 등)에 관한 일반적인 질문에 대해 학생 중 부부가 공동으로 가사를 돌보아야 한다는 태도는 78.9%로 높으나, 19.8%(전적으로 2.6%, 대체적 17.2%)은 부인이 해야 한다는 태도를 보였다(표 3-39 참조). 남편이 해야 한다는 태도는 1.3%에 불과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현재 학생들 사이에서도 성 고정적 또는 양성 불평등적 역할관이 지배적임을 보여주고 있다고 하겠다.

학생의 성 고정적 역할관은 지역간 유의미($p<0.05$ 수준)한 차이가 없었다. 여학생 중 부인일 가사를 도맡아 해야 한다는 태도는 11.3%인데 반해, 남학생의 경우에는 27.5%로 상대적으로 높았다. 학교급별로 부부간 가사분담에 관한 태도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으며, 학년별 차이의 유의미성도 강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부부간 가사분담에 관한 남녀학생간의 태도 차이에 의해 영향을 받을 뿐, 학교급이나 학년에 따른 차이는 적은 그만큼 학생들 사이에 보편적이라고 할 수 있겠다.

자라나는 세대들의 가치관은 가족환경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것이 일반적이다. 여기에서는 학생의 가족환경과 부부간 가사분담에 관한 태도간의 관계를 분석

하였다(표 3-40 참조). 부모간의 관계가 좋은 경우에 비해 좋지 않을수록 가사의 여성 고정적 역할관을 가진 비율이 낮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부모간의 불화가 가사분담의 적절치 못한 결과로 여김으로써 나타난 결과로 추측할 수 있겠다.

〈표 3-39〉 학생의 개인적 특성별 부부간 가사분담에 관한 태도

(단위: %, 명)

구분	전적으로 부인	대체로 부인	부부가 함께 해야	대체로 남편	전적으로 남편	계 (명)	x^2
전체	2.6	17.2	78.9	1.0	0.3	100.0 (11,227)	
성별							456.4***
남자	3.8	23.7	71.2	1.1	0.3	100.0 (5,850)	
여자	1.2	10.2	87.2	0.9	0.4	100.0 (5,376)	
학년구분							
초 5학년	3.9	16.1	78.1	1.5	0.4	100.0 (1,019)	45.0*
초 6학년	3.0	17.8	78.4	0.7	0.1	100.0 (881)	
중 1학년	3.7	17.2	77.4	1.0	0.6	100.0 (1,552)	
중 2학년	2.1	16.4	80.5	0.7	0.3	100.0 (1,607)	
중 3학년	2.2	16.8	79.9	0.7	0.4	100.0 (1,587)	
고 1학년	1.5	17.3	80.0	0.8	0.4	100.0 (1,562)	
고 2학년	2.6	17.5	78.6	1.0	0.3	100.0 (1,598)	
고 3학년	2.3	18.7	77.3	1.4	0.3	100.0 (1,432)	

주: † p<0.1, * p<0.05, ** p<0.01, *** p<0.001.

부모의 경제활동상태별로 보면, 가사의 여성 고정적 역할관을 가진 학생의 비율은 부만 일하는 경우 25.1%로 나타났다. 이는 맞벌이부모를 가진 학생의 17.6%, 모만 일하는 학생의 15.5%, 부모 모두 일을 하지 않은 학생의 15.9%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학생들이 주관적으로 느끼는 가구의 경제수준별로 가사에 대한 여성의 성 고정적 역할관을 보면, 잘사는 또는 못사는 편이라는 학생의 경우 보통이라는 학생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았다. 요컨대, 실질적인 부모의 경제활동상태는 가사분담 정도에 영향을 미치며, 이는 학생의 가치관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유추해 볼 수 있겠다.

〈표 3-40〉 학생의 가족적 특성별 부부간 가사분담에 관한 태도

(단위: %, 명)

구분	전적으로 부인	대체로 부인	부부가 함께 해야	대체로 남편	전적으로 남편	계 (명)	x^2
부모간의 관계							
매우 좋은 편	2.7	18.2	78.0	0.8	0.3	100.0 (3,679)	62.6***
좋은 편	2.2	19.0	78.0	0.6	0.2	100.0 (3,878)	
보통	2.7	15.1	80.3	1.5	0.5	100.0 (1,966)	
나쁜 편	3.4	13.3	81.5	0.9	0.9	100.0 (444)	
매우 나쁜 편	5.4	9.0	83.0	2.2	0.4	100.0 (223)	
모르겠음	2.4	16.4	79.3	1.6	0.3	100.0 (377)	
부모 취업 여부							
모두 일을 안함	2.4	15.2	80.9	1.1	0.4	100.0 (6,971)	102.0***
부만 일함	2.8	22.3	73.8	0.7	0.3	100.0 (3,386)	
모만 일함	3.4	12.1	83.2	1.2	0.2	100.0 (505)	
모두 일을 안함	3.3	12.6	82.2	1.5	0.4	100.0 (270)	
가구의 경제수준							
매우 잘 사는 편	6.5	19.1	71.6	2.3	0.5	100.0 (215)	71.1***
잘 사는 편	2.9	20.8	75.5	0.5	0.3	100.0 (1,536)	
보통	2.3	17.1	79.5	0.9	0.3	100.0 (7,222)	
못 사는 편	2.6	14.4	80.9	1.6	0.5	100.0 (1,652)	
매우 못사는 편	4.9	16.5	75.0	3.0	0.6	100.0 (164)	
모르겠음	3.9	17.1	77.8	0.9	0.2	100.0 (433)	

주: † p<0.1, * p<0.05, ** p<0.01, *** p<0.001.

나. 부부간 육아분담에 관한 태도

부부간 육아(자녀 돌보기)분담에 관해 학생의 태도를 살펴보면(표 3-41 참조), 부부가 공동으로 담당 84.9%, 부인이 전적으로 담당 2.3%, 부인인 대체적으로 담당 11.9% 등으로 나타났다. 부인이 육아를 도맡아야 한다는 태도는 총 14.2%인 반면, 남편이 도맡아야 한다는 태도는 0.9%에 불과하였다. 이러한 응답패턴은 다소 예외를 제외하고는 학생의 개인적 및 가족적 특성별로도 보편적으로 나타났다. 차이는 크지 않으나, 상급학교·고학년일수록 '부인의 육아전담' 태도가 상대적으로 높았다. 즉, 성장과정에서 성 고정적 역할에 대응하는 교육 등을 받아왔으면서도, 그러한 태도는 오히려 높아지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는 교육효과의 미흡에 기인할 수 있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사회에 내재된 남성중심의 가부장적 문화(특히 가족환경 등)의 영향 때문으로도 유추해볼 수 있다.

〈표 3-41〉 학생의 개인적 특성별 부부간 자녀 돌보기 분담에 관한 태도

(단위: %, 명)

구분	전적으로 부인	대체로 부인	부부가 함께 해야	대체로 남편	전적으로 남편	계 (명)	x^2
전체	2.3	11.9	84.9	0.7	0.2	100.0 (11,239)	
성별							
남자	3.6	15.4	80.0	0.7	0.2	100.0 (5,852)	258.1***
여자	0.8	8.1	90.2	0.7	0.2	100.0 (5,376)	
학교구분							
초등학교	3.2	10.6	85.2	0.9	0.2	100.0 (1,900)	27.2**
중학교	2.4	11.9	84.7	0.7	0.3	100.0 (4,747)	
고등학교(인문계)	1.5	12.5	85.3	0.5	0.2	100.0 (3,630)	
고등학교(실업계)	2.6	12.7	83.7	0.7	0.3	100.0 (961)	

주: † p<0.1, * p<0.05, ** p<0.01, *** p<0.001.

학생의 가족환경에 따라 부부간 육아분담관련 태도는 $p<0.0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냈다(표 3-42 참조). 그러한 가족환경들로는 부모간의 관계, 부모의 경제활동상태, 주관적인 가구경제수준 등이 포함된다. 다만, 예외적으로 부모의 이혼·별거여부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여주지 못했다. 부모 이혼 후 학생의 생활양태(모와 동거, 부와 동거 등)가 서로 다를 수 있고, 부부간의 일에 대한 심리적 반응도 다양할 것이다. 이는 부모간의 관계에 따른 학생 태도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난 점과 연계해도 짐작할 수 있다.

부모간의 관계가 아주 좋거나 좋지 않은 학생의 경우 그 영향으로(또는 심리적 반작용으로) 부부가 공동으로 육아를 분담하여야 한다는 태도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맞벌이부부이거나 모만 일하는 학생의 경우 육아를 부부가 공동으로 분담하여야 한다는 태도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부모 특히, 모의 취업여부에 따라 육아분담에 관한 학생의 태도가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겠다.

아주 잘사는 편이거나 못사는 편이라고 느끼는 학생의 경우 육아에 대한 부인의 전담을 상대적으로 더 강조하고 있으며, 반면 보통 수준으로 느끼는 학생들은 부부가 공동으로 육아를 맡겨야 한다는 태도가 상대적으로 강하였다. 예측컨대, 아주 잘사는 가정에서는 가정부 등 보조인력 동원이 가능함으로써 또

는 모가 취업이 절박하지 않은 상황이므로 육아에 대한 부부간 공동분담에 관한 태도가 상대적으로 낮았다. 반면, 적정한 수준의 중산층을 이루고 사는 경우 특히, 젊은 맞벌이부모일 가능성이 높아 육아의 부부간 공동분담 태도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와 같이, 학생들의 육아관련 태도는 학교교육뿐만 아니라 가족환경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고 있음을 유의할 필요가 있겠다.

〈표 3-42〉 학생의 가족적 특성별 부부간 자녀 돌보기 분담에 관한 태도

(단위: %, 명)

구분	전적으로 부인	대체로 부인	부부가 함께	대체로 남편	전적으로 남편	계 (명)	x^2
부모간의 관계							
매우 좋은 편	2.2	11.0	86.0	0.6	0.2	100.0 (3,678)	39.3**
좋은 편	2.0	12.7	84.5	0.6	0.2	100.0 (3,879)	
보통	2.1	12.8	83.8	0.8	0.4	100.0 (1,966)	
나쁜 편	3.8	9.9	85.9	-	0.4	100.0 (446)	
매우 나쁜 편	2.7	9.9	85.7	1.8	-	100.0 (223)	
모르겠음	3.5	13.6	80.7	1.6	0.5	100.0 (374)	
부모 취업 여부							
모두 일을 안함	2.1	10.7	86.3	0.7	0.2	100.0 (6,970)	44.9***
부만 일함	2.7	14.4	82.0	0.6	0.3	100.0 (3,388)	
모만 일함	2.2	10.1	86.3	1.0	0.4	100.0 (505)	
모두 일을 안함	0.7	15.6	82.2	1.1	0.4	100.0 (270)	
가구의 경제수준							
매우 잘 사는 편	6.0	11.1	81.0	1.4	0.5	100.0 (216)	40.0**
잘 사는 편	2.8	12.9	83.5	0.7	0.1	100.0 (1,536)	
보통	1.9	11.9	85.3	0.7	0.2	100.0 (7,223)	
못 사는 편	2.3	11.6	85.2	0.6	0.3	100.0 (1,654)	
매우 못사는 편	2.5	12.9	82.8	1.8	-	100.0 (163)	
모르겠음	4.4	10.9	84.1	0.2	0.5	100.0 (433)	

주: † p<0.1, * p<0.05, ** p<0.01, *** p<0.001.

다. 부부간 의사결정에 관한 태도

일반적인 부부간 의사결정에 관한 초·중·고 학생의 태도로 부부공동 결정 85.0%, 남편 전적 결정 9.0%, 남편 대체적 결정 2.1%로 나타났다(표 3-43 참조). 의사결정에 있어서 성평등적 부부관이 지배적이나, 학생 중 11.1%는 가부장적인 태도가 강하게 지속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지역별로는 농촌 보다 도시(중소도시, 대도시 순)의 학생들 사이에서 남성에 의한 의사결정 태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이는 농촌에서 부

모들이 모두 일하면서 의사결정을 공동으로 하는 경향을 반영한 결과로 볼 수 있으나, 다른 한편으로 농촌사회에서 부에 의한 의사결정에 대한 심리적 반동의 효과로도 볼 수 있겠다. 남편의 의한 의사결정 태도의 비중은 여학생의 경우 6.2%인데 반해, 남학생의 경우에는 15.%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상급학교·고학년일수록 부부간의 공동 의사결정에 대한 태도가 높게 나타난 반면, 남편의 의사결정 태도는 생애경로 이행과정에서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표 3-43〉 학생의 개인적 특성별 부부간 의사결정에 관한 태도

(단위: %, 명)

구분	전적으로 부인	대체로 부인	부부가 함께	대체로 남편	전적으로 남편	계 (명)	x^2
전체	1.2	2.5	85.0	9.0	2.1	100.0 (11,232)	
지역							
대도시	1.0	2.7	85.7	8.9	1.7	100.0 (4,936)	17.2*
중소도시	1.4	2.3	84.5	9.3	2.4	100.0 (4,947)	
농촌	1.8	2.9	84.3	8.5	2.5	100.0 (1,360)	
성별							
남자	1.5	3.0	79.7	12.5	3.3	100.0 (5,854)	289.9***
여자	1.0	2.0	90.8	5.3	0.9	100.0 (5,378)	
학교구분							
초등학교	1.4	2.2	78.7	12.7	5.1	100.0 (1,900)	178.8***
중학교	1.1	2.7	84.9	9.2	2.1	100.0 (4,750)	
고등학교(인문계)	1.2	2.3	88.9	6.9	0.8	100.0 (3,629)	
고등학교(실업계)	1.7	3.4	83.6	9.6	1.8	100.0 (961)	

주: † p<0.1, * p<0.05, ** p<0.01, *** p<0.001.

부부간의 의사결정에 관한 학생의 태도가 가족환경에 의해 영향을 받고 있는지를 살펴보기로 한다(표 3-44 참조). 부모간의 관계가 원만하지 않을수록 부부간 공동결정 태도는 상대적으로 낮고, 남편에 의한 결정 태도는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부모의 경제활동상태에 따른 학생의 태도는 통계적으로 무의미하였다. 이는 맞벌이부모와 외벌이부모를 둔 학생간의 태도가 차이가 없음을 의미한다. 가구경제수준이 잘 사는 편일수록 부부공동 의사결정에 대한 태도가 낮고 대신 남편에 의한 의사결정 태도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부유층에서 부부간 의사결정이 남편이 주도하는 경향성의 존재를 의심케 해주는 결과이다.

〈표 3-44〉 학생의 가족적 특성별 부부간 의사결정에 관한 태도

(단위: %, 명)

구분	전적으로 부인	대체로 부인	부부가 함께	대체로 남편	전적으로 남편	계 (명)	x^2
부모간의 관계							
매우 좋은 편	1.3	2.1	85.4	9.1	2.1	100.0 (3,679)	39.3**
좋은 편	0.7	2.8	85.3	9.2	2.0	100.0 (3,880)	
보통	1.7	2.1	85.3	8.9	2.1	100.0 (1,967)	
나쁜 편	2.9	3.1	82.6	8.7	2.7	100.0 (448)	
매우 나쁜 편	2.2	2.2	82.1	9.9	3.6	100.0 (223)	
모르겠음	1.6	4.2	83.8	8.5	1.9	100.0 (377)	
가구의 경제수준							
매우 잘 사는 편	4.2	4.2	75.9	10.2	5.6	100.0 (216)	87.0***
잘 사는 편	1.0	3.1	80.8	11.9	3.3	100.0 (1,536)	
보통	1.1	2.2	86.2	8.6	1.9	100.0 (7,223)	
못 사는 편	1.7	3.3	85.3	8.4	1.4	100.0 (1,656)	
매우 못사는 편	2.4	1.8	82.4	9.7	3.6	100.0 (165)	
모르겠음	1.8	2.8	84.3	8.3	2.8	100.0 (433)	

주: † p<0.1, * p<0.05, ** p<0.01, *** p<0.001.

3. 부부역할에 관한 청소년의 태도

가. 개인적 특성별 태도

일반적인 부부역할에 대한 학생의 태도는 가족 내에서의 성평등적인 역할관을 측정하기 위한 것이다(표 3-45 참조). 그 결과는 다소 상반되게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남편이 일하여 수입을 벌고, 부인은 전적으로 집안을 돌보는 이른바 전통적인 성분업적 역할에 대해 학생들의 수용태도는 긍정적인 편이었다. 그러나 맞벌이부부 중 남편의 생계책임을 강조한 견해에 대해서는 학생들의 태도가 부정적인 편이었다. 이는 아무래도 전업주부로서 모의 영향을 받은 학생들이 맞벌이부부가 아닌 이상 성분업적 역할은 당연한 것으로 인식하는 경향에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요컨대, 학생들 사이에 성평등적 역할관은 조건에 따라 합리적인 방향으로 조정하려는 경향성이 존재한다고 하겠다.

가족생활에서 남편중심의 생계모형과 달리, 남편의 육아능력에 대한 학생의 태도는 압도적으로 긍정적이었다. 이는 부부의 경제활동참가 형태와 상관없이

남편의 육아 참여 능력과 필요성을 강조하는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

남녀학생간의 태도는 부부간 성분업적 역할에 대해 여학생에 비해 남학생이 더 긍정적으로 수용하고 있으며, 남성의 육아능력에 대해서는 여학생이 더 긍정적인 태도는 지녔다. 전반적으로 남학생이 여학생에 비해 가족 내 성평등적 역할에 상대적으로 더 부정적인 인식을 가진 것으로 해석할 수 있겠다.

〈표 3-45〉 학생의 특성별 일반적인 부부 역할에 대한 태도(찬성비율)

(단위: %, 명)

구분	전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계	남자	여자	계	남자	여자	계	남자	여자	계
남편 직업생활, 아내 가정 돌봄	53.9	75.8	66.1	71.1	64.2	42.7	54.0	57.8	34.9	46.6
맞벌이부부의 생계는 남편 책임	38.1	48.5	40.2	44.5	43.8	27.4	36.0	46.2	28.2	37.4
남편도 자녀 잘 돌 볼 수 있음	93.5	89.8	96.4	93.0	91.1	95.4	93.2	91.5	96.5	93.9

나. 가족적 특성별 태도

1) 가족 내 전통적 성별분업에 관한 태도

부모의 경제활동상태와 가구경제수준은 "남편은 직업을 가지고 아내는 가정을 돌보는 것이 좋다"는 견해에 대한 초·중·고 학생의 태도에 $p<0.0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3-46 참조). 맞벌이부모를 둔 학생에 비해 외벌이부모 또는 모두 일하지 않은 부모를 둔 학생이 전통적인 성분업적 역할에 대해 더 긍정적인 태도를 보였다. 특히, 모만 일하고 있는 학생 중 16.1%가 전통적인 성분업적 역할에 대해 매우 찬성하고 있었다. 주관적 가구경제수준이 좋을수록 전통적인 성분업적 역할에 대한 학생의 긍정적인 태도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상대적으로 가구의 경제상태가 좋은 경우 가족 내 성별분업에 대한 동의 수준이 높은 이유는 고소득자의 경우 여성보다 상대적으로 남성이 많고, 남성이 고소득자의 경우 남성의 소득만으로 가족의 윤택한 생활수준이 보장되기 때문에 자녀들이 자연스럽게 가족 내 성별분업에 대한 동의수준이 높게 나타난 것으로 추정된다. 실제로 가구의 생계부양

형태에 따른 가구소득을 분석한 연구를 보면 일인생계부양자가구 남성의 연평균 임금소득은 26,371천원으로 이인생계부양자가구 남성의 연평균 임금소득 23,750천원 보다 2,621천원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윤홍식·조막래, 2006).

〈표 3-46〉 "남편은 직업을 가지고 아내는 가정을 돌보는 것이 좋다"에 관한 학생의 태도: 가족적 특성별

(단위: %, 명)

구분	매우 찬성함	대체로 찬성함	별로 찬성안함	전혀 찬성안함	계 (명)	x^2
부모 취업여부						
모두 일 안함	10.6	40.1	36.1	13.1	100.0 (6,905)	97.2***
부만 일함	14.0	46.1	30.1	9.8	100.0 (3,360)	
모만 일함	16.1	38.0	34.2	11.7	100.0 (503)	
모두 일을 안함	13.9	42.1	32.3	11.7	100.0 (266)	
가구의 경제수준						
매우 잘 사는 편	31.9	36.2	20.0	11.9	100.0 (210)	164.6***
잘 사는 편	15.1	45.4	27.8	11.7	100.0 (1,528)	
보통	11.0	42.0	35.4	11.6	100.0 (7,153)	
못 사는 편	9.7	39.4	37.9	13.1	100.0 (1,643)	
매우 못사는 편	18.3	34.8	30.5	16.5	100.0 (164)	
모르겠음	14.4	42.8	28.7	14.1	100.0 (425)	

주: † p<0.1, * p<0.05, ** p<0.01, *** p<0.00

2) 가구 내 생계부양 주체에 관한 태도

부모간의 관계에 따른 차이를 보면 부모관계가 좋을수록 부인의 노동시장 참여와 관계없이 가족의 생계부양의 책임이 남편에게 있다는 의견이 높게 나타났다(표 3-47 참조). 부모간의 관계가 매우 좋다고 응답한 학생들의 경우 39.3%가 찬성한다고 응답한 반면 부모간의 관계가 매우 나쁜 편이다고 응답한 경우 35.4%가 찬성한다고 응답했다. 부모간의 관계가 좋을수록 상대적으로 전통적 성별분업과 역할에 대한 지지가 높게 나타나는 것은 앞선 분석과도 일치하는 결과인데 이를 어떻게 해석해야할지는 매우 논쟁적일 수 있다. 다만 선행연구에 따르면 부부관계는 가족 내 성별분업과 역할에 대해 아내가 전통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있고, 남편이 진보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경우 가장 좋은 반면 남편과 아내 모두 진보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있을 때 가장 나쁘다는 분석을

참고할 필요는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Cherlin, 1992). 즉, 부모간의 관계가 나쁠수록 "맞벌이 부부의 경우에도 가족의 생계는 남편이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에 찬성하는 비율이 낮은 것 부모가 모두 가족 내 성별분업과 역할에 대해 진보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일 수도 있다. 다른 측면에서 이야기하면 부모 모두가 가족 내 성별분업에 대해 진보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통적인 남성의 생계부양역할에는 동의하지 않지만 부부관계는 나쁠 수 있다는 추론이 가능하다.

〈표 3-47〉 "맞벌이 부부의 경우에도 가족의 생계는 남편이 책임져야 한다"에 관한 학생의 태도: 가족적 특성별

(단위: %, 명)

구분	매우 찬성함	대체로 찬성함	별로 찬성안함	전혀 찬성안함	계 (명)	x^2
부모간의 관계						
매우 좋은 편	8.6	30.7	46.1	14.5	100.0 (3,630)	45.6***
좋은 편	6.8	30.4	51.1	11.7	100.0 (3,836)	
보통	8.1	28.6	49.2	14.2	100.0 (1,943)	
나쁜 편	8.6	28.9	48.9	13.6	100.0 (440)	
매우 나쁜 편	8.5	26.9	48.0	16.6	100.0 (223)	
모르겠음	12.1	29.1	44.7	14.0	100.0 (371)	
가구의 경제수준						
매우 잘 사는 편	18.4	35.3	29.5	16.9	100.0 (207)	87.6***
잘 사는 편	9.3	30.9	44.2	15.6	100.0 (1,523)	
보통	7.4	29.6	50.4	12.6	100.0 (7,133)	
못 사는 편	8.7	30.0	47.8	13.6	100.0 (1,635)	
매우 못사는 편	13.3	29.7	41.2	15.8	100.0 (165)	
모르겠음	6.0	30.5	48.1	15.5	100.0 (420)	

주: † p<0.1, * p<0.05, ** p<0.01, *** p<0.00

부모의 경제활동상태는 "맞벌이 부부의 경우에도 가족의 생계는 남편이 책임져야 한다"는 견해에 대한 초·중·고 학생의 태도에 $p<0.0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판명됐다. 이는 맞벌이부부 중 남편의 생계책임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가 맞벌이부모 여부와 상관없이 공히 우세하게 나타났음을 의미하기도 한다. 주관적 가구경제수준에 따라서는 아주 잘사는 편이거나 못사는 편인 학생의 경우에 맞벌이부부 중 남편의 생계책임에 대해 상대

적으로 더 긍정적이었다. 특히, 아주 잘사는 편이라고 하는 학생의 경우에는 동 견해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보다 부정적인 태도가 더 강했다. 앞서 설명하였듯이 부유층의 경우 모가 밖에서 일할 필요성이나 긴급성이 없는데다가 집안일도 가정부 등이 하고 있어, 그 영향에 기인한 것으로 사료된다. 반대로 가구경제가 너무 안 좋은 가정에서는 모가 힘들게 일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 영향으로 학생들 사이에 부의 책임을 더 강조하는 의식이 잠재되어 있는 것으로 추측해볼 수 있겠다.

3) 남편(남성)의 자녀 돌봄 능력에 관한 태도

생각하는 비율이 높았다. 부모간의 관계가 매우 좋은 편이다고 응답한 학생들의 94.8%가 찬성했다(표 3-48 참조). 부모관계가 좋은 편 93.2%, 보통 92.8%, 나쁜 편 92.1%, 매우 나쁜 편 91.0% 순이었다. 특이한 점은 가족 내 성별분업과 역할에 대한 앞의 질문들에서는 부부관계가 좋을수록 응답하는 학생들의 남녀역할에 관한 평등 의식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는 점이다. 이러한 결과를 추정해 보면 하나는 학생들이 가사분담이나 생계부양 등의 문제와 자녀를 돌보는 문제를 동일선상에 놓고 사고하지 않는다는 추론이 가능하다. 다른 추론은 부모관계가 좋을수록 가사와 생계부양 문제는 상대적으로 전통적 가치관에 의존하지만 자녀를 돌보는 일은 함께 나누고 있으며 자녀 돌봄을 함께 나누는 것이 개인적 차원에서 전통적 성별역할분담과 상충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부모의 경제활동상태는 "남편도 아내와 마찬가지로 자녀를 잘 돌볼 수 있다"는 견해에 대한 초·중·고 학생의 태도에 $p<0.0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판명됐다. 이는 맞벌이부부이든 아니든 동 견해에 대한 학생의 긍정적인 태도가 공히 우세하게 나타났음을 의미한다. 주관적 가구경제수준에 따라서는 잘사는 학생일수록 동 견해에 대해 매우 찬성하는 정도가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아주 잘사는 편이거나 못사는 편인 학생의 경우에 동 견해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가 10% 내외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앞서 설

명하였듯이 부유층의 경우 모가 밖에서 일할 필요성이나 긴급성이 없는데다가 집안일도 가정부 등이 하고 있어, 그 영향에 기인한 것으로 사료된다. 반대로 가구경제수준이 너무 안 좋은 경우 부의 자녀케어가 실질적으로 어렵다는 상황이 반영된 결과로 유추해볼 수 있겠다.

〈표 3-48〉 "남편도 아내와 마찬가지로 자녀를 잘 돌볼 수 있다"에 관한 학생의 태도: 가족적 특성별

(단위: %, 명)

구분	매우 찬성함	대체로 찬성함	별로 찬성안함	전혀 찬성안함	계 (명)	x^2
부모간의 관계						
매우 좋은 편	56.2	38.6	4.0	1.2	100.0 (3,623)	153.6***
좋은 편	44.1	49.1	6.0	0.8	100.0 (3,830)	
보통	45.7	47.1	6.1	1.1	100.0 (1,942)	
나쁜 편	49.7	42.4	6.8	1.1	100.0 (439)	
매우 나쁜 편	57.1	33.9	6.7	2.2	100.0 (224)	
모르겠음	43.2	47.6	7.6	1.6	100.0 (370)	
가구의 경제수준						
매우 잘 사는 편	63.8	25.6	7.7	2.9	100.0 (207)	81.8***
잘 사는 편	52.8	41.7	4.4	1.1	100.0 (1,519)	
보통	48.1	45.7	5.3	0.9	100.0 (7,126)	
못 사는 편	49.4	43.7	6.0	1.0	100.0 (1,635)	
매우 못사는 편	49.4	40.2	6.7	3.7	100.0 (164)	
모르겠음	47.9	41.2	8.1	2.9	100.0 (420)	

주: † p<0.1, * p<0.05, ** p<0.01, *** p<0.00

4. 양성평등에 관한 청소년의 태도

가. 개인적 특성별 태도

설문조사에서 학생들의 양성평등 의식 수준을 측정하기 위하여 10가지 관련 설문을 실시하였다. 이설문내용 중 5가지는 가족영역에서 성평등 정도를 그리고 나머지 5가지는 직업영역에서의 성평등을 측정하기 위한 것으로 고안되었다. <표 3-49>은 설문별로 학생의 태도를 찬성정도로 측정한 결과이다. 학생의 태도를 4점 척도로 변환하여 평균점수도 산정하였다. 일부 설문(①, ④, ⑥, ⑦, ⑧, ⑩)들은 부정문으로 설계되었으므로, 역순으로 '성평등 척도'를 전환하였다.

〈표 3-49〉 성평등에 관한 학생의 태도 종합 비교

(단위: %, 명)

	구분	매우 찬성	대체로 찬성	별로 찬성 안함	전혀 찬성 안함	계 (명)	평균 점수
가족 영역	1)남자들이 부엌일을 하는 것은 보기에 좋지 않다	3.9	10.7	37.3	48.2	100.0 (11,231)	0.70
	2)집, 땅과 같은 재산을 남편과 아내 공동 이름으로 하는 것을 찬성 한다	45.1	44.0	8.3	2.6	100.0 (11,231)	2.32
	3)설거지나 빨래와 같은 집안일은 남자와 여자가 다 같이 해야 한다	52.9	37.8	7.2	2.1	100.0 (11,219)	2.42
	4)집단의 대를 이어가기 위해서 아들이 있어야 한다	12.2	34.6	38.0	15.3	100.0 (11,224)	1.44
	5)아내와 남편은 집안의 모든 일에 대해서 똑같은 결정권을 가져야 한다	50.9	40.4	6.7	1.9	100.0 (11,216)	2.40
직업 영역	6)여자는 사업에 관한 중대한 결정을 남자만큼 잘 내리지 못 한다	3.6	17.6	43.2	35.6	100.0 (11,216)	0.89
	7)남자는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기 때문에 여자보다 월급을 더 많이 받아야 한다	11.1	25.4	37.5	26.0	100.0 11,210	1.22
	8)차심부름이나 복사는 남자직원보다 여자 직원이 하는 것이 어울린다	6.8	21.3	36.8	35.1	100.0 (11,216)	1.00
	9)여자가 판사·검사와 같이 남자들이 주로 맡았던 직업을 갖는데 찬성한다	45.5	39.6	11.0	3.9	100.0 (11,216)	2.27
	10)남자가 여자 상사 밑에서 일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6.7	14.4	37.5	41.4	100.0 (11,209)	0.86

주: 설문 ②, ③, ⑤, ⑨는 '매우 찬성'=4점, '찬성'=3점, '별로 찬성 안함'=2점, '전혀 찬성 안함'=1점
①, ④, ⑥, ⑦, ⑧, ⑩은 '전혀 찬성안함'=4점, '별로 찬성 안함'=3점, '찬성'=2점, '매우 찬성'=1점 등

우선 가족영역을 성평등척도는 '남자의 부엌일 참여' 85.5%, '재산의 부부간 공동명의' 89.1%, '가사의 부부간 공평분담' 90.7%, '가문계승을 위한 아들 필요' 53.3%, '집안일에 대한 부부 공동의 의사결정' 91.3% 등이었다. 가족영역 설문 중 가사에 대한 부부의 공평분담이나 공동 의사결정으로 측정된 학생들의 성평등의식 수준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재산의 부부간 공동명의'로 측정된 결과도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반면, 학생들은 남자의 부엌일 참여에 대한 생각은 앞선 설문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성평등의식 수준을 보이고 있다. 특히, 가문계승을 위한 아들의 필요성으로 측정된 결과는 50%대 수준이며, 이는 학생들 사이에 가문계승이 아들에 의해서만 가능하다는 전통적인 의식이 강하게 자리 잡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겠다. 바꾸어 말하자면, 좀더 개인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성평등의식 수준이 높게 나타나나, 가족집단적 사안에 대해서는 전통적인 입장을 견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업영역으로 측정된 학생들의 성평등 의식수준은 '여성의 중대사업 결정능력 미흡' 78.8%, '여성보다 남성의 높은 월급 책정' 63.5%, '잔일은 여성에 더 적합' 71.9%, '판·검사 등 남성지향적 일의 여성 수행' 85.1%, '여자 상사 밑에서 남성의 근로활동' 78.9% 등으로 나타났다. 가족영역과 비교하여 보면, 직업영역에서의 성평등 의식수준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이는 직장영역에서 양성불평등적인 차별관행이 보편화되어 있고, 그러한 영향이 청소년층까지도 이미 침투해 있다는 것을 짐작케 해주는 대목이라고 할 수 있다.

청소년의 특성별로 양성평등 의식수준을 진단하기 위하여, 가족영역과 직업영역별로 설문항목의 평균점수의 평균을 산정하여 성평등점수로 활용하였다(표 3-50 참조). 평균점수가 2.5점인 경우 중간값으로서 성평등 의식수준이 중간정도로 간주할 수 있다. 전체 학생의 평균점수가 3.1점으로 성평등 의식수준이 비교적 높은 편으로 볼 수 있다. 가족영역에 비해 직업영역에서의 성평등 의식수준이 상대적으로 낮다. 남학생의 성평등점수는 3.38점으로 가족영역의 경우 3.43점, 직업영역의 경우 3.33점으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반면, 남학생의 성평등점수는 2.89점(가족영역 2.98점, 직업영역 2.79점)으로 중간 수준이상이나 여학생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낮았다. 남학생과 여학생 모두 가족영역에 비해 직업영역에서의 성평등점수가 상대적으로 낮았다.

〈표 3-50〉 성평등에 관한 학생의 태도 비교(성평등점수): 학교급·성별

(단위: %, 명)

구분	전체			남학생			여학생		
	전체	가족영역	직업영역	전체	가족영역	직업영역	전체	가족영역	직업영역
전체	3.12	3.20	3.05	2.89	2.98	2.79	3.38	3.43	3.33
지역									
대도시	3.14	3.21	3.07	2.89	2.98	2.81	3.41	3.46	3.36
중소도시	3.13	3.20	3.06	2.90	2.98	2.81	3.39	3.44	3.34
농촌	3.10	3.18	3.01	2.87	2.97	2.76	3.33	3.39	3.28
학교구분									
초등학교	2.97	3.09	2.85	2.77	2.89	2.65	3.19	3.31	3.06
중학교	3.12	3.18	3.06	2.89	2.96	2.82	3.39	3.43	3.34
인문고등학교	3.24	3.30	3.19	2.96	3.05	2.87	3.53	3.54	3.52
실업고등학교	3.07	3.16	2.99	2.88	2.98	2.79	3.28	3.36	3.21

지역별로 청소년의 성평등점수는 전체 패턴과 유사하게 나타났다. 다만, 근소하나마 전체와 가족 및 직업영역 모두에서 대도시, 중소도시, 농촌 순으로 학생의 성평등점수가 높게 나타났으며, 이는 남녀학생별로 마찬가지였다. 상급학교·고학년일수록 학생의 성평등점수는 상대적으로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남녀학생별로도 마찬가지였다. 즉, 연령이 높아지면서 교육의 효과나 이성적 판단력의 증가 등에 힘입어 학생의 성평등 의식수준은 점차 높아지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겠다.

나. 가족적 특성별 태도

1) 공동명의의 자산소유에 관한 태도

<표 3-51>은 학생의 가족특성에 자산의 부부 공동명의 소유에 대한 태도를 보여주고 있다. 부모의 혼인상태와 부모의 취업여부는 자산의 부부 공동명의 소유에 대한 학생들의 태도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계에 있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주목할 점은 부모의 취업여부가 자산의 부부공동명의 소유에 대한 학생들의 태도와 관련이 없다는 점이다. 이 같은 결과는 부모 모두가 생계부양자로서 역할을 담당하던, 가족 내 역할분담에 의해 한 사람만 생계부양역할을 담당하던 결혼관계에서 형성한 자산은 부부 모두에게 권리가 있다는 학생들의 인식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부모간의 관계에 따라서 학생들의 태도는 상이하게 나타났지만 학생들의 태도가 부모간의 관계에 비례해서 나타나지는 않았다. 학생들의 태도는 부모간의 관계가 좋고 나쁨과는 관계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자산의 부부 공동명의 소유에 관한 태도는 가구의 경제상태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러나 학생들의 태도가 가구의 경제상태와 비례적 관계에 있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로 추측할 때 자산소유에 관한 양성평등 의식은 가구 경제상태가 중간 정도인 경우 가장 높은 반면 매우 유복하거나, 매우 어려운 양극단의 경우 상대적으로 낮다고 추정할 수 있다.

〈표 3-51〉 "집, 땅과 같은 재산을 남편과 아내 공동 이름으로 하는 것을 찬성한다"에 관한 학생의 태도: 가족적 특성별

(단위: %, 명)

구분	매우 찬성함	대체로 찬성함	별로 찬성안함	전혀 찬성안함	계 (명)	x^2
부모간의 관계						
매우 좋은 편	49.1	40.2	8.1	2.6	100.0 (3,672)	68.5***
좋은 편	42.0	47.7	7.8	2.4	100.0 (3,879)	
보통	43.6	45.2	9.3	1.9	100.0 (1,963)	
나쁜 편	44.2	44.8	8.3	2.7	100.0 (446)	
매우 나쁜 편	48.9	40.8	4.9	5.4	100.0 (223)	
모르겠음	43.5	42.7	10.1	3.7	100.0 (377)	
가구의 경제수준						
매우 잘 사는 편	54.7	28.5	12.1	4.7	100.0 (214)	91.0***
잘 사는 편	44.7	43.2	8.7	3.3	100.0 (1,533)	
보통	44.1	45.7	7.9	2.2	100.0 (7,216)	
못 사는 편	49.3	40.5	8.1	2.1	100.0 (1,655)	
매우 못사는 편	41.5	40.9	11.0	6.7	100.0 (164)	
모르겠음	44.0	38.9	11.1	6.0	100.0 (434)	

주: † p<0.1, * p<0.05, ** p<0.01, *** p<0.001

2) 아들이 집안의 대를 있기 위해 필요하다는 생각에 대한 태도

학생들의 가족특성에 따른 "집안의 대를 이어가기 위해서 아들이 있어야 한다"는 생각에 대한 태도는 <표 3-52>에 제시되어있다. 부모의 생존여부, 부모의 혼인상태, 부모의 취업여부는 학생들의 태도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계에 있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부와 모의 학력수준에 따른 학생들의 태도는 유미한 차이를 보였으나 부와 모의 학력수준에 따른 차이는 상이하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에 근거해 부모의 학력과 관련된 태도를 추정해보면 부의 학력수준에 따른 차이는 전반적으로 (다소간 등락이 있지만) 부의 학력수준이 높아질수록 집안을 대를 잇기 위해 아들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감소하는 것으로 보인다. 모의 경우는 학력수준에 따른 등락이 보이는데 초등학교 학력에서 대학교 학력까지는 아들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점차 감소하다가 대학원 졸업자의 경우 증가하는 모습을 띄고 있다. 왜 부와 모의 학력수준에 따른 인식차이가 상이하게 나타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보다 심층적인 연구가 필요한 대목이다. 특히 모의

학력수준이 가장 높은 집단에서 상대적으로 전통적인 가치관이 지지를 받고 있다는 것에 대한 논리적 설명이 요구된다.

〈표 3-52〉 "집안의 대를 이어가기 위해서 아들이 있어야 한다"에 관한 학생의 태도: 가족적 특성별

(단위: %, 명)

구분	매우 찬성함	대체로 찬성함	별로 찬성안함	전혀 찬성안함	계 (명)	x^2
부의 학력						
무학	13.6	36.4	45.5	4.5	100.0 (22)	118.2***
초등학교	13.8	31.1	40.4	14.7	100.0 (334)	
중학교	10.9	36.7	38.2	14.1	100.0 (667)	
고등학교	11.3	34.3	39.8	14.6	100.0 (4,370)	
대학교	10.8	33.9	37.6	17.7	100.0 (3,138)	
대학원	10.1	31.1	38.3	20.4	100.0 (652)	
모르겠음	17.7	37.3	33.9	11.1	100.0 (1,659)	
모의 학력						
무학	12.9	29.0	32.3	25.8	100.0 (31)	152.9***
초등학교	13.8	36.7	36.5	13.0	100.0 (362)	
중학교	12.6	35.2	37.9	14.3	100.0 (807)	
고등학교	10.4	34.1	40.1	15.5	100.0 (5,470)	
대학교	10.8	32.6	38.8	17.8	100.0 (2,268)	
대학원	13.0	34.1	31.4	21.5	100.0 (293)	
모르겠음	18.3	38.3	32.6	10.7	100.0 (1,749)	
학생-부모 관계						
매우 좋은 편	15.1	35.2	34.5	15.2	100.0 (4,362)	110.3***
좋은 편	9.8	35.5	40.3	14.3	100.0 (4,285)	
보통	10.6	32.0	41.3	16.1	100.0 (1,854)	
나쁜 편	9.3	34.0	37.7	19.1	100.0 (215)	
매우 나쁜 편	15.6	24.4	28.9	31.1	100.0 (45)	
모르겠음	12.8	26.8	42.3	18.2	100.0 (336)	
가구의 경제수준						
매우 잘 사는 편	30.2	35.8	20.5	13.5	100.0 (215)	145.8***
잘 사는 편	15.7	37.5	32.9	13.8	100.0 (1,534)	
보통	10.9	34.6	39.0	15.4	100.0 (7,211)	
못 사는 편	10.4	31.9	41.1	16.5	100.0 (1,656)	
매우 못사는 편	17.1	31.1	33.5	18.3	100.0 (164)	
모르겠음	15.7	33.9	38.3	12.0	100.0 (433)	

주: † p<0.1, * p<0.05, ** p<0.01, *** p<0.001

학생과 부모와의 관계에 따른 차이를 보면 대체로 학생과 부모와의 관계가 좋을 때 찬성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가구의 경제상태에 따른 차이는 대체로 가구의 경제상태가 좋을수록 찬성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가구경제상태가 매우 잘 사는 편이다고 응답한 학생들이 "대를 잇기 위해 아들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찬성하는 비율은 66.0%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3) 여자는 남자보다 사업에 대한 중대한 결정을 잘 내리지 못한다는 생각에 대한 태도

"여자는 사업에 관한 중대한 결정을 남자만큼 잘 내리지 못한다"는 질문에 대한 학생의 가족특성에 따른 차이는 <표 3-53>에서 나타나있다. 부모의 혼인상태, 부모의 취업여부, 조부모 동거여부는 학생들의 상이한 태도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관관계에 있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3-53〉 "여자는 사업에 관한 중대한 결정을 남자만큼 잘 내리지 못한다"에 관한 학생의 태도: 가족적 특성별

(단위: %, 명)

구분	매우 찬성함	대체로 찬성함	별로 찬성안함	전혀 찬성안함	계 (명)	x^2
부모간의 관계						
매우 좋은 편	4.0	18.2	40.5	37.3	100.0 (3,666)	54.1***
좋은 편	2.9	17.8	45.7	33.5	100.0 (3,875)	
보통	3.1	17.1	44.9	34.9	100.0 (1,959)	
나쁜 편	3.6	16.2	43.1	37.1	100.0 (445)	
매우 나쁜 편	2.3	13.6	38.5	45.7	100.0 (221)	
모르겠음	6.4	13.3	44.4	35.9	100.0 (376)	
가구의 경제수준						
매우 잘 사는 편	7.5	27.8	33.0	31.6	100.0 (212)	80.3***
잘 사는 편	4.6	20.4	40.2	34.8	100.0 (1,532)	
보통	3.3	16.7	44.9	35.1	100.0 (7,208)	
못 사는 편	3.0	16.4	41.4	39.3	100.0 (1,655)	
매우 못사는 편	6.3	15.6	39.4	38.8	100.0 (160)	
모르겠음	6.0	21.5	40.4	32.1	100.0 (433)	

주: † p<0.1, * p<0.05, ** p<0.01, *** p<0.001

부모간의 관계에 따른 차이는 앞선 분석들과 같이 부부간의 관계가 좋을수록 양성평등 이슈에 대해서 전통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 경제상태에 따른 차이는 학생들의 가구 경제상태가 좋을수록 (대체로) 찬성하는 비율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로 미루어 볼 때 가구 경제형편이 좋을수록 양성평등에 관해 상대적으로 보수적인 태도를 가지는 것으로 보인다. 결국 가구의 대부분의 소득이 남편의 (임금)소득에 의존한다고 했을 때 가구의 경제상태가 좋다는 것은 남편의 소득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로 인해 전통적인 남녀역할 가치관에 대한 지지도가 상대적으로 높을 수 있다는 점이다.

5. 부모의 가사분담에 관한 청소년의 태도

여기에서는 실제 학생들이 부모간의 역할분담에 대해 어떻게 느끼고 있는가 하는 데에 중점을 두기로 한다. 전체 학생 중 58.4%(매우 공평 17.0% 포함)가 부모간 가사분담이 공평하다고 느끼고 있으며, 나머지 41.7%(매우 불공평 10.7% 포함)은 불공평한 것으로 느끼고 있었다(표 3-54 참조). 즉, 학생의 관점에서 부모간 가사분담은 다소 불평등적인 것으로 비추어지고 있다고 하겠다.

〈표 3-54〉 학생의 개인적 특성과 아버지와 어머니의 가정 일 공평성 정도

(단위: %, 명)

구분	매우 그렇다	대체로 그렇다	별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계 (명)	x^2
전체	17.0	41.4	31.0	10.7	100.0 (10,449)	
지역						
대도시	17.1	42.1	30.5	10.2	100.0 (4,657)	13.8*
중소도시	16.7	41.3	31.6	10.4	100.0 (4,569)	
농촌	17.3	38.6	30.7	13.4	100.0 (1,233)	
성별						
남자	18.5	44.0	28.8	8.7	100.0 (5,432)	94.6***
여자	15.3	38.5	33.4	12.8	100.0 (5,019)	
학교구분						
초등학교	27.0	45.7	20.7	6.6	100.0 (1,794)	411.1***
중학교	16.9	43.9	30.6	8.5	100.0 (4,434)	
고등학교(인문계)	12.8	35.4	37.3	14.5	100.0 (3,397)	
고등학교(실업계)	12.6	42.9	29.4	15.1	100.0 (833)	

거주지별로는 농촌, 중소도시, 대도시 순으로 학생들이 부모의 가사분담이 불공평하다고 인식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이러한 차이는 지역사회의 규모가 작을수록 전통적인 문화와 규범이 상대적으로 강하게 남아 있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부모의 가사분담이 불공평하다는 인식은 남학생(36.5%)에 비해 여학생(46.2%)에게서 상대적으로 강했다. 상급학교·고학년 학생일수록 부모의 가사분담이 불공평하다는 인식이 상대적으로 더 강하게 나타났다. 이 같은 결과는 가사분담에 대한 이해가 단순히 추상적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가족 내의 부모간의 역관계와 외부 세계의 사회문화적 조건에 대한 이해를 요구하는 문제이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학년이 높아진다는 것은 현실에 대한 객관적 이해 능력이 증대한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가족 내에서 벌어지는 부모의 가사분담 공평성에 대해 고 학년일수록 부정적 견해를 갖게 되는 것으로 추정된다.

학생의 가족적 배경별로도 부모의 가사분담의 공평성 정도에 대한 인식차이는 뚜렷하게 나타났다. 부모간의 관계가 좋지 않은 학생일수록 부모의 가사분담이 불공평하다는 인식이 높게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부모간의 관계가 좋을수록 가사분담이 공평하게 이루어질 것이라는 기대와는 다른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많은 추론이 가능하겠지만 한 가지 가능한 추론은 전통적 성별분업에 순응하는 경우 부부관계가 좋은 반면 가사분담은 불균등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인다. 다른 측면으로 보면 공평한 가사분담을 이루기 위해서 부모간의 끊임없는 갈등이 표출될 것이고 이로 인해 공평한 분담이 이루어지겠지만 부부관계의 악화라는 비용을 치러야하는 것으로 보인다. 물론 횡단적 분석이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은 단기적인 것이고 장기적으로는 가사분담의 공평성 정도가 부모간의 관계를 긍정적으로 증진시킬 가능성도 있다. 이러한 과제는 후속연구를 통해 규명될 필요가 있다.

부모의 취업상태에 따른 가사분담의 공평성 정도를 보면 기존 연구들의 결과를 재확인시켜주고 있다(장혜경 외, 2005; 이삼식 외, 2005). 부모의 경제활동 상태별로는 맞벌이부모를 둔 학생의 39.9%가 부모간 가사분담이 불공평하다는 인식을 가졌다. 모만 일하고 있는 경우에도 학생 중 50.5%가 부모간 가사분담

이 불공평하다고 느끼고 있었다. 오히려 부만 일하고 있는 경우 학생의 45.1%가 부모간 가사분담이 불공평하다고 인식하여 상대적으로 가장 낮았다. 프랑스와 영국의 비교연구에서(Gregory and Windebank, 2000)와 같이 한국사회에서도 여성의 점증하는 생계부양 역할이 가족 내 성별분업을 해체시키는 것은 분명하지만 생계부양 역할의 변화가 가족 내 가사분담의 공평성을 증대시키지는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표 3-55〉 학생의 가족적 특성과 아버지와 어머니의 가정 일 공평성 정도

(단위: %, 명)

구분	매우 그렇다	대체로 그렇다	별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계 (명)	x^2
부모간의 관계						
매우 좋은 편	28.7	43.0	23.6	4.8	100.0 (3,671)	1304.5***
좋은 편	11.8	45.8	33.7	8.6	100.0 (3,878)	
보통	8.5	37.0	37.5	16.9	100.0 (1,942)	
나쁜 편	10.9	22.5	36.9	29.7	100.0 (404)	
매우 나쁜 편	7.6	16.9	25.6	50.0	100.0 (172)	
모르겠음	7.7	32.2	41.1	18.9	100.0 (338)	
부모 취업 여부						
모두 일 안함	17.9	42.2	29.4	10.5	100.0 (6,869)	55.5***
부만 일함	14.9	40.1	34.8	10.3	100.0 (3,163)	
모만 일함	15.5	34.0	31.4	19.1	100.0 (194)	
모두 일을 안함	20.4	38.4	27.3	13.9	100.0 (216)	
가구의 경제수준						
매우 잘 사는 편	48.1	25.5	20.3	6.1	100.0 (212)	518.4***
잘 사는 편	23.9	44.6	25.3	6.2	100.0 (1,485)	
보통	15.9	43.3	31.5	9.3	100.0 (6,883)	
못 사는 편	11.5	31.4	36.5	20.6	100.0 (1,382)	
매우 못사는 편	12.2	27.6	28.5	31.7	100.0 (123)	
모르겠음	14.6	42.5	30.1	12.7	100.0 (362)	

주: † p<0.1, * p<0.05, ** p<0.01, *** p<0.001

가구의 경제상태에 따른 차이를 보면 가구의 경제상태가 좋을수록 부모의 가사분담이 보다 더 공평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가구 경제상태가 "매우 잘 사는 편이다"인 경우 가사분담이 공평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59.2%인데 반해 "매우 못사는 편이다"인 경우는 공평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39.8%에 불과했다. 역사적으로 가족 내 성별분업은 산업화 과정에서 중산층의 가족 이

데올로기를 대변하는 것이었다(Elliot, 1992)는 점을 생각한다면 모순되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실제로 빅토리아시대로부터 2차대전 이전까지 가구 내 성별분업은 중산층 가족의 대표적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중산층 이데올로기가 (2차대)전후 가족임금이란 이데올로기와 함께 노동계급의 가족 이데올로기로 확대되는 과정을 거친 것이다. 즉, 성별분업이라는 중상층 가족 이념이 하층 가족으로 확대되는 과정을 거친 것이다. 그러나 2006년 현재 한국사회에서 청소년들의 의식을 통해 본 가족 내 성별분업은 지금까지의 역사적 경험과는 달리 하층에서 상대적으로 강고하게 남아있고 상층으로 갈수록 해체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결국, 성평등 및 그에 따른 성평등적 역할에 대한 학생의 가치관은 실제 학생의 가족 내에서의 부모간 성평등 정도 내지 성평등적 역할과는 결코 무관할 수 없다. 요컨대, 성평등 관련한 학교교육이 중요하나, 그 보다 우선적으로 가정환경이나 가정교육이 더 관건이라고 할 수 있겠다.

6. 청소년의 성역할관·성평등관의 시사점

본 분석은 남녀역할 및 성평등과 관련된 질문을 통해 초등학교 5학년생부터 고등학교 3학년생들의 가치관과 태도에 대한 실태분석을 하여 몇 가지 주목 할 만 한 결과를 도출했다. 먼저 남녀역할과 관련된 결과를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아버지와 어머니의 공평한 가사분담에 대해 초·중·고 학생들은 대체로 긍정적 평가를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부부간의 집안일 분담에 대해서도 절대다수인 78.9%가 부부가 함께 해야 한다는 의견을 보였다. 특히 주목할만 한 결과는 부·모 각각의 취업여부와 관계없이 가사 일을 부부가 함께 나누어야한다는 생각이 절대다수를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셋째, 누가 자녀를 돌봐야하는가에 대한 생각도 가사분담과 같이 부부가 함께 해야 한다는 의견이 절대 다수인 84.9%에 이르렀다. 넷째, 집안의 중요한 일도 부부가 함께 결정해야한다는 의견이 85.0%로 지배적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러한 결과에 근거했을 때 현재 한국의 초·중·고 학생들이 실제 가족생활에서 부모가 대체로

공평하게 가사를 분담하고 있다고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현재 학생들은 집안일, 자녀 돌보는 일, 집안의 중요한 일을 결정하는 문제 등에 있어서 성별에 따라 역할을 구분하는 의식이 미약한 것으로 추정된다.

다음으로 부부역할에 관한 태도를 보면 성별에 따른 부부간의 전통적인 역할구분도 앞선 분석과 같이 미약한 것을 확인해주고 있다. 학생들은 부부간의 가족 내 역할분담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다만 학생들은 생계부양과 일반적인 성별역할 분담에서 보다 자녀를 돌보는데 있어 부부간의 역할분담 해체에 보다 관대한 태도를 보였다. 즉, 일상생활과 관련된 문제와 자녀를 돌보는 문제를 분리해서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마지막으로 양성평등과 관련된 분석결과를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학생들의 개인과 가족특성에 따른 차이가 목격되지만 찬성비율의 다소간의 차이가 있을 뿐 절대다수가 자산의 부부공동명의 소유를 지지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둘째, 학생들의 절반이 넘는 53.3%가 집안의 대를 잇기 위해 아들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보였다. 앞선 질문들에서 남녀간 성별분업의 해체에 대해 긍정적이던 학생들이 집안의 대를 잇는 문제에 대해서는 전통적인 가치관으로 회귀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이 질문에 대해서는 학생들의 성별에 따른 차이가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남학생들은 찬성하는 비율이 높은 반면 여학생들은 찬성하지 않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셋째, 남자가 (사업에 있어서) 중요한 결정을 더 잘 내릴 수 있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절대다수인 78.8%가 동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분석결과에 근거해 남녀역할 및 양성평등과 관련된 정책함의를 논의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상대적으로 남녀역할의식이 미약하고 양성평등의식이 높은 학생들의 의식을 학교졸업 후 사회에 진출했을 때까지 유지·강화시킬 수 있는 정책방안을 모색해야한다. 분석결과들을 보면 대체로 남녀역할과 양성평등에 관한 의식은 초등학교에서 상급학교로 진학할수록 증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두 가지 방향에서 설명이 가능한데 하나는 정규교육과정에서 성 평등 의식을 고양시킴으로써 학생들의 성 평등의식이 높아졌다는 추론과 다른 하나는 정규교육과정과 관계없이 외부환경과 정보를 통해 학생들이 남녀간의 불평등을 목격하고 이에 대해 부당함을 인식하는 과정에서 성 평등의식이

높아졌다는 추론이 가능하다. 이러한 추론에 근거했을 때 누구나 예상할 수 있는 정책대안은 첫째, 기존의 정규교육과정에서 성 평등에 관한 교육을 강화하고, 둘째, 학교교육외의 매체(언론과 방송 등)를 통해 지속으로 성평등 의식에 관한 홍보를 강화하는 것이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가치관과 의식이 상대적으로 어린나이에 형성되고 있다는 측면을 고려한다면 (설문조사의 대상에서 제외된) 초등학교 저학년, 더 나아가 취학 전 아동들에 대한 교육과 홍보의 문제를 적극적으로 고려해보는 것이 중요하다. 성역할해체와 성평등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의 지지를 보이는 학생들이 집안의 대를 잇는 전통적인 이념에 대해서 지지하는 모순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은 학생들의 가족문화가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즉, 현재 기성세대(부모 또는 조부모 세대)의 가치관이 상대적으로 전통적이라면, 이러한 가치관을 가진 기성세대에 의해 양육되는 아동들의 가치관 또한 전통적일 수밖에 없을 것이다. 비록 이러한 가치관이 정규교육과정을 거치면서 완화되고는 있지만 '집안의 대를 잇는' 문제와 같은 가부장제적 가치관이 여전히 잔존해 있을 수 있는 것은 정규학교 교육 전에 아미 아동들의 의식에 전통적 가치관이 자리 잡고 있다는 추론이 가능하다. 또한 이렇게 어린시설에 뿌리내린 가치관은 성인이 된 이후 어떠한 형태로든 (결정적인 순간에) 젠더문제를 불평등하게 인식하고 행동하는 원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결국 정책대안은 취학 전 아동들에 대한 보편적 교육이 중요한데 이를 위한 유력한 정책대안은 취학 전 아동들을 위한 (질 높은) 보육시설을 보편적으로 확대하는 것이다. 2004년 현재 6세 미만의 아동에 대한 보육비율이 28.1%에 그치고 있다는 점(여성가족부 홈페이지)을 고려한다면 한국사회에서 아동의 개별적인 (가부장적인) 가족문화가 아동의 가치관 형성에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가는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더 나아가 질 높은 보육시설의 보편적 확대가 단순히 양성평등과 관련된 의식뿐만 아니라 해당사회 미래 인적자본의 질을 높이는 가장 효과적인 정책 중 하나라는 점(Esping-Andersen, 2005)을 고려한다면 질 높은 보편적 보육시설의 전면적 확대를 적극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둘째는 학생들의 성 평등과 관련된 가치관을 생활 속에서 실제화 시키는 정

책이 필요하다. 앞서 언급했듯이 행위주체의 가치관과 실제 행위는 반드시 일치하지 않기 때문이다. 행위주체의 합리적 행위와 선택이론에 근거한다면 가치관과 실제 행위가 일치하기 위해서는 행위주체의 가치관을 실제화 시키는 것은 행위주체에게 합리적 (유형 또는 무형) 보상이 주어질 때 가능한 것이다. 만약 행위주체가 자신의 가치관에 따라 행위를 했을 때 사회적으로 보상이 주어지기보다 손해를 감수해야한다면 행위주체의 가치관이 실제행동과 일치하기를 기대하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다. 직접적인 실례를 찾기는 어렵지만 가사분담에 관한 조사에 따르면 맞벌이 부부의 경우 가사를 부부가 공평하게 분담해야한다는 의견이 51.2%로 나타났다(통계청, 1998). 그러나 2005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취업기혼여성 중 단지 27.7%가 부부가 함께 하고 있다고 응답했고, 절대 다수인 66.2%는 대체로 또는 전적으로 부인이 담당하고 있다고 응답했다(이삼식 외, 2005). 이처럼 가치관과 실제행위는 다르다. 그러므로 정책과제는 학생들의 가치관이 학교졸업 후 성인으로 생활할 때 실제행위와 일치시키기 위한 제도적 지원책을 마련하는 것으로 집중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2가지 방향에서 모색되어야 하는데 첫째는 여성에게는 전통적 성별역할에서 벗어나 노동시장에 참여하는 것이 여성자신과 가족에게 바람직한 결과를 가져다 주어야한다. 실제로 외국의 예를 보면 1인생계부양자 가구의 빈곤율이 2인생계부양자가구의 빈곤율에 비해 2~6배 가까이 높게 나타나는데 (Esping-Andersen, 2002; Liljestrom, 1978) 이러한 사회적 결과는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의 당위성을 강제하는 중요한 사회적 동인이 될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한국사회에서는 서구의 결과가 동일하게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윤홍식과 조막래(2006)에 따르면 1인생계부양자가구의 빈곤율은 2인생계부양자가구에 비해 1.5배 높은 것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더욱이 빈곤에 처할 가능성은 (반대로) 2인생계부양자가구가 1인생계부양자가구보다 높게 나타났다는 점이다. 정리하면 성별역할의 해체를 위해 여성이 노동시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정책지원을 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이는 단순히 참여의 문제이기보다는 고용의 질이 보장되는 참여가 전제되어야한다는 점이다. 즉, 학생들의 바람직한

가치관이 현실세계에서 실제화 되기 위해서는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을 통한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둘째는 대다수 남학생들이 자녀 돌봄과 집안일을 부부가 바람직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실제 한국의 현실은 (앞서 언급했듯이) 이와는 정반대의 현상들이 목격되고 있다. 예를 들어, 육아휴직자 중 남성의 비용비율은 지난 4년 동안 2.0%를 넘지 못했다(윤홍식, 2006). 이는 한국사회가 육아로 대표되는 가족 내 무급노동에 남성이 참여할 수 있는 사회·심리적 조건을 창출하지 못했고, 제도적 지원도 전무하다는 현실을 반영하는 것이다. 이러한 가치관과 실제 행위와의 불일치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남성의 양육참여를 제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적극적으로 마련되어야할 것이다. 현재 논의 중인 육아휴직제도 내 아버지할당제나 아버지출산휴가제 등은 이러한 문제를 완화하기 위한 상징적 정책대안이 될 것이다. 더 나아가 프랑스 등에서 시도했던 노동시간의 감축(Fagnani and Letablier, 2004) 등도 득과 실을 따져가며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정리하면 학생들의 가치관에 대한 조사는 단순히 미래 한국사회를 이끌어갈 학생들의 의식을 조사하는 문제가 아니다. 중요한 것은 이들이 가치관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확대하는 것과 동시에 이들이 가지고 있는 긍정적 생각이 실제 사회에서 장애 없이 실현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정책대안의 근거가 되어야한다. 결국 한국사회의 유력한 대안은 남성의 노동력을 가족화 하기 위한 정책과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를 지원하는 정책을 통해 양자에게 자녀양육·가사분담과 노동시장 참여의 장애를 해소·완화하는 것으로 집중 될 수 있을 것이다.

제 5절 성교육에 관한 청소년의 태도

1. 문제제기

우리 사회에서 청소년의 성문제에 관한 논의는 끊임없이 생성되고 있으나,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되지 못했다. 그 결과, 에이즈를 비롯한 질병, 매춘, 미혼

모, 낙태, 성폭력 등 사회적인 성의 문제들이 여전히 매스컴을 통해 이슈화되고 있다. 특히, 청소년을 포함한 미혼여성의 인공임신중절 건수는 상당수에 이르고 있다. 그 근본적인 원인으로는 학교교육의 미흡에서 기인되는 것으로 많은 연구들에서 지적되고 있다.

인터넷을 비롯한 성인잡지, TV, VTR 등 대중매체가 급속하게 발달되면서, 이들은 무분별하게 그리고 사회적으로 여과되지 않은 채 청소년 문화에 침투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청소년은 자극적이고 흥미위주의 성적 정보 속에 무방비 노출되어 올바른 성지식이나 성태도가 형성하기도 전에 성에 대한 호기심만 높아져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기도 한다(오덕자, 2003). 이와 같은 실정에도 불구하고, 학교교육은 몇 십 년 전이나 지금이나 큰 변화가 없는 채 공전되고 있는 실상이다. 특히, 어른들의 무분별하고 이중적인 성 의식 등 뿐 아니라, 성을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것으로 여기는 교육풍토로 인한 성교육이나 인성교육의 비체계성과 가정이나 지역사회의 열악한 잠재적 교육환경 및 공교육으로서의 학교교육 기능이 무력화되어 왔다(오덕자, 2003).

결과적으로 청소년들은 각종 성범죄의 피해에 가장 많이 노출되어 있으며 또한 가해자로서 성 일탈의 행위자가 되기도 하여서 학교에서의 성교육이 얼마나 필요한가를 말해주고 있다(이경희, 2000). 청소년의 성문제는 저출산현상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서 논의되기도 한다. 청소년기에 성문제를 경험한 여성은 생식기 질환을 겪을 가능성이 크며, 이는 후에 후천성불임증의 원인이 되어 출산율 저하를 유도하기도 한다는 것이다.

이미 많은 연구들은 성 지식과 성태도, 성행동 및 성가치관의 상관관계에 대한 조사에서 남녀 학생 모두 유의한 정(+)의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청소년들의 성지식은 성태도, 성행동, 성가치관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장에서는 청소년의 이성교제 실태와 학교 성교육의 실태를 규명하고자 한다. 특히, 학교 성교육의 효과성을 진단하기 위해, 청소년들이 받았던 성교육의 도움 정도와 성관련 지식수준을 측정하도록 한다. 성에 관한 청소년의 가치관을 파악하기 위하여 남녀의 혼전순결을 비롯한 미혼모, 혼전 성관계 등에 관한 태도도 분석한다.

2. 성관련 청소년의 가치관

가. 혼전순결에 관한 태도

남성의 혼전순결에 대해 반드시 지켜야 한다 26.5%, 가급적 지켜야 한다 41.1%로 총 67.6%가 남성의 혼전순결을 중요시하고 있다(표 3-56 참조). 반면, 지키지 않을 수 있다 16.6%, 지킬 필요가 없다 4.3%로 20.9%는 남성의 혼전순결을 중요시 여기지 않았다.

〈표 3-56〉 남성의 혼전 순결에 대한 학생의 태도

(단위: %, 명)

구분	반드시 지켜야 함	가급적 지켜야 함	지키지 않을 수도 있음	지킬 필요가 없음	모르겠음	계 (명)	x^2
전체	26.5	41.1	16.6	4.3	11.5	100.0 (11,231)	
지역							
대도시	25.8	41.3	17.5	4.7	10.7	100.0 (4,929)	46.0***
중소도시	26.1	40.5	17.0	4.1	12.2	100.0 (4,945)	
농촌	30.6	42.5	11.4	3.5	12.0	100.0 (1,357)	
성별							
남자	19.4	39.8	19.4	7.1	14.3	100.0 (5,846)	605.3***
여자	34.4	42.4	13.5	1.3	8.4	100.0 (5,374)	
학교급구분							
초등학교	36.9	30.1	6.4	1.1	25.4	100.0 (1,892)	1159.3***
중학교	28.5	43.6	12.3	3.8	11.8	100.0 (4,748)	
고등학교(인문계)	20.8	43.3	25.4	6.0	4.5	100.0 (3,630)	
고등학교(실업계)	18.1	42.2	24.4	6.4	8.8	100.0 (962)	

주: † p<0.1, * p<0.05, ** p<0.01, *** p<0.001

지역별로 남성의 혼전순결 유지를 주장하는 학생의 태도는 농촌, 중소도시, 대도시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남성의 혼전순결에 대해 남학생의 59.2%가 지켜야한다는 태도를 보인 반면, 여학생의 경우에는 76.8%로 더 강조하고 있었다. 남성의 혼전순결이 지켜져야 한다는 태도는 대체적으로 상급학교·고학년일수록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여성의 혼전순결을 지켜야 한다는 태도는 73.8%(반드시 지켜야 34.2%, 가급

적 지켜야 39.6%)로 남성의 혼전순결 유지 67.6%에 비해 높았다(표 3-57 참조). 반면, 여성의 혼전순결을 지키지 않을 수 있다 12.8%, 지킬 필요가 없다 2.3%로 15.1%는 여성의 혼전순결을 중요시 여기지 않았다. 지역별로 여성의 혼전순결 유지를 주장하는 학생의 태도는 남성의 경우와 마찬가지이다.

〈표 3-57〉 여성의 혼전 순결에 관한 학생의 태도

(단위: %, 명)

구분	반드시 지켜야 함	가급적 지켜야 함	지키지 않을 수도 있음	지킬 필요가 없음	모르겠음	계 (명)	x^2
전체	34.2	39.6	12.8	2.3	11.2	100.0 (11,217)	
지역							
대도시	33.4	39.7	13.9	2.5	10.6	100.0 (4,925)	37.2***
중소도시	34.3	38.7	13.0	2.2	11.8	100.0 (4,939)	
농촌	36.4	42.4	8.4	2.0	10.8	100.0 (1,353)	
성별							
남자	29.5	39.2	13.5	3.2	14.5	100.0 (5,836)	258.2***
여자	39.3	39.9	12.1	1.3	7.4	100.0 (5,370)	
학교급구분							
초등학교	36.8	28.9	7.0	1.2	26.1	100.0 (1,882)	882.6***
중학교	36.1	40.3	9.7	2.3	11.6	100.0 (4,747)	
인문고	31.7	43.0	18.9	2.7	3.7	100.0 (3,626)	
실업고	28.8	44.3	16.6	2.7	7.6	100.0 (959)	

주: † p<0.1, * p<0.05, ** p<0.01, *** p<0.001

나. 혼전임신에 관한 태도

혼전임신에 대한 초·중·고 학생의 태도는 낳아야 한다 28.2%, 기를 수 있는 경우에만 낳아야 한다 49.4%, 낳아서는 안 된다 7.5%, 판단 유보 14.9% 등으로 나타났다(표 3-58 참조). 대체적으로 혼전임신의 해결방안으로 낳아야 한다는 태도가 낳지 말아야 한다는 태도에 비해 우세하였다. 기를 수 있는 경우에만 낳아야 한다는 상황론적 입장이 상대적으로 가장 높아, 합리성을 추구하는 경향이 강하다고 하겠다. 농촌, 중소도시, 대도시 순으로, 여학생과 상급학교·고학년에서 상대적으로 높았다. 성장과정에서 보다 신중한 태도를 보이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표 3-58〉 혼전임신에 관한 학생의 태도

(단위: %, 명)

구분	낳아야 함	기를 수 있는 경우에만 낳음	낳아서는 안됨	모르겠음	계 (명)	x^2
전체	28.2	49.4	7.5	14.9	100.0 (11,232)	
지역						
대도시	27.7	50.6	7.8	13.9	100.0 (4,930)	16.8*
중소도시	28.2	48.9	7.5	15.4	100.0 (4,946)	
농촌	30.5	46.8	6.2	16.5	100.0 (1,356)	
성별						
남자	28.6	45.4	8.6	17.4	100.0 (5,845)	111.8***
여자	27.8	53.8	6.2	12.2	100.0 (5,378)	
학교급구분						
초등학교	25.3	38.2	11.6	24.9	100.0 (1,898)	473.1***
중학교	29.9	45.4	8.1	16.6	100.0 (4,746)	
인문고	27.6	58.8	4.9	8.7	100.0 (3,627)	
실업고	28.2	55.8	5.5	10.5	100.0 (961)	

주: † p<0.1, * p<0.05, ** p<0.01, *** p<0.001

3. 성교육 및 성상담 실태

가. 학교 성교육 실태

1) 학교에서의 성교육 경험

초(5~6학년)·중·고 학생 중 성교육을 전혀 받은 적이 없는 비율은 1.7%에 불과하였다(표 3-59 참조). 성교육 내용별로 교육을 받았던 학생의 비율을 보면, 생식기구조·이차성징관련 교육의 경우 87.4%, 임신·출산관련 교육 74.5%, 이성교제·성관계·혼전순결 68.2%, 피임방법 56.6%, 성병·에이즈 52.5%, 미혼모·인공유산 25.4% 순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피임방법과 성문제로서 성병·에이즈와 미혼모·인공유산에 대한 교육정도가 상대적으로 낮았다. 이들 성문제가 청소년 사이에 점점 더 심해져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최근의 상황을 감안할 때, 관련 교육의 체계적인 접근이 미흡하다고 판단할 수 있겠다.

〈표 3-59〉 학생이 경험한 성교육 내용(복수응답)

(단위: %, 명)

구분	생식기 구조·이차성징	이성교제 성관계·혼전순결	피임방법	임신·출산	미혼모·인공유산	성병·에이즈	기타	무경험	(계)
전체	87.4	68.2	56.6	74.5	25.4	52.5	8.8	1.7	(11,245)
지역									
대도시	88.6	67.3	55.9	75.5	28.4	53.0	8.0	1.9	(4,936)
중소도시	86.7	69.2	57.1	73.3	22.9	50.5	9.4	1.4	(4,949)
농촌	85.8	67.9	57.3	75.0	24.0	58.5	8.9	1.5	(1,360)
성별									
남자	84.1	65.9	56.7	71.8	24.2	55.2	11.4	2.0	(5,854)
여자	91.1	70.9	56.6	77.5	26.8	49.7	5.9	1.3	(5,380)
학교급구분									
초등학교	72.0	31.1	4.1	48.7	3.1	13.8	18.3	6.5	(1,900)
중학교	90.2	74.5	55.1	72.2	22.6	51.8	7.7	0.8	(4,753)
인문고	93.4	78.7	84.3	90.4	40.9	70.5	5.8	0.4	(3,632)
실업고	81.8	71.2	63.5	76.3	25.5	64.9	6.0	1.5	(959)

주: † p<0.1, * p<0.05, ** p<0.01, *** p<0.001

이와 같은 패턴은 지역간에 큰 차이가 없다. 남녀학생별도 성교육 경험이 전체 패턴과 유사하게 나타났다. 이는 현재 학교 성교육의 체계가 지역간 차이가 없음을 의미하기도 한다. 다만, 생식기구조·이차성징, 임신·출산, 이성교제·성관계·혼전순결의 경우 남학생에 비해 여학생의 교육경험 정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 성병·에이즈의 경우에는 그 반대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양상은 생식기구조·이차성징, 임신·출산, 이성교제·성관계·혼전순결 등의 내용이 여성에게 보다 필요하여 관심이 집중되거나 학교교과목 편성체계에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

학교급별로는 상급학교일수록 내용별 성교육 경험비율은 높아지고 있다. 특히, 초등학생과 중학생간에 성교육 경험비율이 큰 폭으로 상승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학교 성교육이 중학교에 들어가서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그 폭이 특히 큰 성교육 내용으로는 피임방법, 성병·에이즈, 이성교제·성관계·혼전순결 등으로 나타났다. 미혼모·인공유산에 대한 교육 경험 정도는 모든 학교급에서 상대적으로 낮아, 학교급별 차이도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2) 학교 성교육의 도움 정도

학교 성교육을 경험한 학생들 중 성교육이 도움이 되었다는 비율은 37.9%인 반면,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비율은 23.6%로 나타났다. 성교육을 받았던 학생들 중 약 1/4이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점은 학교에서의 성교육의 질적 수준에 다소 문제가 있다는 것을 시사해준다고 하겠다. 성교육이 도움 되지 않았다는 비율은 남학생의 경우 25.6%로 여학생의 21.6%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았다. 상급학교·고학년일수록 성교육이 도움 되지 않았다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성교육 내용이 고학년층의 성장 정도에 비해 미흡하다는 점을 예측할 수 있다.

〈표 3-60〉 학생의 성교육 도움 정도

(단위: %, 명)

구분	매우 도움이 되었음	약간 도움이 되었음	보통임	별로 도움되지 않았음	전혀 도움되지 않았음	계 (명)	x^2
전체	9.8	28.1	38.4	15.1	8.5	100.0 (10,985)	
성별							
남자	9.8	28.5	36.1	14.9	10.7	100.0 (5,690)	83.5***
여자	9.9	27.7	40.9	15.4	6.2	100.0 (5,296)	
학년구분							
초 5학년	13.4	27.2	41.6	10.2	7.6	100.0 (891)	240.8***
초 6학년	11.9	25.6	42.0	12.5	8.1	100.0 (867)	
중 1학년	11.7	27.4	44.6	10.5	5.8	100.0 (1,542)	
중 2학년	9.1	26.6	41.4	13.9	9.0	100.0 (1,577)	
중 3학년	8.2	25.5	40.1	16.4	9.9	100.0 (1,573)	
고 1학년	9.4	32.7	35.4	14.5	7.9	100.0 (1,547)	
고 2학년	9.6	30.0	33.6	18.4	8.3	100.0 (1,582)	
고 3학년	7.7	28.5	30.9	21.9	11.0	100.0 (1,419)	

주: † p<0.1, * p<0.05, ** p<0.01, *** p<0.001

나. 학교교육 이외 성관련 정보 경로

학생들이 접근하는 학교 이외 성정보 매체로는 인터넷 21.2%, 친구·선후배 20.1%, 부모·친인척 10.8%, TV 9.2%, 잡지·만화 1.8%, 순으로 나타났다(표 3-61 참조). 대중매체(인터넷, TV, 잡지·만화, 민간단체, 비디오)는 35%로 인적 정보원(친구·선후배, 부모, 형제자매) 32%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한편, 학교교육 이외 다른 매체를 접한 경험이 있는 비율은 26.5%로 나타났다.

〈표 3-61〉 학생의 성교육 이외 성에 대한 정보

(단위: %, 명)

구분	부모 친인척	형제 자매	친구 선후배	비디오 (CD, DVD)	인터넷 (동영상)	TV	잡지, 만화	사회 종교 단체	기타	없다	계 (명)
전체	10.8	1.1	20.1	1.6	21.2	9.2	1.8	1.6	6.1	26.5	100.0 (11,223)
지역(x^2=37.5**)											
대도시	11.1	0.9	20.4	1.5	22.1	9.3	1.8	1.3	5.9	25.7	100.0 (4,933)
중소도시	10.3	1.4	20.4	1.9	20.8	9.0	1.8	1.6	6.1	26.8	100.0 (4,942)
농촌	11.6	1.2	18.0	1.1	19.2	9.6	1.3	2.4	7.1	28.5	100.0 (1,358)
성별(x^2=1218.5***)											
남자	5.5	0.8	16.5	1.9	32.3	7.7	1.0	1.5	7.1	25.7	100.0 (5,849)
여자	16.6	1.5	24.1	1.3	9.1	10.9	2.5	1.6	5.1	27.3	100.0 (5,375)
학년구분(x^2=2228.3***)											
초 5	27.2	1.0	3.3	1.5	1.9	6.1	3.7	1.6	9.5	44.2	100.0 (1,018)
초 6	21.6	1.0	6.4	0.6	3.7	6.2	1.5	0.7	8.7	49.6	100.0 (881)
중 1	14.4	1.6	15.1	1.2	13.5	6.5	1.7	1.8	7.6	36.5	100.0 (1,553)
중 2	9.8	1.1	19.1	1.7	19.4	9.0	1.4	2.1	6.4	30.0	100.0 (1,606)
중 3	6.5	1.1	24.1	1.4	25.2	9.9	1.4	1.3	6.3	22.8	100.0 (1,588)
고 1	6.3	1.0	27.0	1.7	28.2	11.7	1.5	1.3	4.5	16.6	100.0 (1,562)
고 2	5.4	1.3	26.1	2.0	33.0	10.5	1.5	1.8	3.9	14.5	100.0 (1,595)
고 3	5.3	1.0	28.3	2.2	30.8	11.7	1.9	1.4	4.1	13.3	100.0 (1,430)

주: † p<0.1, * p<0.05, ** p<0.01, *** p<0.001

지역별로 학생의 성관련 정보매체는 전체 패턴과 유사하게 나타났다. 차이점은 농촌학생의 경우 부모·친인척, TV, 사회(종교)단체 등 접근매체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대도시 학생의 성정보 접근매체로는 인터넷, 친구·선후배, 잡지·만화 등의 비율이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남녀 학생별로 큰 차이가 있다. 여학생의 경우 친구·선후배 24.1%, 부모·친인척 16.6%, TV 10.9%, 인터넷 9.1% 순이나, 남학생의 경우에는 인터넷 32.3%, 친구·선후배 16.5%, TV 7.7%, 부모·친인척 5.5% 순으로 나타났다. 여학생은 인적 정보매체에 상대적으로 더 접근하는데 반해, 남학생은 물적 매체에 상대적으로 더 접근하는 경향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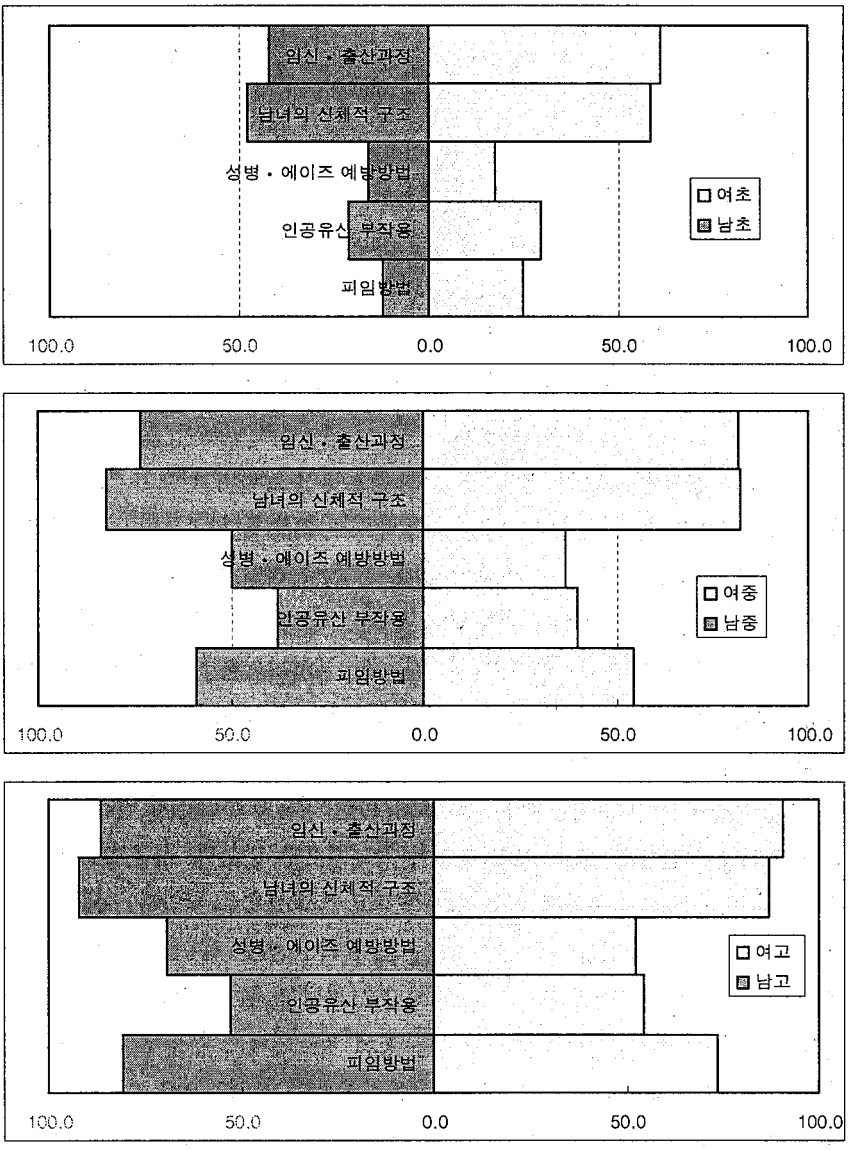
상급학교·고학년 학생일수록 접근하는 성관련 정보매체로 부모·친인척의 비율이 낮게 나타나는 반면, 친구·선후배, 인터넷, TV 등의 비율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나머지 정보매체의 접근도는 큰 차이가 없었다. 다만, 만화·잡지의 접근도가 초등학생 5학년의 경우 3.7%로 다른 학교급·학년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을 뿐이다. 이는 성장하면서 친구·선후배와의 활동이 증가하고, 인터넷과 TV에 대한 접근도가 상대적으로 높아지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학교교육 이와 다른 정보매체에 전혀 접근한 경험이 없는 비율도 상급학교·고학년일수록 낮게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무경험 비율은 초등학생(5-6학년) 46.7%, 중학생 29.7%, 인문계고등학생 15.1%, 실업계고등학생 13.9%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4. 청소년의 성관련 지식수준

일부 성교육 내용에 대한 초(5-6학년)·중·고 학생의 인지정도를 종합적으로 비교하여 보면(그림 3-10 참조), 남녀신체구조 80.6%, 임신·출산과정 77.7%, 피임방법 58.7%, 성병·에이즈 예방방법 46.3%, 인공유산의 부작용 42.6%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성문제와 관련된 내용(성병·에이즈 예방방법, 인공유산 부작용)에 관한 학생의 인지도는 50% 이하의 미흡한 수준으로 판명되었다. 남녀신체구조와 임신·출산과정 등 아주 기초적인 내용에 관한 학생의 인지도도 80% 수준에 불과하며, 가장 높은 학년층인 고등학교 3학년의 경우에도 90% 수준에 불과하였다. 피임방법에 대한 초(5~6학년)·중·고 학생의 지식수준은 60% 미만이며, 고등학교 3학년의 경우에도 80% 수준에도 미치지 못했다. 특히, 성관련 지식수준은 대체적으로 남학생보다 여학생에게서 상대적으로 낮았다.

[그림 3-10] 학교급별 성관련 지식수준의 남녀 차이



5. 청소년 성교육 실태의 시사점

초(5~6학년)·중·고 학생의 성교육 관련 실태조사 결과에 대한 시사점은 다음과 같이 제시할 수 있다.

첫째, 초·중·고 학생들 중 47.1%가 이성교제를 경험하였다. 물론 상급학교·고학년일수록 그 정도는 높아진다. 학생들의 이성교제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성교육이 내실 있게 실시되어, 올바른 성 가치관이 확립될 필요가 있다.

둘째, 청소년기에 이미 순결에 대한 성별에 따라 따른 이중적 가치관이 나타나고 있다. 남학생은 여학생에 비해 혼전순결이나 혼외정사에 더 관대하고, 남성 자신은 혼전 성관계가 괜찮지만 배우자는 절대 안 된다는 이중적 성관념 내지 전통적인 성고정 관념이 나타난다.

셋째, 혼전임신에 대하여 기를 수 있는 경우에만 낳아야 한다는 상황론적 입장이 상대적으로 가장 높으며, 이는 대체적으로 여성에 한정된다. 상급학교·고학년일수록 신중한 태도가 높아지고 있다. 결국, 혼전임신에 대한 청소년의 신중성은 인공유산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합리적인 신중론은 우리 사회에서 결코 배제할 수 없는 가치이다. 즉, 본질적으로 청소년의 책임 있는 이성교제와 성관련 가치관을 함양시키는 교육이 중요하며, 혼전임신의 경우 사후적인 국가프로그램의 마련도 중요하다.

넷째, 초(5~6학년)·중·고 학생은 전체적으로 기초적인 성교육이라고 할 수 있는 피임방법에 대한 교육 경험 정도가 상대적으로 낮았다. 성문제로서 성병·에이즈와 미혼모·인공유산에 대한 교육정도도 상대적으로 낮았다. 이들 성문제가 청소년 사이에 점점 더 심해져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최근의 상황을 감안할 때, 관련 교육의 체계적인 접근이 미흡하다고 판단할 수 있겠다. 게다가 성관련 지식과 정보가 인터넷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청소년에게 무분별하게 제공되고 있는 실정이다. 학교에서의 성교육은 초등학생부터 본격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특히, 학교에서의 성교육이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기보다 학생들이 실생활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그 질적 수준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성병·에이즈 예방방법, 인공유산 부작용에 관한 학생의 인지도는

50% 에도 미치지 못하는 미흡한 수준으로 판명되었다. 우리 사회에서 심각해지고 있는 성문제와 관련하여, 학교교육의 미흡은 동 문제의 사전예방과 사후치료의 효율성을 기할 수 없다고 하겠다. 만혼현상, 스트레스 증가 등에 기인한 후천성불임 증가, 인공유산 증가 등의 생식보건의 문제가 날로 심각해져 저출산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 이러한 현실을 감안하면, 성관련 올바르고 정확한 지식을 제고시키기 위한 학교 성교육위 현실화가 더욱 시급하다고 하겠다.

여섯째, 교사나 상담전문가를 통한 상담 비율은 아주 낮다. 성장과정에서 성문제는 더욱 심화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학생들의 성문제는 점차 전문적인 상담치료를 요하는 경향이 증대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생의 성상담 대상은 여전히 비공식체계에 의존하고 있다. 물론 비공식체계의 역할도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학생들이 보다 전문적인 성상담서비스를 원할 경우에 대응하여, 국가·사회적으로 그 접근성을 강화하는 노력이 긴요하다.

일곱째, 초등학생과 중학교 저학년은 기술·가정(실과)과 특별활동·재량활동이 출산관련 내용을 배울 수 있는 중요한 과목으로 역할을 하고 있으며, 중학교 고학년부터 고등학생의 과정에서는 이들 과목 이외에 과학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출산(또는 보다 포괄적으로 인구)관련 교과목체계의 집중형 또는 분산형의 선택은 교육의 효과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출산관련 학교교육의 내실화와 함께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는 교육방법, 교육자재 등 개발과 교사의 관련 내용에 대한 이해도 증진 등이 절실히 요구된다. 상급학교·고학년 학생일수록 출산관련 교육의 효과성이 부정적이므로, 성장과정에 따른 흥미 유발이 가능한 교과목체계 구축 및 시청각자료 등 학습도구의 다양화가 긴요하다.

제 6 절 청소년 가치관 실태의 소결 및 정책적 건의

최근 우리나라는 만혼화가 보편화되고 비혼 경향마저 나타나고 있다. 게다가 결혼 여부를 불문하고 소자녀관 혹은 무자녀관이 보편적인 가치로 등장하고 있

다. 여성의 교육 수준이 높아지고 경제활동참여가 높아지고 있는데 반해, 가족문화와 노동시장의 사회 전반에 걸쳐 성차별의 의식과 관행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 또한, 만혼화 경향과 더불어 후천성불임증, 유·사산 등이 증가하여 여성의 생식보건을 저해하고 있다.

결혼을 비롯한 가족제도 및 가족가치는 어느 시대, 어느 사회를 막론하고 언제나 옳고 그름의 형태로 존재하지 않는다. 사회가 늘 변동하듯이 그 사회 속에서 작동하는 제도와 가치도 변동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결혼관과 자녀관 그리고 성역할관은 개인적인 신념이나 가치에 의한 것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에 편재해 있는 다양한 가치규범이 반영된 결과로 볼 수 있다. 가치의 변화가 행위의 변화의 원인인지, 아니면 행위의 변화가 가치의 변화의 원인인지는 아직 확실하지 않다. 가치 변화가 행위의 변화의 원인으로 보는가 하면, 행위의 변화가 이미 일어난 후에 사회 전반적으로 가치의 변화가 뒤를 잇는다는 해석도 존재한다. 궁극적으로 가치관과 사회 여건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저출산현상의 원인이 되고 있다는 점이 제기되고 있다. 과도 연계되고 있다.

가치관이 사회경제 환경에 의해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아 변화하기는 하나 일부는 가족생활과 학교 및 사회생활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는 측면도 있다. 건전하고 건강한 가치관이 개인뿐만 아니라 사회나 국가의 발전에 있어서 초석이 된다는 점을 인식한다면, 가치관 형성기에 있는 청소년의 가치와 태도를 규명하고, 교육이 이들의 가치관 형성에 미치는 영향을 진단하는 일은 저출산 대응과 관련하여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하겠다. 이는 정부가 최근 발표한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2006~2010)」에서 가치관을 가장 중요시 여기는 이유이기도 하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는 미래세대인 청소년에게 전달되어야 할 가족 및 자녀 관련 가치관들을 어떻게 정립하여야 할 것인가의 문제의식을 가지고 출발하였다. 사회가 급변하고 있는 현실에서 보다 근본적이고 고정불변할 것만 같았던 결혼 및 출산관련 가치관도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으며, 이들 가치관의 변화에 대한 시각도 다양한 것이 사실이다. 현재 교육계와 여성계 등에서의 청소년의 가치관과 관련하여 활발한 논의가 있어 왔다. 그러나 청소년의 가치관에 대한 정책적 접근은 공급자적인 입장보다 수요자 입장에서 시작되어야 할 것이

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청소년의 가치관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일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전국 청소년 결혼·자녀·성평등 가치관 조사」를 실시하였다. 본 보고서에서는 심층 분석 결과를 제시하고, 그 시사점을 토대로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조사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공동으로 교육인적자원부 및 시·도 교육청, 시·군·구 교육청의 협조를 받아 2006년 9월 21일부터 10월 21일까지 약 1개월간에 걸쳐 실시되었다. 조사원이 직접 표본학교를 방문하여 조사대상 학생 및 교사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 대상으로 미래의 가임세대인 초등학교(5~6학년), 중학교(1~3학년), 고등학교(1~3학년) 학생들(약 13,000명)을 전국 132개 학교에서 확률계통추출법으로 표출하였다. 조사방법으로는 조사원 또는 교사에 의한 조사표 배포-회수 방법을 적용하였다. 학생조사의 부가조사 형태로 교사 조사(초등학교 담임 2명, 중·고등학교 1~3학년 담임 3명, 도덕교사 1명, 기술·가정교사 1명)를 약 1,000명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이하에서는 조사된 결과를 분석하여 시사점을 도출하고 정책적인 건의를 제시하였다. 그리고 향후 연구에 대한 제언을 제시하였다.

1. 주요 분석결과 요약

첫째, 학생의 가족관에 관한 분석 결과이다. 다양한 가족형태와 관련하여 입양, 국제결혼 및 재혼에 대한 학생의 수용도는 높은 편이나 여전히 완전한 수용 자세는 보이지 않는다. 다양한 가족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는 청소년의 성장과정에서 점차 약해지고 있으나, 일부 가족형태에 대해서는 여전히 수용도가 낮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족에 대한 학교교육의 내용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난다. 학생들 중 거의 반절이 가족에 관한 학교교육에 대해 비현실적이거나 식상하다는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으며, 이러한 태도는 상급학교 학생일수록 높게 나타난다. 가족 관련 학교교육 내용이 성장발달에 부적합하거나 불충분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둘째, 학생의 결혼관에 관한 분석 결과이다. 결혼의 필요성에 대한 학생의 긍정적인 태도는 반절 이상이나, 반드시 해야 한다는 태도는 1/5도 채 안된다.

여학생의 반절은 결혼할 필요가 없다는 태도이다. 학생이 생각하는 이상적인 결혼연령은 저학년에서 상대적으로 낮으나, 성장하면서 높아지는 경향을 보인다. 그 결과 고등학생이 생각하는 이상적 결혼 시기는 실제 평균 초혼연령에 근접하고 있다. 남학생이 남녀의 이상적인 결혼연령을 낮추어 보는 경향이 있는 반면, 여학생의 경우에는 그 반대이다. 기대 결혼시기에 있어서 남녀간의 불일치 문제는 비자발적 비혼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해준다. 결혼에 대한 다양한 가치관에 대해 학생의 60~70%만이 긍정적이다. 그러한 가치관으로 결혼 시 개인보다 가족관계 중시, 마땅한 배우자 선택의 중요성, 안정된 직장의 중요성, 충분한 수입의 중요성, 자아실현을 위한 비혼 선택 가능, 독신생활을 즐기기 위한 비혼 선택 가능, 결혼제도로 인한 비혼 선택 가능 등이 포함된다. 결혼연령규범 준수, 교제이성과의 결혼, 부부간 갈등 시 이혼, 유자녀 시 이혼 등에 대한 학생의 태도는 부정적이다. 전통적이고 보수적인 특성이 내재된 결혼관련 가치관에 대해서는 남학생이 상대적으로 더 긍정적인 반면, 현대생활 여건에 따라 만혼, 비혼, 이혼 등을 선택할 수 있다는 태도는 여학생에게서 상대적으로 높다. 남학생은 배우자 선택의 조건으로서 외모 등 신체적 조건, 건강 등을 상대적으로 더 중요시 여기며, 여학생은 경제력, 직업·지위, 믿음·사랑, 성격 등 상대적으로 더 중요시 여기는 경향이 있다. 여학생의 이러한 생각은 성인이 되면 더욱 굳어질지 모른다. 상급학교 및 고학년일수록 학생의 배우자 선택의 조건으로서 믿음·사랑, 성격, 경제력(소득·재산), 직업 등을 중요시 여기는 경향이 높아지나, 건강, 외모·신체조건, 종교 등을 중요시 여기는 경향은 감소하고 있다.

셋째, 학생의 자녀관에 대한 분석 결과이다. 자녀 필요성에 대해 학생 중 3/4가 긍정적이나, 부정적인 태도도 20%에 육박한다. 학생들의 자녀필요성에 대한 긍정적 가치관은 성장과정에서 부정적 방향으로 전환하고 있다. 이는 다른 조사의 결과로서 성인미혼과 기혼여성과 비교해보아도 명백하다. 결국, 학생들이 성장 및 사회화 과정에서 여러 여건들을 직면하게 되면서 자녀필요성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가 감소하고 있는 것이다. 학생의 자녀가치관은 인생의 가치, 자녀교육 완수의무감, 노후 정서적 의존, 부부관계 공고, 노후 경제적 의존, 자녀양육보다 부모생활 중요 등의 순으로 긍정적인 경향이 우세하다. 반면, 사회에

대한 의무감, 부부의 사회적 인정수단, 자녀를 통한 부모의 꿈 실현, 가문계승 등 자녀가치관들에 대한 학생의 태도는 그 순으로 부정적인 경향이 우세하였다. 생애경로 이행단계별로는 자녀에 대한 정서적 가치는 생애경로 이행과정에서 점차 강조되고 있는 반면, 도구적(수단적) 가치는 점차 약화되어 가고 있다. 학생들은 대체적으로 자녀를 가질 의향이 있으나, 무자녀 선호도는 무시하지 못할 수준이며, 판단유보까지 감안하면 자녀 출산에 대한 회의적 반응이 상당한 수준이다. 특히, 저학년일수록 소자녀관이 더 뚜렷하다. 자녀관에 대한 태도에서와 마찬가지로, 학생본인의 자녀출산이유도 수단적인 것보다 정서적인 것이 강하다. 학생들이 향후 자녀출산을 희망하지 않은 이유로는 '내 일에 전념'과 '부부만의 시간·행복 감소' 등 개인주의적 이유가 자녀 양육비용 부담, 자녀의 힘든 공부 우려, 자녀의 왕따·체벌 우려, 부모 부양문제 등 가족주의적 이유보다 높다. 남자도 육아관련 교육을 받아야 한다는 학생의 태도는 80% 이상으로 높으나, 학교에서 육아방법을 배웠던 청소년은 40%도 채 안된다. 학생의 교육욕구와 교육당국의 공급간 불일치 문제가 심각함을 짐작할 수 있다.

넷째, 학생의 남녀역할 및 양성평등 가치관에 관한 분석 결과이다. 현재 한국의 초·중·고 학생들이 실제 가족생활에서 부모가 대체로 공평하게 가사를 분담하고 있다고 느끼고 있다. 또한 현재 학생들은 집안일, 자녀 돌보는 일, 집안의 중요한 일을 결정하는 문제 등에 있어서 성별에 따라 역할을 구분하는 의식이 미약한 것으로 추정된다. 부부역할에 관한 태도를 보면, 학생들은 부부간의 가족 내 역할분담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다만 학생들은 생계부양과 일반적인 성별역할 분담에서 보다 자녀를 돌보는데 있어 부부간의 역할분담 해체에 보다 관대한 태도를 보인다. 즉, 일상생활과 관련된 문제와 자녀를 돌보는 문제를 분리해서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학생의 양성평등 의식수준은 비교적 높은 편으로 볼 수 있다. 가족영역에 비해 직업영역에서의 성평등 의식수준이 상대적으로 낮다. 남학생과 여학생 모두 가족영역에 비해 직업영역에서의 성평등점수가 상대적으로 낮다. 상급학교·고학년일수록 학생의 성평등점수는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다. 즉, 연령이 높아지면서 교육의 효과나 이성적 판단력의 증가 등에 힘입어 학생의 성평등 의식수준은 점차 높

아지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다섯째, 학생의 성관련 의식수준에 관한 분석 결과이다. 학생들 중 절반 수준이 이성교제를 경험하였으며, 경험률은 성장과정에서 높아진다. 남학생은 남성의 혼전순결에 대해서는 관대하나, 여성의 혼전순결에 대해서는 보다 엄격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차이는 청소년기에 이미 순결에 대한 성별에 따라 따른 이중적 가치관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혼전임신에 대한 기를 수 있는 경우에만 낳아야 한다는 상황론적 입장이 강하며, 이는 대체적으로 여성에 한정된다. 남학생은 혼전임신에 대한 수용도가 높다고 할 수 있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무책임성을 엿볼 수도 있다.

여섯째, 학교 성교육에 관한 분석 결과이다. 학생은 전체적으로 기초적인 성교육이라고 할 수 있는 피임방법에 대한 교육 경험 정도가 상대적으로 낮다. 성문제로서 성병·에이즈와 미혼모·인공유산에 대한 교육정도도 상대적으로 낮다. 이에 따라 성병·에이즈 예방방법, 인공유산 부작용)에 관한 학생의 인지도는 50%에도 미치지 못하는 미흡한 수준이다. 남녀신체구조와 임신·출산과정 등 아주 기초적인 성교육 내용에 관한 학생의 인지도도 80% 수준에 불과하다. 학생들이 본인의 성문제와 관련한 성상담자로서 교사나 상담전문가의 비율은 아주 낮다. 전문적인 서비스 부재 및 접근성 부족에 기인한 결과로 볼 수 있다. 학교에서 출산관련 교육 후 학생들의 소감은 지루하거나 아무런 생각 없다는 부정적인 반응이 절반이상이다. 교육내응이 미흡하거나 불충분하기 때문으로 추측된다. 학생들의 성문제는 점차 전문적인 상담치료를 요하는 경향이 증대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생의성상담 대상은 여전히 비공식체계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일곱째, 학생들의 저출산·고령화 관련 태도에 관한 분석 결과이다. 미래세대인 청소년들은 한국사회의 저출산 원인과 그 파급효과까지 비교적 정확히 파악하고 있다. 다만, 저학년을 중심으로 관련 교육이 미흡하다. 저출산·고령화 현상에 대해 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는 청소년은 2/3 수준이며, 이는 관련 교육내용이 여전히 미흡하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정책에 대한 학생의 인지도는 절반수준이다. 청소년은 노부모 부양책임에 대해 가족 비중이 80% 이상으로 여전히 높으나, 생애경로 이행과정에서 노부모 부양책임자로서 국가·사회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

여덟째, 학생의 인구학적 및 사회경제적 특성들을 통제한 후 학교교육이 학생의 가치관 및 성관련 지식수준에 미치는 영향을 회귀모형을 통해 분석한 결과이다. 가치관 관련 학교교육은 학생의 가족, 결혼, 자녀, 성평등 및 성역할 등 가치관이 긍정적으로 변화하는데 기여한 것으로 나타난다. 성교육도 학생의 성관련 지식수준을 높이고 있다. 구체적으로 학교에서 관련 교육을 받았던 학생들이 그렇지 않은 학생들에 비해 결혼 필요성 정도가 높으며, 자녀를 두어야 한다는 태도가 강하며, 성평등적 역할관이 강하며, 그리고 성평등 의식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학교에서 성교육을 받았던 학생들은 그렇지 않은 학생들에 비해 피임방법, 인공유산 부작용, 성병·에이즈 예방방법, 남녀의 신체적 구조, 임신 및 출산 과정 등 각 영역에 대한 지식수준이 높다.

2. 분석 결과의 시사점 및 정책적 건의

현재 청소년들의 가치관을 종합하면 향후 그들의 결혼·출산 행위나 성역할관 등은 현재 20~30대와 크게 다를 것 같지 않다. 예를 들어, 현재 청소년층은 자녀를 희망하나 본인들을 희생시키거나 경제적으로 큰 부담을 감수하면서까지 자녀를 갖으려고 하지 않을 것이다. 결국 현재의 사회적 상황이 크게 달라지지 않는 한, 현 청소년들이 혼인기와 가임기에 들어서는 10년 내지 15년 후 한국의 출산율은 여전히 낮은 수준을 유지할 것 같다. 이에 정부 차원에서는 실효성 있는 정책의 지속적 추진이 중요하다. 장애요인이 되고 있는 사회적 여건이 개선될 때, 현재 청소년들이 자신이 희망하는 시기에 결혼하고 희망자녀수에 근접하는 수의 아이를 가지려고 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청소년의 결혼 및 출산 행위는 사회적 여건의 개선만으로 결정되지는 않는다. 이는 무엇보다도 청소년의 가치관 변화가 뒷받침되어야함을 의미한다. 이를 위해서는 청소년들의 사고와 성장발달단계에 적합하도록 가정교육, 취학전 교육, 학교교육, 사회교육 등을 망라한 평생교육체계가 확립되어야 한다.

가. 학교교육

첫째, 기본적으로 가족·결혼·자녀·성역할·양성평등의 가치관과 성관련 지식에 관한 교육 자체가 확충될 필요가 있다. 이들 내용을 다루는 교과목을 다양화할 필요가 있는데, 그 이유는 일률적이고 일방적인 주입식의 교육보다 다양한 교과목의 여러 상황에서 자연스럽게 교육내용이 청소년에게 다가설 때 효과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도 관련 교과목 체계의 집중형 또는 분산형의 선택은 효과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 교육 내용이 형식적으로 흐르지 않도록 수업시간도 충분히 배정되어야 할 것이다. 결혼·출산 등에 관한 가치관과 성에 관한 교육이 지나치게 분산되어 효과를 거둘 수 없는 경우에는 인구교육 등 특정한 교과목의 신설도 중장기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둘째, 가족·결혼·자녀·성역할·양성평등의 가치관과 성관련 지식에 관한 교육내용의 불충분성과 진부성을 극복하기 위해 관련 자료·기법 등의 개발과 교육내용 개선이 시급하다. 학생들의 가치관이나 태도가 성·연령 등 개인적 변수와 가족 관계 등 가족적 특징에 따라 매우 다양하므로, 학교교육의 내용이나 방법도 아동·청소년의 성장발달 단계 및 상황에 적합하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다. 특히, 상급학교·고학년 학생일수록 출산관련 교육의 효과성이 부정적이므로, 성장과정에 따른 흥미 유발이 가능한 교과목체계 구축 및 시청각자료 등 학습도구의 다양화가 긴요하다.

셋째, 가족·결혼·자녀·성역할·양성평등의 가치관과 성관련 지식에 관한 교육의 내용이 학생들의 사고에 조응해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많은 여학생들이 일을 위해서는 결혼을 늦추거나 안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실제로 여성 인구의 절반이 경제활동을 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감안하여, 학교교육이 일-가정 양립에 관한 내용을 더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편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 다른 예로, 연구 결과 중 주목을 끄는 점은 아직도 많은 청소년들이 자녀를 갖는 것이 사회에 대한 의무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청소년들에게 자녀에 대해 교육을 시킬 때 이 부분을 강조할 수 있을 것이다. 실제로 호주에서는 애국심에 호소하는 출산 장려책을 펴서 큰 성공을 거두었다.

넷째, 성에 대한 의식은 인간의 발달 과정상 급격한 신체 변화와 함께 자기 존재에 대한 회의로 심리적 위기에 빠지기 쉬운 청소년기에는 자칫 반인간적으로나 반사회적으로 발현될 수 있다. 또한, 만혼현상, 스트레스 증가 등에 기인한 후천성불임 증가, 인공유산 증가 등의 생식보건의 문제가 날로 심각해져 저출산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 이러한 현실을 감안하면, 성관련 올바르고 정확한 지식을 제고시키기 위한 학교 성교육의 현실화가 시급하다. 학생들의 이성교제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성교육이 내실 있게 실시되어, 올바른 성 가치관이 확립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성문제가 청소년 사이에 점점 더 심해져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최근의 상황을 감안할 때, 관련 교육의 체계적인 접근이 중요하다. 특히, 성관련 지식과 정보가 인터넷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청소년에게 무분별하게 제공되고 있는 실정임을 감안하면, 학교에서의 성교육은 초등학생부터 본격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학교에서의 성교육이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기보다 학생들이 실생활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그 질적 수준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학생들의 성문제에 대한 전문적인 상담치료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문적인 성상담서비스 전달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혼전임신에 대한 청소년의 신중성은 인공유산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합리적인 신중한 태도는 우리 사회에서 결코 배제할 수 없는 가치이다. 따라서 무조건적인 수용을 주장하기에 앞서, 혼전임신을 예방하는데 중점을 둘 필요가 있다. 즉, 본질적으로 청소년의 책임 있는 이성교제와 성관련 가치관을 함양시키는 교육이 중요하며, 혼전임신의 경우 사후적인 국가프로그램의 마련도 중요하다.

여섯째, 저출산·고령화 현상에 대한 그릇된 인식이나 지식체계는 청소년들이 성장하여서도 영향을 미쳐, 사회총합적인 수준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정책들에 대한 충분한 지식과 이해가 형성되지 못할 경우, 그 정책의 실효성이 낮을 것이다. 따라서 출산율 회복이라는 국가과제와 향후 개인적인 차원에서의 고령사회 준비와 관련해서 저출산·고령화 현상에 대한 교육은 저학년부터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특히, 국가정책에 대한 학교교육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 그 이유로 성장기에 일단 형성된 가치관은 쉽게 변화되지 않기 때문이다. 노부모 부양에 대한 국가·사회-가족-개인간의 분담체계에 대한

적정한 교육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가족·결혼·자녀·성역할·양성평등의 가치관과 성관련 지식에 관한 학교교육의 내실화는 올바른 전달체계를 통해 확립될 수 있다. 즉, 학생교육 이전에 교육의 공급자적 위치에 있는 교사의 관련 내용에 대한 이해도 증진 등이 절실히 요구된다. 이를 위해 학교고사 교육체계 구축 내지 개선이 시급이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나. 가정교육

청소년의 가족·결혼·자녀·성역할·양성평등의 가치관과 성관련 지식수준에 미치는 가정(가족)의 영향은 매우 크다. 이러한 결과는 가정교육이 상대적으로 빈약한 우리나라에 심각한 시사점을 주고 있다. 우리나라 청소년은 부모와 많은 시간을 보내지 않고 있다. 특히 많은 학자들이 아버지의 부재를 지적하고 있다. 한국의 부모님들은 자녀의 건전한 가치관 형성을 위해서라도 자녀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정부도 캠페인을 벌이는 등 다양한 정책적 수단을 통해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고양시키는 데 노력해야 한다. 예를 들어, 학교교육에 앞서 가정교육을 강화시키는 정책프로그램을 개발·실시하여야 하며, 가정에서의 자녀 교육과 연계하여 남성의 적극적인 육아참여를 도울 수 있도록 고용문화를 개선하는 방안들도 적극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다. 취학전 교육

일반적으로 가치관과 의식이 상대적으로 어린나이에 형성되고 있다는 측면을 고려하여, 초등학교 저학년, 더 나아가 취학 전 아동들에 대한 교육과 홍보도 적극적으로 고려하도록 한다. 예를 들어, 성역할해체와 양성평등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의 지지를 보이는 학생들이 집안의 대를 잇는 전통적인 이념에 대해서 지지하는 모순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은 학생들의 가족문화가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기 때문이다. 즉, 현재 부모 또는 조부모 세대의 가치관이 상대적으로 전통적이라면, 이러한 가치관을 가진 기성세대에 의해 양육되는 아

동들의 가치관 또한 전통적일 수밖에 없을 것이다. 비록 이러한 가치관이 정규 교육과정을 거치면서 완화되고는 있지만 '집안의 대를 잇는'문제와 같은 가부장제적 가치관이 여전히 잔존해 있을 수 있는 것은 정규학교 교육 전에 아미 아동들의 의식에 전통적 가치관이 자리 잡고 있다는 추론이 가능하다. 또한 이렇게 어린시설에 뿌리내린 가치관은 성인이 된 이후 어떠한 형태로든 젠더문제를 불평등하게 인식하고 행동하는 원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결국 정책대안은 취학 전 아동들에 대한 보편적 교육이 중요하다.

라. 사회교육

청소년의 가족·결혼·자녀·성역할·양성평등·성에 관한 긍정적인 가치관이 학교졸업 후 사회에 진출했을 때까지 유지·강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정규 학교교육 과정에서 관련 내용을 강화하는 동시에, 학교교육 이외의 매체(언론과 방송 등)를 통해 지속적으로 홍보하는 등 사회교육을 강화하여야 한다. 더 나아가 학교교육이든 사회교육이든 교육을 통해 내재된 학생·성인의 가족·결혼·자녀·성역할·양성평등·성 관련 가치관이나 지식을 생활 속에서 실제화 시키는 정책이 필요하다. 행위주체의 가치관과 실제 행위는 반드시 일치하지 않기 때문이다. 정책과제는 학생들의 가치관이 학교 졸업 후 성인으로 생활할 때 실제행위와 일치시키기 위한 제도적 지원책을 마련하는 것으로 집중될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성별역할의 해체를 위해 여성이 노동시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정책지원을 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단순한 참여보다는 고용의 질이 보장되는 참여가 전제되어야 한다. 즉, 학생들의 바람직한 가치관이 현실세계에서 실제화 되기 위해서는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을 통한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대다수 남학생들이 자녀 돌봄과 집안일을 부부가 바람직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실제 한국의 현실은 이와는 정반대의 현상들이 목격되고 있다. 이는 한국사회가 육아로 대표되는 가족 내 무급노동에 남성이 참여할 수 있는 사회·심리적 조건을 창출하지 못했고, 제도적 지원도 전무하다는 현실을 반영하는 것이다. 이러한 가치관과

실제 행위와의 불일치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남성의 양육참여를 제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적극적으로 마련되어야할 것이다.

끝으로, 학교교육은 학생의 결혼관과 자녀관 및 성평등 의식 고취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 올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성관련 지식수준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즉, 학교에서의 가치관 교육과 성교육에의 노력은 학생들로 하여금 관련 이해나 지식수준을 제고하는데 기여할 것이다. 따라서 지금까지 제시한 정책적 건의들을 토대로 결혼·출산관련 가치관들과 성교육에 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학교교육 방안이 장기적인 관점에서 수립·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제 4 장 초·중등학생의 결혼 및 자녀 가치관 정립 방안

제 1 절 개요

최근 우리나라는 세계 최저 수준의 초저출산현상을 겪고 있으며, 그 영향으로 인하여 인구고령화가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낮은 출산수준과 빠른 노령화는 우리나라 인구의 연령별 구조를 변화시키고, 신규노동력의 부족, 노인부양부담의 과중 등과 같은 직접적인 사회문제를 초래하게 되었다. 이러한 인구현상 변화의 원인을 사회와 개인의 가치관의 변화에서 찾을 수 있다. 정부의 강력한 인구억제정책의 수행이 산업화와 도시화와 함께 수행됨으로써 개인의 가치관이 빠르게 변화하였다. 그 중에서도 출산과 직접 관계가 있는 결혼과 자녀에 대한 가치관의 변화는 혼인연령 상승, 미혼인구 증가, 이혼 증가, 무자녀 또는 소자녀 경향 증가 등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의 출산은 가족내의 출산이 중심이므로 가족의 형성과 유지가 어려워진다면 앞으로 출산 수준의 상승은 물론 현재 수준의 유지를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다.

개인의 가치관 변화는 개별적인 지원이나 단기간의 관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과거 출산 억제를 위해 소자녀관을 형성하기 위한 노력을 10년 이상(1960~1970년대) 유지하면서 성과를 거둔 것과 같이 장기적인 목표 하에 지금부터 미래세대인 초·중등학생(초·중·고 학생)에 대해 교육을 통한 가치관의 변화를 시도하여야 할 것이다.

이 장에서는 미래세대의 친 결혼관 및 친 자녀관을 형성하기 위하여 어떤 사회적 노력이 필요한지를 밝히고, 이를 토대로 초·중등학생 대상 학교교육의 개선방향을 제시하고 하였다. 구체적으로 초·중·고 인구관련 교과서의 개선방향과 내용을 제시하며, 학교교사를 위한 교재개발 및 종합교육프로그램의 기본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 장에서 수행한 연구의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우선 장래에 출산력 회복을 위한 초·중등학생 가치관의 중요성을 검토하고, 현재 초·중등학생의 결혼·자녀에 대한 가치관 현황을 진단하였다. 이러한 기초 분석을 바탕으로 향후 어떻게 접근하는 것이 사회적으로 도움이 되는지에 대해 논의하였다. 논의 결과로서 미래세대의 결혼·자녀 친화적 가치관 형성을 위한 교육방향을 제시하였다. 즉, 교육과정 개편의 일정에 맞추어 가치교육의 단계적 반영 방향과 효과적인 학교교육을 위한 접근단계(교사교육 포함)에 대한 제안을 하였다.

여기에서 적용한 연구방법들로는 문헌분석, 조사결과 심층분석, 국·내외 사례분석 등이 포함되었다. 현재 청소년의 가치관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본 「저출산·인구고령화 대응 협동연구」의 일환으로 실시한 「2006년 전국 청소년 결혼·자녀·성평등 가치관 조사」의 실태조사 결과를 활용하였다. 양적조사결과의 분석 이외에 초·중등학생의 가치관과 변화 원인을 보다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하여 심층면접조사를 실시하였다. 각급 학교현장과 교원교육기관을 직접 방문하여 효과적인 교육방향 제시를 위한 자료도 수집하였다. 외국 사례 분석은 우리나라와 문화적 특성이 유사한 일본과 미국 및 호주를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제 2절 청소년의 결혼·자녀 가치관의 의미와 본질

역사적으로 인구와 관련된 미래 전망은 대체로 부정적인 시각이 우세하였다. 예전에는 과도한 출산으로 인한 인구 팽창이 문제로 지적되었다면, 오늘날은 저출산과 인구고령화가 미래 인구구조의 전망을 어둡게 하는 것들로 논의되고 있다. 불과 얼마 전까지 우리 사회에서는 인구과잉이 심각한 문제로 간주되었으며 국가적으로 가족계획정책을 수립하여 출산력을 억제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하였다. 그러나 오늘의 상황은 정반대이다. 한국은 세계적으로 가장 낮은 출산율과 가장 빠른 인구고령화 속도를 보이고 있다. 전문가들은 출산력을 높이는 것이 국가적 명운과 관련된 중차대한 문제라고 지적하면서, 보다 적극적인

결혼관과 출산관을 갖도록 사회의식을 변화시키는 것이 시급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와 같은 '다급한' 주장과 달리 많은 청소년들은 이 문제를 그렇게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듯하다.

인구구조의 변동을 이끌고 있는 저출산과 고령화는 국가와 사회의 존립 기반과 관련된 중요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청소년들의 소극적인 결혼관과 출산에 대한 태도는 쉽게 변화될 것 같지 않다. 그것이 사회적으로 아무리 시급하고 가치 있다고 할지라도 개인이 그것에 가치를 부여하고 선택하지 않으면 별 도리가 없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저출산의 원인은 다양하지만, 그 중에서도 청소년들의 결혼·가족 및 출산에 대한 부정적 혹은 소극적 태도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청소년은 사회의 생물학적 재생산을 담당할 세대로서 이들이 결혼과 가족 및 출산과 관련하여 어떠한 가치관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은 사회 존립을 위하여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그런데 청소년들은 예전에 비하여 결혼을 하지 않거나 늦게 결혼하는 사람의 비중이 늘어나고 있으며, 이와 같이 청소년의 결혼에 대한 소극적인 태도가 저출산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예를 들어,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2005년도 전국 결혼 및 출산동향조사」에 따르면 20~44세 미혼남녀 중 '반드시 결혼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비중이 미혼남성은 29.4%, 미혼여성은 12.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간이 살아가는 동안 자연스럽게 경험하는 생물학적 과정인 고령화와 달리 저출산은 인간이 의도적으로 선택한 행위의 결과라는 점에서 문제의 중요성이 있다. 뿐만 아니라 바로 이러한 특징 때문에 청소년을 대상으로 결혼과 출산에 친화적인 가치관을 정립하는 노력이 의미 있는 것이다. 사회적으로 출산력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청소년들이 결혼·가족·출산에 친화적인 가치관을 갖도록 하는 것이 핵심 과제인 것이다.

1. 가치관의 의미

가치란 개인이나 집단이 가지고 있는 바람직한 것, 적절한 것, 좋은 것, 그리고 좋지 않은 것 등에 관한 '지속적인' 신념을 말한다(남궁달화, 2002). 주지하

는 바와 우리의 삶은 매 순간 선택의 연속이다. 개인이나 집단은 구체적인 선택이 자신에게 미치게 될 여러 가지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제적인 행위를 하게 된다. 예를 들어, 결혼 적령기에 달한 미혼 남녀가 결혼을 할 것인가 혹은 독신으로 살 것인가, 대학에 진학할 것인가 아니면 취업할 것인가, 결혼한다면 자녀는 낳을 것인가 그렇지 않을 것인가 등과 같은 선택도 마찬가지이다. 그런데 흥미로운 사실은 개인들 간에 선택에 있어서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는 점이다. 개인 혹은 집단 간에 발견되는 선택의 차이는 특정 상황에서 무엇을 보다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가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이와 같이 사람들은 개인마다 무엇을 판단하거나 행동하는데 있어서 나름대로 일정한 준거와 기준을 가지고 있는데, 이러한 판단 준거와 기준의 차이로 인하여 구체적인 생각과 행동에 차이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이처럼 개인이나 집단은 무엇을 판단하고 선택하는 과정에서 준거로 활용하는 일련의 '가치체계'(value system)를 가지고 있는데 이와 같이 가치에 대한 관점과 견해를 가치관이라고 한다(남궁달화, 2002). 정리하면 가치란 '사람들이 자신이 살고 있는 세상에서 무엇을 판단할 때 정의적 및 인지적 요소를 종합하는 평가적 신념'(evaluative belief)을 말한다. 따라서 가치는 옳고 그름, 긍정과 부정, 선과 악, 바람직함과 그렇지 못함 등에 관한 기본 신념을 말한다. 사람들은 이러한 평가적 신념으로서 가치를 기준으로 구체적인 행동을 하게 된다. '가치'(value)를 '어떤 한 상태보다 다른 상태를 선호하는 포괄적인 경향성'으로 이해하는 방식이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Hofstede, 1995). 결혼·가족·출산 가치관도 결국 청소년이 각각에 대하여 어떠한 평가적 신념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가치는 다양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 Schwartz와 Bilsky(1987)는 가치의 특징을 특정 집단이 객관적으로 공유하는 규범(norms) 체계, 특정한 상황을 초월하는 문화적 이상(cultural ideal), 행동이나 일에 대한 선택과 평가를 이끄는 도덕적 판단, 즉 행동의 평가(assessments of action), 개인 혹은 집단적으로 바람직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 신념(belief), 바람직스러운 것 또는 그렇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는 대상(objects), 인간이 마주하는 환경에 대하여 문화적으로 유형

화되고 규칙적으로 반응하도록 뿌리깊이 상징화되어 있는 가치지향(value orientations) 등으로 정리하고 있다. 가치는 행위 또는 상태에 대한 인간의 선택이나 판단의 기준 또는 표준과 관련된 신념, 아이디어 또는 태도 등을 의미하는 것이다(양종회, 1999).

그런데, 가치는 인간에 따라 그리고 사회에 따라 다양한 차이가 존재하며, 특히 개인적 가치관은 그들을 둘러싸고 있는 특정한 문화적 환경에 의해 상당한 영향을 받는다. 사람들은 이러한 가치에 기초하여 자신이 선택한 행위의 목적과 방향을 결정하게 되고, 나아가 사회제도를 정당화하게 된다. 따라서 가치에 주목하게 되면 사회변화를 파악할 수 있고 개인의 행위와 사회구조의 관계를 분석하는데 중요한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이런 점에서 미래세대인 청소년의 가치를 살펴보는 것은 청소년들의 삶과 행동의 배면에 숨겨진 다양한 의미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하며, 나아가 이를 통하여 미래 사회를 전망할 수 있다는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다.

2. 청소년 가치관 정립의 중요성

일반적으로 청소년은 의존, 불안정, 미성숙 등을 주된 특징으로 하는 아동기에서 독립, 안정, 그리고 성숙을 특징으로 하는 성인기로 옮아가는 이행(transition)단계에 있다. 일반적으로 가치관은 청소년기에 형성되고 체계적으로 발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청소년 후기는 가치관이 형성되어 개인의 신념으로 자리 잡는 시기이다. 성인으로서의 삶은 청소년들이 이 시기를 얼마나 성공적으로 보냈느냐에 따라 결정된다. 따라서 미래 세대인 청소년들이 이 시기에 가족과 결혼에 관하여 어떠한 가치관을 형성하느냐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청소년 시기에 경험하는 것들은 성인기의 경험에 의미를 부여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청소년의 가치관 정립이 중요한 이유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가치의 다양성이다. 가치는 개인의 경험적 산물이다(남궁달화, 2002). 주지하는 바와 같이 사람마다 생각하는 것이 다르고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에서 개인이나 집단에 따라 가치 판단의 근거가 되는 가치관은 매우 다양하다. 뿐만 아니라 개인적 차원에서도 모든 상황에서 가치 판단의 준거가 모순되지 않게 일목요연하게 작동하는 것이 아니라 갈등하고 경쟁하는 가치들 중에서 어떤 것을 선택하게 된다. 이와 같이 가치관은 개인 혹은 집단에 따라 그리고 상황에 따라 다양한 모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람에 따라 다양한 가치관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인정하고, 각자의 가치 판단을 존중하는 것은 사회적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필수적인 요건이다. 청소년기가 이와 같이 선택 대상에 대한 서로 다른 의미와 가치를 부여하는 구체적인 경험을 하게 되는 시기라는 점에서 가치 정립과 관련하여 청소년에게 어떠한 삶의 경험을 제공할 것이냐 하는 점이 중요한 것이다.

한편, 가치관이 다양하다는 것은 개인적 가치 판단의 근거와 집단의 가치 판단 근거가 다를 수 있는 현상이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어떤 사람은 대부분의 시민들이 공유하고 있는 가치 판단이 준거와 달라 갈등을 경험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동성애 혹은 성전환 등에 우호적인 입장을 갖고 있는 사람은 사회적으로 소수일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이러한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청소년은 주류 가치와의 다름으로 인하여 다양한 갈등을 경험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다수가 공유하고 있는 가치 판단이라고 해서 반드시 도덕적으로 우월한 것은 아니며, 무조건 소수자들의 가치를 문제가 있는 것으로 평가절하하거나 무시하는 것은 소수자의 권리를 해칠 위험성이 있다. 이렇게 볼 때 가치관은 사회적으로 형성되고 세대간에 전달되며 지속적이며 사회나 집단의 구성원에 의해 공유될 수도 있으며,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둘째는 가치의 안정성이다. 가치는 비교적 일반적이고 지속적이며 안정적인 평가의 내적 기준이다. 가치관은 일생 동안 매우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는 경향이 있다(Hitlin and Piliavin, 2004). 이 말은 가치관이 한번 형성되면 절대로 변화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쉽게 변화하지 않는다는 의미이다. 실제로 가치관은 새로운 문화의 출현 등과 같은 환경변화에 따라 변화되기도 한다. 따라서 가치관이 형성되는 청소년기가 중요한 의미를 가지게 된다. 청소년 가치관의 특징은 성인 세대에 비하여 비교적 유동적이고 외부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특징이 있다. 특히 교사와 부모와 같이 청소년을 둘러싼 유의미한 타자의 영향이 가치관 형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조소연과 오윤자의 연구(2001)에 따르면 미혼 청소년의 가족 가치관은 어머니의 가족가치관으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에 아버지로부터는 영향을 받지 않았다. 따라서 청소년기에 누구와 상호작용하고 무엇을 경험하느냐 하는 것이 어떠한 가치관을 형성하느냐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며 개인이 일생 동안 어떤 가치 판단을 할 것인가를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조건이다.

셋째는 가치의 책무성이다. 가치는 책무성(accountability)과 갈등회피(willingness to concede conflicts) 등 선택과 관련하여 발생하게 될 결과에 영향을 받는다(Hitlin and Piliavin, 2004). 사람들은 모든 상황에서 갈등하지 않고 한결같이 일관되게 선택하는 것은 아니다. 개인 행위자들은 대부분 경쟁하는 가치들 중에서 보다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특정한 가치에 주목하게 되고, 그러한 가치에 따라 선택 행위를 하게 된다. 이때 개인은 그러한 선택 행위로 인하여 자신이 지게 될 책무성을 고려하게 되고 동시에 의사결정으로 인하여 초래될 갈등을 최소화하고자 한다. 개인이 사회적 및 경제적 동기를 고려하여 선택을 결정하는 까닭에 가치 판단은 상황에 따라 일관적이지 않은 모습을 보이기도 한다. 그런데 청소년의 가치관은 성인의 가치관과 유사한 점이 많지만, 특정한 문제에 대하여 보수적 혹은 진보적인 모습을 보이는 경우 또한 적지 않다. 심지어 바람직하지 않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선택 행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경우도 있다. 성인 세대와 달리 청소년은 또래 집단의 압력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경향이 있으며, 따라서 청소년은 개인적, 가족, 그리고 친구 등의 압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택의 딜레마를 해소하고자 한다.

3. 청소년 가치관의 형성 요인

Hitlin과 Piliavin(2004)은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종합 정리하고 있다. 그들에 따르면 가치관은 생물학, 가족 특성, 인종과 성, 사회구조(사회계급·교육·직업), 이민 혹은 이주 경험, 연령 집단, 종교, 국가 및 인구학적 특성 등에

따라 영향을 받는다. 생물학적 입장에서 사람이 가치관을 가지고 태어나는 것으로 간주한다. 이들은 가치관이라는 것이 사회적 적응성을 높이는 진화 과정의 일부로 파악한다는 특징이 있다. 이와 같이 생태적인 것으로 가치를 바라보는 입장과 달리 가장 주된 입장은 가족, 사회구조, 거주지 등과 같이 주로 청소년의 환경을 지적하는 경우가 많다. 한편, 영국에서 5~16세 청소년을 대상으로 수행된 연구에서 Holland와 Thomson(1999)은 청소년의 가치관이 성(gender), 거주지(location), 그리고 사회계급(social class)에 따라 많은 영향을 받는다고 보았다. 이러한 가치관 형성 요인들을 간단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가족 요인이다. 일반적으로 청소년은 부모를 비롯한 성인 세대의 가치관으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가치관의 세대 간 전수는 부모, 즉 성인에서 자녀, 즉 청소년으로 진행되는 일방적인 형태로 인식되었다. 가족 내에서 이루어지는 대부분의 가치사회화(value socialization) 모델은 자녀가 부모의 태도나 기대를 내면화하는 것을 가정하였다(Pinquart and Silbereisen, 2004). 전통적으로 자녀는 부모와 비슷한 가치관을 공유하는 것으로 가정되었다. 이러한 관점은 청소년의 핵심 가치들이 가정 내에서 학습된다는 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인다고 본다. 조소연·오윤자(2001)의 연구에 따르면 미혼 성인 자녀의 가족주의 가치관에 어머니의 가족주의 가치관이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Kohn(1983)은 이러한 관점이 검증되지 않은 가정에 기초하고 있다고 비판한다. 대신에 자녀들이 지니는 가치는 생각보다 부모들의 가치와 높은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지 않으며, 오히려 사회구조적 조건에 따라 형성되는 부분이 더욱 크다고 주장한다. 부모에서 자식으로의 가치 전수가 진공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구체적인 사회적 맥락 속에서 진행된다는 점을 가정할 때 부모의 통제나 지식을 벗어난 요인들이 자녀의 가치관에 미치는 영향을 체계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현실적으로 부모와 자녀는 서로 다른 곳에서 다른 방식으로 보내는 시간을 늘려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청소년의 가치관이 가족 내에서 부모의 가치관을 상당 부분 전수받는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타당하지 못하다는 입장이다. 더 나아가 부모와 자녀 사이에 비교적 상관관계가 높은 것으로 밝혀진 가치들도 사회에 대한 일반적인 것들이 아니라 주로 정

치적 입장, 종교적 신념 그리고 생활방식 등과 같은 것들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Kohn, 1983).

다음으로 성에 따른 가치관의 차별적 형성이다. 청소년의 가치관에 있어서 성차는 두드러진다. 예를 들어, Holland와 Thomson(1999)의 연구에 따르면 여성 청소년이 남성에 비하여 약물 등에 대해 보수적인 입장을 보였으나, 이혼, 혼외 성관계, 동성애 등 성에 대한 태도에서는 반대의 결과를 나타냈다. 정명숙·김혜리(2005)의 연구에서도 가족가치관(가족주의, 성역할, 결혼, 효도)에 있어서 성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전체적으로 가족가치관의 모든 하위 영역에서 남성이 여성보다 점수가 더 높게 나타났다. 김경신(1998)도 청소년기에는 남성이 여성보다 더 전통적인 가치관을 지닌다는 점을 밝히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청소년의 가치관이 성에 따라 분화되어 있음을 암시하는 것들이다. 따라서 가족과 결혼에 대한 가치관 또한 성에 따른 차이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그러한 연구결과에 따라 차별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하겠다.

셋째, 사회적 환경에 따른 차이이다. 청소년의 사회적 환경에는 사회계급, 교육수준, 거주지역 등이 있으며, 이들은 가치관 형성에 의미 있는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어,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청소년들이 약물 등에 대하여 가장 허용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었으며, 도심 빈민지역 거주 청소년들이 가장 보수적인 생각을 보였다. 또한 출산율은 계급 및 교육수준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사회적으로 지위가 높은 여성이 그렇지 않은 여성에 비하여 첫 아이를 더욱 늦은 나이에 출산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출산율에 영향을 미치는 자녀에 대한 여성의 가치관, 기회비용, 그리고 피임효과 등과 같은 요인에 있어서 사회경제적 차이가 있을 것으로 가정할 수 있다. 특히 여성의 교육수준은 출산율과 밀접한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다. 사회경제적 차이가 출산규모와 시기를 설명하는 주요 요인으로 간주되고 있다. 소득수준과 가치관도 일정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예를 들어, 소득 수준이 낮을수록 많은 수의 자식을 갖는 것에 보다 높은 가치를 부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자식을 갖는 것이 삶에도 가장 의미 있는 일 중의 하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교육과 소득 수준이 낮은 여성들의 경우, 취업

등과 같은 대안적 선택이 부재한 상황에서 자식을 갖는 것은 투자의 성격이 강하였으며, 때문에 많은 자식을 갖는다는 것에 특별한 문제의식을 가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정부의 관련 정책이다. 인구구조와 관련하여 가족계획 정책은 그 대표적인 예이다. 가족계획은 산업화의 유물이었다. 산업화와 자본주의의 발달은 근검, 절약, 저축과 합리적 투자 등을 자신의 삶을 지탱하는 핵심 가치로 간주하게 하였으며, 이러한 가치관은 철저하게 계획적으로 삶을 사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을 갖도록 하였다. 가족계획은 이와 같은 가치의 산물이었다. 예를 들어, '아무 생각 없이 자식을 많이 낳아 낭패 보기 십상이다'는 식의 가족계획 슬로건은 계획적 삶을 잘 드러낸다. 더구나 교육받은 사람은 자녀 출산을 포함하여 삶을 계획적으로 사는 사람이라는 식의 인식은 다자녀 출산 가족이나 여성을 무식한 사람으로 폄하하는 분위기를 낳았다. 오래된 가족계획은 자식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기도 하다. 이밖에도 매스컴, 인터넷, 교사 등은 청소년 가치관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유의미한 타자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송다영 외(2003)는 교사가 전통적인 가치관이나 이혼에 대하여 부정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있을수록 한 부모 가족의 아동을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었다. 이러한 교사의 인식은 직·간접적으로 아동의 가치관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4. 청소년 가치관의 특징

청소년의 가치관은 청소년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 그 성격이 달라진다. 청소년을 미성숙하고 불완전한 존재로 바라볼 경우 청소년의 가치관에 대해서도 비슷한 평가를 하게 된다. 일반적으로 성숙하다고 생각하는 성인은 미성숙한 청소년에 대하여 계몽적 태도를 갖는 경향이 많기 때문에 성인세대와 다른 모습을 보이는 청소년의 가치관을 부정적이고 문제가 있는 것으로 바라보는 경향이 있는 것이다. 예컨대, 청소년의 가치관을 물질만능, 안일주의, 이기주의적 가치관의 팽배로 규정하는 것이 그 예이다. 대체로 한상철 외(1998), 권이종

(1998)에 의한 청소년 연구들은 그러한 입장에 기초하고 있다. 권이종(1998)은 청소년이 경험하고 있는 가치관 갈등의 성격을 전통적 가치관으로부터의 이탈로 인한 새로운 가치관 형성의 갈등, 전통적 가치관과 새로운 가치관의 차이와 혼돈으로 인한 아노미 현상 발생, 서구 중심의 가치관에 대한 극단적 추구의 경향을 보인다고 평가하고 있다. 그러나 청소년의 가치관은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것이며, 그것이 성인세대의 가치관과 다르다고 하여 문제가 있는 것으로 바라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정명숙·김혜리, 2005). 청소년의 가치관은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사회변화에 따라 유연하게 변화한다. 성인들과 달리 청소년은 새로운 것에 대한 반응이 빠르고 개방적이기 때문에 특정한 사안에 대한 태도도 비교적 쉽게 변화한다는 특징이 있다.

청소년을 하나의 동일하고 등질적인 가치관을 지니고 있는 집단으로 가정하는 것은 올바른 관점이 아니다. 청소년들 또한 개인에 따라 서로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있다. 청소년 세대는 다양한 층위로 구별된다. 정명숙·김혜리(2005)의 연구에 따르면 중·고·대학생 중에서 고등학생이 다른 두 청소년 집단과 특징적인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등학생은 다른 두 집단과 비교하여 가족중심 가치관의 중요성을 가장 낮게 보고 있었으며,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관도 중학생이 가정화목인 반면에 고등학생은 자아실현으로 다르게 나타났다. 이러한 사실은 중학생과 고등학생을 구별하여 가치관 정립 관련 프로그램을 적용할 필요가 있음을 알려주고 있다.

정태연·한광희(2001)의 연구에 따르면 20대 청소년들은 청소년 세대가 특정한 가치관에서 성인 세대보다 더 부정적인 평가를 내리는 경우도 있었다. 특히, 청소년 세대가 서양문화의 부정적 측면에 성인 세대에 비하여 노출되기 쉽기 때문에 퇴폐적이고 감각적이며 이기적이고 소외된 가치관과 행동을 보인다고 스스로를 평가하고 있다.

제 3 절 청소년의 결혼·자녀 가치관 개념과 특성

1. 청소년의 결혼가치관

결혼가치관(marriage values)이란 가족가치관의 하위영역으로 결혼이나 결혼과 관련된 개인의 가치관을 말한다. 출산가치관도 개인이 출산이나 출산 관련 문제에 대하여 견지하고 있는 신념을 의미한다. 따라서 결혼과 자녀, 출산과 관련된 가치관은 넓은 의미에서 모두 가족가치관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다. 결혼(marriage)이란 두 사람의 성인 사이에서 일어나는 성적 접촉이 사회적으로 공인된 결합체라고 할 수 있다(Giddens, 1992). 결혼을 통하여 가족이 형성되며, 두 사람에게는 부부관계는 물론이고 다양한 친족관계가 생겨나게 되며, 자녀를 출산함으로써 부모와 자식관계도 형성된다. 결혼은 사회의 유지와 존속을 가능하게 하는 생물학적 재생산을 주로 담당하는 가족을 구성하는 중요한 사회적 규범이다. 청소년의 결혼관은 가족 및 자녀 출산의 가치관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사회적 제도로서 결혼에 대한 사회적 인식은 여러 가지 점에서 예전과 많은 차이가 있다. 출산율의 감소와 자발적으로 자녀를 갖지 않는 것을 선택하는 청소년들이 늘어난다는 사실은 결혼에 대한 청소년의 가치관 변화에도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의미한다.

통계청의 조사에 따르면 15세 이상 인구 중에서 '결혼은 반드시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비중이 1998년 33.6%에서 2002년에는 25.6%로 줄어들었다(사회통계, 1998~2002).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결혼을 지켜야 하는 사회적 규범으로 받아들이기보다는 개인이 선택하는 생활방식 중의 하나로 인식하는 경우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유계숙·정현숙, 2002). 부모세대들이 결혼을 하게 되는 가장 중요한 동기로 부부 모두 건강하고 행복한 자녀를 두는 것에 비하여 청소년들은 사랑을 결혼의 의미로 인식하고 있으며, 대신에 과거와 같이 자녀 출산만을 목적으로 결혼을 선택하지 않았다.

앞서 제3장에서 제시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협동연구의 일환으로 실시한 「2006년도 미래세대의 결혼·자녀·성평등에 관한 가치관 조사(정부승인통계

제06021호)」 결과로 나타난 현재 초·중·고 학생의 결혼관의 주요 특징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 현재의 초·중·고 학생들은 결혼의 필요성을 크게 느끼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학생들 중 16.8%만이 결혼을 필수적인 것으로 여기고 있을 뿐이다. 이는 2002년도 통계청에서 15세 이상 인구를 대상으로 조사한 25.6%보다 줄어든 것이다. 심각한 것은 반드시 결혼하여야 한다는 의식이 초등학생 14.2%, 중학생 15.8%, 고등학생 18.9%로 후세대일수록 낮다는 점이다. 이러한 가치관을 성별로 비교하여 보면, 여학생이 남학생간에 비해 반절 수준에 불과하다는 점이다. 결혼을 '해도 좋고 하지 않아도 좋다와 하지 않는 게 낫다'라고 응답한 비율로 보면, 남학생(21.5%)에 비해 여학생(41.3%)이 결혼필요성에 대해 더 부정적이었다. 결혼제도가 여성에게 더 많은 부담과 기회비용 손실을 요구하는 현실적인 여건을 여학생이 더 많이 인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학생들 중 향후 결혼할 의향이 있는 비율은 92.3%(남학생 94.9%, 여학생 89.4%)로 높으나, 여전히 8%정도가 비혼 의향이 있음을 엿볼 수 있다. 특히 여학생의 비혼의향은 10% 이상으로 나타났다. 결국 미래세대의 결혼필요성에 관한 가치관이 현재대로 지속된다면, 비혼현상이 심화될 것이라는 예측을 할 수 있겠다.

둘째, 현재 초·중·고 학생들이 이상적이라고 생각하는 결혼시기(평균초혼연령)는 남성 27.4세, 여성 26.0세로 나타났다. 「2005년 전국 결혼 및 출산동향 조사」에서 성인미혼남녀(20~44세)가 이상적이라고 생각하는 결혼시기(평균)인 남성 30.6세, 여성 28.9세에 비하면 낮다. 남학생들이 생각하는 남성의 이상적인 결혼연령을 평균 27.4세로, 여학생들이 생각하는 여성의 이상적인 결혼연령은 평균 27.2세이다. 이는 실제 우리나라 남성의 평균 초혼연령 30.9세보다는 낮으나, 여성의 평균 초혼연령 27.7세와 거의 유사한 결과이다. 특히, 초등학교에서 고등학교로 올라갈수록 학생이 생각하는 이상적인 결혼시기가 늦추어지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현상은 여성의 사회진출, 육아 부담, 결혼에 대한 부담을 여학생이 그리고 학교급이 높을수록 현실적인 인식을 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즉, 미래세대의 결혼시기에 관한 가치관이 변화하지 않은 한, 만혼현상은 심화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셋째, 결혼에 관한 다양한 견해에 대한 초·중·고 학생들의 태도를 통해, 현재 초·중·고 학생들의 결혼가치관은 세 가지로 압축될 수 있다. 첫 번째로 학생들은 결혼을 필수가 아닌 상황에 따른 선택으로 가치를 두고 있다. 그 근거로 "마땅한 사람을 만나지 못하면 결혼을 꼭 할 필요는 없다"는 견해에 대한 학생들의 긍정적인 태도는 73.6%, "직장을 구하지 못하거나 안정된 직장을 가지지 못하면 결혼을 늦추거나 안할 수도 있다"는 견해에 대해 73.1%, "내가 하고 싶은 공부나 일을 하기 위해 결혼을 안 할 수도 있다"는 견해에 대해 64.5%, "독신의 삶을 즐기기 위해서는 결혼을 안 할 수도 있다"는 견해에 대해 60.6%, "결혼생활이 부담스러우면 결혼을 안 할 수도 있다"는 견해에 대해 75.8% 등으로 나타났다. 결혼을 선택이라고 생각하는 가치관은 학년이 올라갈수록, 그리고 남학생보다 여학생들에게서 더 강하게 나타났다.

두 번째로는 여전히 법률혼이 규범적인 장치로 작용하고 있는 우리나라 현실에서 학생들 사이에 이혼이나 성과 관련하여 개방적이고 진보적인 가치관이 증대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 근거로 "결혼과 관계없이 성관계를 가질 수 있다"는 견해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가 초등학생 17.6%, 중학생 15.0%, 고등학생 42.0%, "부부간의 갈등을 해결할 수 없다면 이혼하는 게 낫다"는 견해에 대해 초등학생 19.6%, 중학생 27.3%, 고등학생 40.5%, "자녀가 있어도 이혼할 수 있다"는 견해에 대해 초등학생 20.6%, 중학생 22.8%, 고등학생 31.5%로 학년이 올라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성문제와 관련된 태도를 제외하고는 여학생들이 남학생들보다 더 진보적인 태도를 지니고 있다. 세 번째로 학생들 사이에 전통적이고 보수적인 결혼규범에 대한 구속 의식이 약해지고 있다는 점이다. 그 근거로 "결혼은 개인보다 가족관계를 더 먼저 생각한다"는 견해에 대한 찬성이 초등학생 83.4%, 중학생 73.4%, 고등학생 67.9%로 학년이 올라갈수록 가족주의적 성향이 증가하고, "결혼생활을 유지할 정도로 수입이 충분해야 결혼을 할 수 있다"는 견해에 대해 초등학생 59.4%, 중학생 63.7%, 고등학생 78.5%, "결혼은 보통 사람들이 결혼하는 나이에 해야 한다"는 견해에 대해 초등학생 46.0%, 중학생 37.7%, 고등학생 37.0% 등으로 학년이 올라갈수록 보수적인 태도가 줄어드는 경향성이 나타났다.

2. 청소년의 가족가치관

이러한 결혼가치관은 가족가치관과도 비교적 일치하는 모습을 보인다. 가족가치관(family values)이란 가족에 대한 행동의 일반적 경향성이나 그와 같은 행동에 내재된 신념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가족가치관은 청소년이 자신의 가족구성과 관련된 기본 태도에 영향을 미친다. 가족가치관은 다양한 하위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옥선화(1984)는 가족가치관을 배우자 선택과 결혼관, 가족관계에 대한 가치관으로 구분하였으며, 김경신(1998)은 가족가치관의 하위영역을 결혼관, 성역할관, 자녀관, 효 및 부양의식, 가족주의 가치관으로 구분하였다. 전통적으로 가족(Family)은 사회적으로 공인된 성적 관계의 조직이자 생물학적인 짝짓기와 생식과정을 통하여 성적 요구를 충족하고 나아가 사회의 재생산을 담당하는 대표적인 사회제도로 간주되었다. 이러한 가족은 한 가족이 출생하여 소속하게 된 방위 가족(orientation family)과 한 개인이 성인으로 소속되는 가족으로서 자녀 세대라는 새로운 세대가 탄생되는 생식 가족(procreation family)으로 구분된다(Giddens, 1992). 뿐만 아니라 가족은 경제적 생산조직, 재산의 배분, 노동의 사회적 분업, 문화의 전수와 아동의 사회화 등과 같은 기능을 담당하였다(Turner, 2005). 그러나 이와 같이 생물학적 관계에 기초한 가족 개념은 다양한 변화에 직면해 있다.

무엇보다도 예전과 달리 가족이 경험하고 있는 변화는 가족의 중요성과 기능이 약화되었으며, 가족 형성의 방법과 가족 형태가 다양해지고 있다는 점이다. 전통적으로 가족이 담당하여 왔던 경제적 생산이나 정서적 안정 등과 같은 기능이 점점 약화되고 있으며, 생물학적 관계에 기초하지 않은 다양한 가족 유형이 출현하고 있다. 결혼을 통하여 형성된 가족의 비중이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으며, 대신에 동거가족이 늘어나고 있다. 홍승직(1969)은 한국의 전통적인 가족제도를 "가부장적 권위가 지배하고…가문을 존중하며…자녀의 효도심을 강조하고 가계를 존중하는 수단으로 조상숭배의 사상을 제사를 통해 반영하는" 제도로 규정하였다(양종회, 1999: 76에서 재인용). 그러나 유계숙·유영주(2002)의 연구에 따르면 '가족이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가족형태는 부부와 그들이 낳

은 자녀로 구성된 핵가족, 편부모가족, 재혼가족, 입양가족, 3세대 이상 확대가족, 정자은행을 통해 출산한 자녀를 키우는 미혼모, 무자녀 별거부부 등이었다. 반면에 '가족이 아니다'라고 규정한 형태를 살펴보면, 재혼을 앞둔 편부모가족, 사별한 처의 전혼 자녀를 키우는 계부와 그의 동거녀로 구성된 관계, 공동체 가족, 동성애 커플과 그들 각자가 낳은 자녀들로 구성된 가족, 사촌 이상의 친척관계로 구성된 확대가족, 친지나 애완동물과 동거하는 단독 노인 가구, 전인척 관계였던 두 가족, 자신의 조상, 독신자 가구 등이었다(유계숙·유영주, 2002).

앞서 제3장에서 제시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협동연구의 일환으로 실시한 「2006년도 미래세대의 결혼·자녀·양성평등에 관한 가치관 조사(정부승인통계 제06021호)」 결과로 나타난 현재 초·중·고 학생의 가족관의 주요 특징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 초·중·고 학생들 사이에 혈연중심의 가족주의적 가치관이 약화되고 있다. 그 근거로 학생들의 가족에 대한 태도를 보면 "입양한 아이도 내가 낳은 자식과 같이 애정을 갖고 잘 키울 수 있다(71.1%)", "외국인과 결혼해도 상관없다(61.3%)"에 대해 긍정적으로 나타났다.

둘째, 학생들은 다양한 가족 형태에 대해 아직 보수적인 가치관을 보인다. 그 근거로 "사별이나 이혼 후에도 재혼을 해서 새 삶을 시작하는 것이 좋다(58.7%)", "아버지나 어머니가 혼자서도 자녀를 잘 키울 수 있다(33.7%)", "남녀가 사랑한다면 결혼하지 않고 함께 사는 것도 괜찮다(33.4%)", "결혼하지 않아도 자녀를 가질 수 있다(21.6%)" 등 재혼을 제외하면 부정적인 태도가 강했다. 그러나 상급학교·고학년일수록 긍정적인 태도가 높아져, 점차 다양한 가족형태에 대해 개방적으로 가치전환이 일어나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셋째, 학생들은 한 집에서 조부모와 동거하는 것에 대해 62.5%가 찬성하고 있으나, 상급학교·고학년으로 올라갈수록 부정적인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다. 학생의 부모를 돌볼 주체에 대해 가족 비율이 84.2%로 압도적으로 높으나, 초등학생에서 고등학생으로 갈수록 부모 스스로 해결과 국가·사회 부담이 높아지고 있다. 요컨대, 현재 초·중·고 학생들의 노부모 봉양에 대한 가치관은 아직 조부모와 함께 살고 노부모의 노후를 가족이 책임져야 한다는 전통적인 경향이 강하나, 이러한 가치관은 성장하면서 점차 약화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표 4-1〉 학생의 개인적 특성별 조부모 동거 선호도

(단위: %, 명)

구분	매우 좋을 것 같음	좋을 것 같음	싫을 것 같음	매우 싫을 것 같음	모르겠음	계(명)
전체	14.9	47.6	16.4	3.4	17.7	100.0 (11,236)
학교급(x^2=230.8***)						
초등학교	22.2	46.4	9.6	2.2	19.7	100.0 (1,895)
중학교	15.1	48.0	15.3	3.5	18.1	100.0 (4,749)
인문고	11.4	48.7	20.4	3.4	16.1	100.0 (3,631)
실업고	13.0	44.1	20.4	5.1	17.5	100.0 (962)

주: * p<0.05, ** p<0.01, *** p<0.001.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6년도 전국 청소년 결혼·자녀·성평등 가치관 조사』, 2006.

3. 청소년의 출산과 자녀양육 가치관

출산과 자녀 양육에 대한 가치관에 있어서도 청소년은 예전과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다. '부모가 된다는 것'(parenthood)은 자신이 책임지고 양육할 자녀를 둔다는 것을 말한다. 사람들은 자신들의 부모를 통하여 부모됨의 의미를 학습하고 나름대로의 바람직한 부모 모습과 역할을 정립하게 된다. 따라서 청소년들이 부모가 된다는 것의 의미를 어떻게 인식하게 되느냐 하는 것은 가족, 결혼, 자녀 출산 및 양육과 관련하여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예를 들어, 부모가 되는 방법에는 결혼을 통해 가정을 이루고 직접 자녀를 출산하여 양육하는 경우가 있지만 입양 등의 방법을 통한 방법도 있다. 뿐만 아니라 여러 자녀의 부모가 되는 경우도 있지만, 한 자녀만 두는 경우도 있다. 이처럼 부모됨의 의미는 개인에 따라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난다. 청소년이 어떠한 부모됨의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은 무자녀(childlessness) 선택과 관련하여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장진경(2005)은 미혼남녀를 대상으로 결혼·출산·자녀관과 출산정책 선호도를 종합적으로 밝히고 있다.

〈표 4-2〉 출산 및 자녀관에 대한 일반적 경향

출산 및 자녀관	일반적인 인지수준	빈도(명)	백분율(%)
자녀 출산의 책임	전혀 그렇지 않다	94	12.7
	대체로 그렇지 않다	185	25.0
	생각해 보지 않았다	64	8.7
	대체로 그렇다	329	44.5
	매우 그렇다	67	9.1
자녀에 대한 생각	자녀는 반드시 필요	430	58.2
	자녀가 없어도 무관	205	27.7
	아들은 꼭 필요	26	3.5
	딸은 꼭 필요	32	4.3
	입양을 해서라도 자녀 필요	17	2.3
	기타	29	3.9
자녀를 가질 생각	예	694	94.0
	아니오	44	6.0
자녀가 필요한 이유	배우자와의 사랑	485	72.1
	나를 닮은 핏줄이	204	30.3
	노후에 경제적 부양	28	4.2
	외로움 해소	144	21.4
	결혼 생활에 도움	161	23.9
	가계계승	44	6.5
	부모가 되보고 싶어서	230	34.2
	기타	28	4.2

자료: 장진경, 『미혼남녀의 결혼관과 출산 및 자녀관에 따른 출산정책 선호도 분석』, 2005.

제3장에서 제시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협동연구의 일환으로 실시한 「2006년도 미래세대의 결혼·자녀·양성평등에 관한 가치관 조사(정부승인통계 제06021호)」 결과로 나타난 현재 초·중·고 학생의 가치관의 주요 특징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 초·중·고 학생들 사이에 자녀 출산이 보편적인 가치로 확립되어 있지 않다. 즉, 학생들 중 75% 이상이 자녀가 '꼭 있어야 한다'와 '있는 것이 없는 것보다 나을 것이다'라고 자녀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다. 상급학교일수록 자녀가 '꼭 있어야 한다' 비중이 줄고 '없어도 상관없다'는 비중이 늘어나, 자녀 필요성의 강도가 점차 약화되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학생들의 향후 출산의향은 83%(반드시 출산 33.8%, 가능하면 출산 49.1%)로, 「2005년 전국 결혼 및 출산동향조사(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나타난 성인 미혼남성 93.1%, 미혼여성 88.7%에 비해 낮다. 이러한 비율은 초등학생 26.0%, 중학교 31.1%, 인문고

39.5%, 실업고 41.0% 등으로 저학년일수록 높다. 저학년이 아직 자녀에 대한 생각이 구체적이지 못해서 나타난 결과일수도 있으나, 세대 차이를 반영하는 결과하면 그 심각성은 매우 클 것이다.

둘째, 학생들은 일반적인 가치로 '다른 사람에게 명령할 수 있는 힘'과 같은 권력 지향적 가치를 가장 중시하며, '자유로운 생활'이나 '목표를 달성하고 성공하는 것'과 같은 자기 지도 및 성취 가치를 상대적으로 덜 중요시 하는 경향이 있다.

〈표 4-3〉 일반적 가치에 대한 학생의 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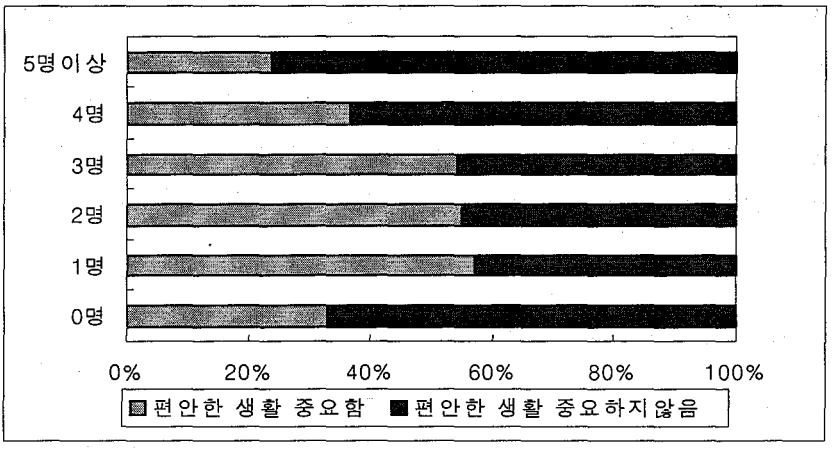
(단위: %, 명)

구분	매우 중요	대체로 중요	별로 중요 안함	전혀 중요 안함	계	(명)	평균 점수
편안한 생활	73.0	25.3	1.4	0.4	100.0	(11,228)	3.71
풍요로운 물질생활	44.6	46.4	8.1	0.9	100.0	(11,220)	3.35
더불어 사는 삶	55.2	39.3	4.7	0.8	100.0	(11,212)	3.49
다른 사람에게 필요한 사람	53.6	37.7	7.4	1.4	100.0	(11,216)	3.43
자유로운 생활	67.5	28.8	3.1	0.6	100.0	(11,214)	3.63
인간에 대한 사랑	64.6	30.8	3.8	0.8	100.0	(11,214)	3.59
화목한 가정	80.2	17.6	1.5	0.6	100.0	(11,221)	3.77
여가생활	60.0	34.5	4.7	0.8	100.0	(11,214)	3.54
사회적으로 인정 받는 것	50.5	37.4	10.7	1.4	100.0	(11,212)	3.37
다른 사람에게 명령할 수있는 힘	27.4	32.9	30.5	9.3	100.0	(11,190)	2.78
목표를 달성하고 성공하는 것	73.3	23.1	2.7	0.9	100.0	(11,226)	3.69

주: 매우 중요=4점, 대체로 중요=3점, 별로 중요 안함=2점, 전혀 중요 안함=1점.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6년도 전국 청소년 결혼·자녀·성평등 가치관 조사」, 200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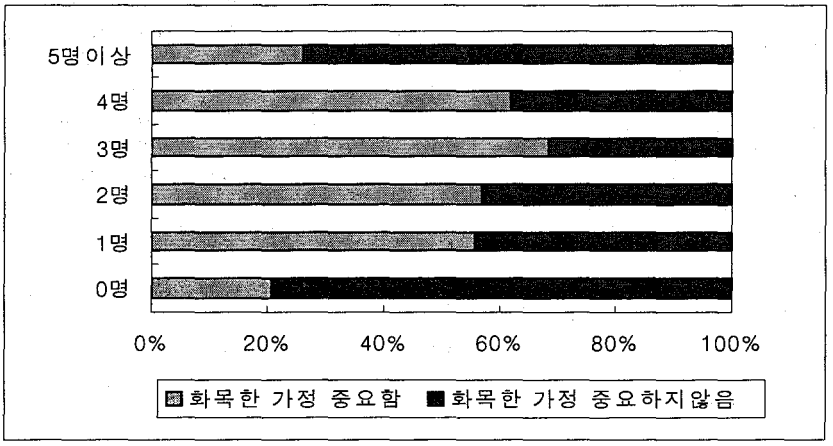
특정 가치를 중요시 여기는 정도에 따른 희망자녀수를 살펴보면, 편안한 생활을 중요시 하는 학생들은 다자녀(4명 이상)를 희망하지 않고 있으나, 화목한 가정을 중요시 여기는 학생들은 자녀수 4명을 가장 많이 희망하고 있다.

[그림 4-1] 편안한 생활의 중요도별 희망자녀수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6년도 전국 청소년 결혼·자녀·성평등 가치관 조사」, 2006.

[그림 4-2] 화목한 가정의 중요도별 희망자녀 수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6년도 전국 청소년 결혼·자녀·성평등 가치관 조사」, 2006.

4. 청소년과 성인 가치관의 유사성과 차이점

개인이 선택 상황에서 행동을 결정하는 판단의 기준이 되는 가치관은 문화의 차이뿐만 아니라 시대에 따라서도 달라진다. 가치관이 다양하다는 것은 공간적 차원뿐만 아니라 시간적 차원에서도 그렇다는 것을 의미한다. 세대는 연령집단에 따른 구분을 의미한다. 개인에 따라 서로 생각하는 바가 다르다는 것은 분명하지만, 동일한 연령집단에 속한 사람들은 비슷한 시대에 태어나 비교적 유사한 사회적·역사적 경험을 공유하기 때문에 다른 연령집단에 비하여 비교적 비슷한 가치관을 가질 것으로 가정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연령집단에 의한 가치관의 차이를 세대차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정명숙·김혜리, 2005).

가치관의 세대 차이는 연령집단에 따라 경험하게 되는 역사적 사건의 차이 그리고 문화 및 사회변화의 다름에 기인하는 것으로, 이러한 차이는 세대의 정서, 의식구조, 행동 및 생활양식의 차이를 초래하게 된다. 경우에 따라 세대 차이는 심각한 사회갈등의 소인으로 작용하기도 하는데, 세대 간 차이로 인한 갈등은 겉으로 드러난 갈등만 있는 것이 아니라 숨겨진 갈등도 있다. 기성세대와 신세대, 성인세대와 청소년세대 라는 표현들은 모두 이러한 연령집단을 지칭하는 것들로 이러한 세대 간에는 가치관, 윤리의식, 사회 및 미래관에 대한 분명한 차이가 발견되고 있다. 세대 간 가치관의 차이에 대해서는 서로 다른 주장이 경쟁하고 있다. 유럽에서 수행된 연구에서는 청소년과 성인 세대의 가치관이 생각보다 그렇게 크지 않다는 결과가 보고된 바 있다(Ashford and Timms, 1992).

그러나 한국 사회는 다른 나라에 비하여 세대 간 차이가 심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나은영·민경환, 1998). 세대간 가치관의 차이를 분석한 연구들에 따르면 세대차이가 점점 더 심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정태연·한광희, 2001). 실제로 한국인의 가치관에 관한 연구를 살펴보면, 남녀 간의 성별 차이는 줄어드는 반면에 연령에 따른 세대 차이는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나은영·차재호, 1999).

〈표 4-4〉 청소년의 가치관 변화: 1979, 1998

(단위: %)

구분		떠받들어야 할 것				윗사람이 틀릴 때				함께 행복하려면			
		나라		자신과 가족		모른 척		지적		인내		시정 요구	
		1979	1998	1979	1998	1979	1998	1979	1998	1979	1998	1979	1998
성별	남자	66.7	28.3	33.3	71.7	13.0	9.4	87.0	90.6	19.0	34.2	81.0	65.8
	여자	50.7	27.9	49.3	71.8	39.0	16.4	61.0	83.3	52.0	33.6	48.0	66.4
연령	20-29	51.0	7.8	49.0	82.0	12.3	8.2	87.7	91.3	34.0	19.2	66.0	80.8
	50-59	66.3	36.5	33.7	62.9	17.3	20.4	82.7	79.6	58.0	47.3	42.0	52.7
	세대차	15.3	28.7	-15.3	-19.1	5.0	12.2	-5.0	-11.7	24.0	28.1	-24.0	-28.1

자료: 나은영, 『청소년의 결혼·출산·양성평등 관련 가치관 실태조사』, 2005 재구성.

나은영(2005) 등의 연구에 따르면 청소년은 성인에 비하여 1970년대 말에 비하여 국가보다 자신과 가족을 우선하고 있으며, 자신의 생각을 보다 적극적으로 표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세대차가 커지는 경향을 보였다. 이러한 세대 차이는 다른 연구에서도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다. 김명언·김의철·박영신(2000)은 청소년과 성인세대 간의 가치관 차이를 흥미롭게 비교·분석하고 있다. 이들의 연구에 따르면 청소년은 성인보다 가치관이나 역할행동에 있어서 보다 진보적이고 직업선택에 있어서도 안정적인 직업보다는 연예인이나 운동선수 등과 같이 인기 있는 직업을 더욱 부러워하였다. 이에 비하여 성인은 성역할이나 부모자녀관계 및 부부관계에 있어서 전통지향적인 보수성이 강하고, 자기효능감이 높을 뿐만 아니라 사회변화에 대한 적응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김명언 외, 2000). 가족 및 결혼에 대한 세대 간 가치관의 차이도 그 중의 하나이다.

정명숙·김혜리의 연구(2005)에 따르면 가족주의와 관련하여 노인이 성인 및 중·고등학생 보다 보수적이고 전통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흥미로운 것은 고등학생과 대학생이 중학생에 비하여 가족중심 가치관이 약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결혼에 대한 가치관에 있어서도 비슷한 결과를 보였는데, 결혼을 중시하는 태도는 '노인>성인>청소년'의 순서로 나타났으며, 청소년 집단만을 살펴보면, '대학생>중학생>고등학생'의 순서로 나타났다. 이러한 사실은 가족과 결혼에 대한 가치관에 있어서 나이가 어릴수록 가족이나 결혼의 중요성이 줄어드는 결혼가치관에 있어서 세대차이가 존재할 뿐만 아니라 비슷

한 연령 집단에서도 상당한 차이가 존재한다는 것을 암시한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가족 및 결혼을 중시하는 생각은 비교적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정태연·한광희(2001)도 한국의 의식구조에서 청소년과 성인 세대 간에는 가치관에 있어서 유사점이 존재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이가 더욱 크다는 연구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청소년과 성인의 가치관이 반드시 다른 것만은 아니다. 김명언 등(2000)의 연구에 따르면 청소년과 성인세대 모두 가정의 화목을 생활의 목표로 삼고 있는 정도가 높았다. 뿐만 아니라 성인과 마찬가지로 청소년도 행복한 가정, 부모에 대한 효도, 화목한 가정생활 등을 목표로 하는 정도가 높게 나타나 전통적인 가족가치관이 유지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김명언 외, 2000). 김경신(1998)은 노년, 중년, 청소년 세대의 가족가치관을 체계적으로 비교·분석하여 <표 4-5>와 같은 결과를 제시한 바 있다. 연구결과 청소년 세대의 경우 결혼과 가족의 중요성을 제외하고 다른 가치관에서 모두 중간점(3점) 이하를 보여 노년 및 중년 세대와 비교하여 전통적 가치관이 약화되었음을 알 수 있다.

〈표 4-5〉 가족가치관의 일반적 경향 및 세대별 차이

구분	노년		중년		청소년		F
	Mean	SD	Mean	SD	Mean	SD	
결혼관	3.44	0.51	3.07	0.38	2.39	0.43	469.49***
결혼의 필요성	4.45	0.69	4.05	0.70	3.51	0.51	112.95***
이혼·재혼관	3.79	0.99	3.20	1.02	2.31	1.06	154.42***
자녀관	3.70	0.70	3.02	0.60	2.39	0.60	312.69***
자녀의 필요성	3.98	0.75	3.41	0.74	2.91	0.85	131.77***
남아선호사상	3.69	0.97	2.63	0.84	1.82	0.78	340.86***
가족관(부양·효도관)	3.39	0.55	3.01	0.51	2.88	0.46	75.87***
가족의 중요성	4.23	0.59	4.05	0.57	3.76	0.68	45.17***
가족주의 가치관	3.91	0.54	3.47	0.48	3.02	0.51	219.34***

주: ***p<.001, 평균의 경우 3점이 중간점이다.
자료: 김경신, 『가족가치관의 세대별 비교연구』, 1998.

제 4절 외국 청소년의 가치와 가치교육

1. 일본

일본에서는 1990년대 중반부터 출생률이 낮아지는 경향을 반전시키기 위하여 사회의식을 개선하고, 가족의 중요성을 재인식하며, 젊은 세대의 불안감의 원인을 종합적으로 대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소자화(少子化) 대책을 수립하여 실시하여 오고 있다. 구체적으로 '엔젤계획'(Angel Plan, 1994년)과 '신엔젤계획'(New Angel Plan, 1999년), 2004년에는 '新新엔젤계획'(New New Angel Plan)을 수립하고 이에 기초하여 소자화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일본에서는 소자화의 가장 주된 원인으로 만혼화(晩婚化)의 진행으로 인하여 미혼율이 증가하게 된 것을 들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현상은 일과 자녀 양육을 함께 해야 한다는 부담감과 자녀 양육에 대한 부담감이 늘어났기 때문으로 파악하고 있다. 따라서 일본에서는 소자화 대책의 기본 방향을 일과 자녀 양육의 양립에 대한 부담감과 자녀 양육의 부담감을 완화하고 제거함으로써 안심하고 자녀를 낳아 양육할 수 있는 좋은 환경을 조성하여, 가정과 자녀 양육에 꿈과 희망을 갖는 것이 가능한 사회를 만드는 것에 두고 있다(文部科學省, 1998).

소자화의 진행을 막기 위하여 일본 정부가 실시한 정부에 대한 요구조사 결과에 따르면 경제적 지원의 충실(70.1%), 안심하고 자녀를 양육할 수 있는 생활환경의 정비(64.0%), 보육소의 증설(55.0%), 재취업 환경의 정비(54.6%), 세심한 보육 서비스의 충실(52.5%)의 순서로 나타났다. 자녀 양육의 소중함에 관한 교육과 계발(29.6%)은 비교적 요구 정도가 낮았다(文部科學省, 2006).

〈표 4-6〉 일본 소자화 사회 대책의 관점과 주요 과제, 2005

3대 관점	4대 중점 과제
1. 자립에 대한 희망과 힘	1. 청소년의 자립과 씩씩한 아동의 육성
2. 불안과 장벽의 제거	2. 일과 가정의 양립 지원과 운영개선
3. 새로운 양육지원과 연대	3. 생명의 소중함과 가정의 역할에 대한 이해
	4. 새로운 양육지원과 연대

자료: 일본 文部科學省, 2005.

일본에서는 청소년의 육성을 효과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청소년의 현황과 문제의 소재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인식 아래 내각부 소속 공생사회(共生社會) 정책총괄과에서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가치관에 관한 다양한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조사 결과, 일본에서도 가족 형태의 변화와 더불어 결혼관, 이혼관, 자식관 그리고 부부관에서 상당한 변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의 내각부에서 실시한 청소년의 사회적 자립에 관한 의식조사(2004)에서는 청소년의 결혼관과 자녀관을 조사하고 있다. 2004년 15~30세까지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실시한 의식조사에 따르면, 결혼에 대한 희망을 묻는 질문에서 기혼자(12.7%)를 제외하고, 미혼자 중에서 가장 많은 응답은 '지금은 하고 싶지 않지만, 결혼할 것이다'라는 사람이 54.1%에 달하였다. 다음으로 '좋은 상대가 있으면 하고 싶지만, 반드시 할 필요는 없다'(16.8%), '빨리 하고 싶다'(4.7%), '결혼할 마음이 없다'(4.4%), '곧 결혼할 예정이다'(2.1%)의 순서로 나타났다. 성과 연령별에 따라 살펴보면 나이가 들수록 결혼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가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7〉 성·연령별 결혼에 대한 희망, 2004(일본)

구분	사례수	기혼	①	②	③	④	⑤	⑥
총계	4,091	12.7	2.1	4.7	54.1	16.8	4.4	5.3
남자(계)	1,917	8.4	1.8	4.2	56.2	16.1	5.7	7.7
15~17세	433	0.0	0.0	2.8	59.8	15.0	6.9	15.5
18~20세	475	0.8	0.0	3.4	63.4	19.8	5.3	7.4
21~23세	341	5.0	0.9	5.3	66.0	15.0	4.7	3.2
24~26세	303	13.2	3.6	6.6	48.2	14.5	6.9	6.9
27~30세	365	27.4	5.5	3.8	40.0	14.8	4.7	3.8
여자(계)	2,174	16.4	2.3	5.2	52.2	17.4	3.3	3.1
15~17세	441	0.0	0.2	3.6	65.3	20.2	4.8	5.9
18~20세	447	2.5	0.0	6.5	65.1	19.0	4.0	2.9
21~23세	398	6.3	1.8	6.8	64.6	16.1	2.8	1.8
24~26세	379	21.9	5.3	6.9	43.8	16.6	2.4	3.2
27~30세	509	46.8	4.5	3.1	26.1	15.1	2.6	1.8

주: ① 곧 결혼할 예정이다, ② 빨리하고 싶다, ③ 지금은 하고 싶지 않지만, 결혼할 것이다, ④ 좋은 상대가 있으면 하고 싶지만, 반드시 할 필요는 없다, ⑤ 결혼할 마음이 없다, ⑥ 잘 모르겠다.
자료: 일본 內閣府, 『青少年の社會的自立に關する意識調査結果』, 2004.

한편, 성인을 대상으로 한 육아관을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부모의 가치관이 자식에게 전달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생각하는 비율이 높았다. 특히, '부모가 자식의 일생을 책임질 의무가 있다'는 물음에 대해서는 조사 대상 부모의 절반 이상(64.3%)이 동의하였다.

〈표 4-8〉 육아관, 2004(일본)

구분	사례수	그렇다	그런 편이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전혀 그렇지 않다	모르겠다
부모는 자식의 일생을 책임질 의무가 있다	4,078	30.1	34.1	27.9	7.3	0.5
자식에게 전해주고 싶은 사고방식이나 가치가 있다	4,078	46.9	40.3	10.4	1.7	0.7
자식은 부모가 생각하는 대로 되지 않는다	4,078	60.0	31.3	6.5	1.8	0.4
자식은 관심을 두지 않아도 자란다	4,078	7.3	23.3	41.4	27.3	0.7
자식의 말을 가능한 듣는 것이 중요 하다	4,078	72.6	24.8	1.6	0.8	0.2

자료: 일본 內閣府, 『青少年の社會的自立に關する意識調査結果』, 2004.

일본에서는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하여 다양한 교육정책을 도입하여 추진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지역교육력 재생계획이 있다. 문부과학성은 청소년 문제행동의 심각화에도 불구하고 청소년 봉사 및 체험 활동이 부족하고 다양한 문화체험을 할 수 있는 기회가 감소되고 있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하여 지역의 교육력을 재생하고 극대화하는 '지역교육력 재생 계획'을 2005년부터 실시하고 있다(文部科學省, 2006). 또한 청소년의 건강을 위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예를 들어, AIDS교육정보 네트워크를 만들어 AIDS 교육에 관한 최신의 정보를 초·중등학교 교사를 포함한 교육 관련자들에게 제공하고 있다(http://www.hokenkai.or.jp/).

그러나 무엇보다도 일본에서 청소년 가치관 교육은 공생사회론과 함께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공생사회(共生社會) 건설을 기치로 내걸고 모든 개인이 자신의 존엄성을 가지고 자립할 수 있으며, 사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사회를 말한다. 국가의 경제성장이나 사회안정이 궁극적으로 사람들의 힘에 의존한다는 인식 아래, 소자화와 고령화, 생활방식의 다양화라는 사회변화에 발맞추어 '자립'(自立)과 '공조'(共助)의 정신에 기초하여 사람과 사람 사이의 새로운 관계를

구축할 필요가 생겨났다. 이를 위하여 모든 국민의 자녀와 청소년을 육성하고 지원하며, 나이나 장애 유무에 관계없이 안심하고 인생을 보낼 수 있는 '공생사회'를 주창하게 된 것이다(http://www8.cao.go.jp/kyousei/index.html). 이처럼 일본에서의 청소년 가치관 정립은 소자화 대책, 고령화 대책, 장애자 대책 등과 함께 종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2. 미국

미국 인구조사국(Population Reference Bureau, PRB)에서는 청소년의 삶에 있어서 중요한 주제인 학교교육, 건강, 결혼, 그리고 자녀양육에 관한 연구를 지속적으로 수행하여 오고 있다. 청소년 가치관과 관련된 대표적인 몇 가지 연구결과를 제시하면 <표 4-9>와 같다.

〈표 4-9〉 가족·일·공동체에 대한 청소년의 태도: 12학년 중심, 1999(미국)

(단위: %)

구분	전체	성별		인종		부모의 교육 수준(1998)	
		남자	여자	백인	흑인	고졸 이하	고졸 초과
좋은 결혼을 하고 가족을 갖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77.7	74.1	83.1	79.0	75.5	76.0	77.5
앞으로 결혼을 선택할 것이다	80.8	79.2	83.7	85.2	71.1	79.9	81.2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인가를 알아보기 위하여 혼전에 동거하는 것도 가능하다	36.5	38.9	34.4	35.0	46.1	41.6	31.4
혼외로 태어난 자녀를 기르는 사람들은 도덕성을 위반하며 사회에 파괴적이다	33.8	37.9	30.0	36.6	27.1	35.9	45.0
취업한 어머니도 전업주부와 마찬가지로 자녀와 안정적인 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	69.0	57.2	80.0	66.2	83.6	70.9	67.5
취학전 아동의 경우 어머니가 취업하였을 경우 고통을 느낄 것이다	30.0	41.2	19.5	31.8	19.9	33.6	31.0
아버지가 되는 것과 양육은 남자의 가장 만족스러운 경험 중의 하나이다	48.7	50.2	47.5	47.2	60.3	50.6	48.6

자료: Population Reference Bureau, *Monitoring the Future:* 1998~199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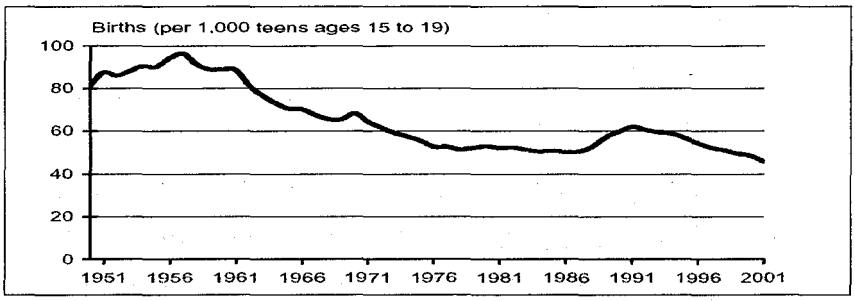
12학년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혼관과 가족관을 살펴보면 '좋은 결혼을 하고 좋은 가족을 갖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77.7%에 달하였다. 남성은 74.1%인 반면에 여성은 83.1%로 다소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비율은 약

10여 년 동안(1985년 74.3%, 1990년 77.7%, 1995년 78.1%) 큰 변화 없이 유지되고 있다(Brown, 2001).

미국 청소년의 경우 가난한 가족 출신의 청소년이 한부모가족, 실업자인 부모, 장애, 조기 중퇴, 학교에도 다니지 않고 일도 하지 않는 10대(idle teens)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의 빈곤과 사회적, 정서적, 신체적 발달 사이에는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이다(Mather and Adams, 2006). 2005년의 경우 16-19세 청소년 중에서 이러한 특징을 보이는 집단의 규모는 약 8% 정도로 나타났다(National Institute of Child Health and Human Development, 2006). 가정이 경제적 문제로 스트레스를 경험할수록 청소년들은 부정적인 사회적, 경제적, 신체적 결과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양친 부모와 함께 생활하는 청소년(0~17세)은 전체 인구의 67%로 나타났다(National Institute of Child Health and Human Development, 2006)

한편, 미국은 10대 부모가 가장 많은 나라 중의 하나이다. 10대(15~19세) 출산율은 1950~60년대를 기점으로 지속적으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그 규모는 상당한 수준이다. 2001년 현재 15~19세 여성 인구 1,000명 당 약 45.8명이 자녀를 낳아 양육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0대 출산율은 감소 추세에 있지만, 결혼한 10대 여성의 경우 출산율이 21%에 불과한 반면 결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출산하는 여성의 비율은 여전히 높다. 또한 흑인 10대의 출산율은 백인 10대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높았다(AmeriStat staff, 2003).

[그림 4-3] 미국 10대의 출산율 추이, 1950~2001



자료: AmeriStat staff, *Declining Fertility Among Teenagers*, 2003.

미국에서는 위기에 처한 청소년(At-Risk-Youth)을 위한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실천하고 있다. 예를 들어, 지역사회를 개선하고 사회적 자본을 키우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Making Connections와 같은 프로그램을 경험한 청소년들에게서는 돌봄, 평등, 사회정의, 통합, 정직, 책임감 등과 같은 긍정적인 가치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3. 호주

호주 청소년들은 가족관계(72.3%), 친구관계(66.8%), 독립심(35.2%) 등을 다른 것들보다 중요한 가치로 생각하고 있었다(National Survey of Young Australians, 2006). 예전에 비하여 가족이나 친구관계에 대한 중요성이 약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며(2005년 73.3%에서 2006년 72.3%), 반면에 취업은 다소 높아졌다(2005년 17.6%에서 2006년 20.3%). 성별에 따라 살펴보면, 여자가 남자에 비하여 가족관계와 친구관계 모두 우선순위가 높았으며, 남자는 취업이나 재정적 안정 등 현실적인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었다. 뿐만 아니라 연령에 따른 차이도 발견되었다. 모든 연령집단에서 가족관계는 가장 중요한 가치로 평가받았다. 나이가 어릴수록 친구관계를 더욱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독립심은 나이가 많을수록 더 높은 가치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4-10〉 호주 청소년들의 가치 우선순위(2006)

구분	전체	성별		연령		
		남자	여자	11~14세	15~19세	20~24세
가족관계	72.3	64.9	76.9	73.3	71.6	72.0
친구관계(우정)	66.8	58.5	71.8	67.1	67.6	55.7
독립심	35.2	36.6	34.4	31.5	37.7	39.8
자신에 대한 가치·필요성	29.3	24.9	31.8	28.2	29.4	36.4
학교만족도	24.9	24.0	25.5	27.5	24.5	8.7
취업	20.3	30.4	14.5	22.3	18.5	22.6
재정 안정	16.2	20.9	13.5	13.0	16.9	33.7
영성, 믿음	13.9	13.8	13.7	13.2	14.0	17.9
동료 수용	12.2	14.6	10.7	14.4	11.2	4.4
환경문제	8.9	11.2	7.4	9.5	8.5	8.4

자료: National Survey of Young Australians, 2006.

호주는 가치관 교육을 가장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국가 중의 하나이다. 호주 정부는 21세기 학교교육을 위한 국가목표를 설정하고, 그 목표 중의 하나로 가치관 교육을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 호주에서 실시하고 있는 가치관 교육의 목적은 비단 결혼이나 가족에 관한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이 다양한 가치를 이해할 수 있도록 가치에 관한 지식을 전달하고 학생들이 사회 구성원으로 살아가는데 필요한 기술과 성향을 개발하도록 돕는데 목적이 있다. 호주에서는 모든 학교가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방식으로 가치 교육을 제공하고 있다(Commonwealth of Australia, 2005). 가치교육과 관련하여 학교의 사명과 에토스를 명확히 설정하고, 지역적, 국가적, 세계적 맥락에서 학생들의 사회적 책무성을 개발하고 학생들의 원기와 사회적 기술 개발하며, 가치가 핵심 학습 영역에서 학교 정책 및 교수 프로그램과 조화를 이루도록 지원하고, 나아가 가치교육의 실제적 결과를 평가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Commonwealth of Australia, 2005).

호주 학교에서의 가치교육은 교육, 고용, 훈련, 청소년 위원회(Council on Education, Employment, Training and Youth Affairs, MCEETYA)가 주관하여 실시하고 있으며, 2002년에는 학교에서의 가치관 교육에 필요한 각종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된 교육과정기업(Curriculum Corporation)에서 가치교육 조사를 실시하였다. MCEETYA는 가치교육과 관련된 교육프로그램과 전문직 학습 자료를 개발하기 위하여 교육과정기업과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2005년 MCEETYA는 호주 학교에서 가치교육을 위한 국가계획(National Framework for Values Education in Australian Schools, 2005)을 발표하였다(Australian Government department of Education, 2006).

호주 정부는 2004년에서 2008년까지 4년에 걸쳐 학교에서의 가치관 교육을 집중적으로 실시할 계획을 세우고 많은 예산을 투자하고 있다. 1단계인 2005~2006년에는 교육과정과 전문적 학습 자원을 개발하여 모든 학교에서 실시하는 다양한 가치교육의 통합하는데 활용할 예정이며, 2단계(2006~2007)에는 실제 생활에서 적용할 수 있는 학생의 행동과 사회적 기술에 관한 가치를 통합하여 학교에서 가르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3단계(2007~2008)는 학교가 다문화적 그리고 세계화 시대의 가치를 탐색하도록 지원할 계획을 수립

하고 있다. 이 계획에서는 학교에서 가르쳐져야 하는 핵심 가치로 돌봄(care)과 연민(compassion), 최선을 다하는 것, 공정(fair go: 공동선의 추구와 보호), 자유(freedom), 정직과 신뢰, 통합(integrity), 존경(respect), 책임감, 이해, 관용, 포용(타자와 타자의 문화를 인정하고 민주사회에서 다양성을 기르며, 타자를 포용하는 능력)의 9가지를 제시하고 있다(Commonwealth of Australia, 2005).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결혼·가족·출산과 관련된 가치관 교육도 이러한 국가계획의 큰 틀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모든 핵심 학습 영역(Key Learning Areas, KLA)에서 가치관 교육에 관련된 학습자료를 DVD와 포스터로 제작하여 배포하고 있다.

제 5 절 미래세대의 결혼·자녀 가치관 정립 방안

1. 청소년 가치관 정립의 방향

초·중등학생의 가치관 정립이란 넓은 의미에서 가치관 교육[4]을 통한 가치관 형성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가치관 교육이란 "교사가 아동과 학생들이 가치를 형성하고 가치를 판단하여 가치관을 수립할 수 있도록 그들을 도와주는 일"(남궁달화, 2002)이다. 앞에서도 살펴본 바와 같이 가치라는 것이 개개인의 신념에 기초한 것이기 때문에 특정한 가치를 직접적으로 가르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초·중등학생의 가치관 정립이란 구체적인 '가치'를 정립시키는 것이 아니라 '가치에 관하여' 교육하는 것을 말한다.

이런 점에서 저출산·고령화 사회에서 초·중등학생들로 하여금 가족과 결혼에 대하여 친화적인 가치관을 갖도록 한다는 것의 진정한 의미는 결혼과 가족에 관한 특정 가치관을 초·중등학생들이 갖도록 교육시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대신에 초·중등학생을 대상으로 그들이 결혼·가족·출산에 친화적인 가치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가치를 판단하고 가치관을 정립할 수 있도록 교육적

4) 남궁달화(2002)는 가치관이 가치에 대한 관점 또는 견해를 의미한다는 점에서 가치교육과 가치관교육을 같은 의미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한다. 여기에서도 두 용어를 같은 의미로 사용한다.

으로 지원하는 일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초·중등학생의 결혼·가족·출산에 친화적인 가치관 정립의 원칙과 그 방향은 다음과 같이 설정할 수 있다.

가. 초·중등학생의 결혼·가족·출산 친화적 가치관 정립의 원칙

초·중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가치관 정립의 목표는 초·중등학생들을 정신적·육체적으로 더욱 건강하게 만드는데 도움을 주는 것이어야 한다. 초·중등학생들이 결혼·가족·출산의 소중한 가치를 적극적으로 이해하도록 하고, 이러한 가치관이 초·중등학생 개인은 물론이고 모든 사회 구성원의 행복(well-being)을 증진하는데 기여한다는 것을 인식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 초·중등학생이 친사회적(prosocial) 가치를 습득하고, 결혼·가족·출산 친화적 가치관 정립을 통하여 사회적 책무성을 기르도록 하여야 한다. 초·중등학생의 결혼·가족·출산 가치관은 다음과 같은 인간 존엄성의 핵심 가치와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표 4-11〉 인간 존엄성을 유지하는 핵심 가치와 관련된 가치들

핵심 가치	관련된 가치들
건강과 자연과의 조화	총체적 건강, 생명외의 외경, 육체적 건강, 환경보호
진리와 지혜	비판적인 사고, 통합적 사고, 계몽, 통찰력, 미래 지향, 과학적 인본주의
사랑과 열정	자아가치, 자기확신, 자아실현, 정직과 성실, 자기 훈련, 감정이입, 보살핌과 나눔
창의성과 미적 감각	상상, 직관적인 느낌, 예술적 표현, 감수성
평화와 정의	인권 존중, 사회적 책임, 관용, 평등, 협동, 적극적 비폭력
지속가능한 인간 발달	경제적 정의와 형평성, 생산성과 능력, 자원 관리, 직업윤리, 근면성, 소박함
국가적 통합과 지구적 연대	애국심, 상호협력, 민주주의, 국제적인 이해, 자발적이고 책임 있는 시민의식, 세계 평화, 다양함 속의 통일성
전지구적 정신	믿음, 종교적 관용, 내적 평화, 통합과 긴밀함

자료: UNESCO, *Learning to be: A holistic and integrated approach to values education for human development*, 2002.

나. 청소년의 결혼·가족·출산 친화적 가치관 정립의 방향

1) 초·중등학생의 결혼·가족·출산에 친화적인 가치관 정립은 장기적 관점에서 진행되어야 한다.

결혼·가족·출산 친화적 가치관 정립은 인구 구조의 변동과 관련하여 장기적

관점에서 그 방향이 모색되어야 한다. 인구가 부족하니 출산을 장려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계몽적 태도'를 초·중등학생들에게 전달하는 것으로는 기대하는 성과를 거두기 어렵다. 단순히 출산억제 혹은 출산장려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하고 가르치는 것은 가치관 교육의 역기능만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 가치관의 변화는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하며, 세대간 가치관 차이는 더욱 많은 기간이 소요된다. 따라서 장기적인 인구구조의 변동을 전망하고 거시적인 사회발전의 틀 안에서 가치관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2) 초·중등학생에게 초점을 맞춘 가치관 정립이어야 한다.

전통적인 가치관 교육은 성인, 교사 중심으로 성인 세대가 가치 있는 것으로 판단한 내용을 선정하여 그것을 초·중등학생들에게 전달하는 방식을 취하였다. 그러한 새로운 접근 방법은 가치의 내용 보다는 가치화 과정을 중시하며, 교사나 성인보다는 가치를 실제로 선택하고 그것에 따라 행동하는 초·중등학생에 초점을 맞추어 이루어지는 것이 보통이다. 따라서 초·중등학생의 결혼·가족·출산 친화적 가치관 정립도 국가적으로 특정한 내용을 선정하고 그것을 일방적으로 초·중등학생들에게 전달하는 형태를 지양하여야 한다. 성인 혹은 교사 중심, 내용 중심에서 초·중등학생과 학습자 중심 그리고 과정과 문제해결 중심의 가치관 교육이 실시되어야 한다.

3) 가치관 교육에 대한 통합적(Holistic) 접근이 필요하다.

가치관 교육에 관해서는 다양한 이론과 모형이 존재한다.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가 가치 갈등과 도덕적 분열 때문에 병들어 간다고 주장하고, 올바른 가치와 도덕적 원리가 학교에서 가르쳐져야 한다는 가치관 교육 긍정론이 있는 반면에, 기본적으로 학교는 중립적인 곳이어야 하므로 특정한 가치를 전달하는 교육을 담당할 수 없다는 가치관 교육 부정론이 있다. Hofmann(2002)는 Oser의 구분을 중심으로 가치관 교육을 다음과 같이 8가지로 정리하고 있다.

〈표 4-12〉 가치관 교육의 주요 모형(Oser)

저자	가치교육의 기본 개념.
1. Powell, Farrar & Cohen(1985)	학교교육의 일부로 도덕교육은 가능하지 않다
2. Brezinka(1986)	공적인 가치 환경을 위하여 필요하다
3. Kirschenbaum(1972)	가치명료화이다
4. 많은 연구자	선, 올바른 가치를 전달하는 것이다
5. Hall(1979)	가치명료화와 가치전달을 연결하는 가치분석이다
6. Kohlberg(1985)	도덕발달이다
7. Puka(1990)	비범한 것으로부터의 학습이다
8. Oser(2001)	현실주의적 담론이다

출처: N. Hofmann, *Value Education of Youth, Dissertation zur Erlangung des Grades einer Doktorin der Philosophie* (Dr. phil.), 37~45, 2002.

개인의 가치를 구성하는 핵심 개념 중의 하나인 신념과 선호도는 오랜 기간에 걸쳐 누적된 개인적 경험과 학습의 결과이다. 초·중등학생들은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문화와 사회제도와 지속적으로 상호작용하면서 자신의 신념을 형성하게 된다. 앞에서도 지적한 바와 같이, 개인의 가치관의 대부분은 경험적으로 혹은 논리적으로 검증되거나 우위가 결정되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 따라서 가치관 교육은 특정한 가치를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초·중등학생이 중심이 되어 다양한 가치를 통합적으로 이해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돕는 가치화 과정(valuing process)을 중시하여야 한다. UNESCO에서도 종합적이고 통합적인(holistic and integrated) 가치관 교육을 강조하고 있다. 가치관 교육에 대한 통합적 접근은 초·중등학생들이 결혼·가족·출산과 관련된 가치관의 특성과 의미 등을 맥락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이해하고 판단하는 능력을 키워나가는 과정을 중시한다(UNESCO, 2002).

4) 초·중등학생의 가치관 교육은 성인, 즉 부모 및 교사를 대상으로 하는 가치관 교육과 병행되어야 한다.

부모와 교사의 가치관은 초·중등학생의 가치관 형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그 중에서도 특히 부모의 가치관은 자녀의 가치관에 일정한 영향을 미친다. 가족과 결혼에 대한 가치는 가족이나 학교, 이웃, 종교 등을 통하여 세대에서 세대로 전수된다. 출산억제정책과 가족계획이 정당화되던 시절에 태어난 세대

를 부모로 삼고 있는 초·중등학생의 경우, 적극적인 출산 가치관을 부모로부터 영향 받을 가능성이 낮다. 교사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전통적인 가족가치관이나 이혼에 대하여 부정적인 가치관을 지닌 교사일수록 한 부모가족 초·중등학생을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었다(최명수·이인구, 2004). 뿐만 아니라 적지 않은 교사들은 남성 가장을 중심으로 하는 핵가족을 정상가족의 구조로 간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교사의 가족가치관은 학생들에 대한 태도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가치관 형성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따라서 초·중등학생 가치관 교육은 부모 세대와 함께 실시할 필요가 있다.

5) 초·중등학생의 가치관이 구체적인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는 실천 전략을 수립하여야 한다.

초·중등학생들에게 결혼·가족·출산에 친화적인 가치관을 정립하고, 이러한 가치관과 일치하는 행동체계를 갖출 수 있도록 구체적인 실천방안(action plan)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초·중등학생 세대의 결혼·가족·출산 관련 행동 특성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그에 따른 대처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김명언 외(2000)의 연구에 따르면 초·중등학생은 성인보다 회피양식이나 사회적 지원 추구양식을 더 많이 사용하며, 성인은 초·중등학생보다 적극적인 해결 양식을 더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초·중등학생의 행동 특성은 가치갈등을 경험하거나 구체적인 선택 행위를 할 경우에 체계적인 사회적 지원이 더 많이 필요하다는 것을 암시한다.

2. 초·중등학생의 결혼·가족·출산 친화적 가치관 정립 방안

초·중등학생의 결혼·가족·출산에 친화적 가치관 정립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은 다음과 같은 여러 수준에 따라 제시할 수 있다.

가. 결혼·가족·출산의 가치에 친화적인 사회적 분위기 형성

사회적으로 저출산 문제의 심각성이 증대되고 있으나, 결혼·가족·출산에 대

한 사회적 분위기는 여전히 소극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다. 우리 사회는 가부장적 유교문화로 인하여 전통적 성 역할 규범이 변함없이 일상을 지배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새롭게 출현하는 결혼과 가족 그리고 출산 유형에 대한 사회적 및 제도적 수용 정도가 비교적 낮은 편이다. 따라서 결혼과 가족 관련 가치관에 친화적인 문화를 형성하고, 그것이 초·중등학생들로 하여금 결혼과 가족에 친화적인 가치관을 형성할 수 있기 위해서는 사회적 의식개혁 운동이 추진될 필요가 있다. 한 연구에 따르면 저출산 추세를 막기 위하여 앞으로 정부가 추진하기바라는 출산정책 중에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는 출산정책은 공교육 정상화(51.9%), 양성평등문화정착(48.2%), 그리고 가족문화 만들기(33.6%)의 순서였다.

〈표 4-13〉 출산정책 중 본인에게 자녀출산을 고려하게 만드는 정책

요구되는 출산정책 대안	빈도(명)	백분율(%)
실업문제 해결	194	26.3
결혼문화 만들기	92	12.5
사회적 가족 가치교육	206	27.9
가족문화 만들기	248	33.6
사회의 양성평등문화 정착	356	48.2
공교육정상화	383	51.9
아동수당 도입	239	32.4
없음	50	6.8

자료: 장진경, 『미혼남녀의 결혼관과 출산 및 자녀관에 따른 출산정책 선호도 분석』, 2005.

이와 같이 결혼과 출산의 소중함을 인식할 수 있도록 사회의식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효율적인 가치관 전달 방법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 다음과 같은 것들을 제시할 수 있다.

1) 결혼과 출산 등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자녀 양육에 대한 심리적 불안을 해소할 수 있도록 결혼·가족·출산에 친화적인 사회적 의식개혁과 제도개혁을 추진한다.

초·중등학생들이 결혼과 출산의 소중한 가치를 새롭게 인식할 수 있도록 사회적 차원에서 의식개혁 운동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사회적 의식개혁은 결혼·가족·출산에 친화적인 가치를 유지하는 것이 개인과 사회의 책임이라는 점을 이해

하고, 이러한 가치를 실행하는데 장애가 되는 다양한 사회의 제도적 관행을 해소하는 제도개혁을 수반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 결혼·가족·출산의 사회적 의미에 대한 교육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일본에서는 '가정의 재생을 위한 국민운동'을 전개하고, '가정의 날'과 '가정 주간'을 제정하는 등 적극적으로 사회의식의 변화를 촉진하는 국민운동을 실시하고 있다. 민간 NGO등과 연대하여 결혼과 가족 그리고 출산에 대한 의식전환 시민운동을 전개할 필요도 있다.

2) 결혼·가족·출산에 친화적인 가치관 정립을 도울 경제 및 사회적 지원 정책을 확대·실시한다.

결혼·가족·출산에 친화적인 가치관을 지원할 다양한 사회정책을 수립하고 이러한 정책에 관한 정보와 의미를 초·중등학생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특히, 결혼과 가족에 친화적인 가치관에 따라 행동함으로써 발생하게 될 불이익을 극복할 수 있는 사회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경제정책과 통합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양육비 및 교육비 지원은 그 적절한 예이다.

3) 출산으로 인한 불이익(fertility penalty)에 대한 불만과 두려움을 해소하는 방안을 수립한다.

초·중등학생들이 미래 삶에 대하여 불안하거나 확신을 가지지 못할 경우 결혼·가족·출산에 대하여 부정적인 태도를 보일 가능성이 많다. 특히 출산을 담당할 여성의 경우 출산이 또 다른 불이익의 원인이 된다면 출산을 선택할 가능성이 낮다. 초·중등학생들이 현재의 삶이 즐겁고 미래의 삶에 대한 불안과 근심이 적을수록 출산과 가족 친화적 가치관을 가질 가능성이 크다.

이런 점에서 자녀들에게 자신의 신나는 삶의 경험을 대물림해주고 싶을 정도로 우리의 삶이 정의롭고 인간미가 넘치며 행복해야 한다. 저출산 관련 정책에서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는 집단은 여성이다. 여성을 가구주로 하는 한 부모 가족의 경우 다른 형태의 가구에 비해 빈곤의 정도가 심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현실적으로 출산을 선택한 여성들은 '출산으로 인한 불이익'(fertility penalty)을 경험하고 있다. 영국에서 수행된 조사에 따르면 20대 초반에 출산을

선택한 여성의 경우 약 1/3 정도의 여성이 출산 이전에 비해 낮은 수준의 직업을 갖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러한 현실에서 가임 여성의 사회적 덕성에 기대어 자녀 출산을 장려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대신에 출산한 여성의 불이익을 극복을 위한 다양한 교육지원정책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출산한 여성의 고등교육에 대한 접근기회 확대와 평생학습기회의 반복적 제공, 교육비 지원은 물론이고 자녀의 교육에 대한 사회적 지원을 확대하여야 한다. 출산에 친화적인 가치관 정립과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제도적 노력이 병행되어야 한다.

4) 양성평등과 여성에 대한 권한 부여(empowerment)를 촉진함으로써 결혼·가족·출산에 친화적인 가치관을 형성한다.

'출산으로 인한 불이익'을 보완하는 제도적 노력과 함께 사회적으로 성평등 문화를 조성하고 여성에 대한 보다 많은 권한부여를 통하여 미혼 여성들이 결혼과 출산에 적극적인 태도를 갖도록 정서적 지원을 강화하여야 한다. 가정, 학교, 그리고 직장에서 양성 평등 문화를 조성하는 것은 초·중등학생의 가치관 형성에 결정적이다. 따라서 양성 평등에 실제로 도움이 되는 다양한 제도 개혁을 추진하여야 하며, 동시에 일과 육아가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출산과 아동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무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수립하여야 한다. 초·중등학생들에게 가사노동과 아동양육이 여성의 전유물이 아니라 개인과 사회의 공동 책임이라는 인식을 강화하는 가치관 정립 방안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나. 결혼·가족·출산에 관한 친화적인 학교 문화 조성

가치관 정립과 관련하여 학교의 역할은 이미 발달하기 시작한 초·중등학생의 가치를 보충하는 것이다(Halstead and Taylor, 2000). 학교는 사회적으로 통용되는 일련의 가치를 제시하고 학생들로 하여금 경험하게 함으로써 사회화 역할을 담당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학교에서 가치들을 어떻게 다루고, 접근하며, 분석하고 평가할 것이냐 하는 점은 가치관 정립과 관련하여 매우 중요하다. 이런 점에서 생명과 가족의 중요성에 대한 이해를 촉진하고, 결혼·가족·출산의

중요성에 관한 친화적 사회·학교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방안이 추진될 필요가 있다.

1) 결혼·가족·출산에 친화적인 가치관을 다룬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교과서를 개편하여 적극적으로 교육하는 방안을 수립한다.

학교에서의 가치관 교육은 크게 형식적 교육과정, 잠재적 교육과정 그리고 상호작용을 통하여 이루어진다. 일반적으로 학교는 학업성취를 목표로 하는 교과교육이 중심이지만, 동시에 학생의 가치와 행동에 관한 사회화 기능도 담당한다. 따라서 결혼·가족·출산에 친화적인 가치관을 정립하기 위해서는 학교의 교육과정과 풍토(ethos)가 이들 가치관에 보다 친화적인 윤리적 환경으로 변화하는 것이 필수적이다(Haydon, 2004). Haydon(2004)에 따르면 초·중등학생들이 결혼과 출산 등과 관련된 다양한 가치관을 이해하고 그 다양성을 존중하면서 적극적으로 판단할 수 있기 위해서는 특정한 표준화된 교육과정과 모델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해석의 개방성'(openness to interpretation)이 가능한 윤리적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우리의 경우 출산억제정책에 관한 학습 효과가 여전히 강력하기 때문에 새로운 출산 장려 정책에 관한 교육과 가치갈등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

2) 초·중등학생의 결혼·가족·출산에 친화적인 가치관 정립에 필요한 다양한 교수·학습 자원(교재개발과 교수학습방법)을 개발한다.

가치관 형성은 초·중등학생의 개인적 수준의 덕성에 기초하여 저절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가치에 관한 교육활동을 통하여 가능하다. 따라서 가치관 형성에 필요한 다양한 교육적 자원을 풍부하게 마련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교육적 가치 활동을 위해 필요한 자원에는 가치에 관한 다양한 이론적 지평을 제공할 이론적 수준의 자원과 그것을 구체적인 상황에서 적용할 있도록 돕는 실천적 수준의 자원이 있다. 초·중등학생의 결혼·가족·출산에 친화적인 가치관을 정립하기 위해서는 이론적 및 실천적 수준에서 활용할 교수·학습 자원을 개발하는 것이 시급하다. 특히 결혼·가족·출산에 관련된 학습 자료를 개발하여 보급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3) 인구교육을 위한 체계적 연구와 지원체제를 구축하고, 이를 통하여 결혼·가족·출산에 친화적인 가치관을 정립하도록 한다.

학교 내의 인구교육에 대한 종합적인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 교육은 학습자를 사회화하거나 문화적 가치를 내재화하는 사회적 가치와 규범의 재생산 기능을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담당할 것인가 하는 점에 집중하였다. 이에 비하여 생물학적 재생산에 대한 노력을 많이 기울이지 않았다. 이런 점에서 사회의 유지에 필수적인 생물학적 재생산을 다루는 인구교육에 관한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인구교육은 적절한 교육내용의 개발, 체계적인 교과서, 그리고 훈련받은 교사를 필요로 한다. 이를 위해 정부와 민간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인구교육 T/F팀을 만들어 인구교육의 구체적인 교육내용을 개발하고, 교재를 편찬하며, 인구교육을 담당한 교사의 재교육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할 필요가 있다. 뿐만 아니라 교사와 학부모 그리고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인구교육도 추진될 필요가 있다. 체계적인 인구교육을 통하여 결혼·가족·출산에 관한 다양한 정보와 그 의미를 체계적으로 전달하여 초·중등학생들이 이해하도록 함으로써 자신들의 가치관을 정립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할 수 있다.

4) 결혼·가족·출산 친화적 가치를 정립하는데 필요한 생활기술(Life Skills)을 개발한다.

생활기술(life skills)이란 초·중등학생들로 하여금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나 믿고 있는 가치를 구체적인 행동으로 바꿀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UNESCO, 2002). 생활기술은 초·중등학생들로 하여금 긍정적인 결과를 얻도록 다른 사람 혹은 상황과 적절하게 상호작용하는 것을 돕는 기능을 한다. 생활기술에는 비판적 추론, 위험 분석, 자신의 행동 통제, 심화된 지식 및 기술의 습득, 상호 보상 관계의 확립, 자신의 물리적, 사회적, 상징적 환경의 개선 등이 포함된다. 일본에서도 사회생활능력의 습득을 강조하고, 구체적인 내용으로 1) 사회와 사회변화에 대한 체계적인 이해와 지식의 습득, 2) 미디어를 비판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능력, 3) 규범의식의 함양, 4) 안전교육, 5) 봉사활동, 6) 학

교에서의 특별활동, 7) 체력의 향상, 8) 국제교류활동 등을 들고 있다(內閣府, 2006). 초·중등학생들은 이러한 생활기술을 체계적으로 습득함으로써 가치갈등과 가치판단에 적극적으로 행동할 수 있다. 또한 초·중등학생들이 성인세대로 성장하였을 경우, 경험하게 될 성인으로서의 사회적 역할에 관한 교육을 통하여 가치관 정립에 도움을 줄 필요가 있다.

다. 결혼·가족·출산에 친화적인 가치관 정립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초·중등학생의 결혼·가족·출산에 친화적인 가치관 정립을 위한 프로그램은 초·중등학생의 특성에 따라 다양하게 개발될 필요가 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초·중등학생은 성, 연령, 사회적 배경 등에 따라 가치관이 다르고, 가치관 형성 과정도 다르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가치관 정립 프로그램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1) 초·중등학생의 개별적 특성을 반영한 초·중등학생의 가치관 정립 프로그램을 체계적으로 개발한다.

초·중등학생들이 보다 성숙한 도덕적 삶을 영위하기 위하여 가치의 여러 측면에 대한 예민한 감수성을 갖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초·중등학생이 가치에 대한 예민한 감수성을 기를 수 있도록 초·중등학생의 특성을 반영한 가치관 정립 프로그램을 개발하여야 한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는 초·중등학생의 특성을 무시한 통일되고 일반화된 프로그램이 필요하지만, 적극적으로 초·중등학생의 특성을 고려하여 가치관 교육을 실시할 필요도 있다. 초·중등학생의 연령에 따른 차별화된 가치관 정립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특히 한 부모 가족, 조부모 가족, 소년소녀 가장, 노숙자 자녀, 시설 및 기관에 수용된 초·중등학생 등을 대상으로 손상된 혹은 결핍된 결혼과 가족 가치관을 회복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 뿐만 아니라 앞으로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재혼가족 초·중등학생을 대상으로 가족형태의 다양성과 가족가치관의 변화된 의미를 체계적으로 이해하고 적응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야 한다. 이러한 가치관 정립 노력은 다양한 상담 활동과 연계될 필요가 있다.

2) 출산력을 지닌 미혼 여성, 초·중등학생을 위한 가치관 정립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결혼 연령이 늦어지게 되면, 출산, 사회생활, 교육, 건강 등과 같은 여러 부문에서 어려움을 겪게 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나이든 미혼자를 대상으로 생식보건(재생산을 위한 건강, reproductive health)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이 개발될 필요가 있다. 초·중등학생의 생물학적 건강이 다양한 요인들에 의해 위협받고 있다. 영양상태의 개선으로 인하여 신체적 성숙과 그에 따른 월경이 빨라지고, 성적 관계를 경험하는 연령이 낮아지며, 결혼 연령은 늦어지는 등 초·중등학생의 생물학적 재생산관 관련된 건강 환경이 예전과 다르게 급변하고 있다. 특히, 초·중등학생을 둘러싼 성적(sexual) 환경과 의식의 변화는 피임, 임신, 출산, 유산은 물론이고 후천성 면역결핍(HIV/AIDS) 등과 같이 건강을 위협하는 다양한 환경에 노출되어 있다. 따라서 출산과 관련된 가치관을 정립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인 건강에 관한 정보뿐만 아니라 피임법, 임신과 출산 등 성과 관련된 활동에 관련된 정보와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성교육을 병행하여야 한다. 미국에서는 10대의 임신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대표적인 것을 지적하면, 공립학교에서 임신 예방교육, HIV 예방교육, STD교육, 10대를 위한 가족계획서비스, 피임교육, 피임상담, 학교기반 절제교육, 미디어 캠페인 등이 있다.

3) 새터민, 이민자 등과 같이 우리 사회에 새롭게 편입된 초·중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가치관 정립 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초·중등학생 새터민 등과 같이 새롭게 우리 사회로 통합된 초·중등학생들의 가치관 정립을 전문적으로 지원할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 이질적인 문화와 가치관을 오래 동안 경험한 이들 초·중등학생들은 심각한 가치 혼돈과 가치 갈등을 경험할 가능성이 크다. 특히, 가족과 떨어져 있는 새터민 초·중등학생의 경우 건강한 가족가치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가치관 멘토링, 경제적 지원, 교육기회의 제공 등과 같은 사회적 지원을 강화하여야 한다. 이러한 가치관 교육은 다문화 이해교육과 병행하여 실시될 필요가 있다.

4) 성평등의 사회와 가족문화를 함양하고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체험형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한다.

대다수의 초·중등학생들은 결혼에 대하여 긍정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러한 사실이 실제로 결혼을 선택하고 자녀를 갖는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그러나 초·중등학생들은 직업생활이나 사회참여 등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결혼에 대한 긍정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결혼 때문에 사회활동이 제약받는다면 결혼을 적극적으로 선택하기 어렵게 된다. 이런 점에서 초·중등학생의 결혼가치관은 결혼만의 문제가 아니라 곧 사회정책의 연결을 통하여 접근해야 한다. 가정과 직장에서 성평등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필요한 제도를 도입하고, 동시에 적극적으로 남성 중심적 의식을 바꿀 필요가 있다. 남성도 적극적으로 가사와 육아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육아에 대한 공동 책임의식을 강화하고, 남자는 경제적 역할을 담당하고 여성은 가사와 육아를 담당한다는 성에 따른 역할 분담에 대한 태도를 변화시키는 체계적 노력이 있어야 한다. 특히, 가치관이 형성되는 시기에 있는 초·중등학생들에게 다양한 가치를 직접 체험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현장 체험형 프로그램을 다수 개발하여 보급할 필요가 있다.

5) 세대 간 공존의 가치관 정립을 위한 세대 간 이해 프로그램 개발이다.

미래 사회가 다세대 사회로 변화함으로써 '세대 간 공존'이 중요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수명의 연장과 그로 인한 인구의 고령화는 개인적 수준에서는 결혼, 출산, 부모, 조부모, 죽음, 이혼 등과 같은 생활 경험의 폭이 확장되는 것을 의미하며, 사회적으로는 부양비용의 증가, 고령 인구의 사회적 활용과 세대 갈등의 문제 등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문제에 대처하기 위하여 모든 세대가 연령 통합적 사고를 함양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하여 먼저, 세대 간 공존을 위한 학습기회를 확대한다. 다음으로 세대가 공존의 가치관을 함양할 수 있는 학습공간을 마련하고 삶의 경험을 공유할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의 개발이다.

라. 결혼·가족·출산 친화적 가치관 정립을 위한 지원 및 전달체제 구축

1) 결혼·가족·출산 친화적 가치관을 정립하기 위하여 교육, 연구 및 홍보 활동을 지원할 체제를 구축하고, 아울러 필요한 각종 자료를 데이터베이스화한 정보체제를 구축한다.

초·중등학생 가치관 정립을 위하여 가정-학교-지역사회가 유기적으로 연합하여 가치관 교육에 참여할 수 있는 지원체제를 마련한다. 아울러 인구구조의 변동, 사회변화, 외국 초·중등학생들의 삶, 그리고 저출산으로 인한 사회문제 등에 관한 정보를 종합적으로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고 이를 바탕으로 초·중등학생들이 가치 판단의 중요한 지침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아울러 지속적으로 초·중등학생의 가치관 변화에 관한 전국적인 규모의 조사연구를 실시하여 초·중등학생의 가치관에 대한 인식을 분석하여 가치관 정립을 위한 교육과 정책 개발에 활용하도록 한다. 초·중등학생 가치관의 변화와 그 원인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는 정책수립의 중요한 근거로 활용될 수 있다.

2) 초·중등학생 가치관 정립을 전문적으로 담당할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그 활용 방안을 모색한다.

초·중등학생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서로 다른 가치를 이해하고 다양한 관점에서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반응하기 위하여 초·중등학생의 가치관 교육을 전문적으로 담당할 인력을 양성·공급하는 방안도 장기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다. 사회와 학교 안과 밖에서 초·중등학생들의 결혼과 가족 그리고 출산 등에 관하여 체계적으로 정보를 제공하고 가치 판단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전문인력을 양성할 필요가 있다. 가치관 정립을 담당하는 전문인력은 초·중등학생이 가치 갈등이나 혼돈 상황에서 가치를 명료화하고, 가치 판단을 도우며, 궁극적으로 가치관을 형성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학교에서는 교사가 이러한 역할을 담당할 수 있으며, 가정에서는 부모가 그 역할을 대신할 수 있다. 따라서 부모와 교사 그리고 일반 성인을 대상으로 초·중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가치관 교육 지도과정을 개발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다.

3) 결혼·가족·출산 친화적 가치관에 관련된 정보를 효율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한다.

결혼·가족·출산 친화적 가치관의 정립을 위하여 효율적인 가치관 전달 방안을 수립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구체적으로 결혼과 출산 친화적 가치관을 담은 DVD, 비디오 등 교육매체를 제작하고 보급한다. 뿐만 아니라 인터넷을 통하여 초·중등학생들에게 제공할 결혼·가족·출산 친화적 가치관 콘텐츠를 개발하고 홈페이지를 제작하는 등 전달체제를 다변화할 필요가 있다.

4) 결혼·가족·출산 친화적 가치관 정립을 위한 정책적 관심을 더욱 확대해야 한다.

Haydon(2004)은 물리적 환경에 쏟는 관심처럼 윤리적 환경에도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정부는 법률 제정 등과 같은 제도적으로 가치관 교육에 접근하는 것을 지양하고, 대신에 초·중등학생들이 다양한 가치관 교육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는 지원 역할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하여 초·중등학생을 위한 결혼·가족·출산 친화적 가치관 정립을 위한 교육이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정책적, 경제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또한 민간단체의 활동을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제 6 절 초·중등학생의 가족·결혼 친화적 가치관 형성을 위한 교육방안

최근의 저출산·고령사회로의 변화는 현재 우리나라가 해결하여 할 여러 가지 과제 중 가장 시급하고도 중요한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다. 21세기 지식기반사회에서는 인구의 양적·질적 성장이 국가 경쟁력으로 직결되어 이러한 인구구조가 경제는 물론이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국가 전체의 모든 영역에 획기적으로 중대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중대성에도 불구하고 저출산·고령사회에 대한 다가올 저출산 사회의 결혼과 출산의 주역이 될 학생

들은 '나라의 힘이 약해질 것이다'라고 41.7%, '일할 사람이 줄어들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것이다'라고 32.0% 정도만이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14〉 저출산의 파급효과에 대한 초·중·고 학생의 인식

구분	①	②	③	④	⑤	⑥	⑦	계(명)
전체	5.8	41.7	2.1	32.0	1.8	9.9	6.7	100.0 (11,225)
학교급(x^2=312.7***)								
초등학교	6.9	49.8	2.1	24.7	2.9	4.7	8.8	100.0 (1,898)
중학교	6.1	44.0	1.9	30.8	1.5	8.5	7.2	100.0 (4,739)
고등학교	5.1	35.9	2.3	36.3	1.6	13.5	5.2	100.0 (4,587)

주: 1) ① 사람들 사이에서 경쟁을 하거나 다툴 일이 줄어들 것이다, ② 나라의 힘이 약해질 것이다, ③ 공해가 줄어들어 쾌적한 환경에서 살 수 있을 것이다, ④ 일할 사람이 줄어들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것이다, ⑤ 식량과 주택부족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⑥ 우리가 세금을 지금보다 많이 내야 할 것이다, ⑦기타

2) * p<0.05, ** p<0.01, *** p<0.001.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6년도 전국 청소년 결혼·자녀·성평등 가치관 조사」, 2006.

게다가 현행 제7차 교육과정 및 교과서는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사회·경제적 문제에 대한 사회적 논의와 고민이 거의 없거나 아주 적었던 시기에 고시되거나 집필되었기 때문에 최근의 사회적 변화를 충분히 반영하고 있지 못하고, 특히 과거 산업화·도시화 시대의 출산 억제와 관련한 맬더스 식의 다양한 철학이 게재되어 있는 실정이다. 특히 현 시기는 현행 제7차 교육과정 개편 수정이 이루어지고 있는 과도기이므로, 국가수준의 각 학교급(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교육과정 및 교과별 교육과정 개정에 반영하기 위한 개정 및 보완 자료를 개발하는 것이 필요한 시기이다. 또한 교과서 수정이 매년 이루어지고 있음을 감안할 때 학생들로 하여금 올바른 결혼 및 가족 친화적 가치관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는 학교교육이 불가피하다.

특히 저출산·고령화 사회에 대비하기 위한 국가의 각종 정책과 제도도 중요하지만 장기적 측면에서 보면 저출산에 대한 합리적인 가치분석을 통한 가치판단을 통해 합리적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학교교육이 더욱 중요한 의미를 가지기 때문이다. 또한 학교는 가정통신문이나 자녀 교과지도를 통한 간접학습 등을 통해 부모들에 대해 관심을 촉구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으므로 학교를 통한 저출산·고령사회 관련 교육 효과는 학생에게만 머무는 것이 아니

라 학생의 개별 가정 특히 학부모에 대한 인식 공유와 확산이 가능하다.

따라서 저출산·고령사회에서 초·중등학생들로 하여금 결혼과 가족에 관한 친화적인 가치관을 정립할 수 있는 학교교육으로는 여러 가지 접근 방법으로 가능하겠지만 여기서는 가치교육과 관련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이에 본 절에서는 현행 교과서에 제시되어있는 결혼 및 출산 등 친가족관의 제시 형태를 살펴본 다음, 이를 바탕으로 학교교육에서의 가치분석과 가치판단, 합리적 의사결정과 관련되는 학교교육과 학생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교사교육으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1. 초·중등학생 가치관 형성을 위한 학교 교육의 방향

가. 가치관 형성을 위한 학교 교육

저출산·고령화 사회로의 급속한 변화는 결혼과 출산, 가족과 관련된 가치 중 무엇이 옳고, 무엇이 바람직한 지를 결정하는 문제가 더욱 어려워지고 많은 학생들이 존중할 가치가 무엇인지, 그들이 시간과 에너지를 바칠 가치가 무엇인지를 결정하는 것이 점점 혼란스러워지고 있다. 과거 오랫동안 우리나라 교육은 경험론적으로 볼 때 객관주의 인식론에 기초하여 학문적 지식을 습득하는 데 역점을 두어왔다. 그러한 학교교육은 학문적 범주 내에 갇혀 있기 쉬워 실제적으로 학생들이 살아갈 미래 사회의 실제적인 삶과 유리되기 쉽다.

이러한 입장에서 보면 저출산·고령화 사회에 대비하는 학교 교육은 학생들로 하여금 인구에 관한 단편적인 지식을 많이 아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이 살아갈 저출산 미래 사회를 예견하고 이해하도록 하여 이에 적절한 삶의 방식을 선택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오늘날 초·중등학생들은 저출산과 고령화가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미래의 본인에 대한 결혼과 가족관에 대해 인식하는 정도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가치관의 차이가 나타나는 데에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으나, 과거 산업화와 도시화 과정에서 규범화되었던 인구

억제 정책이나 교육정책으로 형성되었던 가치관이 가장 큰 원인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과거 전통사회에서는 결혼과 출산, 양육, 가족의 의미, 아이의 소중함 등 친결혼관과 가족관이 비교적 뚜렷한 규범으로 존재하였으나, 국민소득의 증가, 교육수준의 상승, 보건의료의 발달 등으로 사회 현상의 변화와 의식의 변화로 사회 자체가 가치관의 혼란을 경험하고 있어 성인이나 사회가 초·중등학생들에게 강요할 뚜렷한 가치관을 정립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가치야말로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삶을 의미 있게 살도록 도와주는 요인이다. 가치는 특히 의사결정에 중요한 작용을 한다. 우리의 일상생활은 의사결정의 연속이라고 할 수 있고, 이러한 의사결정에는 우선순위를 고려하게 된다. 이렇게 우선순위에 기초해서 선택을 하는 것은 결국 우리의 가치체계를 표현하는 것이다. 가치란 한 개인이 무엇을 믿고 있으며, 무엇을 지지하며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느냐에 있어 무엇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우리는 누구나 이러한 가치관을 지니고 있다. 가치관은 알게 모르게 우리의 행동양식과 사고, 일상생활의 모든 결정과 선택에 있어서 중요한 준거로 작용하게 된다. 특히 초·중등학생의 발달과정상 가치관이 확립되어 가는 시기이며 사회성의 발달로 사회적 활동이나 대인관계에 적극 참여한다. 가치관은 이 시기의 중요한 발달과제로서 한 개인의 성격형성의 기반이 될 뿐만 아니라 삶에 대한 긍정적 혹은 부정적 태도를 갖게 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그러므로 학교교육에서는 무엇보다도 학생들로 하여금 미래의 자기 자신의 결혼이나 가족에 대한 교육적 배려와 이에 적합한 내용의 교육경험을 제시해 주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오늘날의 결혼이나 가족에 대한 다양한 가치를 합리적으로 하기위해 가치관을 명료하게 해주거나 의사결정할 수 있는 교육적 노력이 필요하다.

개인이 가지고 있는 결혼관이나 가족관을 탐색하여 명료화하는 일은 미래의 삶에 대한 합리적 가치관을 바탕으로 의사결정을 함에 있어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이다. 가치 명료화는 자신의 생활이나 행동양식을 통찰해 보게 되고 사고와 느낌의 조화 속에서 행동을 통합시키는 가치와의 기술을 발달시키며, 일상생활에서 더 자신 있는 선택과 의사결정을 내리게 되고 행동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을 신장시키는 것으로, 초·중등학생 시기의 결혼관과 가족관을 형성하는 것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가치관이 분명해지고 뚜렷해질수록 미래의 결혼이나 출산, 가족에 대한 가치관을 결정하게 되어 보다 자아를 실현할 수 있다.

나. 가치 접근 방법

가치에 체계적으로 접근하는 방법에는 가치분석과정과 가치명료화 과정이 있다. 사람들은 대부분 개인이 가지고 있는 신념에 따라 일을 결정하며 선택적 행동을 하게 마련이다. 이것은 곧 신념 체계가 개인의 삶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인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Rokeach(1973)은 어떤 특정한 행위의 모습 또는 존재의 목적 상태를 이와 반대되는 행위의 모습 또는 존재의 목적 상태보다 개인적 또는 사회적으로 더 좋아하는 지속적인 신념을 가치와의 관계를 잘 표현하고 있다. 가치 중심적 진로접근을 주장했던 Brown과 Lent(1996: 장선철, 설재풍, 2005에서 재인용) 역시 인간의 기능은 개인의 가치에 따라 상당한 영향을 받고 형성되며 가치는 개인의 행동을 결정하는 강력한 결정요인으로 보았다.

개개인은 가치를 담은 정보에 동화되어 가치를 형성하고 이러한 가치는 개인의 인지적, 정의적 행동 형태를 만드는 핵심을 이룬다는 것이다. 이렇게 볼 때 개개인은 자신의 선호와 신념에 따라 가치의 우선순위를 정하여 지식구조를 만들고 쉽게 변화되지 않은 사고체계를 형성해 나간다. 따라서 개인이 지닌 사고체계에 따라 일상적인 일들이 결정되며 생애 역할에서 성공은 많은 요인들에 의해 결정되지만 그 가운데 가치는 중요한 결정인자로써 작용한다.

만약 개방적이고 자율적이며 긍정적인 가치를 수용하여 구조화하였다면 긍정적이며 순기능적 사고 체계를, 폐쇄적이며 수동적이고 부정적인 가치를 수용하였다면 부정적이며 역기능적 사고체계를 지니게 될 것이란 가정이 가능하다.

가치와 관련하여 인지적 접근 방법을 구사하고 있는 대표적인 흐름은 가치분석이론이다. 대표적인 가치분석 이론가(Massialas and Cox, 1966; Oliver and Shaver, 1966; Hunt and Metcalf, 1968; Meux, 1971; Banks, 1977)들은 가치에 대

한 인지, 분석, 결과예측, 선택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을 설정하고 가치의 합리적인 수용을 위하여 분석적 방법을 도입하였다.

1) 가치 접근 모형

가치분석 이론가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선행 연구자는 Hunt와 Metcalf(1968)로서 이들은 가치판단 구성요소들에 대한 타당성을 중시하였다. 이들과 기타 대표적인 가치분석 모형들을 제시하면 아래<표 4-15>과 같다(장선철·설재풍, 2005).

Banks(1977)의 모형은 가치의 선호에 따른 가치결정 과정을 9단계로 설정하고 갈등하는 가치에 대한 분석적인 의사결정을 중시한다. 가치판단의 과정이 평가적 의사결정의 과정이라고 본다면 Banks의 모형은 가치문제에 잠재되어 있는 가치들의 갈등양상을 분석한 다음 자신이 선호하는 가치를 선택하도록 하는 가치의 행동화 모형에 많은 시사점을 준다. 사실 일상생활에서 겪는 가치와 관련된 문제들은 복선적이며 매우 혼동되어 있는 상태로 존재하기 때문에 그 가운데 어떤 가치를 선택하고 행동으로 옮긴다는 것이 쉽지 않다. 결국 개인이 선호하는 가치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데 선호하는 가치란 가치판단의 관점을 어디에 우선적으로 두고 있는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그런데 개인적으로 우선시하는 가치는 항상 양자택일의 가치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거기에는 Massialas와 Cox모형(1966)의 모형에서 말하고 있는 제3의 가치도 있을 수 있다. 사실 대부분의 가치갈등 상황은 변증법적으로 논리적인 과정을 거쳐서 타협점이 제3의 가치로 모아지면서 해결의 실마리를 찾기 마련이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은 Massialas와 Cox 모형에 제시되어 있는데 제10단계 여러 가치들의 관계에서 확실해진다.

결국 가정되어 있는 가치와 반대적인 가치, 그리고 제3의 가치간의 관계를 진술하는 과정에서 선택될 수 있는 가치가 어떤 것이며 그것의 행동화 가능성을 판단하게 되리라 가정해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복합적인 가치의 선택과 행동화 과정에서 Hunt와 Metcaf(1968) 모형에서 제시하고 있는 논리적인 검증방법과 타당한 분석방법은 유용하게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말하자면 이들 모형들은 가치판단의 논리적 구성요소들에 대한 타당성을 검증함으로써 정당한 가치판단을 이끌어

내도록 하는 전형적인 가치분석 방법을 동원하고 있기 때문에 가치갈등 상황에서 나타날 수 있는 복잡한 가치문제를 분명히 하고 해결하는 데 특별한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 이러한 점은 Oliver와 Shaver(1966) 모형에서 잘 나타나 있다. 8단계로 구분된 이들 모형에서 가치갈등 상황은 의도적으로 조작되면서 Banks의 모형에서처럼 가치들의 갈등은 증폭되고 선택을 위한 분석단계를 거치게 된다.

그러나 이들의 모형에서는 Banks의 모형에서와 같이 가치의 선호를 표명하는 것이 아니라 Hunt와 Metcalf 모형과 같이 사실과 진술들에 대한 객관적이고 타당한 검증을 중시한다. 이렇게 볼 때 Oliver와 Shaver 모형은 종합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결국 <표 4-15>에 제시되어 있는 가치분석 모형들은 서로 독립적인 관계를 지향하면서도 가치분석이라는 하나의 연결고리 속에서 나름대로 의미를 지니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4-15〉 가치분석 모형

모형	인지	분석	결과예측	선택	특징
Massialas와 Cox (1966)	①가치문제의 인식	②가치판단과 반대되는 가치의 제기 가능성 인식	③가치판단의 결과예측 ④가치판단에 의한 행동결과에 대한 증거제시 ⑤반대되는 가치판단의 결과 예측 ⑥반대되는 가치판단의 행동결과에 대한 증거제시 ⑦제3의 가치제시 ⑧제3의 가치성취를 위한 도구의 발견	⑨어떤 가치를 선택한 합리적 이유의 진술 ⑩가정법을 이용한 가치와 반대되는 가치 그리고 제3의 가치가간의 관계진술	혼돈되어 있는 가치들에 대한 충분한 고려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가치판단 과정을 강조함
Oliver와 Shaver (1966)	①일반적 가치들을 추상화	②가치들을 입체적으로 구조화하기 ③가치들간에 갈등인식 ④갈등 집단 인식 ⑤유사한 갈등상황 만들기	⑥적절한 입장으로 작업하기 ⑦배후에 있는 사실적 전제들을 검증 ⑧진술들의 적합성 검토		가치갈등 상황에 대한 의도적인 환경조성과 논리적 검증과정 중시
Hunt와 Metcalf (1968)	①가치문제의 확인 및 명료화	②가치판단의 대상에 관한 사실 수집 ③사실의 검사와 관련성 검사	④잠정적인 가치판단 ⑤가치원리의 수용성검사	⑥최종적인 가치판단	가치판단 구성요소들에 대한 타당성 검증을 중시
Banks (1977)	①가치문제의 정의, 인식	②가치관련 행동의 기술 ③기술한 행동이 예증하는 가치의 명령 ④갈등을 일으키는 가치의 분석	⑤분석된 가치원천에 대한 가설수립 ⑥대안가치의 명령 ⑦분석된 가치의 결과에 대한 가설수립	⑧가치의 선호를 표명 ⑨가치선호의 이유, 원천, 가능한 결과의 진술	가치선호에 따른 의사결정 과정에 주안을 둠

자료: 주도연(1994, 49-50)과 남정열(1994, 16-17), 장설철·설재풍(2005, 69).

2) 가치 명료화

가) 가치명료화 개념

가치명료화에서 보는 가치란 이미 존재하고 있는 기존의 절대적인 가치가 아닌 개인의 경험과 삶 그 자체로부터 생성되어지는 상대적인 것으로, 이에 따라 기존의 가치를 주입하는 종래의 가치교육에서 벗어나 가치의 생성과정, 가치의 획득 과정(valuing process)에 보다 초점을 두고 학습자가 스스로 자신의 가치를 확인, 탐색, 존중, 행동화하도록 도와주는 과정을 가치명료화라고 한다(Simon, Howe, and Kirshenbaum, 1978).

가치화 과정의 목적은 학생들이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자기 자신에게 명료화하도록 도움으로써 자신의 가치를 정립하도록 하는데 있다. 이러한 가치명료화는 오늘날 사회의 불확실성과 혼란, 갈등, 도덕적 냉담성의 시대로 인하여 생겨난 여러 가지 개인적인 가치문제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가치문제들까지도 논의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

현대 사회의 가치혼란 및 가치부재로 인하여 오늘날 학생들은 자신이 속해있는 하위문화의 가치인식과 보다 큰 공통문화로의 조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아울러 초·중등학생들의 가치규범(model)이 되어야 할 성인들의 가치관의 혼란과 과거의 행동기준 자체의 변화로 인하여 초·중등학생들은 자체의 뚜렷한 가치관을 정립하지 못한 채, 목적의식을 상실된 삶을 영위하기 쉽다. 가치관의 부재나 불명료성은 흔히 무의미하고 비생산적이며, 자기 소외적이고, 욕구불만적인 행동으로 연결되며 이러한 행동들은 심각한 사회문제를 야기한다(Gibson and Mitchell, 1981). 이와 같이 사회적 차원의 가치 혼란과 갈등의 상태로부터 가치명료화의 필요성은 우선적으로 도출되어질 수 있다. 그러나 더 직접적인 필요성은 지금까지의 전통적 방식에 의한 가치관 교육에의 접근이 결코 성공적이지 못했을 뿐 아니라, 진정한 의미에서의 가치관 확립을 저해하는 비효율적인 접근이라는 점에서부터 새로운 접근법이 필요하게 되었다. 즉 가치명료화는 가치교육에 있어서 가치발달을 위한 전통적 접근교육 방법의 위기에 대한 대안으로 제기된 새로운 접근방법이다.

전통적 접근방식은 지금까지의 아동 및 초·중등학생들의 가치교육에 사용되어 왔으며 그들의 신념과 태도, 행동양식 형성에 지배적으로 적용해 왔다. 그러나 이들 전통적 접근 방식은 현대사회의 복잡하게 변화하는 환경과 상호작용하는 주체로서가 아닌, 객체로서의 타인 지향적인 가치를 무조건적으로 수용하도록 함으로써 결코 성공적이거나 생산적인 교육이 될 수 없다는 비판을 받게 되었다. 전통적 접근방식과 새로운 접근 방식으로서의 가치관 명료화의 방법상의 특징을 비교해 보면 <표 4-16>와 같이 제시될 수 있다.

〈표 4-16〉 가치관 발달을 위한 두 가지 교육적 접근 방식의 비교

전통적 접근 방식	새로운 접근방식
· 본보기의 제시	· 자유로운 선택
· 설득과 확신시키기	· 선택할 대안의 제시
· 제한된 선택	· 각종 대안의 결과에 대한 고려
· 규칙과 규제사용	· 선택결과에 대한 확신
· 문화적, 전통적 독단 활용	· 선택한 가치의 행동화
· 양심에의 강한 호소	· 반복적인 가치의 틀 형성
타율적 특성	자율적 특성

자료: 윤항순, 『가치명료화 프로그램이 인생목적, 자아개념 및 학업성취에 미치는 효과』, 1991.

새롭게 제시되는 가치명료화의 가치화 과정 단계로는 자유로운 선택, 충분한 대안들로부터의 선택, 각각의 대안들의 결과를 고려한 후의 선택, 선택한 가치를 소중히 여기고 여러 사람 앞에서의 공언, 선택에 따른 행동화, 행동의 반복 등을 포함하는 7단계로 이루어져 있다(Raths et al., 1994). 이들 과정을 통해서 학생들은 지금까지 인식하지 못했던 자기 자신의 가치체계나 새로운 가치관을 발견 할 수도 있으며 타인과의 가치비교, 기존의 규범화된 가치체계들 간의 비교를 통해 가치의 상대성과 다양성을 인식하고 이를 통해 개인적인 가치문제와 사회적인 가치문제에 있어 더욱더 심사숙고하게 된다.

나) 가치명료화 과정

사람은 경험을 통해서 배우고 자란다. 경험을 통해서 행동에 대한 어떤 일반적인 지침이 생기면 우리는 그것을 가치라고 부른다(Raths et al., 1994). 따라서 가치

는 생활의 구체적인 것과 관련되어 있으며 자기 생활의 연속선상에 배열되어 있다(남궁달화, 1994). 어떠한 삶의 가치는 확고부동한 신념이라기보다 어떤 특정한 환경 하에서 다듬어져 나온 결과로서 이루어진다. 가치명료화 이론에서는 이렇게 형성된 가치보다 그러한 가치가 형성되기까지의 과정에 관심을 더 갖는다. 그 이유는 사람들 각자의 생활이 시간과 공간에 따라 다르게 형성되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어떤 경험을 갖게 될지에 대해서 확신할 수 없다. 따라서 어떤 사람에게 어떤 가치나 생활양식이 가장 적합한지도 확신할 수 없다. 다만 가치를 획득하는데 있어서 어떤 과정이 가장 효과적인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다. 가치 명료화론자들의 이러한 가정에 입각해 '가치화 과정'이 진행되면 그 과정의 결과로서 개인이 가지고 있는 가치는 명료화된다. 가치화 과정의 목적은 학생들이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자기 자신에게 명료화하도록 도움으로써 자신의 가치를 정립하도록 하는데 있다. 이것은 학생들에게 미리 정해진 일련의 가치들을 받아들이도록 설득하는 것과는 아주 다르다.

〈표 4-17〉 가치화 과정

구분	가치화 과정
선택하기	(1) 자유로이 (2) 여러 대안들로부터 (3) 각 대안의 결과를 심사숙고 한 후에
존중하기	(4) 선택을 소중히 여기고 행복 (5) 다른 사람들에게 선택한 것을 공언하고
행동하기	(6) 선택에 따라 행동을 하고 (7) 반복 행동에 의해 생활양식으로 굳힌다.

가치화 과정을 프로그램으로 실행함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사항에 초점을 두고 실시한다.

- 학생들에게 많은 대안 중에서 선택하고 자유롭게 선택하도록 격려한다.
- 선택을 할 때에는 다양한 대안들을 찾아보도록 도와준다.
- 대안의 결과를 숙고하면서 각 대안들을 검토하도록 도와준다.
- 그들이 좋아하고 소중히 여기는 것이 무엇인지를 고려하도록 격려한다.
- 그들이 선택한 것을 공언하는 기회를 제공한다.

◦ 그들이 선택한 것을 행동으로 실천하며 살아가도록 격려한다.
◦ 학생들에게 가치는 자신의 삶의 유형을 이루는 습관임을 깨닫게 한다.

또한 가치명료화 프로그램 적용에 있어서 교육자는 다음과 같은 점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 학생들의 생각이나 태도 또는 신념 등에 대해 판단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를 수용해야 한다.
◦ 교사는 학생 개개인에게 관심을 가져야 한다. 동시에 그러한 태도를 그들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 교사는 학생들의 말을 끝까지 들어 주어야 한다.

이와 같이 실시되는 가치 명료화 프로그램은 그 대상(범위)이 크게 세 가지 문제로 나누어진다.

◦ 준가치(잠재적 가치)이다: 목적, 포부, 태도, 관심, 감정, 신념, 걱정.
◦ 일상생활에서 우리의 삶을 복잡하게 하는 개인적 문제이다.
◦ 개인과 사회의 관계, 규칙에 관한 문제, 가족, 이웃, 학교에서의 문제, 타인과의 협동의 문제, 자기 이익과 사회적 이익의 갈등, 인종 및 성 차별, 법과 질서, 빈부의 격차 등 다소 사회적인 문제(내용)에 명료화 과정을 적용한다.

가치명료화 이론이 현대사회의 가치교육에 적합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 이 이론은 생활에 초점을 둔다. 즉, 생활의 여러 측면으로 주의를 집중시키는 것이다.
◦ 이 이론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다는 것이다. 즉, 자신에게 정직하고 서로에게 정직하도록 돕는다.
◦ 이 이론은 가치에 대해서 보다 더 심시숙고하고 더 포괄적으로 생각하도록 한다.
◦ 이 이론은 사람들이 가치문제를 더 깊이 생각할 수 있도록 자기의사 결정 능력을 증진시킨다(Raths et al., 1994).

다. 교과서와 가치관

교과서는 그 나라와 당 시대의 사람들이 바라는 인간구현을 최종적 목표로 하는 교육과정과 궤를 같이 하면서 교육과정의 단계적 질서에 따라 올바른 인

간형성을 위한 내용의 제시와 공감 그리고 행동으로 행하게 하는 교수-학습의 안내서라고 할 수 있다(이종국, 1991). 교과서가 교육을 위해 사용되는 주된 교재로서 당 시대가 요구하는 가치 배양에 관한 것과 그 방법을 뒷받침해 주는 지식 내용을 제시하여 바람직한 인간 육성을 꾀한다는 기능을 고려할 때 교과서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교과서는 교육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교육과정을 기준으로 그 내용을 지도하기 위하여 체계적으로 구성한 학습자료라고 할 수 있고 교육과정의 지도 내용을 쉽게 가르치고 배울 수 있도록 구성한 도서라 할 수 있다. 즉 교과서는 교육과정을 구현하는 수단이 되면서 가르치는 내용인 교육내용이 되는 것이다.

교육이 개인생활에의 적응이나 사회발전과 같은 수단인 외재적 목표로 보면 교과는 개인적 및 사회적 필요를 충족시킨다는 점에서 정당화된다고 볼 수 있다. 이것은 교과서의 외재적 가치에 중점을 두는 것으로 사회화와 동일한 의미를 가지기도 한다. 사회화라는 것은 개인이 그 사회의 지배적 신념, 규범적 가치관을 학습해 가는 과정을 가리키며, 한 사회의 입장에서 보면 이러한 집단적 신념체계는 그 사회 구성원들을 결속시키고 그 사회를 유지해 나가는데 꼭 필수적인 것이라 할 수 있다. 교육목표를 교육내용인 교과내용의 가치를 규정하며 개인생활에의 적응이나 국가발전과 같은 외재적 목표를 위한 수단으로서의 가치를 가진 것으로 교과를 보고 있다.

교육과정을 구현하는 수단인 교과서는 교육이 실현하고자 하는 가치가 교육내용 속에 이미 실현하도록 들어있다고 보는 견해에서는 교과의 내재적 가치를 중요시 여기고 있다(고승식, 1998). 물론 교과서에는 교육과정이 지향해 온 가치관이 명시적으로 반영되기도 하고 묵시적으로 반영되기도 한다. 이처럼 중요한 교육과정과 그 교육과정의 가치관이 구체화된 교과서에 어떤 가치관이 함의되어 있는지를 살펴보는 일은 가치관 문제의 파악과 해결책의 제시를 위해 필요하다.

그동안 가치관에 관한 선행연구로는 크게 가치관 교육방법에 대한 것(윤재득, 1986; 김용남, 1987; 김종근. 1992; 마시열, 1994; 정형진, 1996)과 학생들의 가치관을 분석한 것(나순채, 1980; 장연환, 1983; 오신안, 1987; 김경희, 1989; 김

정택, 1993; 이인호, 1993). 그리고 교과나 교육과정에 관련된 가치 또는 가치관을 분석하는 연구들이 많았다. 그 중에서 교과나 교육과정에 관련된 가치 또는 가치관을 분석하는 연구들로는 고등학교 국어교과서의 가치 주제를 분석한 허형(1972)의 Kluckhohn의 가치관 모형에 따른 국어과 교과서의 가치주제 분석, 교육과정이 추구하는 가치 덕목을 분석한 김병완(1992)의 초등학교 교육과정에서 추구하는 가치덕목의 분석, 교과서의 문학 작품 속에 등장하는 인물들을 통해 한국의 문화적 가치관을 분석한 박광수(1992)의 문학작품 속에 등장하는 인물들의 한국 문화적 가치관에 관한 분석, 고승식(1998)의 초등학교 교과서에 함의된 가치에 대한 아동, 학부모의 태도 분석 등이 있다.

교육과정의 가치관은 구체적으로 교과서에 반영되어야 하며 교과서를 통해 교육과정의 가치관이 교육되어야 한다. 이렇게 교육과정과 교과서는 유기적인 관계에 있다(최대규, 1999).

그런데 가치관을 분류하는 방법은 학자에 따라 다양하게 분류하고 있다. 이제까지의 대체적인 경향을 살펴보면 문화인류학적 입장과 사회심리학적 입장이 대표적이라 할 수 있다. 먼저 문화인류학적 입장에 선 Spranger는 가치체계를 眞, 善, 美, 聖, 權, 利, 愛, 健의 8가지로 나누었다(김용기, 1964; 김정택, 1993에서 재인용).

〈표 4-18〉 가치 체계 분류

구분	가치체계		구분	가치체계	
고전적가치	이론적 가치	眞	근대적가치	권력적 가치	權
	도덕적 가치	善		경제적 가치	利
	예술적 가치	美		사회적 가치	愛
	종교적 가치	聖		신체적 가치	健

자료: 김용기, 『현대교육학원론』, 1964(김정택, 1993에서 재인용).

Spranger는 가치를 위와 같이 구분하여 眞, 善, 美, 聖의 가치는 고적인 가치로서 유럽사회의 절대적 가치였으며, 權, 利, 愛, 健의 가치는 근대사회의 발달에 의한 근대적 가치라고 말하였고, Kluckhohn은 가치관을 부단히 계속되는 인간행동의 흐름에 대하여 질서와 행동을 제시해 주고 공통적인 인간 문제의 해

결에 있어서 의견을 주는 것으로 분석적으로 구별할 수 있는 평가과정이며, 인지적인 것, 정의적인 것, 방향 제시 등의 세 가지 요소가 완전히 상호작용함으로써 일어나는 복합적이고, 동시에 일정한 유형을 가진 원칙이라고 생각했다. 더욱이 그는 다음 세 가지의 가설을 전제로 하여 가치관을 분류하였다.

첫째, 모든 인간에게는 언제나 해결해야 할 공통의 문제가 있다는 것이며, 둘째,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그 해답은 상대적 한계를 가지고 있으며, 또한 다양할 수 있다는 것이다. 셋째, 그 해결방법은 얼마간의 차이는 있겠지만, 그 어느 때, 그 어느 사회에서나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결국 그는 위와 같은 가설 아래에서 모든 인간에게 기본적이고 공통되는 문제를 다음의 5가지로 분류하고 이를 더욱 자세히 구분해서 각개의 기본 문제들 속에서 각각 3가지씩 해답이 가능하다고 보았는데, 그의 이러한 가치관 분류를 정리해서 도표화하면 아래 <표 4-19>과 같다(김정택, 1993).

〈표 4-19〉 Kluckhohn의 가치관 분류

가치지향	다양한 기본적 범위		
인간의 본성	성악	중성	성선
인간과 자연과의 관계	속성	조화	정복
시간관	과거	현재	미래
활동관	존재	생성 속의 존재	실행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	종적	횡적	개인적

자료: 김정택, 『고등학생들이 가치관에 관한 연구』, 1993.

가치 이론가인 Rokeach(1973)은 가치의 문제는 모든 사회과학 분야에 있어서 다른 어떤 것보다도 핵심이 되는 개념인 동시에 문제라고 한다. 그가 가정하여 제시하는 인간 가치의 본질은 첫째, 한 사람이 가지는 가치의 전체 수는 비교적 적다. 둘째,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사회·문화에 관계없이 어디에서나 모든 사람이 가지는 가치는 같다. 셋째, 한 사람이 가지는 가치들은 하나의 가치체계로 조직되고, 넷째, 인간가치의 내역은 문화와 사회 및 사회적 기관 그리고 개인의 인성 등에서 찾아볼 수 있다. 다섯째, 인간 가치의 중요성은 사회과학자들이 연구하고 이해할 수 있는 가치가 있다고 생각되는 모든 사상에서 실제로 증

명될 수 있다(남궁달화, 1994). 또한 그는 사람이 지니는 가치관은 바람직한 행위와 바람직한 존재의 궁극적인 목적에 대한 두 가지의 지속적 신념이라고 말하고, 가치를 수단적 가치와 궁극적 가치로 구분하고 있다. Rokeach는 목적적 가치는 자기중심적일 수도 있고 사회 중심적일 수도 있다고 본다. 그런데 어느 것에 우선 순위를 두느냐는 연구자에 따라 다르다(남궁달화, 1994).

다음에 사회심리학적 입장을 알포트-배본(Allport & Vermon)은 E. Spranger가 인간의 성격을 6가지 유형을 근거로 하여 가치 측정의 척도를 제작하였다. 여기에 포함된 가치 영역을 이론형, 경제형, 심미형, 사회형, 정치형, 종교형의 가치영역이나 인간의 가치를 6가지 범주로 유형 지을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정범모(1987)는 가치관의 방향을 크게 전통과 발전이라는 두 방향에서서 고찰하면서 첫째, 자연에 대한 가치관을 혼돈관, 질서관 또는 불변관과 변화관으로, 둘째, 자연과 인간의 관계를 예속관, 조화관, 주체관으로 셋째, 시간적인 가치관을 과거 지향, 현재 지향, 미래 지향으로 넷째, 인생에 대한 가치관을 수양관, 쾌락관, 활동관으로, 다섯째, 사회에 대한 가치관을 종적, 횡적, 개인주의적 가치관으로 나누었으며 이러한 가치관들을 상호관련성을 가지고 있다고 하였다.

자연을 혼돈, 불변관으로 보는 사람은 과거 지향적 예속관, 수양관을 갖게 될 것이며, 인생의 중요한 가치를 활동 업적 생산에 두는 사람은 사회도 능력주의 업적주의가 되어야 한다고 볼 것이다.

그러므로 한 문제에 대한 가치관의 방향은 다른 문제에 대한 비슷한 가치관과 관련되어 하나의 연맥을 이룬다고 볼 수 있다(정범모, 1984). 그리고 홍승직(1986)은 한국 대학생의 가치관 연구에서 전통적 가치관, 결혼관, 정치관, 대외국관, 대인격 가치관, 행복·불안관, 대전쟁관, 인생·세계관, 생활관으로 분류하였으며(홍승직, 1986) 초·중등학생백서(문교부, 1984)에서는 전국 초·중등학생들의 의식과 생활상에 대한 조사연구에서 가치관 분류를 국가의식, 윤리의식, 가정생활과 의식, 학교생활과 의식, 노동 및 직장의식, 개인생활과 의식, 여가생활과 의식 등으로 분류하였다(김정택, 1993).

이상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가치관에 관한 문제는 연구자의 관점에 따라 매우 다양하게 분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교과서에 제시되어 있는

결혼과 가족관이 어떻게 제시되어 있고, 그 제시내용에 함의된 가치관이 무엇인지 그리고 앞으로 지향해야 할 가치가 무엇인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라. 교과서에 제시되어 있는 결혼·자녀·가족(자녀 규모·구성 등) 관련 가치관 분석 실태

교육내용의 조정은 저출산·고령화 관련 내용의 특성에 따라 다양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되, 주된 수정 방안은 내용을 정선하여 구조화하는 방법과 학교별·학년별 학습 내용의 범위와 수준을 조정하는 방법이 있다. 이처럼 학습 내용의 조정이 이루어질 때 학생들은 단편적인 인구에 관한 지식을 피상적으로 접하게 되거나 실천할 수 없는 내용을 실천할 수 있는 시간을 줄일 수 있으며, 궁극적으로 인구교육의 효과를 극대화하여 저출산·고령화 사회에 대비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학교교육의 근간이 되는 각급 학교의 교과서의 분석 내용은 다음과 같다(이삼식 외, 2005).

1) 초등학교 교과서 분석 내용

초등학교 교과서에는 전 과목에서 가족과 관련된 내용을 다루고 있으며, 가족형성, 가족형태 등에 관한 기초적인 교과내용은 사회교과목에서 가장 본격적으로 다루어지고 있다. 사회교과목 등에서 다루고 있는 가족형성에 대한 교과내용으로는 가족이 생활의 주된 보금자리이고, 사회를 이루는 기초단위라는 관점에서 결혼의 보편성을 소개하는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다. 예를 들어, 결혼을 통한 가정의 형성, 가정에 의한 행복과 가치 추구, 가정의 소중함 등을 강조하고 있다.

오늘은 성진이네 삼촌이 결혼하는 날이다. 모두들 삼촌의 새로운 출발을 축하해 주러 오신다고 한다. 성진이는 왜 결혼을 새로운 출발이라고 하는지 궁금해 하였다. 삼촌이 결혼을 하면 한 집안을 이끌어 가게 된단다. 결혼 전과는 다른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것이지. 성진이는 새로운 가정을 가진 삼촌의 모습을 상상하면서, 삼촌이 만들어갈 행복한 가정에 대하여 생각해 보았다(사회 4-2, p.63).

결혼식 모습은 어떻게 달라졌는지 알아봅시다. 오늘은 은영이 이모의 결혼식 날입니다. 신랑 신부는 주례와 여러 사람 앞에서 부부가 되기를 약속하였습니다. 이모와 이모부의 모습은 아름답고 다정해 보였습니다. 결혼이란 두 사람이 가족과 친지들의 축복을 받으며 가정을 이루는 의식이란다(3-2 사회, ○○교과서, 54).

가족규모에 대한 교과내용은 초등학교 교과목 전체에서 다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자녀수 변화와 사회현상과의 관계를 직접 다루기보다, 관련 학습목표를 수행하기 위한 사례로 제시하는데 그치고 있다. 따라서 가족규모 및 자녀수 변동이 우리 사회에 함의하는 내용에 대한 교육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이다. 예를 들어, 교과내용 중 가족 전체가 묘사된 경우를 선별하여 자녀수를 살펴보면, 대체적으로 1~2명 자녀를 둔 핵가족이 마치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가족유형인 것으로 제시되고 있다. 즉, 교과내용 중 가족규모는 대체적으로 2자녀 이하로 제시되고 있어, 소자녀관과 핵가족 가치가 편파적(biased)으로 강조되고 있다.

자녀의 효용에 대한 교과내용은 가문승계 등 전통적인 자녀 가치를 주로 제시하고 있으며, 자녀의 정서적 가치는 "가정의 소중함", "화목한 가정" 등 가족관계를 통해 암시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 부모를 공경해야 한다는 부모 입장에서의 효 문화가 강조되고 있고, 자녀의 정서적 가치를 직접 다루고 있는 교과내용은 상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다.

할아버지께서 인호에게 조상에 대하여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곳은 증조할아버지, 증조할머니의 산소이고, 저 건너편은 고조할아버지의 산소란다. 우리 집안은 대대로 나라의 중요한 일을 맡아보았던 훌륭한 가문이란다. 인호도 열심히 공부해서 가문의 전통을 살려야 한다(초등사회 4-2, pp.6~9).

가족의 형태에 대한 내용은 사회교과목의 경우 핵가족과 확대가족의 차이점과 생활방식의 차이를 비교함으로써 관련지식을 전달하는 것이 주된 교과내용으로 나타났다. 반면, 다른 교과에서는 관련 내용 전달을 위한 사례로서 제시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초등학교 교과 전체에서 가족형태에 대한 기술을 살펴본 결과 핵가족이 확대가족보다 많이 나타나 핵가족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 반영되어 나타났다.

사회교과목에서는 핵가족과 확대가족의 차이점과 현대 사회에서 핵가족이 증가하고 있는 이유를 사회변화를 통해 설명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가족생활의 변화, 가족단위 여가활동의 변화를 주로 다루고 있다.

오늘날 핵가족이 많아지고 있는 까닭을 조사해 보았다. 부모님께서는 시골 생활이 좋다며 도시로 오시려고 하지 않습니다. 직장을 자주 옮겨야 했기 때문에 부모님을 모시고 살 수가 없었습니다. 나는 취직을 하기 위해 도시로 나와 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부모님을 모시고 살다가 영미가 학교에 들어가면서 도시로 이사 오게 되었습니다 (초등사회 4-2, p.62).

다양한 가족에 대한 교과내용으로는 장애아에 대한 편견으로 해외로 입양되는 사례가 제시되는 한편, 장애아 입양을 통해 입양에 대한 긍정적 가치를 포함한 교과내용 역시 포함되어 있다.

미국의 한 가정에 입양된 어느 한국인 소년이 서울의 잠실야구장에서 벌어진 프로야구 개막전에서 시구를 하였습니다. 이 소년은 태어날 때부터 희귀한 질병을 가지고 있는데다가 두 손의 손가락이 모두 붙은 채로 태어난 장애아였습니다. 태어나자마자 부모에게 버림을 받고 보호기관에 넘겨진 소년은 미국의 어느 평범한 가정에 입양되었습니다(사회과탐구 4-2, p.57).

"엄마, 누나" 밝게 웃는 모습으로 달려오는 세현이를 보자 하연이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어머니의 품에 안겨 짧은 낱말을 서투르게 조잘대는 세현이는 장애인 시설에 사는 하연이의 새 동생입니다. 지난해 장애인 시설에 봉사활동을 갔던 하연이 부모님은 세현이를 양아들로 삼으셨습니다(생활의 길잡이 5, p.42).

반면, 한부모 가족에 대한 사례를 통해, 한 부모 가족의 어려움 및 사회적 편견을 제시하고 있으나, 사회적 편견 해소의 필요성과 같은 적극적인 가치교육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한걸음 더] <아빠 좀 빌려 주세요> 선생님께서 방학 동안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가는 "부자 캠프"에 참가할 사람은 내일까지 신청서를 내라고 하셨다. 그러자 재욱이가 넌지시 말하였다. "종우야, 안됐다! 넌 아빠가 안계시니까 참가하고 싶어도 못하지?"(국어 5-2, p.200).

대체로 전 교육과정을 통해 다뤄지고 있는데 과목별로 접근방식에 차이를 보이고 있다. 가족관련 교과내용은 초등학교 전 교육과정을 통해 다뤄지고 있는데 과목별로 접근방식에 차이를 보이고 있다. 사회 교과목에서는 가족형성, 가족형태에 대한 기초지식을 제공하는 것을 주된 학습목표로 하여 관련지식을 제공하고 있다. 반면, 국어, 실과, 수학, 과학 등의 교과목에서는 가족형태 및 가족규모 등이 관련 학습내용을 이해하기 위한 사례로 제시됨으로써 내재적인 가치를 전달하는 방향으로 다뤄지고 있다. 가족관련 교과내용 특징은 이야기 소재로 등장하는 인물들이 부모와 자식으로 구성된 가족형태라기 보다 부자, 부녀, 부부, 모자, 모녀, 형제, 심지어는 혼자인 경우가 많이 다루어지고 있다. 또한, 초등학생이라는 연령적 특성으로 인해 가족의 부정적 기능이나 문제로서 접근한 사례는 거의 찾아보기 어려우며, 상대적으로 가족의 순기능이나 이상적인 모습들을 주로 다루고 있다.

가족관련 교과내용을 교과목 및 학년별로 살펴보면, 사회 교과목에서는 4학년 이후부터 과거와 현재의 가족형태에 대한 비교학습을 통해 가족형태 및 가족규모 변화를 본격적으로 다루고 있다. 6학년 초등사회에서는 재혼, 자녀가치 등에 대한 내용이 새롭게 다뤄지고 있다. 실과 및 도덕 교과목의 경우, 효도, 우애, 친족간 예절 등 가족생활에서 지켜야 할 지침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가족형태, 가족규모, 자녀효용 등에 관한 교과내용이 제시되고 있다. 특히, 5~6학년의 고학년에서는 입양가족, 한 부모 가족 등 다양한 가족에 대한 사례가 제시되고 있다. 국어, 과학, 수학 등 언어 및 수리·탐구 능력을 배양하는 과정에서 가족형태, 가족규모 등 일상생활에서의 가족모습이 사례로 제시되어, 내재적으로 관련 교과내용이 전달되고 있다.

2) 중학교 교과서 분석

중학교에서는 산업화, 도시화 및 전통적 가족가치관의 변화 등에 의해 핵가족화가 급속히 진행됨에 따라 교과서의 가족에 대한 설명이나 삽화 자체도 1~2명의 소자녀를 가진 부부중심의 핵가족 형태를 중심으로 구성되는 경향이 강하

다. 그리고 핵가족 외에도 노인 가족, 소년 소녀 가족 등의 새로운 가족형태를 소개하고는 있으나, 결혼한 부부와 자녀로 구성된 가족을 '가족'이라 지칭하는 반면, 그 외의 가족 형태는 완전하지 못한 가족으로 보는 경향이 크다.

올해 일흔 여덟의 한 할머니는 취로 사업장에서 일을 합니다. 이혼한 아들이 집을 나가서, 중학교와 초등학교에 다니는 두 손녀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중2사회, 2001, ○○○, p.150).

또한 가족형성을 법률혼에 국한하여 접근함으로써, 동거부부, 한 부모 가정, 입양가정 등 새로운 형태의 가족형성의 변화를 충분히 수용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결혼의 중요성에 대한 교과내용도 부족하다.

결혼, 상속, 재산 처분 등의 권리는 개인적인 법률관계를 통해 인정되는 권리이다(중2 사회, 2001, ○○출판, p.195).
출생, 결혼, 사망 신고를 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다(중2 사회, 2001, ○○○, p.174).

성인 남녀가 서로 사랑하고 건전한 관계를 유지하다 보면 결혼을 하여 한 가정을 이루게 된다. 결혼을 하면 행동을 통하여 사랑의 결실인 새 생명의 탄생을 보게 된다(중1 체육, 2001, ○○출판사, p.170).

부모와 자식, 젊은 세대와 노년세대 사이에서 발생하게 되는 세대갈등의 현상 및 이로 인한 문제점에 대해서 교과내용이 구성되어 있으나, 그 원인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이나 해결하기 위한 방안에 대한 교과내용은 피상적이거나 선언적인 수준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

세대 차이 때문에 부모와 자녀 간에 갈등이 나타날 수도 있다. 그러나 세대 차이는 자연스런 현상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서로 대화하고 이해하면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중2 사회, 2002, ○○○, p.142).

가정 교과목의 경우, 1학년 과정에서는 가족 형태 및 규모가 그림 자료로 많이 제시되어 있고, 세대간 관계와 관련된 내용이 본문에 포함되어 있으며, 가족형성(특히 결혼)과 관련된 부분도 일부 교과내용으로 다루고 있다. 그러나 가족

형태로는 전반적으로 확대가족에 비해 핵가족을 제시하는 비율이 높고 자녀수는 2자녀가 대부분이다. 자녀수로 1자녀를 묘사하고 있는 경우도 1/3정도이나, 3자녀가 등장한 교과내용은 거의 없다. 가족형성에 대해서는 성인남녀가 결혼하여 자녀를 갖는 것이 당연한 일임을 인식하게 하는 결혼 및 출산의 보편성에 대한 내용이 대부분이다. 세대간 관계에서는 초·중등학생기의 정서적 변화에 따라 나타날 수 있는 가족간 갈등에 대해 설명하고 바람직한 가족간 의사소통 방향을 제시하고 있는데, 부모와의 갈등 관계에서 갈등 및 대화의 상대자는 대부분 어머니로 묘사되고 있다. 교과서에 따라서는 대화 상대자가 모두 어머니인 경우도 있는데, 이런 경우 초·중등학생들에게 부모와의 관계에서 왜곡된 인식을 심어줄 수 있으므로 어머니와 아버지의 역할과 비중이 적절히 조화를 이루어야 할 것이다. 또한 부모와 함께 읽고 대화할 수 있는 과제를 제시함으로써 초·중등학생들에게만 어떻게 해야 한다고 강요할 것이 아니라, 부모의 역할도 함께 교육함으로써 화목한 가족관계를 만들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우리는 때때로 부모님과 대화를 나누다가 갈등을 겪는다. 부모님과 함께 아래 내용을 읽어 보고, 부모님과의 갈등을 슬기롭게 넘길 수 있는 의사소통 방법을 생각해보자 (부모가 할 수 있는 일/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나누어 제시하고 있음)(중1 가정, ○○ 출판사, 2001, p.38).

2학년 과정의 경우, 「의복마련과 관리」 및 「자원의 관리와 환경」 의 대단원에서 가족에 대한 의식을 일부 교과내용으로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모두 삽화나 참고자료 등의 비텍스트 영역에 분포하고 있다. 「의복마련과 관리」 단원에서는 주로 여러 가지 옷차림에 대한 예시로 결혼식과 폐백 장면을 그림으로 제시한 경우가 많은데, 이는 초·중등학생들에게 결혼의 보편성을 인식시키는 영향을 미칠 것으로 사료된다.

한편, 단순 삽화에서 나타나는 가족 형태와 규모를 살펴보면, 확대가족 형태는 한번만 제시된 반면, 대부분이 핵가족 2자녀로 구성된 4인 가족형태를 보여주고 있다. 3명 이상의 자녀가 있는 그림은 한번도 제시되지 않고 있다.

가족관련 교과내용으로는 가족의 형태 및 규모에 대한 내용이 대부분이며,

가족형성 및 세대관계에 대한 내용은 소수 포함되어 있다. 가족형태에 대한 교과내용은 본문에서 핵가족과 확대가족에 대한 객관적 설명이 주를 이루고 있고, 삽화에서는 다른 학년과 달리 핵가족 분류에 편부모 가정을 포함시키거나 노인 가구를 제시하는 등 다양한 가족 형태를 다루고 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는 2자녀 핵가족(부부+2명의 미혼자녀) 형태가 교과내용의 주를 이루고 있다. 현대사회는 이혼 등으로 인한 한 부모 가정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어, 다음과 같이 다양한 가족형태에 대한 제시가 필요하다.

가족의 형태는 조부모, 부모, 자녀로 구성된 확대 가족, 부모와 자녀로 구성된 핵가족으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다. 핵가족 중에는 자녀가 있는 부부가족, 자녀가 없는 부부 가족, 자녀가 있는 편부모 가족, 주말에 만나는 주말 가족 등이 있다.(중3 가정, ○○출판사, 2001, p.168)

교과내용으로는 가족형성, 가족규모, 가족형태, 세대관계와 관련된 내용이 비교적 고르게 포함되어 있으나, 가족해체(이혼)와 관련된 교과내용은 보이지 않는다. 2학년 과정에서는 가족형성(결혼), 가족형태, 가족규모에 대한 교과내용이 그림 자료와 비텍스트에 일부 포함되고 있으며, 가족영역 중 가족해체와 세대관계에 관한 교과내용은 전혀 없다. 3학년 가족영역으로는 주로 가족형성, 가족형태 및 가족규모가 교과내용으로 포함되어 있다. 반면, 가족영역 중 세대간관계는 일부 그리고 가족해체(이혼)는 교과내용으로 전혀 다루어지지 않고 있다.

3) 고등학교 교과서 분석

고등학교 교과 내용은 가족형태, 가족의 구조와 기능, 가정의 해체현상, 결혼 등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다. 가족형태에 대한 교과내용으로는 핵가족이 현대사회의 보편적인 가족형태로 대두되었으며 다양한 가족 형태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포함하고 있다. 1인 가구의 증가는 농촌의 노인 단독 가구 문제를 중심으로 다루고 있으며, 무자녀가족, 편부모가족 등의 다양한 가족 형태를 인정하고 있다. 또한 입양, 공동체 가족, 사이버 가족 등 대안적 형태도 제시되고 있다. 그러나 노인 단독

가구를 제외한 1인 가구나 한 자녀 가족에 대한 깊이 있는 탐색은 없다.

교과내용 중에는 결혼과 출산이 선택의 문제일 수도 있고, 실제로 결혼하지 않고 출산하지 않는 선택을 하는 인구가 늘어가고 있음을 객관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결혼과 출산이 선택이라는 지적이 여러 번 반복될 때, 향후 결혼율과 출산율에 미칠 수 있는 부정적인 영향에 대해서도 재고의 여지는 있다.

삽화에서 한 자녀 가구가 가장 빈번하게 제시되고 있다. 이는 일부 현실을 반영한 것이기도 하나, 암묵적으로 소자녀관의 가치를 주입하여 다자녀에 대한 부정적인 의식을 심어 줄 수 있다. 자라나는 세대들로 하여금 희망하는 수만큼 자녀들을 출산할 수 있도록 교과내용으로 제시되는 가족은 보다 다양한 자녀수를 포함하여야 할 것이다.

결혼에 관해서는 개인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매우 중요한 행위라는 점을 제시하고 있으면서, 선택의 문제라는 관점을 유지하고 있다.

전통 사회에서 결혼은 가문의 계승과 유지를 위한 가족의 결합으로 중요했다. 그러므로 배우자를 선택할 때 개인의 선택권보다 가족의 결정이 우선이었다. 현대에 와서는 남녀간의 교제가 자유로워지고 결혼에 관한 생각이 달라지면서 개인의 행복과 욕구 충족을 중시하게 되었다(기술·가정, ○○○, pp.44-45).

요즈음 한국사회에서는 결혼의 고비용 구조가 결혼 연기의 사유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앞으로 결혼의 허례허식을 줄이고, 비용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문화적 변화가 필요하다. 그러나 다음의 교과서 내용은 약혼 등을 의무처럼 기술하고 있다.

결혼을 하게 되면 약혼, 함들이, 혼수, 청첩, 결혼식, 피로연, 신혼여행 등 결혼 의식과 관련된 행사에 대해서도 준비해야 한다(기술가정, (주)○○○, p.27).

고등학교 교과내용에는 자녀를 기르는 보람과 좋은 부모가 되기 위한 모임 등이 소개되고 있다. 특히, 아버지의 참여에 대한 중요성이 충분히 강조되어 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자녀를 갖는 것의 의미, 특히 사회적인 의미에 대한 교과내용이 매우 부족하다. 가족생활주기를 설명하면서, 부모의 입장에서 자녀가 경제적인 부담으로 작용함을 지나치게 강조하고 있는 점도 보인다. 물론, 자녀

양육기는 가족형성기나 자녀 출가 후 노부부기에 비해 자녀양육으로 인한 비용이 상대적으로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비를 하는 것은 중요한 과제이다. 그러나 자칫 이러한 지나치고 일방적인 강조가 초·중등학생에게 '자녀=부담'으로 인식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중립적이고 사려깊은 기술이 요청된다.

자녀가 출생하면 육아비 등의 지출이 차츰 커져서 가계를 어렵게 만들기 때문에… (하략) (기술가정, ○○○, p.30).

가족 구조와 기능에 관한 교과내용으로는 가족구조가 가부장제를 바탕으로 한 수직적인 구조에서 평등적 인간관계를 강조하는 수평적 구조로 변화하고 있음을 제시하고 있다. 예를 들어, 가족 구성원이 다같이 모여 의사 결정하는 모습 등이 제시되고 있다. 가족의 기능은 많은 기능이 사회로 이전되면서 축소되고 있으나, 사회 성원 재생산 및 사회화, 정서적 안정 등의 기능은 고유의 기능으로 남아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과거에는 가정 내에서 담당하던 노인부양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음을 많은 교과서에서 제시하고 있다.

가족과 관련해서는 자녀가 부모세대에게 어떠한 자세로 공경을 하고 효를 실천해야 하는지에 대한 강조가 많은 반면, 부모 역시 자녀를 존중하고 민주적으로 양육해야 한다는 덕목은 거의 제시되지 않고 있다. '효'에 대한 강조를 통해 노인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시각도 많이 반복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사회에 노인요양을 맡기는 것을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해석하거나 개인주의의 결과로 접근한 부분이 눈에 띈다.

개인주의 문화의 또 다른 폐해는 노부모 부양문제이다.·(중략)…서양의 노인들은 자식들과 소원하여 양로원에서 홀로 노년을 보내는 경우가 많다(전통윤리, ○○○, p.59).

이러한 단편적 해석보다는, 평균수명의 연장, 허약노인의 증가, 가족의 소규모화 등의 다양한 요인에 의해 요양서비스가 필요해지고, 이는 고령화 사회에서 사회적으로 대처해야 할 문제임을 밝혀주는 것이 타당하다.

또한 가족생활주기에 대해 지나치게 정형적인 하나의 주기를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장기간의 교육, 청년실업, 노동시장 유연화, 소자녀, 수명연장

등 다양한 영향으로 표준적인 라이프 싸이클(life cycle)에 들어맞지 않는 다양한 삶의 경로를 (자의 혹은 불가피하게)선택하는 인구가 늘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설명은 좀 더 탄력적으로 기술될 필요가 있다. 실제 분석대상 교과서 중 1 교과서에서만 그러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가족의 다양성으로 인해서 표준적인 가족생활주기가 반드시 맞지 않는 경우가 생기고 있고, 모든 가족이 이러한 단계를 거쳐야 한다는 생각은 바람직하지 않다(기술가정 ○○○, p.23).

현재 한국사회에서는 3세대 가구가 현격히 줄어들고 있다. 이와 관련, 핵가족의 장단점, 3세대 가구의 장단점 등이 교과서에 기술되고 있다. 한편, 주택개조나 새로운 주택설계를 통해서 3세대 가구의 동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가치판단이 들어간 교과서 내용도 있다. 그러나 일부 내용은 중립적이기 보다는 부정적 이미지를 담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확대가족의 경우에는 핵가족에 비해 주거에 대한 요구사항이 보다 복잡해진다(기술가정, (주)○○○, p.96). 핵가족의 증대, 자녀수의 감소, 여성 취업의 증가 등을 결손가정의 원인으로 지적하는 정확하지 않은 기술도 있다. 핵가족의 증대, 자녀수의 감소, 여성 취업의 증가, 이혼 및 가출의 증가 등으로 인하여 결손 상태에 있는 가정이 늘어나고 있다(사회, (주)○○○, p.306).

가족관련 교과내용으로 이혼율 증가 등 가정의 해체 현상을 제시하고 있으나, 가족의 유대를 바탕으로 한 가정의 화목을 여전히 강조하고 있다. 점차 늘어나고 있는 이혼현상에 대해서 사회학적으로 포괄적인 해석을 제시하기 보다는, 이혼이 개인주의와 이기주의의 선택인 것으로 규정짓는 경우가 많고, 이혼이 아동의 발달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에 대해서도 숙명적인 것으로 묘사하고 있다.

유럽과 북미 가족의 가장 큰 특징은 가족 내 개인주의이다. 이로 인하여 자녀를 갖지 않는 부부와 이혼하는 부부의 수도 증가하고 있다(기술가정, (주)○○○, p.17).

전반적으로 가족과 관련해서는 부모에 대한 효와 부모세대 봉양의 중요성, 가족생활 주기별 특성 및 과제, 최근 이혼 등 가족해체의 경향, 다양해지고 있는 가족형태와 그에 따른 문제점 등에 대한 교과내용이 강조되고 있다. 출산율

감소와 관련한 사회문제와 그에 대한 대책들에 대한 내용이 체계적이지 못하고 미흡한 수준이다.

가족과 관련한 교과내용은 교과목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전반적으로 가족규모, 가족기능, 가족구조, 가족형태 등과 관련하여 비교적 많은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현대사회의 다양성을 인정하는 관점에서 가족을 해석하는 내용이 부족하다. 특히, 최근의 인구변동에 따른 가족의 특징을 과거 출산억제정책이 강조되었던 시기의 시각을 여전히 반영하고 있다. 가족관계에서도 노인을 부담의 존재로서 부정적으로 인식케 하는 교과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교과내용 중에는 이혼을 죄악시하는 성향도 잔존하고 있다.

마. 초·중등학생 결혼 및 가족관련 가치관 교육 적정화 기본 방향

1) 교과 내용의 오류를 수정하여 교육현장에 반영한다.

우선 소자녀관이 지배하였던 과거 산업화와 도시화 과정에서 발생하였던 인구과잉 문제나 그로 인해 발생하였던 사회 문제 관련 내용 진술과 최신성을 갖고 있지 못한 도표와 통계자료 등은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사회 문제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개인의 행복과 사회 발전을 위한 가치관 형성에 필요한 내용으로 수정·보완하여야 한다. 또한 각 교과에서는 반드시 가르쳐야 할 '필수 학습요소'를 중심으로 학습의 내용을 최소화해야 한다. 교과의 성격이나 교과 교육의 목표에 비추어 주변적인 내용을 과감하게 배격하여 학생들로 하여금 우리 사회에 적합한 자녀관과 가족관을 정립하여 다가올 저출산 사회의 주역들이 자녀와 가족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을 함양하도록 해야 한다. 특히, 미래의 저출산 사회의 민주시민 교육에 도움이 되지 않는 지나치게 학문적인 내용을 가급적 배제한다. 인구, 가족 및 성평등 관련 교과내용의 수준은 초·중등학생의 성장발달 수준에 적합한 내용으로 하되, 각 교과에 상응하는 특유의 사고력을 길러줄 수 있는 방향으로 내용을 수정하여야 한다.

〈표 4-20〉 교과내용 오류 수정 방향

부적정 유형의 진술형태	적정화 이유	수정 방향
<사례> 정○○씨는 초등학생 아들을 둔 어머니이자 직장인이다. 그녀는 바쁘지만 아이 교육에 신경을 많이 쓴다. 그러나 그 외의 집안일에는 신경을 쓰지 않아 집안 살림은 엉망이 되곤 한다. 엄마와 아이가 공부하는 삽화 (중2사회, ○○사, p.153)	사적 영역을 담당했던 여성이 공적 분야에도 진출하며 여러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 것이 현실이나, 가정 내의 자녀교육은 어머니만이 아닌 부모가 함께 고민하며 상의해 교육 방향 등을 찾아가야 한다는 관점을 삽입할 필요가 있다.	초등직장인인 어머니가 자녀 교육에 신경을 쓰는 장면을 아버지와 함께 아이교육에 대해 논의하고 고민하는 장면으로 수정

2) 학교에서는 다가올 저출산 사회에 대비한 가치관 교육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가치와 가치관은 학습의 결과이며, 교육의 개념을 '바람직한 인간 성향의 계획적인 변화'로 규정할 때 어떠한 행위로든지 간에 교육은 가치를 다루는 것이어야 한다.

저출산과 같은 의사결정이 세대를 거듭하여 지속되어 나타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체세대의 가정을 이루게 될 학생대상의 교육적 개입이 매우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여기에서 학생에 대한 교육이 출산에 대한 긍정적인 가치를 일방적으로 주입하는 흑백논리식의 교육으로 필요한 점이 아님을 분명히 한다. 현재 독자로 자라난 학생이나 혹은 형제 수가 다른 학생에 비해 많은 학생들은 자신이 장차 이루게 될 가족구성과 관련한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한 의사결정에서 자신이 자란 환경과 정반대의 결정을 하거나, 혹은 자신이 자란 환경만을 이상화하여 의사결정할 수 있다는 두 가지 방향의 가능성을 모두 고려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즉 독자로 자란 학생이 많은 수의 가족을 정반대로 선호하거나, 형제가 많은 학생이 정반대로 단출한 가족을 선호하는 식의 의사결정이다. 어떠한 결정이던지 자신의 출생 가족의 경험이 이러한 결정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여러 가지 가치에 기반한 행동의 대부분이 가정에서 형성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교육에서는 개인이 자란 환경과 다른 다양한 가족에 대한 직·간접적인 경험과 지식 그리고 정보를 제공하여 자신과 다른 가족에 대한 편견이나, 반대로 막연한 동경에서 나타난 무분별한 의사결정을 지양하고 개인의 상황에 따른 적절한 선택을 하도록 돕기 위하여 교육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한편 가족생활을 통하여 그대로 세대에서 세대로 전이될 가능성이 높은 가치와 행동의 세대간 전이 현상을 끊을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은 가족과 대비될 만큼 강력한 가치교육을 수행할 수 있는 장소인 학교에서의 교육이 필요하다. 즉 학교의 다양한 교육을 통하여 학습자가 자신의 가족환경과 다른 다양한 가족환경을 직·간접적으로 이해하고 경험하게 된다면 가족에 대한 가치관을 다양화하면서 가족과 관련한 의사결정을 할 때 부모세대와는 다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개연성이 높아질 것이라 예측된다. 이상적인 가족생활에 대한 사고, 가족생활에서의 역할분담에 대한 사고, 자녀에 대한 새로운 사고 등과 같이 저출산·고령화 사회와 관련된 다양한 가치교육은 학생, 자신에게 익숙한 대상에 대한 인식을 변경하고 새로운 선택과 의사결정을 내리게 하는 동인이 될 것이다. 따라서 학교교육을 통한 적극적인 가치관 중심의 교육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근본적이면서 장기적인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는 방안으로 볼 수 있다(왕석순·전미경, 2006).

가치 교육에서 학교의 역할은 어떤 가치를 신봉하도록 훈련하는 일이 아니라, 가치에 관한 분석, 종합, 추리, 탐구, 의사결정 등을 포함하는 가치과정을 교육하는 일이라는 것이다(김종근, 1992). 가치의 영역을 지상가치뿐만 아니라 조건적 가치로서도 생각하며, 절대적 가치보다는 계속 탐구해 갈 대상으로서의 일반적 가치를 가정하고, 사회현실을 단일 가치체제보다는 다가치체계로 인식할 때 필연적으로 중요한 것은 어떤 가치 체제에 철두철미한 신봉자보다는 개인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적정한 가치과정을 운영해 나갈 수 있는 인간과 체제가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가치관 교육은 정의적 특성과 인지적 특성을 모두 가지고 있다. 그런데 가치에 대한 분석, 종합, 추리, 탐구, 의사결정 등을 중시하는 가치과정으로서의 가치관 교육은 정의적 특성만으로 육박할 수 없다. 거기에는 다분히 인지적 과정이 포함되어 있으며, 또 포함되어야 마땅하다고 본다(정범모, 1969).

가치관 교육에 있어서 또 하나의 중요한 교육원리는 미학적 접근 방법이다. 미학적 행태의 인식은 인지적 인식, 정의적 인식과 더불어 인간이 사물을 인식할 때 일어나는 세 가지 측면의 의식 현장 중의 하나로서 그 차이를 표로 보이면 다음 <표 4-21>과 같다.

〈표 4-21〉 인식 차원의 비교

구분	미학적	인지적	정의적
내용차원	개체성	관련성	중요성
인지결과	이미지	아이디어	감정
목표와 기능	실제 특성에의 통찰력	이념에의 확대	목적과의 관련성
매개체	예술	이론	기술
인지방법	제시	설명	통제
인지내용	실제	사실	가치

자료: 한명희, 『교육철학』, 1989.

여기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미학적 인식이란 사물 그 자체가 가지고 있는 개체성과 실체성을 포함한 질적인 지각을 뜻한다. 이와 같이 인식 차원은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지만, 각 인식의 비중이 다르게 나타날 수도 있다. 보통의 경우는 세 가지 중 더 집중적인 형태의 인식이 나타나게 마련이다. 그중에서 일상적인 경험은 인지적 인식이 지배적이라는 것이다(한명희, 1989). 그러나 개념화된 인지적 인식만으로는 사물의 구체적 실체나 본질을 놓치게 되므로 자아 속에서 살아있는 사물로 인식되기 위해서는 정의적, 미학적 인식이 필수 불가결한 요인이 된다(한명희, 1989).

이상에서 학교교육은 부단한 가치 탐구를 목적으로 하는 목적률적 입장에서 가치에 대한 분석, 종합, 추리, 탐구, 의사결정을 포함하는 가치과정으로서의 가치관 교육이 절실하다. 복잡한 다가치를 지향하는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더욱 그러하다.

삶은 무수한 선택의 연속인데 그러한 선택의 기준은 가치관이 된다. 따라서 가치관 교육은 바람직한 가치를 자율적으로 선택하고, 그 선택에 따르는 책임을 스스로 질 수 있게 하는 교육이 되어야 한다.

2. 교사교육의 방향

오늘날 교육은 개인의 성장 발달뿐만 아니라 국가적 차원에서 국가 발전의 전략적 관심사로 인식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저출산 문제에 대해는 오늘날의 대다수 국민뿐만 아니라 다가올 저출산 사회의 결혼과 출산의 당사자인 초·중등학생들이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심각성이 있다. 우리 사회의 인구구조가

저출산으로 인해 왜곡되거나 고령화되는 거시적인 사회현상이 개인의 삶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사실 초·중등학생들이 체감하기란 대단히 어려운 문제일 수 있다. 그런데 저출산·고령화 사회의 현안은 국민 개개인의 의식개혁이 전제되고 이러한 현실에 대한 개개인들의 삶의 준비가 더 중요한 현안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준비와 대책에 대한 교육의 개입이 필요하다.

학교교육은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교사의 질을 넘어설 수 없다는 말이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보면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거나 다가올 저출산 사회에 준비하거나 대비하기 위해서는 학교교육 활동의 직접 당당자인 교사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아무리 국가 차원에서 훌륭한 저출산 관련 학교교육과정을 체계적으로 수립하고, 교수-학습 자료를 풍부하게 개발·보급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적절하게 활용하여 학생들에게 효과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교사의 능력이 개발되지 않으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없다.

급격한 저출산 현상에 대처하기 위해 학교교육에서는 교사의 계속 교육을 강화하여 그 전문성을 높이고, 정보기술 및 교육매체의 발달에 맞추어 학교 교육방법을 변화시키고, 학교 운영에 대한 새로운 경영 마인드를 가지는 일에 집중하지 않을 수 없다.

교육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교육활동의 전 영역에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개선 노력이 요구되지만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교사의 직무수행 능력 함양을 위한 현직 교육의 중요성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다고 할 수 없다. 교사 교육[5]은 크게 직전교육 즉 임용전 교육과 현직교육으로 나누어진다. 교사의 직전교육과 현직교육 중에서 종래에는 직전교육에 많은 관심이 주어졌으나, 근래에 와서는 직전교육의 한계성과 현대사회의 급속한 변화와 지식의 폭발적인 증가로 직전교육만으로는 교사의 질적 향상을 보장될 수 없다는 인식하에 그 어느 때보다도 계속적인 현직교육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교육의 성패를 좌우하는 훌륭한 교사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교원양성대학의 교사양성 프로그램을 시대변화에 맞게 재조정하는 것이 일차적인 과제이지만, 교사로 임용된

5) 일반적으로 교사 교육은 교원연수라는 용어로 현실적으로 사용하고 있어 이하에서 교원연수로 사용한다.

후에도 교사의 전문성과 자질을 유지, 신장시키기 위해 현직연수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함은 재론의 여지가 없다.

교사의 자질과 전문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연수 교육과정이 중요하다. 어떠한 교사로 만들기 위하여 어떠한 내용과 방법으로 교육할 것인가에 대한 설계도가 연수 교육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학생들을 위한 교육과정은 국가 수준에서 체계적이고, 주기적으로 국가적 사업으로 교육과정을 개발하여 고시하고 있으나, 교사들을 위한 교육과정은 체계적으로 개발되지 못하고 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1992년 교장 자격연수 등의 표준 교육과정을 만들어, 1993년 3월 31일자로 각 시·도 교육청과 교원연수기관에 제시한 바 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표준교육과정을 통보하는 공문을 통하여 각 교원 연수기관은 이 표준교육과정을 연수과정 운영에 관한 기본 모형으로 활용하여 '93년도 하계 연수부터 적용하도록 지침을 시달한 바 있다. 이와 같이 이전에도 자격연수 표준교육과정이 제시되기 하였으나, 교장 등 일부에 국한되었으며, 교감, 1급 정교사에 대한 체계적인 표준교육과정이 제시된 경우는 없었다(손경수 외, 2005).

전국의 교육인적자원연수원을 비롯한 각 시·도 교육연수원에서는 교장, 교감, 교사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연수가 이루어지고 있는 바, 연수기관의 교육과정 개발의 자율성과 다양성도 중요하지만, 우리나라의 교장, 교감, 교사들에서 오늘날의 저출산 문제에 대한 인식을 확산시키고 이를 바탕으로 자라나는 초·중등학생들에게 저출산에 대한 올바른 인구교육을 수행하기 위해 어느 정도의 연수는 필요하다.

따라서 전국 교육연수원의 연수과정이 기초하고 교육과정에 저출산 관련 초·중등학생의 가치관 전환을 위한 가족친화적 인구교육 체제 개선방향에 부합되는 교육과정을 개발하여 저출산 문제에 대한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여 교사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연수의 질 개선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가. 교원 연수의 필요성

교원 연수에 대한 필요성에 대한 견해는 학자들마다 매우 다양하게 소개되고 있다. 교사 재교육의 필요성에 대해 와트킨(Watkins)는 지식의 변화, 교수 기술의 변

화, 사회의 변화, 교사의 변화, 학교의 변화 때문에 교사의 현직교육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하였고(Watkins, 1973, 손경수 외 2005), 홉킨스(Hopkins)도 전 교원들의 교육자로서의 전문성을 계속적으로 신장시키기 위해, 오늘날의 급속한 기술적, 경제적, 문화적, 사회적, 정치적 변화에 적응하기 위해서, 교원의 질적 수준의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서 교사의 현직 교육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1975년 UNESCO 제35차 국제교육회의에서 채택한 '교사의 변화하는 역할과 이것이 직전 및 현직교육에 미치는 영향'에서도 사회와 교육의 변화는 필연적으로 교사의 역할에도 변화를 초래하게 되므로 종래의 전통적, 고정적인 교직 개념은 새로운 것으로 대치되어야 하며, 끊임없이 변화하는 역할을 담당, 수행하는 것은 물론이고 동시에 전문적 종사자로서 전문성 신장을 도모하기 위해 직전교육과 현직교육이 일관된 과정 속에서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교원연수의 목적에 대해 김종철(1976: 손경수 외, 2005에서 재인용)은 직전교육의 미비를 보충하고 사회의 변화에 적응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하였으며 백현기(1963: 손경수 외, 2005에서 재인용)는 변천하는 사회에 적응하고 틀에 박힌 직업생활에서 벗어나 개인의 성장·발전에 필요한 단체 활동을 조장하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하였다. 한편 OECD는 보다 구체적으로 현직교육의 목적을 계속교육의 차원에서 그리고 조직적 요구 및 개인적 요구의 차원에서 분석하여 제시하였다. OECD가 제시한 교원에 대한 현직교육의 다섯 가지 목적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손경수 외 2005).

① 학교 교직원 전체 또는 교직원 일부 집단의 직무수행 능력을 개선시키려는 목적의 연수
② 개개인 교원의 직무수행 능력을 개선시키려는 목적의 연수
③ 승진 또는 승급을 위한 개개인 교원의 사전 경험을 확장시키려는 목적의 연수
④ 개개인 교원의 전문적 지식 및 이해를 증진시키려는 목적의 연수
⑤ 교원의 개인적 요구를 충족시키거나 일반교육을 증진시키려는 목적의 연수

위 5가지 연수의 목적을 주로 학교의 조직적 요구 및 목표의 충족을 지향하는 연수와 학교 조직 구성원인 교원의 개인적 요구 및 자아실현의 충족을 지향하는 연수가 있음을 시사한다. 이와 같이 교원연수는 교원으로서의 자질을 갖추도록 도와주는 활동이며, 그것을 통해 바람직한 교원이 되는 데 필요한 자질을 갖추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

나. 교원 연수의 원리

바벨로(Burrello)와 오르바우(Orbaugh)는 교원연수의 실제를 관찰하고 이에 대한 광범위한 문헌분석으로 통해서 효율적인 교원연수의 주요한 원리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첫째, 교원연수는 전체 학교교육 프로그램 속에서 통합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① 교원연수 프로그램은 시·도교육청이나 지역교육청 그리고 단위학교의 행정가에 의해서 처음부터 적극적인 지원을 받아야 한다. ② 교원연수의 참여를 유도하는 유인체제는 내재적인 전문적 보상에 집중되어야 한다.

둘째, 교원연수 프로그램은 협동적 프로그램이 되도록 구성되어야 한다. 프로그램 계획, 전달 및 평가에 있어서 교사·학생들을 포함시키는 것은 동기를 증대시킬 수 있고 또 지원을 강화할 수 있다.

셋째, 교원연수 프로그램은 참여자의 요구를 기초로 구성되어야 한다. 궁극적으로 현직연수 프로그램의 정당성은 프로그램을 강화하는 데 있어서 그것의 공헌도는 학생에 대한 봉사에 있다. 그러므로 ① 교원연수는 참여자의 관심과 요구에 부응해야 한다. ② 문제해결 기능 개발도 교원연수의 한 부분이 되게 한다.

넷째, 교원연수 프로그램은 교육과정, 교원인사, 교육조건 등이 변화에 용이하게 적응할 뿐만 아니라 효과적인 교원연수는 혁신과 변화의 이론에 관한 연구결과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다섯째, 교원연수 프로그램은 용이하게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므로 ① 현재 근무교가 연수 활동의 중심이 되어야 하고, ② 참여의욕을 상실하게 할 불편한 시간·장소 같은 것은 제거되어야 하며, ③ 교원연수 활동은 참여자의

정규근무 시간 중에 이루어져야 한다.

여섯째, 교원연수 활동은 일정기간마다 평가되어야 한다. 즉 교원연수는 전체 학교 프로그램 속에 통합되도록 설계하되, 협동적이면서 참여자의 요구를 바탕으로 구성하여야 하고, 변화하는 요구에 수용적이어야 하며 용이하게 접근할 수 있어야 하고, 일정기간마다 평가되어야 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Burrello and Orbaugh, 1982: 손경수 외 2005에서 재인용).

교내 교원연수는 사회교육이며, 직업종사자인 성인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자발학습, 자기학습, 상호학습, 생활적응, 능률성, 집합학습의 원리를 따라야 한다고 밝히고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① 자발학습의 원리: 교내 교원연수는 타의에 의해 강제되는 것이 아니고, 학습자가 스스로의 의사에 따라서 문자 그대로 자발적으로 행하는 학습이다. 따라서 교사의 학습요구, 부서별 단계나 생활조건에 대응하여 계획하고 수료증 등의 자극이 되는 계기를 마련하며, 학습의 기획 운영에 교사를 참여시키고 교육활동에 관한 홍보를 충실하게 함으로써 자발학습을 촉진할 수 있다.

② 자기학습의 원리: 자기학습이라는 것은 학습자가 스스로 자발적인 주체가 되어 각자 선택한 학습방법에 따라서 혼자서 학습하고 과제를 해결함과 동시에 자기의 형성을 도모하는 일이다. 교내 교원연수에 있어서도 독서, 견학, 조사활동을 통해 개인 스스로 학습할 수 있도록 도모해야 할 것이다.

③ 상호학습의 원리: 교내 교원연수에 있어서 같은 목적을 가진 교사가 몇 사람 모여서 학습을 진행하는 경우 서로가 가르치면서 배우는 것을 말하며 그 전형적인 형태는 토의학습이며, 학습자 중 지도가가 선발되어 학습을 진행하는 형태, 서로의 수업을 참관하고 토론하는 것들이 여기에 속한다.

④ 생활적응의 원리: 교내교원연수에 있어서 교육이 제도화되고 고정화되면, 교육활동이 생활에서 유리되기 쉽다. 교육방법을 고찰하는데 있어서는 그 목표, 내용, 방법 모든 면에서 걸쳐서 교사의 학교생활 적응의 관점에서 수시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⑤ 능률성의 원리: 학습의 능률을 높이기 위해 학습의 형태, 장, 프로그램, 교재 등의 모든 면에서 재음미하여야 한다.

⑥ 집합학습의 원리: 교내 현직교육에 있어서 집합학습은 집단 속에서 적극적으로 상호학습을 행하고 교사들간의 인간관계를 중시하면서 학습에 관한 공동활동을 전개하는 것으로 교사개인의 욕구를 충족시키고 교양 향상을 꾀하는 한편, 공통적인 의식을 길러 집단의 과제도 해결하고 집단으로서의 목표를 실현시키고자 하는 것이다. 그룹, 서클단체, 교실학습 등의 이름으로 불러지는 학습활동과 스카웃, 아람단 등의 아동훈련이 이에 속한다.

또한 딜런과 피터슨(Dillon and Peterson)과 해머(Hammer)는 성인학습의 이론을 교원연수 프로그램의 작성에 적용해 본 후 효과적인 연수 프로그램의 작성을 위해 ① 교사들의 개인차를 고려할 것, ② 교사들의 문제거리의 변화 단계를 고려할 것, ③ 연수결과를 내면화·실제화하기 위해 교사들이 선호하는 연수방법을 고려할 것 등을 제언하였다.

오자(Oja)도 교사들의 연구욕구, 선호하는 학습방법, 동료와의 상호작용 스타일, 학교현장의 실제적인 문제에 관한 인식 등 여러 면에서의 개인차를 잘 고려하는 것이 교사들의 호응을 높일 수 있는 직능개발 프로그램을 작성하는 데 꼭 필요하다는 주장을 하였다. 또한 오자(Oja)는 상이한 발달단계에 있는 성인들에게 성장과 변화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직능개발 프로그램의 작성에 있어서 개인차를 고려한 적절한 자원과 도전감이 주어져야 함을 제언하였다.

다. 저출산 관련 교원 연수의 실태

우리나라의 교원연수는 각 시·도 교육연수원의 주관 하에 이루어지는 자격연수와 직무연수, 특별연수가 있고, 학교 중심의 연수로는 연구수업, 교과연수, 직원연수, 전달강습 등이 있으며, 개인 중심의 연수로는 국내·외 교육기관에서의 학위 취득과 교과연수회 등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저출산과 관련하여 가장 핵심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것은 다름 아닌 저출산에 대한 공감대 형성을 위한 홍보와 어려서부터의 교육이라 하겠다. 먼 미래를 내다보고 초·중등학생들에게 가족의 중요성과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가족 친화적인 가치관을 심어주어야 한다. 이런 구체적인 실천 방법으로는 교육연수원 주관 교원연수와 학

교 중심 연수, 개인 중심 연수를 고려할 수 있으나 우선 학교 교육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학교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교원 연수를 담당하고 있는 교원연수원 중심의 연수라고 할 수 있다.

교원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연수로는 크게 자격연수와 직무연수, 특별연수로 이루어진다. 자격연수는 상급 자격이나 새로운 자격을 취득하기 위한 연수과정으로 1급 정교사 과정, 교감 및 교장 과정으로 구분되어 있다. 자격 연수의 과정은 30일 이상으로 하되, 그 이수기간은 180 시간 이상이다. 직무연수는 직무 수행과 직장 적응에 필요한 능력과 자질 배양을 위한 연수이다. 직무 연수의 연수과정은 직무수행 능력의 향상을 위해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또는 교육공무원법 제45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해 휴직하였다가 복직하는 교원을 대상으로 이루어진다. 그리고 직무연수의 내용과 기간은 당해 연수원장이 정한다. 직무연수 대상자는 당해 교육감 또는 소속 기관장이 지명한다. 특별연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계획을 수립하여 교육공무원을 국·내외의 교육기관 또는 연구기관에서 일정한 기간 동안 연수를 받게 하는 것이다. 그러면 각 시·도 교육연수원에서 실시하는 연수는 각 교육연수기관의 성격과 교육적 여건에 따라 다르게 이루어지고 있다.

2006년도 자격연수는 전국 연수원에서 173개 과정에 17,043명이 이수를 하고 있고, 직무연수는 764개 과정에 59,905명이 이수를 하고 있다. 하지만 저출산 관련 자격연수와 직무연수의 강좌로 편성·운영되고 있는 경우는 거의 찾아볼 수 없다. 이러한 현상은 저출산 관련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았던 2005년도 후반기에 연간계획이 수립되고, 이를 바탕으로 2006년도 초에 연간계획이 편성되어 운영되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각 시·도 교육연수원의 저출산 관련 연수의 필요성에 대한 의지의 부족으로 파악된다.

라. 교원연수의 개선 방향

저출산 관련 교원연수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많은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교원연수의 문제점으로 교원으로 하여금 저출산 관련 연수기회가

전혀 없고, 연수기관의 저출산 연수에 대한 의지의 미흡, 저출산 관련 연수에 대한 유인체제의 미흡, 저출산 연수담당 인력의 부족 등을 들 수 있다.

교원연수는 미래 사회의 주역을 가르치는 교사들에 대한 교육이라는 점에서 더욱 중요하고 그 사명이 막중하다. 한나라의 경쟁력은 그 나라의 교육수준에 기초를 둔다는 것을 고려할 때 앞으로 다가올 저출산 사회에 슬기롭게 대응하고 국민 개개인의 풍요로운 삶과 살기 편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는 저출산 사회에 대응하는 교육에 전력을 다해야 한다. 이와 같은 사회의 급격한 변화, 교사에 대한 계속 교육의 필요성에 부응하여 교원연수에 대한 새로운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1) 연수교육과정의 편성과 운영

가) 교육과정 및 교재개발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연수를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질 높은 교육프로그램이라 할 수 있다. 학교교육과정은 국가적 사업으로 오랜 연구와 방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장기적인 사업으로 교육과정을 개발하는 데 비하여 현직 연수과정은 그 개발 과정이 비체계적이고 교육과정에 대한 기준 또는 준거가 마련되어 있지 못하다. 저출산 관련 교육과정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국사·사회적인 필요와 연수과정의 개설 취지를 고려하여 각 시·도 교육연수원의 교육과정을 분석하고, 연수생 및 교원연수 관계자의 요구를 수렴하여 교육목표를 설정하고, 목표달성을 위해 필요한 학습 내용을 선정·조직하여 교과목 또는 주제를 개발하고 각 교과목에서 다루어야 할 학습 필수요소를 선정하여 실라버스를 작성한 다음 연수에 적합한 교과목 및 주제를 선택해야 할 것이다. 연수 교육과정에 획일적인 교육과정을 적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지만 저출산과 관련한 교육목표와 교육과정에 대한 대체적인 합의를 도출하고 연수대상, 연수기관 및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자격연수나 직무연수 혹은 특별연수를 통해 융통성 있게 창의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강사에게 강의를 의뢰할 때 단순히 강의 주제와 시간, 원고 분량 등만을 제

시할 것이 아니라 교육과정의 개설 취지를 설명하고 연수원 나름의 강의안 모형을 개발하여 집필방향, 원리, 체제 등을 집필진에게 제시하고 강의안을 집필하도록 함으로써 강의안의 일관성과 질 향상을 도모하여야 할 것이다. 교재도 단순한 인쇄매체에 의한 교재수준에서 벗어나 정보화 시대에 걸맞은 복합매체의 방식이 요구된다.

나) 연수자 중심의 교육운영

교직은 전문직에 속하며, 급변하는 현대사회에서 교원으로서의 전문적 능력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교원들이 전 생애 걸친 계속교육이 요구되는 것은 너무나도 자명하다. 또한 지금까지 교원연수는 대부분 기관 중심의 획일적인 연수 형태에 의해 수동적으로 이루어져 교원들의 욕구에 부응하지 못하였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교원들은 현직연수를 통해 계속교육의 이념을 실현하고, 그들의 전문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스스로의 필요에 의해 자율적이고 능동적으로 연수에 참여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해야 할 것이다.

강사와 교재 중심의 획일화된 주입식 교수 학습 방법에서 탈피하여 연수생이 중심이 되는 토론학습, 탐구학습, 실험 치 실습학습, 창의적인 문제해결 학습 등 개인의 잠재적 능력을 계발할 수 있는 학습 방법의 학습을 정착시켜야 할 것이다. 자기주도적 학습이 가능하도록 교재의 내용을 개선하고 계속교육의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교육방법을 개발·적용해야 할 것이다.

2) 정보사회에 부응하는 연수 방법의 모색

과학기술의 눈부신 발전은 우리의 삶의 모습을 바꾸어 놓고 있으며 교육의 모습도 새롭게 바꾸어 나가지 않으면 안 될 입장에 처하게 되었다. 오늘날 정보의 복합적 처리와 전달의 신속성 및 상호작용을 특징으로 하는 새로운 매체들이 등장함으로써 교육적 패러다임의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이러한 기술은 교수자와 학습자가 시간과 공간을 공유하지 않고도 교육을 가능하게 만들 가능성이 있다. 정보통신 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원격교육에서 채택할 수 있

는 교수매체의 범위가 다양해지고, 이는 기존 원격교육에서의 교재와 학습자간의 제한된 상호작용의 형태를 보완하여 학습자와 교수자, 학습자와 학습자간의 쌍방적 의사소통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원격교육의 사회 교육적 영향력을 강화시킬 수 있게 되었다.

교육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원격 연수 체제의 수립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원격 매체의 교육적 활용을 극대화하여 교육의 질을 높이고 연수생들에게 교육의 기회를 확대하는 동시에 교육 수요자의 필요에 부응하는 높은 수준의 다양한 연수 프로그램을 제공하려고 하고 있다.

3) 현직 연수의 질 향상

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을 능가하지 못한다는 말은 너무나도 당연하다. 교사교육의 개선을 위해 직전교육과 현직교육 과정을 통하여 저출산 교육에 대한 폭넓은 소양과 전문적 지식을 습득할 뿐만 아니라 새로운 교육내용과 교수방법을 계속적으로 연마할 수 있는 교원 연수가 필요하다.

연수영역을 자격연수와 직무연수의 분야별로 저출산 관련 연수 내용을 세분화하고, 진지한 참여와 토론에 의한 연수가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교육청을 중심으로 한 관주도의 연수도 경우에 따라 필요할 것이지만 교사의 연구회 중심의 자율연수를 활성화하는 것도 바람직할 것이다.

4) 강의 질 제고와 연수여건의 개선

현행 교원연수 실태를 보면 한 과목 또는 주제 당 2~3시간 정도의 교과목이 지나칠 정도로 다양하게 백화점식으로 나열되어 깊이 있는 연수가 되지 못하고 있다. 그러므로 항상 총론적이고 원론적인 이야기만 되풀이 되며 구체적인 각론이나 방법론에는 접근하지 못하고 있다. 교육과정의 성격을 분명히 하고 주제들 명확히 하여 주제에 대한 깊이 있은 연구가 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강사도 소위 저명인사보다는 관련 분야의 전문성을 가진 참신한 강사를 발굴·활용하며 특히 현직연수의 강사는 현장 경험과 학문적 배경을 가진 사람 중에서 유

능한 강사를 선발하여 교육현장과 실제에 도움이 되는 구체적인 내용의 강의를 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5) 교원연수 지원체제의 확립

가) 연수에 대한 단위 학교 경영자의 관심 제고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많은 일들이 학교 경영자의 관심 분야나 관심도에 따라 큰 영향을 받는다. 저출산 관련 연수에 대한 학교경영자의 확고한 신념과 교사의 공감대와 인식이 형성될 때 교사가 각종 연수에 참여할 수 있고 활성화될 수 있다

나) 교육청의 저출산 관련 인식 및 업무체제의 개선

현재 각 시·도 교육청에서 저출산 관련 조직구성과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기관은 거의 없다. 다만, 저출산 관련 조직과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시·도 교육청은 16개 가운데 경기도교육청과 대전교육청, 전라북도교육청뿐이다. 경기도교육청에서는 지원국 소속에 저출산 대책팀을 구성하여 저출산 관련 '희망이즈' 캠페인을 확대하고 있고, 업무로는 저출산·고령화 극복을 위한 대책, 저출산 대책 기획단 우수사례, 희망이즈 평생학습 축제로 홍보, 미래학교 플랜 및 학교 입지, 저출산 문제 '학교'가 희망이다, 2007년도 고입 쌍둥이 이어 3형제도 동일교 배정 등을 마련하여 수행하고 있다. 대전광역시교육청에서는 저출산 대비 학생 수용계획을 수립하고 있고, 저출산 극복을 위한 교원 인사규정 개선,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슬로건, 플래시 공모대회 등을 수행하고 있다. 전라북도교육청에서는 저출산 교육 대책반을 운영하고 있고, 저출산 대비 학교 신설 및 학급 감축, 교원 수급계획을 총체적으로 접근하고 있다. 그 외의 교육청에서 저출산 관련 업무를 거의 수행하고 있지 않고, 중장기 학생 수용계획이나 저출산 육아 문제 해결 실마리 홍보(인천광역시교육청) 등에서만 관심을 보이는 것으로 보인다(각 시·도교육청 홈페이지 참조).

이상에서 각 시·도 교육청에서는 저출산 관련 인식 및 업무 체제를 개선하

여 연수원의 저출산 관련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할 수 있도록 전문적으로 도와주고 협조할 수 있는 지원체제가 필요하다.

6) 저출산 원격교육과 콘텐츠 개발

교육과 학습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지면 정보기술을 포함한 첨단 테크놀로지를 사용하여 이전에 불가능했던 다양한 원격연수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 특히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원격연수는 인터넷의 급속한 보급과 확산이 시작되면서 저출산에 대한 교육 실현을 가능하게 해 주고 있어 전통적인 학습방법과 구별되는 대안적 교육 방법으로 자리잡아가고 있다.

원격학습체제는 평생학습 체제 실현과 시공간을 초월한 상호작용 실현에 대한 교육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연수원별로 컨텐츠 개발에 많은 연구와 노력을 기울려 왔으나 연수원별로 컨텐츠 개발을 개발하다 보면 중복개발, 강사의 제한적 활용으로 컨텐츠 질 저하, 연수원간의 공유체제 미흡 등의 문제점이 제기될 수 있다. 따라서 이제는 연수원간 저출산에 대한 컨텐츠 개발에 대한 협의 및 설계로 공동으로 개발할 것을 서로 분담하여 개발함으로써 예산의 중복 투자를 방지하고, 보다 질 높은 컨텐츠 개발이 요구된다 할 것이다.

7) 교육연수원 기관간의 지원·협조체제 구축

저출산 관련 연수 내용과 국제적 동향을 바탕으로 표준화 된 연수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각 시·도 교육연수원에 개발·보급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각 시·도 교육연수원에서는 저출산 관련 연구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는 여건이 구비되어 있지 못한 실정이다. 따라서 이러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시·도 교육연수원, 시·도교육청의 지원·협조 체제를 구축하여 함은 물론이고 각 시·도 교육연수원간의 지원·협조와 유기적 연계 하에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또한 교육인적자원연수원과 지방교육연수원 및 대학 부설 연수원간에 저출산관련 현직연수를 위한 정보와 자료를 상호·교환하는 것도 필요하다 하겠다.

제 7 절 소결 및 미래세대의 친 결혼·출산 가치관 제고를 위한 제언

청소년은 미래사회를 책임질 세대이다. 청소년은 전통을 계승, 유지, 발전시키고, 다른 한편으로는 변화와 혁신을 주도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청소년 시기는 모든 것이 완성되고 안정된 상태가 아니라 성장해 가고 있는 성인기로의 이행기이다. 가치관도 마찬가지이다. 청소년은 다양한 가치갈등과 혼돈을 경험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청소년기는 성인기의 삶을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단계인 것이다.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저출산과 고령화와 관련해서 청소년은 중요한 관심의 대상이다. 청소년기에 결혼·가족·자녀(출산)와 관련하여 어떠한 경험을 하였느냐 하는 것이 일생동안 비교적 안정적으로 유지하게 될 결혼 및 가족가치관으로 형성될 가능성이 크다. 이런 까닭에 청소년의 출산과 관련된 가치관 교육이 중요하다. 특히, 저출산은 인간이 의도적으로 선택한 행위의 결과라는 점에서 출산력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청소년들이 결혼과 자녀(출산)에 대해서 친화적인 가치관을 갖도록 할 필요가 있다.

일반적으로 가치란 개인이나 집단이 가지고 있는 바람직한 것, 적절한 것, 좋은 것, 그리고 좋지 않은 것 등에 관한 지속적인 신념이다. 그리고 이러한 가치에 대한 관점과 견해를 가치관이라고 한다. 가치는 인간, 사회에 따라 다양하며 개인적 가치관은 문화적 환경에 의해 상당한 영향을 받는다. 가치관은 개개인마다 다르며(가치의 다양성) 한번 형성된 가치는 쉽게 변하지 않고(가치의 안정성) 가치에 따라 선택 행위를 할 때 갈등을 최소화 하려고 한다(가치의 책무성). 이러한 가치관은 가족요인, 성 요인, 사회적 환경 요인, 정부의 관련 정책 등에 영향을 받으면서 형성된다는 특징이 있다. 따라서 청소년을 하나의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동질적인 집단으로 바라보는 것은 올바른 시각이 아니며, 청소년 개개인을 독특한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존재로 보아야 한다.

일반적으로 청소년들은 과거에 비해 국가보다 자신과 가족을 우선하고 있으며, 자신의 생각을 보다 적극적으로 표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자세히 살펴보면 청소년의 성과 연령 등에 따라 가치관에 다소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

타났다. 즉, 초등학교와 중학교 학생들이 고등학생에 비하여 결혼과 가족에 친화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사실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결혼과 가족친화적 가치관 교육이 청소년의 집단별·개인적 특성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음을 암시한다.

한편, 청소년의 결혼 및 가족 친화적 가치관 정립은 성인 세대의 가치관 교육과 병행하여 진행될 필요가 있다. 청소년은 사회와 고립되어 생활하지 않으며, 늘 사회 속에서 부모와 교사 등과 같이 성인들과 어울려 생활한다. 따라서 청소년은 성인 세대와 다양한 모습으로 가치갈등을 경험하게 된다. 출산억제정책의 대상자였던 청소년의 부모세대들은 직·간접적으로 결혼과 가족에 대한 자신들의 경험을 청소년들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성인들에 의하여 관리되고 운영되는 매스컴도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가치관 정립 노력은 이러한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2006년도 미래세대의 결혼·자녀·양성평등에 관한 가치관 조사(정부승인통계 제06021호)」 결과를 분석하여, 현재 초·중등학생의 결혼 및 자녀에 대해 형성되어 있는 가치관을 파악하였다.

학생의 결혼관의 주요 특징들로는 첫째, 결혼의 필요성을 크게 느끼지 못하고 있다. 심각한 것은 반드시 결혼하여야 한다는 의식이 후세대일수록 낮다는 점이다. 결국 미래세대의 결혼필요성에 관한 가치관이 현재대로 지속된다면, 비혼현상이 심화될 것이라는 예측을 할 수 있다. 둘째, 학생들이 이상적이라고 생각하는 결혼시기(평균초혼연령)가 실제 초혼연령에 근접하고 있으며, 초등학교에서 고등학교로 올라갈수록 학생이 생각하는 이상적인 결혼시기가 늦추어 지는 경향이 있다. 즉, 미래세대의 결혼시기에 관한 가치관이 변화하지 않은 한, 만혼현상은 심화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셋째, 학생들은 결혼을 필수가 아닌 상황에 따른 선택으로 가치를 두고 있다. 결혼을 선택이라고 생각하는 가치관은 학년이 올라갈수록, 그리고 남학생보다 여학생들에게서 더 강하다. 넷째, 여전히 법률혼이 규범적인 장치로 작용하고 있는 우리나라 현실에서 학생들 사이에 이혼이나 성과 관련하여 개방적이고 진보적인 가치관이 증대하고 있다. 다섯째, 학생들 사이에 전통적이고 보수적인 결혼규범에 대한 구속 의식이 약해지고 있다.

학생의 자녀관의 주요 특징들로는 첫째, 혈연중심의 가족주의적 가치관이 약화되고 있다. 둘째, 학생들은 다양한 가족형태에 대해 아직 보수적인 가치관을 보인다. 그러나 상급학교·고학년일수록 긍정적인 태도가 높아져, 점차 다양한 가족형태에 대해 개방적으로 가치전환이 일어나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셋째, 현재 초·중·고 학생들의 노부모 봉양에 대한 가치관은 아직 조부모와 함께 살고 노부모의 노후를 가족이 책임져야 한다는 전통적인 경향이 강하나, 이러한 가치관은 성장하면서 점차 약화되고 있다.

현재 초·중·고 학생의 자녀관의 주요 특징들로는 첫째, 자녀 출산이 보편적인 가치로 확립되어 있지 않다. 둘째, 학생들은 일반적인 가치로 '다른 사람에게 명령할 수 있는 힘'과 같은 권력 지향적 가치를 가장 중시하며, '자유로운 생활'이나 '목표를 달성하고 성공하는 것'과 같은 자기 지도 및 성취 가치를 상대적으로 덜 중요시 하는 경향이 있다. 편안한 생활을 중요시 하는 학생들은 다자녀를 희망하지 않고 있으나, 화목한 가정을 중요시 여기는 학생들은 다자녀를 희망하고 있다.

청소년의 가치관 정립이란 가치관 교육을 통한 가치관 형성을 의미한다. 이때 중요한 점은 청소년의 가치관 정립이 구체적인 '가치'를 정립시키는 것이 아니라 '가치에 관하여' 교육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저출산·고령화 사회에서 청소년들로 하여금 가족과 결혼에 대하여 친화적인 가치관을 갖도록 한다는 것의 진정한 의미는 결혼과 가족에 관한 특정 가치관을 청소년들이 갖도록 교육시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 대신에 청소년을 대상으로 그들이 결혼·가족·출산에 친화적인 가치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가치를 판단하고 가치관을 정립할 수 있도록 교육적으로 지원하는 일이라고 할 수 있다.

더욱 중요한 사실은 가치관은 그 형성이나 변화가 단기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을 두고 서서히 진행된다는 점이다. 따라서 청소년 가치관 정립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인구구조의 변동에 관한 엄밀하고 체계적인 전망에 기초하여 결혼과 가족 그리고 생명의 소중한 가치를 차분하게 설득하고 공감대를 형성하여야 한다.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결혼 및 가족 친화적 가치관 정립의 올바른 방향이라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장기적인 수준의 노력과 별도로 단기적으로는 결혼과 가족 친화적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보급

하는 노력을 적극적으로 하여야 한다.

학교교육에서의 가치 교육 방향은 오늘날의 결혼이나 가족에 대한 다양한 가치를 합리적으로 하기 위해 가치관을 명료하게 해주거나 의사결정 할 수 있는 교육적 노력이 필요하다. 개인이 가지고 있는 결혼관이나 가족관을 탐색하여 명료화하는 일은 미래의 삶에 대한 합리적인 가치관을 바탕으로 의사결정함에 있어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이다. 학교에서는 결혼 및 자녀, 가족 관련 내용에 오류를 수정하여 교육 현장에 반영하여야 하며, 다가올 저출산 사회에 대비한 가치관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교사 교육의 실시를 위해 교원 연수를 강화하고, 저출산 관련 교원연수의 실태를 파악하여 이에 현실적으로 대처할 수 있어야 하겠다. 교원연수 방향으로는 교육과정과 교재 개발, 현직연수의 질 향상, 강의의 질 제고 및 연수 여건 개선, 교원연수 지원체제 확립 그리고 저출산 원격 교육과 콘텐츠 개발 그리고 이를 공유할 수 있도록 교육 연수원 기관간의 지원 협조 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

제5장 미래세대의 성평등 가족문화·고용문화 조성

제1절 개요

본 장에서의 연구는 현재의 초저출산 현상의 여러 가지 원인 가운데에서도 한 사회의 성평등 수준이 매우 중요하다는 데에서 출발한다. 얼핏 보기에 '성평등'과 '출산력 수준'은 그다지 연관성이 없어 보인다. 그러나 서구사회의 역사적 과정과 한국사회의 단편적인 경험적 연구들은 한 사회의 성평등 실현이 출산력과 같은 인구현상에 근본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가족이나 노동시장에서의 성평등 실현 정도는 개인, 그 중에서도 특히 여성의 일·가정 양립을 가능케 하는 방식으로 개인 및 개별가족의 생애전략에 영향을 미친다. 그것은 현재 결혼을 한 사람들이나 아직 결혼을 하지 않은 사람들에게나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성평등한 가족 및 직장 관행이 결혼을 하지 않은 미혼집단들에게는 결혼 시점과 출산 시점을 앞당기는 방식으로, 이미 결혼을 한 사람들에게는 출산 시점을 앞당기고 희망자녀수와 실제자녀수의 격차를 줄이는 방식으로 작용할 것이다. 물론 성평등 실현이라는 대과제가 출산력 수준의 회복이라는 차원에서만 논의될 수 없다는 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성평등 실현은 여성은 물론이려니와 남성에게도 궁극적인 해방을 가져다 줄 테마이며 우리 사회 전체의 삶의 질을 한 단계 높이는 데 반드시 선결되어야 할 목표라고 생각한다.

본 장에서의 연구는 우리 사회 출산력 수준의 회복과 성평등의 실현이라는 상호 연관된 두 과제를 위하여 특히 미래세대에 주목한다. 장차 우리 사회를 이끌어 갈 청소년들의 성평등 의식을 고취시킴으로써 한국사회 가족문화, 고용문화의 패러다임에 근본적인 변화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개인이 살아가는 데 가장 중요한 두 축, 즉 가정과 일터에서 성평등한 문화가 이뤄진다면 개인은 사회적 지원을 바탕으로 낳고 싶은 만큼 낳아서 남녀가 함께 일하고 돌보는

미래를 꿈꿀 수 있을 것이다. 이 연구는 이러한 사회를 실현하기 위하여 성평등한 가족문화 및 고용문화 모형을 실험적으로 제시하고 청소년의 성평등 의식 제고를 위한 방안들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구체적인 연구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선행연구검토를 통해 성평등과 출산력 수준과의 관계를 살펴본다. 또한 우리 사회 청소년의 성평등 의식에 대한 기존 연구를 살펴봄으로써 청소년 가치관의 현 주소와 변화 추세를 파악한다.

둘째, 본 협동연구의 일환으로 실시한 「2006년도 미래세대의 결혼·자녀·양성평등에 관한 가치관 조사(정부승인통계 제06021호)」 결과를 분석하여 청소년들의 성평등 의식, 가족 및 인구현상에 대한 태도, 일반적 가치관 등의 실태와 상관관계를 분석한다. 이와 동시에 교사에 대한 가치관 조사 결과를 분석하여 청소년 성평등 의식 제고 방안 모색에 기초자료로 활용한다.

셋째, 이론적 검토와 외국의 법, 제도 및 사례들을 검토하여 성평등한 가족문화를 모색해 본다. 이와 아울러 청소년 교과서 내용 분석을 통해 교과서에 나타난 한국사회의 현행 가족문화를 점검해 본다.

넷째, 이론적 검토와 외국의 법, 제도 및 사례들을 검토하여 성평등한 고용문화를 모색해 본다. 이와 아울러 청소년 교과서 내용 분석을 통해 교과서에 나타난 한국사회의 현행 고용문화를 점검해 본다.

다섯째, 「2006년도 미래세대의 결혼·자녀·양성평등에 관한 가치관 조사(정부승인통계 제06021호)」 분석 결과와 '성평등한 가족문화 및 고용문화 발전 방향'을 토대로 청소년의 성평등의식 제고 방안을 모색한다.

제 2 절 성평등수준과 출산수준간의 관계

1. 성 형평성(gender equity)과 출산력

UN 보고서에 의하면, 지난 40년간 선진국 가운데 인구대체수준 이하의 출산

력 수준을 지닌 국가가 5개 국가에서 63개 국가로 급상승했다. 많은 연구자들은 저출산(low fertility) 현상을 설명하는 데 가족에서의 성 형평성(gender equity) 역할에 주목하게 되었다(박수미, 2005).

McDonald(2000)는 출산율 감소 이론에서 젠더 형평성의 역할을 정교화하는 일련의 가설을 제시하였다. 그는 저출산 현상에 대한 분석으로 높은 경제성장을 이룬 국가에서 나타나는 저출산 현상은 개인적 제도(individual-oriented institution)의 높은 성평등과 가구·가족제도(family-oriented institution)의 불평등 간의 갈등 또는 불일치의 결과임을 지적한다. 공적 영역에서의 동등기회와 제도적 평등은 여성이 노동시장에 동등하게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여성의 의식수준을 향상시켰으나, 여전히 가족 내에서 가사 및 양육의 일차적 책임을 갖게 될 때, 여성은 불평등한 삶을 선택하기보다는 다른 대안적인 삶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가족 내 성별불평등은 여성과 남성의 파트너십(partnership) 형성을 제한하며, 따라서 성평등은 가족쇠퇴의 원인이 아니라 가족을 안정화시키기 위한 선결조건이다(Künzler, 2002).

다시 말해서, McDonald(2000)에 의하면 성평등 수준의 차이는 개인 지향적 제도(individual-oriented institution)와 가족 지향적 제도(family-oriented institution) 간의 차이를 말한다. 개인지향적 제도로는 경제활동참여율, 임금, 고등교육에서의 성별 차이 등을 들 수 있으며, 가족지향적 제도에 해당하는 것으로는 가구 내 성별분업이 있다. 즉, 성평등 수준이 중간으로 나타나는 국가들은 개인지향적 제도는 평등한 반면, 가족지향적 제도는 불평등한 데서 나오는 차이를 의미한다. 반면, 성평등 수준이 매우 높은 국가들은 양쪽 모두의 성평등 수준이 높은 것이고, 성평등 수준이 매우 낮은 국가들은 양쪽 모두의 성평등 수준이 낮은 경우이다. 그리고 초저출산 현상을 보이는 곳은 바로 성평등 수준이 중간인 국가들이라고 그는 지적한다.

호크쉴드(Hochschild, 1989)와 같은 가족사회학자는 미국의 맞벌이 부부들에 대한 분석을 기초로 이를 '지연된 혁명(stalled revolution)'이라고 불렀다. 즉 여성들이 노동시장으로 진출하여 일하는 비율은 급속히 증가했는데 남성들이 집안에서 가사를 분담하는 비율은 여전히 낮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여성들은 추

가 부담을 질 수밖에 없다. 이것은 맥도날드가 제안한 개별제도에서의 높은 성 형평성과 가족제도에서의 낮은 성 형평성 논의와 상통하는 것이다. 둘 다 여성의 '이중 부담'을 논의의 중심에 두고 설명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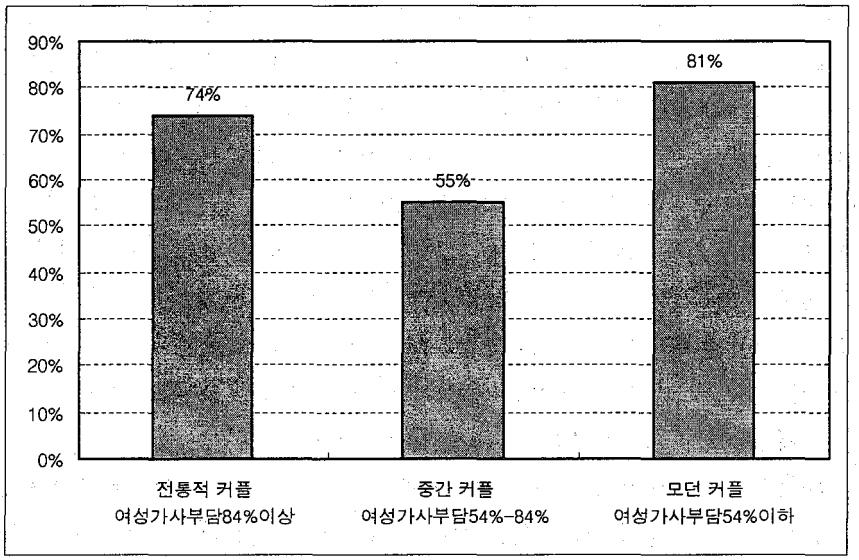
린드퍼스 등(Rindfuss, Brewster and Kavee, 1996)은 노동시장 참여와 아동 양육에서의 여성 역할이 갈등 관계에 놓일수록, 즉 이 두 역할의 불일치가 강할수록 출산율 기대 수준이 낮아진다고 했다. 이들을 비롯하여 많은 연구자들은 (Lehrer and Nerlove, 1986; Brewster and Rindfuss, 2000; Morgan, 2003) 국제 비교 연구를 통해, 가구 밖에서 진행되는 사회적 지원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 때 사회적 지원이라 함은 모성보호정책, 정부의 지원금, 노동시간의 탄력적 운용, 보육시설 활용 가능성 등을 가리킨다. 그들에 따르면 이와 같은 사회적 지원 변수는 여성의 일과 가정의 양립 가능성을 높임으로써 출산력 수준에 영향을 미친다고 한다.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에게 출산율이 문제가 되는 것은 저 출산율 그 자체 때문이 아니라, 다음 세대에 대한 부성(父性)적·사회적 개입의 결여 때문"이라는 폴브(Folbre, 1997)의 말을 떠올릴 수 있다.

쉐내(Chesnais, 1996)는 개발 국가에서는 성평등 수준이 낮을수록 출산율이 높게 나타나지만 경제성장을 이룬 국가에서는 반대로 성평등 수준이 높을수록 출산율이 높게 나타난다는 점을 분석하였으며, 이것을 페미니스트 패러독스(feminist paradox)라고 명명하였다. 사회의 성평등 수준은 젠더 관계를 함의하며 여성과 남성의 동등한 기회 뿐 아니라 성 평등한 역할, 규범, 가치 등을 포함하고 젠더가 개인의 삶을 결정하지 않는 정도와 관련되어 있다. 그에 따르면, 성평등 수준이 매우 높은 국가들이 출산율이 높으며, 성평등 수준이 매우 낮은 국가들 또한 출산율이 높지만, 성평등 수준이 중간인 경우는 출산율이 낮게 나타나는 U자형 관계를 보인다고 한다.

토어와 쇼트(Torr and Short, 2004)는 쉐내(1996)의 분석을 미국 가구의 둘째아 출산과 가구 내 성평등과의 관련성에 대한 연구로 연결시켜서, 부부간 가사분담 정도가 높은 가구가 가사분담률이 중간인 가구보다 둘째아를 출산할 가능성이 높으며, 또한 여성이 가사분담을 전담하는 전통적인 성별분업의 가구도 가사분담률이 중간인 가구보다 둘째아 출산율이 높다는 것을 제시함으로써, 가

구 내 성평등 수준과 출산율의 관계가 U자형 그래프로 나타나고 있음을 설명한다(그림 5-1 참조).[6]

[그림 5-1] 미국의 맞벌이 가구의 가사분담과 둘째아이 출산



자료: Torr and Short, "Second births and the second shift: a research note n gender equity and fertility", *Population and Development Review* 30(1): 109-130, 2004(이재경, 2005에서 재인용).

토어와 쇼트(2004)의 연구를 좀더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이들은 한 명의 자녀가 있는 미국의 맞벌이 가구를 대상으로 가구 내 가사분담의 정도가 둘째 아이 출산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였다. 이 조사는 1987~1988년 1차 조사에 이어 5년 후인 1992~1994년에 2차 조사를 함으로써, 실제로 둘째 아이를 출산한 가구의 수를 확인할 수 있었다. 조사 결과, 토어와 쇼트는 맞벌이 가구를 부부간 가사분담 비율에 따라 모던커플, 중간 커플, 전통적 커플로 분류하였는데, 둘째 아이의 출산은 모던 커플이 81%로 가장 높았다.

6) 이와 같은 결과는 한 국가의 제도적 성평등 수준과 출산력 수준을 비교한 Mcdonald(2000)의 결과와도 맥을 같이 한다. 제도적 수준의 성평등이 가족 내 성평등 수준으로 전화되지 못한 경우에 출산과 보육에 대한 여성의 선택은 부정적일 수밖에 없다.

퀸즐러(Künzler, 2002)의 연구결과에서도 출산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 가장 중요한 요인은 가족 내 여성과 남성의 성별분업인 것으로 나타났다. 즉, 가사, 육아 분담이 평등하게 이루어지는 국가일수록 출산력이 높게 나타난다는 것을 의미한다.

2.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율과 출산력

서구 사회에서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율은 40년간 증가해 왔다. OECD와 BLS 자료에 따르면 1960～2000년 사이 미국, 스웨덴, 영국에서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율은 20% 증가했다(Klerman and Leibowitz, 1999; Brewster and Rindfuss, 2000; Perry-Jenkins, Repetti, and Crouter, 2000; Engelhardt, Kogel and Prskawetz, 2003). 같은 기간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에서는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율이 10% 증가했다(Engelhardt, Kogel and Prskawetz, 2003; BLS, 2003). 1990년대 후반 미국에서는 2살 이하 자녀를 둔 어머니의 2/3 이상이 공식노동부문에 종사하였다. 1975년에는 이 비율이 37%였다는 사실을 떠올릴 때 자녀를 둔 기혼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율은 극적으로 증가했다고 할 수 있다(Klerman and Leibowitz, 1999).

인구학자들은 미국과 같은 선진국에서 아이를 적게 낳은 여성일수록 일하고 있는 여성으로 보았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여성의 고용이 출산을 줄였다고 결론지었다(Cramer, 1980; Angrist and Evans, 1998). 그러나 다양한 국가 사례는 출산과 어머니의 노동시장참여 간에는 아무런 관계가 없으며, 때로는 정(+)의 관계가 있음을 보여 주기도 한다(Mason and Palan 1981, loyd 1991). 따라서 서구 사회 이외의 사회에서 출산율을 결정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여성의 시간활용을 폭넓게 평가할 수 있는 평가 유형이 필요함을 인식하게 되었다(Van Esterik and Greiner, 1981; Lloyd, 1991; DeGraff and Anker, 1999; Donahoe, 1999).

출산율이 감소하는 것은 여성의 노동참여가 증가하는 것과 관련되고 그들의 고용이 증가하는 것은 그들의 출산율이 감소하는 것과 관계된다. 그러나 이 두 변수간 인과관계의 방향은 분명히 밝혀지지 않은 과제이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과 출산력 수준이 고정된 관계를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보다 확장된 사회문화적 맥락 속에서 동일한 변수가 상이한 효과를 지닐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와 같은 주장은 맥도널드나 쉐내의 연구 결과에서처럼 동일한 성 형평성 수준이 사회의 각 부문에서 어떻게 자리매김 되었는지에 따라 다양한 출산력 상태를 보인다는 국제 비교 결과와도 일맥상통한다. 좀 더 구체적으로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과 출산력 수준과의 관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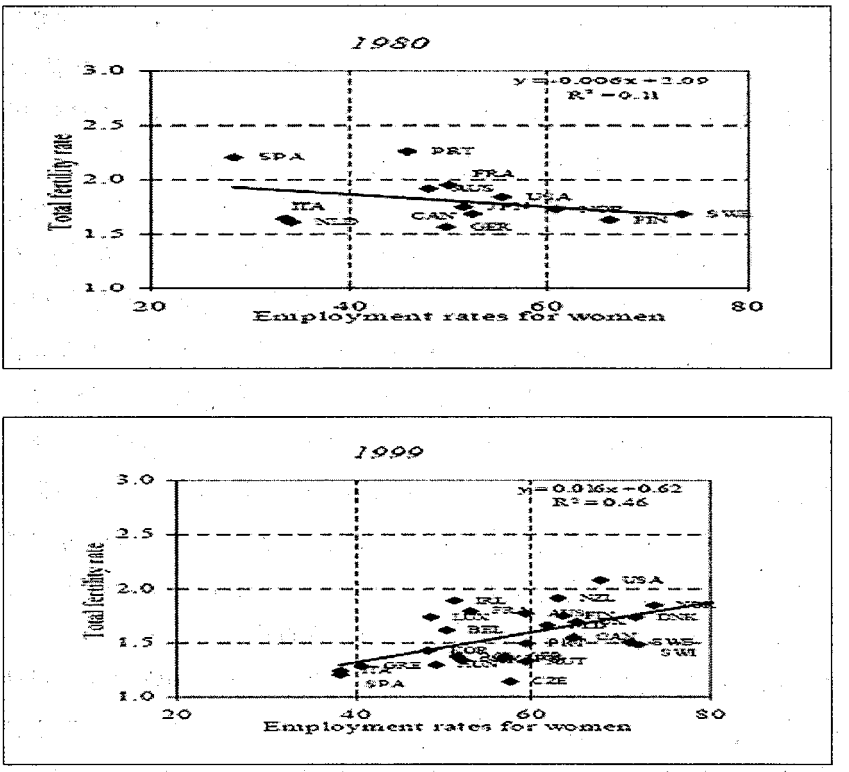
여성의 경제활동과 출산율에 대한 일반적 가정은 여성의 경제활동참여가 증가하면 출산율이 감소한다는 것이다. 이는 여성의 경제활동참여에 따라 혼인연령과 출산연령이 상승하고, 자녀양육에 따른 기회비용을 증가시키므로 출산율이 감소하게 된다는 가정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가정은 모든 역사적 시기에 전 사회의 출산 변화를 설명하지 못한다.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가 출산변화에 미치는 영향은 단일하지 않으며, 반드시 인과관계를 갖는 것이 아니다. 여성의 경제활동참여 증가는 출산에 영향을 미치고 또 출산조절 기술 등 출산 행위는 여성의 경제활동에 영향을 미치기도 하나, 사회문화적 조건과 국가의 정책 방향 등에 영향을 미치는 방식과 방향은 동일하지 않다. 또 국가마다, 시기마다 변화 방향과 수준은 다르게 나타난다(이재경, 2005).

한국의 경우 1960년 합계출산율은 6.0명,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26.8%였으나, 2003년 합계출산율은 1.17명으로 낮아진 반면, 경제활동참가율은 48.9%로 증가했다는 점에서 위와 같은 가정과 일치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다른 국가들의 경우를 보면, 여성의 경제활동참여가 늘어나면서 출산율도 함께 증가하거나 안정상태에 접어들고 있음을 볼 수 있다.

OECD 국가의 여성고용률과 합계출산율의 관계를 보면(그림 5-2 참조) 1980년에는 여성고용률이 낮을수록 출산율이 높았으나, 1999년 그래프에서는 반대로 여성고용률이 높을수록 출산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1999년 그래프에서 여성고용률과 출산율의 관계는 R^2=0.46으로 높은 상관성을 나타내고 있다.

[그림 5-2] OECD 국가의 출산율과 여성고용률



자료: Sleebos, J. E., "Low fertility rates in OECD countries: facts and policy response", *OECD Social Employment and Migration Working Papers*, 2003.

이는 여성의 경제활동참여가 증가하는 시작점에서 출산은 감소할 수 있으나, 여성의 경제활동참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어느 정도 안정을 이룬 상태에서는 출산 안정 또는 사회가 기대하는 출산수준을 유지할 수 있게 되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여성고용률이 출산율에 영향을 미치는 단일요인으로 볼 수는 없으며, 여성의 지위향상과 가족의 변화, 그리고 국가의 정책적 지원 정도 등 다양한 환경 요인과 관련하여 설명되어야 한다.

그렇다면, 전 세계적으로 출산율이 낮아지는 배경에는 무엇이 있을까? 출산을 미루게 되는 사회경제적인 배경은 국가에 따라 매우 다양하면서도 유사한

구조를 지니고 있다.

저출산 국가들의 공통된 출산 연기 결정요인은 초기 성숙기의 높은 경제적 불확실성이다. 이 불확실성이 출산 결정과 같은 장기적인 결정을 미루게끔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대신에 개인으로 하여금 교육이나 다른 형태의 인적자본에 투자하도록 하는 요인을 제공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남부유럽의 경우를 보자. 남부 유럽국가들은 소득수준은 중상위권에 랭크되어 있고 점진적인 성장을 하며, 낮은 인플레이션을 경험했다. 이와 동시에 청년층의 노동시장 진입이 매우 어려워 높은 청년 실업률을 나타내고 있다. 그리고 북유럽에 비해 이들 국가의 청년 실업률은 남성보다 여성에게서 더 높게 나타난다. 남부유럽에서의 만성적인 청년실업의 증가는 청년들이 노동시장에 들어가는 것을 방해하고, 고등 교육을 받는 것을 더 매력적으로 만들어 왔다. 남부유럽 국가에서 불확실성은 높은 청년 실업률과 불안정한 고용에서 비롯된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안정적이고 좋은 직업을 얻기 위하여 교육기간을 연장하는 것이 필수적인 것으로 되었다. 불확실성을 회피하려는 개인 수준에서의 합리적 선택은 국가 단위의 거시적 수준에서 출산 연기 및 출산율 저하로 나타난다.

한국사회에서도 마찬가지 현상이 발견된다. 최경수(2003)는 2000년대 초반의 우리 사회 출산 감소와 저출산 지속을 1990년대 후반의 경제위기로 인한 청년층의 고용 여건 악화로 보고 있다. 소득이나 커리어 전망이 감소하고 미래의 불확실성이 증가하는 것은 출산 수준에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다(Sleebos, 2003). 청년층의 취업률이 높은 북유럽이나 영미계의 출산율은 높은 편이나, 청년층 취업률이 낮은 남유럽 국가의 출산율은 낮다는 위의 사실과 일맥상통한다. 청년층 실업 증가, 직업의 불안정성은 가족 형성 시기를 앞두고 있는 젊은 층의 결혼이나 출산을 지연시키고 있으며 이러한 현상의 지속은 출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저출산 국가들의 출산 연기(birth postponement) 현상 발생에는 공통되는 사회적 환경이나 제도가 존재한다. 예를 들면, 남부유럽 저출산 국가의 경우(이탈리아나 스페인), 자녀 보육에 대한 사회적 지원이 부족하다. 노동 시장 또한 시간제 근무 수요나 출산휴가 후의 복직 등과 같은 문제에서 비교적 유연성이 떨어진다. 다른

서부 유럽 국가들과 비교했을 때 이탈리아와 스페인은 세금 수당이나 직접적인 지원 등과 같은 가족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최저 수준이다. 이러한 정부 지원의 부족분이 부분적으로 강한 가족적 연대로서 보충되는데, 예를 들어 경제적 지원이나 자녀보육 등이 조부모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다. 공공 지원을 가족이 대신하는 것은 현대 산업화된 국가에서는 불충분하며 그 자체 한계로 작용한다.

이탈리아와 스페인의 가족에서는 여성들이 새로운 역할에 적응하는 측면에서도 매우 뒤처짐을 알 수 있다. 이 두 나라는 가사노동 분배에서도 성 형평성의 수준이 떨어진다. 이들 나라의 사례는 성 형평성에 대한 맥도날드의 관찰 내용에 부합한다. 앞에서 언급한 대로 그의 관찰 내용인즉, 매우 낮은 출산율은 노동 시장과 같은 개인지향적제도에서의 높은 성 형평성과 가족지향적제도 내에서의 낮은 성 형평성의 결합에서 결과한다는 것이다.

지금까지의 논의를 정리하면 결국,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 자체가 한 사회의 출산력 수준을 가늠하는 잣대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이다. 우리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과 출산율은 둘 다 우리 사회보다 높다. 즉 서구 사회에서 자국의 여성들로 하여금 경제활동과 출산이 더 이상 선택의 문제가 아닌 것으로 만들어 가는 동안, 우리 사회 여성은 아직도 일과 자녀 양육 가운데에서 하나를 선택하도록 강요받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현실이 개선되지 않고서는 우리 사회에서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이나 출산율 모두 서구 사회 수준으로 증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제 3 절 청소년의 가족 및 성평등 가치관 현황[7]

1. 성평등 관점에서 청소년의 가족가치관

한국사회는 가족주의가 매우 강한 사회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2004년 한국

7) 이 절에서는 본 협동연구를 위해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실시한 「2006년도 미래세대의 결혼·자녀·양성평등에 관한 가치관 조사(정부승인통계 제06021호)」 결과를 활용하였다. 본 보고서 제3절과의 중복성을 최소화하여 성평등 가치관에 관한 심층분석을 실시하고자 하였다.

사회 이혼율이 세계 2위라는 보도와 함께 한국가족의 위기에 대한 논의가 사회 전반에 확산되었고 최근 출산율 세계 최하위라는 사실로 그 위기감은 절정에 달했다. 그러나 한국가족에 대한 위기의식과 함께 가족의 다양성 인정, 다양한 라이프스타일의 출현 등에 대한 논의도 서서히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상황이다. '차이'가 '차별'로 인식되지 않고 다양성으로 인정되는 사회, 즉 사회적 관용성 수준이 높은 사회를 지향할 때 가장 사적인 영역으로 인식되어 온 가족영역의 변화를 수용하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미래사회의 주역인 청소년들의 가족에 대한 태도를 주로 성평등 관점에서 가족구조의 다양성에 초점을 맞춰서 살펴보았다. 편부모 가족, 미혼모 가족, 입양자녀 가족, 재혼 가족, 동거 가족, 국제결혼 가족에 대한 수용성 정도를 측정하였다.

우선 6개의 다양한 가족 형태에 대해서 학생들의 수용성 수준을 비교하였다. 학생들은 '입양한 아이도 내가 낳은 자식과 같이 애정을 갖고 잘 키울 수 있다'에 대해서 찬성하는 비율이 가장 높았다. 적어도 청소년들은 가족 범위를 혈연관계로 한정하는 폐쇄적인 태도에서는 어느 정도 벗어난 듯하다. 학생들이 가장 거부감을 느낀 항목은 '결혼하지 않아도 자녀를 가질 수 있다'라는 미혼모 가족에 대한 것이다. 학생의 21.6%가 찬성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이러한 결과는 청소년들의 미혼모 가족에 대한 거부감의 표현이라기보다는 그만큼 우리 사회에서 미혼모 가족이 낯설고 받아들여지기 어려운 상태임을 반영한 것이라고 보인다. 이와 비슷한 맥락에서 학생들의 동거에 대한 태도도 거부감이 큰 편으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재혼 가족에 대한 태도는 매우 허용적이었다. 특기할 만한 것은 학생들이 국제결혼에 대해서 매우 개방적이라는 사실이다.

〈표 5-1〉 남녀학생별 가족에 관한 태도 차이

(단위: %, 명)

구분		전혀 찬성안함	별로 찬성안함	대체로 찬성함	매우 찬성함	계(명)
아버지나 어머니가 혼자서도 자녀를 잘 키울 수 있다	전체	24.1	42.2	26.7	7.0	100.0 (11,239)
	남학생	7.5	22.7	43.4	26.5	100.0 (5,852)
	여학생	6.5	31.1	40.9	21.5	100.0 (5,376)
결혼하지 않아도 자녀를 가질 수 있다	전체	42.4	36.0	17.4	4.2	100.0 (11,232)
	남학생	4.0	14.4	36.7	44.9	100.0 (5,846)
	여학생	4.4	20.7	35.3	39.7	100.0 (5,375)
입양한 아이도 내가 낳은 자식과 같이 애정을 갖고 잘 키울 수 있다	전체	9.1	19.8	42.5	28.6	100.0 (11,233)
	남학생	23.0	40.6	23.6	12.8	100.0 (5,849)
	여학생	34.7	44.6	15.6	5.1	100.0 (5,376)
사별이나 이혼 후에도 재혼을 해서 새 삶을 시작하는 것이 좋다	전체	14.7	26.5	44.9	13.8	100.0 (11,229)
	남학생	11.6	42.0	28.1	18.3	100.0 (5,845)
	여학생	16.3	48.2	24.8	10.8	100.0 (5,376)
남녀가 사랑한다면 결혼하지 않고 함께 사는 것도 괜찮다	전체	26.4	40.2	26.3	7.1	100.0 (11,232)
	남학생	8.8	29.2	38.7	23.3	100.0 (5,847)
	여학생	5.3	23.1	41.7	29.8	100.0 (5,376)
외국인과 결혼해도 상관없다	전체	15.6	23.1	39.9	21.4	100.0 (11,237)
	남학생	18.5	38.4	24.3	18.8	100.0 (5,850)
	여학생	24.6	41.6	21.7	12.1	100.0 (5,376)

주: 모든 항목에서 남녀학생별 태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함(*** p<0.001)..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6년도 전국 청소년 결혼·자녀·성평등 가치관 조사』, 2006.

다양한 가족에 대한 태도를 학생의 성별, 학교급별로 구분하여 집단별 차이를 통계적으로 살펴보았다.[8] 성별 비교는 t-test, 학교급 비교는 ANOVA 테스트와 사후검증을 위해 scheffe 분석 방법으로 집단 비교를 하였다. 분석 결과 모든 항목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성별, 학교급별 차이가 나타났다.

학교급 수준이 높아질수록 다양한 가족형태에 대해서 개방적인 태도를 보였다. 학교급별로 초등학생보다는 중학생이, 중학생보다는 고등학생이 다양한 가족 형태 6가지 항목 모두에서 더욱 개방적인 태도를 보였다. 다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집단간 차이는 항목에 따라서 약간씩 다르게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다양한 가족형태에 대해서 개방적인 태도를 보였다. 편부모 가족, 미혼모 가족, 입양자녀 가족, 재혼 가족, 국제결혼 가족 등에선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개방적인 태도를 보였으나 동거 가족에 대해선

8) 이하 주요 분석표를 제외하고 나머지 분석표는 지면 관계상 개별보고서에만 수록하였다.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더욱 보수적인 태도를 보였다. 이러한 태도는 성규범에 대한 태도를 묻는 다양한 설문조사 결과와 유사하다. 즉 한국사회의 성문화가 상당히 개방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 규범의 이중 잣대가 작용하고 있음도 주지의 사실이다. 따라서 혼전 성관계나 동거 등에 대해선 여성들이 더욱 보수적인 태도를 취하는 경향이 있다. 이번 청소년 의식조사 결과에서도 마찬가지로 여학생들은 '남녀가 사랑한다면 결혼하지 않고 함께 사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한다'는 항목에 대해서 남학생보다 보수적인 태도를 보였다.

또한 전체적으로 볼 때, 여학생과 남학생간 태도의 차이가 가장 큰 항목은 '입양한 아이도 내가 낳은 자식과 같이 애정을 갖고 잘 키울 수 있다고 생각한다' 항목과 '사별이나 이혼 후에도 재혼을 해서 새 삶을 시작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항목이다.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욱 혈연가족의 폐쇄성에서 벗어나 있다고 볼 수 있으며, 남학생보다 여학생이 가족구성원의 행복에 기반한 생애전략을 더 지지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다양한 가족형태와 가족구성원의 행복감에 대한 학생들의 의견은 골고루 분포되어 있다. 전체 학생의 31.6%가 '다양한 가족형태도 일반적인 가족처럼 행복할 것이다'라고 응답했고, 23.3%가 '일반적인 가족이 아닌 경우 행복하지 못할 것이다'라고 응답했다. 전체 학생의 28.3%가 '행복과 불행은 가족 형태와 상관없다'고 응답했으며, 나머지 16.8%는 '모르겠다'고 응답했다. 결국 전체 학생의 59.9%가 다양한 가족형태에 대해서 개방적인 태도를 보였으며 이른바 정상가족 이데올로기에서 탈피한 것으로 보인다.

다양한 가족형태와 가족구성원의 행복감에 대한 청소년들의 집단별 차이는 다음과 같다. 대체로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다양한 가족형태에 대해서 더욱 허용적이다. 여학생의 경우 64.4%가 다양한 가족형태가 개인의 불행을 야기하지 않는다는 데 동의한 반면 남학생은 55.7%만이 그렇다고 응답했다. 그리고 학교급이 높아질수록 가족형태가 가족구성원의 행복감에 영향을 미친다는 데 반대하는 경향이 발견되었다.

학생들은 요즘 들어 다양한 가족형태가 늘어나는 가장 중요한 이유로 '부모님의 별거·이혼·재혼이 많아져서'라는 이유를 꼽았다. 그 다음으로 '부모님의

맞벌이로 자녀를 돌볼 수 없어서' 가족형태가 다양화되었다고 응답했다. 즉 학생들은 가족형태의 다양화 추세를 가족관계 측면의 변화와 함께 맞벌이 가구의 현실적 어려움이 반영된 결과로 인식하고 있다.

학생들이 가족에 관해서 수업시간에 배운 내용 가운데 가장 빈도가 높은 것은 '가족의 소중함과 중요성'에 관한 것과 '가족의 형태와 구성원의 역할'에 대한 것이었다. 그밖에 '가족 내 남녀간 역할 평등'에 대한 내용과 '가족과 이웃의 관계'에 대한 내용이 절반이 채 안되는 빈도로 순위가 높았다. 대체로 남학생보다는 여학생이 전반적인 가족 관련 수업내용에 대한 인지도가 높았다. 학교급별로 보면, 초등학생일수록 '가족의 소중함과 중요성'에 대한 인지도가 높고 고등학생일수록 '가족 내 남녀간 역할평등'에 대한 인지도가 높았다.

학생들이 수업시간에 배운 가족관련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는지를 살펴보았다. 학생의 45.8%가 '화목한 가정을 만들어야겠다'고 응답한 반면, 두 번째로 높은 항목으로 '갈등없는 이상적인 가정 분위기만 다루고 있어 현실과 많이 다르다'고 응답했다. 수업시간에 배운 가족 관련 내용에 대해서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그리고 학교급이 높아질수록 더욱 비판적이었다. 즉 학생들은 학교에서 배우는 가족관련 내용이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생각하며 이를 반증하듯, 학교급이 높아질수록 '식상한 이야기라 지루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아졌다.

2. 성평등 관점에서의 청소년의 결혼·출산 가치관

결혼의 필요성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학생의 66.5%가 긍정적인 대답을 하였다. 이것은 성인들을 대상으로 동일한 질문을 한 「2005년도 전국 결혼 및 출산 동향조사(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5)」 결과의 60.3%보다 높다. 청소년기는 결혼에 대해 구체적으로 생각하기에 이른 나이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응답결과를 갖고 결혼 필요성에 대한 세대차로 해석하기엔 무리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청소년 내부에서 여학생의 결혼 필요성에 대한 태도가 남학생에 비해서 현저히 낮다는 사실은 2005년 성인조사에서와 같은 경향을 보이고 있다. 2005년 성인조사의 경우 미혼남성 가운데 71.4%가 결혼 필요성에 대해 찬성한 반면, 미혼

여성 가운데 결혼 필요성에 대해 찬성한 비율은 49.2%에 불과했다. 마찬가지로 청소년 의식조사에서도 여학생의 경우 결혼을 반드시 해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남학생의 응답비율인 22.8%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10.4%에 불과하다. 이와 같은 현격한 차이는 기존의 결혼관행이나 그로 인해 형성된 가족생활이 여성들에게 불리하게 작용한다는 반증일 것이며 청소년들 가운데 여학생들이 특히 이 점을 강하게 인식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들의 결혼에 대한 태도는 아직 설익은 상태로서 실제 행위로 연결되기까지 많은 변화를 겪겠지만, 현재 한국사회 초저출산 현상이 결혼율 저하의 형태로 표출된다는 사실을 염두에 둘 때 심각하게 주목해야 할 대목이다.

〈표 5-2〉 청소년의 결혼 필요성에 대한 태도의 성별·학교급별 차이

(단위: %, 명)

구분	반드시 해야 한다	하는 편이 좋다	해도좋고 하지않아도 좋다	하지 않는 게 낫다	모르겠다	계 (명)
전체	16.8	49.7	29.3	1.6	2.5	100.0 (11,236)
성별(x^2=649.1***)						
남자	22.8	52.7	20.4	1.1	3.1	100.0 (5,850)
여자	10.4	46.4	39.1	2.2	1.9	100.0 (5,377)
학교급구분(x^2=145.0***)						
초등학교	14.2	52.2	26.7	1.4	5.5	100.0 (1,896)
중학교	15.8	50.1	30.4	1.4	2.3	100.0 (4,749)
고등학교(인문계)	18.6	48.9	29.6	2.0	1.0	100.0 (3,631)
고등학교(실업계)	20.4	46.0	28.6	1.8	3.1	100.0 (960)

주: * p<0.05, ** p<0.01, *** p<0.001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6년도 전국 청소년 결혼·자녀·성평등 가치관 조사」, 2006.

그러나 본인의 결혼 의사에서는 결혼필요성에 대한 응답 결과보다 다소 높은 결혼 의향 비율을 나타냈다. 그러나 남학생의 77%가 결혼할 생각이 있다고 응답한 반면 여학생은 69.1%가 결혼할 생각이 있다고 응답하여 여전히 결혼에 대한 태도에서 성별 차이를 드러냈다.

학생들이 생각하는 남녀별 이상적인 결혼 연령에 대한 응답결과를 보면, 남성의 이상적인 평균 결혼연령은 27.9세, 여성의 이상적인 평균 결혼연령은 26.4세로 남녀 연령차는 1.5세이다.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해 결혼에 대해서 부정적

인 태도를 갖고 있음을 반영하듯이 여학생은 남학생에 비해 만혼 경향을 지지했다. 또한 남녀의 이상적인 결혼연령 차이는 학년이 높아질수록 커지는 경향이 있지만 그 경향은 남학생의 경우에 더 발견된다.

결혼에 대한 태도와 달리 학생들의 자녀에 대한 태도는 좀 더 우호적이다. 학생들의 75.2%가 자녀의 필요성에 대해서 긍정적인 대답을 했다. 이 경우도 역시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비우호적인 태도를 보였으나 그 차이는 결혼에 대한 태도에 비해서 근소하다. 학교급이 높아질수록 자녀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조금씩 비우호적으로 변화되었다. 결혼관련 태도와 마찬가지로 자녀의 필요성에 대한 응답결과보다 본인의 자녀출산 의향 응답비율이 더 높다. 전체 학생의 83.9%가 자녀를 낳을 생각이 있다고 응답했다. 이 질문에 대한 응답 결과 역시 여학생보다는 남학생이 자녀출산에 대해서 더욱 우호적이었고, 학교급이 높아질수록 자녀출산에 대해서 더욱 우호적으로 변화했다.

〈표 5-3〉 청소년의 자녀 필요성에 대한 태도의 성별·학교급별 차이

(단위: %, 명)

구분	꼭 있어야 한다	있는 것이 없는 것보다 나을 것이다	없어도 상관없다	모르겠다	계 (명)
전체	27.0	48.2	17.3	7.5	100.0 (11,230)
성별(x^2=202.2***)					
남자	30.8	47.4	13.2	8.6	100.0 (5,852)
여자	23.0	48.8	21.8	6.3	100.0 (5,378)
학교급구분(x^2=244.4***)					
초등학교	29.8	45.9	11.5	12.8	100.0 (1,898)
중학교	25.4	49.0	16.9	8.6	100.0 (4,752)
고등학교(인문계)	26.1	49.2	20.8	3.9	100.0 (3,631)
고등학교(실업계)	33.9	44.0	17.0	5.2	100.0 (960)

주: * p<0.05, ** p<0.01, *** p<0.001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6년도 전국 청소년 결혼·자녀·성평등 가치관 조사」, 2006.

학생들이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자녀의 성별 구분이 있는지 알아본 결과 전체의 39.1%만이 남아 선호가 있다고 응답했다.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남아에 대한 선호가 있는 편이며 학교급이 높아질수록 아들 선호 의사는 감소하였다. 다른 성인대상 조사에서 여성일수록 남아를 더욱 선호하는 경향과는 일정한 차이

를 보인다.

3. 청소년의 성평등 의식 실태

초등학교 5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학생 11,240명의 성평등의식을 살펴보기 위해서 성평등의식 관련 10문항을 설문지에 포함하여 조사하였다. 설문지에 포함한 성평등의식 설문항은 「청소년용 한국형남녀평등의식검사(KGES-A)] 도구(김양희 외, 2002)」 가운데 '가족영역'과 '직업영역'에 해당하는 10문항이다. KGES-A 도구는 청소년의 현실에서 나타나는 젠더관련 이슈를 반영하는 13~18세를 위한 청소년용 성평등의식검사 도구로서 2002년 한국여성개발원에서 개발하여 널리 활용되고 있다.[9] 이 10문항에 대해서 요인추출 모델 가운데 공통요인분석(common factor analysis)을 실시하였다. 좀 더 구체적으로는 공통요인분석방법의 하나인 주축요인분석(Principal Axis Factor-PAF)을 실시하였다. 요인수를 지정하지 않고 직각회전 방식인 베리믹스 방식으로 주축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모두 여섯 번의 회전후 고유치(eigenvalue)가 1이 넘는 두 개의 요인이 나타났다. 먼저 가족영역의 5문항은 각각 '전통적·가부장적 가족관'과 '성평등 가족관'의 두 유형으로 요인 적재되었다. 다음으로 직업영역의 5문항은 각각 '성차별적 직업역할 및 관계'와 '성평등한 직업관'으로 요인 적재되었다.[10]

조사대상 청소년들의 성평등 의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전체적으로 볼 때, 집안일에서의 성 역할 구분에 매우 비판적이면서도 집안의 대를 잇는 문제에서는 가장 보수적인 태도를 보였다. 가사분담이나 가족 내 의사결정에 대해서 매우 성평등한 태도를 보이면서도 생계부양자로서의 남성 역할에 대해 허용적이

9) 이 검사지는 크게 4개영역으로 이뤄져 있는데, 그것은 '가정영역', '학교영역', '직업영역', '사회문화영역'이다. 4개영역에 각각 20문항씩 구성되어 전체 검사지는 80문항이며 4개 영역에 각각 5문항씩 구성된 '축약형 질문지'도 개발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축약형 질문지 가운데 '가정영역'과 '직업영역'의 10문항을 청소년가치관조사 설문지에 포함시켜 조사하였다. 또한 이 검사지는 검사의 신뢰도 및 타당도 분석, 검사의 표준화 및 규준 마련을 위해 전국에 거주하는 남녀 중, 고등학생 3,150명을 대상으로 검증, 확정한 것이다.

10) 지면 관계상 요인적재량 분석표는 개별 보고서에만 수록함. 신뢰도 분석결과 성평등의식 설문항 전체의 크론바흐 알파계수는 0.824이다.

다. 직장 영역에서는 여성들의 진취적인 커리어 추구에 많은 지지를 보내면서도 허드렛일에는 여성이 더 적합하다는 태도도 상당 부분 발견된다. 결국 조사 대상 청소년들은 가정 영역과 직장 영역에서 성평등한 의식을 지니면서도 사안에 따라 매우 이질적인 태도를 보이는데, 이것은 청소년들의 가치판단적인 태도를 보여 주기도 하지만 이와 동시에 그들이 인식한 성차별적인 현실을 반영한 결과일 수도 있다.

이와 같이 청소년들의 성평등의식은 사안에 따라 모순된 태도를 보임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경향성을 드러낸다. 전반적으로 가정영역에서의 성평등에 대해서는 광범위한 동의를 보내는 반면, 직장영역에서는 상대적으로 성분절적인 혹은 성차별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표 5-4>의 문항별 평균점수는 점수가 높을수록 성평등 의식이 강한 것으로 부호화된 것이다. 점수가 높은 상위 4순위까지의 문항이 모두 가정영역의 문항이다. 가장 성평등의식이 높게 나타난 문항은 "설거지나 빨래와 같은 집안일은 남자와 여자가 다 같이 해야 한다"이며, 두 번째는 "아내와 남편은 집안의 모든 일에 대해서 똑같은 결정권을 가져야 한다"이다. 그밖에 세 번째로 성평등 의식이 높게 나타난 문항은 "집, 땅과 같은 재산을 남편과 아내 공동 이름으로 하는 것을 찬성한다"며 그 다음이 "남자들이 부엌일을 하는 것은 보기에 좋지 않다"이다.

이에 비해 직장 영역의 문항에서는 "남자는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기 때문에 여자보다 월급을 더 많이 받아야 한다" 문항과 "차심부름이나 복사는 남자직원보다 여자직원이 하는 것이 어울린다" 문항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많은 학생들이 찬성했다. 전체적으로 볼 때 청소년들의 성평등 의식은 가정영역에 비해 직장영역에서 보수적인 성향을 띠고 있다.

그러나 특이한 점은 전체 10문항 가운데 가장 보수적인 태도를 보인 것은 가정영역의 "집안의 대를 이어가기 위해서 아들이 있어야 한다"는 문항이었다. 이와 같은 결과는 동일한 문항으로 조사된 2002년 청소년의식조사 결과와 비교해 볼 때 더욱 주목할 만하다. <표 5-4>에서 볼 수 있듯이, 전체적으로 2006년 청소년의 성평등의식은 2002년에 비해 증가했다. 특히 증가폭이 큰 항목은 "설거지나 빨래와 같은 집안일은 남자와 여자가 다 같이 해야 한다" 문항과 그 다

음으로 "아내와 남편은 집안의 모든 일에 대해서 똑같은 결정권을 가져야 한다" 문항이다. 이와 같은 결과를 통해서 현재 적어도 청소년들 사이에서는 집안일에 남녀가 따로 없다는 생각이 매우 보편화되었다고 보인다.

다른 한편으로 2002년 청소년의식조사 결과와 비교하여 가장 큰 차이를 보인 문항은 "집안의 대를 이어가기 위해 아들이 필요하다" 문항과 "남자가 여자 상사 밑에서 일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문항으로 이 두 문항에서 청소년들의 성평등 의식은 큰 폭으로 감소했다. 즉 아들 존재의 필수성에 대한 대목과 직장에서의 남녀 역할에 대한 태도가 보수화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변화는 그간의 경제불황과 저출산현상에 기인한 결과가 아닐까 여겨진다. 경제위기 이후 장기화된 청년실업은 우리 사회의 중요한 사회문제로 대두되었으며 청년실업에 대한 불안감은 남학생은 물론이려니와 여학생에게도 심각한 문제로 작용하였다. 이 현상은 다시 미혼층의 증대와 결혼 연기로 이어지면서 우리 사회 초저출산 현상을 결과하였다. 경제불황 및 청년실업의 장기화는 불안정성을 일상화시키면서 노동시장의 과열 경쟁을 야기하고 개인으로 하여금 끊임없는 자기 투자를 유인하여 교육년한을 연장시켰다. 이런 불안 심리가 초저출산 사회의 위기의식과 결합되면서 직장영역에서의 보수화 및 가계계승을 위한 아들의 필수성 측면 부각으로 연결된 게 아닌가 생각한다.

물론 청소년들에게 가정영역에 비해 직장영역은 한 단계 뛰어넘은 먼 일이기 때문에 이들의 행위 측면과 태도 측면 사이의 간격이 더 클 수도 있어서 이런 해석은 유보적이어야 할 것이다. 특히 청소년기는 직장영역에 비해 가정영역에서의 영향을 많이 받을 시기이기 때문에 가정 내에서 벌어지는 일을 가족의 일로 낭만화시켜 인식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장영역에서의 보수화 및 가계계승을 위한 아들의 필수성 측면이 한층 부각된 결과는 매우 우려할 만한 일이며 저출산 위기 상황과 어느 정도의 개연성을 추측할 수 있다. 만일 그렇다면 현재 진행되고 있는 저출산·고령사회 극복을 위한 다양한 홍보의 내용과 전략은 심각하게 재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표 5-4〉 성평등관 2002년과 2006년 비교

(단위: %, 명)

구분		매우 찬성함	대체로 찬성함	별로 찬성 안함	전혀 찬성 안함	평균
1) 남자들이 부엌일을 하는 것은 보기에 좋지 않다	2002	2.2	7.6	44.8	45.3	3.33
	2006	3.7	10.5	37.4	48.4	3.31
2) 집, 땅과 같은 재산을 남편과 아내 공동 이름으로 하는 것을 찬성한다	2002	40.4	48.5	8.0	3.0	3.26
	2006	45.3	44.1	8.1	2.5	3.32
3) 설거지나 빨래와 같은 집안 일은 남자와 여자가 다 같이 해야 한다	2002	44.3	45.8	7.4	2.0	3.31
	2006	53.1	37.9	7.1	2.0	3.42
4) 집안의 대를 이어가기 위해서 아들이 있어야 한다	2002	5.8	31.3	38.0	24.6	2.81
	2006	12.0	34.6	38.0	15.3	2.56
5) 아내와 남편은 집안의 모든 일에 대해서 똑같은 결정권을 가져야 한다	2002	41.8	50.4	6.5	1.3	3.33
	2006	51.1	40.5	6.6	1.8	3.41
6) 여자는 사업에 관한 중대한 결정을 남자만큼 잘 내리지 못한다	2002	2.0	16.7	48.0	33.2	3.12
	2006	3.5	17.5	43.3	35.6	3.11
7) 남자는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기 때문에 여자보다 월급을 더 많이 벌어야 한다	2002	7.3	22.3	47.9	22.2	2.84
	2006	11.0	25.4	37.6	26.0	2.79
8) 차심부름이나 복사는 남자직원보다 여자직원이 하는 것이 어울린다	2002	3.8	20.0	41.8	34.3	3.06
	2006	6.7	21.2	36.8	35.3	3.01
9) 여자가 판사·검사와 같이 남자들이 주로 맡았던 직업을 갖는데 찬성한다	2002	39.6	48.4	9.2	2.8	3.25
	2006	45.8	39.7	10.8	3.7	3.28
10) 남자가 여자 상사 밑에서 일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2002	2.3	8.5	44.3	44.7	3.31
	2006	6.6	14.2	37.6	41.6	3.14

주: '매우 찬성함'=1점, '대체로 찬성함'=2점, '별로 찬성안함'=3점, '전혀 찬성안함'=4점으로 측정. 문항2), 문항3), 문항5), 문항9)는 역부호화하여 모든 문항의 점수가 높을수록 양성평등 의식이 높은 것으로 해석하면 됨(이하 동일).

자료: 1) 한국여성개발원, 「청소년용 한국형남녀평등의식검사(KGES-A)개발」, 2002.
2)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6년도 전국 청소년 결혼·자녀·성평등 가치관 조사」, 2006.

<표 5-4>에서 볼 수 있듯이, 성평등 설문문항의 성별·학교급별 차이를 살펴본 결과, 성평등 설문문항 10개 모두에서 여학생의 성평등 의식이 남학생보다 높았으며 가장 보수적인 두 문항 즉 가계계승을 위한 아들의 필요성 문항과 허드렛일은 여직원이 적합하다는 문항에서 성별 격차가 가장 크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 즉 성평등 의식의 성별 지체 현상은 그 자체로 문제를 지닌다. 특히 이 연구에서 전제하고 있는 것이 현재의 저출산 현상을 타개하는 데 사회전반

의 성평등 의식 고취가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상기할 때, 청소년 시기부터 성평등 의식의 성별 지체 현상이 고착되는 것은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무적인 일은 집안에서의 "성평등한 가사분담 및 의사결정권"에 대해서 성별 격차가 매우 작다는 사실이다. 특히 대부분의 성평등 의식 문항이 학교급이 높아질수록 증대하는 데 비해 성평등한 가사분담에 대해서는 학교급간 차이가 거의 없을 정도로 동일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다시 말해서 2006년 현재 청소년들은 초등학생을 포함하여 집안에서 남녀의 역할이 따로 없다는 데 광범위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는 말이다. 다만 이러한 성평등한 태도가 남학생의 경우엔 공적 영역으로까지 확대되지 못하고 분절됨으로써 여학생과 남학생간에 태도의 차이를 보인다는 점이 문제이다.

이런 점을 해결하는 데에는 가정과 학교, 사회가 다같이 협조해야 할 문제이지만 여기에서는 그 가운데 가정 내 부모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하고자 한다.

학생들에게 부모님이 집안에서 가정일을 어느 정도 공평하게 하고 계시는지 물어보았다. 조사결과, 전체 학생의 61.4% 가량이 부모님이 집안일을 공평하게 하는 편이라고 응답했다. 물론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부모님 가사분담정도에 대해서 비판적인 평가를 하였다. 남학생의 62.5%가 부모님의 가사분담이 공평하게 이뤄진다고 응답한 반면 이와 같이 응답한 여학생의 비율은 53.8%이다. 마찬가지로 학교급이 높아질수록 부모님의 가사분담정도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평가하였다.[11]

11) 이와 같은 해석 역시 유보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현재 조사내용 가운데 조사대상학생의 부모 연령을 알 수 없으나, 학교급이 높아질수록 부모가사분담에 비판적인 태도를 갖는 것이 학교급이 높아질수록 부모의 연령도 높아져서 상대적으로 부모집단의 코호트효과가 발생한 결과일 수도 있다.

〈표 5-5〉 청소년의 성평등 설문항에 대한 태도 차이: 가족영역

(단위: %)

구분	매우 찬성함	대체로 찬성함	별로 찬성안함	전혀 찬성안함	평균(s.d)	t/F	사후검증 (집단)
남자들이 부엌일을 하는 것은 보기에 좋지 않다							
남자	5.6	15.8	45.3	33.3	3.06(0.84)	-34.30***	
여자	1.7	4.8	28.8	64.7	3.56(0.67)		
학교급							
초등학교	6.0	14.7	38.2	41.0	3.14(0.88)	51.33***	중-고(실,인)
중학교	3.6	11.1	38.4	46.9	3.29(0.80)		초, 고(인)
인문고	2.5	7.5	35.5	54.5	3.42(0.74)		초, 중-고(실)
실업고	4.4	11.4	37.6	46.6	3.27(0.82)		중, 고(인)
집, 땅과 같은 재산을 남편과 아내 공동 이름으로 하는 것을 찬성한다							
남자	30.6	53.4	12.2	3.8	3.11(0.75)	-33.73***	
여자	61.2	34.0	3.8	1.0	3.55(0.62)		
학교급							
초등학교	49.6	38.4	7.9	4.0	3.34(0.79)	6.94***	중-고(실)
중학교	3.6	11.1	38.4	46.9	3.30(0.74)		초-고(인)
인문고	44.8	47.5	6.3	1.4	3.36(0.66)		중-고(실)
실업고	42.5	43.6	11.0	2.9	3.26(0.76)		초-고(인)
설거지나 빨래와 같은 집안 일은 남자와 여자가 다 같이 해야 한다							
남자	38.4	47.9	10.7	3.0	3.22(0.75)	-32.60***	
여자	68.9	27.1	3.1	0.9	3.64(0.59)		
학교급							
초등학교	56.2	31.3	8.9	3.6	3.40(0.80)	2.38†	
중학교	52.7	37.6	7.6	2.2	3.41(0.72)		
인문고	52.0	41.6	5.4	1.1	3.44(0.65)		
실업고	53.2	37.9	7.4	1.5	3.42(0.71)		
집안의 대를 이어가기 위해서 아들이 있어야 한다							
남자	17.9	42.7	31.4	8.0	2.29(0.85)	-34.93***	
여자	5.6	25.9	45.3	23.2	2.86(0.84)		
학교급							
초등학교	22.6	38.0	29.4	10.1	2.27(0.92)	143.45***	중-고(실,인)
중학교	11.9	37.1	36.8	14.3	2.53(0.88)		초, 고(인)
인문고	6.4	29.7	43.8	20.2	2.78(0.84)		초, 중-고(실)
실업고	13.9	35.3	39.0	11.8	2.49(0.88)		초, 고(인)
아내와 남편은 집안의 모든 일에 대해서 똑같은 결정권을 가져야 한다							
남자	37.1	50.8	9.4	2.6	3.22(0.72)	-30.20***	
여자	66.3	29.3	3.5	0.9	3.61(0.60)		
학교급							
초등학교	50.2	37.4	9.0	3.3	3.34(0.78)	20.20***	고(인)
중학교	50.5	40.2	7.2	2.1	3.39(0.71)		고(인)
인문고	53.7	41.1	4.4	0.7	3.48(0.62)		초-중-고(실)
실업고	46.0	45.3	7.0	1.7	3.36(0.69)		고(인)

〈표 5-6〉 청소년의 성평등 설문항에 대한 태도 차이: 직업영역

(단위: %)

구분	매우 찬성함	대체로 찬성함	별로 찬성안함	전혀 찬성안함	평균(s.d)	t/F	사후검증 (집단)
여자는 사업에 관한 중대한 결정을 남자만큼 잘 내리지 못한다							
남자	5.2	23.9	50.7	20.2	2.86(0.79)	-35.50***	
여자	1.7	10.6	35.3	52.3	3.38(0.74)		
학교급							
초등학교	6.3	23.0	41.1	29.6	2.94(0.88)	44.41***	중, 고(인), 고(실)
중학교	3.5	16.9	43.8	35.9	3.12(0.81)		초, 고(인), 고(실)
인문고	2.1	15.2	43.1	39.6	3.20(0.77)		초, 중, 고(실)
실업고	3.9	18.8	46.3	30.9	3.04(0.81)		초, 중, 고(인)
남자는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기 때문에 여자보다 월급을 더 많이 받아야 한다							
남자	14.6	32.1	39.4	13.9	2.53(0.91)	-30.70***	
여자	7.2	18.2	35.6	39.0	3.06(0.93)		
학교급							
초등학교	17.4	27.2	33.5	22.0	2.60(1.01)	52.26***	중-고(인)
중학교	10.1	24.6	38.0	27.3	2.83(0.95)		초-고(실)
인문고	8.2	24.2	39.3	28.4	2.88(0.92)		초-고(실)
실업고	14.5	31.1	36.66	17.8	2.58(0.94)		중-고(인)
차심부름이나 복사는 남자직원보다 여자직원이 하는 것이 어울린다							
남자	9.2	28.4	42.7	19.7	2.73(0.88)	-34.75***	
여자	4.0	13.5	30.3	52.2	3.31(0.85)		
학교급							
초등학교	12.3	26.0	38.3	23.4	2.73(0.96)	103.38***	중-고(실), 고(인)
중학교	6.8	21.1	37.9	34.2	2.99(0.90)		초, 고(인)
인문고	3.7	18.0	34.8	43.4	3.18(0.86)		초, 중-고(실)
실업고	7.0	24.7	35.8	32.5	2.94(0.92)		초, 고(인)
여자가 판사, 검사와 같이 남자들이 주로 맡았던 직업을 갖는데 찬성한다							
남자	27.0	52.2	15.8	5.0	3.01(0.79)	-37.97***	
여자	66.0	26.2	5.4	2.4	3.56(0.71)		
학교급							
초등학교	41.4	37.3	14.8	6.5	3.13(0.90)	32.63***	중-고(실), 고(인)
중학교	45.6	39.6	10.7	4.1	3.27(0.81)		초, 고(인)
인문고	48.8	40.5	8.5	2.2	3.36(0.73)		초, 중-고(실)
실업고	43.1	42.0	12.1	2.8	3.25(0.77)		초, 고(인)
남자가 여자 상사 밑에서 일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남자	8.6	18.9	46.5	26.0	2.90(0.89)	-30.57***	
여자	4.5	9.2	28.0	58.4	3.40(0.83)		
학교급							
초등학교	12.3	21.1	36.7	29.9	2.84(0.99)	121.38***	중-고(실), 고(인)
중학교	6.5	15.4	37.5	40.5	3.12(0.90)		초, 고(인)
인문고	3.8	9.6	37.1	49.5	3.32(0.80)		초, 중-고(실)
실업고	6.8	13.2	41.5	38.5	3.12(0.88)		초, 고(인)

<표 5-7>은 청소년의 성평등의식과 부모의 가사분담 정도의 상관관계분석결과이다. '집안일은 남자와 여자가 같이 해야 한다' 문항을 제외하고[12] 모든 문항에서 부모의 가사분담이 공평할수록 성평등의식도 높아지고 있다. 따라서 청소년들의 성평등 의식을 높이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가정 내에서 부모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하겠다. 가정 내에서 벌어지는 일상생활의 사회화 과정이 매우 중요하게 작용함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청소년의 성평등의식을 높이기 위해서는 바로 성인들의 성평등 의식부터 높여야 하며 이를 위한 다양한 노력이 사회 안팎에서 꾸준히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표 5-7〉 부모 가사분담 정도와 성평등의식의 상관관계

성평등의식 항목	상관관계계수 (유의도)
남자들이 부엌일 하는 것은 보기에 좋지 않다	.080***
집,땅과 같은 재산은 남편과 공동이름으로 한다	.034**
집안일은 남자와 여자가 같이 해야 한다	.000
집안 대를 잇기 위해 아들 있어야 한다	.132***
아내와 남편은 집안 모든 일에 똑같은 결정권 가져져야 한다	.040***
여자는 사업에 관한 중대한 결정 남자만큼 내리지 못한다	.094***
남자는 가족 생계책임지기에 여자보다 월급 많이 받아야 한다	.068***
차심부름, 복사는 여자직원이 하는 것이 좋다	.084***
여자가 판사, 검사 직업을 갖는데 찬성한다	.055***
1남자가 여자 상사 밑에서 일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117***

주: 1) † p<0.1, * p<0.05, ** p<0.01, *** p<0.001.

4. 청소년의 일반적 가치관

소수 집단에 대한 태도에 개입되어 있는 가치를 검토하는 것은 여러 가지 중요한 실질적 의미를 지닌다. 예를 들어, 사람들로 하여금 소수 집단 사람들 및 관련 정책에 대해 어떠한 태도를 취하도록 하는 데에 개입되어 있는 중요한 가치를 확인하면, 그들을 돕는 것이나 관련 정책이 그러한 가치 차원에서 긍정

12) '집안일은 남자와 여자가 같이 해야 한다' 문항의 경우 부모가사분담 정도가 매우 높은 학생과 매우 낮은 학생의 찬성 여부가 양극화되어서 상관관계계수가 무의미하게 나왔다. 다만 이 경우에도 $x^2=285^{***}$으로 집단별 차이를 확인할 수 있었다.

적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는 점을 강조하는 설득 메시지를 만들어 사회 교육 또는 학교 교육에 포함시킬 수 있다(Clary, Snyder, Ridge, Miene and Haugen, 1994). 예를 들어, Clary 외(1994)는 사람들이 자원봉사활동에 대해 보다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도록 설득하는 데 있어, 태도에 개입되어 있는 주요 가치 차원과 부합되는 측면을 강조하는 설득 메시지가 보다 효과적이었음을 보여 주었다. 보다 중요하게는 탈북자, 장애인, 여성 등 우리 사회의 소수 집단 사람에 대해 보다 긍정적 태도를 가지도록 영향을 미치는 가치를 고양시키는 교육을 어린이들에게 실시하도록 할 수 있다.

이 절에서는 청소년들의 일반 가치관에 대해 검토함으로써 선행 연구 결과에 기반 하여 청소년의 성평등 의식 고취를 위한 경험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한다. 청소년의 일반 가치관을 측정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방법을 채택하였다.

Schwartz(1992)의 가치 척도 중 '보편주의 가치', '권력가치' 및 '자기지도 가치'를 반영하는 총 7개의 형용사를 사용하여 이 가치들을 측정하였다. 응답자들이 자신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를 4점 척도로 평가하도록 질문지가 구성되었다. 이 세 가치들은 북한 사람에 대한 태도가 사람들이 가지는 가치에 의해서 어떻게 영향을 받는가를 검토한 선행 연구들에서 편견적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가치들로 나타난 가치들이다. 보편주의 가치 측정 문항들은 '더불어 사는 삶', '다른 사람에게 필요한 사람', '인간에 대한 사랑'의 3문항으로 이루어졌고, 권력가치는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것', '다른 사람에게 명령할 수 있는 힘'의 2문항, 그리고 자기지도 가치는 '자유로운 생활', '목표를 달성하고 성공하는 것'의 2문항으로 측정하였다.

선행연구(김혜숙, 2002; 박수미 외, 2004)에 따르면, 평등 및 사회정의를 중시하는 보편주의 가치가 소수 집단에 대한 보다 긍정적 태도와 소수 집단을 위한 정책에 대한 지지 태도를 가지게 한다고 한다. 그러나 권력 가치는 소수 집단에 대한 부정적 태도와 관련되어 있다. 이 연구들은 보편주의 가치는 소수 집단에 대한 일반적 긍정적 태도와 관련되어 있을 뿐 아니라 차별금지법이나 성평등고용법과 같은 소수 집단을 위한 구체적 정책 도입에 대한 긍적적 태도와 관련되어 있다는 점을 보여 주고 있어 이 연구에 중요한 실질적 의미를 부여해 준다.

보편주의 가치와 권력 가치가 각각 소수 집단에 대한 긍적적 혹은 부정적 태도와 관련되어 있음을 보여 주는 여러 연구 결과는 우리 사회에서 사람들이 다양한 사람들을 존중하고 수용하는 태도를 가지도록 하기 위해서는 특히 어린이들에 대한 가치 교육이 중요해 질 수 있음을 지적해 준다. 즉, 사람들이 소수 집단에 대한 보다 긍정적이고 개방적인 태도를 가지고 소수 집단을 위한 정책을 수용하여 사회통합을 지지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보다 보편주의적 가치를 고양하도록 하고 권위주의적 가치를 지양하도록 교육하는 것이 필요해진다. 그러나 현재 우리의 젊은이들은 이전 세대에 비해 사회정의나 평등을 신봉하는 경향성이 낮아지고 있으며 자유나 개인의 성취 등을 지향하는 경향성이 상대적으로 높아지고 있다. 이는 현재 우리의 교육이 사회 구성원의 다양성에 대한 개방성과 사회 통합을 지향하는 보편주의 정신을 충분히 고취시키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해 준다.

청소년들의 일반 가치관을 측정해 본 결과 청소년들이 가장 중시하는 가치는 '권력 지향적 가치'였다. 반면 가장 미약한 일반 가치는 '자기지도 및 성취 가치'였다. '보편주의 가치'도 미약한 편으로 청소년기가 아직 확고한 가치관을 형성하지 못한 생애 단계로 간주한다 하더라도 이것은 상당히 우려되는 결과이다. 특히 위에서 지적한 대로 보편주의 가치가 성평등 의식에 정(+)적 요인이 되고 권력 가치가 부(-)적 요인이 된다고 할 때, 우려되는 바는 분명한 근거를 갖게 되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일반 가치관의 성별 통계치를 보면 여학생은 남학생보다 보편주의 가치, 자기지도 및 성취 가치가 높은 반면, 남학생은 권력 가치 가운데 '다른 사람들에게 명령할 수 있는 힘'에서 여학생보다 높은 수치를 나타냈다. 더욱 우려되는 것은 학교급이 높아질수록 보편주의 가치가 늘어나고 권력가치가 줄어드는 경향도 보이지 않는다. 즉 현재의 교육과정을 통해서 학생들의 보편주의 가치가 증대하고 권력가치가 감소하는 효과는 발견되지 않으며 이것은 성평등의식을 포함한 보다 상위의 평등 의식 고취에 현재의 교육현장이 그다지 효과적이지 않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표 5-8>은 청소년의 일반적 가치관과 성평등의식의 상관관계 분석 결과이다. 선행연구결과와 마찬가지로 보편주의 가치는 한 문항을 제외하고 모든 성

평등의식과 정(+)의 관계를 보인다. 반면 권력 가치는 모든 성평등의식과 부(-)의 관계를 보이며, 자기 성취 가치는 약간의 편차를 보이지만 대체로 성평등의식과 정(+)의 관계를 보인다. 위에서 우려한 것처럼 여학생들이 보편주의 가치와 자기 성취 가치를 많이 지니고 있는 데 비해 남학생들이 권력 가치지향적인 성향은 성평등의식 제고를 위해서 학교 현장이나 사회 현장에서 어떤 가치를 부각시켜야 할지를 시사해 준다.

보편주의 가치와 권력 가치가 각각 소수 집단에 대한 긍적적 혹은 부정적 태도와 관련되어 있음을 보여 주는 선행연구결과에 기반하여, 우리 사회에서 사람들이 다양한 사람들을 존중하고 수용하는 태도를 가지도록 하기 위해서는 특히 어린이들에 대한 가치 교육이 중요하다. 즉, 사람들이 소수 집단에 대한 보다 긍정적이고 개방적인 태도를 가지고 평등 사회를 지향하는 다양한 정책을 수용하여 사회통합을 지지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보다 보편주의적 가치를 고양하도록 하고 권위주의적 가치를 지양하도록 교육하는 것이 절실해진다.

〈표 5-8〉 청소년의 일반적 가치관 성평등의식의 상관관계

성평등의식 항목	보편적 가치관	권력지향 가치관	자기성취 가치관
남자들이 부엌일 하는 것은 보기에 좋지 않다	.121***	-.084***	.100***
집,땅과 같은 재산은 남편과 공동이름으로 한다	.193***	-.029**	.178***
집안일은 남자와 여자 같이 해야 한다	.205***	-.036***	.175***
집안 대를 잇기 위해 아들 있어야 한다	-.065***	-.117***	-.056***
아내와 남편은 집안 모든 일에 똑같은 결정권 가져져야 한다	.226***	-.020*	.204***
여자는 사업에 관한 중대한 결정 남자만큼 내리지 못한다	.065***	-.085***	.063***
남자는 가족 생계책임지기에 여자보다 월급 많이 받아야 한다	-.010	-.132***	-.008
차심부름, 복사는 여자직원이 하는 것이 좋다	.044***	-.107***	.039***
여자가 판사, 검사 직업을 갖는데 찬성한다	.161***	.005	.160***
남자가 여자 상사 밑에서 일하는 것은 바람직 하지 않다	.038***	-.107***	.052***

주: * p<0.05, ** p<0.01, *** p<0.001.

제 4 절 성평등한 가족문화와 청소년

1. 성평등한 가족문화관련 청소년 교육현황

다양한 중, 고등학교 교과서에서 성평등한 가족문화의 내용을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는 교과 과목은 도덕, 사회, 기술·가정이다. 성평등한 가족문화에 대해서는 인구에 초점을 맞춘 선행연구에서 부분적으로 분석된 바 있다(이삼식 외 2005). 선행연구에서는 인구에 초점을 두어 결혼에 대한 가치관이나 성평등 가치관의 측면에서 가족문화 문제를 부분적으로 다루었다. 선행연구에서는 중학교 도덕 교과서 1종 3책, 사회교과서 7종 21책, 기술·가정 10종 30책 그리고 고등학교 도덕 교과서 4종 4책, 사회·문화 5종 5책, 기술·가정 10종 10책이 분석되었다.

이 글에서는 성평등한 가족문화라는 주제에 보다 초점을 맞추어 선행연구에서 검토한 내용과 함께 일부 교과서를 선정하여 질적 내용분석을 병행하였다. 질적 내용분석을 위해 선정된 교과서는 원칙적으로 교과내용의 목차에 '가족' 관련 사항이 중심주제로 설정된 과목을 설정하였다. 국정교과서의 경우 이외에 검인정 교과서의 경우, 여러 기관에서 발행한 내용을 포괄적으로 살펴보는데 의의를 두어 같은 교과 과목에 대해 학년별로 다른 출판사의 교과서를 선별하고자 하였다.[13]

포괄적인 측면에서 성평등한 가족문화를 살펴보되, 이와 연관된 법·제도적 측면의 정책방향을 고려하여 세부 항목을 재구성하여 분석을 시도하였다. 분석의 초점은 가족의 형태의 측면과 내용적 측면을 함께 포괄해서 성평등한 가족문화에 대한 교과서의 전체적인 이해의 틀을 도모하는데 놓여 있다.

이를 위해 첫째, 가족의 형태에 초점을 맞추어 가족의 구성과 해체를 다룬

13) 질적 연구를 위해 선별된 교과서는 다음과 같다. 중학교 도덕 교과서 1학년(지학사 2001), 3학년(지학사 2003).중학교 사회 교과서 1학년(금성출판사, 2001), 2학년(금성출판사 2001), 3학년(지학사 2003). 중학교 기술·가정 교과서 1학년(동화사 2001), 2학년(교학연구사 2002), 3학년(홍진 P&M 2003). 고등학교 전통윤리 교과서(교육인적자원부 2003). 고등학교 사회·문화 교과서(대한교과서 2003). 고등학교 기술·가정 교과서(법문사 2003).

내용을 분석하였다. 둘째, 보다 직접적으로 성평등한 가족문화와 연관되는 가족의 내용적 측면을 분석하였다. 가족 안에서 이루어지는 성평등한 가족문화의 실태를 살펴보기 위해 성별분업, 세대간 평등, 노인부양이나 돌봄 노동을 키워드로 삼아 분석을 시도했다. 셋째, 미래의 가족문화 변화를 지향하여 성평등한 가족문화와 성평등한 사회와의 관계를 살펴볼 수 있도록 가족과 사회의 관계라는 범주를 통해 교과서 내용분석을 시도했다.

가. 성평등한 가족문화관련 중학교 교과서 내용 분석

1) 가족의 구성과 해체

학생들의 성비 불균형의 문제를 미래의 결혼에서 여성 배우자의 인구가 현저히 줄어드는 것으로 묘사하면서, 가족 형성의 기초로서 전제하는 혼인관계 구성에서부터 양성이 균등한 구성을 이룰 수 없다는 측면이 제시되고 있다. 가족의 성평등한 형식적 구성 자체를 비관적으로 전망하지만 그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고 있지는 않고 있다.

선행연구의 지적대로 가족문제의 원인을 핵가족화로 귀결시킴으로써, 마치 확대가족으로의 회귀가 이에 대한 대안인 듯 기술하고 있다(이삼식 외, 2005). 특히 삽화에서 예절바른 '바람직한' 가족의 형태를 묘사하는 경우에 확대가족의 삽화를 제시하고, 핵가족의 모습에는 노인문제를 의미하는 사진을 제시함으로써 핵가족화 자체를 문제 있는 것으로 바라볼 여지를 남기고 있다. 또한 확대가족으로부터 핵가족으로 변화하면서 무엇이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구체적으로 서술하지 않고 삽화를 통해 단편적인 이미지로서만 제시함으로써, 그 변화를 통해 향후 '성평등'한 가족문화를 어떻게 가능하게 할 것인지를 생각해 볼 여지를 만들지 못하고 있다. 특히 바람직한 형태처럼 제시된 내용 중에서도 확대가족의 '가계도'를 여전히 양계부모가 아닌 부계 중심으로 제시하여 성평등한 가계도를 그려내지 못함으로써, 결혼과 가족의 형성을 둘러싼 기본적인 형식적 틀을 성평등이 아닌 부계중심으로 인식하게 할 한계도 보인다.

가족에 대한 사례나 보기를 들 때, 전체적인 서술과 삽화에서 3인가족과 4인 가족을 전형으로 제시하는 것처럼 보인다. 이는 동거부부, 한부모가족, 이혼가족, 입양가족, 조부모가족 등 사회환경 변화에 따른 다양한 가족형태의 내용을 반영하지 못하는 것으로(이삼식 외 2005), 다양한 형태의 가족구성 형태를 담아내지 못하고 있다. 다양한 가족형태가 균형있게 제시되면서 이를 통해 성평등한 가족을 어떻게 다양하게 구성해야 할 것인지 고민케 하는 방향제시가 없다.

3인 가족 이외 가족의 형태에 대해서는 거의 언급이 없다. 양자와 양녀를 언급한 내용이 간혹 있지만, 이는 예외적 사례인 것처럼 언급된다. 다양한 가족형태는 언급이 되더라도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불행하다는 내용으로 제시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건강한 가정을 부모와 자식이 있는 핵가족 내에서의 관계로 상정하거나 [그림 5-3]에서 보듯이, '잘 익은' 토마토와 '건강한'(4인 가족)을 공통점을 통해 비교하도록 하는 방식을 통해 다양한 가족형태를 '비정상' 혹은 '덜 성숙한' 것처럼 오인하게 할 여지가 있다. 이는 3인 가족을 통해서뿐만 아니라 다양한 가족형태를 통해서도 재현될 수 있는 성평등한 가족의 형성을 형식의 차원에서부터 고려하지 않고 있는 한계를 드러내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5-3] 4인 가족의 모습

자료: 중1 도덕(지학사 2001: 16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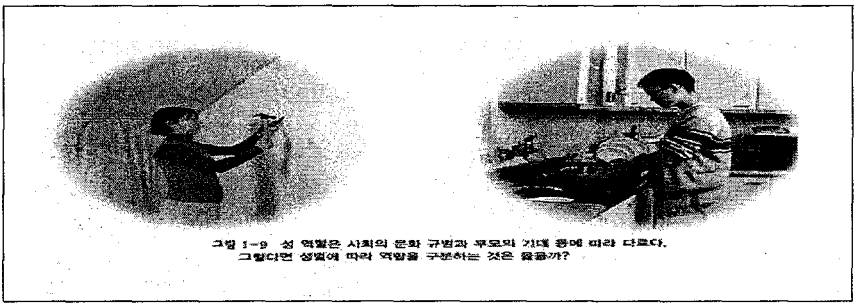
2) 가족 안에서의 관계

가) 성별분업

대체적으로 기존의 전통적인 성별분리를 탈피해야 한다고 서술한다(이삼식 외 2005). 그러나 삽화에서는 고정된 성역할을 제시하는 내용이 많은데, 이 중에서 특히 여성의 역할을 '집안'의 존재로 그린다거나 가사노동을 하는 존재, 특히 '주부'로 자리매김하는 내용이 대다수를 차지한다. [그림 5-4]에서 보면 어머니는 사과를 깎으며 집안일을 하는 존재로 그려진다.

또한 '소비'의 문제를 언급할 때는 항상 여성만을 등장시키는 성별 분업적 서술양식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 이 때문에 고정된 성역할을 탈피해야 한다고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이런 역할분담을 그 자체로 '문제'거리가 있는 것으로 서술하는 내용도 눈에 뜨인다. 더 나아가 여성의 본업을 '집안 일'로 전제하여 직장생활을 하는 여성을 부정적으로 조망하고 있는 문제는 일과 가정의 양립 문제가 현안인 상황에서 시급하게 시정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그림 5-4〕 성역할 고정관념의 전도



자료: 중1 기술·가정(동화사 2001: 20)

가족 내 성별분업의 한계를 지적하거나 이에 대한 대안 사례를 제시하면서 성별분업을 극복하는 내용을 다루려는 시도는 긍정적으로 평가된다(그림 5-4 참조). 그러나 삽화나 사례를 제시하면서 언급되는 구체적인 내용상에 서로 편

차가 심하여 일관성이 없다. 남성과 부엌일은 별로 연관되지 않는다는 성별분업 원칙을 그다지 문제제기 하지 않기 때문에, 현실의 문제를 모면하는 방식에서만 성평등한 성별분업이 언급되고 있는 듯한 인상을 준다. 예를 들면, 육아와 일 사이에서 고민하는 문제로 항상 여성이 직장을 그만두는 사례가 제시된다. 이는 육아와 가사노동이 '여성'의 원래적인 일이라는 고정된 성별분업을 다시 한번 강화할 우려가 있으며, 남성의 돌봄노동이라는 논의가 시작되는 현재의 시점에서 볼 때 한계가 큰 지점이라고 생각된다.

가족과 사회의 연관 속에서 보다 포괄적으로 성별분업을 극복해야 한다는 대안적인 사례 제시가 다루어지는 내용도 있어 긍정적이지만, 주로 '서술' 내용에서만 다루어진다. 그러나 현실에서 아직 시작단계인데도 불구하고 마치 이미 진행되어 보편화되어 있는 것처럼 제시한 설명도 있어 우려가 된다. 성평등 사상의 확대로 여성이 사회진출을 하게 되었다는 원인과 결과를 뒤바꾼 서술도 한계로 지적할 수 있다. 대부분의 사례에서 남성과 여성의 역할을 바꾸는 방식으로만 대안을 제시하여 성평등의 미래적 내용을 어떻게 채워 넣어야 하는지에 대한 보다 구체적이고 심화된 내용이 보강되어야 한다.

나) 세대간 관계 및 성평등 자녀교육

성평등한 가족문화는 부부 사이의 성평등을 통해서 뿐만 아니라, 이러한 성평등한 관계가 자식 세대로 전달되는 과정에서의 '평등'도 포괄해야 한다. 그러나 교과서 전체적으로 세대간 차이를 기본적으로 전제하고 이를 극복하는 방안으로 서술 기조가 잡혀 있다. 이전의 대가족제도에서는 부부세대와 자녀세대의 구분을 통해 자녀들 간의 수평적 연대를 도모하는 맥락에서 이 내용이 중요했을 수 있지만, 현재 1자녀 중심의 가족구성에서는 이와 같은 서술 기조는 가족공동체의 의미를 발전시키기보다 오히려 '차이'를 강조하여 갈등을 내재적인 것으로 고착화하여 세대 간의 차이를 오히려 부정적으로 인식하게 할 수 있다.

전체적인 가족문화를 성평등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부모세대와 자녀세대와의 평등하고 수평한 관계를 만들기 위한 서술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에

대해서는 수직적이거나 혹은 한편의 희생을 전제로 하는 관계를 바람직한 것처럼 제시하는 서술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한 예로 가족 내에서 개인의 선택과 '다수결'의 민주적 절차를 생각하게 하는 내용은 문제제기 자체는 의미가 있으나, '민주'적 방식이 구성원들의 나이 및 세대 간의 평등한 상황에 대한 고려없이 이루어지는 한계가 있다.

성평등한 가족을 이루기 위해서는 가사노동에 대한 부부세대 내의 성별분업이 극복되어야 함과 동시에 자녀세대와 이 문제를 어떻게 공유하고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도 이루어져야 하는데, 현 교과서 내용에서 이런 부문은 거의 포괄하지 못하고 있는 듯 하다. 현실적으로 자녀들이 가사노동을 분담하는 시간을 하루 평균 14분으로 제시한 그림이 인상적인데, 그림과 더불어 자녀들과 부모세대가 가사노동을 함께 공유하는 내용의 서술이 덧붙여 있지 않아 아쉽다.

다) 노인부양이나 돌봄 노동과 관련된 현황

노인에 대한 서술이나 삽화는 가족과 직접 관련되거나 혹은 사회와 관련되는 경우에 일차적으로 기존의 성별분업 이데올로기에 기반한 내용이 제시된다. 특히 남성 노인의 경우에는 사회적으로 일을 열심히 하여 노년 시기에 쉬어야 하는 존재이자 돌봄의 대상으로 비춰지는 사례가 대부분이며, 여성 노인의 경우에는 가사노동 혹은 가사노동과 관련된 일을 통해 생활력을 갖춘 존재로 그려진다. 즉 노인의 경우에도 남성은 대접을 받는 존재로, 여성은 대접을 하거나 혹은 스스로 돌보아야 하는 존재로 서술되고 있다. 돌봄 노동을 제공하는 주체도 여성 중심으로 제시됨으로써, 여전히 돌봄 노동이 '여성'의 일인 듯이 비춰져 기본적인 성별분업의 논리를 고착화 수 있다.

고령화 사회와 더불어 가족 부문에서 담당하는 노인 부양의 역할에 대한 언급에서는 다른 가내 노동에 대한 '성평등'과 달리 유독 여성의 역할만이 강조된다. 부양받는 노인의 입장에서도 손자녀 세대를 '돌보는' 노동을 여성인 시어머니가 중점적으로 맡고 있으며, 부양하는 부부세대의 입장에서도 노인을 '돌보는' 노동을 며느리인 여성 혹은 손녀가 주로 맡고 있는 서술이나 삽화가 제시되고 있다.

집안의 어른과 함께 살고 있는 경우에 관련된 서술이나 노인부양과 관련된 가족문화에 대한 서술이 거의 없다. 간혹 등장하는 경우에는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갈등에 초점을 맞추어 전통적 가치와 현대적 가치의 출동이나 세대가 다른 '여성'만의 문제로 축소시킨다. 자녀세대와의 관계에 대한 서술만큼 전체적으로 어른세대나 노인세대와의 공존을 성평등한 시선에서 조망하는 서술이 보강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3) 가족과 사회의 관계

가) 경제변화와 가족

가족의 변화는 사회의 변화와 함께 진행된다. 특히, 1997년 IMF 경제 위기가 여성과 가족과 관련해 미친 영향은 적지 않으며(강이수·신경아, 2001; 은기수, 2004), 특히 이혼율의 증가 같은 가족구성의 변화는 경제위기와 직접 관련된다. 가족의 변화를 가족 내의 변화가 아닌 사회의 변화와 맞물려 이해하는 지적은 중요하며, 교과서에서도 서술되고 있다. 그러나 이런 서술은 현상적인 사실에 대한 서술에 머물며, 미시적인 시기 구분을 통해 현대사회의 빠른 변화를 연결시키기보다 산업화를 전후하는 거시적인 변화(확대가족에서 핵가족)로만 설명하는데 그치고 있다.

확대가족에서부터 핵가족으로의 변화는 사회와 연관된 가족변화의 매우 중요한 요인이다. 그러나 이후 핵가족화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또 다른 다양한 가족의 형성에 대한 서술이 이 설명과 뒤섞여 구체적이고 실증적인 '가족변화'에 대한 서술이 뒷받침되지 않고 있다. 다양한 가족변화를 핵가족 제도로 인한 '문제'인 것처럼 서술하는 것도 문제이지만, 이런 서술로 인해 현대 가족의 다양한 구성이나 형태가 그 자체로 문제나 '어두운' 측면으로 묘사되는데 문제가 있다. 이렇게 서술되면서, 부부간의 성별분업에 대한 논의도 갈등문제로 비춰지거나 이혼과 같은 또 다른 가족의 형태를 그 자체로 '심각한 사회 문제'로 조망하는 한계가 보인다.

나) 다양한 가족형태를 통한 미래적 가족형태 제시

앞에서 언급했듯이 다양한 가족형태에 대한 제시가 극히 부족하다. 드물게 입양관계에 관한 가족의 형성을 서술한 사례도 있으나 이 역시 혈연 중심의 가족에 대한 하나의 사례로서 그저 제시될 뿐, 이에 대한 부연설명이나 구체적 예시, 삽화, 그림은 전혀 없다.

다양한 가족형태를 제시하는데 있어서도 국제결혼의 경우에는 남성이 가족의 중심이 된 가부장적 문화를 바탕으로 한 시선이 고스란히 드러난다. 한 예로 국제결혼이 농촌 노총각만을 위한 결혼처럼 서술되어, 한국 땅에서 함께 사는 여성은 여전히 '가족 공동체'의 구성원에서 배제되는 것처럼 서술하는 문제있는 기사를 그대로 인용하고 있다(이삼식 외, 2005). 다문화적인 국제결혼의 모습을 보여주기보다 이주여성들을 '한국화'하는 서술의 문제를 비롯하여, 이와 같은 국제결혼 '가족'에서 진행되는 가사노동의 성별분업 고착화를 전혀 문제제기하지 않는다.

근본적으로 남성 중심적인 가부장적 가족문화가 전제되어 있기 때문에, 3인 가족, 혹은 4인 가족 이외의 형태의 가족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거나 부정적으로 묘사하는데, 특히 여성을 중심으로 하는 가족구성의 경우에는 매우 궁핍하게 묘사한다. 한 예로 개발도상국에 대한 사례라고 하면서, 여성이 중심이 된 4인 가족 이외의 가족구성을 궁핍화하는 것으로 이미지화하면서 다양한 형태의 성평등 가족을 내용이 아닌 구성의 측면에서 일차적으로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인상을 준다.

나. 성평등한 가족문화 관련 고등학교 교과서 내용 분석

1) 가족의 구성과 해체

가) 가족형성

초등학교 교실에서 이루어지는 '여자 짝 기근'이라는 남녀 성비의 불균형의 인구문제를 결혼의 불균형으로 이어 설명하는 방식이 중학교 교과서에 이어 지

속된다. 그리고 성년이 되면 결혼을 통해 가족을 이루는 것이나 '자녀를 가지는 것'을 인간의 보편적인 '규범'으로 제시하면서 결혼과 가족을 필연적인 것으로 서술하고 있다. 그러나 관련 내용을 성평등한 가족문화와 형식의 측면에서 어떻게 연결시킬 것인지를 다루는 내용은 없다.

중학교 교과목과 달리 특히, 기술·가정에서 가족과 결혼과 관련하여 다양한 내용이 다루어지고 있다. 위에서 언급한 결혼의 보편성과 필연성을 강조하는 내용은 상대적으로 줄어들면서, 오히려 변화하는 결혼제도의 다양성이나, 결혼이 필수적이지 않고 선택사안으로 변화되고 있다는 상황을 다양한 방식으로 설명하는 내용이 중심을 이루고 있다. 또한 핵가족의 전형화가 다른 형태의 가족을 '비정상적'으로 바라보게 할 수 있다고 비판하는 시각도 일부 존재한다. 그러나 이런 시각이 사회, 도덕 교과목과는 균형을 이루지 못하고 있기도 하다.

나) 가족규모, 형태의 변화

가족규모의 변화와 여러 가족 형태가 생겨나고 있음을 설명한다. 그러나 무자녀 가족을 개인주의로 인한 결과로 설명한다거나 독신 가족을 결혼 연령의 증가와 연결시켜 설명하는 듯, 다양한 가족의 변화 현상에 대한 원인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고 있어 가족의 다양화를 자칫 가족의 위기나 핵가족 형태에 대한 위협으로 이해할 소지가 있다.

기술·가정 교과서에서는 그나마 다양한 가족형태에 대한 편견을 자제하려는 서술 방식을 보이지만, 전통윤리 과목이나 법과 사회 등의 다른 과목에서는 이혼을 지나치게 부정적으로 서술하거나 정상적이지 않다는 표현으로 설명함으로써, 이혼가족이나 한부모가족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온존시킬 가능성이 있다.

가족구성에 있어서의 다양성이 제대로 서술되거나 설명되지 않고 있다. 현재 사회에서의 국제결혼의 증가문제는 매우 커다란 사회 현상의 하나임에도 불구하고, 사진에서 보이는 것처럼 이주여성/남성들은 '근로자'로서 조망되는 경우에서만 비춰진다. 함께 결혼하여 가족을 이루는 이주 여성/남성들을 한국 '가족'의 다양성으로 포괄하는 언급은 거의 찾아볼 수가 없다. 한편 일곱 핏줄이

모인 한 가족에 대한 설명처럼 극히 적은 비중으로 '입양'한 가족을 직접 소개하는 내용만 있다.

2) 가족 안에서의 관계

가) 성별분업

여전히 성별분업을 고착화하는 설명들이 '전통'적인 측면에서 강조되거나 역사적으로 그러했음을 당연하게 전제하는 부분이 무비판적으로 소개되고 있다.

의도적으로는 성역할의 분리를 지양하며 평등한 관점을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여성의 역할은 가사와 육아에 국한된 집사람으로, 남성은 사회 활동과 경제력을 책임지고 있는 바깥사람이라는 전통적인 남녀관을 반영하는 사례가 많다(이삼식 외, 2005). 구체적으로 도표를 통해 바람직한 가사분담의 정도를 강조하기도 하고, 또한 성역할이 달라진 설명을 통해 서로 협력하며 함께 하는 대안을 제시하기도 한다. 그러나 동시에 여성의 사회진출이 가정 내의 문제를 야기하는 것처럼 모순되는 서술을 드러내고 있다.

가사노동을 공동으로 분담하는데 그치지 않고, 아버지의 역할을 더욱 강조하는 서술이 눈에 뜨인다. 특히 임신과 출산과 관련해서 아버지가 함께 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내용이 실려 있다. 이와 더불어 아버지의 적극적 참여를 위해 국가정책의 측면에서도 변화가 필요하다는 내용도 있다. 이 부분은 기술·가정 교과서의 서술에서도 눈에 띄는데, 성평등한 가족문화에서 특히 강조되는 부성권의 강조와 맥을 같이 하고 있다.

나) 세대간 관계 및 성평등 자녀교육

중학교 교과서 내용에서 세대간의 갈등을 강조하는 내용과 다소 다르게 세대간의 차이를 갈등으로 보지 않도록 권고하는 내용의 서술도 눈에 뜨인다. 또한 직접적으로 가족 관계 내에서 의견 차이가 일어나는 상황을 고민해 볼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하기도 한다.

성평등한 가족문화는 세대간 전수의 맥락에서도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하고 부부간에 가사노동 분담뿐만이 아니라 성평등한 자녀교육이 필요한데, 기존의 고정된 성역할론이 자녀교육에 미치는 부정적 효과를 설명하기도 하고, 자녀들의 목소리를 통해 현실의 한계를 지적하는 등의 서술을 통해 이를 드러내고 있다. 특히, 부모세대의 모범을 강조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세대간 성평등한 문화를 전수하는 것뿐만 아니라 직접적으로 가족 내의 가족일을 가족원 모두가 평등하게 분담하는 내용에 대한 강조도 눈에 뜨인다. 그러나 성별로 고정된 역할 분담을 함께 공동부담으로 해야 한다는 언급이 연령에 따른 차이나 다른 사안을 고려한 구체적인 내용보다는 당위적으로 제시되는데 그치고 있다.

다) 노인 부양이나 돌봄노동

전체적인 서술에서 다양한 가족의 형태나 현재 가족이 당면하는 문제를 '개인주의'의 폐해로 단순화시켜 설명하는 문제가 있다. 나이든 부모와 자식이 따로 사는 것을 소원한 관계로 묘사하면서 함께 사는 것만이 '자연스러운' 일로 이분법적으로 구분하는 방식은 현재 사회에서 '노인'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되는 않는 접근이라고 판단된다. 또한 자녀들에 대한 애정과 노인의 소외 문제를 비교하는 방법 또한 적절한 설명이 되지 못한다.

많지는 않지만, 노인문제를 사회와 가정에서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당위성을 다루는 교과서도 있다. 또한 노인의 입장에서도 '독립적인 생활'을 원하는 내용을 언급하기도 하지만, 전체적으로 가족의 문화와 더불어 노인과 관련된 내용을 '문제'의 측면에서만 접근하고 있다. 노부모 부양의 문제를 언급할 때는 거의 항상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에 대한 설명과 연결 짓는다. 또한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를 문제의 근원으로 하는 한편으로는 이러한 돌봄이나 부양노동을 원래 '여성'의 업무인 것처럼 전제하며 설명한다.

3) 가족과 사회의 관계

가) 경제변화와 가족

경제변화와 가족을 설명하는 내용은 중학교 교과서의 경우에서와 마찬가지로 거시적인 경제변화만을 중심축으로 설명한다. 이를테면 전통 농경사회의 대가족 제도와 현대의 핵가족 제도의 대립만으로 경제변화와 가족관계로 설명한다. 따라서 1960년대 산업화 이후 2000년까지 40여년에 걸쳐 진행된 빠른 속도의 가족관계나 형태 변화를 경제적 단계의 변화와 연관시켜 설명하는 내용은 거의 없다. 그리고 추상적인 다양화만 문화의 특성으로 제시한다.

구체적인 경제단계별 가족과 사회의 연계가 설명되지 않음으로 인해 가족의 변화는 모두 여성의 취업과만 관련되어 주로 설명된다. 즉, 가족관계나 가족문제를 단편적인 도식화로 제시한다(이삼식 외, 2005). 이런 서술 방식에서 특히 여성의 취업이 노인부양이나 출산율 감소 등 전통적 가족형태를 바꾼 일차적 원인처럼 서술되는 문제는 심각하다.

나) 다양한 가족형태를 통한 미래적 가족형태 제시

기존의 핵가족 형태를 넘어선 다양한 가족형태를 제시하는데 역시 인색하며, 입양에 대해서 항목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기술·가정 교과서도 상당수 있다. 입양을 다루는 내용에서도 한편으로 여전히 혈연에 의한 친족관계를 중시하고 있어 다양한 가족형태를 포괄적으로 제시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입양을 통한 가족형성 이외에 다른 가능한 다양한 가족 형태를 여전히 '문제'의 시각에서만 바라본다. 한국 내에서의 다양성에 대해서는 인색하면서 해외 사례를 소개하는 경우에는 상당히 '이상적'인 형태로 제시하거나 모순적인 내용을 혼합하기도 하면서 하나의 가족형태를 하나의 국가에만 해당하는 기이한 정형화를 하고 있기도 하다.

기술·가정 과목에서만 두드러지게 미래가족의 형태에 대한 언급이 있다. 그

러나 이미 진행되고 있는 현실을 미래처럼 제시하여 혼돈을 안겨준다. 일부 미래형으로 제시하는 내용의 핵심으로는 가사노동의 분담이 중심을 이룬다. 그리고 또한 혈연공동체를 넘어서는 생활공동체, 패치워크형 가족, 코하우징 등 실제로 대안적 형태를 미래형으로 제시하는 서술도 간혹 눈에 뜨인다.

2. 성평등한 가족문화관련 법·제도 현황

가. 성평등한 가족문화의 형식적 구성을 위한 법·제도

1) 남성 가장 중심의 부계적 가족형식 극복

한국에서는 성평등한 가족문화형성으로 향한 일차적 단계로 호주제의 폐지를 언급할 수 있다. 호주제의 폐지에 따른 민법개정안(2008. 1. 1)은 다른 무엇보다 남성 가장 중심의 가족계보를 양성으로 확대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내용을 조금 더 살펴보면, 일차적으로 '호주에 관한 규정과 호주제도를 전제로 한 입적·복적·일가창립·분가 등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는 한편, 호주와 가(家)의 구성원과의 관계로 정의되어 있는 가족에 관한 규정을 새롭게 규정'하고 있다(현행 제778조, 제780조, 제782조 내지 제796조 삭제, 제779조).

또한 '자녀의 성(姓)과 본(本)은 아버지의 성과 본을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혼인신고시 부모의 협의에 의하여 어머니의 성과 본도 따를 수 있도록 함'(제781조제1항)으로써 형식적인 성평등한 가족문화의 기초를 다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와 유사하게 일본에서도 개정된 민법에서 '집'이 폐지되어 결혼시의 성씨의 결정이나 친권, 부양, 상속 등 모두가 남녀의 본질적 평등에 기초해 법률상 가정생활에서 남녀평등이 크게 진전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정해숙·김연 2002). 한국이나 일본에서는 이를 통해 남성 가장 중심의 부계중심의 가족문화가 형식적 측면에서부터 양성 모두를 함께 고려하는 성평등으로 방향을 잡아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2) 성평등 가족법의 제도화와 내용 변화

독일은 1966년에 제정된 독일민주공화국의 기본법에 제시된 혼인 및 가족법에 입각한 가족 모델을 따르고 있다. 그리고 가족법의 기본원칙에 남녀의 평등권이 제시되어 있다. 한국에서는 가족정책의 근간이 되는 건강가정기본계획안을 통해 가족관련 법 및 정책의 제도화가 구체화되고 있다. 2004년 '건강가정'기본법이 마련되는 과정에서 병행되는 건강가정기본계획안은 제1차로 2006~2010년까지를 설정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가족정책의 정책비전으로 '가족 모두 평등하고 행복한 사회'가 제시되었다. 비전에 따른 정책목표는 가족과 사회에서의 남녀간·세대간 조화 실현 그리고 가족 및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 증진이 채택되었다. 이에 따라 총 6가지의 정책과제가 제시되는데, 이 중 다섯 번째 정책과제가 '평등한 가족문화 및 가족친화적 사회환경 조성'이다. 이제 시작단계이기 때문에 이 결과가 이후 어떻게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낼지는 좀 더 지켜보아야 하는 상황이다.

3) 성평등한 부부재산제도에 관한 논의

프랑스의 경우에는 1985년 개정을 통해 부부재산법상 남녀평등의 기반이 확보된다(조은희·전경근, 2004). 또한 독일에서는 1957년 남녀동권법에 의해 잉여공동재를 법정재산제로 결정하여 남녀평등의 기본원리가 부부간의 재산관계에도 적용되어야 함이 명시되었다(조은희·전경근, 2004). 한국에서는 호주제 폐지 이후 일차적으로 부부간의 평등한 지위를 실현하기 위한 내용의 보완이 필요하다는 문제의식 속에 (양성)평등한 부부재산제도를 마련하기 위한 다양한 안이 제시되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부부별산제와 부부공동재산제를 중심으로 논의가 전개되고 있다(한국여성개발원, 2006). 이처럼 한국과 다른 나라에서는 성평등한 가족문화를 위한 기초적인 법과 제도를 수립하거나 확대 개편하여 성평등한 가족문화를 만들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고 있다.

나. 가족 내 노동의 성평등한 분담을 위한 법·제도

1) 가사노동 공동분담

독일에서는 가정에 의무가 있는 공무원은 독일 남녀동등화법(BGleiG)을 통해 시간제 근무나 휴가를 요구할 수 있다(민무숙 외, 2006). 일본에서도 남성이 장시간 노동으로 여성의 가사, 육아부담의 집중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남성이 육아, 개호, 가사노동이나 지역활동에 참가할 수 있는 일과 생활의 균형의 실현을 위해(박효숙, 2006) 엔젤플랜 3탄인 "어린이·양육응원플랜"에서 특히 이 부분을 고려한 대응책을 보강하였다. 한국에서 여성가족부는 2010년까지 부부 가사분담 비율을 8.1%에서 15%로 만든다는 지표를 제시하고 있다(여성가족부, 2006). 이 지표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에 대한 세부 프로그램이나 내용은 이후 보강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2) 가족 내 돌봄노동에 대한 성평등성 확보

가) 성평등 휴가제도

한국에서 육아휴직제도는 1995년 남녀고용평등법의 개정과 함께 도입되었으며, 생후 1세 미만의 영아를 가진 남녀 노동자 모두가 휴직할 수 있는 제도이다. 그러나 현실은 기존의 모성보호법이 일차적으로 '여성=모성'이라는 원칙을 갖는 측면을 넘어서야 할 필요성을 더욱 강조한다. 일본에서는 후생노동성에 의해 2002년 '소자화 대책 플러스 원'에서 일과 육아의 양립지원이 중심이었던 종래의 대책에서 남성을 포함하는 방식이 포괄되었다(문옥륜 외, 2006; 김명중, 2006). 독일에서도 1998년 사회민주당과 녹색당 연립정부가 구성되면서 1999년 육아휴직을 '부모시간(Elternzeit)'으로 전환하는 성평등적 역할분담 지원정책이 자리 잡게 되었다(강점숙 외, 2003). 스웨덴에서도 육아를 남성, 기업, 국가가 함께 책임지면서 여성의 일과 양육이 병행될 수 있도록 하는 성평등 정책이 실시되고 있다(김종기, 2005). 노르웨이에서는 아버지할당기간을 더해 총 부모휴

가기간을 연장하는 방식을 시도했는데, 이것이 기존의 휴가기간 내에서 아버지 할당기간을 나누는 스웨덴의 방식보다 더 성공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윤홍식, 2005b).

나) 가족간호휴직제도

저출산의 대책으로 제시되는 아동에 관한 양육의 측면뿐만 아니라 세대 간의 평등을 고려하고 특히 고령화에 대한 대책을 고민할 때, 노인세대나 간호가 필요한 가족원에 대한 돌봄 노동의 대책방안도 덧붙여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한국에서는 1995년부터 가족간호휴직제도라는 명칭으로 관련 내용이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이 방안 역시 기존의 성별분업 원리에 의해 주로 여성이 휴직제도를 사용하는 한계가 여전히 지적된다. 따라서 이를 성평등한 가족문화와 더불어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돌봄 노동에의 남성참여를 확대하는 정책이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함과 동시에 이 노동에 대한 가치평가가 사회적 노동과 균형적으로 이루어지는 방안도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다. 성평등 가족문화의 사회적 확산을 위한 법·제도

1) 성평등 가족문화 환경 조성을 위한 법·제도

가) 건강가정지원센터를 통한 정책지원

여성가족부의 2005년도 보고서를 토대로 '성평등 가족문화' 항목을 중점적으로 살펴보면, 지역단위 교육 및 문화사업에 대한 센터의 사업 부분이 관련된다. 세부 프로그램으로 가족관계 향상(결혼전 준비교육, 예비부모, 부모자녀간 ,부부간 의사소통 교육 등), 평등한 가족생활 영위(가족 내 역할분담, 가족간 소통, 돌봄의 공유 등), 가족구조의 다양성 수용(가족에 대한 의식전환, 가족유형에 적합한 가족생활 방식 등)이 제시되어 있다. 이를 위해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역할이 핵심을 차지하고 있다. 이를 통해 보면, 성평등한 가족문화를 위한 환경조

성의 내용이 상당부분 '상담'에 초점이 맞춰져 있으며, 세부 프로그램에서 제시되는 성평등한 가족문화의 내용도 구체화되어 있지 않아 성평등한 가족문화의 구체적 내용을 확인하기 어렵다. 또한 결과보고서 등에서 센터를 방문한 인원에 대한 통계만 제시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센터를 통해 제공된 프로그램이 실질적으로 '성평등한 가족문화'를 이끌었는지를 판단할 근거도 희박하다.

나) 가정폭력방지법

한국사회는 2004년 가족정책 시행방안 중에서 "민주적이고 성평등한 가족관계 촉진"의 내용으로는 '폭력가정에 대한 전문적 지원체계'(변화순·최윤정, 2004)가 제시된 것도 그 일환이다. 그러나 '건강가정'기본법에서는 '가정폭력방지'와 관련된 부분이 단 두 개의 항목에만 간략히 언급되어 있다(문현아, 2005). 성평등한 가족문화의 내용을 이루기 위해 가정 내 부부간 폭력, 아동에 대한 폭력, 노인학대 등의 문제는 해결되어야 할 시급한 문제이다. 기존의 '건강가정' 중심의 가정폭력 대처방안은 피해자를 기존의 폭력가족 내부로 돌려보내는 방식이 중심을 이루고 있다. 그러나 이처럼 '이혼'을 원하는 여성이 상당수를 차지하는 경우, 이혼한 이후에 여성이 새로운 '가족'을 창출할 수 있도록 도모해야 하는 지원책이 필요하다. 그리고 사실 이러한 인식을 기초로 해야만 보다 큰 맥락에서 성평등 가족문화가 사회 전체적으로 정착할 수 있을 것이다.

2) 다양한 성평등 가족문화 확산을 위한 지원 정책

가) 한부모가족지원법

이는 저소득 모·부자가족, 미혼모 등에 대한 내실 있는 지원으로 보호대상자의 생활 안정 및 자립 기반을 조성한다는 목표 하에 진행되고 있다. 이런 정책들은 일차적으로 명칭에서부터 성평등한 가족문화 형성과 배치된다. '경제적 빈곤' 해소와 아동 양육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의 제목이 한무보가족지원법으로 되어 있다. 즉 법이 한부모가족을 3-4인 가족과는 구분되

는 별도의 '지원이 필요한 가족'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이다. 다양한 가족의 형태를 포괄하는 사회적으로 폭넓은 평등한 가족문화가 확산되기 위해서는 이들 가족에 대한 차별적인 시선을 경제적 측면과 구분하여 생각하는 관점이 요구된다.

나) 결혼이민자 가족지원 정책

여성가족부는 2005년부터 전국을 6개 권역으로 나누어 지역별로 운영기관을 선정하여 여성결혼이민자 지원사업을 추진하였다. 이 내용에는 결혼이민자 여성을 위한 한국어 교재 발간, 한국어 교육, 문화교육 및 생활상담, 출산도우미 지원 등이 포괄되어 있다. 이 중에서 생활상담의 내용에는 가정폭력 및 부부갈등 상담이 중심을 이룬다. 이 정책에 대한 비판은 첫째, 한부모 가족지원과 마찬가지로 국제결혼을 기존의 결혼과 매우 다른 형태로 분리하고 있다. 둘째, 여성을 한국사회에 동화시키는 원칙에 압각하여 기존의 가부장적 남성문화를 근본에서부터 문제 삼지 않고 있다. 셋째, 한국여성과 결혼한 이주남성은 전혀 포괄되지 않고 있다(한국염, 2006). 이런 문제를 고려할 때, 현재의 결혼이민자 가족지원 정책은 성평등한 가족문화를 사회적으로 확산하는 맥락에서 상당히 한계가 많다고 판단할 수 있다.

3. 성평등한 가족문화 관련 사례 현황

성평등한 가족문화에 관한 사례는 먼저 개별 가족 내에서의 성평등과 가족들 간의 혹은 가족과 사회 간의 확대된 형태의 성평등으로 구분하여 살펴볼 수 있다.

가. 개별 가족 내의 성평등 가족문화

사회활동의 책임은 남성이, 가족활동의 책임은 여성이라는 성별 분업에 기초한 불평등한 이데올로기를 극복하는 대안모색이 점차 진행되고 있다. 가족 내에서 아버지의 역할에 대한 새로운 조망이 이루어지면서 '좋은 아버지'상의 확립이 검토되고 있다. 이는 기존의 가부장적이며 권위있는 아버지 상이 아니라,

아버지와 함께 나누는 자녀양육을 모색하고 자녀의 성장과 관심을 함께 나누어 궁극에 아버지와 자녀 간의 정서적 유대를 강화(한국여성개발원, 2005)하는 비전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

그리고 이를 자녀세대로 확산시키는 방안도 모색되고 있다. 자라나는 청소년 세대의 남학생들에게 자원봉사활동을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방안에서 남학생들에게 돌봄의 가치를 강조하여 이를 성평등 교육기회 더 나아가 실천의 기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책이다(서병숙·김혜경, 2002). 이는 기혼여성의 자원봉사활동을 강화하는데 있어 어머니의 자원봉사활동에 보수적인 태도를 보이는 아들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에서 시도된 것이지만, 이를 확대하여 잘 활용하면 사회 전체적으로 돌봄 노동의 사회화를 강화하는데 효과가 있음과 동시에 미래세대, 특히 남성에게 돌봄 노동의 가치를 확산하는데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나. 가족과 가족 간, 그리고 사회로 확대되는 성평등 가족문화

덴마크에서는 코하우징 공동체(Cohousing Community)가 대안으로 시도되고 있다. 이는 가구들 간의 상호의존성을 통해 서로 간에 의사친족적 연결망(fictive kin network)을 만들어 가구 내의 사람들 사이에서 이해의 폭을 넓힘과 동시에 공동체에 대한 책임감을 확대하는 것이다(이은아·마경희, 2006). 이런 현실공동체는 성평등한 가족문화가 사회적 맥락에서 자리 잡는 하나의 가능성으로 살펴볼 수 있다.

4. 한국형 성평등한 가족문화 발전 방향

가. 가족문화 관련 청소년 교과내용의 개선

성평등한 가족문화를 초점으로 청소년 교과내용을 분석한 결과 앞으로 다양한 측면에서 내용수정과 보강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중학교와 고등학교 과정만을 비교하면, 중학교 내용에 비해 고등학교 교과내용이 한걸음 더 진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성평등한 가족문화를 위한 서술이 당위적인 차원에서 그쳐 대안으로 제시하는 내용이 두드러지지 못한다.

교과과정상의 형식적 측면에서 첫째, 중학교 교과과정에도 고등학교의 기술·가정에 준하는 내용이 포괄되어 다루어질 필요가 있다. 중학교에 비해 고등학교 교과서의 내용이 성평등한 가족문화에 근접하게 분석되는 것은 고등학교의 기술·가정 교과내용이 포괄되었기 때문이다. 도덕과 사회과목에서 특히 전통에 관한 논의를 하는 경우에는 '가족문화'에 관해 전통적인 방식을 이상으로 제시하여 현대의 특성을 하나의 일탈이나 부정적인 것으로 조망하는 측면이 상당수를 차지한다. 중학교의 기술, 가정 교과내용 중에도 가족에 대한 포괄적인 설명을 통해 해당내용들을 서술하는 측면이 보강되면 좋을 것이다.

둘째, 교과서의 과목별 균형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같은 내용이 도덕교과서에서 다루어지는 경우와 기술·가정에서 다루어지는 경우 접근방식과 문제의 구성, 더 나아가 대안을 제시하는 내용에서 편차가 커서 학습하는 청소년들의 입장에서 일관성을 견지하기 어려울 수 있다. 이와 더불어 가족문화의 내용이 기술·가정과 같은 '가정'을 초점으로 하는 교과목에만 편중되는 것도 한계로 지적되어야 할 것이다. 현재 사회에서 요청되는 일과 가정의 양립은 가정을 사회와 구분된 하나의 범주로 상정하는 것을 넘어서는 것도 포괄하기 때문이다. 기술·가정의 교과목이 통합되었지만, 내용면에서 기술과 가정이 유기적으로 조화를 이루고 있지 않고, 가족문화와 관련된 내용은 '가정' 과정에 국한되어 있다. 기술과 가정을, 가정을 기술과 연결시키는 유기적인 시각으로 가정, 가족문화가 사회문화와 연계된다는 재구성이 필요하다.

내용의 측면에서 첫째, 전반적인 서술에서 여전히 전통적 성역할 고정관념에 의거한 교육내용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기(민무숙 외, 2006) 때문에, 성평등한 가족문화 자체에 대한 접근은 취약한 편이다. 그러나 일관되지는 않지만, 다양한 방향과 각도에서 이 문제를 간접적으로나마 언급하고 있기 때문에, 일관된 틀을 구성하면 청소년들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재구성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덧붙여 당위적인 서술을 피해 청소년들이 문제를 고민하고 해결하게 하는 방안도 함께 고려되면 좋을 것으로 생각된다. 특히 삽화나 그림에서 서술과

모순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세심한 주의와 배려가 더욱 요청된다.

둘째, 가족의 형식적 측면을 둘러싸고 다양한 가족을 포괄적으로 소개하고 내용을 담을 필요가 있다. 전통가족 대 핵가족이라는 대비는 현대 사회를 포괄적으로 설명하기에는 다소 내용이 뒤쳐진 것으로 생각된다. 다양한 가족형태를 제시함으로써 청소년들이 가족문화 자체를 경직되지 않고 열린 자세로 바라볼 수 있게 하는 기본 인식틀이 형성되면 좋을 것으로 생각된다. 열린 자세로 가족을 바라보게 되면 가족문화에서 진행될 다양한 관계를 일차적으로 남녀 성별 구도를 넘어서서 고민할 수 있게 되리라 생각한다.

셋째, 가족 내에서의 관계에 대해 가사노동 분담문제를 적극적으로 언급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것은 상당히 바람직하며 이러한 경향은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와 더불어 차세대에게 이런 평등관계를 어떻게 전수할 것이며, 더 포괄적으로 고령화 시대의 도래를 고려할 때, 노인세대와는 어떻게 관계 맺기를 할 것인지도 다루어지면 좋을 것이다. 즉 청소년의 현재, 그리고 가족을 구성할 미래만 고려하는 것에서 벗어나 고령인구에 대한 대책을 가족과 관련하여 장기적으로 어떻게 재구성할지에 대해서도 함께 다루는 것이 정책의 측면과도 연계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넷째, 3인가족 혹은 4인가족 내의 성평등한 가사노동 분담을 기본으로 한 성평등한 가족문화를 넘어 사회적으로 성평등한 가족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하는 열린 대안이 제시될 필요가 있다. 하나의 가족문화를 '정상'으로 바라보거나 단일한 가족형태를 고착화하는 방향이 아니라 다양한 형태의 다양한 구성의 다양한 내용의 성평등한 가족문화가 가능함을 원칙적으로 제시하는 서술이 포괄되면 좋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런 측면이 원칙적으로 인정되어야 여성의 혹은 어머니의 직장생활과 가정의 양립, 남성의 혹은 아버지의 직장생활과 가정의 양립 문제를 성평등하게 접근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사회적으로 성평등한 가족문화가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나. 성평등 가족문화 조성

기술·가정 교과서에는 미래의 가족의 모습을 이렇게 그리고 있다. "앞으로는 가족 가치관의 변화로 가족 규모가 3-4명 정도의 소수인 가족이나 1인 가구, 여성가구주 가구, 노인 가구가 증가할 것이다. 또한 가족 형태가 더욱더 다양화 될 것이므로 이러한 가족과 함께 더불어 사는 지혜가 필요하다. … 가족 가치관은 평등주의의 방향으로 계속 변화할 것이고, 기혼 여성의 취업 증가로 가족 역할의 변화도 촉진될 것이다"(형설출판사, 2005). 이처럼 성평등한 가족문화에 관한 논의가 중점적으로 시작된 것에는 여성의 사회진출이라는 사회적 변화가 근저에 자리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런 사회적 변화를 현실의 '가족'이 얼마나 수용적으로 받아들이면서 변화할 것인가가 앞으로의 관건이 되리라 생각한다. 성평등의 측면을 고려하면 특히 이런 측면이 앞으로 더욱 초점이 될 것이다.

사회적 변화와 함께 현재 가족과 관련된 다양한 논의의 핵심에는 '다양성'과 '평등'이 놓여 있다. 다양성에서는 3-4인의 가족형태에 집착하지 않는 형태의 다양성에 대한 인정과 동시에 '혈연'에 집착하지 않는 새로운 가족형태의 모색에 대한 포괄적 이해도 이야기되고 있다. 또한 '평등'의 측면에서는 어떤 형태의 가족구성에서도 파트너 간, 세대 간 민주적이고 '평등'한 의사소통이 가능한 가족이 꾸려져야 한다는 내용이 강조되고 있다. 이런 내용을 포괄하여 만들어지는 가족이 바람직한 한국형 성평등 가족일 것이다.

이를 위한 기본 단계로서 하나의 가족을 이상형으로 제시하는 기본 인식의 틀이 깨져야 할 필요가 있다. 인류사의 변천 속에서 가족은 각 시대별로 다양한 형태를 띠면서 변화해왔다. 하나의 가족 형태가 현대 사회의 다양한 삶의 양식을 대변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는 전제일 수 있다. 한국사회에서는 호주제를 중심으로 하는 부계혈통의 이성애 중심적 가족형태가 하나의 이데올로기적 전형으로 제시되었던 역사가 존재한다. 기틴스는 이런 측면을 고려하여 명쾌하게 대안을 제시한다. "가족 이데올로기를 폐기하면, 가족이 위기에 처해 있다는 생각을 버릴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되면 사람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다른 사람과 함께 서로 도우면서 대처하는 새롭고 독특한 방법을 생

각하기 시작할 것이다"(기틴스, 2001). 하나의 전형으로서의 이데올로기를 폐기하고 그 전형에 현존하는 다양한 형태의 가족을 대신 그려 넣는 것에서부터 그리고 이를 통해 현실 속의 다양한 가족들의 존재를 현실로서 받아들이고 사회적으로 인정하는 데서부터 성평등한 가족문화를 위한 모델의 초석은 다져질 수 있을 것이다.

덧붙여 미래세대를 위한 맥락에서 '청소년'에 대한 고려를 강조하는 것도 의미가 있으리라 생각한다. 앞에서 교과서의 내용 그리고 법이나 제도와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아도 사실 '청소년'을 중심 대상으로 상정하는 내용은 많지 않다. 미래세대에 대한 가치지향적 육성을 염두에 두는 연구이기에 더욱 초점을 '청소년'으로 맞추는 시각의 전환이 일차적으로 필요하다. 부모세대의 문제를 청소년들에게 주입하거나 이해하도록 하는 방식보다 청소년 세대가 새롭게 변화시킬 수 있는 혹은 청소년 세대의 현실에 걸 맞는 성평등 가족문화가 어떻게 가능할지를 청소년의 눈높이에 맞추어 새롭게 고민할 수 있는 방향전환도 필요하리라는 생각이다.

제 5 절 성평등한 고용문화와 청소년

1. 성평등한 고용문화 관련 청소년 교육현황

성평등한 고용문화와 관련된 교과 내용은 상대적으로 사회와 도덕 교과목에 편중되어 있어서, 사회와 도덕 교과서를 분석 대상으로 한정하였다. 중·고등학교 과정의 교과내용 분석은 일차적으로 사회적인 영역의 성평등 내용에 대해 교과서 분석을 한 선행 연구 보고서를 참고하였다.[14] 선행 연구의 교과서 분석이 사회적

14) 2005년도에 출간된 보고서 『인구관련 교과내용의 실태와 개선방향』의 부록에 실린 교과분석 내용 중 사회적인 영역의 성평등 관련 내용을 양적인 분석 자료로 참고하였다. 이 보고서에서 분석대상으로 삼은 중학교 과정은 (주)동화사, (주)중앙교육진흥연구소, (주)지학사, (주)도서출판 디딤돌, (주)금성출판사, (주)고려출판, (주)교학사에서 출간된 사회교과서 7종 21책과 대한교과서(주)에서 출간된 도덕교과서 3책이었다. 고등학교 교과 과정은 대한교과서(주), (주)중앙교육진흥연구소, 법문사, (주)도서출판 디딤돌, (주) 두산, (주)교학사, (주)천재교

영역의 성평등이라는 포괄적인 내용을 담고 있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성평등한 고용문화에 대해 초점을 맞추기 위해서 중·고교 과정의 사회, 도덕 교과서들 중 한 출판사를 선정하여 교과서 총 8권(중학교 학년별 총6권, 고등학교 전학년용 2권)에 대해서 다시 심층적인 내용분석을 하였다.[15]

고용문화와 관련된 본문의 내용이 극히 적기 때문에, 전반적인 사회 변화의 양상을 소개하는 본문과 관련된 사례와 그림과 사진 등에 대한 분석을 포함하였다. 교과서 전체를 통해서 그림이나 사진, 사례 등 간접적으로 표현된 고용 관련 내용들은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남녀 성역할에 대한 고정관념, 그리고 가치지향을 시각적으로 전달해주는 중요한 매개체로서 청소년에게 고용문화와 관련된 내용들을 무의식 속에 각인시켜주므로 매우 중요하게 분석되어야 한다.

가. 성평등한 고용문화 관련 중학교 교과서 내용 분석

1) 보편적인 사회인, 인간의 대표로서의 남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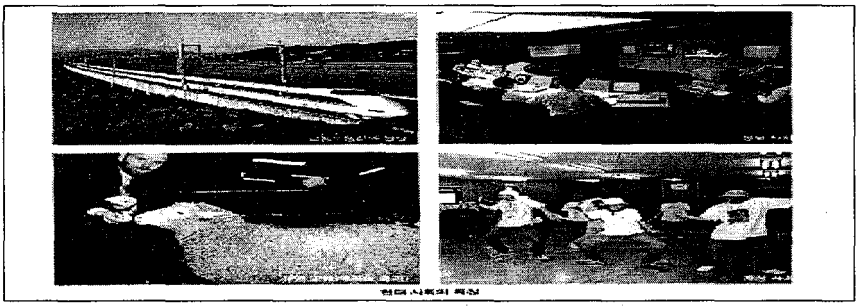
가) 남성 = 인간, 국민, 시민의 대표

사람의 일생, 사회 변동, 정보화 사회의 변화 등 보편적인 사회현상을 보여주는 사진이나 삽화의 주인공은 대부분 남성이 등장함으로써, 남성이 사회, 역사 현상의 주체로서 국민을 대표하는 것으로 표현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내용은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결과적으로 여성들은 사회에서 남성들에 비해 뭔가 부족하고 평균적인 인간 특성에 부합하지 못하는 열등한 존재로 무의식적으로 생각하게 만들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그림 5-5 참조).

육에서 출간된 사회교과서 7종 7책과 대한교과서(주), (주)중앙교육진흥연구소, (주)천재교육, 법문사, (주)금성출판에서 나온 사회·문화 교과서 5종 5책, 그리고 (주)지학사에서 출간된 도덕, 시민윤리, 윤리와 사상, 전통윤리 4종 4책을 분석대상으로 하고 있다(이삼식 외, 2005).

15) 고용문화와 관련된 중·고등학교 교과내용을 심층 분석하기 위해 시간과 비용을 고려하여, 각 교과별로 한 출판사에서 출간된 교과서를 선정하였다. 중학교 과정의 경우, (주)지학사에서 출간된 사회교과서 3책과 국정도서출판위원회에서 나온 도덕교과서 3책을, 고등학교 과정의 경우, (주)도서출판 디딤돌에서 출간된 사회교과서 1책과 국정도서출판위원회에서 나온 도덕 교과서 1책을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그림 5-5] 정보화 사회의 중심에 있는 남성



주: 1)"정보화 사회에 관련된 사진에 모두 남성들만 등장하고 있음
자료: (중2 도덕, 국정도서편찬위원회, 10쪽)."

나) 남성 = 정부, 기업, 근로자의 대표

직업에 대한 소개 및 근로자와 관련된 내용에서 근로자가 남성이라는 인식에 치우쳐 있다. 여성근로자보다는 남성근로자에 대한 사진이 더 많으며, 근로자의 대표와 사용자의 대표 모두 남성만 등장하고 있어 여성근로자에 대한 긍정적 인식에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

다) 남성 = 사회와 역사의 주체

사회변동과 역사의 주체로서 국민, 정부, 기업의 대표가 남성으로 표상되고 기술되는 것의 연속선상에서, 역사속의 위인이나 명언, 고전 등에 대한 소개도 거의 남성들로 이루어져 있다. 특히 도덕교과서의 명언, 인물학습, 동서양 고전탐구 등을 보면, 중학교 도덕교과 3년동안 1학년 인물학습에서 헬렌켈러와 신사임당 소개가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명언, 동서양 고전탐구에서는 전혀 여성 명사에 대한 소개가 없어 여학생들이 역할모델을 발견하는데 여전히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표 5-9 참조). 여성들이 미래사회와 정보화사회의 주역으로 얘기되는 오늘날의 현실과 너무나 동떨어진 교과서의 내용구성을 미래지향적으로 재구성하여, 여학생들에게도 자신감과 희망을 불어넣는 작업이 필요하다.

〈표 5-9〉 중학교 도덕 교과서의 특징

구분		내 용
명언	여성	전학년 없음
	남성	(중1) 소크라테스, 노자, 루소, 석가모니 등으로 20여명 (중2) 공자, 이이, 김구, 간디, 페기, 케네디 등의 20여명 (중3) 안창호, 정약용, 주자, 순자, 아우렐리우스 등 14명
인물학습	여성	(중1) 헬렌 켈러, 신사임당
	남성	(중1) 원효, 석가모니, 안창호, 이황, 공자, 페스탈로치 (중2) 이이, 예수, 정약용, 프랭클린, 일연, 간디, 이순신, 쑨원 (중3) 김삿갓, 노자, 영조, 루소
동서양 고전탐구	여성	전학년 없음
	남성	(중1) 맹자, 명심보감, 유토피아, 서유견문, 오륜행실도, 격몽요결, 효경, 향연 (중2) 해동소학, 사회계약론, 목민심서, 프로테스탄티즘의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 삼국유사, 국가, 독일 국민에게 고함, 백범일지 (중3) 논어, 장자, 변증론, 소유냐 존재냐, 채근담, 학교모범

2) 성역할 고정관념과 공-사영역의 분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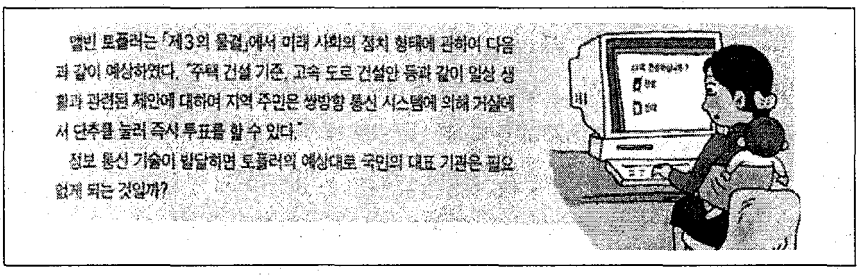
사회의 변화에 따른 여성의 성역할 변화(금성출판사, 사회 중3, 2001: 107쪽)와 함께 변화하는 남녀 직업 사진, 국가별 여성 국회의원 비율 도표(교학사, 사회 중2, 2002:151쪽)를 제시하기도 한다. 또한 성역할에 대한 고정관념에서 발생하는 직업적 차별에 대한 내용 및 사례(국정도서출판위원회, 도덕 중3, 2001:122~123쪽)와 더불어 성역할 고정관념을 뛰어넘어 군사 분야로 진출하는 '최초의' 여성 사례를 제시(지학사, 사회 중2, 2001:157쪽)하고 있다.

그러나 고용문화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본문 중에서 본문을 부가적으로 설명하기 위해 활용되고 있는 사진이나 삽화, 사례에서 사회에서의 성 역할 고정관념을 반영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서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대표적인 성역할 고정관념이 '여성은 사적 영역, 가정, 소비자이고, 남성은 공적 영역, 직장, 생산자'라는 이분법적인 관념이다. 특히 삽화나 사례를 보면, 여성은 가정이나 사회에서 돌봄 노동의 담당자라는 이미지를 강조하며, 남자의 경우 생계부양자로서의 역할을 강조하는 경향이 있다. 기업과 정치의 대표들은 여전히 모두 남성들로 묘사되고, 지역사회 봉사활동과 돌봄 역할은 여성단체나 여성들의 몫인양 그려지고 있다.

성 역할에 대한 고정관념과 직업세계에서의 차별이 서로 연결되어 있기는

하지만,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갖는 것은 아니므로, 이 둘 간의 관계만을 지나치게 강조할 경우에는 개인들이 성역할 고정관념을 바꾸면 해결되는 것으로 단순화될 위험이 있다. 여성이나 남성 개인이 성역할 고정관념을 바꾸어서 남성적인 또는 여성적인 직업영역에 교차적으로 많이 진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사회와 기업 내에 존재하는 성차별적인 제도와 고용 문화 및 관행이 성평등한 방향으로 함께 변화되어야 해결 가능한 문제라는 것이 보다 강조되어야 할 것이다.

[그림 5-6] 아이를 등에 업고 전자 투표하는 여성



3) 성차별의 실태와 원인으로서 성별 직업 분리

중학교 사회 교과서에서 노동시장 내 성불평등 실태에 관한 내용은 주로 직업별, 교육별, 성별 임금지수 그림(동화사, 사회 중2, 2001:164쪽) 등 남녀 임금 불평등의 문제와 더불어 여성의 사회활동참여가 낮은 이유와 대안에 대해 토론(디딤돌, 사회 중3, 2002:123쪽)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보다 세부적으로는 채용시 용모차별에 관한 사례(교학사, 사회 중2, 2002:158쪽)가 제시되어 있기도 하다.

교과서에 나오는 여성과 남성의 직업의 종류를 정리해 보면, 남성 직업은 다양하게 나타나는 반면, 여성 직업은 소수의 특정 직업으로만 나타난다. 여성 직업은 미싱사와 같은 공장근로자, 시장 상인, 보험설계사, 경리원 등 저임금의 하위직들이 주를 이루며, 기업주나 회사 관리자 등의 고임금의 상위직으로는

한 사례도 나오지 않는다. 전문직종에 종사하는 여성들은 주로 전통적인 여성 전문직인 간호사, 교사가 많이 등장한다. 반면 남성들의 직업은 여성 직업에 비해 종류도 훨씬 많고 기계공이나 장인 등 숙련수준이 높은 근로자들이 많이 나올 뿐 아니라, 중소기업 사장이나 회사 관리자, 의사 등 고위직이 많다.

전통적인 남성분야에 여성이 진출한 직업사례는 의사, 판사, 건축현장 관리자, 파일럿, 프로그래머 등으로 전통적인 여성분야에 진출한 남성 사례보다 더 많이 등장하고 있는데, 그 안에도 여전히 성역할 고정관념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예를 들어, 여성 의사는 의사라 하더라도 소아과 전문의로 나온다든가, 재택근무자의 사례자가 여성만 등장한다는 것은 여전히 아동과 관련된 일, 가정과 일의 양립은 여성의 일이라는 편견이 여전히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성별 직업 분리는 실제로 성별 임금격차를 낳는 중요한 원인이 되고 있다. 여성이 저임금 직종에 집중되어 있는 현실은 여성들이 가정 내에서 담당해온 가사와 양육과 같은 무급의 돌봄 노동의 담당자라는 현실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왜냐하면 노동시장이나 기업에서 전제하고 있는 이상적인 노동자는 가사와 양육 등 돌봄 노동의 부담으로부터 면제된 남성노동자로서 회사에 24시간 헌신하고, 회사가 명령하면 언제든지 다른 곳으로 전근을 갈 수 있는 노동자이기 때문에 여성들이 이러한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한 성별 직업 분리는 없어지지 않을 것이며, 여성들은 여전히 저임금의 하위직에 머물러 있을 것이다.

4) 일-가정 양립을 위한 대안

가정과 사회의 성평등의식 확산으로 남녀 역할분담이 공평해지고 직업도 다양해지고 있으며(국정도서출판위원회, 도덕 중3, 2001:175쪽), 탐구활동에서 모성보호법이 개정되는 사례(디딤돌, 사회 중3, 2002:13쪽)를 소개함으로써, 육아가 여성만의 역할이 아니라는 인식을 청소년들에게 심어주고 있는 점은 매우 긍정적이다. 예를 들어 비용과 편익을 고려하여 내리는 경제적 선택의 사례로서 육아와 일 사이에서 고민하는 알뜰씨 사례(동화사, 사회 중2, 2001:46쪽)를 그림으로 제시하고, 남녀고용평등법, 좋은 아버지들의 모임 소개와 21세기 남녀

평등 헌장을 소개(국정도서출판위원회, 도덕 중3, 2001:181~3쪽)하고 있다. 또한 실제로 성역할을 바꾸어서 실천하고 있는 사례를 소개함으로써 일과 가정의 양립문제가 반드시 여성들만의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남성들을 포함하는 것으로 외연을 넓히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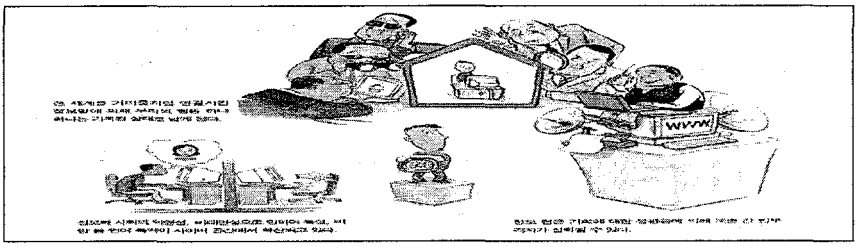
그러나 일과 가정의 양립 대안 중에서 재택근무의 사진을 여성 사진으로만 제한한 것은 또 다시 일과 양육을 양립해야 하는 주체를 여성으로 한정시키는 결과를 낳는 것으로 보인다(금성출판사, 사회 중3, 2001:55쪽). 마찬가지로 인구정책에 대한 소개로 프랑스는 출산장려를 위해 공공유아소와 탁아소 운영 및 임산부에게 많은 휴가를 주면서 임금을 지불하고 있는 정책사례와 더불어 스웨덴의 정책도 소개하고 있는데, 국가의 공공보육정책을 출생률 제고만을 위한 정책으로 소개하고 있는 한계를 보인다. 자칫 잘못하면 공공보육정책은 여성의 근로권에 대한 보장이라는 측면보다는 국가의 출생률 제고를 위해 여성이 아이를 낳는 존재라는 것을 강조하게 될 우려가 있다. 출생률 제고라는 시각에서만 보면, 여성의 사회 진출 확대는 부정적인 요인으로 그려질 수 있다.

나. 성평등한 고용문화 관련 고등학교 교과서 내용 분석

1) 남성=근대화, 정보화의 주역, 여성=전근대성, 사회문제의 표상

중학교 교과서의 분석에서 나타난 것과 일관되게 경제성장, 근대화 과정의 주역으로서 남성에 대한 긍정적인 묘사와 더불어, 전근대성을 대표하고 환경파괴, 조기영어교육열풍 등 사회문제의 주원인으로서 여성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불러일으키는 사례, 그림과 사진 등이 교과서 전반에 걸쳐 실려 있어서, 본문에서 산발적으로 언급되고 있는 고용평등과 관련된 내용들이 공허하게 들릴 가능성이 크다.

[그림 5-7] 정보화의 주역으로 묘사되는 남성



질적 분석 사례로 삼은 디딤돌에서 나온 사회 교과서의 경우, 문화권과 지구촌의 형성에 대한 설명도 전자 대화를 하는 회사원은 모두 남성(디딤돌, 사회:159쪽 그림)으로 나오고, 뉴욕의 금융시장 사진에도 남성들만 나온다(디딤돌, 사회:162쪽). 특히 인터넷이나 벤처, 정치인 등의 직업 영역에 여성을 설정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디딤돌, 사회:236쪽 자료2). 정보화와 관련된 사회문제로서 타인의 감시나 익명성과 관련된 내용의 주인공도 모두 남성들이며, 심지어 개까지 주인공으로 나온다. 하지만 여성은 단지 남성 컴퓨터 사용자의 상상 속에만 등장하는 대상으로만 표현되어 있다(디딤돌, 사회:286쪽 그림).

이러한 사회변화의 주역으로서 강조되는 남성과 대조적으로, 여성들은 주로 전근대 사회를 대표하는 직업군에서 주로 나온다. 예를 들면, 갯벌에서 일하는 여성(디딤돌, 사회:49, 127쪽 사진)으로, 도시 상설 시장의 확대로 농촌 정기 시장의 쇠퇴 사진에서 여성 상인으로 나온다(디딤돌, 사회:108쪽). 또한 여성들은 환경파괴의 원인제공자로 등장하고 있다.

2) 성불평등에 대한 인식과 노동시장 내 성차별 사례들

고등학교 사회, 사회·문화 교과과정에서는 중학교 과정에 비해 노동시장에서의 성차별 사례들 - 여성들의 낮은 경제활동참여율과 높은 성별 임금 격차, 그 밖에 교사나 언론인의 승진에서의 성차별과 여성의 조기 정년퇴직 등 - 이 보다 다양하고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다. 그러나 노동시장 내 성차별에 대한 해결방안은 상당히 피상적으로 다루어지고 있다. 개인적인 차원에서 남녀 대학생

이 여성학 과목을 통해 성차별 문제에 대해 인식은 하지만, 현실적으로 취업에 직면해서는 외모를 강조하는 사회적 통념을 뛰어넘지 못하는 현실의 한계를 서술하고 있다(천재교육, 사회·문화, 2003:242쪽). 사회 제도적인 차원에서의 해결 방안에 대한 제시는 매우 미약하여, 능력이 뛰어난데도 여성의 승진을 제한하는 성차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개선되어야 할 사항으로 남녀평등가치관을 확립하고 잘못된 제도를 고쳐야 한다는 아주 일반적인 방향을 제시하는 정도에 그치고 있다(중앙교육진흥연구소, 사회, 2003:289쪽).

3) 양육은 여전히 여성의 몫?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성역할 고정관념을 뛰어 넘어 발상의 전환을 유도하는 질문을 던질 필요가 있다. 남학생들에게 부인이 아이를 출산한다면, 직장일과 양육을 어떻게 조화시킬 계획인지 구체적으로 토론해보는 내용을 싣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이다. 우리 사회는 육아는 무조건 여성의 역할로 놓고 아이를 갖게 되면 일차적으로 여성들이 책임을 지고 갈등상황에 놓이는 것을 너무나 당연하게 받아들인다. 여학생들에게만 육아와 직장을 어떻게 병행할 것인지를 묻는 것은 이제 시대착오적이라는 생각이 든다.

고등학교 사회교과서에는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으로 남자도 육아휴직 가능하다고 판결하는 삽화와 더불어, 사회의 다원화로 여성들이 사회참여와 육아, 출산의 부담을 떠안게 되었고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남성들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한 법 개정 내용이 본문에 나와 있다(천재교육, 사회, 2003:196~7쪽). 그러나 양육으로 인해 직장을 그만두어야 하는 상황에서 남편은 우선적으로 부인이 양육을 할 것을 설득했으나, 부인이 계속 일하겠다고 고집함으로써 남편이 할 수 없이 육아휴직을 하기로 결정하는 사례(대한교과서, 사회·문화, 2003:103쪽)가 제시되어 있다. 만일 법이 남녀 모두에게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면, 남편이 자신에게 일과 자녀양육이 모두 중요한 것처럼 부인도 마찬가지일 것으로 생각하고 서로 반씩 쉬기로 제안하고 결정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면 훨씬 신선했을 것이다. 또한 지각한 남성 근로자가 아이 손을 잡고 등장하는

모습이나, 밤늦은 회의 자리에서 자녀를 돌보기 위해 먼저 일어서는 남성 근로자의 모습을 그린다면 청소년들이 훨씬 친근하게 육아를 남성의 일로 받아들이고 가족친화적인 직장의 필요성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2. 성평등한 고용문화 관련 법·제도 현황

성평등한 고용문화 조성을 위한 국내외의 정책 방향은 목적상 크게 세 가지로 분류될 수 있다. 첫째, 취업을 원하는 여성들이 차별을 받지 않고 동등한 직업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이다. 둘째는 노동시장에 진입한 여성들이 임금을 비롯하여 교육이나 배치, 승진 등에서 평등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이다. 셋째, 직장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는 정책이다.

가. 스웨덴

1) 고용평등을 위한 법제도

스웨덴은 1980년 7월 1일부터 남녀평등에 관한 법(Act Concerning Equality between Men and Women)을 시행해 왔으며, 법 시행 10년을 맞아 정책적으로 보완된 내용을 담은 '남녀고용평등법(Equal Employment Act between Men and Women)'을 제정하였다. 이 법의 강화된 남녀평등내용을 보면, 구직단계부터 성차별 금지, 임금차별에 대한 제소 가능성, 성희롱의 금지, 직접 혹은 간접차별 금지, 사용자의 평등계획 작성의 의무화, 그리고 평등 옴부즈만의 감독범위 확대 등이다. 남녀고용평등법은 위법행위에 대해서 강력한 벌칙 규정을 두고 있다(문유경 외, 2000).

2) 고용기회 및 조건의 평등을 위한 정책 : 남녀고용할당제

1981년 스웨덴에 도입된 적극적 고용촉진 정책은 여성과 남성 각각의 고용수준을 같게 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남녀고용할당제(Sex-based employment quatas)로 발전되었다. 이 프로그램의 목적은 노동시장의 성별 분리 완화를 목

적으로 하며, 구체적인 실천으로 어느 한 쪽 성이 40%가 되도록 하는 내용을 가지고 있다. 남녀고용할당제는 정부지원으로 늘어난 신규채용과 결원의 충원에서 과소 대표되고 있는 성을 우선적으로 충원함으로써 각성의 비율이 최소한 40%가 되도록 하는 강력한 구속력을 가진 제도이다(문유경 외, 2000).

3) 직장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정책

스웨덴을 포함한 사회민주주의적 복지국가를 지향하는 나라들은 일하는 엄마를 지원함으로써 여성을 전일제 근로자로 남을 수 있게 하는 정책적 지향을 가진 국가이다. 출산으로 인한 경력의 단절을 막기 위해서 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제도를 운영하지만, 기간은 길게 두지 않고 그 대신 휴가기간의 임금보전율은 높게 유지한다. 스웨덴의 육아휴직제도는 무엇보다도 아버지의 육아휴직 사용을 강조함으로써 양육책임의 성평등의식을 구현하고 있는 것으로 유명하다. 1995년에 '어머니의 달과 아버지의 달(daddy's quata)'을 도입한 이후, 2002년부터는 전체 육아휴직 기간이 연장되면서 12개월은 부모 중 누구나 사용이 가능하고, 그중에서 2개월은 어머니만, 2개월은 아버지만 사용 가능하다. 이것은 자녀가 만 8세 될 때까지 아무 때나 사용할 수 있다(장지연, 2005).

나. 미국

1) 고용평등을 위한 법제도

미국의 고용상의 남녀평등을 명시한 대표적인 법으로는 남녀동일임금법(Equal Pay Act, 1963)과 시민권법 제7편(Title VII of the Civil Rights Act, 1964)이 있다. 남녀동일임금법은 1938년 공정노동기준법(Fair Labor Standards Act)의 일부로서 상업과 생산활동에서 고용주의 임금지급에 있어서 성별을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기 위하여 만들어졌다. 시민권법 제7편은 고용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고의적인 차별을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어떤 고용주라도 개인의 성별, 종교, 인종, 국적을 이유로 고용상의 보상, 기간, 조건, 특혜에 대하

여 차별하거나 거절하는 행위, 그리고 피고용인이나 지원자를 제한하거나 분리시키는 행위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법은 1972년에 고용상의 성차별금지를 강화하였으며, 1991년에는 고의적인 성차별에 대해 처벌하기 위하여 개정을 하였다(문유경 외, 2000).

2) 고용조건 평등을 위한 정책: 비전통적 직업의 여성고용촉진정책(WANTO)

고용상의 성별 직종 분리를 해소하기 위해 선진국들이 최근 적극 관심을 갖고 추진하고 있는 정책이 바로 비전통적 진로촉진을 위한 직업교육 정책이다. 비전통적 직업이란 일반적으로 전체 취업자중 여성이 25%가 되지 못하는 직업이며, 상대적으로 높은 임금과 수당이 기대되는 직업이라고 할 수 있다. 미국의 경우 여성중 6%만이 비전통적 직종에 진출하고 있다고 한다. 여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비전통적 진로 촉진 프로그램 중 EYH(Expanding Your Horisons : Encouraging Young Women to Persue in Science and Mathmatics)는 가장 대표적인 프로그램이다. 1976년 이후 미국의 전역에 걸쳐 매년 1~2회 중·고등학교 여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되고 있는 프로그램으로, 여학생들에게 수학, 과학, 기술 공학 분야 등 남성 지배적인 영역에 다양한 직업이 있음을 소개하고 성공적인 역할모델을 제공하고 있다(강이수·신경아, 2001).

3) 직장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정책

미국은 노동시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차별을 엄격하게 금지하는 제도와 적극적 조치를 통해서 노동시장을 합리화하고자 노력하는 대신, 양육에 대한 국가의 지원은 매우 미흡한 자유주의적 복지국가의 대표적 사례이다. 미국은 보편적 제도로서의 아동수당과 공적 서비스로서의 보육시설, 유급 육아휴직 등 양육에 대한 국가의 제도적 지원이 거의 없다. 개별 가족이 시장을 통해서 양육문제를 해결하게 되어 있다(장지연, 2005).

다. 한국

1) 고용평등을 위한 법제도

1953년에 제정된 근로기준법에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남녀의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하며" 라는 '남녀 균등 처우의 원칙'이 있었으나, 이 조항은 정부 수립시 전진적인 외국의 제도를 따라한 장식적인 법률 조항에 불과했다. 여성 노동 문제와 관련해서 본격적인 정부 정책이 수립된 것은 1980년대 이후의 일로서, '남녀고용평등법'이 대표적인 법 제도이다.

남녀고용평등법은 1987년 12월 헌법의 평등 이념에 따라 고용에 있어서 남녀의 평등한 기회 및 대우를 보장하고 모성을 보호하며, 직업능력을 개발하여 근로 여성의 지위향상과 복지 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제정되었다. 1989년 4월 동일 가치 노동에 대한 동일 임금 원칙을 규정하고 성차별에 대한 사용자의 입증책임과 벌칙을 강화하는 내용의 1차 개정이 이루어졌다. 1995년 8월에는 노동현장에서 발생하는 우회적이고 간접적인 차별현실을 법이 규제하지 못하고 있다는 판단 아래, 사원을 모집할 때 직무 수행에 필요하지 않은 조건 제시의 금지, 노동자를 배우자로 둔 남성에게까지 육아휴직의 확대 등이 추가된 2차 개정이 이루어졌다. 또 1999년 2월에는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예방조치와 처벌을 규정하는 조항이 개정, 삽입됨으로써 일하는 여성의 평등과 보호는 물론 여성의 성희롱 방지까지 구현하여 여성의 노동권을 확보하기 위한 대표적인 법률로서 자리 잡게 되었다(강이수 외, 2001).

2) 고용 기회 및 조건의 평등을 위한 정책

우리나라의 경우 적극적 조치는 여성발전기본법과 남녀고용평등법에 명시되어 있다. 대표적인 적극적 조치로는 1996년부터 실시된 '여성공무원 채용목표제'를 들 수 있다. 공공부문에서 적극적 조치를 실시한 결과, 외무고시에서 여성합격률은 1998년 231.%에서 2002년 45.7%로 증가하였고, 행정고시에서는 여성합격률이 23.1%에서 2002년에는 28.4%로 늘어났다. 2002년에는 국공립대학교

여성교수 비율 제고를 위해 교육공무원법을 개정하여 국·공립대에 여성교수 채용목표제를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적극적 조치에 대한 남성들의 역차별 정서가 확산되어 사회갈등 양상이 나타남에 따라, 2003년부터는 어느 한 성이 30% 미만일 경우 추가 합격시키는 '성평등채용목표제'로 바꾸어 실시하고 있다.

3) 직장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정책

출산과 초기양육 부담으로 인한 여성의 경력 단절을 방지하고 직장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도록, '남녀고용평등법'에서는 산전후 휴가에 대한 지원과 육아휴직 조항을 명시하고 있다. 2001년 모성보호법 개정으로 산전후휴가가 60일에서 90일로 연장되어, 연장된 30일간의 급여는 고용보험에서 지급하고 있다. 또한 기업주는 생후 3년 미만의 영유아를 가진 근로자가 양육을 위하여 휴직할 경우에 허용하도록 되어 있으며, 육아휴직기간 동안의 급여의 보전을 위해서 고용보험에서 월 40만원의 육아휴직 수당을 지불하고 있다. 법적으로는 1인 이상 모든 기업체 근로자들에게 이 제도들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으나, 절반 이상의 여성이 영세사업장에 근무하고 있으며 여성근로자의 70%가 비정규직인 현실에서 이 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 여성근로자는 소수에 불과하다(장지연, 2005).

보육정책의 경우, 여성의 일-가정 양립을 위해 예산을 많이 확대해가고 있으나 아직은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부족한 현실이다. 2005년 12월 현재 보육시설 이용 영유아수는 약 99만 명으로 전체 대상 영유아의 31%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정부지원을 받는 공보육 시설(국공립, 법인, 비영리단체 등)의 비율이 15.9%로 매우 낮고, 대부분의 보육수요가 민간시장 중심의 보육시설에 맡겨져 있어서 비용부담이나 질적인 측면에서 수요자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3. 성평등한 고용문화 관련 기업 사례 현황

가. 성평등한 기업문화로서 가족친화적 정책의 도입 배경과 의의

현대사회 기업에 있어 남녀 근로자들이 가족으로서의 역할을 다하면서도 직

장생활을 충실하게 할 수 있는 성평등한 고용환경을 만드는 것이 근로자 복지 증진을 위한 중요한 요소로 부각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저출산현상이 극심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그 원인으로 직장에서의 역할과 자녀양육과 같은 가족으로서 역할의 양립이 힘들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의 경제 활성화와 저출산 추세를 되돌리기 위해서는 남녀 근로자가 모두 활용할 수 있는 가족친화적인(family-friendly) 기업 문화의 확립이 매우 중요하다.

한국의 경우 무엇보다도 가족친화적 기업문화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현재와 같은 장시간 노동시간이 단축되어야 할 것이다. 여성과 남성이 직장생활 뿐 아니라 가족 안에서 어머니로서 또는 아버지로서 자신의 역할을 조화롭게 수행해나가기 위해서는 노동시간의 단축이 매우 중요하다. 유럽의 경우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고 고실업 상황을 해결해 나가려는 목적으로 노동시간을 단축하고 일자리를 공유(job-sharing)하려는 움직임이 광범위하게 확산되고 있다. 나아가 여성과 남성 모두에게 가족과 일의 균형을 추구할 수 있는 가족친화적 정책을 확대하고 있다.

나. 가족친화적 기업정책의 다양한 유형들[16]

1) 탄력적 근무제도

탄력적 근무제도는 기본적으로 근로자에게 시간 탄력성을 제공해줌으로써 직장과 가족 영역의 일을 보다 더 조화롭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해주는 제도이다. 탄력적 근무제도에는 시차 출퇴근제, 집중근로시간제, 시간제 근무, 직무공유, 재택근무, 경력휴가 등이 있다.

2) 육아지원 제도

육아지원 제도는 근로자들이 부모로서의 역할과 직장에서의 역할을 조정할

16) 가족친화적 기업정책의 다양한 유형들과 기업사례연구에 대해서는 가장 최근의 자료들을 정리해 놓은, 여성가족부에서 2006년 7월에 발간한 연구보고서 『가족친화 기업모델 및 사례연구』(강혜련 외)를 참고하여 요약·정리하였다.

수 있도록 해주고, 아이를 보살피는 데 필요한 비용을 경감시켜 준다. 육아지원 제도에는 육아데이, 육아휴직, 보육서비스, 부성휴가, 수유지원제도, 정보소개 및 경제적 지원 서비스 등이 있다.

3) 가족지원 제도

가족지원 제도는 근로자가 아픈 자녀나 노인부양 등의 문제로 퇴직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근로자의 가족-직장 양립을 지원하며, 기업주는 근로자의 신규채용에 드는 교육투자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가족지원 제도에는 가족간호 휴가, 탁노프로그램, 자녀학습지원 프로그램, 상담 프로그램, 가정의 날, 정보소개 및 경제적 지원 서비스 등이 있다.

4) 근로자지원 제도

근로자 지원제도는 근로자의 다양한 욕구와 문제를 진단해서 이를 지원하는 제도로서, 대표적으로 직장과 가정생활에서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에게 교육과 상담을 제공해 주는 EAP(Employee Assistance Program)와 ECP(Employee Counselling Program)가 있다. EAP는 알코올이나 약물 남용 치료와 같은 좁은 범주의 상담으로 근로자의 직무성과를 방해하는 문제에 대한 예방적 전략이다. 반면에 ECP는 노동인력의 다양화에 따라 제기되는 복잡한 문제들을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좀 더 폭넓은 접근 방법이라 할 수 있다.

5) 가족친화적인 문화 조성

가족친화 문화 조성이란 앞서 소개한 제도 및 정책들이 기업에서 근로자들에 의해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제반 활동들로서, 교육과 연수를 통한 가족친화·여성친화적 문화 조성, 조직개발 프로그램 등을 실시하고 있다.

다. 가족친화적 기업문화의 국내외 대표 사례들

1) 국내 대표사례(1) : 유한킴벌리

1970년 설립된 이래 유한킴벌리는 아기기저귀, 여성생리대, 화장지, 미용티슈 등 건강위생용품 제조업체로서, 인간중심의 경영방침을 바탕으로 근본적으로 종업원의 일과 가정, 지역사회의 조화를 통해 삶의 질을 개선하고,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기업과 사회를 만들고자 노력해온 대표적인 가족친화 기업이다. 유한킴벌리는 가족친화적인 경영을 통한 근로시간의 단축으로 과로체제를 방지하고 평생학습 시간을 늘림으로써 결과적으로 기업의 경쟁력이 높아졌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노동시간의 단축으로 여성뿐만 아니라 남성들도 가정내 역할을 병행할 수 있도록 지원했으며, 다양한 모성보호 정책의 실시로 여성근로자의 비율이 증가추세에 있고 출산율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2) 국내 대표사례(2) : 삼성 SDS

삼성SDS는 1985년에 삼성 데이터 시스템 주식회사로 설립되었다. 무엇보다도 삼성SDS에서는 근로시간 단축 및 탄력적 근무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부서장 협의 후 탄력적으로 출퇴근시간을 조정하여 시행하며, 반나절만 휴가 사용이 가능한 반월차제도와 근무장소에 따른 공간적 제약을 극복할 수 있는 재택근무제를 제도화하였다. 또, 1일 2회 각 30분간 유급 수유시간을 부여하고 수유편의시설인 '도담이방'을 설치하여 근로자들이 편하게 수유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다. 동종업계에서는 최초로 1997년 직장 내 어린이집을 설치하여 자체 운영 중이며, 현재 3개 어린이집에 총 85명의 원아를 보육하고 있다.

3) 국외 대표사례(1) : 포드 자동차

미국 포드자동차는 1903년 헨리포드(Henry Ford)와 그 밖의 11명이 공동으로 출자하여 미시간주 디트로이트에 설립된 회사이다. 포드 자동차는 근로자의 일

과 삶이 균형을 이룰 때 직장 생활에서 최선을 다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이러한 균형을 찾을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다. 일과 삶의 조화를 위해 가변적 업무설계, 탄력근무, 재택근무, 육아를 위한 개인적인 카운슬링과 교육자료 제공, 노부모 부양, 심신 건강 프로그램을 개발·발전시켜 왔다. 이러한 프로그램들은 근로자들의 개인 성장뿐 아니라 회사에 대한 충성도 등을 극대화시킬 수 있을 뿐 아니라 최고의 직업적 재능을 가진 근로자를 유인하고 보유할 수 있으며, 회사에 대한 내외부의 이미지 개선은 물론 생산성 향상에도 기여하였다.

4) 국외 대표사례(2) : 바스프

바스프는 플라스틱·염료(染料)·섬유·비료·석유제품 등을 생산하는 업체로서, 풍부한 자녀교육 프로그램을 갖춘 가족친화기업으로 타사의 모범이 되고 있다. 대표적인 가족친화 프로그램은 틴즈 온 투어, 루키즈 등의 이름으로 열리는 자녀교육 프로그램이다. 이 두 프로그램은 근로자 자녀가 방학 기간을 이용해 다양한 체험활동을 하는 프로그램이다. 근로자 자녀가 방학 중 혼자 집에 있지 않도록 6~11세 어린이를 위한 '키즈 온 투어'와 12~14세를 대상으로 한 '틴즈 온 투어' 프로그램을 실시한다. 또한 사내유치원 루키즈(Lukids)에서는 전문 보모가 3세 미만의 아기들을 돌보는데, 근로자는 출근 때 아기를 루키즈에 맡겼다가 퇴근할 때 집으로 데려갈 수 있다.

4. 한국형 성평등한 고용문화 발전방향

가. 고용문화 관련 청소년 교과내용의 개선

성평등에 대한 교과내용은 대부분 규범적인 수준에서 가부장적 문화로부터 탈피해야 한다는 가치지향성은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다.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에 따라서 가족 내에서도 상응하는 역할의 변동이 필요하고, 남편과 부인 간에 역할분담이 중요함이 강조되고 있다(이삼식 외, 2005). 그러나 무엇보다도 성평등한 고용문화와 관련해서는 일에 대한 가치관이 성 평등하게 제시될 필요가

있다. 한 사회의 온전한 시민이라면 성인으로서 독립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유급 노동에 참여하고 인간관계를 형성해 나가는 것과 가정생활을 병행하는 것은, 남녀를 떠나서 시민으로서 누려야할 기본적인 권리임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현재 여성들이 거의 전담하고 있는 가정생활 유지에 들어가는 무급의 돌봄 노동을 남녀가 같이 나눠 하고, 가정 내에서 해결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의 정책적 지원이나 사회적인 자원활동을 통해서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사회 시스템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관점이, 사회나 도덕 교과서 전체에 걸쳐서 유지되어야 할 것이다.

현재의 교과서에는 고용문화에서의 성차별을 없애기 위해서는 개인적인 차원에서 성역할 고정관념을 깨뜨리고 다양한 직업영역으로 진출하는 사례 제시와 더불어 가정 내에서 남녀 역할분담을 강조하고 있다. 반면 사회 구조나 제도적 차원에서의 지원이나 변화에 대해서는 피상적인 해결책을 제시하는 경향이 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사회·문화 교과목에서 여성의 직업과 육아 문제는 현대 사회의 갈등 상황의 사례로, 도덕 교과목에서는 여성의 결혼 기피 이유 등으로 제시되고 있다. 육아와 노인부양 등 돌봄 노동을 여성에게 전담시키는 가정과 사회의 불평등한 구조가 결혼기피와 저출산현상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는 체계적인 분석은 결여되어 있다. 또한 현대 사회의 결혼 기피, 저출산의 원인이 직장 내 성 불평등한 고용문화와 관련되어 있다는 언급도 거의 없다.

일-가족의 양립은 단지 여성에게만 국한된 선택의 문제가 아니며,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여성과 남성 모두의 역할과 의무라는 관점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여성에게만 일과 가족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강요하는 성불평등한 고용문화가 지속되는 한, 여성들이 저임금의 불안정한 하위직에 집중되는 성별 직업분리와 성별 임금 격차가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보다 분명히 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기업과 국가에서 일-가족 양립을 위한 정책을 마련해야 할 필요성과 외국의 대안적인 사례들이 보다 풍부하게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고용문화와 관련한 교과목 내용의 전체적인 구성에 있어서 개선되어야 할 점은 본문의 내용과 그림, 사진 등의 자료들이 서로 일관성을 가져야 한다는 점이다. 노동시장의 변화에 대한 내용이나 역사적인 서술이 성 중립적으로 이

루어지는 것처럼 보이나, 그림이나 사진 등을 보면 대부분 남성들이 등장하여 남성이 보편적인 인간을 대표하거나 사회변화와 역사의 주체로 표상되는 성 편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러한 문제의 발생은 교과서의 저자들이 대부분 남성들로 이루어져 있으며, 삽화나 사진담당자도 남성들이라는 데서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성역할의 변화와 성평등한 고용문화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본문의 독립된 내용으로만 다루어져서는 안 되며, 교과서 전반에 걸쳐서 성 평등에 대한 가치지향이 일관되게 통합되어야 할 것이다. 그런 점에서 본문의 내용과 그림이나 사진 등이 일관성 있게 사회 각 분야에서의 성 평등의 현실과 미래를 묘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문자메시지보다 정보전달 효과가 뛰어난 시각적인 그림이나 사진 등의 선택에 있어서 인구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여성의 비율을 적절히 고려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저출산 문제 등과 관련하여 미래지향적인 평등한 직장문화와 가정생활에 대한 예시를 많이 제시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청소년 교과서에 여성의 대표성을 고려하기 위한 하나의 방안으로서 교과 저자와 그림, 사진 담당자의 일정비율 이상을 여성으로 할당하는 제도가 실시될 필요가 있다. 양적인 대표성뿐만 아니라 성평등의 질적인 내용을 담보해내기 위해서는 교과 집필진을 대상으로 한 성평등 교육 또는 성 인지력 향상을 위한 교육이나 워크숍을 반드시 실시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나. 성평등한 사회환경 조성

최근 한 연구보고서에 의하면, OECD 20개국에 대한 실증분석 결과 출산율 제고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성평등한 환경 조성인 것으로 나타났다. 즉 남녀간에 얼마나 일자리가 평등하게 주어지고 있으며, 육아나 가사부담을 가진 여성이 취업하기 쉬운 고용형태가 얼마나 제공되는가가 출산율 제고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현재까지 한국에서 추진된 출산율 제고 정책은 주로 자녀비용 경감 및 보육환경 개선에 초점이 맞추어져 왔다. 그러나 자녀비용 경

감이나 보육환경 개선이 OECD 평균 수준으로 이루어지더라도 성평등 환경조성이 동반되지 않는 경우, 출산율은 1.26명 수준을 넘어서기 힘들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세 가지 정책이 종합적으로 추진되는 경우 출산율은 1.5명 수준까지 증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최숙희·김정우, 2006). 따라서 저출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노동시장에의 여성 참여를 장려하고, 여성과 남성이 모두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도록 성평등한 고용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외국의 사례들과 한국적 상황을 고려해 볼 때, 성평등한 고용문화 발전과 관련하여 몇 가지 방향을 제시해 볼 수 있다.

첫째, 노동시장에서 전제되고 있는 이상적인 노동자 모델을 변화시키기 위한 작업이 요청된다. 현재 자본이 요구하는 이상적인 노동자모델은 '가족이나 개인적인 일체의 구속으로부터 자유로우며 무한한 이동가능성을 가지고 자신의 가정 내 생활은 철저히 타인에게 의존하는, 하루 24시간을 회사와 일을 위해 바칠 수 있는 노동자'로서 일중심적·남성중심적 노동자 모델이다(신경아, 2001). 임신과 출산 등 모성기능과 자녀양육의 일차적인 책임을 가진 여성노동자는 이러한 이상적인 노동자상을 충족시키기에 부족한 노동자로 인식될 수밖에 없다. 이젠 여성들이 돌봄 노동으로부터 자유로운, 그래서 일에만 전념할 수 있는 남성노동자와 같아지기를 요구할 것이 아니라, 남성도 여성처럼 가정 내 돌봄 노동의 책임을 진 노동자로서 직장과 양립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노동시간의 단축을 통해서 남녀 모두 일과 가족의 균형을 추구하는 노동자 모델을 지향해야 할 것이다.[17]

둘째, '남성 생계부양자 - 여성 가사노동자'의 전통적 성별분업에 입각한 가족모델이나 '남성 1차 부양자 - 여성 2차 부양자' 모델이 아닌, 양성이 동등한 의미에서 부양의 역할을 수행하는 '2인 소득자' 가족모델에 기초하여 국가의 고용정책이 입안되어야 할 것이다. 전통적 성별분업이 유지되는 가족모델 하에

17) 핀란드의 '6+6 노동시간 모델'은 풀타임 근무를 하루 6시간으로 단축시키는 동시에 생산성 향상으로 과거의 임금수준을 보전하려는 시도이다. 이러한 노동시간 단축은 여성이 남성과 함께 풀타임 노동자로서 일할 수 있는 노동시장 환경을 조성하는 데 대단히 효과적인 것으로 입증되고 있다(신경아, 2001).

서는 여성들이 취업을 하더라도 가정 내 가사와 육아, 노인부양 등 돌봄 노동을 여성들이 전담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자녀가 있는 여성들의 일-가정 양립을 위한 국가의 지원이 거의 없으므로 출산율이 낮을 수밖에 없다. 일-가정 양립을 위한 지원정책이 있다 하더라도 돌봄 역할의 일차적 담당자를 여성으로 전제하고 있기 때문에, 가정 내에서 남녀가 육아를 평등하게 분담하는 것을 제한하고 결과적으로 여성들이 육아를 위해 노동시장에서 경력단절 등을 겪게 된다. 반면 2인 소득자 가족모델에 기초하여 고용정책이 마련되는 경우에는, 여성과 남성이 공적 영역인 노동시장에서도 평등하게 일하고 사적 영역인 가정 내 돌봄 역할과 의무를 함께 분담할 수 있도록 고안된다. 가족정책은 고용정책과 연계되어 노동시장에서의 성차별 철폐와 함께 고려되고 있다. 여성의 노동참여를 장려하고 양육과 고용을 병행할 수 있는 정책들을 시행하며 이는 가족 내 가사와 육아를 남녀가 분담하는 것을 용이하게 해준다(이재경 외, 2005).

셋째, 노동시장 내 성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들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여성고용정책의 핵심인 '남녀고용평등법'을 통해 고용차별 폐지를 위한 법적 자원은 어느 정도 갖추어졌으며, 남녀임금격차에 대한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원칙과 적극적 조치 조항도 확보되었다. 그러나 법규정이 있어도 현실에 적용하기 어렵다면 그 법은 무의미하다. 예를 들어 간접차별의 개념에 대한 규정은 있지만 그 개념이 모호하고 구체적인 성립요건이 제시되지 않아 구조조정 시 여성을 우선 해고하거나 비정규직화 하는 상황이 발생해도 규제하기 어렵다. 따라서 법 규정의 현실 적용가능성을 높이려는 노력과 더불어 법의 철저한 집행을 위해서 각종 고용차별 관련 기구의 기능을 강화하고, 채용·승진·순환보직·정년·해고 등 남녀 고용차별과 관련된 각종 지침의 개발과 행정감독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오랫동안 누적되어 온 여성들에 대한 차별을 시정하기 위해 잠정적으로 실시되는 적극적 조치의 일환인 여성고용할당제도 공공 부문뿐만 아니라, 많은 여성들이 취업해 있는 사적인 부문으로의 확대를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기업차원에서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가족친화적 기업정책이 확산되어야 할 것이다.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증대로 기업 내 여성의 비율이

증대하는 현실을 반영하여, 기존의 남성 중심적 조직 운영방식을 여성친화적 또는 가족친화적인 방식으로 변화시킬 필요가 있다. 여성·가족친화적인 정책이란 조직구성원이 가정과 직장에서 맡는 책임과 의무를 균형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제도이다. 특히 부부가 직장생활을 하는 가정이 늘어남에 따라 가사와 양육을 남성이 분담해야 하는 현실에서 가족친화적인 정책과 프로그램의 대상은 기혼 여성뿐 아니라 남성을 포괄해내야 한다. 본 보고서의 앞 절에서 자세히 제시한 가족친화적인 기업정책들인 탄력적인 근무제도, 육아지원제도, 가족지원 제도, 근로자 지원제도, 가족친화적인 문화조성 등을 각 기업의 조건에 맞게 도입하고 정착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제 6 절 소결 및 미래세대 성평등의식 고취를 위한 제언

시장노동으로 대표되는 '일'의 세계와 자신과 가족을 보살피고 다음 세대를 낳아서 키우는 '가족생활' 영역은 개인에게 뿐만 아니라 사회의 건강한 지속·발전을 위해서도 필수적인 부분이다. 따라서 개인과 사회의 발전을 위해서는 이 두 영역이 조화를 이루며 유기적인 관계에 놓이는 것이 중요한데 최근 한국사회의 현실은 그렇지 못한 상태이다. 특히 최근의 초저출산·초고령화 화두 속에서 한국사회 보살핌노동 영역은 그야말로 위기 상황을 드러내고 있다.

이 연구는 현 시점의 초저출산 현상을 해결하는 중요한 단서로서 '성평등' 수준의 제고를 들고 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이 연구는 자라나는 미래세대인 청소년들을 중심으로 그들의 가족영역 및 고용영역의 성평등의식 실태와 제고 방안을 모색하는 데 그 목적을 갖고 있다.

지금까지 청소년가치관 조사결과를 토대로 청소년의 가족·결혼·자녀가치관, 성평등의식, 일반 가치관 등을 살펴보았다. 청소년의 가치관은 아직 형성단계에 있어서 하위 가치관간의 간극도 크고 실제 행위와 태도 사이의 불일치 정도도 예측하기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소년들의 가족·결혼·자녀에 대한 태도는 일정한 경향을 띠고 있는데 성인들의 태도와 형식적인 면에서 유사하면서도

훨씬 유연하다. 다양한 가족에 대한 관용성 수준도 높을 뿐만 아니라 과거 청소년에 비해서 성평등의식 수준도 높아졌다. 특히 가정 내 공평한 가사분담에 대한 청소년들의 지지 정도는 과거에 비해 크게 높아졌다. 그러나 청소년 가치관 조사 결과 우려되는 부분은 성평등 의식 등 일반적인 태도 항목에서 남녀간 성별 지체 현상이 매우 뚜렷하다는 점이다. 여학생의 성평등 의식이 남학생보다 훨씬 높을 뿐만 아니라, 차별감수성이 뛰어나다고 알려진 '보편주의 가치관', '자기 성취 가치관'도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높다. 이에 비해 남학생은 차별적 태도와 연결되는 '권력 가치'적 성향이 뚜렷하다. 따라서 학교교육을 비롯한 다양한 매체의 교육내용에 의식의 다양한 수준에서의 성별격차를 완화하는 내용이 중점적으로 다뤄져야 할 것이다. 실제로 가족관련 태도에서의 성별 격차는 그 자체가 문제일 뿐만 아니라 향후 가족형성 등 사회 재생산에도 주요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또한 청소년 가치관 조사 결과 최근의 저출산 위기 정국의 부작용으로서 의식수준에서의 보수화 경향도 엿보였다. 따라서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수립 및 집행, 홍보 과정에서 개방적인 태도와 성평등한 의식 수준 제고를 분명한 정책 방향으로 설정할 필요가 있다.

이 연구에선 미래세대인 청소년들에게 성평등한 가족문화와 고용문화의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다양한 접근을 시도하였다. 청소년들의 교과서 분석을 통해서 성평등한 가족문화 및 고용문화 조성의 걸림돌이 무엇인지를 살펴보았고 법·제도적 인프라 실태를 검토하여 한국적 상황에 걸맞은 가족문화·고용문화를 모색해 보았다. 어느 경우에나 중요하게 요구되는 가치는 개방성과 사회적 관용성의 증대이다. 가족과 고용 모두 열린 개념으로 접근되고 구성원의 행복이 최우선 과제로 접근될 때 '성평등한 사회'는 더 이상 남녀의 구분도 노소의 구분도 사라지는 통합적 사회로 인식될 수 있다. 가족친화적인 고용정책은 곧 생활친화적인 고용정책이며 이것은 어떤 개인도, 어떤 가족도 배제하지 않는 정책 방향이다. 성평등한 가족문화는 남녀의 차별도 사라지지만 세대간 차별도 사라지는 것을 의미한다. 즉 성평등한 가족문화와 성평등한 고용문화는 동일한 철학에 기초했다고 할 수 있는데 그것은 바로 젠더관계를 중심으로 다양한 차별이 사라지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의미한다.

이제 현재의 초저출산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성평등한 사회분위기 조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함으로써 결론에 대신 한다.

가까운 미래에 여성노동에 대해 사회가 요구하는 바와 개인이 요구하는 바는 일치하는 듯하다. 노동력 부족으로 위기감이 감돌고 있는 사회는 양질의 여성노동력을 필요로 한다. 그러기 위해서 사회는 개별가족에게 과부하되어 있는, 즉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저해하는 가사 및 돌봄노동과 같은 무급노동 문제를 해결해 주고자 한다. 그 방식은 공보육 시스템의 구축을 통해, 혹은 출산장려를 목적으로 하는 직·간접의 인센티브 확대를 통해 여성들의 일·가정 양립을 꾀하는 형태로 진행되고 있다. 우연히도 인구구조의 질적 변화는 여성들로 하여금 일하지 않을 수 없는 사회를 만들었다. 따라서 여성들도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일, 즉 유급노동을 하고 싶고 또 해야 한다. 바로 여성들의 요구와 사회의 요구가 맞아떨어지는 대목이다. 그러나 일하고 싶고 일해야 하는 여성들의 요구가 제대로 관철되기 위해서 해결되어야 하는 문제들의 수준과 내용에 대한 인식에서는, 사회와 여성들 사이에 일정한 괴리가 있는 듯하다.

인구구조의 변화가 여성노동과 연결되면서 예측할 수 있는 바람직한 미래상의 하나는 '낳고 싶은 만큼 낳아서 함께 일하고 돌보는 사회'이다. 저출산·고령화라는 인구환경의 변화에 대해 우리 사회가 우려하는 바는 정확히 생산인구의 감소와 그에 따른 경제 침체이다. 국가의 평균 연령이 증가하면서 우리 사회가 나이 든 사회(old population)가 되고 절대 인구마저 감소하면서 지구상에서 사라질지도 모른다는 끔찍한 시나리오를 전제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 사회성원들의 이상적인 자녀수는 여전히 2명을 넘어서고 있다. 사람들의 라이프스타일이 달라지면서 독신율도 늘어나고 이혼율도 늘어나지만 이것을 사람들의 친밀성에 대한 욕구의 감소로 해석하는 것은 오산이다. 오히려 친밀성에 기반한 새로운 공동체에 대한 욕구, 기존의 친밀성 구조 즉 기존의 '가족'에 대한 근본적인 반성을 반영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한국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2005년 현재도 여전히 낮은 편이다. 그렇다면 이 경제활동참가율을 선진국 수준인 80~90%대로 끌어 올려야만 할까? 여기에서는 감히 그렇지 않다고 말하려고 한다. 즉 일하고 싶은 여성이 제대로 일할

수 있도록 노동시장의 차별적 관행들이 사라져야 하듯이, 보다 넓은 의미의 '일', 즉 돌봄노동을 선택하면서도 여전히 차별받지 않는 사회가 우리가 지향하는 미래상이어야 한다. 바꾸어 말하자면, 사회 성원들 특히 여성들에게 끊임없이 시장노동의 의무와 재생산노동의 의무를 강조하는 사회가 아니라, 시장노동의 권리와 재생산노동의 권리가 보장되는 사회를 지향해야 한다. 노동을 권리로 표현하는 것은 그것을 하지 않을 권리도 포함하는 것이다. 물론 가까운 시기에 도래할 우리의 미래사회는 매우 경쟁적이고 많은 사회성원들이 일생 동안 장기간의 실업 상태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은 사회이다. 그런 사회를 염두에 둘 때, '유급노동을 중단할 권리', '돌봄노동에 주력할 권리'라는 표현은 매우 위험스럽게 보이기까지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형태의 권리 제한도 사회적으로 정당화될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

그것보다 더욱 주목해야 할 것은, 모순되게도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는 사회 성원들 그 중에서도 특히 여성들에게 끊임없이 시장노동의 의무와 재생산노동의 의무를 강조하는 사회이면서도 그 두 가지 노동을 도저히 병행할 수 없도록 한다는 점이다. 그것은 돌봄노동이 개별가족에게, 그 중에서도 여성에게 전담되어 있는 현실과, 이것을 지원하는 사회적 지원체계의 미비, 정당하게 평가받지 못하는 노동시장, 일 속에서 헤어 나올 수 없게 만드는 장시간의 노동관행 등 수많은 관행들이 난마처럼 얽혀서 결과한 것이다.

그러나 저출산·고령사회에서 사회가 여성노동력에 요구하는 바와 여성들 자신이 요구하는 바의 표피적 상동성이 실질적 상동성으로 전화되는 미래도 가능하다. '일'의 개념을 확장시키고 그 '일'을 해야 할 주체들을 확장시키면 가능하다. 우리의 미래세대는 확장된 일 세계 속에서 노동자로서의 권리와 부모로서의 권리를 누리며 살 수 있을 것이다.

제 6 장 건강한 미래세대 육성을 위한 성교육 방안

제 1 절 개요

우리나라의 성교육은 선진국에 비하여 매우 뒤늦은 시기에 출발하였다. 1960년을 전후한 성교육은 성교육이라는 용어의 사용보다는 정결 또는 순결교육이라는 용어를 주로 사용하였고, 교육의 주체도 학교보다는 부모가 전적으로 담당하며, 학교는 성에 관한 질문이나 문제행동에 직면할 경우에 한하여 개별 지도하는 방식이었다. 그러나 1962년부터 인구증가억제정책의 일환으로 가족계획사업이 정부사업으로 채택되면서 학교 성교육의 필요성과 지도방법 등이 논의되기 시작하였고, 1968년에는 성교육 시간을 별도로 설정하여 추진하는 것도 좋지만 성교육과 관련이 있는 생물, 체육, 가정 등 관련 교과시간을 활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의견에 따라 중등학교 가정교과서에 여성생리에 관한 기초내용이 포함되면서 성교육이 태동하게 되었다(김성애, 2000).

1970년대에는 청소년들에게 올바른 성지식과 가치관을 확립시켜 이들 스스로가 성문제를 예방하고 해결할 수 있는 적극적인 노력이 경주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는가 하면, 청소년들에게 성에 관한 구체적인 지식과 정보를 제공할 경우 오히려 성적 호기심을 야기하고, 성적인 충동이 우려된다는 의견이 대립되어 학교 성교육의 발전은 비교적 미흡한 실정이었다. 그러나 1983년에 문교부가 배포한 '성교육 지도자료'에서 성교육이 전인교육의 관점에서 전개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어린시절에서 노년기에 이르기까지 학교와 가정, 사회가 연계된 평생교육으로 추진되어야 함을 강조하는 성교육의 목표가 설정되기도 하였다(고진배, 1997).

1990년에 교육부가 개발한 성교육 자료는 1983년의 내용에 비해 성교육의 목표나 내용이 보다 현실적이고 사회적인 문제를 포괄하는 형태로 발전되었고,

이와 함께 교육과정에서도 성교육이 공식적으로 포함되었다. 성교육에 관한 제 6, 7차 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지침내용에는 성교육은 관련교과와 특별활동을 중심으로 지도하도록 하여 성교육은 관련교과를 중심으로 학교교육 활동 전반에 걸친 주요 교육과제로 인식되었다(교육인적자원부, 2001). 그러나 일선 교육현장에서는 관련과목이나 특별활동 및 결강시간을 이용하기 때문에 시간이 제한되어 있고 피상적이고 비효율적인 성교육이 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최근 우리나라는 세계 인구역사상 그 유래가 없는 빠른 속도로 저출산 및 인구노령화가 촉진되어 저출산·고령사회에 대응하기 위한 인구정책이 주요현안으로 대두되었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이 정부를 포함한 각계각층의 적극적인 참여하에 진행되고 있다. 저출산 현상은 생활수준의 향상과 상승이동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자녀양육비의 급격한 상승에 따라 저출산 지향의 규범과 가치관 태도가 사회적으로 널리 정착되어 초래된 것으로 제시되고 있다(김두섭, 2002).

저출산 원인은 그간의 압축적 경제성장에 따른 결혼 및 출산관련 가치관의 변화와 자녀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에 기인된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또 다른 중요한 원인으로 여성의 생식보건 수준의 열악함을 들 수 있다. 저출산의 보건의료적인 원인의 하나는 인공임신중절, 자연유산 및 사산, 후천성 불임증, 저 체중아의 발생 등 여성의 생식보건 수준이 열악해졌기 때문인데, 이는 청소년기에 체계적이고 적절한 생식보건교육 및 서비스 제공의 부족이 누적된 결과이기도 하다. 더욱이 여성의 초혼연령이 1972년 22.6세에서 2005년 27.7세로 급상승함에 따라 생식보건 수준의 악화, 인구자질 저하 및 저출산 등의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후천적 불임증 등 이미 악화된 생식보건 상태를 원상태로 회복하기는 쉽지 않으며 생명 존중에 대한 가치나, 건전한 결혼 및 자녀관은 일회적인 교육으로 정립되기 어렵다. 따라서 2차 성징이 나타나고 가치 체계를 형성해 나가는 청소년기부터 생리적, 과학적 지식과 성 윤리 및 가치관을 포괄하는 성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할 필요가 있다. 특히 청소년의 성(性)건강은 인구재생산과 관련될 뿐 아니라, 윤리적 가치관과 자기정체성, 사회적 행태의 형성에 밀접하게 결부되어 있다. 이 시기에 건전한 가정에 대한 바람직한 가치관 형성을 지원하는 것은 일탈 행위 및 범죄예방과 더불어 중요한 교육적 과제이다.

최근 정보화 및 대중매체의 광범위한 보급 등으로 성에 관한 정보가 무분별하게 범람하여 자라나는 청소년들이 올바른 성의식을 형성하기도 전에 여러 가지 개방적이고 선정적인 성 정보에 노출되고 있다. 청소년의 신체적 성숙이 보다 빨라지고, 다양한 매체를 통해 성 관련 정보들에 대해 쉽게 접근 할 수 있는 현실을 감안한다면, 청소년들이 직면하고 있는 성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현실적이고 체계적인 성교육의 필요성이 강조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학교 성교육에 대한 내용이 여러 교과로 체계 없이 분산되어 있고, 신체구조상의 생물학적 지식수준에 머물러 있으며 생식보건 수준을 제고하기 위한 교육과정이 확립되지 못한 실정이다. 또한 체계적인 성교육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가정, 학교, 지역사회가 연계 협력하여 성교육이 이루어져야 그 효과를 기할 수 있으나 현재 가정이나 사회에서의 성교육은 극히 부분적이고 비체계적인 실정이다.

현재 시행 중인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내용 중에는 '건전한 미래세대 육성'분야에 아동·청소년 보호를 위한 사회 시스템의 구축과 관련된 세부과제가 포함되어 있으나 청소년의 성교육과 관련된 내용은 거의 부재한 실정이다. 따라서 청소년의 성교육과 관련된 정책목표와 추진전략, 그리고 세부사업계획을 구체화하여, 이를 저출산 대책 중 전략적 교육·홍보 분야에 포함시켜 기존의 저출산 대책과 연계하여 추진될 필요가 있다. 즉 우리나라의 저출산 문제는 사회경제적 발전에 따른 결혼 및 자녀 가치관의 변화에 기인한 것이며, 청소년의 성문화 및 가치관도 크게 변화되어 왔다. 특히 저출산에 대한 대책과 청소년의 성과 관련된 가치관은 상호 유기적으로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청소년 성문제는 저출산 대책과 연계 또는 통합하여 추진하는 것이 매우 효과적이라고 판단된다.

한편 정부는 1995년에 국민건강증진법을 제정하고 2000년부터 담배부담금을 재원으로 국민건강증진사업을 정부의 보건소 조직망을 통하여 주로 금연, 운동, 영양, 절주 등 건강생활실천사업을 중심으로 추진하여 왔다. 그간 청소년 성문제와 관련해서는 성교육 개발 및 상담에 관한 소규모 연구사업이 지원되었을 뿐 학교 성교육과 연계된 사업 활동은 거의 부재한 상태에서, 민간단체 중심의 성교육 전문가 양성사업, 성상담 지도사업이 부분적으로 운영되었기 때문에 지역단위에서 학교와 보건소, 민간단체와 가정이 연계된 사업조직망의 구축이 절실히 요청되고 있다.

따라서 이 장에서의 연구는 우리나라 학교 성교육에 관한 선행연구 및 외국의 성교육 사례 분석, 교과서 성교육 내용 분석, 학생 및 교사에 대한 학교 성교육 실태 분석을 통하여 학생들이 올바른 성지식과 건전한 성가치관을 겸비토록하고 저출산 대책에 부응한 현실적이고 효율적인 학교 성교육 강화 방안을 마련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이러한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문헌연구, 학교성교육 실태조사 결과 분석, 그리고 전문가회의 등의 방법을 적용하였다. 특히, 주요 선진국의 성교육 운영현황을 분석하기 위하여 일본, 미국, 스웨덴, 덴마크, 독일 등의 성교육 제도를 검토하고, 그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또한 현행 제7차 초·중·고 교과서의 성교육 내용을 분석하였다.

제 2절 청소년 성문제와 성교육의 개념

1. 청소년 개념과 청소년기의 성문제

가. 청소년의 개념

청소년(Adolescence)이란 용어는 라틴어의 Adolescence에서 유래한 것으로 '성장' 또는 '성숙으로서의 성장'을 의미한다. 어원에서 의미하는 것과 같이 청소년기란 유년과 성인 사이에 자리 잡고 있는 생애주기의 한 단계로 유년에서 성인으로 성숙해 가는 과정을 가리킨다. 즉 청소년기는 생리적으로 볼 때 사춘기의 시작으로부터 성적으로 완전히 성숙되기까지의 시기이며, 심리적 발달 단계로 볼 때 아동기의 인지적, 감정적 발달 패턴에서 성인의 완전한 패턴으로 변형되기까지의 시기이며, 또 사회적 측면으로 볼 때는 사회구성원으로 독립되는 시기라고 할 수 있다.

구체적인 시기는 개인이나 사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우선 연령에 따른 청소년의 개념을 살펴보면, 아동기는 벗어났지만 아직 성인의 단계에 이르지

못한 12~18세 사이의 연령층을 의미한다. 신체적 성숙도를 기준으로 볼 때는 성적 성숙이 이루어지는 때를, 심리적인 성숙도를 기준으로 할 때는 자아 정체성이 확립되는 때를 청소년기라고 한다(이문희, 1993).

법적으로는 관련 법규에 따라 다양하게 규정된다. 민법에서는 20세 미만을 미성년으로, 아동복지법은 18세 미만을 요보호 대상으로, 근로기준법에서는 근로청소년을 18세 미만으로, 청소년육성법은 9세 이상부터 24세 이하를 청소년으로 규정하고 있다.

청소년기에 이루어지는 변화는 다른 시기와 구별되는 신체적, 정서적, 사회적 특성을 유발하는데, 우선 신체적으로는 성장호르몬 분비량의 변화에 따른 내분비 호르몬의 변화로 급격한 신체적인 성장과 함께 제2차 성징이 나타나기 시작한다. 신체적 성장은 여성보다 남성에게서 더 뚜렷하게 나타나며, 뼈와 근육 등 모든 영역에서 성장이 이루어진다. 이러한 신체적 변화가 이루어지는 시기를 소위 사춘기라고 말하는데 청소년기와 사춘기가 동일용어처럼 사용될 정도로 청소년기의 신체적 변화는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다.

이 시기의 생리적, 신체적 변화는 매우 급격하면서 개인차가 크기 때문에 청소년들에게 호기심이나 불안을 쉽게 일으키며 청소년 스스로 자신의 성적 변화에 어떻게 적응해야 될지 몰라 당황하고 수치심을 느끼게 되는 등 불안정한 상태에 놓이게 된다. 그러므로 청소년이 스스로의 신체적 변화를 수용하기 위해서는 신체적 변화에 대한 적절한 정보와 성역할에 대한 긍정적인 정체감, 가족의 분위기나 또래로부터의 지지가 필요하다.

정서적인 특징은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신체적인 변화에서 기인하는 경우가 많다. Newman은 신체적인 변화가 어떠한 심리적인 변화를 가져오는가 하는 점에 대하여 4가지를 지적하였는데, 먼저 신체적인 변화는 청소년으로 하여금 성인으로서의 이미지를 갖게 해주며, 둘째, 각각 성역할 정체감을 강화하는 작용을 하고, 셋째, 급격한 신체변화의 반동으로 보다 자기도취적인 욕구를 해소하려 하며, 넷째, 신체적 발달의 각 측면이 어떠한 양면 가치적인 감정을 불러일으킨다고 하였다(이문희, 1993).

사회적인 특성은 부모로부터 독립하고자 하는 욕구가 강해짐에 따라 부모와

잦은 갈등 상황을 연출하고 동성이나 이성 친구에 몰두하는 경향이 두드러진다. 성인들에게 자신의 자주성을 강하게 주장하면서 반발하거나 자기의 의사를 끝까지 관철하기 위해 반항하기 때문에 이 시기를 제2의 반항기라고 부르기도 한다. 이러한 현상은 청소년기에 필연적으로 일어나는 발달과정으로 이를 통하여 청소년은 부모에 대한 종속적이고 의존적인 관계에서 벗어나 자율적인 사고와 행동을 할 수 있는 독립적인 성인으로서 성장, 발전하게 된다(김은영, 2006).

나. 청소년기의 성문제

청소년기는 신체적으로 왕성한 성적 변화가 일어날 뿐만 아니라 성정체감이 적극적으로 형성되는 시기이다. 이 시기에 있어 성은 성적 욕구의 충족을 위한 심리·생리적인 측면과 더불어 자신의 성정체감과 자아정체감을 형성하는데 필요한 심리·애정적 욕구의 표현이며 가족과 분리되고 아동기의 역할에서 벗어나 독립적인 삶을 추구하려는 긍정적인 목적도 있다. 반면 청소년의 성행동은 임신, 낙태, 성폭력 등의 심각한 사회문제를 야기할 수도 있다(홍봉선·남미애, 2003).

Jersild(1957)는 청소년의 성을 성적으로는 성숙되어 있지만, 사회적 통제와 미혼이라는 이유로 그 욕망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이른바 성적 실업자로서의 관점에서 성인과는 다른 특징을 제시하였다. 첫째, 신체 생리적 변화가 일어남에 따라 청소년은 자기의 변화에 대해서 불안과 호기심으로 이해하려고 하며 둘째, 이것이 계기가 되어 성적 사상에 대한 탐구심이 왕성해 진다. 셋째, 이성에 대한 관심이 싹트며 이성에 대한 접근과 교제를 하고자 원하지만 교제라든지 연애 및 결혼에 대해서는 아직 충분한 이해와 가치관이 정립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막연하게 자기에게 편리한 대로 생각하고 행동한다. 넷째, 성욕의 배출에 있어 문제를 경험하거나 사회적인 성문화의 강한 자극을 소화하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다섯째, 성인의 성도덕관과 청소년의 성도덕관의 자질 때문에 때로는 억압된 형태로, 때로는 방임적인 형태로 기울어져서 여러 가지 성적 악순환을 거듭하게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청소년들에게 성장발달에 맞는 성지식과 성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을

심어주어 성적 욕구를 승화시키고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구체적이며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성교육이 요구된다. 그러한 교육은 장기적인 안목에서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성지식의 전수와 병행해서 지속적으로 시행되어야 하며 또한 가정, 학교, 사회 모두의 공동 노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2. 성교육의 개념과 목표

가. 성의 개념

'Sex'는 본래 라틴어의 '나누다(seco, cut)'라는 뜻의 'sexus'에서 유래된 것으로 남녀간의 신체적 차이를 근거로 성별을 구분하는 경우 사용한다. 즉 'sex'의 남성과 여성은 수정과 동시에 결정되는 순수 생물학적 성(biological sex) 또는 선천적 성을 가리킨다. 혹은 성 행위를 나타내는 좁은 의미의 성을 의미한다.

이에 반하여 'gender'는 생물학적 성별과는 상관없이 그 사회의 문화적 영향, 양육방법 등에 의해 학습되어진 후천적 성을 의미한다. 태어날 때는 남녀로 태어났지만 그 사회의 문화적인 영향, 양육 방법 등에 의해 학습되어진 후천적인 성으로 자신이 느끼는 남성 또는 여성을 의미한다. 사회·문화 구성원으로서 남녀의 의미에 무게를 두는 gender 개념은 두 개의 성이 어떻게 조화롭고 행복하게 사회생활을 유지할 것인가 하는 문제에 집중한다는 점에서 성을 이분법적으로 구분하는 'sex'와는 차별화 된다.

한편, 'Sexuality'는 19세기 이후에 사용되기 시작하여 1960년대 Karlmeron에 의해 제창된 것으로 보통 성욕 또는 성애로 번역되기도 하나 sex나 gender와는 달리 강한 정서적 의미를 내포하는 단어이다. 우리에게는 sex와 gender, sexuality 모두 성(性)으로 번역되는데 한자어에서 보듯이 마음(心)과 몸(生)의 양면을 동시에 나타내고 있음을 인지할 필요가 있다. 다시 말해 성이란 전체적인 인간 그 자체를 뜻하는 것이지 결코 성행동이나 성적인 쾌락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윤가현, 1990). 김혜자(1997)는 성(sexuality)은 사람이 살아가는데 가지고 있는 성격, 인격, 인생의 개념을 포괄할 뿐만 아니라 성기 중심이 아닌 정신적인 개념을 지

녔으며, 인간의 생물학적 성별과 신체 구조, 성관계와 생식 능력을 포함하며 그것을 기반으로 하는 자아와 성 역할 및 성관계 그리고 규범과 느낌을 총괄한다고 설명한다(김미주, 1997; 한국부모교육학회, 1998). 성(sexuality)은 후천적으로 사회적·문화적·심리적 환경에 의해서 학습된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에서는 적극적이고 지배적인 기질을 남성적으로 온순하고 소극적인 기질을 여성적인 것으로 인식하고 있으나, 파푸아뉴기니아의 부족들은 우리와 정반대의 성 인식을 가지고 있다(고문호, 2001).

따라서 성교육적 측면에서의 성은 'sex'보다 더 광범위한 개념으로 온정과 사랑을 주는 능력, 개개인의 자존감과 주체성, 개인의 성적 건강의 신체적, 정서적, 사회적 측면에 대한 책임감 있는 결정을 하는 능력으로 생리적 측면 이외에 성에 대한 태도, 가치관, 문화 등을 포함하는 'sexuality'를 지칭한다고 하겠다(김경신, 2001).

나. 성교육의 개념

성교육의 성을 'sex'가 아닌 'sexuality'로 규정한 것은 일상적인 성(sex) 개념이 교육의 영역에서 왜곡되거나 잘못 해석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함이다. 일반적으로 '성'이라고 하면 성 행위나 성 관계를 연상하게 됨으로써 성교육을 단순히 성기관에 대한 생리적 지식이나 성행위 교육에 국한되어 생각하게 되거나 남녀의 애정 교육이나 그릇된 성행위로 인해 생기는 불행을 막기 위한 도구적 교육으로 인식하기 쉽기 때문이다. 하지만 성 교육의 성을 'sex'가 아닌 'sexuality'로 정의하면 성교육(sexuality education)은 성에 관한 과학적인 지식은 물론이거니와 그와 관련된 사회규범을 지도하는 것으로 확대된다.

한국정신문화연구원(1991)은 종래에는 성교육을 남녀간의 정신적, 육체적인 결합 관계, 즉 원만한 성행위에 관한 지식과 이에 따르는 생리적, 심리적 변화를 가르침으로써 이성간의 건전한 교제를 돕고 성도덕의 문란을 방지하기 위한 교육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통례였으나 최근에 와서는 그 용어 자체가 'Sex Education'에서 'Education for Human Sexuality'로 바뀌어 삶의 가장 원초적 현상

인 성의 충족이 인간발달의 모든 국면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과학적으로 입증하는 교육으로 파악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한국여성개발원(1994)에서는 자신의 성을 바르게 이해해야 상대방의 성도 존중할 줄 알게 되며 이를 위해서는 성교육은 성기나 성 호르몬의 생리적 기능만 아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고 설명한다. 즉 인간의 성을 심리적, 사회적, 윤리적 측면에서 이해하는 것이 보다 더 중요하며, 인간교육으로서 성교육을 보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미국 성정보교육위원회(SIECUS, 1996)는 성교육은 성의 긍정적인 면을 이해할 수 있도록 성에 대한 정보와 지식을 주고 현재와 미래에 필요한 의사결정에 도움이 되는 기술을 제공하는 것으로 규정하였다. 다시 말해 성교육은 성에 관한 정보를 습득하는 것은 물론 정체감, 대인관계 등에 관한 태도, 믿음, 가치관을 형성하는 평생의 과정이라는 점에서 지적 영역(정보), 정의적 영역(느낌, 가치, 태도), 행동 영역(의사소통, 의사결정, 인간관계)에 관한 성의 생물학적, 사회·문화적, 심리적·정신적 차원이 포괄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시백(2000)은 교육인적자원부가 펴낸 성교육 세미나 자료에서 성교육은 인간의 생식 생리, 해부학적 구조 등 생물학적 지식만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고, 건전한 성에 대한 태도와 행동이 인격화 될 수 있는 광범위한 인성교육까지 포함된다고 하였다. 즉 성교육이란 성에 관련된 생물학적인 지식을 습득하고 인간관계 및 평등한 권리까지도 이해할 수 있도록 학습하는 종합적인 인격완성교육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성교육은 어느 특정 연령계층이나 사회집단에 국한되지 않고 인격형성의 초기단계에 있는 유아시기부터 사춘기, 청소년, 일반 성인에 이르기까지 모든 연령에 해당하는 대상자에게 평생교육의 일환으로 수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특히 학교 성교육의 의미는 건전한 성의식을 고취시키고 건전한 인격체를 정규교육을 통해 길러낸다는데 그 중요성이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상을 종합해 볼 때 성교육은 신체적, 생리적인 구조 기능의 지식과 더불어 올바른 성 의식과 가치관, 태도, 문화 등을 형성하여 진정한 정체감을 깨닫고 확인하며 남녀 이성 간에 인간존중과 성평등 사상을 자신의 인생관과 윤리관에 일치시켜 나감으로써 서서히 성숙한 단계를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심신건

강교육이라 정의할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성교육은 인간과 인간을 둘러싼 사회·문화 환경과의 관계 교육이라고도 할 수 있겠다.

다. 성교육의 목표 및 방향

한국교육개발원에서 제시하는 성교육의 목표는 첫째,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본 습관을 기르고 둘째, 지적 학습을 통하여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성 지식을 갖게 하며, 셋째, 올바른 성 의식, 분별 있는 성윤리를 확립시키는 것이다(안창선·김현옥, 1992). 또한, 성장기의 청소년들에게 그들의 육체적, 정신적, 심리적 그리고 사회적으로 발달단계에 알맞게 성에 대한 과학적 지식을 습득하게 하고 자신의 이성과 특성, 역할 등을 올바르게 이해하며, 바람직한 성 태도와 성 의식을 갖게 함으로써 신뢰와 협력으로 원숙한 인간관계를 유지하고, 자신과 가정의 행복을 영위함은 물론, 인류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능력과 태도를 배양시키는 데에 목적이 있다고 하였다(이채희 외, 2000).

교육인적자원부(2001)는 성교육의 궁극적인 목표가 성에 대한 과학적 지식을 통해 남녀의 신체 심리적 특성과 사회적 역할을 이해하고 성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을 확립하여 책임 있는 성행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하고 신체·심리발달, 인간관계 이해, 성문화 및 윤리의 세 가지 영역에서의 구체적인 목표를 제시하였다. 첫째, 신체적 심리적 발달의 이해를 통해 자신의 신체 변화와 그에 따른 심리 변화를 올바르게 수용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한다. 둘째, 인간관계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통해 생명의 존엄성과 책임의식을 지니고 가족관계와 동서이나 이성 친구관계를 형성하면서 올바른 의사표현과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른다. 셋째, 성평등적 성역할의 이해를 통해 바람직한 성정체성과 성문화 및 성윤리 의식을 형성하여 성문제를 예방하고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도록 한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해 볼 때 성교육은 남녀의 신체적, 심리적 특성을 이해하고 올바른 성 의식을 기반으로 건전한 인생관과 가치관을 형성하며 궁극적으로 원숙한 인간관계를 유지하고 건강한 인간 삶을 추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다. 또한 성교육은 지식이나 정보의 전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성 태도의 확립 및 건전한 성행동 실천을 유도해야 하기 때문에 교육의 방법이나 내용에 있어서 시대적인 여건이 반영된 현실적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라. 학교 성교육의 발전 과정

1980년대에는 순결교육에서 성교육으로의 전환이 시도되었다. 1982년 교육부는 순결교육이란 용어 대신 성교육이란 용어를 공식적으로 사용하고 교사용 성교육 지도 자료를 발간하여 각 시·도 교육위원회를 통해 성교육 실시를 발표하였다. 그러나 초·중·고 학급 지도를 위한 성교육 지침서(1982)에는 성교육이 단순히 성기라든지 성 생리에 대한 지식에만 한정될 수 없는 것이고 성 생리, 성 심리, 성 윤리 등 세 가지 측면에서 종합적으로 지도되어야 한다는 규범적 내용만 있을 뿐 학급 지도를 위한 명확한 지침이 제시되어 있지 않았다.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성에 대한 부분은 미묘하고 민감한 문제이기 때문에 계획적으로나 전면적으로 실시하기에는 미흡하였다(공세권 외, 2000; 김성애, 2000).

1993년에 개정된 제6차 교육과정의 운영지침을 보면 초·중등학교 공히 '도덕교육, 환경교육, 경제교육, 근로정신 함양교육, 보건·안전교육, 성교육, 진로교육, 통일교육 등은 관련되는 교과와 특별활동을 통하여 중점적으로 지도하되 학교 교육활동 전반에 걸쳐 통합적으로 다루어지도록 하고 지역사회 및 가정과의 연계지도'에 힘쓰도록 명시하고 있다(교육부, 1993).

2001년에는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전국 유치원, 초·중·고교별로 발달단계에 적합하고 정규교과와도 연계를 이룰 수 있는 성교육 교사용 지도지침서를 개발하여 보급하였는데, 그 내용을 보면 5단계로 나누어 각 단계에 적합한 성교육을 권장하고 있으며 특히 중학교부터는 피임교육이 강조되는 것이 특징이다. 또한 중·고등학교에서는 학교장의 재량에 따라 특별활동이나 수련활동 및 재량활동시간을 이용하여 연간 10시간의 성교육 전담교사에 의한 성교육을 실시하도록 하는 내용의 '2001 학교 성교육 활성화 지도지침'을 전국의 초·중·고교에 전달하여 학교 성교육을 권장하고 있다. 그러나 성교육은 학교와 지역에 따

라 많은 차이가 있다. 연간 15시간 정도의 성교육을 실시하도록 시달하는 교육청이 있는가하면, 주당 6시간 이상 보건교육을 통하여 성교육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 곳도 있고, 이런 규정조차 없는 곳도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학교 성교육의 흐름을 정리해보면 1960년대 순결교육으로 시작된 성교육은 그동안 경제성장과 산업화 등의 사회·문화적 변화와 함께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지식 교육으로서의 성교육으로 변화·발전하였다. 또한 교육의 시행 형태도 가정에서의 개별 교육에서 학교에서의 정규 교육으로 전환되었고 교육 당국의 지도 자료 개발이나 시행 지침 시달 등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발전과 지원에도 불구하고 일선 학교에서는 여러 여건 상 충분한 교육을 실시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기존 연구에서 제시된 학교 성교육의 문제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성교육이 정규 교과과정 속에 편성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보건교사나 생물, 가정, 사회, 체육 등 관련 교과목에서 부분적으로 실시되고 있다. 재량활동 시간 등 일정 시간을 성교육에 할애하여 체계적인 성교육을 실시하는 학교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그렇지 못하다. 이런 이유로 분명한 학습목표가 없을 뿐 아니라 배우는 내용도 지극히 형식적인 수준에 머물고 있다. 성교육은 학생의 신체 및 정서·심리 발달 수준에 따라 구체적인 학습목표가 있어야 하나 교과서에 제시된 내용을 보면 저학년이나 고학년에 같거나 비슷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학년별 성교육 내용이 연계성이 부족하고 내용 수준 또한 극히 피상적으로만 다루어지고 있다. 성교육 내용들이 같은 주제라 하더라도 학생들의 발달 수준에 따라 내용이 심화되어야 하며 적절한 지도방법이 적용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많은 경우 동일한 과제를 가지고 특강형식으로 성교육이 수행됨으로서 중복학습, 수준미달, 비현실성 등의 문제로 학생들에게 성교육에 대한 흥미를 잃게 하고 있다.

둘째, 성교육과 관련된 교사의 전문성이 부족하다. 교사가 청소년 입장에서 성문제에 대해 이해하지 못한다면 학생들을 성적으로 건강한 인격체로 지도, 양성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청소년의 성문제를 예방하거나 조기에 치유할 수 있는 성상담 역할을 수행하기 어렵다. 특히, 성교육은 결혼, 출산, 가족 등의 개념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교육이 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건강교육과도 연계되어

야 한다. 따라서 성교육을 전담할 수 있는 교사가 확보되어야 한다. 현실적으로 전담교사의 확보가 어려울 경우 보건교육이 포함된 체육과정에서 성교육을 체계적으로 교육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 체육교사에 대한 체계적인 보수교육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셋째, 청소년들은 대중매체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하여 성지식을 습득하고 성경험을 갖고 있다. 대부분 왜곡 과장된 성지식으로 잘못된 비행문제를 유발시키고 있다. 부모들의 성교육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여 성에 대해서 폐쇄적인 태도를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체계적인 성교육을 담당할 능력도 부족한 실정이다. 이런 이유로 부모들은 학교에서 성교육을 실시하기를 기대하고 있으나 학교에서는 아직 체계적인 교육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어서 청소년 성교육은 상당부분 방치되고 있는 실정이다.

제 3 절 학교 성교육관련 교과내용체계

현재 성교육과 관련된 자료는 다양하게 개발되어 있다. 교사를 위한 성교육 지침서뿐만 아니라 학부모나 학생들이 참고할 수 있는 여러 종류의 책이 시중에 판매되고 있으며 비디오, OHP, CD, 슬라이드 등도 유통되고 있다. 그런데 성교육 지침서의 경우 교육을 담당하는 교사를 위한 것으로 직접 학생들이 접할 수 있는 성교육 자료는 아니며, 기타 자료들도 교사의 개별적 선택에 의해 제공되고 있으니 학생들이 정상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성교육 자료는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는 성 관련 책과 학교에서 배우는 교과서라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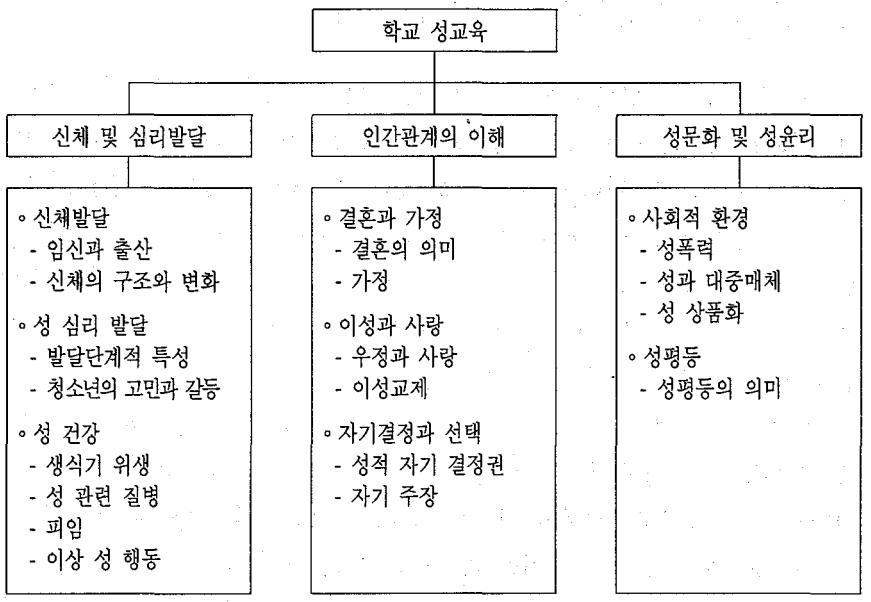
여기에서는 현재 학교 교육과정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성교육 내용을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위해서 제7차 교육과정에 포함된 초·중·고등학교의 성 관련 교과내용을 분석하였다. 교과서 내용은 서울특별시교육청의 '2006학년도 성교육 활성화 추진계획'에 수록된 것을 바탕으로 하고, 분석틀은 2001년 교육인적자원부에서 발행한 성교육 교사용 지침서인 '함께 풀어 가는 성 이야기'에서 제시된 성교육 내용 체계를 활용하였다. 이 지침서에는 성교육을 통해 남녀의 신

체적·심리적 특성을 이해하고 이로써 긍정적인 자아 개념을 형성하며, 남녀의 사회적 역할을 이해함으로써 원만한 사회생활을 영위하며, 성평등한 성 역할을 이해함으로써 책임 있는 성 행동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하였다.

성교육의 내용 구성은 인간 발달의 순서가 개인 내적 측면 → 개인 간의 관계적 측면 → 사회적 측면으로 확장되는 점을 고려하여 신체 및 심리 발달, 인간관계 이해, 성문화 및 성윤리의 3개영역으로 구성되었고, 그 하위영역으로서 '신체 발달', '성 심리 발달', '성 건강', '결혼과 가정', '이성과 사랑', '자기 결정과 선택', '사회적 환경', '성평등'의 여덟 가지 영역을 제시하였다([그림 6-1] 참조).

신체 및 심리 발달 영역은 생명의 탄생에서부터 출생 이후 성장 발달하는 과정에서의 신체의 변화와 초등학교 고학년 시기의 심리적 특징의 이해와 심리적 변화에 대한 올바른 대처 방법을 내용으로 포함한다.

[그림 6-1] 학교 성교육의 영역 및 주제



인간관계 이해 영역에서는 가족 관계, 이성 관계에 초점을 맞추어 가족 내에서의 원만한 인간관계와 건전한 이성 관계 및 사랑 그리고 결혼에 대한 내용을 포함한다. 또한, 인간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성 관련 문제 상황을 인식하고 능동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자기 결정과 선택에 대한 내용을 포함한다.

성문화 및 성윤리 영역에서는 효과적인 학교 성교육은 성 생물학을 넘어서서 성에 대한 감정적, 문화적, 윤리적 측면까지 포함해야 하므로 책임 있는 성 행동에 대한 규범을 제시하고 성 관련 사회적 환경의 문제점에 대한 비판적 사고와 대처에 대한 내용을 포함한다. 그리고 남녀 양성으로 구성되어 있는 인간사회에서 남·녀의 특성과 역할에 대한 바른 이해와 상호 존중 의식을 기르기 위한 양성 평등에 대한 내용을 포함한다.

1. 초등학교 성교육의 교과내용체계

가. 초등학교 1학년 교과내용

초등학교 1학년의 경우 신체 및 심리발달 영역으로서 신체발달, 성 건강과 인간관계의 이해 영역으로서 결혼과 가정, 이성과 사랑의 내용이 교과과정에 포함되어 있다. 우선 신체 및 심리발달 영역을 살펴보면 슬기로운 생활에서 나의 몸 관찰하기, 나의 몸과 친구의 몸 비교하기, 남녀의 겉모양 비교하기, 몸의 각 부분의 명칭과 하는 일 알기 등을 다루고 있고, 즐거운 생활에서는 우리 몸의 명칭과 하는 일 알기, 아기 때와 현재의 모습을 비교하기, 자신의 몸을 소중히 생각하는 태도 갖기 등을 다루고 있다. 성 건강 영역으로서 생식기 위생에 대해서는 1학년에서 화장실의 위치 및 사용 방법, 몸 깨끗이 하기 등이, 바른생활에서 공중목욕탕에서의 예절, 목욕하는 이유와 방법 등이 제시되고 있다.

인간관계의 영역에 있어서는 슬기로운 생활과 즐거운 생활, 우리들은 1학년에서 가족의 구성원, 가족관계도, 가정의 소중함, 즐거운 가정 만들기 등이 제시되고 있고, 우리들은 1학년과 바른생활에서 친구 사귀기, 친구와 사이좋게 지내기, 자기 소개하기 등 우정과 사랑의 내용이 제공되고 있다.

〈표 6-1〉 초등학교 1학년 성교육 교과내용

주제	관련 교과 및 단원 (학기)	학습내용	관련쪽수 제시방법
남녀 신체구조와 변화 및 신체발달의 개인차	슬기로운생활 나의 몸(1)	◦ 나의 몸 관찰하기 ◦ 나의 몸과 친구의 몸 비교하기 ◦ 남녀의 겉모양 비교하기 ◦ 몸의 각 부분의 명칭과 하는 일 알기	2쪽/72 삽화, 관찰
	즐거운생활 씩씩한 어린이(1)	◦ 우리 몸의 명칭과 하는 일 알기 ◦ 아기 때와 현재의 모습을 비교하기 ◦ 자신의 몸을 소중히 생각하는 태도 갖기	1쪽/96 삽화, 관찰
생식기 청결	우리들은 1학년 바르게 사용해요.	◦ 화장실의 위치와 바르게 사용하는 방법 알기 ◦ 화장실 사용 현장 학습하기	2쪽/96 설명 현장실습
부모와 나의 출생근원	슬기로운생활 화목한 우리 가족(2)	◦ 우리 가족의 구성원에 대해 알아본다 ◦ 가족관계도를 그리고 우리 집 자랑거리 발표하기 ◦ 가족이 하는 일 역할극을 통해 살펴보기 ◦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알고 감사하는 마음 표현하기	10쪽/78 삽화 꾸미기 역할극
부모의 책임과 역할	우리들은 1학년 알고 싶어요.	◦ 우리 가족이 하는 일 알기 ◦ 나의 자랑거리 이야기하기	3쪽/96 삽화발표
	즐거운생활 즐거운 우리집(1)	◦ 농촌, 어촌, 도시 가족들의 역할에 대해 안다 ◦ 가정의 소중함을 알고 즐거운 가정을 만들려는 태도를 갖는다.	4쪽/96 삽화 역할극
교우관계	우리들은 1학년 정다운 친구	◦ 친구의 좋은 점을 알기 ◦ 친구와 사이좋게 지내는 방법 알기 ◦ 친구에게 바른 말 고운 말 쓰기	4쪽/96 삽화 표현놀이
	우리들은 1학년 알고 싶어요.	◦ 자기 소개하기 ◦ 친구이름 부르며 친구의 좋은 점 소개하기	1쪽/96 삽화 발표
	바른생활 사이좋은 친구(2)	◦ 친구와 사이좋게 지내려는 마음 가지기 ◦ 친구 소개하기 ◦ 친구와 사이좋게 지내려면 지켜야할 일 알기 ◦ 친구의 좋은 점 자랑하기	14쪽/99 꾸미기 삽화 역할극
	국어(말하기·듣기) 어깨동무를 해요(2)	◦ 친구가 잘하는 점 찾아 칭찬하기 ◦ 친구가 열심히 하는 점 찾아 칭찬하기	9쪽/99 삽화 소집단학습

나. 초등학교 2학년 교과내용

초등학교 2학년 교과과정에서는 신체 및 심리발달, 인간관계의 이해 영역이 다루어지고 있다. 신체 및 심리발달 영역으로는 1학기는 즐거운 생활에서 생명의 창조와 남녀의 신체구조와 변화에 대해서 배우고, 2학기에는 슬기로운 생활

에서 태아와 모체에 대해서 배우게 된다. 즐거운 생활에서 배우는 내용은 우리 몸 변화에 대해 알기, 우리 몸 일생에 대해 알아보기, 남녀 신체 변화의 차이점 알기, 내 몸을 보호하기 위해 해야 할 일 알아보기 등이며, 슬기로운 생활에서 열매와 씨앗이 생기기까지 사람들이 하는 일 알기, 내가 할 수 있는 일 알고 실천하기 등이다. 슬기로운 생활에서 배우는 내용은 열매와 씨앗을 통한 성교육의 간접적인 학습활동이라 할 수 있다.

〈표 6-2〉 초등학교 2학년 성교육 교과내용

주제	관련교과 및 단원 (학기)	학습내용	관련쪽수 제시방법
생명의 창조	즐거운생활 이만큼 자랐어요(1)	◦우리 몸 변화에 대해 알기 ◦우리 몸 일생에 대해 알아보기	1쪽/128 예화,삽화 VCR자료
태아와 모체	슬기로운생활 주렁주렁 가을동산(2)	◦열매와 씨앗이 생기기까지 사람들이 하는 일 알기 ◦내가 할 수 있는 일 알고 실천하기	2쪽/80 예화, 삽화
남녀의 신체구조와 변화	즐거운생활 이만큼 자랐어요(1)	◦남녀 신체 변화의 차이점 알기 ◦내 몸을 보호하기 위해 해야 할 일 알아보기	1쪽/28 사진, 삽화
신체발달의 개인차	슬기로운생활 자라나는 우리들(1)	◦나의 성장과정 알기 ◦어릴 때와 지금의 나 비교해 보기 ◦키와 몸무게의 변화 조사 ◦나이에 따른 사람의 변화 알기	11쪽/78 관찰놀이 조사,토의
가정에서의 성역할 및 부모의 책임과 역할	바른생활 즐거운 우리 집(1)	◦부모님의 은혜알기 ◦우리 가족 소개하기 ◦형제간의 지켜야 할 예절 알기 ◦가족의 소중함 알기 ◦화목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 노력할 일 알기	14쪽/104 삽화 예화 역할놀이
교우관계	바른생활 바른 말 고운 말(1)	◦친구와의 대화예절 알기 ◦바른말 고운 말 쓰기 ◦웃어른께 쓰는 말씨 알기 ◦바르고 고운 말 익히기	11쪽/104 삽화 글짓기 역할놀이

인간관계의 이해를 위해서는 바른생활에서 가족에 대한 교육으로써 부모님의 은혜 알기, 형제간의 예절 등이 제시되고 교우관계에 대한 교육으로써 친구와의 대화예절, 바르고 고운말 사용법 등을 배우게 된다.

다. 초등학교 3학년 교과내용

초등학교 3학년은 체육 교과를 통해 생식기 청결에 대해서 배우게 된다. 주된 내용은 불쾌감을 주는 상황을 발표하고 청결과 건강과의 관계 알아보기, 청결과 불결한 상황 비교하기, 나의 청결 정도 평가하고 청결생활 실천하기 등이다. 또한 국어와 도덕 교과를 통해 가족의 의미와 효도, 우애 등 가정의 중요성을 배우고, 남녀 친구들을 관찰하면서 공통점과 차이점을 설명함으로써 이성에 대해 깨우치게 된다.

〈표 6-3〉 초등학교 3학년 성교육 교과내용

주제	관련교과 및 단원 (학기)	학습내용	관련쪽수 제시방법
생식기 청결	체육 신체의 성장과 발달	◦ 불쾌감을 주는 상황 발표하고 청결과 건강과의 관계 알아보기 ◦ 청결과 불결한 상황 비교하기 ◦ 나의 청결정도 평가하고 청결생활 실천하기	1쪽/32 예화 다짐행동
가정에서 성역할 및 부모의 책임과 역할	국어 읽기 커가는 우리(2)	◦ 가족의 의미 ◦ 효도하는 자녀를 둔 가정과 불효하는 가정의 예화를 통해 가정내 화합과 가족의 의미를 깨달음	6쪽/160 예화
	도덕 화목한 우리집(1)	◦ 부모님께 효도하고 형제간에 우애하는 가정을 위한 실천 ◦ 대통령자리에 앉은 어머니 ◦ 가족 상호간의 역할극 실시	18쪽/100 역할극 예화
	국어 말하기듣기 알아보고 알려주고(2)	◦ 공통점과 차이점을 관찰하여 설명하기 ◦ 남여의 차이, 클럽, 모둠에서 살피고 기준 말하기	2쪽/94 설명 토의활동

라. 초등학교 4학년 교과내용

초등학교 4학년은 과학과 체육 교과에서 생명의 창조, 남녀의 신체구조와 변화, 호르몬계의 작용과 신체발달의 개인차 등에 대해서 배우게 된다. 과학 교과에서는 동물의 암수 구별, 짝짓기와 생명의 탄생, 동물의 대를 이어가는 과정 이해하기 등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성교육 내용을 다루고 있다. 체육 교과에서는 우리 몸의 생김새와 하는 일에 대해 알기, 자신의 몸을 소중히 여기고 건강히 유지하는 태도 갖기, 성장에 따른 남녀의 신체특징 알기, 변화에 대한 긍정적 태도 갖기 등을 다루고 있다.

〈표 6-4〉 초등학교 4학년 성교육 교과내용

주제	관련교과 및 단원 (학기)	학습내용	관련쪽수 제시방법
생명의 창조	과학 동물의 암수(2)	◦ 동물의 암수구별 ◦ 짝짓기와 생명의 탄생 ◦ 동물의 대를 이어가는 과정 이해하기	10쪽/96 삽화 관찰활동 놀이
남녀의 신체구조와 변화	체육 신체의 성장과 발달	◦ 우리 몸의 생김새와 하는 일에 대해 알기 ◦ 자신의 몸을 소중히 여기고 건강히 유지하는 태도 갖기	2쪽/148 인체모형 관찰
호르몬계의 작용과 신체발달의 개인차	체육 신체의 성장과 발달	◦ 성장에 따른 남녀의 신체 특징 알기 ◦ 변화에 대한 긍정적 태도 갖기	1쪽/148 인체모형 관찰
가정에서의 성역할 및 부모의 책임과 역할	국어 말하기듣기쓰기 꿈을 찾아서(2)	◦ 글에 나오는 인물에 어울리는 표정과 목소리로 말하기 ◦ 가족 구성원의 대화에 맞는 표정과 목소리로 말하기	2쪽/130 역할극 토의활동
	국어 읽기 오가는 정(1)	◦ 아버지가 딸에게 보내는 편지를 통해 가족간의 과 사랑을 느낌	2쪽/162 편지글
	도덕 가깝고 반가운 친척	◦ 친척의 의미 ◦ 친척간에 화목하게 지내야 하는 이유, 반성 및 실천 이야기를 읽고나서 생각해보기, 반성하기 ◦ 삽화에 OX하기, 역할놀이, 실천하기, 마음에 새겨두기	18쪽/100 삽화
교우관계	도덕 우리는 정다운 친구	◦ 친구가 소중한 까닭, 어려울 때 도와주는 친구, 친구가 고마울 때 ◦ 이야기를 읽고나서 생각해보기, 반성하기, 삽화에 OX하기, 역할놀이, 토의 ◦ 친구와 함께 할 수 있는 일 찾아 실천계획, 마음에 새겨두기	21쪽/100 삽화 역할놀이 토의
이성교제의 의미 및 예절	국어 읽기 슬기로운 눈으로(2)	◦ 이성친구를 짝사랑하는 이야기를 통해 이성 간에 서로를 존중하는 성숙한 이성관계를 제시함 ◦ 인물에 대한 성격 발표 내가 주인공이라면 어찌할까 말하기	7쪽/154 사진 예화

국어와 도덕 교과에서는 인간관계 이해 영역으로서 가정에서의 성역할 및 부모의 책임과 역할, 교우관계, 이성교제의 의미 및 예절을 배우게 된다. 구체적으로 국어 교과에서는 아버지가 딸에게 보내는 편지를 통하여 가족간의 사랑을 체험하거나 가족 구성원의 대화에 맞는 표정과 목소리로 말하기와 같은 역할극을 통해 가정구성원의 역할과 책임을 간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으며 건전하고 성숙한 이성교제에 대해서도 배우게 된다. 도덕 교과에서는 역할극이나 토의 등의 방법으로 건전한 교우관계를 학습하게 된다.

마. 초등학교 5학년 교과내용

초등학교 5학년은 신체 및 심리발달 영역으로서 과학 교과에서 생명의 창조에 대해서 배우게 된다. 꽃의 관찰, 공통점과 차이점, 꽃가루받이, 식물의 종류에 따라 열매와 씨앗의 구조의 다른 점을 이해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성교육 내용을 다루고 있다. 또한 실과 교과를 통해 가정의 중요성과 가족 내 역할 분담, 생활 계획 및 실천을 배운다.

'2006학년도 성교육 활성화 추진계획'에는 국어와 도덕 교과를 통한 자기결정과 선택에 대한 교육도 포함되어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 자기의 생각을 말하기, 서로 다른 의견의 해결 방법 등에 대한 내용으로 직접적으로 성과 관련된 의사결정 내용은 아니라 제외하였다.

〈표 6-5〉 초등학교 5학년 성교육 교과내용

주제	관련교과 및 단원 (학기)	학습내용	관련쪽수 제시방법
생명의 창조	과학, 꽃(1)	◦ 꽃 관찰, 공통점과 차이점, 꽃가루받이	7쪽/88 꽃 탐구활동
	과학, 열매(2)	◦ 식물의 종류에 따라 열매와 씨앗의 구조의 다른 점 이해	5쪽/85 열매조사 토의활동
가정 부모의 책임과 역할	실과 우리의 가정생활	◦ 가정의 의미와 중요성, 가족의 역할분담 및 나의 역할, 생활계획 및 실천	9쪽/136 NIE활동 조사활동

바. 초등학교 6학년 교과내용

초등학교 6학년은 과학과 체육 교과에서 생명의 창조, 남녀의 신체구조와 변화, 성폭력의 의미와 대책 등 신체 및 심리 발달 영역과 성문화·성윤리 영역의 내용을 배우게 된다. 체육교과에서는 임신과정과 출산, 청소년기에 나타나는 남녀 신체차이, 남녀 생식기관의 발달과 생리현상, 성폭력의 의미와 대책 등을 다루고 있으며, 과학교과에서는 우리 몸 내부의 각 기관의 기능에 대해서 다루고 있다.

〈표 6-6〉 초등학교 6학년 성교육 교과내용

주제	관련교과 및 단원 (학기)	학습내용	관련쪽수 제시방법
생명의 창조	체육 성장하는 우리 몸	◦ 임신과정과 출산	16쪽/166 삽화, 관찰
남녀의 신체구조와 변화	체육 성장하는 우리 몸	◦ 청소년기에 나타나는 남녀 신체 차이 ◦ 남녀 생식기관의 발달과 생리현상	1쪽/168 삽화관찰 조사활동
	과학 우리 몸의 생김새(1)	◦ 우리 몸 내부의 각 기관의 기능을 조사하고 건강생활 실천	1쪽/168 조사활동
성폭력의 의미와 대책	체육 성장하는 우리 몸	◦ 성폭력의 의미와 대책	16쪽/88 모둠활동

사. 초등학교 성교육 교과내용 체계

이상에서 살펴본 학년별 교과 내용을 분석틀에 맞추어 정리하면 <표 6-7>과 같이 초등학교 교과과정에 8가지 분야의 내용에 관해 부족한 부분이 많고 성교육이 특정 내용이나 학년에 편중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구체적인 내용으로 우선 '신체 발달', '성 심리 발달', '성 건강'의 세 영역으로 구성되는 '신체 및 심리 발달' 영역을 보면 '신체 발달'과 '성 건강(생식기 청결)'의 내용은 부분적으로 다루어지고 있으나 '성 심리 발달' 내용은 찾아볼 수 없다. 성 심리는 신체의 성장과 더불어 청소년이 느끼는 불안감과 관련되는데 그러한 감정이 성장·발달 단계에 따라 자연스러운 현상임을 인식하여 부끄럽거나 수치심을 갖지 않고 자연스럽게 수용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신체 발달'과 관련해서는, 성장에 따른 신체의 구조 변화에 대해서 2차 성징이나 월경, 몽정 등과 같은 직접적인 내용은 거의 대부분 6학년에서만 다루어지고 있는데, 최근 영양 및 건강 상태가 개선되어 몽정·유정을 처음 경험하는 시기가 11세가 대부분이고 3, 4학년부터 초경을 경험하는 아이들도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는바 교과 과정이 늦어지고 있는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될 수 있다.

따라서 학생의 빠른 성장 속도에 맞추어 미리 대비할 수 있도록 학생의 성숙도와 발달단계에 맞게 조절할 필요가 있다. 또한 그 내용이 학년별로 골고루 안배되지 못하고 한 학년에 치중되어 있는 것도 지적될 수 있다.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신체 발달에 대한 내용은 6학년에 집중되어 있고 5학년의 경우에는 4학년보다 오히려 내용이 제시되지 않고 있다.

〈표 6-7〉 성교육 영역별 초등학교 교과내용체계

영역	하위영역	주제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5학년	6학년
신체및심리발달	신체 발달	신체의 구조·변화	○	○		○		○
		임신과 출산						
		생명의 창조·중요성	○	○		○	○	○
	성심리 발달	발달단계특성						
		사춘기 심리						
	성건강	생식기 보호·위생	○	○	○			
		몽정·월경						○
		성관련 질병						
		피임						
		이상 성행동						
인간관계발달	결혼과 가정	가족	○	○	○	○	○	
		결혼						
	이성과 사랑	우정	○	○		○		
		이성친구			○	○		
	자기 결정과 선택	성적 자기 결정권						
		자기 주장						△
성문화	사회적 환경	성폭력						○
		성과 대중매체						
		성 상품화						
성윤리	양성 평등	성평등						
		성 고정관념·차이						

주: △은 성과 관련성은 떨어지나 '2006학년도 성교육 활성화 추진계획'에 성관련 내용으로 제시되어 있음.

'인간관계의 이해' 영역에서는 가족과 우정, 이성 친구에 대한 내용이 저학년부터 꾸준히 제시되고 있는데 '성적 자기 결정권', '자기주장'과 같은 '결정과 선택'에 대한 부분은 성과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내용이라기보다 국어나 말하기·듣기·쓰기에서 교육될 수 있는 일반적인 내용이 대부분이다. 또한 결혼 영역에서 결혼의 의미나 배우자의 선택에 대한 언급이 없으며 이성 친구와의 교제에 있어서 건전한 교재나 지켜야할 예절에 대한 내용이 미흡하다.

끝으로 '성문화·성윤리'는 '사회적 환경', '성평등'으로 구성되는데 성교육 관련 내용 중에서 가장 소홀하게 다루어지고 있다. 인터넷이나 대중매체를 통해 성적으로 유해한 정보를 쉽게 접할 수 있는 국내 현실을 감안하면 사회 환경에

대한 내용 강화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아직까지 우리 사회에 남성 위주의 성 가치관이나 남녀 역할에 대한 고정관념이 많이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성평등'에 대한 내용이 누락되어 있다. 이러한 가치관은 단시간 내에 변화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초등학교 교과과정에 재편되어야 한다.

2. 중학교 성교육의 교과내용체계

가. 중학교 1학년 교과내용

중학교 1학년의 경우 성교육의 전 영역을 체육과 기술·가정, 도덕 교과에서 다루고 있다. 우선 체육 교과를 살펴보면 생명의 창조 및 탄생, 태아와 모체 등 임신과 출산에 대한 내용은 7개 교과서 중에 4개의 교과서에 실려 있으며, 남녀의 생식기 구조, 2차 성징, 성호르몬의 개념과 역할 등 '신체 발달'과 관련된 내용은 대부분의 체육 교과에 제시되어 있다. 또한 사춘기의 심리적 특징(6/7)이나 성적 관심과 충동(4/7) 등 '성심리 발달'의 내용과 '인간관계 발달' 영역으로 이성교제(7/7), '성문화·성윤리' 영역의 성폭력(5/7)에 대한 내용이 다루어지고 있다(표 6-8참조). 교과서마다 다소 차이가 나타나기는 하지만 성병의 정의와 증상, 전염 경로, 예방법 등 성병과 관련된 내용이나 피임의 목적, 피임의 종류, 인공임신중절에 대한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또한 대중매체 등에서 접할 수 있는 성의 상품화에 대한 내용도 7개 교과서 중 2개의 교과서에는 수록되어 있다.

〈표 6-8〉 중학교 1학년 성교육 교과내용(체육)

주제	학습내용	A	B	C	D	E	F	G
생명의 창조 및 탄생 태아와 모체	◦수정과 임신의 성립과정 ◦임신전반기의 태아 크기 ◦태아의 개월별 성장과정	○	○	○	○			
남녀의 신체구조와 변화	◦남녀생식기의 구조와 기능 ◦2차성징의 발현 ◦성호르몬의 역할 ◦월경·사정의 의미 ◦사춘기의 신체적·생리적 변화 ◦남녀의 성적차이 ◦남녀의 신체적 생리적 발달	○		○	○	○	○	○
사춘기 심리의 특성	◦사춘기에 느끼는 감정, 심리적 변화 ◦자아정체성의 확립	○	○		○	○	○	○
성적 관심과 충동 성욕구과 자위행위	◦성욕구의 조절방법과 태도 기르기 ◦올바른 성의식 함양 ◦이성에 대한 감정발달 단계	○			○	○	○	
성병의 종류와 증상 성병의 예방	◦성병의 종류와 증상 ◦성병의 예방			○	○	○		
에이즈의 원인과 증상 에이즈의 예방	◦에이즈의 정의, 증상, 예방법, 전염경로			○		○		
피임 인공임신중절의 위험성	◦인공임신중절의 의미 ◦인공임신중절의 법적 가능범위 ◦피임을 하는 목적 ◦피임의 종류			○	○	○		
이성교제	◦청소년기 이성교제의 의미 ◦건전한 이성교제의 바람직한 태도 ◦이성간에 지켜야할 예절 ◦이성교제의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	○	○	○	○	○	○	○
성폭력	◦성폭력의 정의 ◦성폭력시의 대처방법 ◦성폭력신고전화안내 ◦성폭력 지식 점검표 ◦성폭력 예방		○	○	○	○	○	
대중매체속의 성정보 바로알기	◦성 상품화의 정의, 폐해 ◦개방된 성문화로 인하여 청소년들의 잘못된 성에 대한 태도 형성과 그에 따른 문제점 제시			○		○		
사회에서의 성역할	◦성역할의 의미 ◦성숙한 성역할을 위한 준비 ◦과거와 현대의 성역할	○			○		○	○

주: A=보진재, B=예지각, C=금성, D=동화사, E=두산, F=교학연구사, G=교학사.

기술·가정 교과에서는 '신체발달' 영역의 생명의 탄생, 태아와 모체(6/7), 남녀 생식기 구조와 기능, 성호르몬의 작용, 남녀의 생리적 발달(7/7)에 대한 내용과 '인간관계발달' 영역의 이성교제(7/7)가 주로 다루어진다. 또한 사춘기의 심리적 특성(6/7)이나 '성 건강'과 관련된 피임 종류와 방법, 인공임신중절(5/7)이 교육된다. 일부 교과서에서는 청소년기의 성적 관심과 충동, 성욕구와 자위행위(1/7)나 성폭력(1/7), 성 상품화(2/7), 싫다고 거부하는 방법 등 성적 자기결정권(2/7)의 내용이 제공되고 있다(표 6-9 참조).

〈표 6-9〉 중학교 1학년 성교육 관련 내용(기술·가정)

주제	학습내용	A	B	C	D	E	F	G
생명의 창조 및 탄생 태아와 모체	◦수정과 임신의 성립과정 ◦임신전반기의 태아 크기 ◦태아의 개월별 성장과정	○	○	○	○	○	○	
남녀의 신체구조와 변화	◦남녀생식기의 구조와 기능 ◦2차 성징의 발현 ◦성호르몬의 역할 ◦월경·사정의 의미 ◦사춘기의 신체적·생리적 변화 ◦남녀의 성적차이 ◦남녀의 신체적 생리적 발달	○	○	○	○	○	○	○
사춘기 심리의 특성	◦사춘기에 느끼는 감정, 심리적 변화 ◦자아정체성의 확립	○	○	○	○		○	○
성적 관심과 충동 성욕구과 자위행위	◦성욕구의 조절방법과 태도 기르기 ◦올바른 성의식 함양 ◦이성에 대한 감정발달 단계	○						
성병의 종류와 증상 성병의 예방	◦성병의 종류와 증상 ◦성병의 예방							
에이즈의 원인과 증상 에이즈의 예방	◦에이즈의 정의, 증상, 예방법, 전염경로	○						
피임 인공임신중절의 위험성	◦인공임신중절의 의미 ◦인공임신중절의 법적 가능범위 ◦피임을 하는 목적 ◦피임의 종류			○	○	○	○	
결혼과 가정	◦부모의 책임과 역할 ◦가족간의 예절	○			○			
이성교제	◦청소년기 이성교제의 의미 ◦건전한 이성교제의 바람직한 태도 ◦이성간에 지켜야할 예절 ◦이성교제의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	○	○	○	○	○	○	○
자기 결정과 선택	◦성적 자기 결정권과 책임 ◦자기주장					○	○	
성폭력	◦성폭력의 정의 ◦성폭력시의 대처방법 ◦성폭력신고전화안내 ◦성폭력 지식 점검표 ◦성폭력 예방	○						
대중매체의 성정보 바로알기	◦성 상품화의 정의, 폐해 ◦개방된 성문화로 인하여 청소년들의 잘못된 성에 대한 태도 형성과 그에 따른 문제점 제시	○			○			
성평등 (사회적 성역할)	◦성역할의 의미 ◦성숙한 성역할을 위한 준비 ◦과거와 현대의 성역할	○			○			○

주: A=업투, B=금성, C=형설, D=대한, E=지학사, F=교학연구사, G=홍진P&M.

도덕 교과에서는 '성 심리 발달'이나 '인간관계 발달', '성문화·성윤리' 중 성평등의 내용이 주로 다루어지고 있다. 구체적으로 성 심리와 관련해서는 사춘기의 심리적 변화와 자아정체성 확립, 성욕구와 충동을 조절하는 방법 등이 기술되어 있고, 인간관계 측면에서는 건강한 가정의 중요성과 이성친구에 대한 이해, 이성 간에 지켜야할 예절이 다루어진다(표 6-10 참조).

〈표 6-10〉 중학교 1학년 성교육 교과내용(도덕)

주제	학습내용
사춘기 심리의 특성	◦ 사춘기에 느끼는 감정, 심리적 변화 ◦ 자아정체성의 확립
성적 관심과 충동 성욕구과 자위행위	◦ 성욕구와 충동의 조절 방법 ◦ 올바른 성의식 함양
결혼과 가정	◦ 가정의 중요성 ◦ 가정생활의 변화
이성교제의 의미	◦ 청소년기 이성교제의 의미 ◦ 이성간에 지켜야할 예절
성평등	◦ 변화하는 여성상 ◦ 남녀 불평등한 현실, 남녀 차별의 문제

나. 중학교 2학년 교과내용

중학교 2학년의 경우 과학과 사회 교과를 통한 성교육이 이루어지는데 과학 교과는 '신체발달'을, 사회 교과는 '성심리'와 '사회적 성역할'을 다룸으로써 차별적 특성을 보인다. 과학 교과 내용은 생식기의 명칭과 구조 등과 같은 단순한 지식을 넘어 신체의 화학적 작용으로서 호르몬의 분비를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다. 구체적인 내용으로 호르몬의 역할 및 과부족의 결과, 호르몬과 2차 성징과의 관계 등이 제시되어 있다. 사회 교과에서는 인간의 사회적 성장의 일부로 신체적, 심리적 변화와 자아정체성 확립에 대한 내용이 다뤄지고 현대 사회와 민주 시민, 개인과 사회 발전의 내용으로 지위와 역할, 남녀 불평등 문제 등이 다루어진다(표 6-11, 표 6-12 참조).

〈표 6-11〉 중학교 2학년 성교육 교과내용(과학)

주제	학습내용	A	B	C	D
남녀의 신체구조와 변화	◦ 성호르몬의 역할 ◦ 월경·사정의 의미 ◦ 사춘기의 신체적·생리적 변화 ◦ 남녀의 신체적 생리적 발달	○	○	○	○

주: A=지학사, B=디딤돌, C=교학사, D=동화사.

〈표 6-12〉 중학교 2학년 성교육 교과내용(사회)

주제	학습내용	A	B	C	D
사춘기 심리의 특성	◦ 인간의 사회적 성장 ◦ 사춘기에 느끼는 감정, 심리적 변화 ◦ 자아정체성의 확립	○			
성평등 (사회적 성역할)	◦ 성역할의 의미 ◦ 성숙한 성역할을 위한 준비 ◦ 사회적 불평등 현상(성차별에 반대 시위 삽화 등) ◦ 지위와 역할	○	○	○	○

주: A=중앙교육진흥연구소, B=지학사, C=디딤돌, D=동화사.

다. 중학교 3학년 교과내용

중학교 3학년은 과학과 도덕 교과를 통해 성에 대한 내용을 배우게 된다. 과학 교과와 도덕 교과의 내용을 보면 중학교 2학년 과정에서와 같이 과학은 '신체발달' 영역을 주로 다루고 도덕은 '인간관계 발달' 영역이나 성평등과 관련된 '성문화·성윤리' 영역을 주로 다룸으로써 교과영역이 구분된다. 또한 과학 교과의 내용을 보면 중학교 2학년에서 집중적으로 교육된 성 호르몬의 내용은 적어지고 체세포 분열, 염색체, 생식세포와 생식기관 등의 내용이 강화된다(표 6-13, 표 6-14 참조).

〈표 6-13〉 중학교 3학년 성교육 교과내용(과학)

주제	학습내용	A	B	C	D	E
생명의 창조 및 탄생 태아와 모체	◦수정과 임신의 성립과정 ◦임신전반기의 태아 크기 ◦ 태아의 개월별 성장과정	○	○	○		○
남녀의 신체구조와 변화	◦ 남녀생식기의 구조와 기능 ◦ 성호르몬의 역할 ◦ 인간의 염색체 ◦ 세포 분열, 생식 세포 분열 ◦ 인간의 성과 유전	○	○	○	○	○

주: A=지학사, B=디딤돌, C=교학사, D=동화사, E=지학사.

〈표 6-14〉 중학교 3학년 성교육 교과내용(도덕)

주제	학습내용
이성교제의 의미	◦ 이성관계의 변화 ◦ 이성교제의 문제점 ◦ 올바른 이성관계
성평등(사회적 성역할)	◦ 직업선택과 관련된 성역할의 고정관념

라. 중학교 성교육 교과내용체계 종합

이상에서 살펴본 중학교 1, 2, 3학년 교과 내용을 '신체 및 심리 발달', '인간관계 발달', '성문화·성윤리' 영역으로 구분하여 정리하면 <표 6-15>와 같다. 중학교 성교육의 특징 및 내용을 살펴보면, 중학교의 성교육은 주로 1학년을 대상으로 체육과 기술·가정교과를 통해 집중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즉 현행 교육 체제에서 성교육은 중학교 1학년 과정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다고 하겠다. 그 이유는 2차 성징이 중학교 입학 연령인 13～14세부터 나타난다고 인식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되는데, 청소년의 신체적 성숙이 빨라지고 인터넷이나 대중매체를 통해 성에 관련된 정보를 쉽게 접할 수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본격적인 성교육 시기가 앞당겨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둘째, 중학교 1학년부터 본격화된 성교육이 2학년, 3학년으로 연결되지 못하고 있다. 현 교과 내용은 1학년에서 전반적인 내용을 배우고 2학년과 3학년에는 관련 교과에서 보다 과학적인 지식(예를 들어, 호르몬, 세포 분열 등)의 내용을 배우도록 되어 있는데, 학습의 연속성을 고려한다면 성교육 관련 교과 체계와 내용의 재편성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셋째, 성에 관련된 지식과 정보 등의 교과 내용이 교과서별로 많은 수준 차이를 보인다. 예를 들어 남녀의 생식기나 임신과 출산의 내용을 보면, 어떤 교과서는 청소년기의 신체적·정서적 변화에 초점을 두고 포괄적이고 상징적으로 설명하고 있는가 하면, 어떤 교과서는 그러한 변화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에 초점을 두고 서술하고 있다. 또 어떤 교과서는 생식기관의 구조와 차이, 호르몬의 변화, 정자와 난자의 생성과정, 임산에서 출산까지의 과정을 아주 상세하고 사실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각 학년에 따라 어느 정도의 지식을 제공할 것인지에 대한 합의가 요구된다.

넷째, 성교육 내용의 균형 면에서 보았을 때 '신체 발달', '성 심리 발달', '이성교제', '성평등' 등에 대한 내용은 대부분의 교과서에서 다루고 있는데 반해 '성 상품화', '성적 자기 결정과 선택', '생식기의 보호·위생' 등의 내용은 거의 다루어지지 않고 있다. 특히 성관계나 이성과의 접촉 상황에서 협상, 도움 구하

기, 거부하기 등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고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성적 자기 결정과 선택'에 대한 내용 보강이 필요하다. 또한 성적 행동의 공유, 성적 반응, 성적 공상, 성기능 부전이나 성과 예술에 대한 내용도 교과과정에서는 누락되어 있으며, 결혼과 가족에 대한 부분에서 자녀 양육에 대한 언급도 찾아볼 수 없었다.

〈표 6-15〉 성교육 영역별 중학교 교과내용체계

영역	하위 영역	주제	1학년			2학년		3학년	
			체육	기술 가정	도덕	과학	사회	과학	도덕
신체 및 심리 발달	신체발달	신체의 구조·변화	○(6/7)	○(7/7)		○(4/4)		○(5/5)	
		임신과 출산	○(4/7)					○(4/5)	66
		생명의 창조·중요성		○(6/7)					
	성심리 발달	사춘기 심리	○(6/7)	○(6/7)	○		○(1/4)		
		성적 관심과 충동	○(4/7)	○(1/7)	○				
	성건강	생식기 보호·위생							
		성관련 질병	○(3/7)	○(1/7)					
		피임	○(3/7)	○(4/7)					
		이상 성행동							
인간관계 발달	결혼과 가정	가족		○(2/7)	○				
		결혼		○(2/7)					
	이성과 사랑	이성교제	○(7/7)	○(7/7)	○				○
	자기결정과 선택	성적 자기 결정권 자기 주장		○(2/7)					
성문화 성윤리	사회적 환경	성폭력	○(5/7)	○(1/7)					
		성과 대중매체	○(2/7)	○(2/7)					
	성평등	성역할 및 성평등	○(4/7)	○(3/7)	○		○(4/4)		○

주: ( )는 (내용이 들어 있는 교과서 수/ 전체 교과서수)임.

다섯째, 순결이나 정절을 강조하던 과거의 내용에 비해 다양한 성 태도를 수용하고 있으나 여전히 편파적이고 폐쇄적인 성의식을 배양할 수 있는 내용도 간혹 삽입되어 있어 전체 교과과정 상의 내용 충돌이 불가피하다. 예를 들어 일부 교과서에서 순결서약운동 등의 내용을 다루고 있는데 자칫 잘못하면 순결이 무조건적인 육체적 순결로 이해될 수 있다. 거의 모든 교과서에서 성폭력에

대해 다루고 있는데 성폭력과 순결과 관련하여 타인의 강압에 의한 순결의 상실 등은 육체적 피해를 입는 것일 뿐 정신적 순결을 상실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끝으로, 성에 대한 태도가 점점 개방적으로 변화하는 환경에 맞추어 교과과정에도 성관련 질병이나 피임, 인공임신중절 등의 성 건강과 관련된 내용과 10대의 임신이나 성의식의 변화 등 성문화·성윤리와 관련된 내용이 다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 임신, 인공임신중절의 문제점과 후유증을 강조하며 경각심을 일으키는데 집중되어 있고 부득이하게 임신을 하게 된 경우에 따른 대안이 제시되어 있지는 않다. 따라서 사후대처 방안에 대한 내용이 보강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3. 고등학교 성교육의 교과내용체계

가. 교과별 교과내용

고등학교의 경우 체육, 도덕, 사회문화, 가정과학, 시민윤리, 인간과 사회환경, 인간발달 교과에서 '신체 및 심리 발달', '인간관계 발달', '성문화·성윤리'의 세 영역이 다루어지고 있다. 다만 체육 교과를 통해 전체적인 내용이 제공되고 나머지 교과목에서는 각 교과의 학습 목표와 관련되는 내용에 제한되는 특징을 보인다.

체육 교과의 내용을 보면 '신체 발달' 영역에서 생식기의 구조와 변화(7/7), 임신과 출산(4/7)이 다루어지고 있고 '성 심리' 영역에서 성적 관심이나 충동을 조절하는 방법, 자위행위에 대한 내용(6/7)이 전달되고 있다. 또한 성병(5/7)과 피임(4/7) 등 '성 건강' 영역의 내용도 대부분의 교과서에 포함되어 있다. 성병에 대해서는 교과서에 따라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성병의 종류와 예방, 치료방법부터 성문제 상담기관에 대한 내용까지 포함되어 있고 피임에 대해서는 피임의 방법, 종류, 월경 주기법, 점액 관찰법 등까지 제시되어 있다. 그밖에 이성교재와 성폭력, 성평등에 대한 내용은 모든 교과서에서 다루어지고 있다. 반면

성과 관련된 사회적 환경으로서 성과 대중매체, 성의 상품화에 대한 내용은 단 한 개의 교과서에서만 다루어지고 있다(표 6-16 참조).

〈표 6-16〉 고등학교 성교육 교과내용(체육)

주제	학습내용	A	B	C	D	E	F	G
생명의 창조 및 탄생 태아와 모체	◦수정과 임신의 성립과정 ◦임신전반기의 태아 크기 ◦태아의 개월별 성장과정	○		○	○	○		
남녀의 신체구조와 변화	◦남녀생식기의 구조와 기능 ◦2차성징의 발현 ◦성호르몬의 역할 ◦월경·사정의 의미 ◦사춘기의 신체적·생리적 변화 ◦남녀의 성적차이 ◦남녀의 신체적 생리적 발달	○	○	○	○	○	○	○
성적 관심과 충동 성욕구과 자위행위	◦성욕구의 조절방법과 태도 기르기 ◦올바른 성의식 함양 ◦이성에 대한 감정발달 단계	○	○	○	○		○	○
성병의 종류와 증상 성병의 예방	◦성병의 종류와 증상 ◦성병의 예방	○	○	○		○	○	
피임 인공임산중절의 위험성	◦인공임산중절의 의미 ◦인공임산중절의 법적 가능범위 ◦피임을 하는 목적 ◦피임의 종류와 방법	○	○	○		○		
결혼과 가정	◦결혼과 건강 ◦결혼의 책임과 의무 ◦결혼과 배우자 선택 ◦결혼 전의 건강진단	○				○	○	
이성교제의 의미	◦청소년기 이성교제의 의미 ◦건전한 이성교제의 바람직한 태도 ◦이성간에 지켜야할 예절	○	○	○	○	○	○	○
성폭력	◦성폭력의 정의 ◦성폭력의 예방과 대처 ◦사이버 공간에서의 성폭력	○	○	○	○	○	○	○
대중매체속의 성정보 바로알기	◦성상품화 등 여러 가지 성문제			○				
성평등 (사회적 성역할)	◦올바른 성의식 및 성윤리 ◦성 역할의 이해 ◦성 역할의 변화 및 차이	○	○	○	○	○	○	○

주: A=대한교과서, B=교학사, C=두산, D=형설, E=금성, F=보진재, G=천재교육.

도덕 교과에서는 '성 심리 발달' 영역에서는 청소년의 자아정체성 확립, 청소년의 문제, 청소년 문화 등 포괄적인 내용이 다루어지고 있고, 사회문화 교과에서는 가족과 친족의 관계, 가족의 변화, 결혼의 의미, 성과 가족, 가정생활 등의 내용과 성역할의 이해, 남녀 평등헌장, 성평등과 관련된 양적·질적 자료 등이 제공되고 있다. 가정·과학 교과에서도 사회문화 교과와 마찬가지로 결혼과 가족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으나 자녀 양육을 위한 내용, 이를테면 부모의

역할과 책임, 바람직한 자녀양육 태도, 가족생활과 관련된 직업 등의 내용이 추가되어 차별화 된다. 또한 인간발달로서 청소년의 발달 특징, 인간 발달 과정, 인간관계의 형성 등이 포함되어 있다.

〈표 6-17〉 고등학교 성교육 교과내용(도덕)

주제	학습내용
사춘기 심리의 특성	◦ 청소년기의 자아정체성의 확립 ◦ 정보사회에서 청소년의 비인간화 문제 ◦ 바람직한 청소년 문화의 형성

〈표 6-18〉 고등학교 성교육 교과내용(사회문화)

주제	학습내용	A	B	C
결혼과 가정	◦ 결혼의 의미 ◦ 가족생활과 친족관계 ◦ 사회변동과 가족문제	○	○	○
성평등 (사회적 성역할)	◦ 성 역할의 이해 ◦ 성 역할의 변화 및 차이 ◦ 남녀 불평등 및 갈등 ◦ 남녀의 직업	○	○	○

주: A=지학사, B=교학사, C=대한교과서.

〈표 6-19〉 고등학교 성교육 교과내용(가정·과학)

주제	학습내용	A	B	C
남녀의 신체구조와 변화	◦ 인간발달의 과정 ◦ 인간발달의 단계별 특징	○	○	○
결혼과 가정	◦ 결혼과 가족의 역할 ◦ 가족생활의 문제와 해결 ◦ 부모의 역할과 책임 ◦ 바라직한 자녀양육 태도 ◦ 자녀 양육과 지도	○	○	○

주: A=교학사, B=교문사, C=상문연구사.

인간과 사회 환경, 시민 윤리에서는 여성의 권익 신장과 남녀평등 사회의 구현, 성역할을 다루고 있다. 세부 교육내용은 성윤리, 사랑과 성, 사랑을 표현하는 다양한 언어, 동양유학에서 말하는 사랑의 개념, 쾌락의 정의, 성적 결합, 문명사회의 결혼제도 등이다. 한편 인간발달에서는 '신체 및 심리 발달' 영역으로 신체발달, 사회성 발달, 심리 발달 등 발달적 측면에 초점을 두고 있어, 체육교

과와는 차별화되며 결혼과 가족에 있어서 자녀 양육이나 부모의 역할 등과 이성교제, 성차와 성역할 등에 대해 포괄적으로 다루고 있다.

〈표 6-20〉 고등학교 성교육 교과내용(인간과 사회 환경)

주제	학습내용	A	B	C
성평등 (사회적 성역할)	◦여성 지위의 시대적 변천	○	○	○

주: A=대한교과서, B=법문사, C=교학사.

〈표 6-21〉 고등학교 성교육 교과내용(인간발달, 시민윤리)

교과	주제	학습내용
인간발달	생명의 탄생 태아와 모체 임신과 출산	◦생명 탄생의 신비와 생명 존엄성 ◦임신의 성립과정과 태아의 발달, 출산과정 ◦임신 중 섭생의 중요성과 산후 관리의 중요성 ◦건강한 아이 출산에 필요한 준비
	남녀의 신체구조와 변화	◦인간발달(신체발달) ◦남성과 여성의 갱년기 개념 및 특징
	성적 관심과 충동 성욕구과 자위행위	◦자위 행위, 10대의 임신
	결혼과 가정	◦부모의 역할과 양육 ◦가족의 의미 ◦유아에게 가족의 의미 ◦가족 생활 ◦가족의 해체, 재형성
	이성교제	◦청소년기 이성교제의 의미 ◦건전한 이성교제의 바람직한 태도
	성평등 (사회적 성역할)	◦성 역할의 이해 ◦성 역할의 변화 및 차이
시민윤리	결혼과 가정	◦결혼 제도 ◦사랑과 성 ◦성적 결합
	성평등 (사회적 성역할)	◦여성 권익의 신장과 남녀 평등 실현 ◦성역할 ◦성과 윤리

나. 고등학교 성교육 교과내용체계 종합

고등학교 교과과정에서 성교육과 관련된 내용의 특징은 생식기, 이성교제, 성평등 등의 내용은 기본으로 하고 변화하는 사회 환경에 맞추어 성적 욕구와 충동에 대한 조절 능력, 성폭력, 성관련 질병, 피임 등 실제 상황에서 응용될 수 있는 지식이나 정보의 보강·심화라고 요약할 수 있다.

그러나 그 내용이 여전히 성교육의 특정 내용에 편중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고등학교 교과 내용을 각 성교육 영역 별로 정리한 <표 6-22>를 보면 '신체 발달', '성 심리 발달', '이성교제', '성평등' 등 중학교에서 다루어졌던 내용은 반복해서 다루어지고 있는 반면 '성 상품화', '성적 자기 결정과 선택', '생식기의 보호·위생' 등과 같이 중학교 과정에서 다루어지지 않은 내용은 고등학교 과정에서도 누락되어 있다. 물론 반복적으로 교습하는 것이 내용의 중요성이나 학습의 연속성 측면에서 일정부분 인정은 되지만, 세 가지 영역이 성교육으로 통괄되는 하나의 체제라고 보았을 때 내용의 지나친 편중은 지양되어야 한다. 따라서 '성적 자기 결정과 선택', '성과 대중매체' 등의 내용이나 부자료를 통한 보강이 필요하다. 그밖에 성과 법률, 성의 다양성, 성기능 부전 등의 내용도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중학교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교과 내용이 교과서별로 많은 수준 차이를 보인다. 예를 들어 피임의 경우 어떤 교과서는 개념과 종류만 단순히 언급된 수준인데 비해 어떤 교과서는 여성의 생리현상과 연결하여 생리 주기에 의한 피임법을 자세히 설명하는가 하면 점액관찰법까지 언급하고 있다. 따라서 학교과정을 통해 학생들에게 어느 정도 수준까지 성교육을 제공할 것인지에 대한 합의가 있어야할 것으로 판단된다.

셋째, 성교육을 남녀의 신체발달과 그로 인한 현상에만 국한하지 않고 올바른 성 정체성 확립과 가치관의 정립이라고 정의하여 도덕, 사회문화, 가정·과학, 시민윤리, 인간과 사회환경, 인간발달 등의 교과내용을 포함시켰지만 각 교과에서는 일부만 다루어지고 있을 뿐 전체적인 성교육이 다루어지는 것은 체육교과이다. 따라서 개별 교과에서 성교육의 개념이 어느 정도 반영될 수 있을지 미지수이며 무엇보다도 대학 입시 경쟁이 치열한 현실에서 이러한 선택 교과를 통해 얼마나 효율적인 성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 또한 문제라고 하겠다.

〈표 6-22〉 성교육 영역별 고등학교 교과내용체계

영역	하위 영역	주 제	체육	도덕	사회 문화	가정 과학	시민 윤리	인간과 사회환경	인간 발달
신체및심리발달	신체 발달	신체의 구조·변화	○(7/7)			○(3/3)			○
		임신과 출산	○(4/7)						○
		생명의 창조·중요성	○(2/7)						○
	성심리 발달	사춘기 심리		○					○
		성적 관심과 충동	○(6/7)						○
	성건강	생식기 보호·위생							
		몽정·월경							
		성관련 질병	○(5/7)						
		피임	○(4/7)						
		이상 성행동							
인간관계발달	결혼과 가정	가족			○(3/3)	○(3/3)			○
		결혼	○(3/7)		○(3/3)	○(3/3)	○		○
	이성과 사랑	이성교재	○(7/7)						○
	자기 결정과 선택	성적 자기 결정권 자기 주장							
성문화성윤리	사회적 환경	성폭력	○(7/7)						
		성과 대중매체	○(1/7)						
	양성 평등	성역할 및 성평등	○(7/7)		○(3/3)		○	○(3/3)	○

주: ( )는 (내용이 들어 있는 교과서 수/ 전체 교과서수)임.

제 4절 학교 성교육·성상담에 대한 학생 및 교사의 행태

여기에서는 본 협동연구의 일환으로 초(5~6학년)·중(1~3학년)·고(1~3학년) 학생들과 교사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2006년도 전국 청소년 결혼·자녀·성평등 가치관 조사(한국보건사회연구원)』 결과를 분석하였다. 학교 성교육에 대한 학생의 형태 분석은 크게 양적인 측면과 질적인 측면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양적인 측면에서는 학교 성교육의 양과 내용이 학생의 현실적인 욕구를 어느 정도 충족시킬 수 있을 만큼 충분한가를 측정한다. 질적인 측면에서는 학교 성교육

의 결과로서 성지식 수준이 어느 정도이고, 실제생활에서 어느 정도 도움이 되었는가를 측정한다. 그리고 학교 성교육에 대한 교사의 행태도 진단한다.

1. 학생의 성가치관 및 학교 성교육에 관한 행태

가. 학생의 성관련 가치관

학교 성교육 및 성상담에 관한 논의를 시작하기 전에 우선적으로 학생들 사이에 성에 관한 가치관이 어떠한가를 진단할 필요가 있다. 사실 성관련 가치관들은 앞의 장들에서 가족이나 결혼 및 성평등의 관점에서 분석되었다. 여기에서는 성교육의 관점에서 일부 성관련 가치관들을 재 조망하도록 한다.

"남자가 결혼 전에 순결을 지켜야 하는지"에 대해 초·중·고 학생의 약 2/3(가급적 지켜야 41.1%, 반드시 지켜야 26.5%)이 찬성하였다. "여자가 결혼 전에 순결을 지켜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학생의 약 3/4(가급적 지켜야 39.6%, 반드시 지켜야 34.2%)가 찬성하여 남자 순결의 경우에 비해 높았다. 즉, 성에 대한 초·중·고 학생들의 태도는 개방적이기 보다 여전히 '성의 소중함'을 중요시 여기는 경향이 강했다. 여타 성관련 일반적인 견해들에 대한 학생들의 태도도 비슷한 경향성을 보이고 있다. "결혼과 관계없이 성관계를 가질 수 있다"는 견해에 대해 학생의 69.1%가 부정적이었다. 또한, "남녀가 사랑한다면 결혼하지 않고 함께 사는 것도 괜찮다(동거)" 견해에 대해 학생의 66.6% 그리고 "결혼하지 않아도 자녀를 가질 수 있다(혼전임신)" 견해에 대해서는 학생의 78.4%가 부정적이었다. 학생들 사이에는 여전히 결혼을 하여 자녀를 낳고 가족을 이루는 것에 대해 더 가치를 두고 있다. 혼전임신의 경우 처리 문제에 대해서 학생의 28.2%가 낳아야 한다는 입장을 그리고 7.5%가 낳지 않아야 한다는 입장을 각각 보였다. 혼전임신의 경우에도 생명의 소중함을 중요시 여기는 경향을 짐작할 수 있겠다. 한편, 학생 중 49.4%는 기를 수 있는 경우에만 낳아야 한다는 좀더 현실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었다.

여기에서 논의되어야 할 중요한 점들은 학생들 중 대다수가 성의 소중함을 인식

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학생들은 결혼 이외의 과정을 통한 남녀간의 생활과 자녀 출산에 대해 거부감을 표시하고 있다. 이를 통해, 학생들이 결혼제도를 거추장스러운 굴레로 여기기보다는 자녀를 생산하여 화목한 가정을 이룰 수 있는 전제조건으로 간주하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학생들의 성에 관한 가치관이 개방적이나 보수적이나 하는 방향성을 논의하는 것은 실제 학생의 인생을 좌우하여야할 만큼 중요하지 않을 수 있다. 학생들이 성에 관한 한 안전하고 어려움 없이 생활(가정생활, 사회생활)할 수 있도록 학교 성교육의 기능이 강화될 필요성이 있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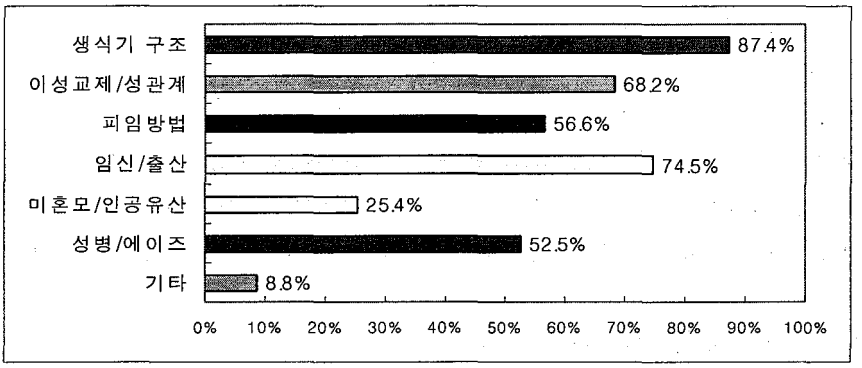
나. 학교 성교육 관련 학생 행태

1) 학생의 학교성교육 경험률

초·중·고 학생들 대부분인 98.3%가 학교에서 성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초등학교 5학년생의 학교 성교육 경험률이 가장 낮다고 해도, 그 비율은 89.1%이며, 초등학교 6학년 이상의 경험률은 98% 이상으로 높았다.

그러나 학생들의 성교육 경험률이 높다고 해도 성교육 내용별로 보면 큰 편차가 있다. 비교적 기초적이라고 생각되는 생식기구조·이차성징의 성내용만이 80% 이상 성교육 경험률(87.4%)을 나타내고 있을 뿐이다. 임신·출산 74.5%, 이성교제·성관계·혼전순결 68.2% 등 일부 성내용들에 대한 교육경험률은 60~70% 수준이었다. 성문제의 예방과 직접적으로 관계가 있는 내용들에 대한 교육경험률은 피임방법 56.6%, 성병·에이즈 52.5%로 절반 수준에 불과하였으며, 미혼모·인공유산에 대한 교육경험률은 25.4%로 아주 낮았다. 현실적으로 현재 초·중·고 학생들 중 이성교제를 경험한 비율은 절반수준(교제 중 11.4%, 교제 경험 35.7%)이며, 학년이 높을수록 높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학교성교육이 기초적인 지식을 제공하고 있을 뿐, 실제 일반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성문제들을 사전적으로 예방하고 사후적으로 치료하는데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지가 의문스럽다. 환언하면, 학교 성교육의 수준은 인구자질 향상 등에 취약하다고 하겠다.

[그림 6-2] 초(5~6학년)·중·고 학생의 학교 성교육 경험률(교육내용별): 중복 응답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6년도 전국 청소년 결혼·자녀·성평등 가치관 조사』, 2006.

학교급별 즉, 성장발달단계별로 보면 초등학생(5~6학년)이 받았던 성교육은 생식기구조·이차성징(72.0%)과 임신·출산(48.7%)에 집중되어 있었다. 다른 내용들에 대한 교육경험률은 낮았으며, 특히 피임방법, 미혼모·인공유산 등 청소년의 성문제와 보다 직결되어 있는 내용들에 대한 교육경험률은 5% 미만이었다. 이는 현행 교육 체제에서 성교육이 중학교 1학년 과정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학년층의 신체적 및 생리적 성숙도가 날로 빨라지고 있는 점과 최근 청소년의 성문제가 저학년층에서 증가하고 있는 현상을 감안하여 초등학교 성교육이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

중학교, 고등학교로 올라가면서 내용별 성교육경험률은 예외 없이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미혼모·인공유산에 대한 경험률은 전 학교급을 통해 50% 미만으로 나타났으며, 성병·에이즈관련 교육경험률도 상대적으로 낮았다. 특히, 피임방법에 대한 중학생의 교육경험률은 55.1%로 여전히 낮았다. 2001년 성교육 교사용 지도지침서에서 중학교부터 피임교육이 강조되는 것과 다소 거리가 있는 실정이다. 고등학생(인문계 84.3%, 실업계 64.5%) 모두 피임방법에 대한 성교육을 경험한 것은 아니었다. 특이한 점은 고등학생들 중에서도 실업계 고등학생의 성교육 경험률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점이다. 이를 통해 실업계 고등학교에서의 성교육이 인문계 고등학교에 비해 열악한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표 6-23〉 학교급별 성교육 경험률, 중복응답

(단위: % , 명)

구분	생식기 구조·이차성징	이성교제 성관계·혼전순결	피임방법	임신 출산	미혼모·인공유산	성병·에이즈	기타	무경험	(계)
초등학교	72.0	31.1	4.1	48.7	3.1	13.8	18.3	6.5	(1,900)
중학교	90.2	74.5	55.1	72.2	22.6	51.8	7.7	0.8	(4,753)
인문고	93.4	78.7	84.3	90.4	40.9	70.5	5.8	0.4	(3,632)
실업고	81.8	71.2	63.5	76.3	25.5	64.9	6.0	1.5	(959)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6년도 전국 청소년 결혼·자녀·성평등 가치관 조사』, 2006.

현실적으로 학교 성교육의 내용이 학생의 욕구와 얼마나 괴리가 있는가 하는 사례는 김혜원·이해경(2000)의 연구결과를 통해 유추해 볼 수 있다(표 6-24 참조). 연구 대상으로서 고등학생들이 과거에 받았던 성교육 내용은 사춘기의 신체·심리적 변화, 임신·피임, 이성교제, 성태도·가치관 등의 순이었다. 그러나 이들 학생들이 실제 희망하는 성교육 내용은 임신·피임(46.5%), 이성교제, 이성간 성교, 성태도·가치관, 성기위생·성건강, 이성간 키스·애무 등의 순으로 높았다. 요컨대, 학교에서 제공하는 성교육 내용들이 주로 성에 관한 기초지식 수준인 반면, 학생들이 희망하는 성교육 내용들은 현실적이고 청소년의 성행위 또는 성문제와 직결되는 것이었다. 즉, 학교 성교육은 청소년의 성장발달단계에 따른 성지식 욕구를 충분히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는 실정인 것이다.

〈표 6-24〉 과거 받아온 성교육 및 향후 희망하는 성교육 내용, 중복응답

(단위: %)

구분	신체 심리적 변화	성적 공상/성충동	자위 행위	성기 위생/성건강	이성 교제	이성간 키스 애무	이성간 성교	임신과 피임	비 정상성 행동	성태도 가치관	성역할	기타
경험	86.5	24.5	29.8	28.3	44.6	12.6	22.6	59.5	15.4	42.5	28.8	2.7
희망	22.8	24.8	25.4	35.0	41.1	33.3	36.9	46.5	23.5	36.1	24.9	5.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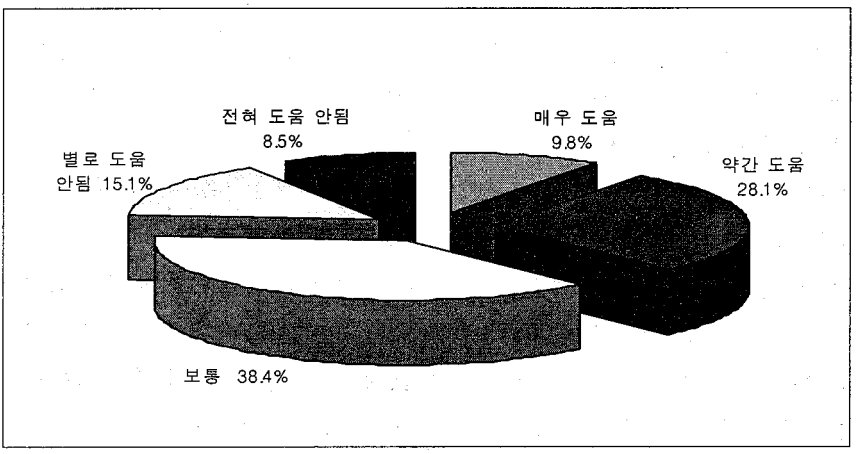
자료: 김혜원·이해경, 「청소년들을 위한 양성평등 성교육 방향의 모색」,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2000, 재구성.

2) 학교 성교육의 도움정도

앞서 양적인 측면에서 학교 성교육의 경험(수업)정도를 진단하였다. 그 결과

성교육 내용별로 학생의 경험정도는 편차가 존재하며, 현실과도 괴리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한편, 학교 성교육의 실효성은 '성교육 경험정도의 양적인 측면' 이외 학생들이 체감하는 도움정도를 통해서도 측정될 수 있다. 이러한 도움정도는 학교 성교육의 질적 수준을 측정하기 위한 것으로 학생의 만족도로도 표현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림 6-3] 초(5~6학년)·중·고 학생들이 느끼는 학교 성교육 내용의 도움정도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6년도 전국 청소년 결혼·자녀·성평등 가치관 조사』, 2006.

2006년도 조사에서 지금까지 학교에서 받았던 성교육이 도움이 되었는가에 대한 질문에 초·중·고 학생들 중 매우 도움이 된다 9.8%, 약간 도움이 된다 28.1%, 보통이다 38.4%,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 15.1%,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8.5% 등으로 응답하였다. 즉, 학교 성교육에 대해 초·중·고 학생들 중 62.1%가 만족하지 못하고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과거 2000년에 실시한 한 연구에서도 나타났다. 공세권 외(2000)에 의하면, 학교 성교육에 대하여 전체 학생의 73.8%가 만족하지 못한다고 응답하였으며, 만족하지 못한 이유로는 '알고 있는 내용이어서' 74.2%, '성교육 담당 선생님의 교육 방법의 체계성 및 설명이 부족하여서' 62.0%, '교재가 불충분해서' 27.7%, '성교육 보조자료 및 매체의 활용이 부족하여' 28.6%, '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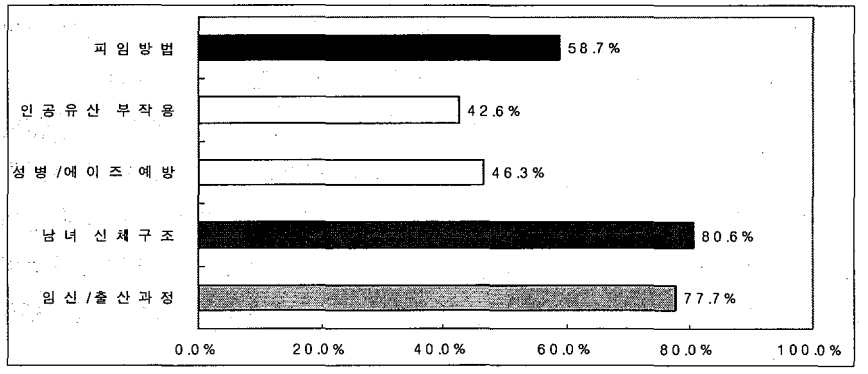
이 부족하여' 26.0% 등으로 다 알고 있는 내용이라는 응답이 많았다. 결국 과거나 현재 모두 학교 성교육의 내용이 학생의 욕구를 반영하지 못한 것으로, 학생의 성장발달단계에 따른 요구와 수준에 맞는 효과적인 성교육자료의 개발과 정비를 추진할 필요가 있겠다.

3) 학생의 성지식 수준

학교 성교육의 실효성에 대해서는 앞서 분석한 바와 같이 학생들이 느끼는 실제 도움정도(만족도)를 통해 측정될 수 있다. 또 다른 방법으로 현재 도움 여부와 상관없이 미래의 생활에서 잠재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성에 관한 지식의 수준을 통해 측정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성교육내용별로 인지도를 분석하였다.

남녀의 신체적 구조에 대하여 알고 있다는 학생의 인지도는 80.6%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임신·출산과정 77.7%, 피임방법 58.7%, 성병·에이즈의 예방법 46.3%, 인공유산의 부작용 42.6% 등의 순이었다. 이를 통해 과학적이고 해부학적인 정보와 지식(생식기 구조·이차성징 등)에 대한 교육내용은 제대로 전달되고 있으나 피임, 인공유산, 성병 등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교육내용은 전달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그림 6-4] 초(5~6학년)·중·고 학생의 성관련 인지도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6년도 전국 청소년 결혼·자녀·성평등 가치관 조사』, 2006.

이러한 추측은 성교육 내용별 학습경험률과 인지도간의 상관관계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모든 성교육 내용에서 정(+)의 상관관계를 보여(통계적으로 유의미), 학교 성교육이 학생의 성지식수준 제고에 긍정적인 기여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피임방법의 상관계수만이 0.52로 비교적 높았을 뿐이었다. 다른 성교육 내용들의 상관계수는 미혼모·인공유산관련 0.29, 성병·에이즈관련 0.43, 생식기 구조·이차성징관련 0.27, 임신·출산관련 0.32 등으로 상관관계가 약했다. 즉, 학교 성교육의 효과가 대체적으로 낮은 편으로 진단할 수 있다.

〈표 6-25〉 초·중·고 학생의 학교성교육과 성지식수준간의 상관계수

구분	피임방법 인지	인공유산의 부작용	성병·에이즈 예방법	신체구조 인지	임신·출산 과정 인지
생식기 구조/이차성징	0.207***	0.123***	0.148***	0.272***	0.255***
이성교제/성관계/혼전순결	0.248***	0.173***	0.209***	0.240***	0.236***
피임방법	0.520***	0.274***	0.337***	0.307***	0.312***
임신/출산	0.259***	0.186***	0.201***	0.257***	0.325***
미혼모/인공유산	0.277***	0.292***	0.259***	0.207***	0.217***
성병/에이즈	0.309***	0.209***	0.432***	0.250***	0.227***

주: ***p<0.001.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6년도 전국 청소년 결혼·자녀·성평등 가치관 조사』, 2006.

4) 학교 이외 성관련 정보 습득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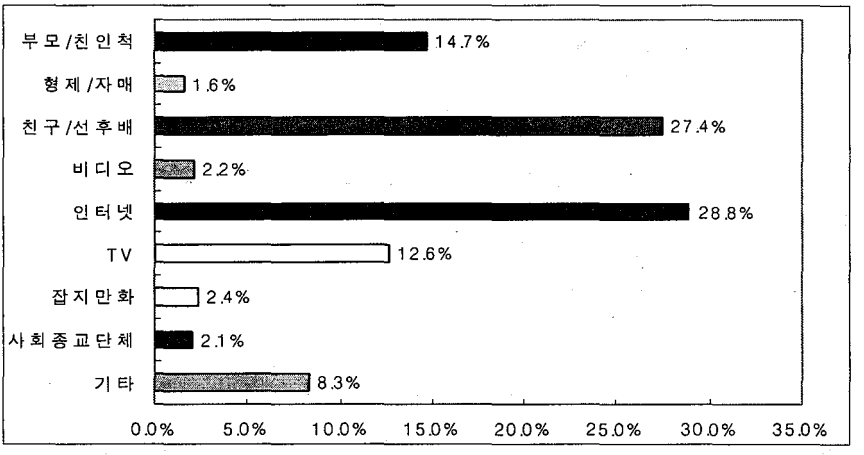
학교 성교육이 충분하지 못할 경우, 학생들은 학교 이외의 매(개)체를 통해 성관련 정보를 구하려 할 것이라는 가설의 설정이 가능하다. 물론, 비의도적인 경우로서 우연히 매체에 접근하여 성정보를 획득할 수도 있을 것이다.

우선 학교 이외에서 성에 대한 정보를 습득한 경험이 있는 경우 그 방법(매개체)으로는 인터넷(PC통신) 28.8%, 친구·선후배 27.4%, 부모·친인척 14.7%, TV 12.6%, 잡지·만화 2.4%, 비디오 2.2%, 사회종교단체 2.1%, 형제자매 1.6%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인터넷, TV, 잡지, 비디오 등 대중매체에 의한 성정보 습득이 46.0%로 친구·선후배, 부모·친인척, 형제자매 등 주변 사람에 의한 습득 43.7%보다 높다.

이러한 결과는 청소년들이 성에 대한 지식과 정보를 접할 수 있는 기회의 증

가를 의미한다. 그러나 친구나 대중매체를 통해 성정보를 습득할 경우 단편적이며, 왜곡된 지식을 가질 위험이 있고 성충동을 자극할 수 있다. 이는 학교에서의 성교육이 강화되어야만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그림 6-5] 초·중·고 학생의 학교이외 성정보 습득경로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6년도 전국 청소년 결혼·자녀·성평등 가치관 조사』, 2006.

다. 학생의 성관련 상담자(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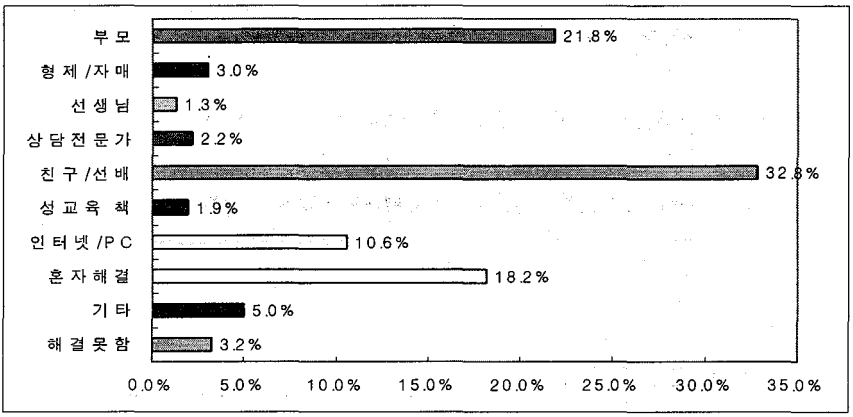
성관 관련한 학교의 기능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올바르고 현실적인 성교육을 제공하는 것이며, 또한 학생의 성관련 고민이나 문제에 대해 전문적인 상담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일 것이다. 그러나 실제 학생들이 성관련 고민을 누구와 상담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면, 학교의 기능은 거의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2006년도 조사에서 학생의 주 성상담자는 친구·선배 32.8%, 부모 21.8%, 인터넷(PC통신) 10.6%, 형제·자매 3.0%, 상담전문가 상담 2.2%, 성교육책자 1.9% 등의 순이었다. 학교 교사와 상담한 학생들은 겨우 1.3%로 거의 무시할 수준이었다. 이외 혼자 스스로 해결한 학생은 18.2%에 이르며, 3.2%는 해결하지 못하고 있었다.

이와 같이 학생들이 성문제를 '친구/선배' 등의 또래집단이나 개별적 방식으

로 해결하고 있는 것은 학교에서의 전문적인 성상담서비스가 체계적으로 제공되고 있지 못하고, 전문적인 청소년 성상담 클리닉이나 서비스센터에 대한 접근성이 부족한 현실을 짐작케 해준다.

[그림 6-6] 초·중·고 학생의 성관련 상담자(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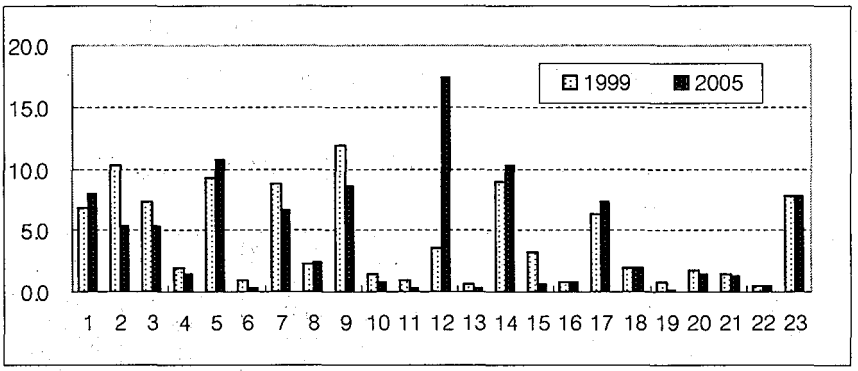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6년도 전국 청소년 결혼·자녀·성평등 가치관 조사』, 2006.

한편, 여학생의 경우 부모와 상담(30.6%)하거나, 친구/선배와 상담(37.3%)하는 경우가 남학생보다 높은 반면, 남학생의 경우 인터넷·PC통신(14.5%)을 이용하거나 혼자 해결(24.4%) 하는 경향이 상대적으로 더 높았다. 이는 대상자의 특성에 따른 다양한 교육 자료의 개발이 요구됨을 시사한다. 학교급·학년별로 학생의 성상담자는 큰 차이를 나타나는데, 저학년일수록 주 상담자로서 부모의 비중이 높아지는 반면, 고학년일수록 친구·선배와 인터넷·PC통신의 비중이 높았다. 이는 성정보 습득경로와 비슷한 경향이 있다.

고교생을 대상으로 한 공세권 외(2000)의 연구에서 성행위에 대한 고민이 48.3%로 가장 많았고, 임신(30.2%), 성충동(26.7%), 월경 또는 몽정(26.5%), 성병(20.8%), 성폭행(19.3%), 자위행위(19.1%) 등의 순이었다. 인구보건복지협회의 일반청소년에 대한 상담내용을 보면, 성폭행(17.4%), 건강, 성교육지도, 자위행위, 성교육지도, 이성문제, 성충동, 원치 않는 임신, 피임방법 등의 순이었다. 상담

내용의 변화를 살펴보면, 1999년에 자위행위, 원치 않는 임신, 성충동, 피임 방법 등 비중이 비교적 높았던 반면, 2005년에는 이들의 비중은 오히려 감소하고 성폭행, 성교육지도, 이성문제 등과 관련된 상담이 증가하였다(그림 6-7 참조).

[그림 6-7] 청소년의 상담내용 변화, 1999년·2005년



주: ① 이성문제, ② 원치않는 임신, ③ 피임방법, ④ 성병, ⑤ 건강, ⑥ 입양, ⑦ 성충동, ⑧ 성도착증, ⑨ 자위행위, ⑩ 근친상간, ⑪ 동성연애, ⑫ 성폭행, ⑬ 에이즈, ⑭ 성교육지도, ⑮ 비행, ⑯ 취업진로, ⑰ 가정문제, ⑱ 성격문제, ⑲ 약물문제, ⑳ 학업진로, ㉑ 교우관계, ㉒ 제도개선, ㉓ 기타
자료: 인구보건복지협회, 내부자료(청소년 상담실 활동실적), 2005.

2. 학교 성교육에 관한 교사의 행태

가. 성교육관련 교사의 전문성

본 조사에 응한 교사들 중 33.5%만이 현재 성교육관련 내용을 가르치고 있었다. 이들 성교육 담당 교사 중 타기관이나 단체에서 주관하는 성교육 과정을 이수한 비율은 35.4%에 불과하였다. 즉, 성교육 담당교사에게 성관련 전문지식, 기법 등에 관한 체계적인 교육기회가 주어지지 않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나. 학교 성교육에 대한 교사의 행태

'교과서에 제시된 성교육관련 내용이 성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을 길러주는데

적절한지'에 대한 교사의 응답은 매우 적절 1.1%, 적절한 편 20.2%, 보통 46.3%, 적절하지 않은 편 30.5%, 전혀 적절하지 않은 편 1.9% 등으로 긍정적 태도가 21.3%에 불과하였다. '교과서에 제시된 성교육관련 내용이 학습자의 수준과 흥미에 적합한지'에 대해 매우 적합 0.5%, 적합한 편 14.4%, 보통 41.4%, 적합하지 않은 편 39.0%, 전혀 적합하지 않은 편 4.6% 등으로 긍정적인 태도가 14.9%로 매우 낮았다. 학생대상 성교육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매우 필요 73.4%, 필요한 편 23.6%, 보통 2.7% 등으로 교사 대부분 필요하다는 태도를 보였다.

〈표 6-26〉 교과서 성교육 내용이 올바른 가치관 형성에의 도움정도에 대한 교사의 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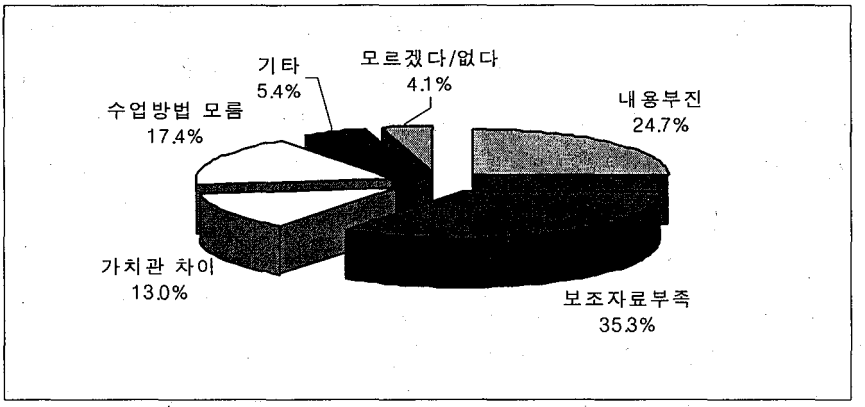
구분	교사의 태도(%)				
교과서의 성교육내용이 성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을 길러주는데 적절성 여부	매우 적절 1.1%	적절한 편 20.2%	보통 46.3%	적절치 않은 편 30.5%	전혀 적절치 않은 편 1.9%
교과서의 성교육 내용이 학습자의 수준과 흥미에 적합성 여부	매우 적합 0.5%	적합한 편 14.4%	보통 41.4%	적합지 않은 편 39.0%	전혀 적합지 않은 편 4.6%
학생에 대한 성교육의 필요성 정도	매우 필요 73.4%	필요한 편 23.6%	보통 2.7%	필요치 않은 편 0.3%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6년도 전국 청소년 결혼·자녀·성평등 가치관 조사』, 2006.

다. 교사의 학교 성교육수업시 애로사항

성교육에 관한 수업을 할 때의 애로사항으로는 수업에서 활용할 보조 지도자료가 부족하다는 응답이 35.3%로 가장 많으며, 그 다음은 내용이 진부해서 학생들의 흥미를 유발시키기가 어렵다 24.7%, 성에 관한 태도나 가치관을 재미있게 지도할 수 있는 수업 방법을 잘 모른다 17.4%, 현실이 교사의 가치관과 다른 경우가 있어 어떻게 가르쳐야 할지 당황스럽다 13.0% 등의 순이었다(그림 6-9 참조). 이는 성교육 자료의 질적·양적 부족이나 활용 측면과 관련된 문제들이 일선 교육현장의 제한점으로 제기되고 있다는 기존의 연구(양해경, 1996; 정금희, 1999)와도 일치하는 결과이다.

[그림 6-9] 교사의 학교 성교육 수업시 애로사항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6년도 전국 청소년 결혼·자녀·성평등 가치관 조사』, 2006.

3. 학교 성교육관련 학생·교사 행태의 시사점

성에 관한 학생들의 가치관을 살펴본 결과, 성에 대한 무분별한 개방적인 태도보다 성의 소중함을 중요시 여기며 결혼과 자녀출산을 통해 행복한 가정을 형성하는데 중요한 가치를 부여하고 있다. 이와 같은 학생들의 성에 관한 건강한 가치관이 보호되고, 궁극적으로 이들이 성에 관한 큰 장애 없이 가정생활 및 사회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학교 성교육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학교 성교육을 경험한 학생의 비율은 높으나, 학교 성교육 내용에 대한 학생의 태도는 부정적이었다. 학생들이 현실적으로 요구하는 성교육과 학교 성교육 간의 상당한 괴리가 있어, 결과적으로 학교 성교육이 학생들에게 주는 도움정도는 매우 낮은 편이다. 학교 성교육의 내용과 학생의 지식수준간의 상관정도도 매우 낮아, 학교 성교육의 실효성이 낮다는 평가를 할 수 있다. 결국 학생들의 성교육으로부터 기대하는 욕구가 충족될 수 없으며, 이에 따라 학생들은 학교교육 이외 다양한 매체들에 무분별하게 접근하고 있는 것이다. 학생들에 성상담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하는 학교의 기능은 거의 무시할 수준이었다. 결국 학생들의 성문제(고민)는 비전문적인 루트(route)를 통해 처리될 수밖에 없으며, 이는 또 다른 문제를 유발할 수 있을 것이다.

실제적으로 학교 성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교사들 대부분 학교 성교육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2/3이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성교육관련 훈련을 받을 기회조차 갖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교육 공급자의 질적 수준의 문제는 성교육의 실효성에도 커다란 장애요인이 되고 있는 것이다. 공급자적인 관점에서도 학교 성교육의 내용은 실효성이 없을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교사들 중 상당수가 성교육 교재 및 참고자료의 양적 확충과 질적 보완을 요구하고 있다.

지금까지 분석한 학교 성교육에 대한 수요자로서 학생과 공급자로서 교사의 행태로부터 제기할 수 있는 정책적 건의들은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혼전임신 예방, 성병·에이즈 예방 등 학교 성교육의 내용을 청소년의 성문제와 직결되는 부문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편하도록 한다. 즉, 과거와 같은 피상적이고 형식적인 성교육을 탈피하고 실질적으로 청소년이 성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적극적인 성교육이 요청된다. 둘째, 학생의 발달수준에 알맞은 체계적인 학교 성교육이 이루질 수 있도록 성장발달단계별로 다양한 교육자료의 개발이 요구된다. 셋째, 학교 성교육을 위한 교육자료 개발, 교육내용 또는 교육방법 등에 대한 연수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담당교사의 역량을 강화시켜야 한다. 성교육관련 교과내용에 대한 수업지도 방안 개발 등이 요구된다. 끝으로 학교의 성상담 기능을 강화시키도록 한다.

제 5 절 외국의 성교육 사례

1. 미국 사례

미국의 성교육은 건강교육 안에 들어 있는 가정생활교육에서 다루고 있다. 미국의 교육행정은 각 주마다 자치권과 재량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성교육 방법은 지역에 따라서 차이가 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성교육을 추진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학교가 성교육을 교육과정에 넣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미국의 학교 교육과정은 각 주마다 다르기 때문에 성교육도 지역

실정에 알맞게 지역과 학교가 공동으로 개발하고 있다. 각주와 학교는 미국 교육부의 교육기준 참고로 교육과정을 개발하게 되는데, 교육부의 기준이나 가이드라인은 법적 구속력을 가지고 있지 않다.

미국 성정보교육위원회의 「포괄적 성교육 가이드라인」은 미교육에 관한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이는 유치원 원아로부터 12년생(고교 3년생에 해당)을 대상으로 한 성교육의 새로운 프로그램의 개발, 기존의 프로그램의 평가를 지원하고 있다. 포괄적 성교육 가이드라인은 생애에 걸쳐서 정보의 습득과 아이덴티티, 인간관계, 친밀성에 관한 태도, 신조, 가치관을 형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포괄적 성(sexuality) 교육의 생각에 근거해서 작성되었다. 가이드라인은 성적 건강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포괄적 성교육의 기본적인 목표로서 다음과 같은 항목을 들고 있다.

① 인간의 성(Sexuality)에 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한다.

② 스스로 성적 태도를 묻고, 조사하고, 평가하는 기회를 제공한다.

③ 인간관계 기술의 형성을 지원한다.

④ 성적 인간관계에 관하여 책임을 다하는 것을 지원한다.

포괄적 성교육의 교육내용으로서 성적으로 건강한 어른이 실천해야하는 행동에 관련하여 6가지의 개념이 제시되고 있으며, 각각의 기본개념에는 5~7개의 과제가 제시되고 있다(표 6-27 참조).

포괄적 성교육은 포괄적인 건강교육의 한 영역으로서 건강증진과 질병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에서 실시되어져야 하고, 전체적인 건강교육에서 가이드라인을 종합해야 된다. 가이드라인은 성교육에는 인지적 측면(cognitive domain: 정보), 정서적 측면(affective domain: 감정이나 가치, 태도), 행동적 측면(behavioral domain: 커뮤니케이션, 의사결정, 그와 관련하는 개인적 기술)의 3가지의 측면에 관한 성의 생물학적, 사회·문화적, 심리적·정신적 차원이 포괄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표 6-27〉 미국 성정보교육위원회의 포괄적 성(sexuality)교육프로그램의 기본개념

기본개념 1 : 인간발달	기본개념 4 : 성행동
• 생식적 해부생리 • 생식 • 사춘기 • 바디·이미지 • 성적(性的)정체성과 지향	• 일생에 걸친 성 • 마스터베이션 • 성 행동의 공유 • 절제 • 인간의 성적반응 • 환상 • 성적(性的)기능 장해
기본개념 2 : 인간관계	기본개념 5 : 성적건강
• 가족 • 친구관계 • 애정 • 데이트 • 결혼과 인생의 관계 • 자녀양육	• 피임 • 임신 중절 • HIV감염을 포함한 성 감염증 • 성적 학대 • 재생산·건강
기본개념 3 : 개인적 기술	기본개념 6 : 사회와 문화
• 가치관 • 의사결정 • 커뮤니케이션 • 자기주장 • 교섭 • 지원을 발견	• 젠더의 역할 • 성과 법률 • 성과 종교 • 다양성 • 성과 예술 • 성과 미디어

2. 독일 사례

독일에서 성교육의 필요성이 사회적으로 제기된 것은 1960년대 중반 이후의 일이다. 1969년 공립학교에서부터 성교육을 시도했으며, 그 후 각 주에서 초등학교 단계부터 교육이 실시되고 있다. 독일의 성교육은 철저하게 생물학과 의학적 측면에 중점을 두고 정확한 과학적 지식을 주는 것에 목표를 두고 있으며, 성행동 자체는 별로 언급하지 않는 것이 특징이라 할 수 있다. 초등학교, 중학교 때에 성의 기본지식을 철저히 가르쳐 놓으면 성행동에 대해서는 사춘기에 가르쳐도 충분하다는 독일식 사고방식과 관련이 있다.

성교육 문제에 있어서 연방정부는 주도권만 가진다. 다만, 국가기구로서 성교육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곳은 헌법재판소로 학교 성교육의 일반적인 학습목표에 대한 규정을 제공하고 그 책임까지도 위임하고 있다. 연방정부의 규정과 헌법재판소의 성교육 지도 원리를 살펴보면 독일의 성교육을 내용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① 연방정부의 규정: 성교육은 특수한 교과를 정해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

생물, 문학, 사회, 종교 속으로 통합되어야 한다. 성교육은 과학적 근거를 지녀야 한다. 그리고 성교육에 대한 수업은 교실에서의 토론을 위한 광범위한 기초를 제공해야 한다. 부모들은 성교육에 대한 주 규정을 알아야만 하고 수업은 교사에 의해 계획되어야 한다. 성교육에 대한 교사훈련은 대학 교육과정의 첫 단계에서 제공되어져야 한다.

② 헌법재판소의 성교육 지도원리 : 개별적인 성교육은 먼저 자신의 아이들을 교육시키기 위한 부모의 자연적인 권리이다. 주는 학교에서 성교육을 합법적으로 수행해야 한다. 학교에서의 성교육은 여러 가치 기준들을 고려해야 하며, 부모의 권리와 그들의 종교, 신앙적 신념을 고려해야 한다. 학교는 젊은이들을 교화하기 위한 어떤 시도도 삼가야 한다. 이와 같은 기본 지침은 학교방침에 따라 정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교육의 내용과 어떻게 가르쳐야 되는가에 대한 방법을 계획하기 전에 이를 부모들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

3. 영국 사례

영국의 학교에서의 성교육은 성과 관계 교육(Sex and Relationship Education: 이하 SRE)으로 실시되고 있다. 영국에서는 각 학교에 보호자, 교직원, 지방교육당국 등의 대표, 교장 등으로 이루어진 학교이사회가 설치되어 있다. 학교이사회는 보호자 등과 상담하고 학교의 SRE의 방침을 의무적으로 작성하게 된다.

SRE의 목적은 청소년의 신체면, 감정면, 도덕면에 있어서 발달을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있다. SRE는 학교·사회에 있어서 아동학생의 정신적, 도덕적, 문화적, 신체적 발달을 촉진하고, 성인이 되었을 때 보다 좋은 생활을 하기 위한 준비를 함과 동시에 오늘날 청소년이 직면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되는 여러 가지 모순이나 압력에 대처하기 위한 지식과 기술을 몸에 익히는 것을 목표로 한다. 또, '가족생활, 사랑과 융합의 안정된 관계, 존경, 애정, 배려의 중요성을 이해한다'는 내용으로 보아 SRE는 '신체적, 논리적, 감정적인·발달에 관한 생애학습으로 파악된다. SRE에서는 ① 태도 및 가치관, ② 인격적·사회적 기술, ③ 지식과 이해 등의 3가지를 주요한 학습요소로 생각한다(표 6-28 참조).

SRE의 기본적인 교육내용은, '이과(理科)'의 국가교육과정에 있어서 의무로 되어있다. SRE의 지도서는 '이과(理科)'의 국가교육과정에는 규정되어있지 않지만 SRE에서 취급해야만 하는 내용으로서 사춘기, 월경, 피임, 중절, 안전한 성행동과 성감염증을 들고 있다. 또, 정부는 SRE가 개인적·사회적 건강교육(PSHE)의 틀에 근거하여 실시되는 것을 기대하고 있고, 오히려 PSHE로부터 '독립해서는 효과적인 성교육은 실시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다. PSHE 자체도 성교육에 관련하는 교육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PSHE의 목적은 첫째, 유아 및 아동학생이 자신과 책임성을 발달시켜 능력을 최대화 하게 하고 둘째, 건강하고 안전한 라이프스타일을 형성하며 셋째, 좋은 인간관계를 발달시켜, 다양성을 존중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식, 기술, 이해를 몸에 익히는 것을 지원하는 것이다. PHSE는 학교생활의 여러 가지 장면에서 학교 전체의 대처방안으로서 실시하는 것이 장려되고 있다. PHSE의 틀 가운데 실시되는 SRE에서는, 유아 및 아동학생은 조기부터 인간관계에 있어서 학습하기 시작하여, 발달단계에 맞추어 성에 관한 적절한 내용을 학습해 가는 것으로 한다(Qualifications and Curriculum Authority, 2000).

영국에서는 이것을 「Healthy School Programme」이라고 부른다. 학업을 포함하여, 아동의 목표달성을 지원하기 위해 그들의 건강과 건전한 발달을 촉진하는 교육과 학습 환경의 제공에 적극적인 학교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실시되고 있다. 이것은 학교, 가정, 지역의 교육관계, 지방자치체를 포함하는 지역사회가 연대해서 학습 환경의 정비를 포함해서 지역에 뿌리가 내린 건강교육 프로그램을 공동으로 개발·실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표 6-28〉 성과 관계 교육(SRE)의 3가지 요소 및 그 내용

구분	내 용
태도 및 가치관	◦ 가치관과 개인적 양심의 중요성과 도덕적인 배려의 학습 ◦ 자녀양육을 위한 가정생활, 결혼, 사랑과 융합의 안정된 인간관계의 가치에 대한 학습 ◦ 존중, 애정, 배려의 가치에 대한 학습 ◦ 도덕적 딜레마의 조사, 숙고, 이해 ◦ 의지결정의 일부로서의 비판적 사고의 발달
인격적·사회적 기술	◦ 감정과 인간관계에 자신을 가지고 진중하게 대처하기위한 학습 ◦ 자기존중과 타자에 대한 공감의 발달 ◦ 다양성의 이해를 근거로, 편견이 없는 선택을 하기위한 학습 ◦ 선택한 것의 결과에 대한 평가의 발달 ◦ 모순의 대처 ◦ 착취와 학대의 인식과 회피의 방법에 대한 학습
지식과 이해	◦ 발달 단계에 적절한 신체적 발달의 학습과 이해 ◦ 인간의 섹슈얼리티, 생식, 성적 건강, 감정과 인간관계의 이해 ◦ 피임, 지역과 나라에 의한 성적 건강에 관한 어드바이스, 피임, 지원 서비스에 관한 학습 ◦ 성적 생활을 지연시키는 이유, 지연시키는 것에 의한 이익에 대한 학습 ◦ 계획하지 않은 임신에 대한 회피

4. 스웨덴 사례

스웨덴에서는 성교육이 가장 오래 전부터 의무적으로 실시되고 있다. 1944년에 성교육이 공립학교에서 실시되었고, 1956년 7~15세에 대한 성교육을 의무화하면서 남녀 학생을 구분하지 않고 교사도 남녀 구별 없이 담당하도록 하였다. 이때 왕립교육위원회에서 교사용 지도서를 발행하였다. 학교 성교육의 목적은 생물학적 사실을 가르치는 동시에 인격을 형성하는데 필요한 지식을 주는 데 있다. 탁아소에서부터 시작되는 성교육은 4~5세 어린이들에게는 그림과 만화책 등을 통하여 남녀의 신체 구조적 차이를 인식시킨다. 학교교육에 있어서의 성교육은 1977년부터 「Sexuality and Personal Relationship」으로서 실시되고 있다. 이는 과목으로 규정되어 있지는 않지만 학교장이 전체적인 실시의 책임을 지고 학제적인 교육분야의 하나로서, 스웨덴의 커리큘럼으로 자리 잡고 있다. 이는 주로 '생물' 교과에서 다루고 있으며, '체육·보건' 교과에서도 학습기회가 있다. '체육·보건'과에서는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발달에 관해 학습하고 있고, 건강한 라이프스킬의

형성을 향한 개인적 기술, 인간관계 기술에 관한 학습도 포함되어 있다.

한편, 스웨덴에서 성평등(gender equality)에 관해서는 「Sexuality and Personal Relationship」의 교육과는 별도로 국가 커리큘럼의 기본적인 가치로서 명확하게 나타내고 있다. 학교에서의 성교육은 초등학교 저학년을 위한 예비교육, 11~13세, 14~16세, 17~20세 등 4단계로 구분되어 운영된다. 초등학교 저학년에서는 남녀 양성의 차이, 수정과 임신, 출산, 태아의 성장과정을 배우게 된다. 11~13세에는 남녀의 차이, 성기의 구조와 기능, 2차 성징, 자위행위, 수정의 과정, 임신과 태아의 발달, 출산, 성의 결정, 임신 중의 태교 등에 대해서 배우게 된다. 14~16세에는 성기의 구조와 기능, 임신과 태아의 발달, 출산에 대해서 중복 학습을 하게 되며, 청소년기의 성문제, 혼인 외의 자녀, 유산, 성병, 피임 등에 대해서 새롭게 배우게 된다. 17~20세에는 성도덕과 성의 사회성, 가정의 소중함, 출산 및 육아와 관련된 복지정책, 가정에서의 성교육 등을 배우게 된다. 스웨덴의 성교육은 저학년부터 상당히 구체적이고 실감 있는 교육을 받게 된다. 성교육에 대한 교재는 영화까지 제작하여 수업시간에 활용하고 있으며, 교육내용은 매우 현실적이고 상세히 다루어진다. 학교 성교육의 특징은 초등학교 초기에 인간의 성과 생리에 대해서 철저히 가르치고, 중학교 초기에 실제적인 피임기술을 가르친다. 아울러 성에 대한 올바른 윤리관을 심어줌으로써 성을 유희나 쾌락의 대상으로 삼지 않고, 남녀가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출산하는 건전하고도 성스러운 행위로 인지시켜 도덕적 타락을 막으려 노력하고 있다.

학교에서는 상담실을 설치해 놓고 성에 대한 고민을 심리사나 보건교사와 상의하도록 하고 있다. 상담 후 필요한 경우 산부인과 의사의 진찰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본인이 원하면 상담실을 통해서 이루어진 일은 부모에게 비밀로 해 준다. 학교 측은 성관계로 사고가 발생하면 중벌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학생의 걱정거리를 귀담아 들어주고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하는데 도움을 주고 있다. 이런 이유로 청소년들의 혼전성교 비율은 높지만 10대 임신, 낙태 등의 문제는 다른 나라와 비교하여 대단히 낮다.

5. 덴마크 사례

덴마크에서는 1970년 학교에서 성교육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법안을 통과시켰으며, 1971년 초등학교 교육과정에서부터 성교육을 의무화하였다. 1975년 공립 학교령은 늦어도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는 성교육이 시작되어야 한다고 규정하였다. 초등학교 성교육은 7~9학년 사이에 집중적으로 이루어진다. 성교육 교사가 따로 있는 것은 아니며, 담임교사가 자신의 학급 성교육을 담당하게 된다. 성교육의 목표는 학생이 스스로의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독자적인 능력과 책임의식, 인간관계에 대한 이해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고등학교에서의 성교육은 보다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성의 의미, 성에 대한 책임감, 피임의 종류와 방법 등에 대한 내용을 배우게 된다. 성교육 시간은 생물수업의 한 부분으로 총 3~4주 동안 1주에 3시간 정도가 배정된다.

덴마크의 성교육은 학교 교사가 맡는 비중이 대단히 크다. 하지만 교사 외에도 학교 의사와 청소년클리닉의 영향력도 상당하다. 학교 의사는 1명이 10~20개의 학교 학생의 성교육과 건강검진을 담당하게 된다. 덴마크 가족계획협회가 운영 중인 피임클리닉도 청소년의 성교육을 위해서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피임클리닉에는 간호사가 상주하며, 의사는 환자와 약속이 되면 병원에서 만나게 된다. 초등학생들은 성교육 과정에서 한번쯤 이 클리닉을 방문하여 피임이나 임신에 대한 정보를 학교에서 보다 더 자세히 얻게 된다. 피임클리닉에서는 피임법을 상담해 줄 뿐만 아니라 불임시술 등을 할 수도 있다.

6. 일본 사례

일본의 학교에 있어서 성교육은 학습지도 요령의 내용을 기초로 하여 학교의 교육활동 전체를 통하여 행해지고 있다. 일본의 학교 성교육은 미국, 영국, 스웨덴의 학교에서 실시되고 있는 성교육과 기본적인 부분에서 유사하다.

일본에서 학교 성교육을 실시할 때의 유의점으로도 성교육의 내용의 선택이나 그 취급에 있어서는 '교원, 보호자, 지역의 사람들의 동의를 얻을 수 있는

내용이라는 것'이 지적되고 있다(일본 文部省, 1999). 이는 학교 성교육을 위해 학교, 가정, 커뮤니티 등이 합의를 얻을 수 있을 때까지 충분히 의논하여 방침을 정하도록 한 영국의 방법을 수용한 것이다.

일본의 성교육의 궁극적인 목적은 '학생의 인격완성과 풍부한 인간형성'이다. 그 내용은 '인간의 성을 인격의 기본적인 부분으로서 이해하고 생리적 측면, 심리적 측면, 사회적 측면 등으로부터 종합적으로 파악하여 과학적 지식을 전하는 것과 함께 학생 스스로 생명존중, 인간존중, 남녀평등의 정신을 기본으로 올바른 이성관을 갖고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의사결정의 능력을 몸에 익혀 바람직한 행동을 취하도록 하는 것'이다. 또한, 일본의 성교육은 기본적인 목표에 따라 ① 자기의 성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 필요한 내용, ② 남녀의 인간관계 육성에 필요한 내용, ③ 가족이나 사회의 일원으로서 필요한 성에 관한 내용 등 3가지의 영역에 관해서 고려되고 있다.

교육은 교사가 가르치는 것에서부터 학생의 자발적인 학습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이행해 가고 있다(일본 中央教育審議會, 1996). 학교에 있어서 성교육은 학생의 학습을 지원하는 것으로 하는 기본방침에 있어서도 영국과 일본은 비슷하다.

일본의 학교에 있어서는 양호교사나 학급담임 등이 성에 관한 개별지도를 행하도록 되어있고, 학생은 개별적으로 교육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되어있다. 그러나 영국과 같이 학교와 지역의 전문가 등이 연대하여 학생에게 지원을 제공하거나 학생 스스로 지원을 요구할 수 있는 교육적 배려나 지도방침은 나타나 있지 않다.

최근 일본에서도 학생의 성 피해가 심각하고, 그 영향의 크기가 인식되는 듯하다. 일본에 있어서도 학교와 지역이 연대해서 학생이나 지역 청소년을 지원하는 체제를 갖추기를 바라고 있다. 학교에서 행하는 성교육에는 학교나 교사, 보호자 이외 폭넓은 사회의 사람들의 의견이나 사고방식도 반영되고 있다.

7. 외국 사례의 시사점

미국과 영국의 학교 성교육은 공히 지식이나 이해, 가치관과 태도, 라이프스킬 형성의 3가지를 주요 요소로 하고 있다. 미국, 영국, 스웨덴, 일본 등에서 시

행되고 있는 성교육의 공통점은 개인의 자부심 향상이나 자신감, 책임감 등의 발달과 인간관계를 기반으로 아동이 성, 성적 건강, 가족생활, 살아가는 방법 등을 취급하기 위해 필요한 지식 획득, 이해, 가치관, 태도, 라이프스킬 등의 형성을 지원하는 것이다(National Guidelines Task Force, 1996; Department for Education and Employment, 2000; Erik Centerwall and Skolverket, 2000). 이들 국가의 학교 성교육은 기본적으로 가정의 성교육을 보충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보호자나 지역사회 등과의 연대를 중시하고 있는 가운데에도, 특히, 보호자와의 연대를 불가결한 요소로 하고 있다(National Guidelines Task Force, 1996; 日本文部省, 1999).

가. 인간관계를 기반으로 한 성교육

미국과 영국에서는 초등교육단계의 초기부터 인간관계에 관한 지식이나 이해, 방법 등을 지원하는 교육을 실시하고 하고 있다. 그리고 학생들의 발달단계나 교육단계의 진행에 따라 인간관계를 기초로 해서 임신이나 출산, 육아, 피임, 성감염증 등의 성에 관한 여러 가지 과제를 포함하도록 하고 있다(National Guidelines Task Force, 1996; Department for Education and Employment, 2000).

스웨덴의 학교 성교육은 상호간에 개인의 가치, 인권존중, 인간관계의 교육으로써 실시되고 있다(Erik Centerwall and Skolverket, 2000). 인간관계는 일본의 학교 성교육에서도 중시되고 있고(일본 文部省, 1999), 유럽과 미국의 성교육에서도 공통의 과제로 다루어지고 있다. 유럽과 미국의 학교 성교육에서 양호한 인간관계의 구축은 성교육의 여러 가지 과제를 수행하기 위한 기반으로 다루어지고 있다고 판단된다.

나. 라이프스킬 교육의 도입과 내용구성

라이프스킬 형성은 유럽과 미국, 일본의 학교에서 실시되는 성교육의 공통과제이다. 라이프스킬 교육을 도입하는 경우에는 그 학교의 계통성이나 학습환경의 정비를 배려할 필요가 있다(WHO 라이프스킬 프로그램, 1997). 특히, 성교육에 있어서는 아동의 발육단계, 마음의 준비를 고려한 교육의 구성, 계획, 실

시가 중요하다(文部省, 1999).

미국과 영국의 성교육은 초·중등교육기간에 일관해서 지식이나 이해, 가치관과 태도, 라이프스킬 형성의 세 가지 요소를 중심으로 아동 및 학생의 발달단계, 교육단계에 맞추어 구성된다. 성교육이 실시되는 기간 전체를 통찰하고, 아동의 신체적, 정신적 발달 및 인간관계의 발달, 성에 관한 지식이나 이해의 형성과 라이프스킬 교육을 종합해서 구성된 것이 효과적인 교육으로 이어진다고 생각된다. 또한 학생의 라이프스킬 형성을 기반으로 하는 성교육의 학습 환경 만들기 위해 학교, 가정, 지역 커뮤니티 등의 연대는 불가결한 것으로 생각된다(WHO 라이프스킬프로그램, 1997). 학교, 가정, 커뮤니티 등의 연대는 일본, 유럽과 미국 등 대부분의 성교육에 있어서 중시되고 있다. 미국의 경우 학교 성교육은 보호자에 의한 성교육을 보완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어 학교, 보호자, 지역 및 관련 조직 등에 각각의 책임을 보다 명확히 하고 연대를 강화하는 것으로 판단된다(文部省, 1999; National Guidelines Task Force, 1996; Department for Edudation and Employment, 2000; Erik Centerwall and Skolverket, 2000).

다. 성에 관한 위험행동에의 대응

일본을 포함해 미국, 영국, 스웨덴에서 성교육이 중시되고 있는 배경에는 청소년의 성을 둘러싼 사회문제, 건강문제가 있다.

미국 질병관리예방센터는 청소년의 건강을 둘러싼 위험행동 6개 영역을 보여주고, 그 영역은 ① 흡연, ② 불건강한 식습관, ③ 불충분한 신체활동, ④ 음주와 그 외의 약물사용, ⑤ HIV감염이나 그 외의 성감염증과 원하지 않는 임신을 초래하는 성행동, ⑥ 폭력과 불의의 사고로 인한 장해를 초래하는 행동 등이다(Center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2002). 청소년의 성을 둘러싼 사회문제, 건강문제 등이 모든 영역에 관여되어 있다. 또한 성교육 주제의 하나인 신체와 건강에 관한 과제는 식습관이나 신체활동 영역의 과제가 되고 있고, 성적학대나 성적 착취는 폭력과 불의의 상해를 초래하는 행동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된다. 이러한 것들로부터 성에 관한 위험행동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성교육과 그 외의 건

강영역에 관한 교육을 관련지어서 실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유럽과 미국의 학교 성교육은 단순히 아동의 위험행동 예방만이 아닌 아동의 건전한 발달을 지원하고 어른으로서의 생활을 준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인격형성을 목표로 하는 라이프스킬 교육도 자부심의 향상을 포함해 보다 좋은 인간관계의 구축이나 책임 있는 행동의 실천과 결합되는 개인적 기술, 사회적 기술 등이 고려된다.

미국, 영국, 스웨덴의 학교교육에 있어서는 포괄적인 아동의 발달과 건강촉진에서부터 성교육이 고려되고 있다. 즉 미국과 유럽에서 성교육은 인간관계나 생활방식까지 포괄하는 개념으로 받아들이고, 아동의 보다 나은 인간관계 구축과 생활방식 추구가 위험행동의 예방으로 다루어지고 있다.

라이프스킬 형성을 기반으로 하는 성교육은 성문제에 대처하는 것이나 위험행동을 예방하는 것을 포함해서 보다 나은 인간관계의 구축, 보다 나은 생활방식의 추구를 목표로 해서 계획·실시된다.

라. 건강교육, 건강증진과 성교육

미국 학교에서의 성교육은 포괄적인 건강교육, 건강증진의 관점에서 실시된다. 또, 영국의 학교에 있어서 성교육은 학생의 인격, 사회성의 발달과 건강의 촉진을 지원하는 개인적·사회적 건강교육(PSHE)의 틀 속에서 이루어진다. 스웨덴의 교과서는 성교육이 다른 건강교육과 분리되지 않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 내용들로부터 유럽과 미국에 있어서 성교육은 관련 있는 교과 교육을 포함하여 다른 건강영역의 교육과 관련지어 실시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미국 성정보교육위원회 가이드라인은 성교육 내용을 포괄적인 건강교육 차원에서 고려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또, 스웨덴에 있어서 성교육의 교육내용은 생물, 체육, 보건 뿐 아니고 역사, 지리, 사회과학과 관련된다. 건강의 유지 증진에 관한 사회적 조건까지 포괄하는 건강증진(Health Promotion)의 관점은 건강영역이나 사회교육과 연대하는 포괄적인 성교육의 구성을 뒷받침 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영국의 PSHE는 라이프스킬 교육이 건강증진이나 여러 가지 건강문제, 사회문제에 대처하기 위한 교육으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성교육도 라이프스킬 교육에 포괄하여 구성하고 있다. PSHE의 틀 안에서 실시되는 SRE는 포괄적인 건강교육 내에서 구성된 구체적인 성교육 사례라 하겠다.

이와 같이 여러 가지 건강영역이나 교과의 상호관련성을 고려하여 성교육을 계획하고 실시하는 것은 건강증진의 관점에 부합한다.

일본의 학교 성교육도 ① 성의 자인(自認), ② 인간관계의 형성, ③ 사회성이나 과제에 대처하는 능력의 육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즉, 라이프스킬의 형성과 생활방식의 육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하겠다. 일본의 학교 성교육도 많은 점에서 유럽 및 미국과 공통되는 점이 있다(文部省, 1999).

제 6 절 학교 성교육 개선방안

1. 학교 성교육 기본방향

가. 성교육의 의미

성교육은 성에 관한 과학적인 지식과 함께 관련된 사회규범을 지도하는 것이며, 남성과 여성의 정신적·육체적인 관계를 건전하게 하기 위한 지도 또는 대책이다. 인간의 성은 생리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심리적, 사회적 나아가 도덕적 측면이 다양하고 복잡하게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성교육은 단순히 인간의 생리적 구조나 기능 그리고 해부학적 지식을 전달하는 것뿐만 아니라 심리적, 사회적 측면에서 다루어져야 한다. 성교육은 건전한 남녀관계를 위하여 남녀가 제각기 지니고 있는 특성과 역할을 이해하고 인간으로서 행복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며 이성을 보는 올바른 관점을 갖도록 하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성교육은 인간존중의 정신에 입각한 인간교육 그리고 지(知), 덕(德), 체(體)의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전인교육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따라서

성교육은 학교에서 국한되어 실시할 것이 아니라 학교, 가정, 사회가 유기적인 관계를 가지고 정신적, 신체적 발달단계에 맞게 체계적으로 일관되게 이루어져야 한다. 앞에서 살펴 본 것처럼, 외국의 경우는 성교육에 관한 슬라이드·VTR 등 각종 시청각 자료가 개발되어 학교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활발한 성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

한편, 학교 성교육은 학생들의 정신적, 육체적 성장을 돕는 교육이며, 사회나 집단의 일원으로서 뒤떨어지지 않는 인격완성을 위한 성의 위치를 재확인하는 교육인 동시에 남녀가 원만하게 성문제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학교 성교육은 청소년들이 건강한 인격체로서 서로 다른 인격체와 만나 공동체를 이루고 살아가는데 필요한 성과 관련된 정보, 성적 의사결정의 기술과 가치, 성의 주체자로서 가질 수 있는 권리와 책임 등을 배울 수 있는 교육이 되어야 한다.

나. 학교 성교육의 기본목표

향후 학교 성교육의 목표는 첫째, 학생들에게 일상생활에 필요한 바람직한 습관을 길러 주는 것이다. 성교육의 목표는 학생 자신의 몸을 깨끗이 하고, 신체의 안전을 도모하며, 규칙적인 생활을 유지하는 것이다. 이는 학생들로 하여금 건강한 생활의 기본이 되는 올바른 생활습관을 길러 주는 것이 성교육의 초석이 된다는 신념에서 나온 것이다. 학생들의 학교교육을 통한 올바른 생활습관의 체득은 가정 안에서 부모, 형제, 친척 등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한편, 가정 밖에서는 친구, 이웃 등과도 원만한 관계를 형성·유지하면서 행복한 집단생활을 영위해 나가는 생활 습관을 배양한다.

둘째, 지적 학습을 통하여 학생들로 하여금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성지식을 갖게 하는 것이다. 학교 성교육의 목표는 학생으로 하여금 남녀의 생리적 구조와 기능, 남녀의 심리적 특성과 역할, 남녀 간의 평등, 신뢰, 존경, 협력에 입각한 사회적 관계 등에 관해서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지식을 가지게 하는 것이다.

셋째, 학생들이 성에 대한 올바른 의식을 갖게 하고 분별력 있는 성윤리를 확립하게 하는 것이다. 성교육의 목표는 이미 형성된 기본 생활습관과 체계적이고 과

학적인 성지식을 바탕으로 하여 올바른 성의식과 성윤리를 형성하게 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성교육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학습목표는 첫째, 현실적이고 올바른 성지식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다. 성이 몸과 뗄 수 없는 관계임을 인정한다면 몸에 관한 과학적 지식이 성교육에 포함되는 것은 당연하다. 때로 청소년들은 과학적 성지식의 부재로 인하여 필요 이상의 고민과 갈등을 하게 되며 신체의 변화에 대해 흔히 당황과 불안에 휩싸이게 된다. 따라서 성에 대한 정확한 지식 전달을 통해 불필요한 고민과 갈등을 제거하고 비판적 사고력을 키우는 동시에 왜곡된 성지식을 교정하는 작업을 강화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성교육에서는 사춘기 몸의 변화, 성기의 생리적 구조와 기능, 심리적 특성 등에 대해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지식을 가르쳐야 한다.

둘째, 성문제를 예방한다. 개인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문제를 초래하는 성문제에는 성폭력, 성병, 에이즈, 미혼 부모, 매매춘 등이 포함된다. 이들 성문제가 모두 한 범주로 묶일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현실적으로 성폭력이나 성병은 보다 실제적인 교육이 되어야 하며, 미혼 부모 문제나 매매춘 문제는 인간관계 교육에서 병행되어야 한다. 성교육에서 성문제를 다루어야 하는 당위성에도 불구하고 그동안의 성교육은 주로 성문제를 예방하기 위한 차원에서만 진행되어 왔다. 따라서 이제부터의 성교육은 성폭력이나 성희롱을 예방할 있는 힘을 기르는 교육이 되어야 하며 10대 임신으로 인한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한 다양하고 실제적이며 사실적인 교육이 되어야 한다. 또한 이들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단기적인 처방보다는 건전한 성가치관, 성윤리 의식의 성숙을 위한 교육이 마련되어야 한다.

셋째, 성적 의사결정력을 키운다. 성적 행위는 일순간에 끝날 수도 있지만 그 결과는 삶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현재 우리 사회 곳곳에는 다양한 형태의 성이 포진하고 있다. 이러한 현실에서 청소년들은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성적 의사를 결정해야 하는지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다. 또한 성교육을 통하여 청소년들은 갈등할 수 있는 상황에서 책임과 자율이 함께 따르는 성적 주체성을 기를 수 있어야 한다. 또래집단의 압력에 밀려서 또는 분위기에 휩쓸려서 섣부른 결정을 내리기보다는 행위자 자신에게 가장 편안함과 당당함을 주는 의사결정을 내리는 것이 훈련되어야 하는 것이다.

넷째, 성 표현물에 대한 비판적 사고를 갖게 한다. 최근 텔레비전이나 잡지, 광고 등 대중매체에서 노골적인 성적 표현이 많아짐에 따라 사춘기에 있는 학생들은 물론 어린이들까지도 필요 이상으로 성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었다. 똑같은 성 장면을 보더라도 어린이나 청소년들은 자신이 경험해 보지 못한 영역이라는 점에서 어른보다 더 자극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청소년기는 생리적으로 성적 충동이 강한 시기이다. 우리 사회는 이러한 성적 욕구를 통제하거나 건전한 방향을 발산시킬 수 있는 여건이 턱없이 부족하다. 오히려 왜곡된 성정보로 청소년들의 성충동을 더 자극하고 유혹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학생들이 음란 인쇄물이나 영상물을 접촉하지 못하도록 막는 것에는 현실적인 한계가 있고 거의 불가능하다. 이미 대부분의 학생들이 어떤 형식으로든 음란물을 접촉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청소년들의 실태를 직시하여 음란물의 사회적 의미와 상업성 등에 대해 다루고 학생들의 토론을 통해 접촉 소감이나 영향을 논의하게 하여 유해한 성문화에 대한 올바른 비판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다섯째, 성평등 교육을 실시한다. 성평등 교육은 남녀의 생리적 구조와 작용이 다르다는 것이 차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님을 이해하는 것이다. 또한, 남녀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배려해야 할 부분과 배려 받아야 할 부분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다. 성교육은 남성다움과 여성다움을 가진 남녀 사이에 의사소통의 다리를 놓는 교육으로 잘못된 성문화를 개선하는 것이다.

여섯째, 생명에 대한 존중감을 키운다. 여성과 남성의 성적관계를 다룰 때 제일 다루어야 하는 것은 생명이다. 생명은 사랑의 열매이며 가정을 완성하고 인류를 유지 발전시켜주는 인간 생활의 기본이다. 생명의 입장에서 봤을 때 성은 매우 자연스럽고 신비롭다. 그런데 우리의 성문화는 생명의 관점은 빠지고 성하면 유방, 성기, 섹시함 등이 먼저 연상되는 성기 중심적인 성문화가 근간을 이룬다. 성을 성기 중심적으로 생각하면, 그것은 떳떳하지 못하고 부끄럽고 감춰야 하는 것이 된다. 따라서 성과 생명을 연결시키는 성교육을 실시할 때 잘못된 성문화를 개선할 수 있다.

일곱째, 인간관계 교육을 실시한다. 성이란 인간의 총체적인 모습이다. 인간의 성에는 성적인 지식, 신념, 태도, 가치관, 행동 등이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성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성기나 성호르몬의 생리적 기능을 아는 것만으로 끝나지 않는다. 인간의 생물학적 본능이 인간의 삶의 패턴을 결정하지는 않는다. 그것은 인간이 사회적 관계를 맺을 때에 비로소 그 가능성과 한계를 조건 지을 뿐이다. 이런 의미에서 성교육은 인간관계 교육이 되어야 한다. 인간관계를 위한 성교육은 남녀 간의 올바른 관계와 삶의 자세를 바로 세우는 데 있다. 이는 남녀 양성이 결합하여 이루어지는 이성교제, 사랑, 연애, 결혼, 가족 등에 있어 각각 남녀의 결합 관계를 바르게 세우는 것이다. 따라서 성 교육은 성지식을 전달하거나 성도덕만을 이해시키는 것이 아니라 인격 속에 성에 대한 건전하고 올바른 의식 및 자각을 길러주어야 한다.

다. 학년별 성교육 목표

1) 초등학교

초등학교에서의 성교육은 교과활동과 특별활동을 통하여 실시되며, 각 발달단계에 적합한 성지식을 제공하여 올바른 성의식과 상호 존중하는 태도를 지니도록 해야 한다. 세부 학습목표를 다음과 같이 고려할 수 있다.

① 자신은 부모로부터 태어난 소중한 존재임을 깨닫는다.
② 부모, 형제, 친척과의 혈연관계를 이해하고, 서로 사랑하고 돕는 생활태도를 배운다.
③ 자신이 소중한 만큼 주변 친구들도 소중한 존재임을 깨닫게 한다.
④ 남녀의 신체적 차이를 정확히 이해하고 남녀 역할의 기본적 특성을 이해한다.
⑤ 신체발달에 따른 정신적 성숙의 필요성을 인식시킨다.

2) 중학교

중학생 시기는 신체의 성장 속도가 급속히 이루어진다. 이 시기의 학생들은 에너지가 왕성하고, 신체적 변화에 따른 심리적 변화도 커질 뿐만 아니라 개인차도 현격하다. 따라서 중학교에서의 성교육은 학생들의 개성신장을 도모하고,

지적 발달의 성숙과 원만하고 발전적인 인간관계를 이룩하는 태도를 길러주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세부 학습목표를 다음과 같이 고려할 수 있다.

① 신체발달에 대한 남녀 간과 개인 차이를 알게 함으로써 자기 성장을 바르게 이해시킨다.
② 2차 성징의 발현에 따른 성적 에너지의 역할을 이해시키고, 이를 승화시킬 수 있는 창의적이고도 자율적인 생활태도를 길러 준다.
③ 남녀관계에 있어서 평등성과 상호 존중의 개념을 이해시킨다.
④ 순결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건전한 성 윤리관을 갖도록 한다.
⑤ 남녀 각각의 성에 적절한 행동과 역할을 인식시킨다.
⑥ 이성교제, 사랑, 연애, 결혼, 가족 등의 개념을 이해시킨다.

3) 고등학교

고등학교 시기는 청년기에서 성인기로 이행하는 준비기간으로 신체적, 정신적 성숙에 대한 이해를 확실히 하여 건전한 심신관리를 도모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성에 대한 바른 이해와 분별 있는 태도를 길러야 하고, 직업인으로서 그리고 가정의 주인으로서의 모든 준비를 도모해야 한다. 세부 학습목표를 다음과 같이 고려할 수 있다.

① 남녀의 신체구조 차이와 새로운 생명체를 탄생시키는 과정을 이해시킨다.
② 성기능의 중요성을 이해시키고, 성윤리 의식을 고취시킨다.
③ 이성에 대한 관심, 사랑의 의미, 성생활, 피임 등을 이해시킨다.
④ 결혼이 갖는 의미와 가족의 의미를 이해시킨다.
⑤ 새로운 생명체 탄생으로서의 임신의 중요성, 과정, 분만 및 육아 방법을 이해시킨다.
⑥ 가족계획의 기본개념을 이해시키고 가족에 대한 가치관을 정립시킨다.

2. 학교 성교육 내용과 방법

가. 성교육 내용

첫째, 청소년들의 정상적인 고민과 궁금증을 해결해 주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성교육 내용을 청소년들이 궁금해 하는 내용으로 구성함으로써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다. 청소년기에는 성에 대해 알고 싶은 것도 많고 궁금한 것도 매우 많은 시기이며 이러한 현상은 당연한 것이다. 이제까지의 생식적인 측면을 강조하는 성교육보다는 학생들의 요구에 입각한 구체적인 성교육이 필요하다.

둘째, 음성적인 성에 관한 호기심을 양성화하여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을 갖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사춘기의 성호르몬의 변화는 강한 성적인 충동과 호기심을 유발시켜 성적인 욕망이 증대된다. 따라서 이 시기의 증대되는 성적 욕망을 잘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성을 상품화하는 잘못된 사회적 문화를 비판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셋째, 성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을 형성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성교육은 성과 관련된 지식전달이나 순결교육도 중요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성과 관련하여 스스로 판단하고 행동할 수 있는 의사결정능력을 키울 수 있는 교육이 되어야 한다. 성에 대한 잘못된 정보나 편견을 없애주고 건전하게 사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성교육의 궁극적인 목적은 성에 대해 바르게 인식하고 나이가 자신의 성적인 삶을 원만하게 이끌어 나가는데 있다.

넷째, 성폭력의 가해자나 피해자가 되지 않도록 적절한 지식을 가르친다. 성폭력의 심각한 문제점을 학생들에게 알리고 가해자나 피해자가 되지 않도록 교육시키는 일이 필요하다. 자기 자신의 몸에 대한 권리, 즉 각자의 신체는 각자의 것이므로, 타인에 의해 내 몸이 함부로 다루어져서는 안 되며, 또한 타인의 신체도 함부로 다루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인식하도록 해야 한다. 즉 일상생활에서 자신의 몸을 잘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주어야 한다.

나. 성교육 운영 방법

현재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많은 성교육은 이론적이고 교과서에 의존하는 방법으로 청소년들의 궁금증을 해결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본 조사결과에서 학교에서 성교육을 받은 비율은 높게 나타나지만 학교 성교육이 도움이 되었다는 긍정적인 응답은 매우 낮게 나타나고 있어, 학교 성교육이 성 고민 해결에는 크게 기여하지 못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성교육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우선 수업형태를 변화시켜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성교육 시간은 강의식, 주입식 교육을 벗어나 소규모 집단의 대화와 토론 및 논의 형태로 수업을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성교육에 필요한 지식은 물론 정확하게 전달해야 한다. 그러나 각 학생들의 의식, 윤리, 도덕의 문제는 학생들이 소집단으로 나누어 서로의 경험을 나누고 문제의 해결과 대책을 스스로 찾을 수 있는 토론식 수업이 효과적이다. 바람직한 성교육을 위해서는 수업내용에 따라 다양한 방법으로 접근해야 할 것이다. 또한 이론 보다는 실제 경험사례가 많이 인용되어야 한다.

성교육 담당자로는 주로 기술가정과 교사, 보건교사, 체육교사 등이며 현재 대부분의 교사들은 성교육을 받은 경험이 없어 성교육에 대한 이해와 지식이 부족하다. 성교육에 대한 일반교사들의 적극적 협조 없이 성교육은 그 효과를 기대하기 힘들다. 성교육은 특정교사에 국한된다는 사고의 전환이 필요하다. 특히, 담임교사의 경우 학급 학생들의 생활전반에 대해 관심을 기울여야 하므로 청소년 시기에 나타날 수 있는 성관련 문제에 대한 폭넓은 이해가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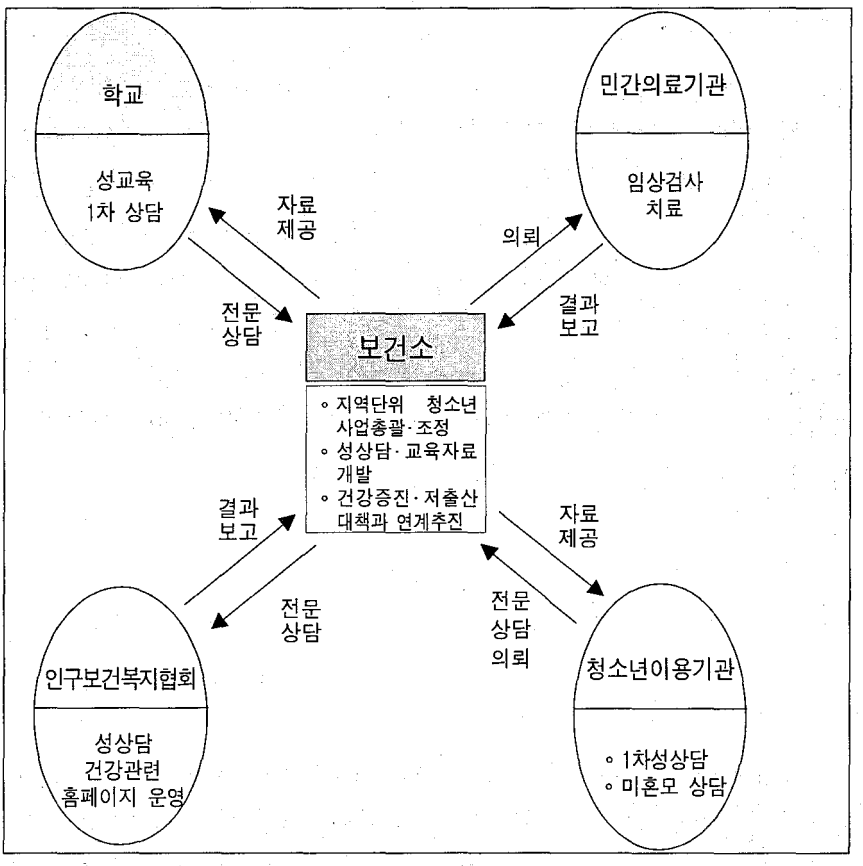
3. 지역사회와의 연계방안

가. 지역사회 연계모형

지역사회에서 청소년 성교육과 관련된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주요 기관은 학교, 보건소, 청소년 상담기관, 청소년 이용기관, 민간단체 등이다. 이들 기관 간에 효율적인 연계가 구축될 때 최대한의 사업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한 지역사회의 성교육 관련 사업의 효과성은 단순히 개별 기관들이 효과성을 합한 것 이상의 조직간 연계에 의해 발생하는 전체적인 효과성으로 파악될 수 있다. 개별 기관들에 의하여 개별사업 중심의 접근 방법으로 성교육 관련 사업을 운영하게 되면 수요자의 필요한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파편화된 욕구를 확대 재생산하게 될 뿐만 아니라 각 기관이 갖는 장점을 전문적으로 육성하지 못하고 나열식의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그림 6-10] 지역사회의 성교육 사업의 연계방안



이러한 점에서 성교육을 추진할 경우 지역사회에서 관련 기관간의 연계방식은 중요한 관심사가 된다. 본 연구에서는 지역사회 성교육의 연계방안을 [그림 6-10]과 같이 마련하였으며, 관련 기관의 주요 기능은 아래와 같다. 제시된 방안에서는 보건소가 지역사회 청소년 성교육 사업의 중심적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1) 보건소

보건소는 지역사회 청소년 성교육 사업을 총괄적으로 조정하여 민간 및 공공기관간의 청소년 성교육 업무가 연계될 수 있도록 한다. 보건소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청소년 성교육 사업내용은 지역사회 학부모를 대상으로 자녀를 위한 성교육과 관련된 자료를 제공하거나 젊은 여성들에게 임신과 관련된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다. 이러한 사업내용은 그 동안 보건교육, 모자보건, 건강증진 등을 중심으로 보건소에서 실시되고 있으므로 신규 사업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한편, 보건소에서는 학교 및 청소년 상담기관, 사회복지관, 보호시설 등에 성교육과 관련된 보건교육 자료를 제공하거나 필요한 경우 전문 강사나 상담 전문가를 연결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특히 보건소는 미국의 질병예방관리본부(CDC) 경우와 같이 현재 보건소에서 추진하고 있는 건강증진사업의 범주에 청소년 성교육을 포함하여 지역 내 학교 성교육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중추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해야 한다.

2) 민간단체

청소년 성교육과 관련된 대표적인 민간단체는 인구보건복지협회인데, 협회에서는 부설 가족보건의원을 통하여 정관, 난관 등 피임시술을 중심적으로 수행하며, 전문 성상담 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성 상담센터에서는 전문 상담원 및 상담실을 두어 면접상담과 전화상담, 인터넷을 통한 상담을 각 지회별로 실시하고 있어 성교육과 관련하여 민간영역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따라서 동 협회 및 지회를 지역사회 청소년 성교육 활동에 적극 참여시키는 방안이 고려되어야 한다. 특히, 성문제를 일으킨 청소년을 인구보건복지협회의 전문 상담센터에 의뢰하는 방안이 고려될 수 있다.

3) 청소년 이용기관

이용자를 대상으로 정기적인 성교육을 실시하며, 청소년 상담기관 및 사회복지관 등은 일차적인 성 상담을 주요 업무로 수행하고 보호시설은 미혼모 상담을 주요 업무로 수행하고 있다. 일차적인 성 상담 외에 전문적인 상담이 필요한 클라이언트에 대해서는 보건소의 의뢰하여 인구보건복지협회의 전문 성상담센터에 연계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4) 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성교육을 실시하며, 성교육에 필요한 보건교육 자료는 보건소로부터 대여 받도록 한다. 학교에서는 보건교사 또는 체육교사를 중심으로 성상담 교사를 지정하여 일차적인 성 상담을 담당하며, 전문적인 상담이 필요한 학생에 대해서는 보건소의 의뢰하여 인구보건복지협회의 전문 성상담센터에 연계되도록 한다.

나. 학교 외의 성교육 운영 방안

학교와 연계하거나 학교와 별도로 청소년 성문제와 관련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기관은 크게 증가하고 있다. 성문제를 도와주는 기관은 성과 관련된 고민을 상담해주며 성폭력, 청소년 성매매 및 미혼모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도와주는 업무를 하고 있다. 성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기관에서는 학생뿐만 아니라 학부모, 교사에 대한 성교육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다.

각종 성문제로 인해 사회문제가 심각해짐에 따라 성문제를 도와주는 기관은 오래전부터 등장하기 시작하여 자리를 잡고 있으나 건강한 성에 대해 예방적인 측면에서 성교육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운영하는 것은 이제 시작단계라고 할 수 있다. 학교 외의 성교육 활동 방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전문 성 클리닉의 운영

청소년을 위한 성교육 및 성상담 접근성의 확대는 우선적으로 미혼, 특히 10대 청소년들의 성에 대한 금기가 강하게 작용하는 우리사회의 문화적 측면이 고려되어야 한다. 청소년들은 자신들의 성적 행동으로 인해 야기되는 성문제들을 기관 서비스를 통해서 해결하기보다는 또래집단이 제공하는 정보에 의존하거나 무허가 불법기관을 통해서 개별적으로 해결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 실시한 실태조사에서도 성관련 고민의 해결방법으로 '친구/선배'를 통하거나 '혼자 해결'하는 경우가 절반 이상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청소년을 중심으로 하는 클리닉, 서비스센터가 부재한 현실과도 연결된다. 우리사회도 '청소년전문 성 클리닉'을 운영이 요구되는 시점에 와 있다. 국가에서 '청소년전문 성 클리닉'의 운영하는 방안은 청소년들이 갖는 특수성을 반영할 수 있다는 점과 서비스를 꺼려하는 현실적 한계를 극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청소년 성문제 해결의 실질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따라서 국립 '청소년전문 성 클리닉'의 운영은 청소년 성문제를 체계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방안이 될 것이다.

2) 사이버 성상담 지원 강화

인터넷 이용이 생활화되고 있는 10~20대 라이프스타일과 서비스 제공기관의 이용자들의 학력이 대부분 고졸 이상이라는 점으로 미루어 볼 때 앞으로 인터넷을 통한 상담 서비스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인터넷을 통한 성교육, 특히 청소년 성상담이 인터넷을 통해서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현재 민간단체의 「청소년 성상담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사이버를 통한 성상담과 교육이 부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적극적 홍보교육 등으로 인터넷을 이용한 상담·교육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신속하게 모색되어야 한다.

인터넷을 통한 성교육 네트워크 구축은 지역적 차이를 해소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청소년들이 갖는 서비스 접근의 어려움과 제한들을 극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유용한 대안이 될 수 있다. 또한, 학부모를 위한 자녀 성상담, 각종 성교육 자료를 제공하는 성건강 홈페이지를 개설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

제 7 절 소결 및 성교육 실효성 제고를 위한 제언

제6차와 제7차 교육과정운영에 관한 기본지침 중 성교육은 관련 교과와 특별활동을 통해 지도하고 학교교육활동 전반에 관해 실시하도록 되어 있으나, 실제로 학교 일선 현장에서는 피상적이고 형식적인 성교육이 실시될 수밖에 없었다. 2000년 학교 성교육 기본계획에서는 유치원에서 고등학교에 이르기까지 연계된 체계적인 성교육 지침 및 자료의 보급과 담당교사에 대한 연수를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계획은 법적 또는 제도적인 뒷받침이 부재하여 학교 성교육 현장에서는 아직도 많은 문제점이 노정되고 있다. 외국의 경우 성교육과 관련된 법체제의 구축, 성교육 관련 교재 개발 및 운영체제가 구비되어 있으나, 우리나라는 성교육을 종합적으로 기획하고 조정할 수 있는 역할이 부재한 실정이다.

현재 정부에서는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06~2010년)을 수립하여 정부의 행정조직망을 통해 추진하고 있다. 특히 이 기본계획에 포함된 주요 내용은 결혼, 가족 및 출산에 대한 가치관의 변형과 저출산 및 고령사회 친화적 사회환경의 조성 등 대부분의 시책 내용이 시대적 변화에 부응한 가치관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차세대들의 성교육 내용도 저출산 대책과 연계 추진될 수 있도록 학교교육체계가 구축되어야 할 것이다.

전국 규모로 실시된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결과에 의하면 대부분 학생들이 성교육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 성교육의 내용이 학생의 성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큰 도움이 되지 않는 것으로 제시되고 있어 학교 성교육의 양적 제공보다는 질적인 개선이 요망되고 있다. 학교 성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교사조사에서 학교 성교육의 필요성은 대부분 교사가 인정하고 있으나, 교과서 성교육 내용에 대한 교사의 평가는 성교육 내용이 올바른 성가치관을 형성하는데 크게 도움되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으며, 성교육 수업시

교사가 직면하고 있는 애로 사항으로 보조 자료의 부족 등이 제시되고 있다.

한편 성교육에 관한 외국의 사례를 보면, 각국의 여건에 따라 학교 성교육의 추진 방식이 상이하지만 미국의 경우 대부분의 학교가 성교육을 교과과정에 포함하여 실시하고 있고, 미국 질병예방관리본부(CDC)가 주관하는 포괄적인 성교육은 건강교육의 한 영역으로서 건강증진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추진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경우도 학교 성교육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교육인적자원부를 통한 성교육 이외에 전국의 보건소 조직망을 통한 건강증진사업과 연계하여 지역단위 보건소, 학교, 가정이 삼위일체가 된 성교육 협력체계가 구축되어야 한다.

본 분석결과에 기초해 볼 때 향후 올바른 학교 성교육이 추구해야 할 주요 정책방향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인구교육과 성교육은 각각 분리된 형태의 교육과정 개발보다는 성교육이 인구교육에 통합된 형태의 교육과정이 개발되어야 한다. 현재 정부에서 추진 중인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과 관련된 인구교육과 성교육은 상호 밀접히 연관되어 있기 때문이다. 한편, 제7차 교육과정에서와 같이 일선 학교에서 관련 교과목이나 특별활동을 통한 성교육은 실효성이 없기 때문에 통합형태의 인구교육의 법제화나 별도의 정규교과가 제도화 되어야 하며, 불가능한 경우는 시도 단위에서 조례를 제정하여 관련교과나 특별활동을 통해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구체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각 급 교과과정에 포함된 성교육의 내용을 현실에 맞도록 보강해야 하며, 인구 및 성교육을 위한 교과서, 지침서, 기타 교육보조자료 등이 다양하게 개발되어야 한다. 이제까지 청소년의 성교육은 교과내용에 분산하여 체계적으로 발전되어 왔다고 판단되지만, 성과 관련된 청소년들의 궁금증과 고민을 풀어주고 청소년들이 성 문제를 해결하고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보다 구체적인 내용과 방법이 교과 내용에 포함되어야 한다. 인구 및 성교육은 교사나 부모의 언행에 따라 크게 영향을 받는다. 따라서 교사가 인구 및 성에 대한 올바른 태도와 전문적 지식을 겸비 될 수 있도록 연수 프로그램 등을 통해 교사의 전문성을 개발하고, 학부모가 성과 관련된 지식을 학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학교와 가정에서 두루 성교육이 이루어지도록 지원해야

할 것이다. 또한 성교육 자료의 경우 무분별하게 범람하고 있으므로 자료 내용에 관한 검증과정을 통해 수준 높은 자료생산 체계가 구축되어야 한다. 이를 위하여 한국교육개발원 내에 성교육을 포함하는 「학교인구교육개발센터(가칭)」를 설치·운영하는 방안이 적극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

셋째, 성교육을 포함한 인구교육은 학교에서 추진되지만 성상담 및 관련 서비스는 관내 보건소를 중심으로 제공될 수 있는 종합적인 전달체계가 구축되어야 한다. 보건소는 청소년에 대한 성보건 사업이 건강증진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제도화하고, 성교육이 보건소와 학교와 가정이 연계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한다. 이를 위하여 학부모를 포함한 관련 기관 및 단체가 공동주관하는 성교육관련 강연회, 세미나, 성평등에 관한 연극 등 다양한 행사를 정기적으로 개최하는 방안이 검토될 수 있다. 특히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의 내용(건전한 미래세대 육성)에는 성교육과 관련된 세부실천계획의 보완과 더불어 학교, 보건소 등 관련기관 및 단체간의 역할분담이 분명하게 설정되어야 한다.

넷째, 각급 학교의 모든 교사를 대상으로 하는 기초연수과정의 신설과 다양한 연수기회가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인구 및 성교육은 학교생활전반에 걸쳐 모든 교사가 지도할 수 있도록 해야 하기 때문에 다양한 연수기회를 제공하고, 모든 교사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프로그램은 상기 「학교인구교육개발센터(가칭)」에서 수행하도록 한다. 동 센터에서는 각종 교육자료의 개발보급과 강사 양성교육만을 전담하고 지역단위의 강사진이 교사의 연수프로그램은 물론이고 각급 교육원에서 실시되는 훈련사업의 강사요원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제도화되어야 한다.

다섯째, 성행위와 관련된 보다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문제중심으로 성교육이 다루어져야 한다. 성교육의 범위와 내용을 확대하여 현재 초혼연령의 상승과 연계하여 나타나는 불임부부의 증가, 임신소모율의 증대, 저출산 및 기형아의 증가 등 인구자질의 향상을 위해서는 청소년이 20대 적령기에 결혼하고 출산할 수 있는 동기조성에 역점을 두어 저출산 문제의 해결에도 일조를 할 수 있도록 유도되어야 한다. 또한 중앙정부의 정책수립단계에서 일선 학교의 교육현장에 이르기까지 효율적인 인구교육 관리체계가 구축되고 교사들의 자율적인 교육참여가 활성화되도록 하는 교육환경이 조성되어야 한다.

제 7 장 출산·가족 친화적 가치관 형성을 위한 초·중등 교육내용 개선 방안

제 1 절 개요

저출산·고령사회에서 인구 감소 현상은 사회, 경제, 문화 부문의 급격한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저출산·고령사회로의 급속한 이행에 따른 파급효과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분야에서의 노력이 필요한 시기이다. 특히, 사람이 주 자원인 우리나라에서 저출산·고령화로 야기되는 경쟁력 약화 문제는 교육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어, 향후 교육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필요로 하고 있다. 저출산·고령사회에서의 심각한 교육력 저하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시설 활용, 교원 수급, 학교와 학생수 변화 등 미래 사회를 예측하고 합리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다양한 전략 수립, 사회제도의 실질적 개선 등이 필요하다.

한편, 저출산·인구고령화의 예방적 차원에서 출산 기피 현상을 야기하는 원인을 제거하는 노력을 경주하여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출산 및 가족 친화적 가치관을 확산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저출산·고령사회에 대응하기 위한 가장 근본적이고 효율적인 방법으로서 교육적인 접근은 지나친 개인주의적 가치관을 지양하고 가족 친화적 가치관을 고양시킴으로써 결혼 및 출산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갖도록 가치관의 변화를 유도하는 것이다.

가치관의 변화는 다각적인 측면에서의 교육적 접근을 통해 시도될 수 있으나, 특히 학교교육을 통한 개입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다. 과거 가족계획방법이 고학력층에서 먼저 받아들여지고 어느 정도 시간이 경과한 후에 점차 교육이 낮은 집단으로 침투해갔다는 사실(이해영·권태환, 1978)을 감안하면, 출산 및 가족 친화적 가치관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관련 지식이나 행동을 함양시키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가족과 공동체에 대한 가치관이 형성되기 시

작하는 초등학교 시기와 사회적 책임감이 형성되는 중·고등학교시기에 학교교육을 통해 출산·가족 친화적 가치관을 형성시키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초·중·고 학생이 출산·가족에 대한 친화적인 가치관을 지닐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교육과정과 교과서를 통해 관련 지식과 가치관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장은 출산 및 가족 가치관과 관련성이 높은 교과인 초·중등학교 도덕, 사회 및 가정의 교육과정과 교과서 내용을 추출하여 문제점을 파악하고, 출산·가족 친화적인 가치관을 학습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개선 방안을 제시하며, 이를 토대로 실질적인 교수학습지도 자료를 개발하고자 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본 장은 이론적 고찰, 출산·가족 가치관관련 교육실태 분석, 교육내용 분석, 교과별 교수-학습 지도 자료 개발 등의 방법을 적용하였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본 보고서의 제1장의 연구방법에 제시하였다.

제 2절 저출산·고령사회와 교육의 과제

저출산의 심각성에 대해 사회적 인식이 늦었을 뿐만 아니라 문제해결을 위한 정책의 방향이 출산장려에 치중하고 있었기 때문에 실질적인 원인 규명이나 해결 모색에는 성공적이지 못했다. 이는 저출산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젊은이들의 행위 양식이나 가치관에 주목해서 원인을 분석하고 해결책을 마련하고자 하는 노력이 미흡했기 때문으로 해석할 수 있다(손승영, 2005).

「2005년도 전국 결혼 및 출산 동향조사」에 따르면, 보편혼이 지배적이던 과거와 달리 미혼남성의 71.4%, 미혼여성의 49.2%만이 결혼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가졌으며, '반드시 결혼을 하여야 한다'는 태도는 미혼남성의 29.4%, 미혼여성의 12.9%에 불과하다(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5). 이처럼 미혼 남녀가 부정적인 결혼관을 갖는 것은 결혼이 개인생활을 희생시키고 가족생활에 대한 의무감과 책임감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인식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결혼 및 출산에 대한 긍정적인 가치관을 심어줄 수 있는 시기에서부터 교육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d'Addio와 d'Ercole(2005)이 OECD 국가를 대상으로 한 연구를 살펴보면, 여성 고용률이 높을수록, 파트타임에서 여성의 비중이 높을수록 출산율이 높아지고, 여성의 실업률과 기회비용이 높을수록 출산율은 감소한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다. 여성 고용률의 증가는 여성의 재정 안정성을 높여 출산 여부 결정에 긍정적인 효과를 발휘하며, 파트타임 고용 등을 통한 근무시간의 유연성은 보육 구조의 부족을 보완하여 출산율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이러한 연구결과에 비춰볼 때, 여성의 고용과 안정적인 근무여건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의 전환이 필요할 것이다. 즉, 고용의 불안으로 인하여 출산의 시기를 늦추거나 기피하지 않도록 제도적인 여건과 더불어 출산에 대한 긍정적인 가치관을 심어줄 수 있는 교육이 필요하다.

자녀양육과 교육 부담으로 인하여 출산에 대한 부정적인 가치관이 형성된다. 보육이 적절하지 않거나 서비스의 질이 낮을 때, 또는 보육시설에 대한 접근이 어려울 때 부모는 가정과 직장을 병행하기 위한 불규칙적인 스케줄을 선택하기 쉽고, 그 결과 부모 직업의 안전성을 떨어뜨리고 자녀의 양육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결국 여성은 지속적으로 직업을 갖기가 어려워지고, 집에서 자녀를 양육하는 쪽을 택하기 쉬워진다는 것이다. 상대적으로 여성이 가정과 직장 생활을 병행해 나갈 수 있도록 제도화가 잘되어 있는 국가일수록 출산이 왕성한 30대 여성의 고용률이 높게 나타난다.

이러한 여건이 형성되기 위해서는 기업의 역할이 중요하다. 즉, 기업이 가정과 직장의 양립에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귀결되는데, 가족친화적인 근무 여건은 근무의 공백을 줄이고 근로자의 근로의욕을 고취시켜 생산성을 향상시키며 이직률을 낮추는 등 긍정적인 효과를 낳는 것으로 조사되었다(Dex and Scheibl, 1999). 즉, 기업은 스스로도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가정과 직장의 양립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며, 국가와 사회 구성원들의 지속적인 요구에 의해서도 가정과 직장이 안정적으로 양립하는 여건으로 변화되어갈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가족 친화적인 가치관이 개인뿐만 아니라 기업 내에서도 우선적인 가치관이 될 수 있도록 홍보와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학생들이 성장하여 기업 등에서의 CEO를 포함한 관리자가 된다는 중장기 관점에서, 학교교육의 중

요성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저출산은 아이를 낳고 기르는 책임과 부담이 모(母)에게 전적으로 돌아갈 때 급속히 발생한다. 즉, 엄마가 되는 것을 두렵게 만들고, 부모가 되는 것을 두렵게 만드는 다양한 요인들의 복합적인 결과라고 볼 수 있다(손승영, 2005). 일본의 경우에 비추어 볼 때에도 한국의 저출산 해결을 위해서는 양육활동은 부와 모 중 한쪽에 치중되지 않는 것이며, 양육에 대한 부담에 앞서 가족의 소중함과 양육으로 인한 행복의 가치를 바르게 인식할 수 있는 교육이 중요하다.

성역할의 변화는 저출산현상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Chesnais(1996)는 개발도상국가에서는 성평등 수준이 낮을수록 출산율이 높지만 선진국에서는 성평등 수준이 높을수록 출산율이 높게 나타난다는 '페미니스트 패러독스(feminist paradox)'를 주장하였다. 선진국에서는 성에 대한 관점이 정책에 반영된 결과, 일-가정 양립 정책이 잘 마련됨으로써 여성지위와 출산율이 비례되어 나타난다. 즉, 성평등 수준이 낮은 국가들과 성평등 수준이 높은 국가들에서 모두 출산율이 높은 반면, 성평등 수준이 중간인 국가들에서는 오히려 출산율이 낮게 나타나는 U자형 관계를 설정하고 있다(UNDP, 2004). 요컨대, 성평등에 대한 인식의 수준을 높이는 것이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데 효과적이며, 그러한 인식 전환은 교육의 과제이기도 하다.

결국 사회 구성원들로 하여금 저출산·고령화의 심각성을 공유하고 문제 해결에 대해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중요하며, 학교교육은 그러한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중요한 기제가 되고 있다. 구체적으로 저출산·고령화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가치관이 형성되는 아동기부터 바람직하고 행복한 가정생활을 꾸리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식을 심어주고, 이와 관련된 지식, 기술, 태도 등을 습득케 하는 것이 교육의 중요한 당면과제라고 할 수 있다.

제 3 절 초·중등학생 대상 가치교육의 개념과 실태

교육은 기본적으로 가치 지향적인 일이다. 따라서 모든 교육내용 및 교육활동에는 가치 교육이 내재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가치란 개념 정의를 하는 사람에 따라 조금씩 의미가 다르긴 하나 사람들의 개인적 또는 사회적 삶에서 옳거나 소중하다고 믿는 신념으로서, 삶의 방향을 이끌어가는 기준이라고 할 수 있다. 사회 각계각층에서는 미래 사회에 대비하기 위하여 사회 구성원들에게 기존 의식의 전환이나 발상의 전환 등 올바르고도 새로운 가치관 형성에 대한 기대를 하고 있다.

청소년 시기는 자신의 정체성 형성뿐만 아니라 삶의 가치관 정립에 많은 영향을 받는 시기이며, 미래 자신의 직업과 삶의 방향을 설정하는 준비의 시기로서, 특히 가정에서 가족과의 관계를 경험하고 갈등을 겪으며, 올바른 해결 방법을 터득하고 사랑과 행복을 느끼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 시기에 가족 구성원으로서의 역할과 임무를 알고 도리와 예절을 배우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청소년 시기에 형성된 가족 친화적인 가치관과 생명에 대한 존중 사상은 가족과의 올바른 관계를 형성하여 자신의 미래 삶에 도움이 되도록 설계해보는 것에 기초가 된다.

이에 미래 사회의 주역이 될 현재의 초·중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가치 교육 실태를 알아보고 다양한 가치 중에서 출산·가족 친화적 가치관 교육이 지향해야 할 바는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한다.

1. 초·중등 교육에서의 가치 교육

학교교육에서의 가치 교육에는 가치, 가치관, 가치 교육, 가치 판단 등의 다양한 개념이 관계되어 있다. 이들 각각의 개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정범모(1992)는 '가치란 행동 방향 선택에 영향을 주는 바람직한 것, 또는 하여야 할 것에 관한 일반적인 개념이며, 여기서 행동 방향 선택이란 여러 가지의 행동 목적, 행동 형태, 행동 방법을 내포하고 있는 상황에서 어느 한 방향을 선택 결

정하고 행동하게 되는 것을 말한다'고 하고 있다. 가치는 태도와 행위를 안내하거나 동기부여 하는 주요 신념 또는 바램이다. 또한 우리가 가치가 있다고 보고 소중히 여기는 것으로 정의되기도 한다. 가치는 우리가 어떤 특정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데 도움을 준다(최문기, 2003). Milton Rokeach는 가치를 '다른 행동 양식에 비해 특정 행동 양식을 개인적, 사회적으로 우선시하는 지속적인 신념'으로 보고, 이 신념을 상대적인 중요성에 따라 조직한 것을 가치관 또는 가치 체계라고 하고 있다(김성일, 2000). 특정한 가치관은 개인의 활동에 대한 동기를 부여하고 방향성을 제시하기도 한다. 즉 가치관이란 생활의 모든 장면이나 삶의 과정에서 가치 판단이나 가치 선택을 행사할 때 일관되게 작용하는 가치 기준과 그것을 정당화하려는 근거 또는 신념의 체계적 형태로서 인생관, 인간관, 교육관, 사회관, 역사관, 예술관, 직업관 등의 어느 하나 또는 전체를 통칭하는 말이다. 한편 가치 교육은 '도덕적 가치를 내면화하고, 도덕적 가치를 판단하는 능력을 신장시켜주는 교육'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최문기, 2003).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가치 교육에 대하여는 부정적 시각과 긍정적 시각의 상반된 입장이 있다(정범모, 1992). 학교는 가치 교육을 해서는 안된다는 부정적 입장은 가정환경이나 사회환경에 비해 학교환경은 가치 형성에 미치는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약하며, 공공적인 기능으로서의 학교교육이 한 개인에게 특정 가치관을 형성하도록 하는 것은 개인의 사상적 자유와 사적 세계를 침범하는 일이라는 것이다. 학교의 가치교육에 대한 긍정적 입장은 가치는 인간 형성의 중요한 요소로 지적·정의적·신체적으로 완성된 인간을 위해서 가치 교육은 필요하며, 가치 교육을 하지 않더라도 학생들은 학교 내외의 영향을 받아 가치관이 형성될 것이기 때문에 계획적인 지도를 통한 가치 학습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본 연구에서는 학교에서 가치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후자의 입장을 취한다. 왜냐하면 학교교육의 교육과정 내용에서 가치 교육을 완전히 배제할 수도 없지만 그것이 가능하다 해도 학교 및 학급 풍토, 교사의 가치나 기대, 동료 학생들과의 관계는 학생들의 가치 형성에 영향을 미치므로 교육을 통해 보다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치가 형성되도록 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가치 교육은 다른 인지적, 기능적 교육과 같이 의도적으로 계획하여 실시하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그 효과를 측정하기도 어렵다. 왜냐하면 가치관은 그 구인이 복합적일 뿐만 아니라 장기간에 걸쳐 형성되며, 실제 내면화된 가치와 평가 목적에 부합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표면화되는 가치는 다를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해도 학교교육은 가치 교육을 게을리 할 수는 없다.

우리나라 초·중등교육에서 이루어지는 가치 교육은 대개 두 가지 방향을 목표로 한다. 하나는 가치 습득 및 내면화이며 또 다른 하나는 가치 판단 능력의 신장이라고 할 수 있다. 가치 습득 및 내면화 또는 가치 형성 교육은 전통적인 규범 윤리학에서 다루는 객관적인 가치들을 교사 중심의 가치 전달 방식에 의해 강화하거나 내면화 시키는 것이다. 이러한 가치교육의 형태는 전통적인 인격교육과 유사하다. 반면에 Kohlberg나 Metcalf와 같이 현대적인 합리주의가 주장하는 가치 교육의 목표는 현대적인 메타 윤리학에서의 논리적인 분석 및 검증 방법을 도입하여 학생 중심의 가치 탐구 방식에 의해 학생들이 스스로 판단·선택·결정하게 한다(최문기, 2003).

본 연구에서는 양자의 입장을 통합하고자 한다. 즉 한편으로는 학생들이 가치 판단을 해야 할 상황에서 개인적 차원을 넘어서 사회와 국가와의 관계 속에서 미래를 예측하며 적절한 판단을 할 수 있는 판단력을 신장시키는 가치 교육을 지향하고자 한다. 어떤 종류의 사회적 문제를 해결 또는 완화하기 위하여 채택되는 교육활동의 목적은 항상 사회적 문제 자체에 대한 학문적, 이론적 지식과 이해보다 그러한 지식과 이해에 기초하여 문제를 건전하게 해결하는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정의적 영역의 특성들 곧 가치, 신념, 태도 등을 갖추게 하는 데 보다 중점을 두어야(김재득, 1997: 주성현, 2002에서 재인용)하기 때문이다.

다른 한편으로는 절대 선으로 여겨지는 인격 교육과 유사한 가치에 대하여 가치 습득의 가치 교육을 지향하고자 한다. 학교교육에는 급속한 사회 변화 속에서 미래 사회의 모습을 예상하고 우리의 가치관을 바꾸어 가는 과정이 포함되어야(주성현, 2002) 하기 때문이다.

2. 초·중등 교육에서의 출산·가족 친화적 가치 교육의 방향

현재 초·중등교육에서의 명시적 가치 교육은 정규 교육과정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가치관이란 잠재적 교육과정을 통해서도 형성되는 것이므로 초·중등교육에서의 가치 교육의 실태를 명확하게 밝히기는 어렵다. 따라서 정규 교육과정을 통한 가치 교육 실태만을 분석할 수 있는데, 구체적인 교과 교육과정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출산·가족 친화적 가치관은 Ⅲ장과 Ⅳ장에서 분석하게 되므로 본 절에서는 학교교육 이념에 나타난 출산·가족 친화적 가치 교육 실태를 알아보고, 미래 사회에 대비한 출산·가족 관련 가치 교육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알아보고자 한다. 우리나라 학교 교육에서 다루어진 가치 교육의 변천과 가치 의식을 연구한 박용헌(2002)의 연구를 보면 학교교육에 포함된 가치를 민족·전통 가치와 민주·근대 가치로 구분하여 분석하고 있다. 이를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 <표 7-1>과 같다.

〈표 7-1〉 민족주의와 민주주의 가치 체계

기본가치		상위가치	가치덕목
민족주의	민족공동체의 안녕과 번영	공동성	공동지역, 언어, 관습, 규범, 공동문화, 동거동락, 공동운명, 동질성
		정체성	소속감, 동족의식, 우리의식, 연대의식, 긍지, 전통문화에 대한 자긍심, 자부심
		주체성	자주, 독립, 자립, 자조, 자존, 지조
		통합성(일체성)	조화, 화합, 신뢰, 결속, 단결, 애국애족, 희생, 봉사, 협동
민주주의	인간 존엄성 자아실현	인간존중	인명존중, 잠재적 가능성, 개성존중, 개인주의, 행복추구, 자존, 이성, 자치적 능력
		자유·권리	기본권적 자유(종교, 사상, 양심, 질서, 탐구, 언론), 자율, 경쟁, 다양성, 개방성, 융통성, 생명권, 존엄권, 안정권, 사생활권, 참정권
		평등·정의	기회균등, 타인존중, 이견존중, 신뢰, 공동선, 공평, 공정, 관용, 공익, 균형, 정당
		박애	이타, 동정, 사랑, 인류애, 평화, 국제교류, 인류공영, 협력
		절차존중	준법, 토론, 대화, 타협, 합의, 양보, 선거, 질서, 합리, 정직, 조정, 규칙, 책임

출처: 박용헌, 『가치교육의 변천과 가치의식』, 2002.

출산관련 가치관은 위의 가치 체계에서 인간 존중, 자유·권리, 박애 등의 상위 가치에 부합되고, 가족관련 가치관은 공동성, 정체성, 통합성 등의 상위 가

치에 부합된다고 할 수 있다.

가치관 형성 관련 선행연구에서는 가치관의 형성이 사회 변화에 기인한다고 하고 있으나, 학교 교육과정을 결정하는 세 가지 중심축이 학습자, 사회, 교과임(박도순·홍후조, 2006)을 감안할 때 사회 변화는 학교 교육에 영향을 미치고 학교 교육은 초·중등 학생들의 가치관 형성에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일반인의 가치관 형성에는 사회 변화가 가장 큰 변인으로 작용할 수 있지만 학생의 경우 학교교육의 영향력이 크게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출산·가족 관련 가치의 기본 가치인 민족주의와 민주주의의 가치는 시대 변화와 함께 학교교육에서 다루어진 양에 있어 차이를 보이고 있다. 교수요목 시기부터 현재의 제7차 교육과정기까지 교육과정 구성의 방향에 나타난 민족·전통가치와 민주·근대 가치 덕목의 양적 변천 과정을 보면, 가치 덕목 수가 가장 많이 제시된 시기는 제3차 교육과정기로서 국민교육헌장 제정 이후 가치교육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게 되었음을 시사한다고 할 수 있다(박용헌, 2002). 그러나 교육과정이 개정되어 오면서 전체적으로 가치 덕목의 수는 현저히 줄어들고 있는데, 이는 가치교육에 대한 관심이 줄어들었다는 것과 문민정부가 들어선 이후 특정 가치를 주입하는 것에 대한 거부감의 발로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산·가족 관련 가치 교육은 많은 양은 아니지만 계속해서 교육과정 및 교과서 내용에 반영되어 왔다고 할 수 있다. 가족 친화적 가치는 우리 민족의 전통 가치로서 상시 다루어져 왔던 가치 덕목이지만, 출산 관련 가치는 1970년대 이후 산아제한을 지향하는 인구교육과 같이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특정 가치를 형성하도록 주입교육의 성격을 나타내었던 적도 있다.

우리나라 교육기본법 제2조에는 우리 교육의 이념에 대하여 '홍익인간의 이념 아래 모든 국민으로 하여금 인격을 도야하고 자주적 생활 능력과 민주시민으로서 필요한 자질을 갖추게 하여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게 하고 민주국가의 발전과 인류공영의 이상을 실현하는데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이제 저출산·고령화 사회를 대비한 학교교육에서의 가치교육은 과거 특정 가치를 주입하는 교육이 아니라 민주국가의 발전과 인류 공영의 이상을 실현하는데 이바지할 수 있는 인간상의 구현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고

본다. 즉 우리 교육 이념이 지향하는 인간상인 민주시민이란 사회와 개인의 상호작용을 인식하고 사회적 변화에 대한 통찰을 토대로 하여 사회적 상황의 변인들을 활용하거나 통제하면서 동시에 개인의 사회적 책임을 인식하여, 자주적으로 삶을 재구성하는 인간을 의미한다(왕석순·전미경, 2006).

본 연구에서는 왕석순·전미경(2006)이 선행연구에서 저출산·고령사회에 대비한 교육의 목적을 '사회적 변화를 인식하여 삶을 재구성하는 생애 설계교육'이라고 설정한 것에 따르고자 한다. 다만 저출산·고령사회에 대비한 교육의 하위 목표를 '개인의 삶과 사회의 상호관련성에 대한 인식 함양', '결혼과 가족의 가치 의식 함양', '양성의 평등, 세대간 협동이 기반이 되는 가정생활의 형성'으로 설정한 것에 대하여는 '개인의 삶과 사회의 상호관련성에 대한 인식 함양'만 수용하여 다음 <표 7-2>와 같이 재구성하고자 한다. 왜냐하면 저출산·고령화 사회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개인의 삶과 사회 및 국가와의 상호 관련성에 대한 인식 함양과 함께 미래 사회를 예측하고 이에 대비할 수 있도록 사회인지 능력을 갖추도록 해야 하기 때문이다. 또한 왕석순·전미경(2006)이 제시한 '결혼과 가족의 가치 의식 함양'과 '양성의 평등, 세대간 협동이 기반이 되는 가정생활의 형성' 목표는 결혼, 출산, 가족, 가정생활, 직업생활에 대한 가치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요소이며, 이 모든 것에 있어 다양성과 성평등 및 생애주기에 대한 이해가 바탕이 되어야하기 때문이다.

〈표 7-2〉 저출산·고령화 사회를 대비한 교육 목적 및 목표

교육 목적	사회적 변화를 인식하여 삶을 재구성하는 생애 설계교육
교육 목표	◦개인의 삶과 사회 및 국가와의 상호 관련성에 대한 인식 함양 ◦미래 사회에 대한 인식 함양 ◦결혼, 출산, 가족, 가정생활, 직업생활에 대한 가치 의식 함양 ◦다양성과 성평등 및 생애주기에 대한 이해 및 가치의식 함양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저출산·고령사회에 대비한 교육의 목적을 '사회적 변화를 인식하여 삶을 재구성하는 생애 설계교육'으로 설정하고, 그 하위 목표는 '개인의 삶과 사회 및 국가와의 상호 관련성에 대한 인식 함양'과 '미래 사회에 대

한 인식 함양', '결혼, 출산, 가족, 가정생활, 직업생활에 대한 가치 의식 함양', '다양성과 양성평등 및 생애주기에 대한 이해 및 가치의식 함양'으로 설정한다.

본 연구의 핵심 주제인 출산·가족 친화적 가치관 형성을 위한 초·중등 교육의 목표도 위에 설정한 교육 목적과 목표를 지향한다. 즉 출산·가족 관련 문제를 개인적인 차원을 벗어나 사회와 국가와의 관계를 고려하여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저출산·고령사회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이에 대한 적절한 대응을 하였을 때와 하지 못했을 때의 미래 사회를 예측하며, 현재의 저출산·고령화를 촉발시킨 여러 가지 사회제도, 고용제도 및 문화, 교육 내용 등에 대하여 인식하도록 한다.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출산, 가족 관련 문제 상황에서 올바른 가치 판단을 할 수 있는 능력을 형성하도록 한다.

출산·가족 친화적 가치관은 사랑하는 사람과의 결혼, 다양성을 인정하고 성평등이 실현된 가정생활 및 직업생활과 분리하여 생각하기 어려우며, 생애 주기에 있어 각 시기의 발달과업과 특징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한다. 이러한 가치교육은 학교교육에서 교과 교육과정과 교과외 활동을 통하여 실천할 수 있다. 교과 교육과정을 통해서는 교과 교육목표에 따라 출산·가족 관련 내용을 직접 다룰 수도 있고, 교과 교육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교수학습 자료의 소재로 활용할 수도 있다. 교과외 활동을 통한 가치교육은 특별활동과 창의적 재량활동 시간을 활용할 수도 있다.

본 연구에서는 출산·가족 친화적 가치관 형성 교육을 저출산·고령사회를 대비한 교육의 한 방안이자 책무로 규정하고 저출산·고령사회를 대비한 교육 목표를 지향하고자 한다. 또한 출산·가족 친화적 가치관 형성 교육내용의 구성 방향은 가족 친화적 가치나 성평등의 실천, 다양성의 이해와 같은 가치에 대한 습득 및 내면화와 가치대립 상황에서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가치판단 능력의 신장을 지향한다. 학교교육에서의 실천방안은 교과 교육과정의 초5학년부터 고1학년까지의 도덕, 사회, 가정(실과)과의 교과내용으로 다루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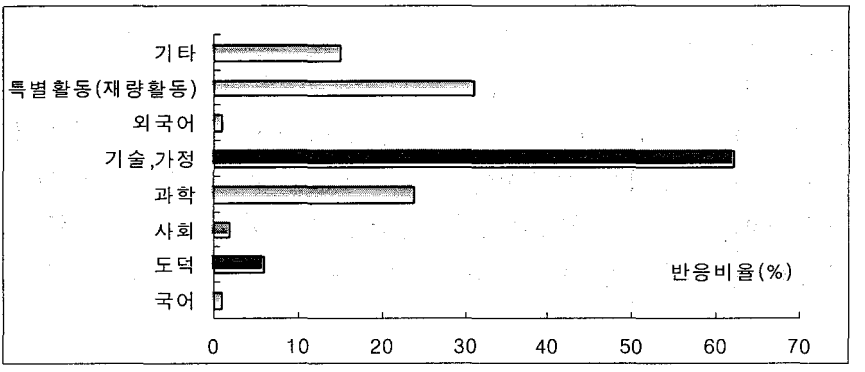
제 4 절 출산·가족 친화적 가치관에 관한 학교교육 실태

1. 출산·가족 가치관 교육에 대한 학생의 태도

가. 출산관련 가치관 교육에 대한 학생의 태도

우선 학생들이 학교에서 출산에 대한 내용을 어떤 시간에 배웠는지를 살펴보았다. 조사 결과, 기술·가정(실과)(62.0%), 특별활동이나 재량활동 등 교과외 시간(31.0%), 과학(24.0%), 기타 과목(15.0%), 도덕(6.0%), 사회(2.0%), 외국어(1%) 시간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반응비율은 학교급에 따라 달랐다. 과학시간에 학습했다는 비율은 고등학생(40.0%)이 초등학생(3.0%)이나 중학생(18.0)%보다 현저하게 높았으며 기술·가정(실과)시간이라는 비율 역시 중학생(70.0%)나 고등학생(77.0%)이 초등학생(5.0%)보다 두드러지게 높았다. 반면에 특별활동이나 재량시간, 기타 과목에서 배운다는 비율은 중학생(30.0%, 12.0%)이나 고등학생(30.0%, 8.0%)보다 초등학생(37.0%, 41.0%)이 높았다. 초등학교에서 정규교과보다 교과외시간에 출산내용을 학습하는 반면에 중학교나 고등학교에서는 정규교과로 학습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그림 7-1] 초·중·고 학생의 출산관련 내용의 학습 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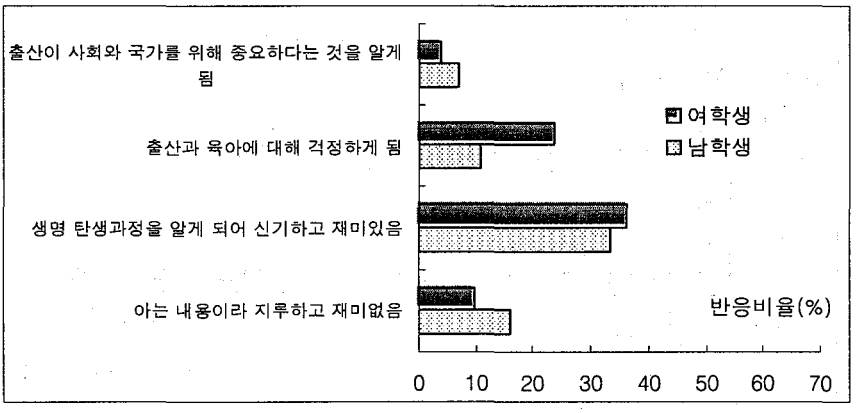


주: Wilks' Lamda=.63, F=376.50, p<.001.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6년도 전국 청소년 결혼·자녀·성평등 가치관 조사』, 2006.

출산 내용을 학습한 후, 학생들이 어떤 생각을 하게 되었는지 질문한 결과, 34.7% 학생은 '생명의 탄생과정을 알게 되어 신기하고 재미있었다', 소수의 학생(5.4%)은 '출산이 사회나 국가를 위해 중요하다는 것을 알았다'라고 응답하여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반면에 상당수의 학생은 '아무 생각이 안 들었다(23.3%)', '출산과 육아에 대해 걱정하게 되었다(17.1%)', '아는 내용이라 지루하고 재미없었다' 등 부정적인 인식을 표출하였다.

이러한 반응은 학교급에 따라 유의한 차이($p<.001$)를 보였다. 학교급이 올라갈수록 긍정적인 평가는 감소하고 부정적인 평가는 증가하였다. 예를 들어, '생명의 탄생과정을 알게 되어서 신기하고 재미있었다'고 응답한 비율은 초등학생(38.5%)이 중학생(35.9%)이나 고등학생(32.3%)보다 높고, '아는 내용이라 지루하고 재미없었다'를 응답한 비율은 고등학생(17.4%)이 초등학생(4.4%)이나 중학생(11.2%)보다 높았다. 또한 학생의 성별에 따라서도 반응은 상이하였다. '생명의 탄생과정을 알게 되어 신기하고 재미있었다'고 반응한 비율은 여학생(36.2%)이 남학생(33.4%)보다 많으며 '출산과 육아에 대해 걱정하게 되었다'고 반응한 비율도 여학생(23.7%)이 남학생(10.9%)보다 높아,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출산문제에 대해 더 많이 관심을 기울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7-2] 출산에 관한 내용 학습 후 학생의 인식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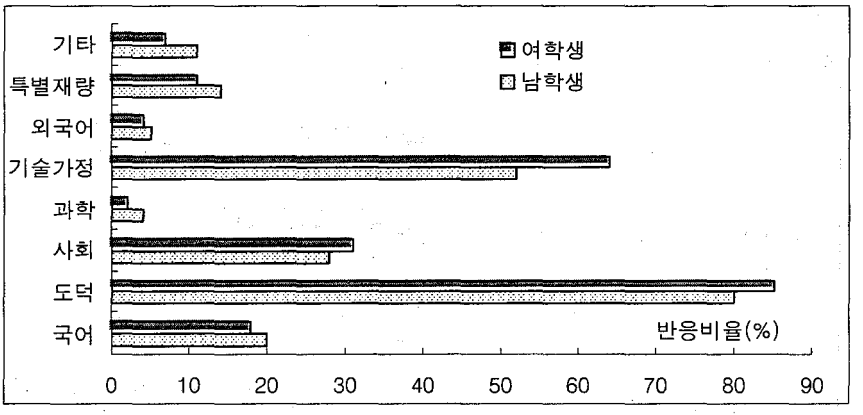


주: $x^2=415$ $p<.001$.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6년도 전국 청소년 결혼·자녀·성평등 가치관 조사』, 2006.

나. 가족관련 가치관 교육에 대한 학생의 태도

학교에서 가족에 대한 내용을 어떤 시간에 배웠는지에 대해, 학생들은 도덕(83.0%), 기술·가정(실과, 58.0%), 사회(29.0%) 시간이라고 응답하였으며 소수 의견으로 국어(19.0%), 특별활동이나 재량활동(13.0%), 기타(9.0%), 외국어(영어, 5.0%), 과학(3.0%) 시간이라고 응답하였다. 이러한 반응비율은 학교급에 따라 유의($p<.001$)한 차이를 보였다. 국어를 선택한 학생 중에는 초등학생(27.0%)이 중학생(17.0%)나 고등학생(19.0%)보다 많았다. 반면에 도덕의 경우는 중학생(86.0%)이 초등학생(80.0%)나 고등학생(80.0%)보다 많았다. 사회는 고등학교(35.0%), 초등학교(46.0%), 중학교(17.0%) 순으로 선택하였다. 반면에 기술·가정(실과)은 학교급이 올라갈수록 선택한 비율도 높아져서 초등학생(41.0%), 중학생(58.0%), 고등학생(63.0%)순으로 나타났다. 학생 성별에 따라서 가족관련 내용을 배운 시간에 대한 선택 비율이 달랐다. 일분산분석 결과, 모든 수업시간에서 유의한 차이를 발견하였다($ps<.01$).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선택한 비율이 높은 과목은 국어, 외국어, 특별활동이나 재량활동, 기타였고,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선택한 비율이 높은 과목은 도덕, 사회, 기술·가정(실과)이었다.

[그림 7-3] 초·중·고 학생이 가족에 관한 내용을 배운 학습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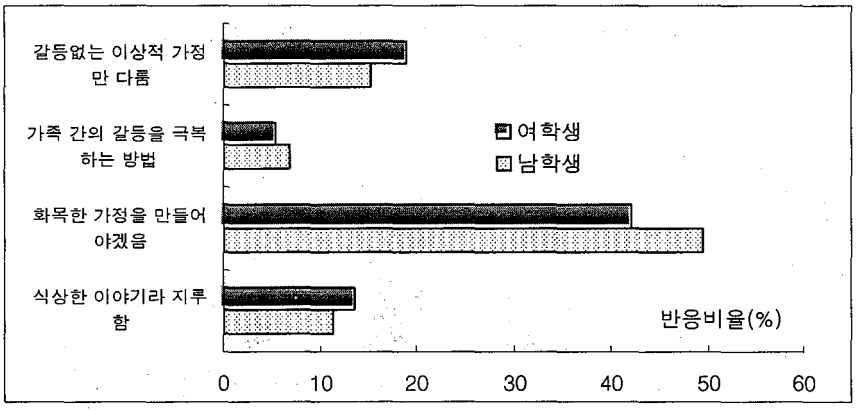


주: Wilks' Lamda=.97, $p<.001$.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6년도 전국 청소년 결혼·자녀·성평등 가치관 조사』, 2006.

가족에 관한 내용을 학습한 후, 어떤 생각이 들었는지를 묻는 질문에 가장 많은 수의 학생들(45.8%)은 '화목한 가정을 만들어야겠다고 생각했다'고 응답했으며 몇몇 학생(6.2%)은 '가족 간의 갈등을 슬기롭게 극복하는 법을 알게 되었다'고 반응해서 가족 관련 수업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반면에 상당수의 학생(17.1%)은 '갈등 없는 이상적인 가정 분위기만 다루고 있어 현실과 많이 다르다고 생각했다', '아무 생각이 안 들었다(13.7%)', '식상한 이야기라서 지루했다(12.5%)' 등 가족에 관한 수업이 학생들의 의식변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인식 변화는 학교급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01$). 학교급이 올라갈수록, 긍정적인 평가는 감소하고 부정적인 평가는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예를 들어, '화목한 가정을 만들어야겠다고 생각했다'고 반응한 비율을 비교해 보면, 초등학생(66.5%)보다 중학생(48.4%)이나 고등학생(34.7%)이 낮았고 '갈등 없는 이상적인 가정 분위기만 다루고 있어 현실과 많이 다르다고 생각했다'고 반응한 학생은 초등학생(9.3%)보다 중학생(15.0%)나 고등학생(22.4%)이 많았다.

[그림 7-4] 가족관련 내용 학습 후, 학생의 의식 변화



주: $x^2=123$, $p<.001$.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6년도 전국 청소년 결혼·자녀·성평등 가치관 조사』, 2006.

학생의 성별에 따라서도 반응비율의 차이가 발견되었다. 대체로 남학생보다 여학생이 가족관련 수업내용에 대해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비율이 높았다. 즉, '화목한 가정을 만들어야겠다'고 생각한 비율이 남학생(49.4%)보다는 여학생(42.1%)이 낮은 반면에, '식상한 이야기라서 지루했다'고 반응한 비율은 남학생(11.4%)보다 여학생(13.6%)이 높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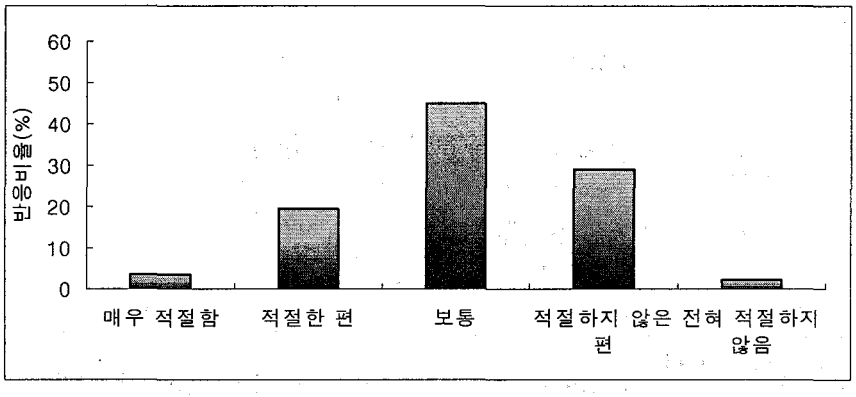
2. 출산·가족 가치관 교육에 대한 교사의 태도

가. 출산관련 가치관 교육에 대한 교사의 태도

1) 교과서 내용의 적절성

출산 내용을 가르치고 있는 교사들을 대상으로, '교과서 내용이 출산에 대한 긍정적 가치관을 길러주는 데 적절하다고 생각하는지'를 질문하였다. 이에 대해 대상 교사 중 45.1%가 '보통이다'라고, 29.0%는 '적절하지 않은 편이다'고 반응했으며 19.7%만이 '적절한 편이다'라고 응답하였다. 교과서 내용이 적절하다고 보기보다는 적절하지 못하다고 보는 교사가 약간 더 많았다.

[그림 7-5] 출산관련 교과서내용의 적절성에 관한 교사의 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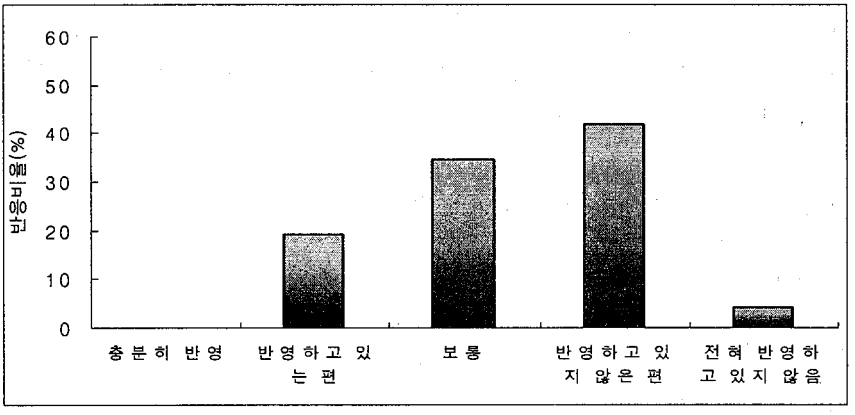


주: 조사대상은 학생표집학교의 도덕, 사회, 가정과 등 주교과 담당교사와 다른 교과 담당교사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6년도 전국 청소년 결혼·자녀·성평등 가치관 조사』, 2006.

2) 소재의 시대성과 현실성 반영도

교과서에 제시된 출산 관련 소재의 시대성이나 현실성 반영 정도에 대해, 상당수 교사들은 부정적으로 평가하였다. 교과서에 제시된 출산 관련 소재가 시대성이나 현실성을 '반영하고 있지 않은 편이다'라고 응답한 교사(42.0%)가 '반영하고 있는 편이다'고 응답한 교사(19.3%)보다 많았다. 교사가 근무하는 학교급에 따라, 교과서에 제시된 출산 관련 소재의 시대성과 현실성 반영 정도에 유의한 차이가 발견되었다. 예를 들어, '반영하고 있지 못한 편이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초등학교 50.0%, 중학교 41.3%, 고등학교 39.9% 순으로 학교급이 낮아질수록 현실성이나 시대성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7-6] 출산관련 교과서 소재의 시대성과 현실성 반영에 대한 교사의 태도



주: 1) x^2=16.17, p<.05.

2) 조사대상은 학생표집학교의 도덕, 사회, 가정과 등 주교과 담당교사와 다른 교과 담당교사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6년도 전국 청소년 결혼·자녀·성평등 가치관 조사』, 2006.

3) 출산 관련 수업의 애로사항

현재 출산 관련 내용을 가르치고 있는 교사들을 대상으로 수업할 때 애로사항을 질문하였다. 그 결과, 가장 많은 수의 교사(41.7%)가 '수업에서 활용할 보조 지도자료가 부족하다'고 하였으며, 그 다음으로 많은 교사들(34.5%)은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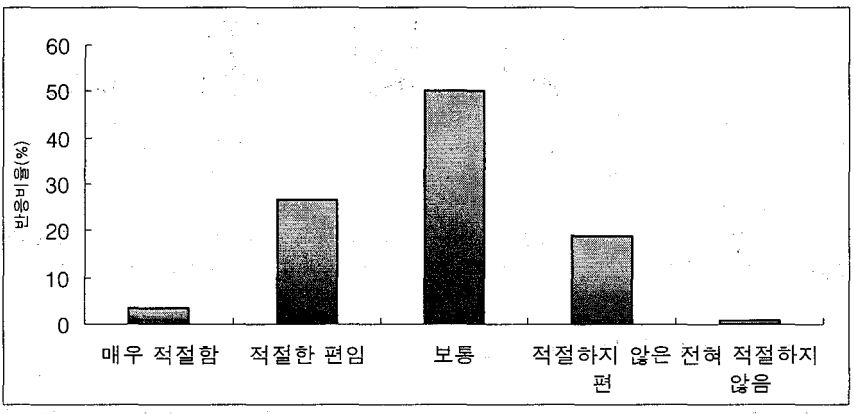
이 진부해서 학생들의 흥미를 유발시키기 어렵다'고 응답하였다. 일부 교사들은 애로사항으로 교사관련 요인을 선택하기도 하였다. 13.1%의 교사는 '현실이나 교사의 가치관과 달라서 어떻게 가르쳐야 할 지 당황스럽다'고 대답하였으며 5.1%는 '내용을 재미있게 지도할 수 있는 수업방법을 잘 모른다'고 응답하여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가치관 교육에 앞서 교사 연수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나. 가족관련 가치관 교육에 대한 교사의 태도

1) 교과서 내용의 적절성

가족 관련 내용을 가르치고 있는 교사들을 대상으로, 교과서 내용이 가족 친화적 가치관을 길러주는 데 적절하다고 생각하는지를 질문하였다. 이 질문에 대해, 50.1% 교사가 '보통이다'라고 응답하였으며, 26.5% 교사가 '적절한 편이다'고 반응해서 '적절하지 않은 편이다'라고 인식하는 교사보다 약간 더 많았다.

[그림 7-7] 가족관련 교과서내용의 적절성에 관한 교사의 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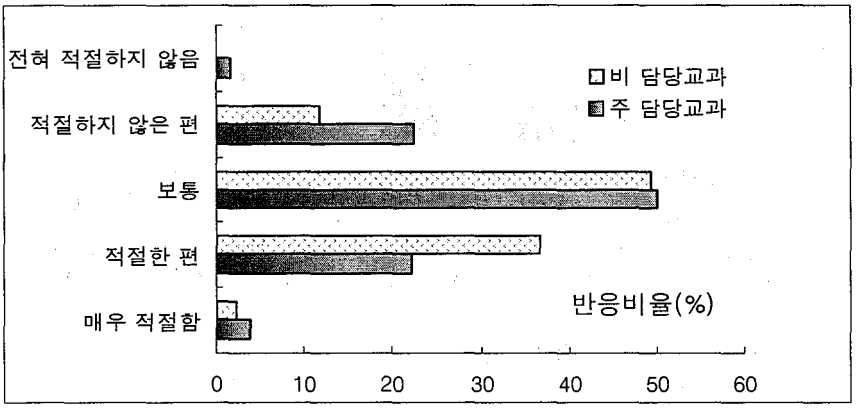


주: 조사대상은 학생표집학교의 도덕, 사회, 가정과 등 주교과 담당교사와 다른 교과 담당교사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6년도 전국 청소년 결혼·자녀·성평등 가치관 조사』, 2006.

이러한 반응비율은 학교급에 따라 달랐다(p<.001). '적절한 편이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초등학교(35.9%)에서 가장 높았으며 중학교(31.6%)와 고등학교(15.2%) 순으로 점차 낮아졌다. 가족친화적 가치관 교육을 위해서는 고등학교 교과서에 대한 가족친화적 내용의 적절성에 대한 평가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교사의 교과내용 적절성 평가에 있어서 담당교과별 차이가 발견되었다. 출산이나 가족친화적 가치관을 직접적으로 다루고 있는 도덕, 가정(실과), 사회과(주 담당교과) 교사들은 교과서 내용의 적절성에 대해 회의적이었다. 구체적으로, '적절한 편이다'고 응답한 비율이 주 담당교과는 22.2%인 반면에 비 담당교과는 36.7%였다. 유사하게, '적절하지 않은 편이다'고 응답한 비율에서도 주 담당교과는 22.5%로, 비 담당교과 11.7%보다 높았다.

[그림 7-8] 가족관련 교과서내용의 적절성에 관한 교사의 태도: 담당교과 여부별



주: 조사대상은 학생표집학교의 도덕, 사회, 가정과 등 주교과 담당교사와 다른 교과 담당교사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6년도 전국 청소년 결혼·자녀·성평등 가치관 조사』, 200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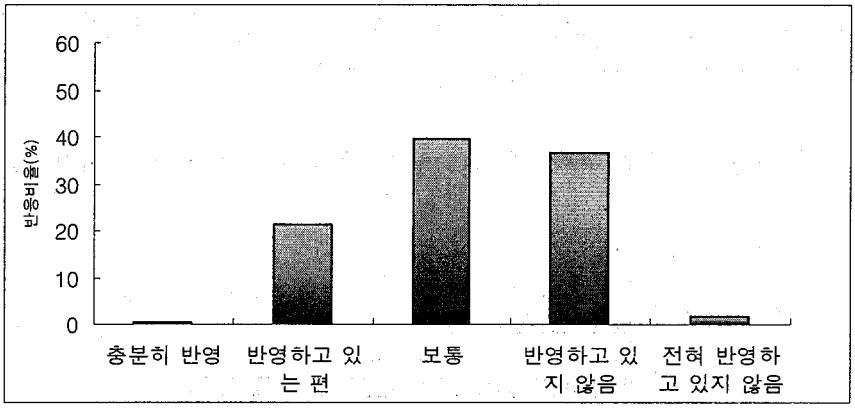
2) 소재의 시대성과 현실성 반영도

교과서에 제시된 가족 친화적 소재의 시대성이나 현실성 반영 정도에 대해, 상당수 교사들은 대체로 부정적으로 평가하였다. 비록 상당수의 교사(39.6%)는 '보통이다'라고 응답하여 평가를 유보하였다. 반면에, 교과서에 제시된 출산 관

련 소재가 시대성이나 현실성을 '반영하고 있지 않은 편이다'라고 응답한 교사(36.7.0%)가 '반영하고 있는 편이다'고 응답한 교사(21.3%)보다 많았다.

교사가 근무하는 학교급에 따라 교과서의 시대성과 현실성 반영 정도에 유의한 차이가 발견되었다($p<.05$). 예를 들어, '반영하고 있지 못한 편이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초등학교 50.0%, 중학교 41.3%, 고등학교 39.9%로 학교급이 낮아질수록 현실성이나 시대성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7-9] 가족관련 교과서 소재의 시대성과 현실성 반영에 대한 교사의 태도



주: 조사대상은 학생표집학교의 도덕, 사회, 가정과 등 주교과 담당교사와 다른 교과 담당교사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6년도 전국 청소년 결혼·자녀·성평등 가치관 조사』, 2006.

3) 가족 관련 수업의 애로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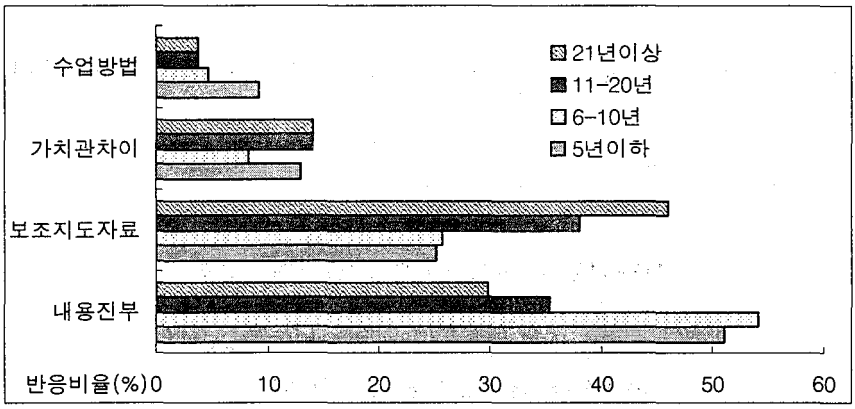
현재 가족 친화적 가치관 내용을 가르치고 있는 교사들을 대상으로 수업할 때 애로사항을 질문하였다. 그 결과, 가장 많은 수의 교사(41.0%)가 '내용이 진부해서 학생들의 흥미를 유발시키기 어렵다'를 선택하였으며 그 다음으로 많은 교사(34.9%)는 '수업에서 활용할 보조지도자료가 부족하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출산과 마찬가지로 애로사항으로 교사 관련 요인을 선택한 교사도 일부이었다. 12.7%의 교사는 '현실이나 교사의 가치관과 달라서 어떻게 가르쳐야 할 지 당황스럽다'고 응답하였으며 5.2%는 '내용을 재미있게 지도할 수 있는

수업방법을 잘 모른다'를 선택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가족친화적 가치관 교육에 관한 교사 연수가 필요함을 보여준다.

애로사항으로 선택한 반응비율은 교직경력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교직경력이 적은 교사는 '내용이 진부해서 학생들의 흥미를 유발시키기 어렵다'고 응답하거나 '재미있게 지도할 수 있는 방법을 잘 모른다'라고 응답한 반면에 경력이 많은 교사는 '수업에서 활용할 보조 지도 자료가 부족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다.

[그림 7-10] 가족관련 수업시 애로사항: 교사의 교직경력 차이별



주: 1) x^2=46, p<.001.
2) 조사대상은 학생표집학교의 도덕, 사회, 가정과 등 주교과 담당교사와 다른 교과 담당교사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6년도 전국 청소년 결혼·자녀·성평등 가치관 조사』, 2006.

다. 출산·가족 친화적 가치관 교육의 개선방향에 대한 교사의 의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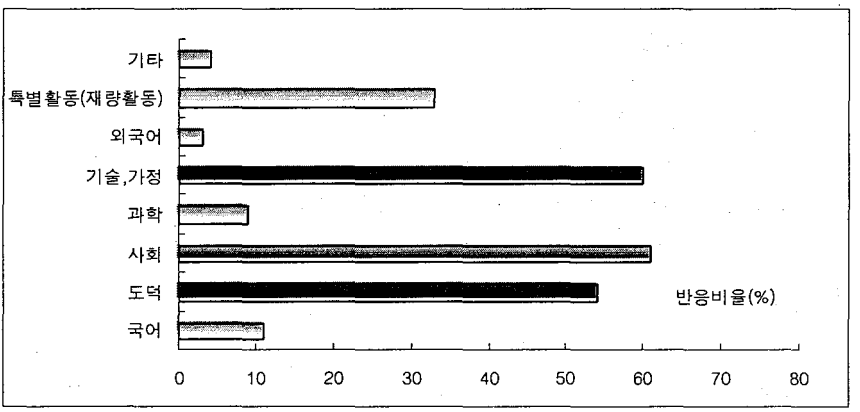
1) 출산 친화적 가치관을 가르치는 데 적절한 시간에 대한 교사의 의견

학교교육에서 출산(인구 포함) 관련 가치관 교육은 어느 시간에 다루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를 전체 교사에게 질문하였다. 이에 대해 교사들은 사회과(61.0%), 기술·가정(실과, 60.0%), 도덕과(54.0%)를 높은 비율로 선택하였다. 그 외에 특별활동이나 재량활동을 선택한 비율은 33.0%이었고 국어과는 11.0%, 과

학과 9.0%, 외국어 3.0%로 나타났다.

출산관련 가치관 교육을 실시하는 데 적절한 수업시간에 대하여 학교급에 따라 상이한 견해를 보였다(p<.001). 도덕과를 선택한 경우는 고등학교(50.0%)보다 중학교 교사(59.0%)가 많았다. 사회과의 경우, 중학교 교사(53.0%) 보다는 초등학교(65.0%)나 고등학교(66.0%)가 선택한 비율이 높았다. 기술·가정(실과)은 초등학교(31.0%)보다는 중학교(66.0%)와 고등학교(66.0%) 교사가 더 많이 선택하였다. 요컨대, 출산관련 가치관을 가르칠 때 초등학교 교사는 사회과를, 중학교 교사는 도덕이나 기술·가정을, 고등학교 교사는 사회나 기술·가정 수업시간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였다.

[그림 7-11] 출산관련 가치관 교육의 적절한 수업시간에 대한 교사의 의견



주: 조사대상은 학생표집학교의 도덕, 사회, 가정과 등 주교과 담당교사와 다른 교과 담당교사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6년도 전국 청소년 결혼·자녀·성평등 가치관 조사』, 200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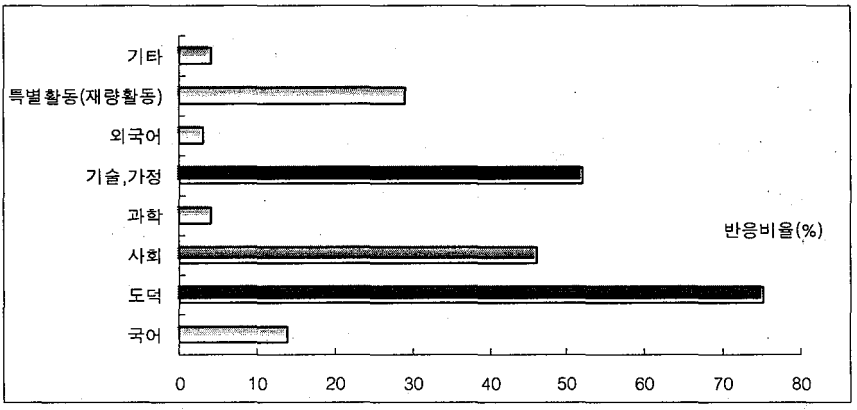
교사의 성별에 따라 출산(관련) 가치관을 다루는 데 적절하다고 평가하는 비율이 유의하게 달랐다(p<.01). 사후검증 분석결과, 사회시간에 출산관련 가치관을 가르치는 것이 적절하다고 응답한 비율에 있어서 남자교사(66%)가 여자교사(57%)보다 높았다. 출산관련 교육에 적절한 수업시간에 대하여 주 담당교과와 비 담당교과 간의 인식차이도 발견되었다(p<.001). 사후검증 분석결과, 주 담당교과 교사가 가정을 선택한 비율(68%)은 비 담당교과 교사의 선택 비율(48%)보

다 높았다. 대조적으로 국어나 특별활동을 선택한 비율에서는 주 담당교과(국어 9%, 특별활동 28%)보다 비 담당교과 교사(국어 13%, 특별활동 41%)가 더 많았다. 교직 경력에 따라서도 출산관련 수업 시간에 대한 견해 차이를 보였다($p<.001$). 사후검증 분석결과, 교직경력이 길수록 가정시간을 선택한 비율이 높았다.

2) 가족 친화적 가치관을 가르치는 데 적절한 수업시간에 대한 교사의 의견

가족 친화적 가치관 교육은 어느 시간에 가르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해 질문하였다. 이에 대해 교사들은 도덕(75.0%), 기술·가정(실과, 52.0%), 사회(46.0%) 순으로 선택하였다. 그 외에 특별활동이나 재량활동 29%, 국어 14%, 과학 4%, 외국어 3% 등이 가족 친화적 가치관을 가르치는 데 적절한 수업시간으로 선택되었다.

[그림 7-12] 가족 친화적 가치관 교육의 적절한 수업시간에 대한 교사의 의견



주: 조사대상은 학생표집학교의 도덕, 사회, 가정과 등 주교과 담당교사와 다른 교과 담당교사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6년도 전국 청소년 결혼·자녀·성평등 가치관 조사』, 2006.

가족 친화적 가치관 교육을 실시하는 데 적절한 수업시간에 대하여 학교급에 따라 상이한 견해를 보였다($p<.001$). 사후검증 분석결과, 도덕과를 선택한 경우는 고등학교(68.0%)보다 초등학교(77.0%)나 중학교(81.0%) 교사가 많았다. 사회과의

경우, 중학교 교사(35%) 보다는 초등학교(49%)나 고등학교(55%)가 선택한 비율이 높았다. 기술·가정(실과)은 초등학교(26%)보다는 중학교(54%)와 고등학교(60%) 교사가 더 많이 선택하였다. 요컨대, 가족 친화적 가치관을 가르칠 때 초등학교 교사는 도덕과 사회, 중학교 교사는 도덕이나 기술·가정, 고등학교 교사는 사회나 기술·가정 수업시간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였다.

교사의 성별에 따라 가족 친화적 가치관을 다루는 데 적절하다고 평가하는 비율이 유의하게 달랐다($p<.001$). 사후검증 분석결과, 사회시간에 가족 친화적 가치관을 가르치는 것이 적절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남자교사(57.0%)가 여자교사(38.0%)보다 높은 반면에 기술·가정(실과) 시간을 선택한 비율은 여자교사(55.0%)가 남자교사(49.0%)보다 많았다.

가족 친화적 가치관 교육에 적절한 수업시간에 대하여 주 담당교과와 비 담당교과 간의 인식차이도 발견되었다($p<.001$). 사후검증 분석결과, 주 담당교과 교사가 가정을 선택한 비율(60%)은 비 담당교과 교사의 선택 비율(40%)보다 높았다. 대조적으로 국어나 특별활동을 선택한 비율에서는 주 담당교과(국어 11%, 특별활동 24%)보다 비 담당교과 교사(국어 18%, 특별활동 36%)가 더 많았다. 교직 경력에 따라서도 가족 친화적 수업 시간에 대한 견해 차이를 보였다($p<.001$). 사후검증 분석결과, 교직경력이 5년 이하 교사(7.0%)보다 6년 이상의 교사가 국어를 선택한 비율이 높았다(6~10년, 11~20년, 21년 이상, 각각 16%). 유사하게, 교직경력이 길수록 가정시간을 선택한 비율도 높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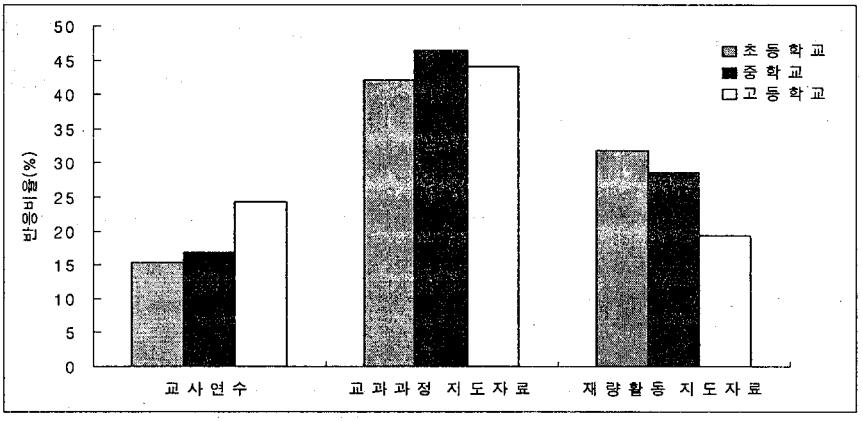
3) 가족관련 교육내용 개선에 관한 교사의 의견

가족 친화적 가치관 교육내용의 개선방향에 대해 가장 많은 수의 교사들(67.9%)은 '출산이 개인적 차원을 넘어 사회·국가와 관계가 있음을 인식하도록 개선한다'고 응답하였고 28.0% 교사는 '저출산의 원인, 실태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교육내용이 개선한다'고 대답하였다. 극히 소수의 교사만이 '현재 교육내용으로도 충분하므로 개선할 필요가 없다(1.0%)'거나 '출산은 개인의 선택이므로 출산 장려나 산아 제한과 같은 내용은 교육내용에 포함시킬 필요가 없다(1.9%)'고

응답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대부분의 교사가 출산·가족 친화적 교육에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교육내용 개선방향에 대한 구체적인 의견이 있음을 보여준다.

출산 및 가족친화적 가치관 형성을 위한 교육내용을 개선할 때 가장 고려해야 할 점에 대해, 54.0% 교사는 '시대성과 사회성을 반영해야 한다'고 응답하였고, 그 다음으로는 '학생들의 학습동기를 유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29.1%)'와 '특정 가치가 주입되는 방향을 지양해야 한다(11.0%)'를 선택하였다. 소수의 교사(5.2%)는 교과간 내용의 중복성을 피해야 한다고 의견을 제시하였다.

[그림 7-13] 출산·가족 친화적 가치관 교육시 필요사항에 대한 교사의 의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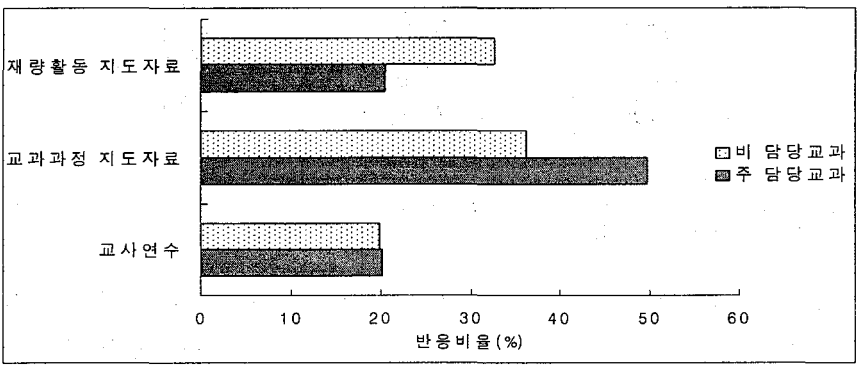
주: 조사대상은 학생표집학교의 도덕, 사회, 가정과 등 주교과 담당교사와 다른 교과 담당교사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6년도 전국 청소년 결혼·자녀·성평등 가치관 조사』, 2006.

출산 및 가족 친화적 가치관 교육을 실시할 때 학교교육에서 가장 필요한 것을 묻는 질문에 대해, 대부분 교사는 '교과 교육과정 운영시 적용할 수 있는 보조 지도자료를 개발하여 보급해야 한다(44.7%)'와 '재량활동 시간이나 특별활동 시간 등 교과 외 활동에 적용할 수 있는 지도자료를 개발하여 보급한다(25.2%)'를 선택하여 출산·가족 친화적 가치관 교육을 위한 보조 지도자료의 개발과 보급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그 외에 19.8% 교사는 '출산 및 가족 친화적 내용을 잘 가르칠 수 있도록 교사연수를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하여 지도자료와 함께 교사연수의 필요성이 다시 언급되었다.

이러한 반응경향은 학교급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x^2=28, p<.01). 초등학교(15.4%)나 중학교(16.8%)보다 고등학교(24.3%) 교사는 교사연수가 필요하다고 인식하는 비율이 높은 반면에 재량활동(특별활동)시간에 활용할 지도자료 개발과 보급에 대해서는 고등학교(19.4%)보다는 중학교(28.5%)나 초등학교(31.8%) 교사가 필요하다고 인식하는 비율이 높았다.

또한 출산·가족 친화적 가치관을 주로 다루는 교과 교사와 그 외 교과 교사 간의 필요사항에 대한 인식차이가 존재하였다(x^2=28, p<.001). '교과과정 운영시 적용할 수 있는 보조 지도자료의 개발과 보급'에 대해 주 담당교과교사(49.8%)는 비 담당교과교사(36.3%)보다 필요하다고 인식하는 비율이 높았다. 반면에 '재량활동(특별활동) 등 교과외 활동에 적용할 수 있는 지도자료 개발과 보급'에 대해서는 비 담당교과 교사(32.6%)가 주 담당교과 교사(20.4%)보다 더 필요하다고 반응하였다.

[그림 7-14] 출산·가족 친화적 가치관 교육 시 필요사항: 주 담당교과 여부



주: 조사대상은 학생표집학교의 도덕, 사회, 가정과 등 주교과 담당교사와 다른 교과 담당교사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6년도 전국 청소년 결혼·자녀·성평등 가치관 조사』, 2006.

3. 출산·가족 친화적 가치관에 관한 학교교육 실태의 시사점

학생과 교사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출산 및 가족 친화적 가치관 교육의 실태와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선방향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우선 출산에 관한 학생인식과 학교교육 실태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대부분의 학생들은 저출산 현상의 원인으로 양육에 대한 물리적·경제적 부담을 선택하였으며 이러한 저출산으로 인해 국력이 약화되거나 인력난을 겪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었다. 학교교육 실태를 분석한 결과, 출산 관련 내용은 기술·가정(실과)에서 가장 많이 다루고 있으며 초등학교의 경우에는 특별활동이나 재량활동 등 기타 교과 외 시간에 가르쳐졌다. 출산 관련 수업을 듣고 난 후, 학생들은 생명 탄생과정을 알게 되어 신기하고 재미있다는 반응을 보이기도 하지만 아무 생각이 안들었다거나 아는 내용이라 지루하고 재미없다는 등 부정적으로 평가하였다. 특히 학교급이 올라갈수록 긍정적인 평가는 감소하고 부정적인 평가는 증가했는데, 이는 중·고등학교 출산 관련 교육내용 개선이 시급함을 보여준다.

다음으로, 가족에 관한 학생인식과 학교교육 실태를 분석하였다. 우선 다양한 형태의 가정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인식을 보이는 학생이 부정적인 인식을 보이는 학생보다 약간 많았지만, 연령이 어리거나 양부모님이 모두 생존하는 학생들은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보였다. 다양한 가족형태가 발생하는 원인에 대해서, 부모의 별거·이혼·재혼을 선택한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한부모가족이나 양부모가 모두 계시지 않은 학생들은 부모님이 편찮으시거나 일찍 돌아가셨기 때문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는데 학생의 가족구성을 반영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가족 내용을 배운 시간으로는 도덕, 기술·가정(실과)과 사회가 가장 빈번하게 선택되었다. 학생들이 배운 가족 관련 내용은 가족의 소중함이나 중요성, 가족 형태와 구성원의 역할 등이었고 학교급이 높아질수록 다양한 가족 관련 내용을 학습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 관련 내용을 학습한 후, 학생들은 화목한 가정을 만들어야겠다고 생각하는 등 긍정적으로 변화되는 경우가 많은 반면에 상당수 학생은 갈등 없는 이상적인 가정 분위기만 다루고 있어 현실과 다르다거나 식상한 이야기라서 지루했다는 등 부정적으로 평가하였다. 출산과 마찬가지로, 학교급이 올라갈수록 부정적 평가 비율도 증가하였으며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가족과 관련한 학습내용에 대해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다음으로 설문조사를 통해 출산 및 가족 친화적 가치관 교육의 실태, 문제점

과 개선방향에 대한 교사의견을 분석하였다. 우선 저출산·고령사회에 대한 교사인식을 조사한 결과, 거의 모든 교사들이 저출산·고령사회는 심각한 문제라고 인식하고 있으며 이 문제에 대비하여 학교교육 내용이 개선될 필요가 있다고 응답하였다. 더 나아가 교사들은 출산 및 가족 친화적 가치관 교육이 필요하며 강화되어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특히 이러한 인식경향은 교직경력이 길수록, 출산경험이 있을수록 강하게 나타났다.

출산 관련 학교교육 실태에서는 전체 교사 중 절반(47%) 정도가 출산 관련 내용을 가르치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출산 관련 내용을 가르치고 있는 교사만을 대상으로, 출산과 관련한 학교교육의 문제점을 살펴보았다. 교사들은 대체로 교과서 내용의 적절성, 학습자 수준 및 흥미 적합성, 소재의 시대성과 현실성 반영도, 교육내용 분량의 적절성, 삽화, 사진, 도표의 적절성 등에서 부정적으로 평가하였다. 예를 들어, 교과서의 삽화나 사진, 도표에 대한 부정적 평가는 긍정적 평가를 크게 앞서게 나타났다. 특히 교사들은 보조 지도 자료의 부족과 진부한 내용으로 학생들의 흥미를 유발하지 못하는 것을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하였다.

가족 관련 학교교육 실태에서는 절반 이상(53.9%) 교사가 가족 관련 내용을 가르치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가족 관련 내용을 다루는 교사만을 대상으로, 가족 관련 학교교육의 실태와 문제점을 살펴보았다. 출산과 마찬가지로, 교과서 내용의 적절성을 제외한 다른 요인(학습자 수준 및 흥미 적합성, 소재의 시대서오가 현실성, 반영, 교육내용 분량의 적절성, 삽화, 사진, 도표의 적절성)에서 긍정적 평가보다는 부정적 평가가 더 우세하였다. 특히 학교급이 높은 교사이거나 도덕, 사회, 기술·가정(실과) 담당교사들이 더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었다. 출산과 마찬가지로 교사들의 애로사항은 보조 지도 자료의 부족과 학생 흥미 유발 실패 등이었다.

출산 및 가족 친화적 가치관 교육의 개선방향을 도출하기 위하여 적절한 수업시간, 교육시작 연령, 개선방향, 개선 시 고려사항 및 필요사항에 대하여 조사하였다. 그 결과, 교사들은 사회과, 기술·가정(실과), 도덕시간에 출산과 가족 관련 내용을 가르치는 것이 적절하고 초등학교 저학년부터 가치관 교육을 시작해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많은 교사들이 학생들이 출산이 개인적 차원을 넘어 사회

·국가와 관계가 있음을 인식할 수 있도록 개선되어야 하며 특히 시대성과 사회성을 반영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였다. 특히 교사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은 교육과정 운영 시 적용할 수 있는 보조 지도 자료의 개발과 보급이었다.

이상의 결과를 바탕으로 출산 및 가족 친화적 가치관 형성을 위한 교육내용 개선에 관한 시사점을 도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저출산·고령사회에 대비하여 학교에서 출산 및 가족 친화적 가치관 교육을 강화해야 할 것이며 특히 정규 교육과정에서 관련 내용을 충분히 다루도록 수업시수가 조정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출산 관련 내용은 제한된 교과에서만 다루어지고 있고 주로 지식 전달에 국한되어 있기 때문에 출산 친화적 가치관 형성에 미흡한 실정이다.

둘째, 출산 및 가족 친화적 가치관 교육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교사들이 충분하게 인식하고 있지만 실제로 수업을 진행할 때 사용할 수 있는 보조 지도자료는 충분하지 못한 실정이다. 따라서 학습자의 흥미와 수준을 고려하면서 시대성과 현실성을 반영한 다양한 보조 지도자료의 개발과 보급이 시급한 상황이다.

셋째, 성별이나 연령, 가족 구성 등 학생 특성에 따라 출산 및 가족에 관한 인식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에 학습자의 특성을 충분히 고려한 교육내용 및 교육방법이 구안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고등학교 학생들의 경우, 출산 및 가족 친화적 내용에 대해 진부하게 생각하고 있을 뿐 아니라 상당히 비판적인 시각을 견지하고 있다. 따라서 고등학생에게는 출산과 가족 친화적 가치관을 미화해서 주입하는 방식보다는 사회와 국가와 관계, 가족 갈등과 화해 등 새로운 관점과 방법으로 다룰 필요가 있다.

넷째, 교직경력, 성별, 출산경험 여부, 담당교과 등 교사특성에 따라 출산 및 가족 친화적 가치관 교육에 대하여 상당한 인식차이를 발견하였다. 따라서 교직경력이 상대적으로 적거나 출산경험이 없는 교사들을 대상으로 교사연수가 필요할 것이다. 교사 연수는 저출산·고령사회에 대한 교사인식을 제고할 뿐 아니라 출산 및 가족 친화적 내용을 가르치는 데 필요한 교수방법 향상을 목표로 해야 할 것이다.

제 5 절 출산·가족 가치관 관련 교육내용체계 및 개선방안

1. 출산·가족 가치관 관련 교육내용 분석의 기본 방향

초·중등학교 학생들이 출산 문제를 개인적인 차원을 넘어 사회와 국가와의 관계 속에서 고려하고, 가족 친화적인 가치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현재의 교육내용을 분석하여 2007학년도부터 학교 현장에 적용 가능한 지도 자료를 개발하는데 본 연구의 목적이 있다. 출산에 대한 긍정적인 가치관 형성을 위해서는 개인만이 아니라 사회, 국가 간의 관계 차원인 매크로적 시각에서 출산과 관련하여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는 가치관 교육이 요구된다. 따라서 지도 자료 개발의 방향은 출산에 관한 올바른 판단력을 지닐 수 있도록 하는데 중점을 두고자 하며, 더 나아가 출산에 대한 긍정적인 가치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개발하고자 하였다.

한편 출산과는 달리 가족과 관련된 가치관은 절대선이므로 가치관 교육에 무리가 없다고 판단되나, 우선 가족이기주의를 벗어날 수 있는 방향으로 설정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다양한 형태의 가족의 형태(입양가족, 재혼가족 등)도 정상적인 가족에 포함되는 것임을 인식할 수 있도록 교수-학습 지도 자료를 개발하고자 하였다. 출산 및 가족 친화적인 가치관에 대한 교수-학습 지도 자료 개발 방향을 이와 같이 설정하고, 현직 교과 선생님들과의 심층면담을 통하여 분석 및 개발할 교과와 대상 학년을 정하였다. 교과의 성격 및 목표와 출산·가족 친화적 가치관 교육과의 관련성, 교육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분석 교과는 도덕과, 사회과, 가정(실)과로 정하였으며, 대상 학년은 초등학교 5학년에서부터 고등학교 1학년까지로 정하였다.

본 연구에서 개발된 교수-학습 지도자료는 2007학년도부터 학교 현장에 즉시 사용 가능한 자료 개발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2009학년도부터 적용되는 개정 교육과정은 분석 대상에서 제외하고 제7차 교육과정 및 교과서, 교사용 지도서로 분석 대상을 한정하였으며, 각 학교급과 교과별로 교육과정을 분석하여 출산·가족 친화적 가치관 관련 내용 요소를 추출하였다.

출산·가족 친화적 가치관 관련 교육내용의 분석과 개선방안을 살펴보기 위

해서 초등학교 5학년부터 고등학교 1학년까지 도덕, 사회, 가정(실과)의 교육과정 및 교과서별 분석의 기본방향과 분석결과 및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다.

가. 초등학교 교육내용 분석

1) 초등학교 도덕과 분석의 기본방향

- ○ 가족을 통해 생명존중, 사랑, 화목, 배려, 용서와 같은 덕목, 예의범절을 길러줄 수 있다. 가족은 심정 공동체로서 우리의 삶에 근간이 된다.
- ○ 가족은 어머니와 아버지, 형제간에 성 평등 모델에 기초해야 한다.
- ○ 가정과 직장 사이의 조화가 있어야 한다.
- ○ 가족의 의미를 되새기며, 가족과 자기 자신, 조상과 자기 자신의 관계를 고려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되어야 한다. 가족이 자신의 삶에 의미를 줄 수 있어야 한다.
- ○ 가족 구성원과의 관계를 통해 도덕적 사고력과 판단력을 길러줄 수 있어야 한다.
- ○ 가족과 사회 및 국가와의 연계, 가족친화적인 가치관이 사회나 국가의 발전에 기틀이 된다.
- ○ 행복한 가정생활의 중요성을 인식한다.

2) 초등학교 사회과 분석의 기본방향

- ○ 저출산으로 인한 문제는 사적 생활의 영역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정치·경제·문화·법 등 제반 사회 영역과 관련 있는 사회 문제이다.
- ○ 저출산 현상으로 야기 될 수 있는 인구 구조의 변동이나 저출산으로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들을 탐색한다.
- ○ 인구 감소로 발생되는 여러 문제를 다양한 방법으로 탐구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을 함께 모색한다.

3) 초등학교 실과 분석의 기본방향

- ○ 가족의 형태는 부모님과 자녀가 있는 2세대 가족 뿐 아니라 다양한 가족의 형태도 정상적이고 일반적인 모델이 된다.
- ○ 가족들이 함께 가사노동에 참여하거나 부부가 공동으로 가사노동에 참여함으로써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나누어가지는 행복을 배운다.
- ○ 다양한 가족 안에서 '나'는 가족 구성원 중 하나이며 가족원으로서는 가정생활에 책임감을 느끼고 자주적, 능동적으로 자기의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가정생활의 소중함을 지킨다.

나. 중등학교 교육내용 분석

중학교 1~3학년과 고등학교 1학년 도덕, 사회, 가정 교과를 대상으로 교육내용 분석의 기본방향을 살펴보았다.

1) 중등학교 도덕과 분석의 기본방향

출산·가족 친화적 가치관과 관련한 내용요소를 근거로 하여 도덕과의 성격, 목표, 내용, 방법, 평가의 영역에서 어떠한 내용을 담아야 하고 어떠한 방향으로 가야할 것인지를 제안하였다.

적합성 부분에서, 도덕과의 목표 속에서 가족 친화적 가치관 형성 내용이 적합한지, 학생들이 흥미 있어 하고 관심을 두는 소재를 바탕으로 예화와 학습자료(만화, 포스터, 광고, 동영상 등)가 제시되었는지, 수업 시간이나 수행평가에 적용될 수 있는 수준과 분량인지, 각 학교급별 학년에 맞게 학생발달 사항에 맞게 구성되었는지 분석하고 검토하였다.

또한 이와 관련한 내용은 가정이나 사회과에도 다루고 있으므로 객관적 사실 전달 위주의 내용보다 가족, 생명의 소중함과 관련하여 도덕적 감정을 자극하고 도덕적 사고력을 신장시키며 실천과 체험의 기회를 많이 제시하고 있는지, 학년별로 중복되는 사항은 없는지, 다른 교과와의 차별성을 두었는지를 검토하였다.

제시 방식과 전개 방식이 지나치게 당위적이거나 강요하는 방식이 아니라 생각해볼 수 있는 문제 등을 제시하면서 도덕적 자율성 함양에 기여하고 있는지, 삽화나 사진에서 성차별적 요소나 편견을 유발하는 면은 없는지, 도표나 통계가 최신 자료이며 정확한지, 내용이 지나치게 한쪽 방향으로 편중된 것은 아닌지를 분석하였다. 또한 도덕적 영역에 있어 인지적 측면, 감정적 측면, 행동적 측면에서 고른 학습 자료를 담고 있는지도 중요한 사항이고 내용면에서 최근의 현대 사회의 모습을 잘 반영하고 흥미로운 자료들로 채워졌는지를 검토하였다.

2) 중등학교 사회과 분석의 기본방향

본 연구를 수행함에 있어 가장 중점이 되는 것은 교육 내용의 적합성 여부이다. 7차 사회과 교육과정의 내용 체계에 일관성을 유지하면서 출산·가족 친화적 가치관 함양에 긍정적인 교육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내용 요소를 선정하는 것은 쉽지 않은 과정이다.

사회과는 보다 거시적이고 사회적인 목표 수준을 요구하기 때문에 출산과 가족에 대한 학생들의 긍정적인 태도 형성보다는 이를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인 측면을 학습 내용으로 선정할 수밖에 없다. 게다가 기존의 교육과정이 일반 사회, 지리, 역사 등 아주 낮은 수준에서 통합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본 주제와 같이 통합적이고 고차원적인 이슈를 특정 학년의 특정 단원에서 다루기가 쉽지 않다.

따라서 기존의 교육 과정 체계를 전제로 하여 최대한 관련성이 높은 단원을 선정하였고, 내용 수준에 있어서도 학습자의 발달 상황에 맞추어 적절한 수준에서 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다.

3) 중등학교 가정과 분석의 기본방향

- ○ 생명의 탄생을 개인의 차원을 넘어서 사회적으로 소중한 의미가 있음을 인식할 수 있는 내용과 방법
- ○ 부모가 되는 일을 가치 있는 일임을 인식하고 좋은 부모가 되기 위해서

부모로서 준비가 필요함을 인식할 수 있는 내용

- ㅇ 부부간의 육아 분담, 탁아시설 등의 사회적 여건의 보완으로 양육의 기쁨을 누리고 양육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법
- ㅇ 미혼부모들도 건강하게 자녀를 키우는데 필요한 사회적 인식
- ㅇ 획일화된 남녀의 역할 분담 보다 남성과 여성 모두 양성성의 존재임을 알게 하는데 필요한 내용
- ㅇ 한부모가족, 재혼 가족, 입양가족, 복합가족, 다문화가족 등의 다양한 가족의 형태
- ㅇ 가족간의 사랑과 신뢰를 바탕으로 한 의사소통의 중요성
- ㅇ 가정생활 설계와 관리를 실제적으로 익힐 수 있는 방법
- ㅇ 가족간의 유대 강화와 변화하는 시대에 맞는 가족문화를 만들어 갈 수 있는 방법
- ㅇ 가족해체, 가정폭력, 장애가족원 등, 가족원 자신들만의 힘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를 사회와 함께 해결하는데 필요한 내용

2. 교육과정 및 교과서 내용 분석 및 개선방안

가. 초등학교 교육과정 및 교과서 내용 분석 및 개선방안

1) 초등학교 도덕, 사회, 실과 교육과정 분석

초등학교 5학년과 6학년의 도덕, 사회, 실과의 교육과정을 분석하였으며, 그 중 예시로서 초등학교 사회과의 교육과정 분석 결과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표 7-3〉 초등학교 사회과 교육과정 분석

학년 / 영역	교육과정			
	3	4	5	6
인간과 공간	·고장의 자연 환경과 인문 환경 과의 관계	·우리 지역의 모습 ·시·도의 지도 그리기	·우리 국토의 모습 ·환경의 이용과 보전 ·도시와 촌락 지역의 생활	·우리 겨레의 삶의 터전 ·우리와 관계가 깊은 나라들 ·지구촌
인간과 시간	·고장생활의 변천 ·고장의 문화적 전통	·옛 도읍지와 나라들 ·박물관과 문화재	·문화전통의 계승 ·경제의 성장	·민족 국가의 성장 ·민족 문화의 발달 ·근대 시민 사 회의 발달 ·현대의 한국
인간과 사회	·시장과 물자 이동 ·고장의 여러 기관과 단체 ·고장사람들의 노력	·지역의 자원과 생산 ·물자 유통과 상호 의존 ·지방 자치와 주민 생활 ·지역사회의 문제와 해결 ·우리 지역의 미래 ·다양해지는 가정생활 ·취미와 여가 생활 ·가정의 살림살이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 ·정보화 시대의 산업 활동	·우리나라의 민주정치 ·민주 시민의 권리와 의무 ·지구촌 문제의 해결을 위한 노력

제7차 사회과 교육과정에서는 사회과의 개념을 '사회 현상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사회 지식 및 사회생활에 필요한 기능을 습득하며, 민주 시민으로서의 가치와 태도를 육성하는 교과'라고 정의하였다. 이러한 개념 하에서 사회과의 궁극적 목표는 민주시민으로서 올바른 자질을 길러 주는 데 있으며, 바람직한 시민이란 인권 존중, 공동체 의식, 참여와 책임 의식 등 민주적 가치와 태도를 함양하고, 개인적인 문제와 사회적인 현안에 능동적이고 합리적으로 참여함으로써 국가, 사회, 인류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자질을 갖춘 사람이다. 이에 사회과는 사회 공공의 문제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해결 방안을 강구하여 사회가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실천할 수 있는 시민을 기르는데 가장 중점을 두어야 한다.

초등학교에서는 이와 같은 교과 특성을 적용하기 위해 학생들이 주변의 현상에 관심과 흥미를 가지며, 생활과 관련된 기본적 지식과 능력을 습득하게 하

며 사회의 기초적인 지식과 능력을 가지고 우리 사회의 여러 특징을 이해하고 공동생활의 참여 능력을 기르는 데 1차적인 목표를 두고 있다.

저출산으로 인한 문제는 사적 생활의 영역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정치·경제·문화·법 등 제반 사회 영역에서 나타날 수 있다. 더 이상 저출산의 문제를 개인에게 있어 경제적 어려움을 회피하기 위한 선택 수준에 머물러 두기에는 문제의 심각성이 크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사회과에서 저출산의 문제를 검토하고, 출산·가족 친화적 가치관을 기를 수 있는 내용 요소들을 적절하게 배치하여, 대략 10년 내에 출산 연령에 도달할 학생들로 하여금 긍정적인 인식을 갖게 할 필요가 있다. 단순히 아이를 많이 낳는 것이 좋다거나 가능한 낳지 않는 것이 편하다는 식의 이분법적 사고를 지양하고, 저출산 문제가 발생하게 된 근대사적 과정을 살펴보고 현재의 사회 구조를 탐구함으로써 시급한 인구 감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을 함께 모색하는 방식의 접근을 통해 학생들이 자연스럽게 출산·가족 친화적 가치관을 함양하게 해야 한다. 현행 교과서를 분석해 보면 5학년의 '우리가 사는 지역' 단원에서 도·농간 인구 이동 현상이 제시되고 있으나 도시와 농촌의 인구 구조 차이를 급속한 도시 팽창의 원인으로 한정하고 있다. 그에 덧붙여 도시적인 생활양식(life style)에서 생겨난 저출산의 문제점을 추가적인 자료로써 살펴보고 그 대안을 모색하거나, 저출산 현상으로 야기 될 수 있는 인구 구조의 변동이나 이로 인해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들을 탐구함으로써 보다 밀도 있는 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다.

2) 초등학교 도덕, 사회, 실과 교과서 내용 분석 및 개선방안

초등학교 5학년과 6학년의 도덕, 사회, 실과의 교과서 내용을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였으며, 그 중 초등학교 5학년 사회 교과서 내용 분석 및 개선방안을 예시로 제시하였다.

〈표 7-4〉 초등학교 5학년 사회교과서 내용분석(대영역: 2. 우리가 사는 지역)

소영역(단원)	내용 요소	문제점	개선 방안
중영역 : 도시 지역의 생활			
도시는 어떤 곳일까	한 지역이 도시로 발전하기까지의 과정 탐색하기	우리나라 도시 수와 인구 수가 늘어난 지도만 제시되어있음.	우리나라의 인구수의 증가가 큰 폭으로 줄어드는 표나 그래프, 지도를 추가 제시하는 것이 필요함.
도시의 여러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인구의 도시 집중으로 인한 여러 가지 도시 문제 탐구하기	도시의 여러 문제 중 도시화에 따른 결혼율의 저하문제는 언급되고 있지 않음.	도시의 힘든 생활 등이 결혼과 출산율이 저하되는 원인 중의 하나라는 점을 보충함.
도시의 여러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인구의 도시 집중으로 인한 여러 가지 도시 문제 탐구하기	하루에 약 200쌍 결혼이 주택문제의 하나의 원인으로 나와 있어 결혼 때문에 주택문제가 발생하는 것으로 오해할 소지가 있음.	결혼이 주택문제의 원인이 되는 것으로 표현한 것은 삭제하는 것이 좋겠음.
도시의 여러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도시 문제의 다양한 해결 방법 탐색하기	환경문제의 결과로 사람과 동물에 호흡기 질환과 피부 질환을 예로 들고 있음.	기형아 출산이나 불임부부도 환경문제가 중요한 원인임을 보충하여 기술하는 것이 필요함.
선택학습	인구 수 변화 그래프를 활용한 해설, 도시의 인구 집중 원인 정리하기	대전의 인구 변화 그래프를 인구가 늘어난 점만 부각시켜 나타내고 있음.	그래프를 보고 인구 증가폭이 줄어들고 있음을 결혼과 출산율이 저하와 연결시켜 짚고 넘어가는 것이 좋겠음.

도시 수와 인구 변화에 관한 지도를 보면, 우리나라 도시 수와 인구수가 늘어나면서 2000년대에 들어 새롭게 도시가 된 곳이 많다. 최근에는 우리나라의 인구수의 증가가 큰 폭으로 줄어드는 표나 그래프, 지도를 제시함으로써 출산율의 저하와 도시발달과의 관계를 재고하고 인구의 증가와 도시발달과의 상관성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한다.

도시의 여러 문제를 다루고 있는 소단원에서 인구집중으로 인한 여러 문제 - 부족한 주차 시설, 쓰레기 문제, 부족한 주택문제 등 - 를 나열하고 있는데 교과서에 나오는 문제는 바로 눈앞에 보이는 문제이며 장기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도시화에 따른 결혼율의 저하문제는 언급되고 있지 않다. 최근에는 부족한 주차 시설, 쓰레기 문제, 부족한 주택문제 등으로 인해 가족을 이루려고 하지 않고 결혼과 출산율이 저하되고 있음을 새로운 문제점으로 부각시켜야 한다.

또한 1일 평균 200쌍이 결혼을 하고 있는 것이 주택문제의 하나의 원인으로

나와 있어서 결혼 때문에 주택문제가 발생하는 것으로 오해할 소지가 있다. 결혼 때문에 주택문제가 새롭게 부각되는 것은 아니다. 결혼을 하지 않고도 독신으로 자립하는 경우도 크게 늘어나고 있다. 따라서 결혼이 주택문제의 원인이 되는 것으로 표현한 것은 삭제하는 것이 좋겠다.

도시에서 일어나는 문제 중 환경문제의 결과로 사람과 동물에 호흡기 질환과 피부 질환을 일으키며 식물의 성장에 해를 끼친다고 서술되어있다. 최근 들어 기형아 출산이나 불임부부가 늘어나고 있는 것도 환경문제가 중요한 원인임을 보충하여 기술하는 것이 필요하다.

선택학습에서는 대전의 인구 변화를 나타낸 그래프를 보고 대전의 인구 변화의 특징을 써보는 활동을 통해 도시가 발달했음을 알게 한다. 그래프를 보고 대전의 인구 변화의 특징 중에서 인구 증가폭이 줄어들고 있음을 확인할 뿐 아니라 결혼과 출산율의 저하가 새로운 도시문화의 문제점이 될 수 있음을 나타내야 할 것이다.

나. 중등학교 교육과정 및 교과서 내용 분석 및 개선방안

1) 중등학교 도덕, 사회, 가정과 교육과정 분석

중학교 1학년에서부터 고등학교 1학년까지의 도덕, 사회, 가정과의 교육과정을 분석하였으며, 그 중 일부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사회과 교육과정의 내용 체계는 학년별로 인간과 사회를 기준으로 다른 측면을 강조하고 있다. 7학년에서는 지역과 공간 개념을 중심으로, 8학년에서는 시간과 역사 개념을 중심으로, 9학년에서는 정치와 경제 개념을 중심으로, 10학년에서는 지리, 문화, 정치, 경제, 시민 사회 등의 개념을 중심으로 교육 내용을 편성하고 있다. 이 중에서 8학년의 '개인과 사회의 발전', '사회생활과 법 규범', 9학년의 '인구 성장과 도시 발달', '민주 시민과 경제생활', 10학년의 '생활공간의 형성과 변화', '국민 경제와 합리적 선택', '공동체 생활과 사회 발전' 등은 본 연구의 주제인 출산·가족 친화적 가치관 함양과 연관성을 지닌 내용들이다.

〈표 7-5〉 사회과 교육과정 내용 체계표

학년 / 영역	교육과정			
	7	8	9	10
인간과 공간	·지역과 사회 탐구 ·중부 지방의 생활 ·남부 지방의 생활 ·북부 지방의 생활 ·아시아 및 아프리카의 생활 ·유럽의 생활 ·아메리카 및 오세아니아의 생활	·현대 세계의 전개	·현대 사회의 변화와 대응 ·자원 개발과 공업의 발달 ·인구 성장과 도시 발달 ·지구촌 사회와 한국	·국토와 지리 정보 ·자연 환경과 인간 생활 ·생활 공간의 형성과 변화 ·환경 문제와 지역 문제 ·문화권과 지구촌의 형성
인간과 시간	·지역과 역사 탐구 ·인간 사회와 역사 ·인류의 기원과 고대 문명의 형성 ·아시아 사회의 발전과 변화	·유럽 세계의 형성 ·서양 근대 사회의 발전과 변화 ·아시아 사회의 변화와 근대적 성장 ·현대 세계의 전개 ·현대 사회와 민주 시민	·지구촌 사회와 한국	·문화권과 지구촌의 형성 ·시민 사회의 발전과 민주 시민
인간과 사회	·지역과 사회 탐구	·현대 세계의 전개 ·현대사회와 민주시민 ·개인과 사회의 발전 ·사회 생활과 법 규범	·민주 정치와 시민참여 ·민주 시민과 경제 생활 ·시장 경제의 이해 ·현대 사회의 변화와 대응 ·지구촌 사회와 한국	·시민 사회의 발전과 민주 시민 ·정치 생활과 국가 ·국민 경제와 합리적 선택 ·공동체 생활과 사회 발전 ·사회 변동과 미래 사회

하지만 앞서 비판한 바와 같이 이 같은 내용 체계에서 학년 간 계열적인 학습이나 학문 간 통합적인 학습은 상당히 어렵다. 학년별로 내용 체계가 전혀 다른 학문적 바탕에서 교육 내용을 구성하고 있으며, 각각의 주제들이 보다 큰 스트랜드[18]로 수렴하기보다는 개별 학문의 영역으로 분산되는 특성을 갖고 있다. 특히 출산·가족 친화적 가치관 함양과 같은 다층적인 양상을 지닌 스트랜드를 다루기위해서는 현재처럼 단순 나열식의 교육과정 서술구조로는 불가능하다.

18) strand; 미국 사회과 교육학회(NCSS)의 주제 중심 교육과정에서 제안된 개념. 비교적 광의적인 학습 주제의 영역을 의미한다.

실제로 현행 교과서를 분석해 보면 분과 학문별로 널리 인정을 받은 이론이나 백과사전식 단순 사실의 나열에 그치고 있어서 보다 심도 있는 주제 학습으로 이어지기가 어렵다. 예를 들어, 10학년의 '생활공간의 형성과 변화' 단원에서 인구 피라미드 개념이 제시되며 도시와 농촌의 인구 구조 차이를 피라미드 형태의 차이로 설명하고 일제시대 이후부터 지속된 이촌향도 현상을 서술하는 데 그치고 있다. 그 보다는 급속한 도시 팽창으로 인한 도시적 생활양식(life style)의 문제점을 구체적인 자료로써 살펴보고 그 대안을 모색하거나, 국가의 발전 정도에 따른 인구피라미드 변천과 함께 인구구조의 변동이 야기하는 문제점들을 일반적인 사례들을 탐구함으로써 보다 밀도 있는 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다.

따라서 출산·가족 친화적 가치관을 함양하기 위한 교육 내용 체계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교육과정의 서술 체계에서 불필요한 탐구 과제를 과감하게 생략하고 대신 수업을 구성할 수 있는 보조 활동 자료를 제시해야 할 것이다. 특히 8학년에서 '사회화'의 개념을 중심으로 가족 친화적 가치관 함양을, 9~10학년에서 '인구구조의 변동'과 '도시화'의 개념을 중심으로 출산에 대한 긍정적인 가치관 함양을 추구할 수 있는 독립된 차시의 교육 내용을 구성할 수 있다.

2) 중등학교 도덕, 사회, 가정 교과서 내용 분석 및 개선방안

중학교 1학년에서부터 고등학교 1학년까지의 도덕, 사회, 가정과 교과서의 내용을 분석하여 문제점을 추출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분석결과 중 일부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표 7-6〉 중1 도덕 교과서 내용분석(대영역 2: 가정·이웃·학교생활 예절: 중등학교 도덕 교과서 내용 분석 및 개선 방안(일부)

교과서 관련 단원	내용 요소	문제점	개선 방안
중영역 : 1. 행복한 가정			
(1)가정은 왜 중요한가? (2)건강한 가정 (3)부모와 자녀간의 도리 (4)형제자매간의 도리	◦가정의 소중함 ◦공동체로서의 가족 ◦가족의 의미 ◦가정에서의 도덕교육 ◦가정 생활의 변화 ◦가족 구성원의 역할 ◦건강한 가정의 특징 ◦가족 구성원간의 정 ◦건강한 가정을 위한 노력 ◦가족 이해의 의미 ◦가족 대화의 중요성 ◦가족간의 예의 ◦부모님의 사랑 :자애 ◦자애의 참된 의미 ◦효도의 의미 ◦효도의 필요성과 중요성 ◦효도의 방법과 실천 ◦진정한 효도란? ◦형제자매의 중요성 ◦우애의 의미/소중함 ◦우애의 방법과 실천	◦확대가족과 핵가족 만으로 가족의 변화를 제시하여 현대 가정의 모습의 변화상을 표로 제시하였으나 그 모습이 구체적이지 못하다. ◦다양한 가족의 모습을 반영하지 못하였다. ◦가족 구성원의 역할을 팔, 다리, 머리, 몸통으로 구별한 것은 좋으나 이를 가족 구성원들 개개인과 결합시켜 역할에 대해 생각하는 면이 부족하다. ◦부모님의 자식 사랑에 대한 모습을 묘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족 구성원의 한 사람으로서 노부모를 결부시켜 그들의 사랑을 묘사할 필요있다. ◦지나치게 효의 당위성만이 강조되고 효를 행해야 한다는 내용의 분량도 지나치게 많아 식상한 느낌이 많이 든다.	◦오늘날 다양한 형태의 가족의 모습을 제시(외동가정, 한부모 가정, 재결합가정, 다인종가정, 입양가정 등) ◦또한 이러한 가정이 비정상적인 것이 아님을 인식시키기 ◦'함께하기' 등을 통해 가족 각 구성원들의 역할을 생각해보고 직접 써보게 하여 가족 내에서 자신의 할 일과 다른 가족의 해야 할 일들에 대해 고민해보기 ◦가족의 구성원으로서 노부모를 결합시켜 함께 사랑해야할 존재로 생각 ◦효의 이유를 좀더 설득력 있고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개인 각자의 이야기를 해봄으로써 일반화된 시각에서 나아가 생활에 와 닫는 자신의 이야기완성하기

현대 사회가 추구하는 건강한 가정의 모습을 다양하게 제시하여 이를 통해 가정의 중요성을 깨닫게 하고, 진정한 의미의 부모님의 사랑은 어떤 모습인지, 부모에 대한 효도는 어떤 것인지 올바른 가치관을 형성시킬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현대사회는 입양가족, 재혼가족, 한 부모 가족 등 다양한 형태의 가족의 모습이 있으므로 이 속에서 나타나는 가족 관계, 형제자매의 관계를 고려한 발문이나 예화가 제시되어 보통의 가정이 아닌 곳에서 성장한 학생들이 상처를

받거나 소외되는 경우를 최소화해야 할 것이다. 가정에서부터 양성 평등의 가치관을 심어주어 사회관계와 자신이 꾸려갈 미래가정이 건강해 질 수 있도록 기틀을 만들어 주어야 한다.

〈표 7-7〉 중1 사회 교과서 내용 분석(대영역 6: 유럽의 생활): 중등학교 사회 교과서 내용 분석 및 개선방안(일부)

소영역(단원)	내용 요소	문제점	개선 방안
중영역 : 1. 일찍 산업화를 이룬 서부 및 북부 유럽			
(6) 노동력이 부족하데요! 할머니, 할아버지는 어떡해?(다)	북서부 유럽의 인구 감소로 인한 노동력 부족 및 노인 인구 비율 증가에 따른 문제	제시된 텍스트와 인구 피라미드를 학습하면서 국가의 선진화 과정에서 인구 감소가 보편적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음.	◦ 인구 감소의 원인에 대해 분석하기 ◦ 인구감소로 인한 문제에 대하여 대안 제시하기 ◦ 적정 출산율에 대하여 국가별로 비교하기

중학교 1학년의 교육과정에서 중점이 되는 것은 학습자가 살고 있는 지역과 공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인식하는 것이다. 내 고장, 국토, 세계로 범위가 확대되면서 인간과 공간의 상호작용에 대해 이해하게 된다. 따라서 본 연구 주제인 출산 및 가족 친화적 가치관 함양을 본 학년의 교육과정 속에 담아내기가 쉽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시에 거주하는 가족의 삶에서 어려운 점들을 찾아냄으로써 도시라는 공간적 특성을 보다 심도 있게 이해하고,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는 과정을 경험하게 함으로써 출산 및 가족 친화적 가치관을 함양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도시화가 매우 급하게 진행되어 이미 도시 성장 단계 이론[19]의 종착 단계에 도달하였으며, 통일 이후에도 수도권 지역의 인구 밀도가 상당히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더욱 학습의 의의가 크다고 할 것이다.

한편 세계 여러 지역을 학습하는 과정에서 우리나라의 급속한 출산율 감소 현상에 관련하여 사례를 추출하여 학습하는 것도 좋다. 특히 프랑스의 경우 적

19) 도시화의 정도에 따라 초기 단계-가속화 단계-종착 단계로 구분하는데, 전체 인구 중 도시 거주 인구가 70% 이상이 되면 종착 단계에 다다른 것으로 본다. 우리나라는 1990년대 중반에 종착 단계에 이르렀다.

극적인 이민 정책과 출산 장려 정책을 통해 심각한 출산율 감소 현상을 어느 정도 극복하고 비교적인 안정적인 인구 추이로 전환하였기에 우리에게 많은 시사점을 줄 수 있을 것이다.

〈표 7-8〉 고1 사회 교과서 내용 분석(대영역 : 가정생활의 설계): 중등학교 가정 교과서 내용 분석 및 개선방안(일부)

소영역(단원)	내용 요소	문제점	개선방안
중영역: 결혼과 육아			
배우자 선택과 결혼	결혼의 의미	-	-
배우자 선택과 결혼(금)	결혼의 준비	성숙하지 못한 사랑의 예제시	스텐버그의 사랑의 삼각형 이론을 바탕으로 성숙한 사랑에 대한 구체적 설명
배우자 선택과 결혼	결혼의 준비	-	결혼 비용이나 결혼 절차 등을 결혼 당사자들이 자주적으로 준비 할 수 있어야 함을 설명
임신과 출산(금)	부모됨의 의미	부모 됨의 동기-불순한 목적의 자녀 출산	자녀 출산의 긍정적인 면 강조
임신과 출산(대)	부모됨의 의미	여성은 부모가 됨으로서 직장 생활에 지장을 받을 수 있음을 서술	유급 육아휴직이나 사회 탁아시설 이용 등의 기반 시설 설명
임신과 출산(금)	부모의 역할	아버지의 역할이 자녀 양육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설명 결여	자녀양육에 있어서의 아버지의 역할 강조
임신과 출산	임신과 태교	-	외국의 태교법 소개로 태교의 중요성 설명
임신과 출산	출산	-	-
아동 발달 (금, 천)	신생아기, 영아기, 유아기, 아동기	특수아동 문제 결여	장애 아동에 대하여 편견 갖지 않도록 특수아동의 발달단계도 설명해 줌
	신생아기, 영아기, 유아기, 아동기	-	아동의 발달적 특징을 알고 양육하는 것이 필요함을 일깨워 줌
아동 발달(금)	아동 돌보기	탐구과제-맞벌이 부부의 육아 문제가 어렵다는 신문 기사	탁아시설이용으로 맞벌이 부부의 육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음을 시사하는 신문기사 인용

자녀를 둔 맞벌이 부부의 구체적 사례를 제시하여 자녀에게 절대적인 사랑을 베품으로써 얻어지는 행복함과 충만함을 배우도록 한다. 또한 가사 노동에 부부가 공동으로 참여함으로써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나누어가지는 행복함을 배우게 한다.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가족원 모두가 가사노동에 참여해야 한다. 또한 새로운 가정을 형성하기 전부터 경제관념을 뚜렷이 하여 장기적인 생활 설계로 안정적인 주거를 얻음으로서 자녀 양육비에 대한 부담을 줄

일 수 있는 계획을 세우는 과정을 탐색해 보도록 한다. 현대사회는 맞벌이 부부의 증가로 자녀 양육에 대한 여러 문제점들이 대두됨으로,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제도나 정책들을 설명해 주고 자신에게 맞는 자녀출산을 계획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또한 자녀 양육에 있어 아버지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 지를 강조해서 장차 아버지가 될 남학생들의 자녀양육에 대한 가치관을 일깨운다.

제 6 절 출산·가족 친화적 가치관 교육을 위한 지도자료 지도 지침

1. 초등학교 지도자료

초등학교 어린이의 발달 단계를 고려하여 출산·가족 친화적 가치관 관련 지도 자료를 도덕·사회·실과의 각 과목별로 2차시씩 개발하였다. 교육내용은 어린이들이 일상생활에서 많이 경험하는 내용으로 선정하였고, 이야기 자료, 활동 자료 등으로 재미있고 즐겁게 학습하도록 개발하였으며, 지식을 가르치는 것보다 올바른 행동 실천을 강조하여 활동 중심 수업으로 전개되도록 하였다.

가. 도덕과 지도 자료 개발의 방향과 기준

초등학교 도덕과는 초등학생들에게 출산·가족 친화적 가치관을 형성하기 위해서 생명존중과 가족 간의 용서와 이해에 대한 주제를 선정하여 지도 자료를 개발하였다. 개발된 2차시 분의 지도 자료는 6학년 2학기의 단원 중 '소중한 생명'과 '너그러운 마음'에 관련된 것으로, '소중한 생명'이라는 주제에서는 자신의 존재에 대한 중요성을 알고 가치 있는 삶을 살아야겠다는 의지를 여러 활동 자료를 통해 습득하도록 개발하였으며, '용서합시다'라는 주제에서는 가족 내에서 먼저 용서하고 이해하는 마음을 갖고 생활하는 것이 중요한 요소임을 알고 실천하는 태도를 갖도록 하는데 목표를 두어 개발하였다.

나. 사회과 지도 자료 개발의 방향과 기준

초등학교 사회과에서는 인구 증가 및 인구 감소로 인한 문제점을 중심으로 초등학생들이 저출산 문제를 자연스럽게 인식하여 문제해결에 대한 대안에 접근할 수 있도록 지도 자료를 개발하였다. 개발된 2차시 분의 지도 자료는 5학년 1학기의 단원 중 '우리가 사는 지역'에서 '도시 지역의 생활' 및 '촌락 지역의 생활'에 관련된 것이다. '도시 생활의 문제를 알아보아요'라는 주제로 도시화에 따른 생활의 불편으로 인해 젊은이들의 결혼과 출산율이 감소하는 문제를 인식하고 그 대안을 찾을 수 있도록 개발하였으며, '학교가 없어지고 있어요!'라는 주제로 촌락의 큰 문제인 인구 감소와 고령화의 원인을 조사하고 인구의 감소를 줄일 수 있는 대안을 찾는데 목표를 두어 지도 자료를 개발하였다.

다. 실과 지도 자료 개발의 방향과 기준

초등학교 실과에서는 다양한 가족의 형태와 가족 구성원들의 역할에 대한 주제를 중심으로, 초등학생들이 최근 들어 다양하게 나타나는 가족의 형태를 인정하고 편견 없이 대하며 가족 구성원들의 역할을 알고 서로 돕는 마음을 지닐 수 있도록 지도 자료를 개발하였다. 개발된 2차시 분의 지도 자료는 모두 5학년 1학기의 단원 중 '우리의 가정생활'에 관련된 것이며, '가족의 다양성을 알아봅시다'라는 주제로 주변의 다양한 가족 형태를 알고 편견 없이 대하는 자세를 기를 수 있도록 하였으며, '가정의 일은 함께 해요'에서는 남녀평등 의식을 바탕으로 한 동등한 가족관계 및 역할에 대해 이해하고 그 안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찾아 실천하는데 목표를 두어 지도 자료를 개발하였다.

라. 지도 자료와 지도 지침서(예시안)

개발된 전체 6차시분의 초등학교 교수-학습 지도자료(도덕 2차시, 사회 2차시, 실과 2차시) 중에서 사회과의 두 번째 차시내용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초등학교 사회과 지도자료 2: 촌락의 인구

◪ 개관

학교가 없어지고 있어요!

관련 단원	5학년 1학기 사회과 2. 우리가 사는 지역 - 촌락 지역의 생활	학습주제	촌락의 인구 감소
		학습자료	방송자료, 학습지
가족 친화적 영역	인구의 감소로 인한 문제점	교수 · 학습 활동	탐구학습
		수업 시간	40분(1차시)
교과학습 목표	1. 촌락 지역의 문제점을 여러 가지 자료를 통해 알 수 있다. 2. 촌락의 문제점에 따른 대안을 제시할 수 있다.		
가족 친화적 목표	촌락의 큰 문제인 인구 감소와 고령화의 원인을 조사하고 인구를 증가시킬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한다.		

학교의 폐교 사태를 통해 동기를 부여하고, 이들 문제점이 생기는 이유와 원인을 여러 가지 자료를 통하여 조사해 본다.

폐교되는 지역의 학생 입장에서 폐교 후의 일과를 상상해 보고, 그 원인이 인구의 감소로 인한 현상임을 파악하게 한다. 인구의 감소는 지역의 낙후성과 고령화와 관련되어 있음을 파악한다.

초등학교 사회과 지도자료 2: 촌락의 인구 2

◪ 교수학습지도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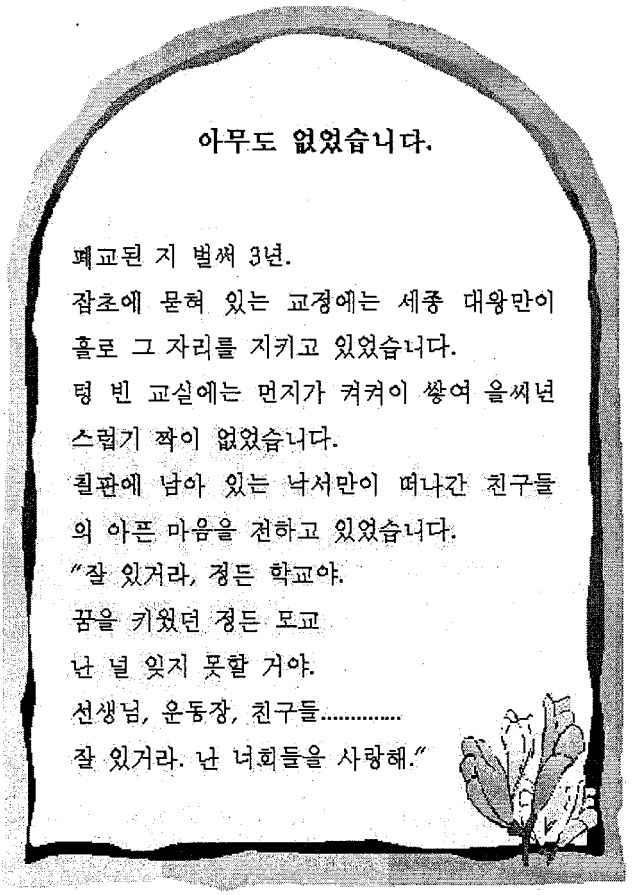
단계	과정	교수 · 학습활동	유의사항
도입	☆ 동기 유발하기 -생활 속 경험을 통한 동기 유발하기 ☆ 학습문제 제시	☆ 동시 듣기 - '아무도 없었습니다.'를 통해 촌락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 알기 ⇩ 촌락 지역의 문제점을 자료를 통해 파악하고 문제점에 따른 대안을 제시할 수 있다.	교사참고자료1 ☞ 동시 들려주기
전개	☆ 활동1 - 촌락의 문제점 찾아보기 - 과제활동 발표	☆ 통계 자료 보기 - 농업가구 및 농가 인구 통계 자료 보기 ☆ 활동1 - 촌락의 문제점을 사례를 통해 알아보기 - 인터넷이나 신문기사 스크랩을 통해 촌락의 문제점 파악하기 - 조사해 온 내용을 발표하기	교사참고자료2 ☞ 통계 자료 http://mirae.nso.go.kr/social1/
	☆ 활동2 - 학습지 활동	☆활동2 - 촌락의 문제점이 발생하는 까닭 알기 - 촌락의 문제점 발생원인 알기 - 촌락의 문제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까닭 알기	학생참고자료1 ☞ 촌락의 인구 감소원인 찾기
		☆ 활동 3 - 촌락의 문제에 따른 대안 제시하기 - 조사 내용 발표하기 ☆ 활동 4 영상자료 보기 - 2005년 10월 30일 KBS 취재파일 4321 중 '어느 농촌 학교의 부활'	교사참고자료3 ☞ 방송 자료 2005년 10월 30일 KBS 취재파일 4321
정리	☆ 활동 3 - 학습 활동결과 발표하기 차시 예고	☆ 활동 5 - 촌락의 문제점을 극복한 뉴스 꾸미기를 통해 학습 활동 결과 발표하기	학생참고자료2 ☞ 뉴스꾸미기

초등학교 사회과 지도자료 2: 촌락의 인구 3

◪ 참고자료

교사용 참고자료

◆ 아무도 없었습니다. – 동시 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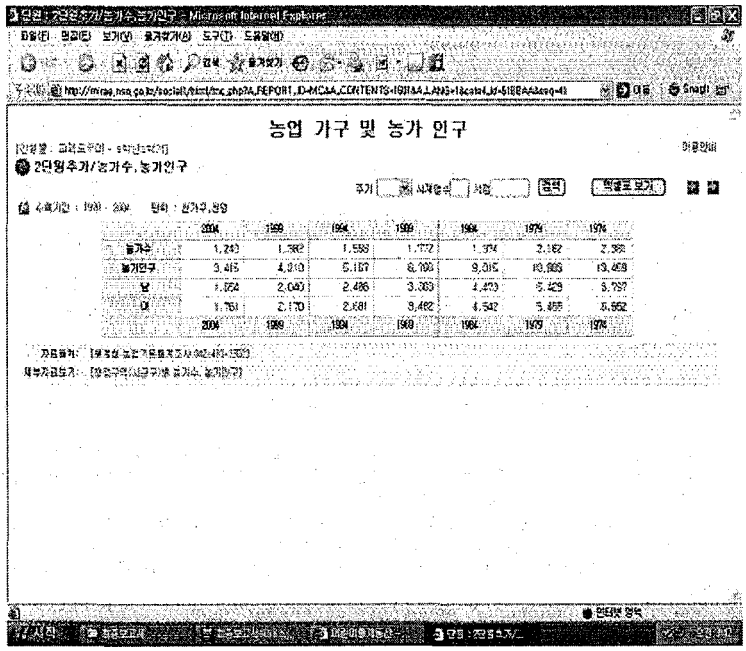
아무도 없었습니다.

폐교된 지 벌써 3년.
잡초에 묻혀 있는 교정에는 세종 대왕만이
홀로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텅 빈 교실에는 먼지가 켜켜이 쌓여 을씨년
스럽기 짝이 없었습니다.
칠판에 남아 있는 낙서만이 떠나간 친구들
의 아픈 마음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잘 있거라, 정든 학교야.
꿈을 키웠던 정든 모교
난 널 잊지 못할 거야.
선생님, 운동장, 친구들.....
잘 있거라. 난 너희들을 사랑해."

초등학교 사회과 지도자료 2: 촌락의 인구

교사용 참고자료

◆ 농업 가구 및 농가 인구의 통계표



초등학교 사회과 지도자료 2: 촌락의 인구 5

교사용 참고자료

◆ 어느 농촌 학교의 부활

지난 20여년간 전국에서 3천여개 농어촌 학교가 인구 감소에 따른 학교 통폐합 정책에 밀려 잇따라 폐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비록 극소수이긴 하지만 폐교 위기에까지 이르렀다가 오히려 도시 학생들이 전학을 오는 명문학교로 탈바꿈한 초등학교들이 있습니다. 교육 주체들의 헌신적인 노력과 인격적인 만남 중심의 교육으로 살려낸 이들 학교를 찾아가봤습니다.

경남 김해시 상동면 여차리 용산초등학교. 3년전까지만 해도 학생수 30명을 밑돌던 이 학교가 한 교장선생님의 부임을 계기로 엄청난 변신에 성공합니다. 산골 학교에 밤이 찾아왔습니다. 중년 남자가 학교 구석구석을 돌며 야간 경비를 섭니다. 다름아닌 이 학교 교장 최용진씨입니다. 교대 인원도 없이 매일 밤 혼자서 경비를 맡아 온 지가 벌써 3년째. 원래 사설 경비업체 직원이 있었지만 최씨는 부임직후 자신이 직접 경비를 맡기로 했습니다. 경비비 1천3백여만 원을 아껴 학교 예산에 보태기 위해서였습니다. 최씨가 이 학교에 부임해 온 것은 지난 2002년, 당시 전교생 26명이었습니다. 최씨는 폐교 직전의 학교를 살리기 위해 팔을 걷었습니다.

어린 1학년 학생들이지만 외국인의 물음에 익숙하게 대답합니다. 전교생이 일주일에 3시간씩 원어민을 만나는 덕에 과외 따로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지난해 서울에서 김해로 이사 온 홍현주씨. 아들 우준이를 집 앞 초등학교 대신 1시간이나 떨어진 용산초등학교로 보냈습니다.

"학원에 가지 않아도 학교 자체 내에서 프로그램이 따로 있거든요. 다양하게 뭐 아직은 또 초등학생이니까 자연하고 같이 생활을 하면서 공부도 또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면서 할 수 있는 그런 면에서 참 좋은 거 같아요."

우준이처럼 소문을 듣고 이 학교로 전학 온 학생이 전교생 1백10여명 가운데 3분의2 가량이나 됩니다. 20 킬로미터나 떨어진 김해시내에서 통학버스를 타고 찾아올 만큼 이 학교는 이 지역에서 선망의 대상이 된 것입니다. 학교가 희생하기까지는 졸업생들의 도움도 컸습니다.

도시에 있는 대학교수들도 돕기에 나섰습니다. 6명의 교수들이 격주로 2시간씩 하는 체험활동 수업을 무보수로 맡았습니다.

폐교 위기에서 살아난 또 다른 초등학교입니다. 미술치료 분야를 전공한 한 학부모가 매주 4학년 여학생들만 따로 모아 특별활동 지도를 합니다. 오늘 할 거는 뭐냐면 그냥 너네 하던 대로 해 오늘은 너희가 그렇게 고대하던 자유화야. 자기가 그린 그림을 설명하면서 내면의 비밀도 털어놓는가 하면 친구의 의미를 발견하기도 합니다.

학교 규모가 작아진 덕에 학부모와 교사, 그리고 학생들이 더욱 가까이서 서로를 보게 됩니다. 공동체 내에서 각자의 역할도 더 커졌습니다.

농어촌의 소규모 학교는 흔히 대도시 학교에 비해 교육 환경이 낙후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교육의 혁명은 오히려 폐교 위기에까지 몰렸다 되살아난 농어촌의 소규모 학교에서 시작되고 있습니다.

http://www.kbs.co.kr/4321
2005년 10월 30일 방송

초등학교 사회과 지도자료 2: 촌락의 인구 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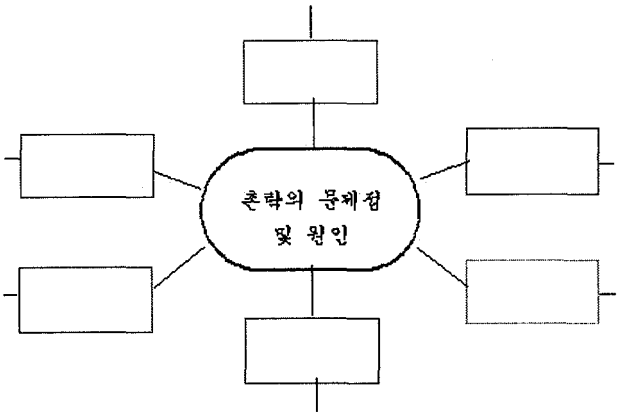
학생용 참고자료

◆ 다음 보기 중 촌락에서 당면한 문제점들을 모두 고르시오.

보기

교통 혼잡, 인구의 고령화, 주택 부족, 농산물 수입 개방,
의료 시설 부족, 과밀 학급, 이농 현상, 문화 시설 부족,
대기오염 문제, 바다오염, 저소득, 석탄 수요 감소, 주차문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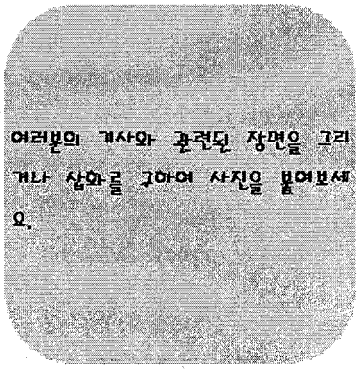
◆ 농촌, 어촌, 산촌 가운데 한 촌락을 선택하여 촌락에서 일어나는 문제점과 그 원인에 대하여 마인드 맵으로 작성하여 보시오.



초등학교 사회과 지도자료 2: 촌락의 인구 7

학생용 참고자료

◆ 촌락의 인구감소와 고령화가 해결될 수 있는 방안을 하나씩 생각하여 뉴스를 꾸며 봅시다.



(　　) 기자 (　　)

2. 중등학교 지도자료

가. 중등학교 도덕 지도자료

1) 지도 자료 개발의 방향과 기준

본 지도 자료는 우리 사회에 출산·가족 친화적 가치관을 형성하기 위해서 가정생활의 도덕, 갈등과 문제 해결을 위한 도덕적이고 합리적인 사고력과 판단력, 행복한 가정생활의 자세, 생명의 소중함과 미래 가정 설계, 우리 가족에 대한 이해 등의 주제를 선정하였다. 그에 따라 개발된 5차시의 지도안은 동일 학년이 아니라 중학교 1, 3학년을 대상으로 한다. 때에 따라 수정·보완되어 중학교 2학년, 고등학교 1학년에도 사용되어 질 수 있는데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5차시 분은 연속적인 내용의 지도안이 아니라는 것이다. 개발의 방향과 내용 선정의 이유는 차시별로 개관에 제시되어 있다.

특히 도덕적 민감성, 도덕적 사고력, 도덕적 행동 등 인지, 감정, 행동 영역에서 고른 활동을 두어 도덕적 성장에 기여하려고 하였고 다양한 체험과 활동을 통해 도덕적 가치의 내면화를 시도하였다.

2) 지도 자료와 지도 지침서

개발된 전체 5차시 분 도덕과 교수-학습 지도 자료 중에서 세 번째 차시의 지도 자료와 지도 지침서를 예시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중등학교 도덕과 지도자료 3: 사랑은 표현하는 거래요 1

◪ 개관

관련 단원	중학교 1학년 도덕 Ⅱ. 가정 · 이웃 · 학교생활 예절 1. 행복한 가정 (1) 가정은 왜 중요한가? (2) 건강한 가정 (3) 부모와 자녀 간의 도리
학습 주제	가족에게 사랑 표현하기
학습 목표	1. 우리가 가족과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 사랑임을 알 수 있다. 2. 가족간의 사랑은 표현할 때 의미가 있으며, 표현하는 사랑이 아름다움을 실천할 수 있다. 3. '우리 가족 10계명'을 통해 우리 가족에 맞는 가족 사랑 실천 방법을 찾아 실천할 수 있다.

가족이란 우리의 삶을 유지시켜주는 버팀목이 된다. 가정을 바탕으로 사회 생활이 이루어지고 가족이 우리 삶의 원동력이 되고 있다. 하지만 이런 가정이 갈수록 흔들리고 무너지고 있으며 서로의 자존심이나 이기심으로 인해 서로 상처주고, 본의 아니게 서로에게 피해를 주고 있는 경우가 많다. 우리가 가족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단어가 '사랑'이라고 한다. 가족간의 사랑이 있어야 한다는 당연한 진리에도 우리는 이런 사랑을 표현하는 데는 너무 서툴다. 따라서 이 수업에서 사랑은 무엇보다도 표현이 중요하며 표현하는 사랑이 아름다운 것임을 체험할 수 있게 하는데 수업의 목적이 있다고 하겠다.

중등학교 도덕과 지도자료 3: 사랑은 표현하는 거래요 2

◪ 교수 학습 지도안

교수 학습 단계	수업내용	교수학습 활동	유의 사항
도입	가족의 의미 되새기기	· 가족하면 떠오르는 생각을 적음으로써 우리 가족이 나에게 주는 의미 생각하기 ·'만약 나에게 가족이 없다면?'이란 발문을 통해 실제 가족이 없다면 나에게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에 대해 생각해보게 한다.	학생 활동 자료1
	가족의 화목을 위한 나의 실천 방법 찾기	가족구성원들이 각자 우리 가족을 위해서 실천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보기	
전개	우리 가족에게 사랑 표현하기	· 지금까지 생활하면서 우리 가족이 나를 사랑한다고 느낀 경우나 내가 가족 구성원들을 사랑해서 한 행동, 우리가 가족 구성원들에게 고마움을 제대로 표현했거나 표현하지 못했던 경험들을 우리 가족구성원 하나 하나에 대해 생각해보고 이를 찾아 적어보기 · 학습지를 작성한 후 학생들에게 내용을 발표하게 하여 느낌을 나눈다. 많은 학생들이 참여하고 발표할 수 있도록 교사가 지도한다. · 가족사랑 표현을 강조한 공익광고를 시청하게 한 후 내가 얼마나 가족에 대해 사랑을 표현하고 있는지 생각해 본다	학생 활동 자료2,3
	가족사랑 표현하기	일주일 동안 내가 가족에게 사랑을 표현하면서 지내는지 확인해보고 자기 생활 반성하기	
정리	정리와 확인활동	우리 가족을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가 실천해야 할 것들에 대해 구체적으로 정리하는 '우리 가족 10계명'을 만들어 보고 학생들로 하여금 발표하게 한다. · 교사는 10계명 활동이 기록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 가정에서 실천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함을 강조하면서 수업을 마무리 한다.	학생 활동 자료지 4

중등학교 도덕과 지도자료 3: 사랑은 표현하는 거래요 3

◪ 지도 지침

❀ 도 입 ❀

1.학생들로 하여금 눈을 감게 한 후 가족하면 떠오르는 생각이나 단어 등을 생각하게 한다.(학생용 활동자료 1 배부)

2. 만약 나에게 가족이 없다면?'이란 발문을 통해 학생들로 하여금 평소 자신의 가족에 대한 행동을 생각하게 한다.

3. 자기의 가족을 하나하나 생각해가면서 그들이 가족을 위해 하고 있는 긍정적인 활동들을 생각하여 기록하게 한다.

❀ 전개 ❀

1. 학생들이 평소 우리 가족 구성원들에게 얼마나 칭찬을 하고 있는지, 고마움을 표현하고 있는지 생각하게 한 후 표현의 구체적인 방법을 충분히 인지시키고, 가족 구성원 한명 한명에 대해 적게 한다. 지금까지 생활하면서 다른 가족구성원들이 나를 사랑해서 한 행동이나 고마움을 표현을 제대로 못한 경우 등 되도록 구체적인 상황을 제시하며 효과적이고 진심어린 표현이 될 수 있도록 한다. (학생용 활동자료 2 배부)

2. 가족사랑 표현을 강조한 공익광고를 시청하게 한 후 내가 얼마나 가족에 대해 사랑을 표현하고 있는지 일주일간 스스로를 관찰하게 한 후 체크리스트를 작성하도록 숙제로 배부한다. (학생용 활동자료 3 배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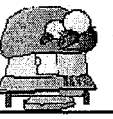
❀ 마무리 ❀

1. 가족 관계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우리 가족을 사랑하기 위해 어떠한 실천들이 따라야 하는지 설명한다. (교사용 지도자료 참고)

2. 우리 가족을 사랑하기 위해 실천해야 하는 '우리 가족 10계명'을 기록하게 하고 자신의 가족에 맞게 보다 구체적이고 실천 가능한 내용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도하고, 이를 집에 붙여 놓고 온 가족이 실천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함을 강조한다.(학생용 활동자료 4 배부)

중등학교 도덕과 지도자료 3: 사랑은 표현하는 거래요 4

학생 활동 자료 1



사랑하는 나의 가족

1. 나에게 가족하면 떠오르는 생각이나 단어는?	
2. 만약 나에게 가족이 없다면?	

3. 현재 우리 가족구성원 각자가 우리 가족을 위해 하고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써봅시다.

가족원1-( )	
가족원2-( )	
가족원3-( )	
가족원4-( )	
가족원5-( )	

학생 활동 자료 2

우리 가족에게 사랑표현하기

◈ 우리가 생활하면서 내가 가족을 얼마나 사랑하고 고마워하는지를 표현하는 방법을 알아야 상대방에게 효과적으로 나의 진심이 전해질 수 있고 상대방의 진심을 읽을 수 있다. 사랑 표현의 방법을 익혀 우리 가족 구성원 한명 한명에 대해 무엇을 사랑이라고 느꼈는지, 그들에게 표현하지 못한 것은 무엇이었는지 적어봅시다.

*효과적인 칭찬방법 8가지

1. 구체적으로 한다.
2. 간결하게 한다.
3. 남 앞이나 제3자에게 칭찬한다.
4. 사소한 것을 칭찬한다.
5. 당사자 주변의 인물을 칭찬한다.
6. 우연 그리고 의외의 상황에서 칭찬한다.
7. 상대에 따라 칭찬 내용이나 방법을 달리한다.
8. 결과뿐 아니라 과정과 노력을 칭찬한다.

가족원	사랑 표현 하기

중등학교 도덕과 지도자료 3: 사랑은 표현하는 거래요

학생 활동 자료 3

사랑을 표현하세요^^

※ 다음 동영상 두 편을 본 후 생각해봅시다.

< 출처- 공익광고협의회, WWW.TVCF.CO.KR >

1. 많은 시간과 경험을 같이 하는 가족들에 대해 당신은 얼마만큼 알고 있습니까? (점수를 매겨보세요)

2. 우리 가족에게 '고마워, 미안해, 사랑해'란 말을 하루 동안 얼마나 사용하는지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봅시다.(正자로 표시해보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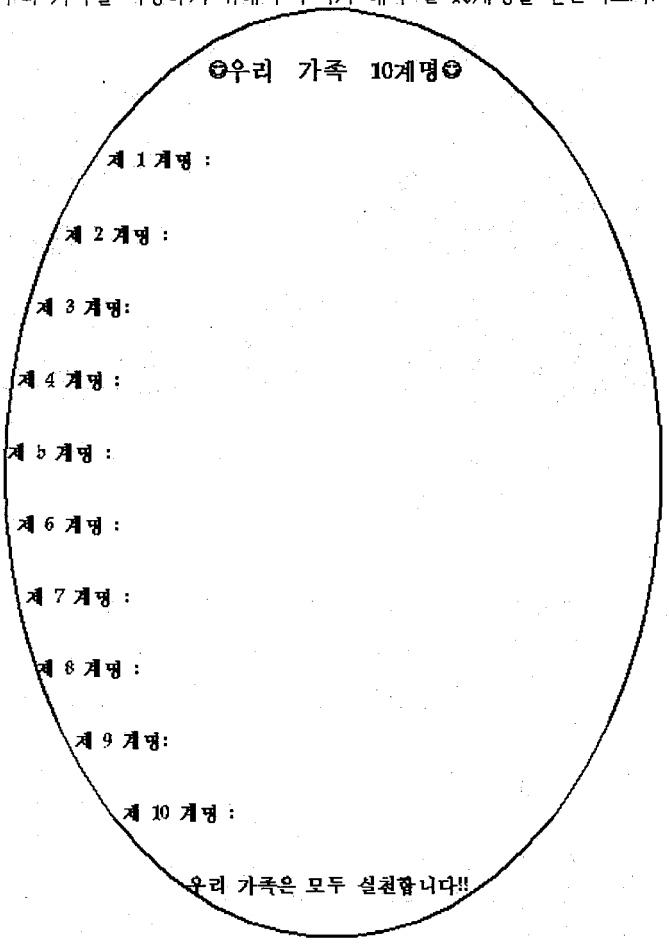
날 짜	고마워	미안해	사랑해
월 일			
월 일			
월 일			
월 일			
월 일			
월 일			
월 일			

<느낀점>

학생 활동 자료 4

ꕥꕥ우리 가족 10계명ꕥꕥ

❖ 우리 가족을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10계명을 만들어보자.



중등학교 도덕과 지도자료 3: 사랑은 표현하는 거래요 8

교사 참고 자료 1

1. 효도하자 홈페이지에 있는 '효도합시다송'을 참고한다.

http://www.hyodohaja.com/flashsong/flashsong

나. 중등학교 사회 지도자료

1) 지도 자료 개발의 방향과 기준

본 지도 자료 개발 목표는 최근 우리 사회에 나타나고 있는 저출산과 가족 해체현상에 대한 대책을 사회 수업을 통하여 마련하는 것이다. 그 주된 내용은 수업을 통하여 학생들에게 출산·가족 친화적인 가치관을 증진시키며, 출산율을 증진시키는 데 있다. 덧붙여 사회과 교과의 특성상 가치관 형성에만 기여하는 것이 아니라, 저출산·고령화 사회의 문제의 심각성 및 그 원인을 파악하는 것을 통한 논리적 사고력 증진, 이를 바탕으로 한 해결책 제시 등도 중요하게 다루었다.

개발된 지도 자료와 교사 지침서는 중, 고등학교 사회 교과서 내용 중 가정 영역에서 저출산·가족 친화에 관련 내용을 분석한 것 들 중에서 선정된 것으로 총 5차시분의 4개 자료다. 선정된 주제는 가족해체현상 및 세대차이 극복을 통한 가족친화력 향상, 가족에 대한 사회적 지원체제의 중요성, 저출산·고령화 문제의 양상·문제점·대책, 저출산이 경제 성장에 미치는 영향 등이다.

한편 중등 사회교과서의 특성상 이 문제와 깊이 관련된 단원이 적으므로 저출산·고령화에 대한 2차시 정도의 소단원을 구성하여 수업할 수 있게 하였다. 학생 시청각 자료를 별도로 만들었으며, PPT 자료에는 수업 보조 자료로서 동영상 자료가 포함되어 있다. 이는 주로 사례 제시(지도 자료 1, 2) 및 개념 정리(지도 자료 3, 4)의 목적으로 수업 중에 사용되도록 구성되었다.

2) 지도 자료와 지도 지침서

개발된 전체 5차시 분 사회과 교수-학습 지도 자료 중에서 첫 번째 차시의 지도 자료와 지도 지침서를 예시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중등학교 사회과 지도자료 1: 가족친화력 향상을 위한 학습 1

◪ 개관

<table>
<tr><td rowspan="2">관련 단원</td><td rowspan="2">• 중학교 2학년
Ⅳ. 개인과 사회의 발전 (고려출판, 지학사)
• 주요 학습 내용 : 사회화, 가족 해체 현상, 세대 차이</td><td>학습주제</td><td>가족 친화력 향상</td></tr>
<tr><td>학습자료</td><td>학습지, PPT, 볼펜</td></tr>
<tr><td rowspan="2">출산 및 가족 친화적 영역</td><td rowspan="2">사회화, 가족 해체 현상, 세대 차이, 도시 가족의 역할 갈등</td><td>교수·학습 활동</td><td>개념학습, 탐구학습</td></tr>
<tr><td>수업시간</td><td>50분(1시간)</td></tr>
<tr><td>교과 학습목표</td><td colspan="3">1. 사회화를 통하여 개성을 지닌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함을 이해한다.
2. 개인이 공동체 내에서 가지는 지위와 역할에 대해 이해한다.</td></tr>
<tr><td>출산 및 가족 친화적 목표</td><td colspan="3">1. 가족 해체 현상을 극복하고 가족 내에서 사회화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
2. 사회문제로 부각되는 세대 차이를 극복하는 방안을 제시할 수 있다.
3. 도시 가족의 역할 갈등 상황을 극복하는 방안을 제시할 수 있다.</td></tr>
</table>

가족 친화적 가치관의 함양에 있어 사회과에서는 우리 사회의 가족 제도와 관련된 여러 현상들을 탐구함으로써 가족의 중요성을 인지적인 측면에서 받아들이게 한다. 특히 최근에 이혼율 급증과 세대 갈등으로 인한 가족 해체 현상은 더 이상 개별 가족이 책임져야 하는 문제가 아니다. 친화력을 가진 안정된 가족 제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회적인 지원 체제에 어떤 것이 있는지 탐구할 필요성이 크다고 하겠다.

중등학교 사회과 지도자료 1: 가족친화력 향상을 위한 학습 2

◪ 교수학습지도안

단계	수업 내용	교수-학습활동	준비물 및 유의점
도입	전시학습 확인	사회화, 자아 정체성, 청소년 문화, 세대 차이, 지위와 역할 등의 개념을 확인한다.	학습지 배부
	학습 목표	학습지에서 학습 목표를 다같이 읽고, 간략한 설명을 듣는다.	교사 설명
전개	가족 해체 현상의 정의와 사례	가족 해체 현상의 정의를 이해하고 사례를 분석한다.	교사 설명
	성장 단계별로 사회화 과정에 참여하는 방식	성장 단계별로 가족 내에서 사회화 과정에 참여하는 방식을 탐구한다.	소그룹별
	사회문제로 부각되는 세대 차이	사회문제로 부각되는 세대 차이 사례	PPT 자료
	도시 가족의 역할 갈등	도시 가족의 역할 갈등 사례를 분석하고, 이를 극복하는 방안을 탐구한다.	소그룹별
정리	가족친화력 향상의 필요성	도시 가족 내에서 친화력이 향상되어야 개인의 정체성 형성과 사회 안정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이해한다.	교사 설명

◪ 지도지침

도입부분에서는 전시에서 학습한 사회화, 자아 정체성 등 기본 개념을 확인하고, 이 학습 내용들이 가족 친화력 약화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인식하게 한다. 소그룹별로 학습지에 기본 개념을 정리하게 하고, 제시된 사례에 대해 간략한 토의를 거친 후에 각자의 의견을 적도록 지도한다. 소그룹별 활동이 끝나면, PPT를 보여주면서 세대 차이로 인한 갈등을 극복할 수 있는 대처방안에 대해 발표하게 한다. 모든 활동이 종료되면 가족의 친화력 향상이 개인이나 개별 가족에게만 맡겨질 것이 아니라 사회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것임을 강조한다.

중등학교 사회과 지도자료 1: 가족친화력 향상을 위한 학습 3

학생 활동 자료

가족 친화력 향상

1. 지금까지 배운 개념들

① 자기가 속해 있는 사회의 언어, 규범, 가치관 등의 문화를 학습하여 사회의 구성원으로 성장하는 과정을 (사회화)라고 한다.

② 청소년기에 자신의 성격과 능력에 대해 끊임없이 질문을 던지면서 자신에 대한 인식을 갖게 되는데, 이를 (자아 정체성)이라 한다.

③ 청소년들이 갖는 독특한 언어, 행동방식, 가치관 등을 (청소년 문화)라고 한다.

④ 세대 간에 발생하는 문화적 차이를 (세대 차이)라고 한다.

⑤ 사회 또는 집단 속에서 개인이 차지하고 있는 위치를 (지위)라고 하며, 그 위치에 따라 기대되는 행동 양식을 (역할) 이라고 한다.

2. 이번 시간의 학습 목표

① 가족 해체 현상을 극복하고 가족 내에서 사회화 과정에 적극 참여할 수 있다.

② 사회문제로 부각되는 세대 차이를 극복하는 방안을 제시할 수 있다.

③ 도시 가족의 역할 갈등 상황을 극복하는 방안을 제시할 수 있다.

3. 가족 해체 현상이란?

① 뜻 : 전통적인 가족이 지니던 결속력이 약화되고, 결혼 및 출산을 기피하거나 이혼율이 증가하는 등 탈가족화 되는 현상

② 사례

서울시에서 1981년 조사된 자료에 의하면, 이혼 직후에 후련하다는 사람이 30%, 답답하다는 사람이 49%, 재결합을 희망하는 사람이 3%, 후회한다는 사람이 10%였다.

이러한 이혼 증가는 한국 사회에서 더 이상 애깃거리가 되지 않는다. 1993년 결혼 7쌍에 1쌍 꼴이던 이혼은 2003년에 거의 2쌍에 1쌍 꼴로 압축되었다.(보건복지부 발표에 따르면 이혼율 47.4%로서 미국과 스웨덴을 이어 세계에서 3번째로 이혼율이 높다.)

③ 물음에 답하기

- 사례에서 이혼율이 증가하는 원인을 두 가지 이상 생각해보자.

◦여성의 사회참여율이 늘어나면서 부부 간에 경제력이 평등해지고 위기가 발생하였을 때 대화로 해결하기보다는 쉽사리 이혼을 선택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결혼 및 가족에 대한 가치관이 변화하여 사회에서 이혼을 당연하게 여기는 풍토가 형성되었다.

- 이혼율이 증가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사회 문제에는 어떤 것이 있겠는가?

◦편부, 편모 가족의 증가로 인하여 자녀 양육에 부담이 증가한다.

◦이혼과 재혼 등에 수반되는 사회적 비용이 증가한다.

◦출산율이 낮아질 수 있다.

4. 성장 단계별 가족 내의 사회화 과정

성장 단계	지위	역할(중요한 사회화 과정)
유년기에서 아동기	자녀	· 기초적인 생활 습관 형성
청소년기에서 청년기	자녀	· 부모의 가르침에 따라 자율적인 생활 습관 형성 · 형제간에 친밀한 관계 형성
장년기	자녀, 부모	· 부모에게 효로써 봉양하기 · 자녀를 양육하고 바른 생활 습관 교육하기
노년기	부모	· 자손에게 현명한 삶의 지혜를 가르쳐주기

5. 도시 가족의 역할 갈등 극복하기

① 아버지의 역할 갈등 사례

평범한 회사원이신 갑돌씨는 최근에 어려워진 회사 사정으로 인해 가족을 돌보는 일에 신경을 기울이지 못해 늘 미안한 마음을 갖고 있었다. 그런데 얼마 전 연로하신 아버님께서 병환으로 돌아가시고 어머님만 홀로 시골에 지내시게 되어서 서울에 모셔와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얼마간 어머님을 모시다보니 아내가 불편해하는 기색을 자주 보이게 되어 잠시 시골 여동생 집에서 모시게 하였다. 그러나 여동생도 남편이 불편해 해서 다시 모셔갔으면 좋겠다는 전화를 여러 번 하였고, 갑돌씨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처지가 되어서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

중등학교 사회과 지도자료 1: 가족친화력 향상을 위한 학습 5

- 위 지문에서 역할 갈등에 처한 갑돌 씨의 지위는 어떤 것인가?

(자식, 남편, 오빠)

- 위 갈등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좋은 방법은 어떤 것이 있겠는가?

· 오빠 부부와 여동생 부부가 모여서 서로의 어려운 점을 공유하고 어머님을 모실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한다.

· 양호한 시설을 갖춘 노인 요양 기관을 알아본다.

② 어머니의 역할 갈등

갑순 씨는 대형 할인 마트에서 계산 업무를 하고 있는 주부이다. 남편의 수입만으로는 자녀 교육비와 생활비를 감당하기에 벅차기 때문에 일을 하는 것이다. 오후 1시부터 저녁 11시까지 일을 하기 때문에 자녀들에게 신경을 많이 쓰지 못하고 있어서 늘 안쓰런 마음을 갖고 있다. 그러던 어느 날 초등학교 2학년인 둘째 아들이 학교를 다녀와서 누나가 학원을 간 사이 라면을 끓여 먹으려고 하다가 냄비를 엎는 사건이 생겼다. 그래서 둘째는 한쪽 다리에 2도 화상을 입고 병원 치료를 받아야 했다. 이런 일이 생기자 갑순 씨는 계속 일을 해야 할지 자녀 양육에 좀 더 신경을 써야 할지 고민하고 있다.

- 위 지문에서 엄마로써 갈등에 처한 갑순 씨의 역할은 어떤 것인가?

(자녀를 돌보아야 하는 역할과 가정의 수입을 보태야 하는 역할)

- 위 갈등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좋은 방법은 어떤 것이 있겠는가?

· 자녀 양육에 지장을 미치지 않는 근무 조건을 찾아본다.

· 자주 자녀와 대화를 나누면서 고민을 해결해줄 수 있도록 노력한다.

③ 자녀의 역할 갈등

호동이는 중학교 3학년 학생이다. 주5일제를 학교에서도 하게 되어서 매월 둘째, 넷째 주 토요일은 학교에 가지 않아도 되어 매우 좋아한다. 이번 주 토요일도 쉬는 날인데 특별활동으로 하는 사진반에서 교외 지역으로 사진 촬영을 나가기로 하였다. 그런데 갑자기 부모님께서 두 분만 시골에 내려가시게 되어서 초등학교 2학년인 여동생을 돌보아야 한다고 말씀하셨다. 평소에도 말썽꾸러기인 동생인지라 분명히 친구들이랑 밖에 나가서 놀려고 할 것 같아서 제대로 동생을 돌볼 자신도 없거니와, 사진 촬영 행사도 오랫동안 기다리던 것이라서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하고 있다.

- 위 지문에서 역할 갈등에 처한 호동이의 지위는 어떤 것이 있겠는가?

(학생, 오빠)

- 위 같등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좋은 방법은 어떤 것이 있겠는가?

· 부모님에게 동생을 데리고 시골에 다녀오시라고 부탁드린다.

· 사진 촬영 행사를 포기하고, 동생을 돌본다. 다만 동생에게 오빠의 말을 잘 듣고 부모님을 기다릴 수 있도록 잘 타이른다.

6. 아름다운 가족 10계명.

① 사랑하는 마음을 표현합니다.
② 충분한 대화시간을 갖습니다.
③ 같이하는 취미활동을 만듭니다.
④ 집안일을 나눠합니다
⑤ 집안의 중요한 일 함께 결정합니다.
⑥ 함께 지킬 규칙을 서로 상의해 만듭니다.
⑦ 각자의 자기계발을 격려합니다.
⑧ 사회봉사활동 함께 참여합니다.
⑨ 가족의 전통을 이해하고 새롭게 만들어 갑니다.
⑩ 가족의 날을 정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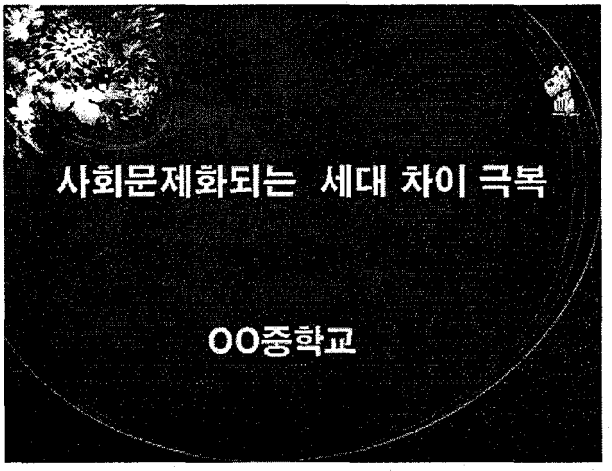
※ 아래에 우리 가족에게 필요한 계명을 직접 적어봅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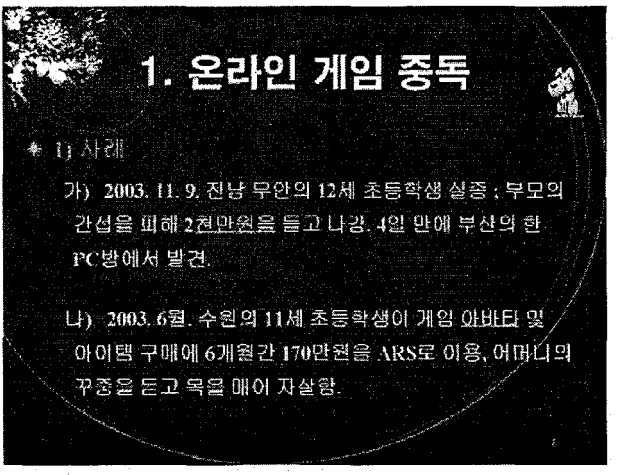
-
-
-

중등학교 사회과 지도자료 1: 가족친화력 향상을 위한 학습 7

학생 시청각 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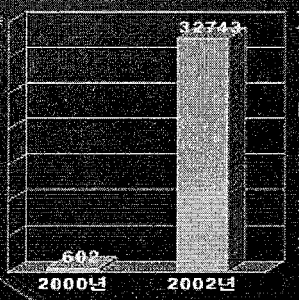
- Powerpoint로 살펴보기 : 온라인 게임 중독에 관하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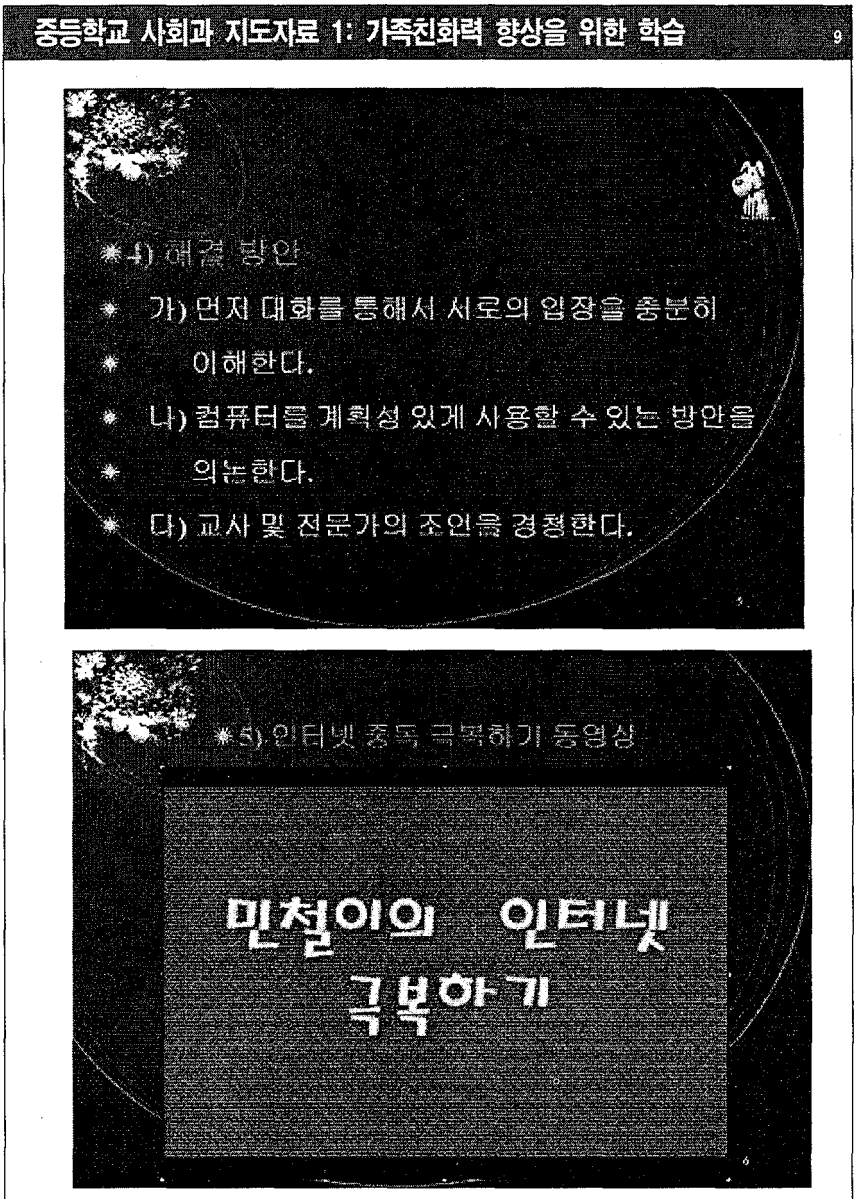
중등학교 사회과 지도자료 1: 가족친화력 향상을 위한 학습 8

* 2) 게임 관련 범죄 증가 현황



게임의 특성상 청소년들이 불법적인 아이템 거래나 타인의 주민등록번호 도용 등 범죄에 연루될 가능성이 높으며 종종 부모와 갈등을 겪는다.

* 3) 세대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
  * 가) 부모의 입장 : 자녀가 학업에 몰두하고, 나쁜 인터넷 문화를 접하지 않기를 바람.
  * 나) 자녀의 입장 : 부모의 과도한 염려를 부담으로 느끼고 자율적으로 행동하며 인터넷을 통해 지적, 정서적 욕구를 충족시키고자 함.


중등학교 사회과 지도자료 1: 가족친화력 향상을 위한 학습
9
4) 해결 방안
가) 먼저 대화를 통해서 서로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한다.
나) 컴퓨터를 계획성 있게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의논한다.
다) 교사 및 전문가의 조언을 경청한다.
5) 인터넷 중독 극복하기 동영상
민철이의 인터넷 극복하기

교사 참고 자료

가족 해체 현상을 해소하기 위한 여러 제도

○이혼 숙려 제도 : 협의 이혼을 신청한 부부에게 가정 법원에서 2-3주 정도 기간을 두고 다시 한 번 생각해 보도록 하는 제도.

○모·부자 복지법 : 저소득 모·부자 가정을 대상으로 양육비 등 생활을 지원하는 제도(아동양육비, 고교생학비, 복지자금융자, 영구임대주택 입주)

○가정폭력/성폭력방지 : 여성가족부에서 운영하는 여성긴급전화 1366 운영 중임. 필요에 따라 상담소, 긴급피난처, 피해자 보호시설 등으로 연계하여 폭력에서 보호함.

다. 중등학교 가정 지도자료

1) 지도 자료 개발의 방향과 기준

본 지도 자료는 최근 우리 사회에 나타나고 있는 저출산과 가족의 위기를 이겨나갈 수 있는 대책의 하나로 중등학교 학생들에게 출산·가족 친화적인 가치관을 증진 시키며, 미래 대한민국 사회의 가족 건강성과 출산율을 증진시키는데 있다. 개발된 지도 자료와 교사 지침서는 중학교 기술·가정 교과서 내용 중 가정 영역에서 출산·가족 친화에 관련 내용을 분석한 것들 중 5개의 주제를 선정하였다.

선정된 주제는 모두 8차시로 도움이 필요한 가족의 위기 극복(중학교 1학년 2차시), 가족간의 원만한 의사소통(중학교 1학년 1차시), 가족간의 원만한 소비 욕구의 조절(중학교 2학년 1차시), 건강한 가정생활의 설계(고등학교 1학년 2차시), 부모 됨의 진정한 의미(고등학교 1학년 2차시)로 설계 되었다.

선정된 지도 자료와 지침서는 실제 학교 현장에서 곧 바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학생 활동 자료는 학생 활동지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으며, <학생 활동 자료 1>은 도입 단계에서 지도 주제와 우리 사회의 실제 생활을 연결시켜 학습동기를 유발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구성하였다. <학생 활동 자료 2>, <학생 활동 자료 3>, <학생 활동 자료 4>는 학습 진행 단계에 따라 가정 교과의 내용 학습과 출산·가족 친화적 가치관에 대하여 긍정적인 인식을 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2) 지도 자료와 지도 지침서

개발된 전체 5차시 분 가정과 교수-학습 지도 자료 중에서 네 번째 차시의 지도 자료와 지도 지침서를 예시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중등학교 가정과 지도자료 4: 결혼하면 이렇게 살 거예요!

◪ 개관

관련단원	고등학교 1학년 I 가정생활의 설계 • 가족 생활 주기와 생활설계 - 생활설계 (금성, 천재, 대한,)	학습주제	가정 형성기의 생활 설계
		학습자료	활동지, 색연필
출산가족 친화적 영역	· 출산계획과 가사 분담	교수 · 학습활동	구안법
		수업시간	100분(2시간)
교과 학습목표	1. 가족생활주기의 변화에 따른 생활 설계의 필요성을 안다. 2. 가정형성기의 장 · 단기 계획을 스스로 세울 수 있다.		
출산가족 친화적 목표	1. 자신의 인생을 설계할 때 구체적 자녀 출산 계획과 자녀 양육에 대한 정보를 활용한다. 2. 부부가 직업생활을 하면서 자녀를 부부가 함께 책임 있게 양육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생각하고 이를 생활 설계에 활용할 수 있다.		

가정 형성기의 생활 설계는 고등학교 1학년 교과서 대단원『가정생활의 설계』의 중단원인 가족생활 주기와 생활설계로 분류되어 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성장을 하면 부모로부터 독립을 하여 결혼을 하고 가정을 이룬다. 그러므로 자신의 미래를 설계할 때 자신의 가정생활도 함께 생각해 보아야 한다. 결혼 생활은 가족 생활 주기에 따라 결혼, 첫 자녀 출생, 자녀 초등교육기, 자녀 중등교육기, 자녀 독립기, 축소기, 배우자 사망 등의 단계를 거치면서 변화하게 된다. 각 시기에는 달성해야 할 가족의 목표가 있고 이러한 목표의 달성은 결혼 전부터 함께 계획을 세우고 서로 노력할 때 성공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다. 또한 각 단계마다 일어나는 어려움은 어느 가정에서나 나타날 수 있는 예측 가능한 것으로 부부간의 역할 조정을 통하여 미리 대책을 세울 수 있다. 그러므로 결혼 생활 설계를 통하여 건강하고 바람직한 가정의 모습을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아울러 가족계획, 자녀 양육 계획, 경제 계획, 부부간의 가사분담 문제 등을 미리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자신이 미래에 만나게 될 가족의 모습을 그려봄으로써 결혼과 출산으로 나타날 수 있는 가족 간의 갈등을 조절하여 슬기롭게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중등학교 가정과 지도자료 4: 결혼하면 이렇게 살 거예요! 2

◪ 교수학습지도안

교수·학습 단계	수업 내용	교수·학습활동	유의사항*
도입	· 전시 수업내용 확인 · 수업목표제시	· 행복하게 산다는 것은 어떻게 사는 것이라고 생각하나요? -가족과 오순도순이 행복	· 학생 활동 자료 1
전개	· 결혼 생활 곡선 그리기 가족 계획 세우기 자녀 양육계획 세우기 경제 계획 세우기	· 행복한 결혼생활을 위해서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 생각해 보고 결혼 생활 곡선을 그려 보도록 한다. 가족계획, 자녀 양육계획 경제 계획 을 함께 세워본다. 이때 거창하고 화려한 계획을 추구하지 않고 현재 우리사회의 현실을 고려하여 구체적이며 실현 가능한 계획이 될 수 있도록 한다.	· 학생 활동 자료 2
	· 생활설계이야기 · 다온이와 함께 출근해요	· 부부가 서로에 대한 이해와 존중을 바탕으로 가족 관계를 형성해 나가야 함을 강조한다. 우리사회의 육아 문제와 관련하여 생각해 볼 수 있도록 한다.	· 학생 활동 자료 3 · 학생 활동 자료 4 · 교사 참고 자료 1
정리	· 학습내용 정리 · 차시 수업예고	· 행복한 결혼 생활은 한사람만의 희생이나 노력으로 이루어 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 배려하고 노력을 통해서 얻어질 수 있음을 다시 한 번 일깨운다.	

중등학교 가정과 지도자료 4: 결혼하면 이렇게 살 거예요! 3

◪ 지도 지침

도입 부분에서 학생들은 제시된 신문기사를 읽고 자신이 생각하는 행복의 순위와 이유를 적어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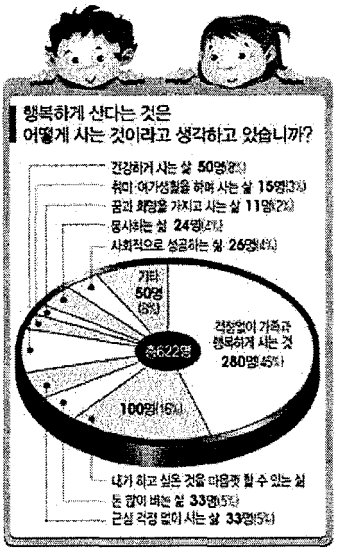
전개 부분에서는 학생들은 <학생 활동 자료 2> "미래의 결혼생활 그리기"를 통하여 가족계획, 자녀 양육 계획, 경제 계획을 세운다. <학생 활동 자료 3> "김똘똘과 한독순의 생활 설계이야기"에서는 부부간의 가사 분담을 어떻게 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생각해 본다. <학생 활동 자료 4> "다온이도 엄마와 함께 출근해요"를 통해서는 맞벌이 가정의 자녀 양육 문제를 개인의 차원이 아니라 사회적 차원에서 함께 해결해 나가야 하는 문제임을 인식하고 가정과 기업 사회가 함께 노력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을 탐색해 보도록 한다. 또한 자녀양육이 부모만의 책임이 아니라 사회의 공동 책임임을 깨닫도록 한다.

마지막으로 정리 부분에서는 행복한 결혼 생활을 위해서는 가족원 모두의 노력을 통하여 얻을 수 있는 선물임을 깨닫고 미래의 결혼 생활뿐만 아니라 현재의 자신이 속한 가정에서도 노력할 수 있도록 한다.

중등학교 가정과 지도자료 4: 결혼하면 이렇게 살 거예요! 4

학생 활동 자료 1

"가족과 오순도순이 행복"



모든 것이 '돈'으로 귀결되는 사회로 가고 있지만 어린이들은 가족의 행복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전국 초등학교 4~6학년생 622명에게 '행복한 삶이 뭐냐'고 물었더니 '가족과 함께 걱정 없이 사는 것'이라고 응답한 학생이 280명(45%)으로 가장 많았다.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마음껏 할 수 있는 것'이라는 대답이 15%(100명)로 뒤를 이었고, '돈 많이 버는 것'이라는 대답은 33명 정도였다. 건강한 생활(50명), 봉사하는 삶(24명), 사회적 성공(26명) 등이라는 반응도 나왔다.

한편, 초등학생들은 삶 속에서 가장 소중한 것으로 가족(215명), 건강(153명), 사랑(99명), 돈(61명), 우정(28명), 명예(23명) 등을 꼽았다.

출처 : 한겨레신문 (2004.11. 14)

※ 위의 신문기사를 읽고 내가 생각하는 행복의 순위를 정해 봅시다.

번호	항목	순위
1	가족과 행복하게 사는 것	
2	건강하게 사는 것	
3	꿈과 희망을 가지고 사는 것	
4	봉사하는 삶을 사는 것	
5	사회적으로 성공하는 것	
6	하고 싶은 일을 마음껏 하며 사는 것	
7	돈 많이 버는 것	
8	근심 걱정 없이 사는 것	
9	취미·여가생활을 하면서 사는 것	

가장 높은 순위에 ( )를 놓은 이유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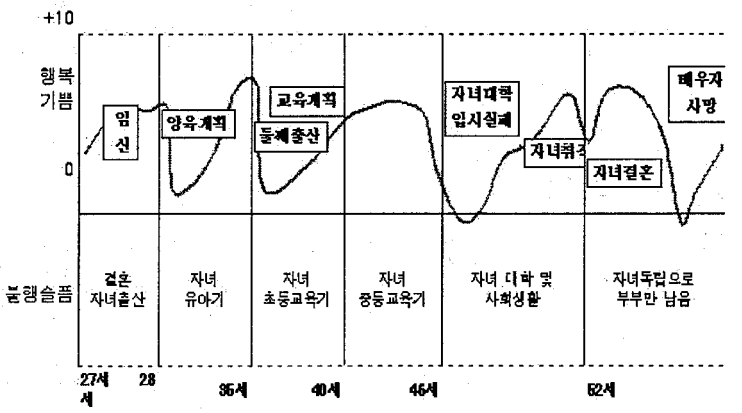
중등학교 가정과 지도자료 4: 결혼하면 이렇게 살 거예요!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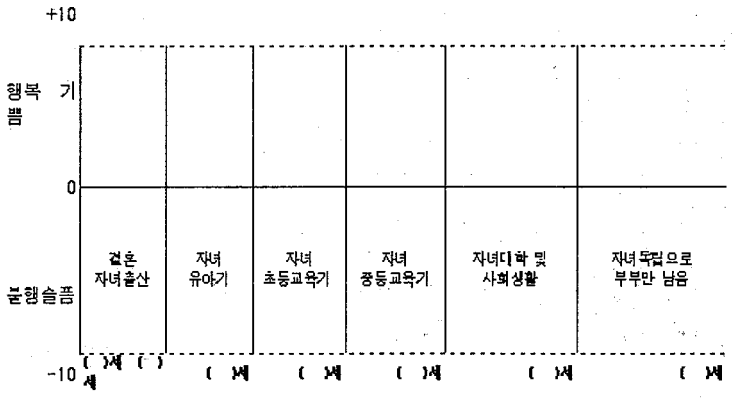
학생 활동 자료 2

미래의 결혼 생활 그리기

1학년 ( )반 ( )번 이름 ( )

☞나의 결혼 생활 곡선을 그려 봅시다. 행복한 결혼생활을 위해서 가족계획, 자녀 양육 계획이 필요한 시기를 표시해 보고, 그 시기의 나이를 ( )안에 써 봅시다.





중등학교 가정과 지도자료 4: 결혼하면 이렇게 살 거예요! 6

☞ **결혼생활 설계 시 참고할 사항**

♣ 가족 계획	
• 언제쯤 어떤 사람과 결혼할까? • 자녀는 언제 몇 년 터울로 몇 명을 나을까?	
결혼 계획은?	( )살
자녀는 몇명 ?	1명( ) 2명( ) 3명이상( )
첫 아이 출산 예정?	결혼 후 ( )년
둘째 아이 출산 예정?	첫 아이 출산 후 ( )년

♣ 자녀 양육 계획	
• 부부가 같이 직업생활을 한다면 자녀 양육 방법은?	
수유 계획	모유( ) 분유( ) 모유분유혼합( )
맞벌이라면 육아 휴직은 누가?	남편( ), 아내( )
맞벌이라면 보육은 어떻게?	남편 부모( ) 아내 부모( ) 사회보호시설이용( ) 기타친인척( ) 육아도우미( )

♣ 경제 계획	
• 경제계획 : 주택 마련을 어떻게 할까? / 주택 가격, 평수 등 / 자녀 교육 및 노후 생활비는 어떻게 준비할까? • 우리나라 2005년도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4인 가족 평균 월 소득은 약 325만원이며 결혼 후 내 집 장만에 걸린 기간은 10년이 약간 넘는 것으로 되어있다	
주택마련 계획	결혼 후 ( )년 안에 ( )평을 마련할 것이다.
	내집 마련을 위한 한 달 저축 예상금액 (원)
자녀교육비	자녀 교육비로 지출할 수 있는 예상 금액 (원)
노후 자금마련	매월 노후 자금으로 저축할 수 있는 예상 금액 (원)

중등학교 가정과 지도자료 4: 결혼하면 이렇게 살 거예요! 7

학생 활동 자료 3

"김똘똘과 한똑순의 생활 설계 이야기"

김똘똘과 한똑순은 결혼한 지 1개월 된 맞벌이 부부이다. 이들은 결혼 전 통장을 공동으로 관리해 결혼 비용과 전세자금을 스스로 마련하였다.

한똑순이 다니고 있는 회사는 사내 탁아시설이 마련되어 있어 결혼 후 바로 첫 아이를 낳고 두 살 터울로 두 명의 자녀를 낳기로 하였다. 몸튼 자녀양육과 함께 직장생활도 양립할 생각이다. 거주할 집은 지금 살고 있는 18평 전세 아파트에서 첫아이가 초등학교에 입학 할 즈음에 25평 정도의 집을 구입하기로 하였다.

돈 관리는 모두 아내 한똑순이 하기로 하였으며, 한 달에 한 번 씩 기록된 가계부를 기초로 남편과 함께 가계관리를 평가하고 설계한 목표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점검하기로 하였다. 집안일은 부부가 분담하여 식사 준비와 세탁은 주로 아내가 하고, 설거지와 청소는 남편이 하기로 하였다.

☞ **똑순씨와 똘똘씨의 이야기를 읽고 내가 결혼 하면 집안일을 어떻게 나눌까 의논해 봅시다.**

부부 / 일의 내용	남편이 주로 함	남편과 아내 반반	아내가 주로 함
식사 준비			
상차림			
설거지			
청소			
화장실 청소			
쓰레기 버리기			
세탁기 돌리기			
빨래 널기			
빨래 걷기			
다림질			
옷 정리			
시장보기			
가계부 정리			
아이 유치원 데려다 주기			
아이 숙제 봐주기			
문단속하기			

중등학교 가정과 지도자료 4: 결혼하면 이렇게 살 거예요! 8

학생 활동 자료 4

"다은이도 엄마와 함께 출근해요?"

23개월된 다은이는 매일 아침 엄마와 함께 증권선물거래소로 출근한다. 8시에 맞춰 엄마 차를 타고 거래소에 도착하면 엄마는 20층 임원 비서실로, 다은이는 1층 '푸르니어린이집'으로 향한다. 엄마가 근무를 마치는 저녁까지 엄마와 헤어져 있어야 하지만 점심시간에 잠깐이 엄마와 만날 수 있는 데다 친구들과 노는 게 재미가 있어 참 좋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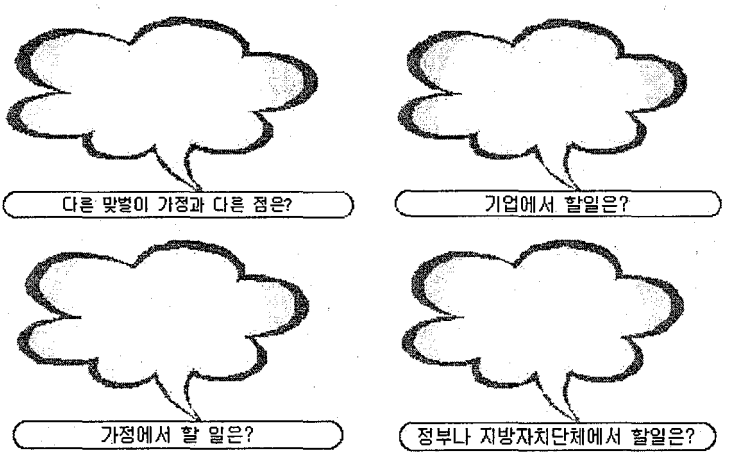
증권선물거래소가 올해 4월 직장 내 보육시설 'KRX푸르니어린이집'을 열면서 맞벌이하는 증권거래소 직원들은 행복해졌다. 사옥 1층에 138평 규모로 설립된 어린이집에는 현재 증권선물거래소 직원의 4세 이하 미취학자녀 24명이 다니고 있다.

어린이 중에는 엄마와 함께 어린이집으로 출근하는 아이도 있고 좀 더 편리하게 이용하기 위해 아예 여의도로 이사 온 아이도 있다. 사실 어린이집보다 써면서도 교육환경이 훨씬 훌륭하다는 것이 직원들의 대체적인 평.

안씨는 "푸르니집에 보낸 후에는 가르쳐 준 적 없는 노래도 곧잘 부르는 등 다은이가 부쩍 크는 것 같다"며 만족해했다. 아기돌보는 아주머니가 아이를 봐줄 때는 월 100만원 이상 들던 육아비가 월 30만원으로 줄어든 점도 그만이다.

푸르니어린이집의 월 보육료는 1세반은 30만 8000원, 2세반은 25만 4000원, 3세 이상 반은 15만 8000원이다. 교사 5명이 24명의 어린이를 돌보다 보니 세세한 보살핌을 받을 수 있고, 책읽기·블록 쌓기·퍼즐하기 등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이 준비돼 있다. KRX푸르니어린이집은 증권선물거래소가 운영비용 중 50% 이상을 보조해 '푸른보육경영'에 위탁해 운영하고 있다. **출처 : 매일경제**(2006. 09. 24)

☞ **"다은이도 엄마와 함께 출근해요?"**를 읽고 다은이네와 다른 맞벌이 가정이 다른 점을 찾고, 맞벌이 가정의 자녀 양육을 위해서 가정과 기업 국가에서 할일을 생각해서 써보자.



교사 참고 자료 1

보육시설 선택 요령 11선

아동 대 교사의 비율	아동이 보육시설에 있는 동안 철저하게 관리·감독되어야 하는 만큼 교사 한 명이 돌보는 아동 수가 몇 명인지 알아본다. 교사 1명당 권장 비율은 만 1세 미만 영아는 3명, 만 1~2세는 5명, 만 2~3세는 7명, 만 3~4세는 15명, 만 4세 이상은 20명이다.
위생관리	아동이 하루 종일 지내는 시설환경이 청결하고 위생적인지 살펴본다. 또 교사와 아동이 식사 전, 화장실 사용 후, 기저귀 교체 후에 반드시 손을 씻는지 등의 위생관리도 놓치지 않는다.
원장과 교사진의 자질	원장과 교사는 충분한 자격과 자질을 갖춰야 한다. 원장은 아동의 성장과 학습에 필요한 것을 정확히 이해하고, 교사는 아동의 연령에 맞는 교육과 활동을 제공해야 한다.
건강관리	보육시설은 아동 개인의 예방접종 및 건강검진 기록을 관리해야 한다. 또 아픈 아이에게는 정확한 용량과 시간에 맞춰 약을 복용시키고 약은 아이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해야 한다.
시설관리	보육시설 주변 50m 이내에는 고압선 등 위험 시설이 없어야 한다. 실내와 놀이터가 아동의 나이에 적합하고 안전기준에 맞는 시설인지 살펴본다. 방문자 보안 시스템이 갖춰져 있는지도 체크한다.
안전관리	상해 및 화재보험에 가입돼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정기적으로 안전점검과 소방훈련을 하는지도 알아본다.
영양관리	매일 제공되는 식사와 간식이 영양 면에서 균형 있는 식단인지, 또 위생적으로 조리·배식하는지 식단표와 조리시설을 점검한다. 미리 양해를 구하고 식사가 제공되는 시간에 시설을 찾아보는 것도 좋다.
안전교육	정기적으로 교사와 아동들에게 안전 교육을 하는지 알아본다. 어른에 비해 주의력이 부족한 아이들은 실내외에서 각종 위험에 노출되기 쉽다.
통학버스 관리	차량을 운행하는 경우 어린이 통학버스로 등록돼 있는지, 차량보험에 가입돼 있는지 확인한다. 또 운전기사와 담당교사가 안전교육을 받고 있는지도 알아본다.
응급시스템	아동이 다치거나 미아 사고와 같은 예기치 않은 응급 상황에서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져 있는지 확인한다. 이런 상황을 대비한 훈련을 하고 있는지도 반드시 점검한다.
보육교사의 자질	교사의 질이 곧 교육의 질이라 할 수 있다. 보육교사가 아이들을 얼마나 좋아하고 헌신적인지, 성품이 따뜻하고 세심한지 살펴야 한다. 낮에 어린이집을 방문해 수업 또는 놀이 시간에 참관해 보는 것이 좋고,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이 부모들의 연락처를 알아서 정보를 교환한다.

출처 : 세계일보(2006.07.13)

중등학교 가정과 지도자료 4: 결혼하면 이렇게 살 거예요! 10

맞벌이 부모들이 참고할 만한 보육정보 사이트

서울시보육정보센터 (children.seoul.go.kr)	서울시에 있는 보육시설을 모두 찾아볼 수 있다. 원하는 조건에 따른 맞춤형 검색이 가능하다.
에이스키드넷 (www.acekid.net)	각 지역에서 호평을 얻고 있는 어린이집들의 홈페이지와 직접 연결되어 해당 어린이집의 현황을 상세하게 알 수 있다.
베베하우스 (www.bebehouse.com)	유아 관련 정보가 많은 인기 사이트. 스쿨베베 배너로 들어가면 원하는 조건의 어린이집을 검색할 수 있으며, 학부모들의 평가도 볼 수 있다.
육아데이 (www.6aday.net)	여성가족부가 운영하는 육아 사이트. 정부에서 시설평가인증을 받은 어린이집을 찾아볼 수 있다.
중앙보육정보센터 (www.educare.or.kr)	각 지역 보육정보센터를 총괄하는 곳. 보육시설 종사자들과 부모가 함께 알아야 할 정보가 풍부하다.
일하는 여성들의 네트워크 (www.kwwnet.org)	여성노동자회협의회가 운영하는 사이트. 일하는 엄마들이 꼭 알아둬야 할 노동 관련 상식과 정책 자료들이 정리되어 있다.
워킹맘 (www.workingmom.pe.kr)	일하는 엄마들이 정보를 교류하는 게시판. 보육시설과 개인보모 구하기 등의 생생한 정보를 나눌 수 있다.

제 7 절 소결 및 출산·가족 친화적 가치관 형성을 위한 교육내용 개선에 관한 제언

저출산·고령화 사회 상황을 개선하는데 가장 근본적이고 효율적인 방법인 교육적 접근은 지나친 개인주의적 가치관을 지양하고 가족 친화적 가치관을 고양시킴으로써 결혼 및 출산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갖도록 가치관의 변화를 유도하는 것이다. 가치관의 변화는 다각적인 측면에서의 교육적 접근을 통해 시도될 수 있으나 특히 학교교육을 통한 개입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가족과 공동체에 대한 가치관이 형성되기 시작하는 초등학교 시기와 사회적 책임감이 형성되는 중·고등학교시기에 학교교육을 통해 출산·가족 친화적 가치관을 형성시키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과제이다.

초·중등학생이 출산·가족에 대한 친화적인 가치관을 지닐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교육과정과 교과서를 통해 관련 지식과 가치관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출산 및 가족 친화적인 가치관과 관련성이 높은 교과인 초·중등학교의 도덕, 사회, 및 가정과 교육과정과 교과서의 출산·가족 친화적 관련 내용을 추출하여 문제점을 파악하였다. 이를 토대로 출산·가족 친화적인 가치관을 학습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끝으로 동 개선방안들에 부합되도록 분석 자료를 바탕으로 실질적인 교수 학습 지도 자료를 개발하였다.

각 학교급별로 해당 교과별로 기본방향과 기준을 설정하여 개발한 출산·가족 친화적 내용을 담은 교수-학습 지도 자료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초등학교 도덕과는 초등학생들에게 출산·가족 친화적 가치관을 형성하기 위해서 생명존중과 가족 간의 용서와 이해에 대한 주제를 선정하여 지도 자료를 개발하였다. 개발된 2차시 분의 지도 자료는 6학년 2학기의 단원 중 '소중한 생명'과 '너그러운 마음'에 관련된 것으로, '소중한 생명'이라는 주제에서는 자신의 존재에 대한 중요성을 알고 가치 있는 삶을 살아야겠다는 의지를 여러 활동 자료를 통해 습득하도록 개발하였으며, '용서합시다'라는 주제에서는 가족

내에서 먼저 용서하고 이해하는 마음을 갖고 생활하는 것이 중요한 요소임을 알고 실천하는 태도를 갖도록 하는데 목표를 두어 개발하였다.

초등학교 사회과에서는 인구 증가 및 인구 감소로 인한 문제점을 중심으로 초등학생들이 저출산 문제를 자연스럽게 인식하여 문제해결에 대한 대안에 접근할 수 있도록 지도 자료를 개발하였다. 개발된 2차시 분의 지도 자료는 5학년 1학기의 단원 중 '우리가 사는 지역'에서 '도시 지역의 생활' 및 '촌락 지역의 생활'에 관련된 것이다. '도시 생활의 문제를 알아보아요'라는 주제로 도시화에 따른 생활의 불편으로 인해 젊은이들의 결혼과 출산율이 감소하는 문제를 인식하고 그 대안을 찾을 수 있도록 개발하였으며, '학교가 없어지고 있어요!'라는 주제로 촌락의 큰 문제인 인구 감소와 고령화의 원인을 조사하고 인구의 감소를 줄일 수 있는 대안을 찾는데 목표를 두어 지도 자료를 개발하였다.

초등학교 실과에서는 다양한 가족의 형태와 가족 구성원들의 역할에 대한 주제를 중심으로, 초등학생들이 최근 들어 다양하게 나타나는 가족의 형태를 인정하고 편견 없이 대하며 가족 구성원들의 역할을 알고 서로 돕는 마음을 지닐 수 있도록 지도 자료를 개발하였다. 개발된 2차시 분의 지도 자료는 모두 5학년 1학기의 단원 중 '우리의 가정생활'에 관련된 것이며, '가족의 다양성을 알아봅시다'라는 주제로 주변의 다양한 가족 형태를 알고 편견 없이 대하는 자세를 기를 수 있도록 하였으며, '가정의 일은 함께 해요'에서는 남녀평등 의식을 바탕으로 한 동등한 가족관계 및 역할에 대해 이해하고 그 안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찾아 실천하는데 목표를 두어 지도 자료를 개발하였다.

중등학교 도덕과는 우리 사회에 출산·가족 친화적 가치관을 형성하기 위해서 가정생활의 도덕, 갈등과 문제 해결을 위한 도덕적이고 합리적인 사고력과 판단력, 행복한 가정생활의 자세, 생명의 소중함과 미래 가정 설계, 우리 가족에 대한 이해 등의 주제를 선정하였다. 그에 따라 중학교 1학년과 3학년을 대상으로 5차시 분을 개발하였다. 이는 때에 따라 수정·보완되어 중학교 2학년, 고등학교 1학년에도 사용되어 질 수도 있다. 특히 도덕적 민감성, 도덕적 사고력, 도덕적 행동 등 인지, 감정, 행동 영역에서 고른 활동을 두어 도덕적 성장에 기여하려고 하였고 다양한 체험과 활동을 통해 도덕적 가치의 내면화를 시도하였다.

중등학교 사회과는 인지적인 측면의 학습 목표를 강조하였다. 개별 학습 요소들에 대한 소그룹별 탐구 활동을 통해 학생들이 자연스럽게 인구 변동의 과정, 사회 안전망, 가족 해체 현상 등 주로 사회학, 경제학, 정책학 등에서 축적되고 있는 중요 개념들과 국가적 차원에서 마련되고 있는 법/제도 등을 인지할 수 있도록 유도하였다.

중등학교 가정과는 남녀 학생들에게 가족생활에 대한 이론의 학습보다 가정과 수업을 통하여 배운 내용을 실제 가정생활에 실천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주제로 가정 폭력, 부모 자녀간의 의사소통, 가족 간의 소비 욕구 조절하기, 가정 형성기의 생활 설계, 부모 됨의 의미와 역할 등 다섯 가지로 선정하였다. 가정생활을 해 나가면서 누구나 해결해야하는 문제 상황을 실천적으로 해결 할 수 있는 학습 자료를 제공함으로써 학생들 스스로 출산·가족 친화적인 가치관을 정립하는데 활용될 수 있도록 하였다.

본 자료 개발의 결과를 바탕으로 초·중등학생들의 출산·가족 친화적 가치관 형성을 돕기 위해서 향후 도덕, 사회, 가정과 교육과정 및 교수 학습 자료 개발에 대한 제언을 다음과 같이 하고자 한다.

우선 도덕과 지도 자료 개발에 대한 제언이다. 첫째, 가족에 대한 이해를 위해서 다양한 활동거리를 제시하여 감성을 자극하고 체험을 장려하여 도덕적 내면화에 도움이 되도록 해야 한다. 둘째, 학생들 자신의 또는 주변의 일상생활의 예를 가지고 접근하되 식상한 내용이 아닌 흥미와 관심을 가지고 바라볼 수 있는 다양한 문제제기를 통하여 학습에 참여도 적극 유도하고 자신의 가족생활에 대한 성찰의 기회를 제공한다. 셋째, 가정생활의 도덕 문제나 여러 현상들을 비판적·반성적으로 바라보고 도덕적·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판단 능력과 사고력을 기르도록 한다. 넷째, 전 가족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활동거리를 제공해서 현 가정생활을 들여다보고 가족애를 확인하게 한다. 이는 교실에서 끝나는 수업이 아니라 다시 가정으로 문제의식을 가져가서 가치를 공유하는 데에 의의가 있다. 다섯째, 가족의 다양한 모습을 인정하도록 해야 한다. 예를 들어 현재 한국 사회의 다인종 가족, 한부모 가족, 재결합 가족, 입양가족 등에 대한 편견을 깨고 관용의 시각으로 대할 수 있는 자세를 지니게 한다. 여섯째, 당위

성만을 강조하면 식상해진다. 스스로 구성해나갈 수 있는 살아있는 규범 및 지식을 담을 수 있는 교육내용과 방법을 지향한다. 끝으로, 내용 중복은 피해야하나 학년별로 차별화된 내용과 방법을 기본으로 가족에 관한 학습 기회가 일회성으로 끝나기 보다는 학년 전반에서 강조될 필요가 있다.

다음은 사회과 지도 자료 개발에 대한 제언이다. 첫째, 도시에 거주하는 가족이 처할 수 있는 다양한 위기 상황이나 일반적인 가족에게 일상적으로 다가오는 어려움들을 탐구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사회 제도적인 접근을 통하여 가족의 문제가 더 이상 개별 가족에게 맡겨질 것이 아니라 국가 전체의 공통적인 관심사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인식하게 해야 한다. 둘째, 인구의 변동과 경제 성장의 측면에서 출산율 감소가 미치는 부정적인 측면을 살펴봄으로써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인 지원 방안을 모색하게 하고, 급속한 고령화에 대비하기 위해 준비해야 할 것들에 대해 탐구하게 한다. 셋째, 사회과에서 출산 및 가족 친화적 가치관을 그 자체로 교과의 학습 목표의 영역에 포함하기보다는 법, 경제, 제도, 문화 등의 기존 사회과 스트랜드 학습을 종합한 통합학습의 목표로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것이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 기존의 백과사전 나열식 교육과정을 탈피하여 핵심 개념을 유기적으로 통합하여 지도할 수 있는 단원을 구성하여 학생들의 자기 주도적으로 고차원적인 사고력을 함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새롭게 구성되는 교육과정과 교과서에서는 단원별로 누적된 교과지식들을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통합교과적 학습 내용을 일정 비율로 포함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가정과 지도 자료 개발에 대한 제언이다. 가정과 교육과정은 가정과 교육의 모 학문인 가정학의 전공 영역을 축소, 병합하여 각 전공 영역을 고르게 교육과정에 반영하는 내용의 구성에서 벗어나 생활의 주체인 개인과 가족생활 중심으로 바뀌어 가고 있다. 따라서 변화하는 시대의 요구에 맞는 가정과 교육이 되기 위해서는 가정과 교육의 핵심인 가족생활 영역을 가정교과의 하나의 부분으로 보는 데 그치지 않고 의생활, 식생활, 소비생활 등 여러 생활 영역의 지식과 기능이 통합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재구성 한다면 일상생활에서 부딪치는 문제들을 해결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연스럽게 출산·가족

친화적 가치관 형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

출산 및 가족에 대한 긍정적인 가치관 교육은 어느 특정 교과에서의 교육만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므로 전 교과에서 유기적인 협력이 이루어져야 하며, 재량활동과 특별활동에서도 함께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다. 이상의 결과를 바탕으로 출산 및 가족 친화적 가치관 형성을 위한 교육내용 개선에 관한 정책적 제언을 도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저출산·고령사회에 대비하여 학교에서 출산 및 가족 친화적 가치관 교육을 강화해야 할 것이며 특히 정규 교육과정에서 관련 내용을 충분히 다루도록 수업시수가 조정되어야 할 것이다. 출산 관련 내용은 제한된 교과에서만 다루어지고 있고 주로 지식 전달에 국한되어 있기 때문에 출산 친화적 가치관 형성에 미흡한 실정이다.

둘째, 출산 및 가족 친화적 가치관 교육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교사들이 충분하게 인식하고 있지만 실제로 수업을 진행할 때 사용할 수 있는 보조 지도 자료는 충분하지 못한 실정이다. 따라서 학습자의 흥미와 수준을 고려하면서 시대성과 현실성을 반영한 다양한 보조 지도 자료의 개발과 보급이 시급한 상황이다.

셋째, 성별이나 연령, 가족 구성 등 학생 특성에 따라 출산 및 가족에 관한 인식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에 학습자의 특성을 충분히 고려한 교육내용 및 교육방법이 구안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고등학교 학생들의 경우, 출산 및 가족 친화적 내용에 대해 진부하게 생각하고 있을 뿐 아니라 상당히 비판적인 시각을 견지하고 있다. 따라서 고등학생에게는 출산과 가족 친화적 가치관을 미화해서 주입하는 방식보다는 사회와 국가와 관계, 가족 갈등과 화해 등 새로운 관점과 방법으로 다룰 필요가 있다.

넷째, 교직경력, 성별, 출산경험 여부, 담당교과 등 교사특성에 따라 출산 및 가족 친화적 가치관 교육에 대하여 상당한 인식차이를 발견하였다. 따라서 교직경력이 상대적으로 적거나 출산경험이 없는 교사들을 대상으로 교사 연수가 필요할 것이다. 교사 연수는 저출산·고령사회에 대한 교사인식을 제고할 뿐 아니라 출산 및 가족 친화적 내용을 가르치는 데 필요한 교수방법 향상을 목표로 해야 할 것이다.

제8장 결론 및 정책적 제언

한국사회에서 저출산 원인은 다양하며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많은 이유들 중에서도 가장 근본적인 것은 가치관의 급변이라는 지적이 있어 왔다. 한국사회에서 거의 모든 사람들이 결혼을 하고 자녀를 가짐으로써 다른 어떤 사회제도보다도 가족이라는 제도는 안정적이라고 간주되어 왔다. 그러나 한국사회의 급속한 변동이 가족이라는 비교적 안정적인 사회제도에도 큰 변화를 일으키고 있다. 결혼관과 자녀관 그리고 성역할관은 개인적인 신념이나 가치에 의한 것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에 편재해 있는 다양한 가치규범이 이들의 가치관 형성에 미친다. 특히, 이들 가치관은 어린 시절부터 각자가 자라온 가족 내에서 그리고 학교 및 사회생활 등 여러 상황 속에서 오랜 시기에 걸쳐 형성된다.

정부는 최근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2006~2010)」에서 가치관과 관련된 정책의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들이 실질적으로 수행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미래세대에게 전달되어야 할 결혼 및 출산관련 가치관들을 어떻게 정립하여야 할 것인가가 중요하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협동연구는 청소년의 제 가치관들을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결혼·가족·성평등에 친화적인 가치관을 정립하고, 미래 세대들에게 그러한 가치관을 심어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거시적이면서도 미시적인 가치관 관련 연구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 여러 관련 전문기관들이 참여하였다. 즉,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을 중심으로 한국교육개발원, 한국여성개발원, 한국교원대학교의 관련 전문가들이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연구를 수행하였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문헌 조사, 국내외 사례연구, 실태 조사, 심층면접 조사, 기존조사 심층 분석, 교수자료 개발, 전문가회의 개최 등 다양한 연구방법을 적용하였다. 특히, 본 연구를 위하여 「전국 청소

년 결혼·자녀·성평등 가치관 조사」를 미래 가임세대인 초등학교(5~6학년), 중학교(1~3학년), 고등학교(1~3학년) 학생들 약 12,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국가지정통계로 고시). 본 조사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교육인적자원부, 각급 교육청 및 표본으로 선정된 132개 초·중·고 학교의 적극적인 협조를 통해 성공적으로 수행될 수 있었다. 조사표 개발에는 공동연구기관뿐만 아니라 외부 관련 전문가들이 자문 제공 형식으로 참여하였다.

본 협동연구의 결과를 압축하면 다음과 같이 제시할 수 있다. 첫째, 전국 청소년 결혼·출산·성평등 가치관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한국사회의 미래를 이끌 세대의 결혼·가족·자녀·성평등 등 제 가치관의 현황을 정밀하게 진단하고, 향후 정책방향을 제시하였다. 둘째, 친 결혼관, 친 자녀관을 형성하기 위하여 사회적 노력을 규명하고, 인구관련 교과서내용의 보완 방향을 제시하였다. 셋째, 출산율 회복과 성평등을 동시에 실현시킬 수 있도록 하는 성평등한 가족문화 및 고용문화 조성방안들을 제시하였다. 넷째, 미래 가임세대의 생식보건 증진을 위하여 효율적인 학교 성교육의 강화 방안들을 마련하였다. 끝으로, 출산·가족 친화적인 가치관을 학습할 수 있도록 교육개선 방안을 제시하고, 실질적인 교수학습 지도 자료를 개발하였다. 이하에서는 각 부문 연구의 구체적인 결과와 정책적 제언들은 제시하였다.

1. 미래세대의 결혼·가족·자녀·성평등·성 가치관 현황과 정책방향

현 학생들은 다양한 가족형태와 관련하여 입양, 국제결혼 및 재혼에 대한 학생의 수용도는 높은 편이나, 일부 가족형태에 대해서는 여전히 수용도가 낮다. 결혼의 필요성에 대한 학생의 긍정적인 태도는 절반 이상이나, 반드시 해야 한다는 태도는 1/5 정도가 채 안된다. 학생들은 배우자 선택에 신중성을 보이며, 결혼제도로 인하여 또는 자아실현과 독신생활을 추구하기 위해 결혼을 포기할 수 있다는 경향이 높다. 특히, 여학생들은 생활 여건에 따라 만혼, 비혼, 이혼 등을 선택할 수 있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자녀필요성도 학생 중 20%정도가 부정적이다. 특히, 저학년층일수록 소자녀관이 더 뚜렷하다. 학생들이 향후 자

녀출산을 희망하지 않은 이유로는 '내 일에 전념'과 '부부만의 시간·행복 감소' 등 개인주의적 이유가 자녀 양육비용 부담, 자녀의 힘든 공부 우려, 자녀의 왕따·체벌 우려, 부모 부양문제 등 가족주의적 이유보다 높다. 학생들은 자녀가 치로 노후 정서적 의존, 부부관계 공고, 노후 경제적 의존 등을 중요시 여기는 반변, 사회에 대한 의무감, 부부의 사회적 인정수단, 자녀를 통한 부모의 꿈 실현, 가문계승 등 도구적 가치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경향이 우세하였다. 현재 학생들은 집안일, 자녀 돌보는 일, 집안의 중요한 일을 결정하는 문제 등에 있어서 성별에 따라 역할을 구분하는 의식이 미약하다. 그러나 학생들은 생계부양에 대한 성분업적 인식은 다소 강하게 나타난다. 학생의 성평등 의식수준은 비교적 높은 편이나. 가족영역에 비해 직업영역에서 상대적으로 낮다. 남학생은 남성의 혼전순결에 대해서는 관대하나, 여성의 혼전순결에 대해서는 보다 엄격한 태도를 보이는 이중적 가치관이 나타나고 있다. 여학생들은 혼전임신의 경우 기를 수 있을 때만 낳아야 한다는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학생은 전체적으로 기초적인 성교육이라고 할 수 있는 피임방법에 대한 교육 경험 정도가 상대적으로 낮다. 성문제로서 성병·에이즈와 미혼모·인공유산에 대한 교육정도도 상대적으로 낮다. 학생들이 본인의 성문제와 관련한 성상담자로서 교사나 상담전문가의 비율은 아주 낮다.

현재 청소년들의 가치관을 종합하면 향후 그들의 결혼·출산 행위나 성역할관 등은 현재 20~30대와 크게 다를 것 같지 않다. 예를 들어, 현재 청소년층은 자녀를 희망하나 본인들을 희생시키거나 경제적으로 큰 부담을 감수하면서까지 자녀를 가지려고 하지 않을 것이다. 결국 현재의 사회적 상황이 크게 달라지지 않는 한, 현 청소년들이 혼인기와 가임기에 들어서는 10년 내지 15년 후 한국의 출산율은 여전히 낮은 수준을 유지할 것 같다. 이에 정부 차원에서는 실효성 있는 정책의 지속적 추진이 중요하다. 장애요인이 되고 있는 사회적 여건이 개선될 때, 현재 청소년들이 자신이 희망하는 시기에 결혼하고 희망자녀수에 근접하는 수의 아이를 가지려고 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청소년의 결혼 및 출산 행위는 사회적 여건의 개선만으로 결정되지는 않는다. 이는 무엇보다도 청소년의 가치관 변화가 뒷받침되어야함을 의미한다. 이를 위해서는 청소년들

의 사고와 성장발달단계에 적합하도록 가정교육, 취학전 교육, 학교교육, 사회교육 등을 망라한 평생교육체계가 확립되어야 한다.

첫째, 기본적으로 가족·결혼·자녀·성역할·성평등의 가치관과 성관련 지식에 관한 교육 자체가 확충될 필요가 있다. 일방적인 주입식의 교육보다 다양한 교과목의 여러 상황에서 자연스럽게 교육내용이 청소년에게 다가설 때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교육 내용이 형식적으로 흐르지 않도록 수업시간도 충분히 배정되어야 할 것이다. 결혼·출산 등에 관한 가치관과 성에 관한 교육이 지나치게 분산되어 효과를 거둘 수 없는 경우에는 인구교육 등 특정한 교과목의 신설도 중장기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둘째, 가족·결혼·자녀·성역할·성평등의 가치관과 성관련 지식에 관한 교육내용의 불충분성과 진부성을 극복하기 위해 관련 자료·기법 등의 개발과 교육내용 개선이 시급하다. 학교교육의 내용이나 방법도 아동·청소년의 성장발달 단계 및 상황에 적합하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다.

셋째, 가족·결혼·자녀·성역할·성평등의 가치관과 성관련 지식에 관한 교육의 내용이 학생들의 사고에 조응해야 할 것이다.

넷째, 성관련 올바르고 정확한 지식을 제고시키기 위한 학교 성교육의 현실화가 시급하다. 학생들의 이성교제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성교육이 내실있게 실시되어, 올바른 성 가치관이 확립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성문제가 청소년 사이에 점점 더 심해져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최근의 상황을 감안할 때, 관련 교육의 체계적인 접근이 중요하다. 특히, 성관련 지식과 정보가 인터넷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청소년에게 무분별하게 제공되고 있는 실정임을 감안하면, 학교에서의 성교육은 초등학생부터 본격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학교에서의 성교육이 실생활에 적용될 수 있도록 질적 수준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전문적인 성상담서비스 전달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출산율 회복이라는 국가과제와 향후 개인적인 차원에서의 고령사회 준비와 관련해서 저출산·고령화 현상에 대한 교육은 저학년부터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여섯째, 가족·결혼·자녀·성역할·성평등의 가치관과 성관련 지식에 관한 학교

교육의 내실화는 올바른 전달체계를 통해 확립될 수 있다. 즉, 학생교육 이전에 교육의 공급자적 위치에 있는 교사의 관련 내용에 대한 이해도 증진 등이 절실히 요구된다. 이를 위해 학교고사 교육체계 구축 내지 개선이 시급이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일곱째, 청소년의 가족·결혼·자녀·성역할·성평등의 가치관과 성관련 지식수준에 미치는 가정(가족)의 영향은 매우 크다. 우리나라 청소년은 부모와 많은 시간을 보내지 않고, 아버지의 부재가 심각하다. 학교교육에 앞서 가정교육을 강화시키는 정책프로그램을 개발·실시하여야 하며, 가정에서의 자녀 교육과 연계하여 남성의 적극적인 육아참여를 도울 수 있도록 고용문화를 개선하는 방안들도 적극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여덟째, 일반적으로 가치관과 의식이 상대적으로 어린나이에 형성되고 있다는 측면을 고려하여, 초등학교 저학년, 더 나아가 취학 전 아동들에 대한 교육과 홍보도 적극적으로 고려하도록 한다.

아홉째, 청소년의 가족·결혼·자녀·성역할·성평등에 관한 긍정적인 가치관이 학교졸업 후 사회에 진출했을 때까지 유지·강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정책과제는 학생들의 가치관이 학교 졸업 후 성인으로 생활할 때 실제행위와 일치시키기 위한 제도적 지원책을 마련하는 것으로 집중될 수 있을 것이다.

끝으로, 학교교육은 학생의 결혼관과 자녀관 및 성평등 의식 고취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 올 것으로 기대할 수 있고, 성관련 지식수준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즉, 학교에서의 가치관 교육과 성교육에의 노력은 학생들로 하여금 관련 이해나 지식수준을 제고하는데 기여할 것이다. 따라서 지금까지 제시한 정책적 건의들을 토대로 결혼·출산관련 가치관들과 성교육에 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학교교육 방안이 장기적인 관점에서 수립·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2. 초·중등학생의 결혼 및 자녀 가치관 정립 방안

청소년의 가치관 정립이란 가치관 교육을 통한 가치관 형성을 의미한다. 이때 중요한 점은 청소년의 가치관 정립이 구체적인 '가치'를 정립시키는 것이

아니라 '가치에 관하여' 교육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저출산·고령화 사회에서 청소년들로 하여금 가족과 결혼에 대하여 친화적인 가치관을 갖도록 한다는 것의 진정한 의미는 결혼과 가족에 관한 특정 가치관을 청소년들이 갖도록 교육시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 대신에 청소년을 대상으로 그들이 결혼·가족·출산에 친화적인 가치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가치를 판단하고 가치관을 정립할 수 있도록 교육적으로 지원하는 일이라고 할 수 있다.

더욱 중요한 사실은 가치관은 그 형성이나 변화가 단기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을 두고 서서히 진행된다는 점이다. 따라서 청소년 가치관 정립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인구구조의 변동에 관한 엄밀하고 체계적인 전망에 기초하여 결혼과 가족 그리고 생명의 소중한 가치를 차분하게 설득하고 공감대를 형성하여야 한다.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결혼 및 가족 친화적 가치관 정립의 올바른 방향이라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장기적인 수준의 노력과 별도로 단기적으로는 결혼과 가족 친화적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보급하는 노력을 적극적으로 하여야 한다.

학교교육에서의 가치 교육 방향은 오늘날의 결혼이나 가족에 대한 다양한 가치를 합리적으로 하기 위해 가치관을 명료하게 해주거나 의사결정 할 수 있는 교육적 노력이 필요하다. 개인이 가지고 있는 결혼관이나 가족관을 탐색하여 명료화하는 일는 미래의 삶에 대한 합리적인 가치관을 바탕으로 의사결정함에 있어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이다. 학교에서는 결혼 및 자녀, 가족 관련 내용에 오류를 수정하여 교육 현장에 반영하여야 하며, 다가올 저출산 사회에 대비한 가치관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교사 교육의 실시를 위해 교원 연수를 강화하고, 저출산 관련 교원연수의 실태를 파악하여 이에 현실적으로 대처할 수 있어야 하겠다. 교원연수 방향으로는 교육과정과 교재 개발, 현직 연수의 질 향상, 강의의 질 제고 및 연수 여건 개선, 교원연수 지원체제 확립 그리고 저출산 원격 교육과 콘텐츠 개발 그리고 이를 공유할 수 있도록 교육연수원 기관간의 지원 협조 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

3. 미래세대의 성평등 가족문화·고용문화 조성

미래에 여성노동에 대해 사회가 요구하는 바와 개인이 요구하는 바는 일치한다. 노동력 부족으로 위기감이 감돌고 있는 사회는 양질의 여성노동력을 필요로 한다. 인구구조의 변화가 여성노동과 연결되면서 예측할 수 있는 바람직한 미래상의 하나는 '낳고 싶은 만큼 낳아서 함께 일하고 돌보는 사회'이다. 저출산·고령화라는 인구환경의 변화에 대해 우리 사회가 우려하는 바는 정확히 생산인구의 감소와 그에 따른 경제 침체이다. 한국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2005년 현재도 여전히 낮은 편이다. 일하고 싶은 여성이 제대로 일할 수 있도록 노동시장의 차별적 관행들이 사라져야 하듯이, 보다 넓은 의미의 '일', 즉 돌봄노동을 선택하면서도 여전히 차별받지 않는 사회가 우리가 지향하는 미래상이어야 한다. 사회 성원들 특히 여성들에게 끊임없이 시장노동의 의무와 재생산노동의 의무를 강조하는 사회가 아니라, 시장노동의 권리와 재생산노동의 권리가 보장되는 사회를 지향해야 한다.

청소년의 가치관은 아직 형성단계에 있어서 하위 가치관간의 간극도 크고 실제 행위와 태도 사이의 불일치 정도도 예측하기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소년들의 가족·결혼·자녀에 대한 태도는 일정한 경향을 띠고 있는데 성인들의 태도와 형식적인 면에서 유사하면서도 훨씬 유연하다. 다양한 가족에 대한 관용성 수준도 높을 뿐만 아니라 과거 청소년에 비해서 성평등의식 수준도 높아졌다. 특히 가정 내 공평한 가사분담에 대한 청소년들의 지지 정도는 과거에 비해 크게 높아졌다. 그러나 청소년 가치관 조사 결과 우려되는 부분은 성평등의식 등 일반적인 태도 항목에서 남녀간 성별 지체 현상이 매우 뚜렷하다는 점이다. 여학생의 성평등 의식이 남학생보다 훨씬 높을 뿐만 아니라, 차별감수성이 뛰어나다고 알려진 '보편주의 가치관', '자기 성취 가치관'도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높다. 이에 비해 남학생은 차별적 태도와 연결되는 '권력 가치'적 성향이 뚜렷하다. 따라서 학교교육을 비롯한 다양한 매체의 교육내용에 의식의 다양한 수준에서의 성별격차를 완화하는 내용이 중점적으로 다뤄져야 할 것이다. 실제로 가족관련 태도에서의 성별 격차는 그 자체가 문제일 뿐만 아니라 향후

가족형성 등 사회 재생산에도 주요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또한 청소년 가치관 조사 결과 최근의 저출산 위기 정국의 부작용으로서 의식수준에서의 보수화 경향도 엿보였다. 따라서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수립 및 집행, 홍보 과정에서 개방적인 태도와 성평등한 의식 수준 제고를 분명한 정책 방향으로 설정할 필요가 있다.

4. 건강한 미래세대 육성을 위한 성교육 방안

첫째, 인구교육과 성교육은 각각 분리된 형태의 교육과정 개발보다는 성교육이 인구교육에 통합된 형태의 교육과정이 개발되어야 한다. 제7차 교육과정에서와 같이 일선 학교에서 관련 교과목이나 특별활동을 통한 성교육은 실효성이 없기 때문에 통합형태의 인구교육의 법제화나 별도의 정규교과가 제도화 되어야 하며, 불가능한 경우는 시·도 단위에서 조례를 제정하여 관련교과나 특별활동을 통해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구체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각 급 교과과정에 포함된 성교육의 내용을 현실에 맞도록 보강해야 하며, 인구 및 성교육을 위한 교과서, 지침서, 기타 교육보조자료 등이 다양하게 개발되어야 한다. 이제까지 청소년의 성교육은 교과내용에 분산하여 체계적으로 발전되어 왔다고 판단되지만, 성과 관련된 청소년들의 궁금증과 고민을 풀어주고 청소년들이 성 문제를 해결하고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보다 구체적인 내용과 방법이 교과 내용에 포함되어야 한다. 교사가 인구 및 성에 대한 올바른 태도와 전문적 지식을 겸비 될 수 있도록 연수 프로그램 등을 통해 교사의 전문성을 개발하고, 학부모가 성과 관련된 지식을 학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학교와 가정에서 두루 성교육이 이루어지도록 지원해야 할 것이다. 또한 성교육 자료의 수준 높은 자료생산 체계가 구축되어야 하며, 이를 위하여 한국교육개발원 내에 성교육을 포함하는 「학교인구교육개발센터(가칭)」를 설치·운영하는 방안이 적극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

셋째, 성교육을 포함한 인구교육은 학교에서 추진되지만 성상담 및 관련 서비스는 관내 보건소를 중심으로 제공될 수 있는 종합적인 전달체계가 구축되어야 한다.

넷째, 각급 학교의 모든 교사를 대상으로 하는 기초연수과정의 신설과 다양한 연수기회가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모든 교사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프로그램은 상기 「학교인구교육개발센터(가칭)」에서 수행하도록 한다.

마지막으로, 성행위와 관련된 보다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문제중심으로 성교육이 다루어져야 한다. 성교육의 범위와 내용을 확대하여 현재 초혼연령의 상승과 연계하여 나타나는 불임부부의 증가, 임신소모율의 증대, 저출산 및 기형아의 증가 등 인구자질의 향상을 위해서는 청소년이 20대 적령기에 결혼하고 출산할 수 있는 동기조성에 역점을 두어 저출산 문제의 해결에도 일조를 할 수 있도록 유도되어야 한다. 또한 중앙정부의 정책수립단계에서 일선 학교의 교육현장에 이르기까지 효율적인 인구교육 관리체계가 구축되고 교사들의 자율적인 교육 참여가 활성화되도록 하는 교육환경이 조성되어야 한다.

5. 출산·가족 친화적 가치관 형성을 위한 초·중등 교육내용 개선 방안

출산 및 가족에 대한 긍정적인 가치관 교육은 어느 특정 교과에서의 교육만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므로 전 교과에서 유기적인 협력이 이루어져야 하며, 재량활동과 특별활동에서도 함께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다.

출산 및 가족 친화적 가치관 형성을 위한 교육내용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 첫째, 저출산·고령사회에 대비하여 학교에서 출산 및 가족 친화적 가치관 교육을 강화해야 할 것이며 특히 정규 교육과정에서 관련 내용을 충분히 다루도록 수업시수가 조정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교사들이 실제로 수업을 진행할 때 사용할 수 있도록 학습자의 흥미와 수준을 고려하면서 시대성과 현실성을 반영한 다양한 보조 지도 자료의 개발과 보급이 시급하다.

셋째, 성별이나 연령, 가족 구성 등 학생 특성에 따라 출산 및 가족에 관한 인식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에 학습자의 특성을 충분히 고려한 교육내용 및 교육방법이 고안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교직경력, 성별, 출산경험 여부, 담당교과 등 교사특성에 따라 출산 및

가족 친화적 가치관 교육에 대하여 상당한 인식차이를 발견하였다. 따라서 교직경력이 상대적으로 적거나 출산경험이 없는 교사들을 대상으로 교사연수가 필요할 것이다. 교사 연수는 저출산·고령사회에 대한 교사인식을 제고할 뿐 아니라 출산 및 가족 친화적 내용을 가르치는 데 필요한 교수방법 향상을 목표로 해야 할 것이다.

끝으로 향후 연구를 위하여 몇 가지 제언들을 하고자 한다.

첫째, 미래세대인 청소년의 가치관에 대해 질적인 연구가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양적인 자료를 사용한 본 연구는 대략적인 경향을 보여줄 수는 있지만 깊이 있는 정보를 줄 수는 없다. 예를 들면 많은 학생들이 부부 간에 갈등을 해결할 수 없다면 이혼을 할 수 있다고 했는데 갈등을 해결 할 수 없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청소년들마다 다를 수 있다. 자녀가 소중하다고 생각하는데 자녀의 진정한 가치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이해해야 한다. 이러한 질문들은 질적인 연구를 통해서 보다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한 번의 횡단적인(cross-sectional) 조사를 바탕으로 적절한 결론을 내기에 충분하지 않다. 예를 들어 연령에 따라 의견 차이가 나는데 이러한 차이가 연령 차이 때문인지(age effect) 아니면 시대 차이 때문인지(period effect)는 알 수가 없다. 이는 종단적인(longitudinal) 자료를 통해서만이 해결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에는 미국의 National Longitudinal Study 같이 일정한 코호트를 따라가서 모은 자료가 절실하다. 마침 한국에는 현재 다양한 패널조사들이 진행되고 있다. 앞으로 그러한 자료를 충분히 분석하여 청소년에 대한 정책 및 교육에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본 연구는 초등학생부터 고등학생까지 전국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이며, 청소년들의 가치관은 사회학, 심리학, 교육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관심을 갖는 주제이다. 그리고 최근 한국의 가족이 큰 변화를 겪고 있기 때문에 가족에 대한 미래세대의 생각에 관심을 갖는 학자들은 많을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이러한 자료를 바탕으로 향후 청소년의 가치관, 의식 변화 등 여러 분야에서 활용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강은숙, 「서울시와 제주시의 미혼남녀의 결혼관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81.

강이수·신경아, 『여성과 일: 한국 여성노동의 이해』, 동녘, 2001.

강점숙 외, 『독일가족복지 연수보고서』, 여성가족부 정책자료실, 2003.

강학중·유계숙, 「맞벌이 부부의 가사 및 자녀양육 분담에 관한 연구: 억제 및 촉진 요인을 중심으로」, 『가족과 문화』, 17(3), 한국가족학회, 2005.

강혜련 외, 『가족친화 기업모델 및 사례연구』, 여성가족부, 2006.

고문호, 「남·여 고등학생들의 성 의식에 관한 연구」, 경기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1.

고승덕, 「초등학교교과서에 함의된 가치에 대한 아동·학부모의 태도 분석」, 한국교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8.

고승식, 「초등학교교과서에 함의된 가치에 대한 아동 학부모의 태도 분석」, 한국교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8.

고진배, 「고등학교 학생의 성지식과 성교육 실태에 관한 조사연구」, 전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7.

공미혜, 「은폐된 성, 과장된 성 : 대학생들의 성의식에 대한 연구」, 『부산대 여성연구』, vol.4, 1993, pp.27～47.

공세권·이시백·손애리·한의정·윤영옥·문상식·이종준, 『학교교육을 통한 체계적 성교육 접근 모형 개발』, 보건복지부, 2000.

교육인적자원부, 『교육부 2000년 학교 성교육 기본계획』, 2000.

교육인적자원부, 『제6차 교육과정 운영 지침』, 1993.

교육인적자원부,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1997.

교육인적자원부, 『함께 풀어가는 성이야기』, 교사용지침서, 2001.

권용은·김의철, 「자녀가치와 출산율」, 『아동교육』, 13(1), 2004, pp.221～226.
권이종, 『청소년 교육론』, 양서원, 1998.
기틴스, 다이애너, 「가족은 없다: 가족 이데올로기의 해부」, 안호용·김홍주·배선희 외 옮김, 일신사, 2001.
김경신·이선미, 「미혼남녀의 결혼관에 나타난 결혼 이데올로기」,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1), 1998, pp.27～43.
김경신, 「가족가치관의 세대별 비교연구: 노년, 중년, 초·중등학생 세대를 중심으로」, 『대한가정학회지』, 36(10), 1998, pp.145～160.
김경신, 「대학생의 성의식 실태 분석을 통한 성교육 프로그램 개발」, 『한국가족관계학회지』, 제6권 제1호, 2001.
김경희, 「고등학생의 가치관에 관한 연구」, 성신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9.
김경희, 「여성정책 관점의 재구성을 위한 시론적 연구: 여성발전론과 성주류화 개념의 이해를 중심으로」, 『한국여성학』, 제21권 2호, 2005.
김기연·신수진·최혜경, 「한국인의 세대별 가치관과 생활행동」,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1(3), 2003, pp.87～99.
김동일, 성의 사회학, 문음사, 1991.
김두섭 외, 『가족구조와 관계의 변화 및 전망』, 한양대학교, 2005.
김두섭, 『한국의 인구』, 통계청, 2002.
김두헌, 『현대의 가족』, 을유문고, 1982.
김명자, 「가족관계에 대한 부부의 가치의식과 결혼 만족도에 관한 연구, 『아세아여성연구』, 24, 1980, pp.139～166.
김명중, 「인구감소시대에 진입한 일본의 저출산 현황과 대책」, 『국제노동브리프』, 한국노동연구원, vol.4, No.1, 2006.
김미숙 외, 『고령화 사회의 사회경제적 문제와 정책대응 방안』, 한구보건사회연구원, 2003.
김미주, 「초·중·고등학교 성교육 교재 분석에 관한 연구」, 『한국학교보건학회지』, 10(2), 1997, pp.137～156.

김병완, 「초등학교 교육과정에서 추구하는 가치덕목의 분석」, 한국교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2.

김성애, 「고등학교 성교육프로그램 개발 연구- 인문계 여자 고등학교를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0.

김성일, 「태도 변화의 원리에 의한 가치관 교육」, 황정규 편, 『현대교육심리학의 쟁점과 전망』, 교육과학사, 2000.

김성혜·김초강, 「결혼관련 요인의 출산력에 미치는 영향 연구」, 『한국보건교육학회』, 8(1), 1991, pp.87～97.

김승권 외, 『인구전환기의 한국사회 가치관 및 가족변화와 대응방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5.

김승권 외, 『저출산 대비 인구정책 개발 및 범정부추진체계 수립 연구』,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3.

김아영, 「교사와 학생의 성역할 태도 분석과 중등교사의 성평등 교육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9.

김양희·이수연·김혜영, 『청소년용 한국형남녀평등의식검사(KGES-A) 개발』, 한국여성개발원, 2002.

김양희, 이형실, 『결혼과 가족』, 서울: 중앙대학교 출판부, 1997.

김영옥, 「우리나라 여대생의 배우자선택 및 결혼관에 관한 조사 연구」, 『한국생활과학학회지』, 8(1), 1999, pp.29～43.

김용기, 『현대교육학원론』, 배영사, 1964.

김용남, 「가치분석 프로그램의 적용이 아동의 도덕성 발달에 미치는 영향」, 한국교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7.

김유경, 「가족원 특성에 따른 다양한 가족의 실태와 사회적 지원 체계」, 『보건복지포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통권 103호, 2005.

김은영, 「고등학생의 성교육을 위한 기초조사연구」, 전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6.

김일명, 「기성세대와 대학생의 가족생활에 대한 가치의식 비교 연구」, 숙명여대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1989.

김재득, 「초등학교에서 환경보전 의식교육에 대한 효율적 지도방안」, 대구효성가톨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7.

김정석, 「가족과 가구」, 김두섭·박상태·은기수 편, 『한국의 인구 1』, 통계청, 2002, pp.247～281.

김정옥, 「한국도시가족의 부부관계」, 『부산여대 논문집 8집』, 1980.

김정택, 「고등학생들이 가치관에 관한 연구」, 한국교원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3.

김종근, 「국어과의 가치관 교육에 관한 연구」, 한국교원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2.

김종기, 「저출산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교육정책」, 한국교육개발원, 『교육개발』, Vol.32, No.6, 2005.

김주환 외, 『고등학교 사회』, 중앙교육, 2002.

김주환 외, 『중학교 사회 3』, 중앙교육, 2002.

김중규, 「성교육의 방향과 방법」, 『충북교육』, vol.131, 충청북도 교육연구원, 1998.

김초강, 『모자보건·가족계획』, 수문사, 1987.

김태길, 『한국윤리의 재정립, 철학과 현실사』, 1996.

김혜선·김영희, 『배우자선택과 성의식에 관한 연구(Ⅱ)』, 한국방송통신대학논문집, 제3집, 1984.

김혜선·박혜인·옥선화, 『가족관계학』, 서울: 한국방송대학교 출판부, 2002.

김혜선·이정읍, 「미혼남녀의 결혼준비도」, 『대한가정학회지』, 41(2), 2003, pp.211～224.

김혜영, 「가족실태조사 결과를 통해서 본 한국의 가족문화와 가족정책적 함의」, 가족정책 현안과 실천과제: 5월 가정의 달 기념 특별 심포지움 자료집, 한국여성개발원, 2006.

김혜영, 「한국대학생의 가족주의 변화: 성별격차를 중심으로」, 『한국 청소년연구』, 12(1), 2001, pp.79～106.

김혜원·이해경, 「청소년들을 위한 양성평등 성교육 방향의 모색」, 『한국심리학

회지: 여성』, 2000.
김혜자, 「성교육, 어떻게 할 것인가」, 『강원교육』, 제155호, 1997.
나순채, 「사회계층에 대한 가치관의 차이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1980.
나은영·민경화, 「한국문화의 이중성과 세대차의 근원에 관한 이론적 고찰 및 기존조사자료 재해석」,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4, 1998, pp.75～93.
나은영·차재호, 「1970년대와 1990년대 간 한국인의 가치관 변화 및 세대차 증감」,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13(2), 1999, pp.29～52.
나은영, 『사회심리학적 관점에서 본 인간 커뮤니케이션과 미디어』, 서울: 한나래, 2005.
나은영, 『사회심리학적 관점에서 본 인간 커뮤니케이션과 미디어』, 서울: 한나래, 2005.
남궁달화, 『가치탐구교육론』, 서울: 한국학술정보원, 2002.
남상준, 『사회교과에서의 저출산·고령화 관련 교육의 현상과 개선을 위한 방안』, 한국교원대학교 저출산·고령화 사회 대비 학교교육 프로그램 연구·개발 위원회, 2006.
노동연구원, 『중장기 인력수급 전망』, 2005.
마시열, 「합리적 가치판단 능력 신장을 위한 초등도덕과 수업모형의 구안」, 한국교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4.
문교부, 『초·중등학생백서』, 초·중등학생대책위원회, 1984.
문소정, 『가족이데올로기』, 여성 한국사회 연구회 4회 심포지움, 1994.
문옥륜 외, 『주요 국가의 저출산 관련 정책』, 국회저출산고령화사회대책특별위원회 보고서, 2006.
문유경 외, 『OECD 회원국의 고용평등정책 현황』, 한국여성개발원, 2000.
문은미, 「노동운동의 위기와 여성노동운동의 도전」, 『여/성이론』, 여성문화이론연구소, 통권 10호, 2004.
문현아, 「국가는 가족정책을 여성주의적으로 전개할 수 있는가?」, 『여/성이론』, 여성문화이론연구소, 통권 13호, 2005.

민무숙 외, 『성평등교육 정책 실효성 제고 방안 탐색』, 한국여성개발원, 2006.
박경숙, 「고령화와 노인인구」, 김두섭·박상태·은기수 편, 『한국의 인구 2』, 통계청, 2002, pp.429～459.
박광수, 「문학작품 속에 등장하는 인물들의 한국 문학적 가치관에 대한 분석연구」,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2.
박기남, 「여성노동의 현실과 대안」, 『새여성학 강의』, 한국여성연구소 편, 동녘, 2006.
박도순·홍후조, 『교육과정과 교육평가』, 문음사, 2006.
박봉정숙, 「차별금지법에 대한 7문 7답」, 『함께 가는 여성』, 한국여성민우회, 제175호, 2006.
박선영, 「2006년 민법개정안의 의의와 한계: 부부재산제, 배우자상속분을 중심으로」, 『함께 가는 여성』, 제7·8호, 2006
박세경, 「구조적 측면의 다양한 가족 실태와 사회적 지원방안」, 『보건복지포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통권 103호, 2005.
박수미, 『가족내 젠더구조와 저출산: 생애주기별 접근』,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2005a.
박수미, 『젠더문제와 여성의 노동참여: 노동구조의 변화를 중심으로』,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2005b.
박수현, 「대학생의 가족개념 인식 및 가족가치관에 관한 연구: 서울시 남·여 대학생을 대상으로」, 경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3.
박영창, 『저출산 관련 정책평가 및 입법과제』, 한국법제연구원, 2005.
박용헌, 『가치교육의 변천과 가치의식』, 서울대학교출판부, 2002.
박재흥, 「기성세대의 생애사와 세대차이 인지에 관한 연구: 질적 접근」, 『한국사회학』, 33, 1999, pp.257～296.
박진숙, 「대학생의 가족의식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22(3), 1984.
박혜인, 『한국가족의 변화와 가족가치관』, 교문사, 1990.
박회륜, 『학교교육기능과 효과성』, 도서출판 원미사, 2004.
박효숙, 「일본의 일과 생활의 양립에 관한 논의」, 『국제노동브리프』, vol.4,

No.1, 한국노동연구원, 2006.
박희성·이진숙·박초아·정민자, 「미혼남녀의 성행동시태와 혼전 성에 대한 태도」, 『대한가정학회지』, 336, 1995, pp.11～23.
변화순·최윤정, 『가족정책 방향정립 및 통합적 시행방안 연구』, 한국여성개발원 연구보고서, 2004.
변화순 외,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 마련을 위한 연구』, 여성가족부, 2005.
변화순, 「혼인상태」, 김두섭·박상태·은기수 편, 『한국의 인구 1』, 통계청, 2002, pp.219～245.
변화순, 『다양한 가족출현에 따른 쟁점과 가족관련법의 방향정립에 관한 연구』, 한국여성개발원 연구보고서, 2003.
서병숙·김윤, 「가족관계에 대한 가치의식 및 결혼만족도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권 2호, 1983, pp.127～138.
서병숙·김혜경, 「중년기 기혼여성의 자원봉사활동이 가족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8권 1호, 2002.
소온, 배리 외, 『페미니즘 시각에서 본 가족』, 권오주 외 역, 한울, 2003.
손경수, 『교원연수 체제 개선 후속조치 정책연구』, 교원 자격연수 표준교육과정 개발, 교육인적자원부, 2005.
손경수, 『교원연수 체제 개선 후속조치 정책연구, -교원 자격연수 표준교육과정 개발』, 교육인적자원부, 2005.
손승영, 「저출산·고령화 사회와 가족관계의 변화」, 『동덕 여성연구』, 10, 2005, pp.5～21.
송다영·성정현·한정원, 「한부모 가족 아동에 대한 교사의 인식과 관련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복지학』, 52, 2003, pp.273～299.
송다영, 「가족복지서비스 전달체계 수립을 위한 방향과 원칙에 관한 탐색적 연구」, 『한국사회복지학 57(4)』, 2005, pp.225～251.
송재희, 「대학생들의 이성교제 실태 및 결혼관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88.
신경아, 「노동시장과 모성, 가족의 문제」, 『경제와 사회』, 제51호, 2001.

신수진, 「한국의 가족주의 전통과 그 변화」, 이화여대 박사학위논문, 1998.
신의진, 『현명한 부모들이 꼭 알아야 할 대화법』, 랜덤하우스 중앙, 2000.
안명옥, 『출산율 제고를 위한 정책과제』, 2004년 국정감사 자료, 2004.
안병철·서동인 역, 『가족사회학』, 서울: 을유문화사, 1992.
안창선·김현옥, 『학교 성교육』, 교육과학사, 1992.
양명숙, 「예비부모세대의 결혼관과 자녀관 그리고 성역할관에 대한 연구: 대전 지역 남녀 대학생을 중심으로」, 『대한가정학회지』, 34(2), 1996, pp.147～181.
양옥경·김혜영, 「가족의식을 통해 본 가족정책의 방향: 기혼여성을 중심으로」, 『가족과 문화』, 13(2), 2001, pp.29～55.
양옥경, 「한국가족개념에 관한 질적 연구」, 『한국가족복지학』, 6, 2000, pp.70～99.
양정혜, 「가정생활을 중심으로 한 실과 및 기술·가정교과 내용의 재구조화」, 중앙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4.
양종회, 「현대 한국의 가치체계의 기원과 변동」, 김일철 외, 『한국사회의 구조론적 이해』, 서울: 아르케, 1999, pp.55～87.
양해경, 『학교 성교육의 실태분석 및 방안』, 한국 여성민우회 가족과 성 상담소, 1996.
엄동욱·이은미, 「고령화시대 도래의 경제적 의미와 대책」, 『삼성경제연구소 Issue Paper』, 2002. 12.
여성가족부 국제협력팀, 「세계여성정책동향: 출산장려 정책 현황 및 제도」, 『세계여성정책』, 여성가족부 정책자료실, 2006a.
여성가족부, 『2005년도 여성정책연차보고서』, 2005.
여성부, 『여성정책방향과 의제설정을 위한 일반국민 및 전문가조사』, 2004b.
여성부, 『전국가족조사 및 한국가족보고서』, 2003.
여성부, 『한국가족의 현실과 변화』, 2004a.
여정성, 「기혼여성의 취업과 자녀출산에 대한 경제학적 접근」, 『대한가정학회지』, 32(3), 1994, pp.71～83.

오경섭 외, 『중학교 사회 1·2·3』, 디딤돌, 2002.

오덕자, 「사이버시대 청소년의 성지식·성태도·성가치관의 관계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체육학회지』, 19, 2003, pp.719～733.

오환일·김연화·정진희, 「연변과 한국대학생의 결혼관 비교」, 『한국여성교양학회지』, 제7집, 2000, pp.81～101.

옥선화, 「한국도시가족의 역할구조 분석」, 『성심여대 논문집』, 11, 1980, pp.88～90.

옥선화, 『가족가치관: 가정학 연구의 최신정보Ⅱ』, 서울: 교문사, 1984.

왕석순·전미경, 『저출산·고령사회 관련 교과서 개편 지침 자료 개발』, 보건복지부 학술용역결과보고서, 2006.

우혜정, 『가정생활을 중심으로 식, 의, 주생활을 통합한 교육과정』, 제3차 21세기 가정과교육 포럼 발표 자료, 2005.

유계숙·정현숙, 「부모됨의 의미와 동기에 대한 청년의 인식」,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0(3), 2002, p.39～47.

유계숙, 유영주, 「서울시민의 가족개념 인식 및 가치관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40(5), 2002, pp.79～94.

유영주·김경신·김순옥, 『가족관계학』, 교문사, 2000.

유태명·장혜경·김주연·김항아·김효순, 『생각을 넓히는 실천적 가정과 수업 I』, 서울: 신광출판사, 2004.

윤가현, 『성심리학』, 성원사, 1990.

윤인경, 「저출산·고령화 사회 대비 학교교육의 목표와 내용」, 『저출산·고령화 사회 대비 학교교육의 방향』, 한국교원대학교 저출산·고령화 사회 대비 학교교육 프로그램 연구·개발위원회, 2006.

윤항순, 「가치명료화 프로그램이 인생목적, 자아개념 및 학업성취에 미치는 효과」, 부산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1.

윤홍식·김수정·김은지, 「일-가족 양립정책과 젠더역할에 관한 가치관을 통해본 OECD 14개국의 출산력 비교 연구」, 비교사회복지정책연구회 발제문, 2005.

윤홍식·조막래, 「생계부양형태에 따른 가구특성과 빈곤실태: 남성생계부양가구와 이인생계부양가구의 비교」, 2006년 한국사회복지학회 추계학술대회 발표 논문, 2006.

윤홍식, 「가족정책의 성 통합적 재구조화: 노동 주체의 관점에 근거한 일과 가족의 양립을 중심으로」, 『한국사회복지학』, 57권 4호, 2005a.

윤홍식, 「OECD국가들의 남성 돌봄노동참여 지원정책과 한국 가족정책에 대한 함의: 부모·부성휴가를 중심으로」, 한국여성단체연합 외, 『남성의 돌봄노동권리,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토론회 자료집(11월 23일), 2005b.

은기수, 「결혼으로 이행에 있어서 연령규범과 순서규범」, 『한국인구학회지』, 18(1), 1995, pp.89～117.

은기수, 「한국의 가족가치에 관한 국제비교: 세대간 가치의 양극화」, 성균관대 서베이리서치 센터·삼성경제연구소 주관, 제1차 한국종합사회조사(KGSS) 심포지움 자료집, 2004.

은기수, 「현대 한국사회의 가족가치관: 결혼에 대한 태도의 성별차이를 중심으로」, 『정신문화연구』, 24(4), 2001, pp.241～258.

이동수, 『부모교육 프로그램』, 삼성생명공익재단 사회정신건강연구소, 2006.

이문희, 「도시 청소년의 성의식 및 성문제와 성교육에 관한 조사 연구」,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3.

이민규, 『생각을 바꾸면 세상이 달라진다』, 양서원, 2000.

이삼식·김태헌·김희경, 『인구관련 교과내용 실태와 개선방향』,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5.

이삼식·신인철·조남훈, 『저출산 원인 및 종합대책 연구』, 저출산 실태조사 및 종합대책 연구 3-2,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5.

이삼식·정윤선·김희경, 『2005년도 전국 결혼 및 출산 동향조사』, 저출산고령사회연구회·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5.

이삼식, 「저출산고령화의 원인과 파장을 주시한다」, 『교육개발』, Vol.32, No.6, 2005.

이수진, 「젠더관점에서 본 결혼선택의 규정요인」, 『노동정책연구』, 5권 1호,

2005.
이수희, 『건강한 가정 만들기를 위한 가족생활교육』, 신광출판사, 2005.
이시백, 「학교 성교육 활성화 방안」, 교육부 성교육 세미나 자료, 교육부 여성교육 정책담당관실, 2000.
이연숙, 「가정과 교육과정의 대안적 모형에 대한 탐색」, 제 3차 21세기 가정과 교육 포럼 발표 자료, 2005.
이연숙, 『청소년학부모를 위한 건강가정 교육 프로그램』, 고려대학교 건강가정지원센터, 2006.
이영자·김혜순·민경자·이정옥, 『성평등의 사회학』, 한울아카데미, 1993.
이용하, 『국민연금제도 개선의 가능성과 한계』, 국민연금연구원, 2004.
이윤식외, 『교원연수 제도 개선방안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1993,
이은경, 「대학생의 가족주의가치관과 부모노후 부양의식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37(1), 1999, pp.45～65.
이은아·마경희, 「새로운 가족문화 조성을 위한 정책방향과 실천적 대안: '가족'에서 '공동체'로」, 『가족문화 정책방향 및 실천적 대안 찾기』 토론회 자료집, 한국여성민우회, 2006.
이인수, 「한국 여성의 결혼전이 시기에 미치는 결정요인 연구: 1940, 50년대 코호트를 중심으로」,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2(2), 1994.
이재경·조영미·이은아·유정미, 『저출산의 젠더 분석 및 정책 대안 연구』, 대통령자문 고령화 및 미래사회위원회, 보건복지부, 2005.
이재경 외, 「유럽의 저출산 관련 정책에 대한 여성주의적 분석」, 『한국여성학』, 제 21권 3호, 2005.
이재경 외, 『한국 가족의 현실과 변화』, 여성부 발간보고서, 2004.
이정우 외, 『결혼과 가족관계』, 숙명여자대학교 출판부, 1994.
이진석 외, 『중학교 사회 1·2』, 지학사, 2002
이채희·정민자, 「중학생을 위한 학교 성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 울산대학교 아동복지학과 석사학위논문, 2000.
이해영·권태환, 『한국사회 인구와 발전』, 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인구 및 발

전문제연구소, 1978, pp.45～48.
이현옥·김양희·이경희, 「결혼비용 지출 실태 및 의식조사」, 『가족문화논집』, 1993.
이호숙, 「학생과 교사의 양성평등의식 실태분석: 부천시 일반계 고등학교를 중심으로」, 가톨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3.
인구보건복지협회, 「청소년 상담실 활동 실적」, 내부자료, 2005.
장선철, 설재풍, 「가치분석프로그램이 역기능적 진로사고에 미치는 효과」, 『진로교육연구』, 18, 진로교육학회, 2005.
장지연 외, 『일·가족 양립체계의 선진국 동향과 정책과제』, 한국노동연구원, 2005.
장진경, 「미혼남녀의 결혼관과 출산 및 자녀관에 따른 출산정책 선호도 분석」, 『대한가정학회지』, 43(11), 2005, pp.165～183.
장혜경·이미정·김경미·김영란, 『저출산 시대 여성과 국가대응전략』, 한국여성개발원, 2004.
장혜경 외, 『가족실태조사 보고서』, 여성가족부, 2005.
장혜경 외, 『저출산 시대 여성과 국가 대응전략』, 한국여성개발원, 2004.
장혜경, 「가족정책차원에서 출산장려책 모색돼야」, 『나라경제』, 2003년 3월.
전광희, 「출산력」, 김두섭·박상태·은기수 편, 『한국의 인구 1』, 통계청, 2002, pp.81～113.
전국가정과교사모임, 『새롭게 만들어가는 가족이야기』, 교문사, 2006.
정금희, 『성교육 매체활용』, 성건강 관리 지도자 교육 워크샵 교재, 1999.
정명숙·김혜리, 「삶에 대한 가치관과 초·중등학생의 일상행동에 대한 지각에서 세대 간 차이점과 유사점」,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18(1), 2005, pp.115～135,
정범모, 『가치관과 교육』, 배영사, 1984.
정범모, 『가치관과 교육』, 배영사, 1992.
정용선·김경연·김득성, 「혼수의 사회적 의미 및 혼수가 결혼생활에 미치는 영향: 사회교환이론적 접근」, 『대한가정학회지』, 33(6), 1995, pp.115～136.

정원식, 『정의의 교육』, 배영사, 1969.

정춘숙, 「가정폭력관련법 실행 실태 및 집행에 대한 조사: 일반인, 피해자, 경찰 대상 설문을 중심으로」, 『가정폭력방지법 시행5주년기념 토론회』 자료집, 2003.

정태범, 『교육행정학』, 정민사, 1995.

정태연·한광희, 「20대가 지각한 초·중등학생과 성인과의 세대차이」, 『한국노년학』, 21(1), 2001, pp.1～14.

정해숙·김연, 『초·중등 교육과정의 성인지적 개편을 위한 성평등 교육내용 개발』, 한국여성개발원 연구보고서, 2002.

조소연·오윤자, 「부모의 가족가치관 및 관련변수가 미혼성인자녀의 가족가치관에 미치는 영향」, 『대한가정학회지』, 39(12), 2001, pp.271～284.

조애저, 「생활양식 측면의 다양한 가족의 실태와 사회적 지원 방안」, 『보건복지포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통권 103호, 2005.

조용환, 『사회화와 교육』, 교육과학사, 1997.

조은희·전경근, 『부부재산제 개정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여성개발원, 2004.

조화룡 외, 『중학교 사회 3』, 금성출판사, 2002.

주성현, 「초등학교 환경가치 교육을 위한 기초연구」, 『인문사회교육연구』, 5, 2002, pp.161～195.

차재호·나은영, 『세계의 문화와 조직』, 서울: 학지사, 1995.

채정현·박미정·김성교·유난숙·유미숙·김성희, 『교실 속에 들어간 따뜻한 부모준비교육』, 교문사, 2006.

최대규, 「교육과정 개정 시기별 교과서에 함의된 가치관의 변화 경향성 분석」, 한국교원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99.

최문기, 「가치교육의 이론적 모형화」, 『교육논총』, 서원대학교 교육대학원, 2(7), 2003, pp.325～351.

최봉섭, 「Extended School, 학교역할의 개편」, 『교육개발』, 한국교육개발원, Vol.32, No.6, 2005.

최상진·김양하·황인숙, 「한국문화에서 초·중등학생이란 무엇인가?」, 『한국심

리학회지: 사회문제』, 10, 2004, pp.11～28.
최새은·옥선화, 「30대 기혼남녀의 초혼연령 결정요인 연구」, 『한국가족관계학회지』, 8(1), 2003, pp.53～73.
최숙희·김정우, 「외환위기 이후 저출산의 원인 분석」, 『Issue Paper』, 삼성경제연구소, 2005. 12.
최숙희·김정우, 「획기적인 출산율 제고 방안」, 『Issue Paper』, 삼성경제연구소, 2006. 9.
최숙희·김정우, 『저출산 대책, 무엇이 핵심인가』, 삼성경제연구소, 2006.
최연실, 「청소년자녀기 가족의 가족스트레스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5.
최은영, 「취업여성의 일-가족 양립지원 정책방향」, 『보건복지포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통권 111호, 2006.
최정애, 「대학생의 효의식과 가족주의 가치관 및 부모부양의식」, 『대한가정학회지』, 35(6), 1997, pp.55～67.
최현섭 외, 『중학교 사회 1·2』, 고려출판, 2002.
켄 블랜치드 외,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21세기 북스, 2003.
통계청, 「2005년 출생·사망통계 결과 보도자료」, 2006
통계청, 『2005 인구주택총조사 결과』, 2006
통계청, 『2005년 출생 통계』, 2005.
통계청, 『2005년 혼인·이혼 통계』, 2006
통계청, 『2006 고령자 통계』, 2006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2006
통계청, 『장래인구특별추계』, 2005.
통계청, 『통계로 보는 여성의 삶』, 2006.
하주영, 「가족의 성별분업은 어떻게 해체가능한가?」, 『철학과 현실』, 통권 53호, 2002.
한경순, 「남녀대학생의 가족주의 가치관과 부모부양의식」, 『대한가정학회지』, 37(9), 1999, pp.13～24.

한경혜, 「사회적 시간과 한국 남성의 결혼연령의 역사적 변화: 생애과정 관점과 구술생활사 방법의 연계」, 『한국사회학』, vol.27, 1993, pp.295～317.

한경혜, 「산업화와 결혼 연령 변화에 관한 이론적 고찰: 가족전략의 관점에서」, 『한국사회학』, vol.24, 1990, pp.103～120.

한국교원대학교 교육연구원, 『교과과정에서의 성 내실화 방안 연구』, 2005.

한국부모교육학회, 『성 교육학』, 교육과학사, 1998.

한국여성개발원 「제2차 여성정책기본계획(2003-2007) 추진성과와 과제」, 제34차 여성정책포럼자료, 2006.

한국여성개발원, 『가족정책기본계획수립을 위한 연구』, 여성가족부 연구보고서, 2005.

한국여성개발원, 『중학생 학부모용 읽기 자료 개발』, 한국여성개발원, 1994.

한국여성공학기술인협회, 『여성공학 기술인력 양성 및 활용촉진방안 연구』, 2006.

한국여성노동자협의회, 「평등명절 십계명」, 『일하는 여성들의 네트워크』, 2006. 10.

한국염, 「정부의 결혼이민자 가족지원정책 방향에 대한 고찰」, 대구여성회 2006 결혼이주여성인권지원 전문상담원교육 자료집, 2006.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한국의 교육과 윤리』, 제1집, 1991.

한남제, 『한국도시가족연구』, 일지사, 1984.

한명희, 『교육철학』, 배영사, 1989.

한상철·조아미·박성희, 『초·중등학생 심리학』, 양서원, 1997.

한유미·곽혜경, 「현대 한국사회의 출산율저하와 여성사회참여」, 『한국생활과학학회지』, 13(1), 2004, pp.29～40.

허병기, 『교육의 가치와 실천』, 교육과학사, 1998.

허우긍 외, 『고등학교 사회』, 교학사, 2002.

허형, 『Kluckhohn의 가치관 모형에 따른 국어과 교과서의 가치주제 분석』, 행동과학연구소, 1972.

홍봉선·남미애, 『청소년복지론』, 양서원, 2003.

홍승직, 『한국인의 가치관 연구』, 고려대학교출판부, 1986,
홍준숙, 「미혼남녀의 결혼관에 관한 연구」, 효성여대 석사학위논문, 1987.
홍후조, 『교육과정 이해와 개발』, 문음사, 2004,
황원철·김성열·고창규 편저, 『공교육: 이념·제도·개혁』, 도서출판 원미사, 2004.

SBS뉴스, 2006년 2월 12일.
매일경제신문, 2006년 9월 24일.
문화일보, 2006 9월 27일.
세계일보, 「서울 여성의 전화, 청소년 가정폭력 예방교육 프로그램, 폭력 쫑! 대화 짱!」, 2006년 7월 13일.
인천일보, 2003년 3월 15일.
제일기획, 「디지털 시대의 웨딩 트렌드」, 2006.
제일기획, 「우리 시대의 미드필더, 2635세대」, 2005.
조선일보, 2006 6월 17일.
중앙일보, 「한국가정에는 아빠가 없다?」, 2006년 8월 3일.
한겨레신문, 2004년 11월 14일.

WHO編, 「川畑徹朗, 西岡伸紀, 高石昌弘」, 石川哲也監譯, JKY 研究會譯, 「WHO ライフスキル教育プログラム」, 大修館書店, 東京, 1997.
文部科學省, 「文部科學白書, 2005」, 2006.
文部科學省, 「소자화 대책 추진기본방침(요약)」, 1998.
文部科學省, 「소자화 대책에 관한 최근 의식조사 결과」, 2006.
文部省, 「高等學校學習指導要領」, 『大藏省印刷局』, 東京, 1999.
文部省, 「小學校學習指導要領」, 『大藏省印刷局』, 東京, 1998.
文部省, 「諸外國の初等中等教育」, 教育調査, 第128集, 『財務省印刷局』, 2002.
文部省, 「中學校學習指導要領」, 『大藏省印刷局』, 東京, 1998.
文部省, 「學校における性教育の考え方」, 進め方, 1999, 1～83.
中央教育審議會, 「21世紀を展望した我が國の教育の存り方について」, 第一

次答申, 1996, pp.9～10.

AmeriStat staff, *Declining Fertility Among Teenagers*, http://www.prb.org, 2003.

Angrist, J. & W. N. Evans, "Children and their parents labor supply: evidence from exogenous variation in family size", *American Economic Review*, 88, 1998, pp.450～477.

Ashford, S. and Timms, D., "What Europe thinks", *A study of Western European values*, Dartmouth, Aldershot, www.hull.ac.uk/children5to16programme/ briefings/ holland.pdf, 1992.

Australian Government department of Education, *Implementing the National Framework for Values Education in Australian Schools*, 2006.

Australian Nationa Statistical Office, *National Survey of Young Australians*, 2006.

Avery, R., F. Goldscheider, & A. Jr. Speare, "Feathered nest/gilded cage: Parental income an leaving home in the transition to adulthood", *Demography*, 29, 1992, pp.375～388.

Axinn, W. G. & A. Thornton, "The influence of parental resources on the timing of the transition to marriage", *Social Science Research*, 21, 1992, pp.61～85.

Banks, J. A., *Teaching strategies for the social studies*, Massachusetts: Addison-Wesley Publishing Co., 1977.

Booth, A. & Duvall, D., "Sex and roles and the link between fertility and employment", *Sex Roles*, 7, 1981, pp.847～856.

Brown B. V., "Youth Attitudes on Family, Work, and Community Service: Implications for Welfare Reform", *New Federalism: Issues and Options for States*, A-47, 2001, pp. 1～7.

Brown, S. D., & Lent, R. W., "A Social Cognitive Framework for Career Choice Counseling", *The Career Development Quarterly*, 44, 1996.

Center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Trends in Sexual Risk Behaviors Among High School Students···United States, 1999-2001", *Morbidity and*

Mortality Weekly Report, U.S., 2002.

Center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Assessing Health Risk Behaviors Among Young People*, U.S., 2002.

Cherlin, A., *Marriage, divorce, remarriage,*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1992.

Chesnais, J., "Fertility, Family and Social Policy in Contemporary Western Europe", *Population and Development Review,* 22(4), 1996, pp.729～739.

Clary, E. G., Synder, M., Ridge, R. D., Miene, P. K. & Haugen, J. A., "Matching messages to movies in persuasion: A functional approach to promoting volunteerism", *Journalism of applied social sociology*, 24(13), 1994, pp.1129～1149.

Commonwealth of Australia, *National Framework for Values Education in Australian Schools*, 2005.

Cramer, J. C., "Fertility and female employment: problems of causal direction",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45, 1980, pp.178～190.

D'Addio, A. C. & D'Ercole, M. M., "Trends and Determinants of Fertility Rates: The Role of Policies", *OECD Social, Employment and Migration working papers,* no.27, 2005.

DeGraff, D. S. & R. Anker, *Gender, labour markets, and women's work*, Liège: International Union for the Scientific Study of Population, 1999.

Department for Education and Employment, *Sex and Relationship Education Guidance*, U.K., 2000.

Dex, S. and Scheibl, F., "Business Performance and Family-Friendly Policies", *Journal of General Management*, 24(4), 1999.

Donahoe, D. A., "Measuring women's work in developing countries", *Population and Development Review,* 25, 1999, pp.543～574.

Elder, G. H. Jr., "Time, human agency, and social change : Perspectives on the life course", *Social Psychology Quarterly*, 57, 1984, pp.4～15.

Erik Centerwall and Skolverket, "Love! You can really feel it, you know!", Sweden, 2000.

Erikson, E., *Childhood and Society*, NY: Norton, 1950.

Esaterlin, R. A., "An economic framework for fertility analysis", *Studies in Family Planning*, 6, 1975, pp.54～63.

Esping-Andersen, G., "A new gender contract", in *Why we need a new welfare state*, edited by G. Esping-Andersen & G. Duncan, A., 2002, pp.68～95.

Folbre, N., "The Future of the elephant-bird", *Population and Development Review,* 23(3), 1997, pp.647～654.

Gibson, R. L., & Mitchell, M.H. *Introduction to Guidance*, New York, NY: MacMillan, 1981.

Giddens, A., 『현대 사회학』, 김미숙 편역, 서울: 을유문화사, 1992.

Goldscheider, F. K. & Waite, L. J., "Sex differences in the entry into marriage",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92, 1986. pp.91～109.

Greenstein, T. N., "Are the 'most advantaged' children truly disadvantaged by early maternal employment? effects on child cognitive outcomes", *Journal of Family Issues,* 16, 1995, pp.149～169.

Gregory, A. and J. Windebank, *Women's work in Britain and France: Practice, theory and policy,* NY: Macmillan Press LTD, 2000.

Halstead J. M. & M. Taylor, "Learning and Teaching about Values: a review of recent research", *Cambridge Journal of Education*, 30(2), 2000, pp.169～202.

Haydon, G., "Values education: sustaining the ethical environment", *Journal of Moral Education*, 33(2), 2004, pp.115～129.

Hemerijck and J. Myles.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Hitlin, S. and J. A. Piliavin, "Values: Reviewing a Dormant Concept", *Annual Review of Sociology*, 30, 2004, pp.359～393.

Hochschild, A. R., *The second shift*, New York: Viking, 1989.

Hoffman, Louis Wladis and Hoffman, Marin L., "The value of children to parents",

In James T. Fawcett(Ed), *Psychological Perspectives on Population*, New York: Basic Books, 1973, pp.19～76.

Holland, J. & R. Thomson, "Respect-Youth values: identity, diversity and social change", *Children 5～16 Research Briefing*, 3, http://www.hull.ac.uk/children 5to16programme/, 1999.

Hunt, M. P., & Metcalf, L. E., *Teaching High School Social Studies*, NY: Harper & Row, 1968.

Inglehart, R., *Modernization and postmodernization: Cultural, economic, and political change in 43 societies*,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97.

Jersild, Arthur Thomas, *The Psychology of adolescence*, New York: Macmillan, 1957.

Kohn, M. L., "On the transmission of values in the family: a preliminary formulation", *Research in the sociology of education and socialization*, 4, 1983, pp.1～12.

Kűnzler, J., "Path towards a modernization of gender relations, policies, and family building", Schulze, H-J, et al.(eds), *Family Life and Family Policies in Europe*,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2002.

Kwon, T. H., *Popultion Change and Developments: 1925～1966*, The Population and Development Studies Center, 1997.

Lehrer, E. & M. Nerlove, "Female labor force behavior and fertility in the United States", *Annual Review of Sociology*, 12, 1986, pp.181～204.

Lesthaeghe, R & Surkyn, J., "Cultural dynamics and economic theories of fertility change", *Population and Development Review*, 14, 1988, pp.1～45.

Lloyd K. M. & S. J. South, "Contextual influences on young men's transition to first marriage", *Social Forces*, 74(3), 1996, pp.1097～1119.

MaLaughlin, D. K. and D. T. Lichter, "Poverty and marital behavior of young women",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9, 1997, pp.582～594.

Mason, K. O. & V. T. Palan, "Female employment and fertility in Peninsular Malaysia: the maternal role incompatibility hypothesis reconsidered",

Demography, 37, 1981, pp.523～33.

Massialas, B. G. & Cox, C. B., *Inquiry in social studies*, NY: McGraw-Hill, 1966.

Mather M. and D. Adams, *The Risk of Negative Child Outcomes in Low-Income Families*, Population Reference Bureau, 2006.

McDonald, P., "Gender equity in theories of fertility transition", *Population and Development Review,* 26(3), 2000, pp.427～430.

McLaughlin, D. K. & D. T. Lichter, "Poverty and marital behavior of young women",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9, 1997, pp.582～594.

McLaughlin, D. K., D. T. Lichter, & G. M. Jonston, "Some women marry young: Transitions to first marriage in metropolitan and nonmetropolitan area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5, 1993, pp.827～838.

Meux, M., "Resolving Value Conflicts", In L. E. Metcalf(ed), *Values Education: Rationale, Strategies, and Procedure*, 4, lst Yearbook, Washington, D.C.: NCSS, 1971.

Morgan, S. P., "Is low fertility a twenty-first-century demographic crisis?", *Demography,* 40(4), 2003, pp.589～603.

National Guidelines Task Force, *Guildelines for Comprehensive Sexuality Education*, Kindergarten-12th Grade 2nd Edition, Sexuality Information and Education Council of the United States(SIECUS), U.S., 1996.

National Institute of Child Health and Human Development, NIH, DHHS, *America's Children in Brief: Key Indicators of Well-Being 2006,* Washington, DC: U.S. Government Printing Office, 2006.

Nugent, T., *Youth in a Global World,* Population Reference Bureau, 2006.

OECD, *OECD Factbook*, 2005.

Oja, S. N., "Adult development is implicit in staff development", *The Journal of Staff Development*, 1(2), 1980.

Oliver, D. W., & Shaver, J. P., *Teaching Public Issues in the High School*, Logan, UT: Utah State University Press(Original Work Published 1966), 1974.

Pinquart, M. & Silbereisen, R. K., "Transmission of Values from Adolescents to Their Parents: The Role of Value Content and Authoritative Parenting", *Adolescence*, 39(153), 2004.

Pollak, R. and S. Watkins, "Cultural and economic approaches to fertility: Proper marriage or mesalliance?", *Population and Development Review*, 27, 1993, pp.177～183.

Qualifications and Curriculum Authority, *Personal, social and health education at key stages 3 and 4 Initial guidance for schools*, U.K., 2000.

Rabin, L., "The Generation Gap: wearing it well", *The Time*, Jul, 29, 1965.

Raths, L. E., Harmin, M., S. B., Simon, *Values and Teaching-working with Values in the Classroom*, 2nd ed. Chales E. Merrill Publishing Company, 1978, 정선심·조성민 역, 『가치를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철학과 현실사, 1994.

Rindfuss, R. R. & K. L. Brewster, "Childrearing and fertility", *Population and Development Review,* 22(Suppl.), 1996, pp.258～289.

Rokeach, M., *The Nature of Human values*, NY: The Free Press, 1973.

Rossi, A. S. & Rossi, P. H., Of human bonding, NY: Aldin de Griyter, 1990.

Sacks, Nancy E. and Marrone, Catherine, *Gender and Work in today's worlds: a reader*, Westview Press, 2004.

Sassler, S. and R. Schoen, "The Effect of Attitudes and Economic Activity on Marriage",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61(Feb.), 1999, pp.147～159.

Schwartz, S. H., "Universal in the content and structure of values; theoretical advances and empirical tests in 20 centuries", *Advance in experiential social sociology*, 25, 1992, pp.1～65.

Simon, R. W. & K. Marcussen, "Marital transitions, marital beliefs, and mental health", *Journal of Health and Social Behavior*, 40, 1999, pp.111～125.

Simon, S. B., Howe, L. W., & Kirschenbaum, H., *Values clarification: A handbook of practical strategies for teacher and students*, Chesterfield: Values press, 1991.

Sleebos, J. E., "Low fertility rates in OECD countries: Facts and policy response", *OECD social employment and migration working paper,* OECD, 2003.

Somerville, Jennifer, *Feminism and the Family: Politics and Society in the U.K. and USA*, McMillan Press, 2000.

Stacey, Judith, *Brave New Families: Stories of Domestic Upheaval in Late Twentieth Century America,* Basic Books, 1991.

Teachman, J. D., Polonko, K. A., & Leigh, G. K., "Marital timing : Race and sex comparisons", *Social Forces*, 66(1), 1987, pp.239～268.

Torr, B. M. & S. E. Short, "Second births and the second shift: a research note n gender equity and fertility", *Population and Development Review,* 30(1), 2004, pp.109～130.

Turner, B., "The Sociology of Family", in Carig Calhoun, Chris Rojek & Bryan Turner, *The Sage Handbook of Sociology,* London: Sage, 2005, pp.135～153.

UNDP, Human Development Index, 2004.

UNESCO, *Learning to be: A holistic and integrated approach to values education for human development: Core values and the valuing process for developing innovative practices for values education toward international understanding and a culture of peace*, Bangkok: UNESCO Asia and Pacific Regional Bureau for Education, 2002.

Van Esterik, P. & T. Greiner, "Breastfeeding and women's work: constraints and opportunities", *Studies in Family Planning,* 12(4), 1981, pp.184～197.

Wertheimer R. and A. R. Papillo, "An Update on State Policy Initiatives to Reduce Teen and Adult Nonmarital Childbearing", *New Federalism: Issues and Options for States*, A-66, 2004, pp.1～10.

Willem, A. 'Family and Fertility Policies in OECD Countries: Effects and Limitations, *Policy Forum on Low Fertility and Ageing Society*, Presidential Committee on Ageing Society and Population Policy, 13～14, Sept. 2006, Seoul.

삼성경제연구소, http://www.seri.org.

저출산고령화사회위원회, http://www.precap.go.kr.
한국보건사회연구원, http://www.kihasa.re.kr.
http://www.bborie.com.
http://www.chonhyang.com.
http://www.o-a.or.kr.

부 록

〔부록 1〕 미래세대의 결혼·자녀·양성평등에 관한 가치관 조사(학생용) 조사표 양식

〔부록 2〕 결혼·자녀·양성평등에 관한 교육실태 조사(교사용) 조사표 양식

〔부록 1〕 미래세대의 결혼·자녀·양성평등에 관한 가치관 조사(학생용) 조사표 양식

조사기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결과공표(예정시기)	2007년 1월

승 인 번 호
제 0 6 0 2 1 호

미래세대의 결혼·자녀·양성평등에 관한 가치관 조사

(학생용)

고유번호	시도명	시·군·구명	학교구분	학교특성	학년	반	응답자일련번호
1	2-3	4-6	7	8	9	10-11	12-14
1	※학생은 기입안함	※학생은 기입안함	☐ ① 초등학교 ☐ ② 중학교 ☐ ③ 고등학교(인문계) ☐ ④ 고등학교(실업계)	☐ ① 남학교 ☐ ② 여학교 ☐ ③ 남녀공학			※학생은 기입안함

대통령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인사말

금번 저희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는 대통령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와 공동으로 「미래세대의 결혼·자녀·양성평등에 관한 가치관 조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사는 전국에서 표본추출한 약 130개 초·중·고 학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것으로 학생이 재학 중인 학교가 표본학교로 선정되었습니다. 학생이 응답한 내용은 결혼, 출산 및 자녀 양육에 적합한 사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관련 정책 수립 및 프로그램 개발에 필요한 기초 자료로 활용됩니다.

학생이 응답해준 모든 사항은 통계법에 따라 비밀이 절대적으로 보장되며, 그 내용은 통계자료로만 이용되오니 성실하고 정확하게 질문에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원 장 김 용 문

1 다음은 학생 본인과 가족에 관한 질문입니다.

☺ 해당란에 ☑를 해주세요.

1. 학생은 남학생인가요, 여학생인가요?

☐ ① 남학생 ☐ ② 여학생

2. 학생의 형제자매는 몇 명입니까? (학생 본인은 포함하지 않음)

구분	명
형/오빠	☐
누나/언니	☐
남동생	☐
여동생	☐

☞ 형제자매가 없을 경우에는 모두 '0' 명으로 기입해 주세요.

3. 학생 본인을 포함하여 형제자매 수가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 ① 많은 편이다 ☐ ② 적은 편이다
☐ ③ 적당하다 ☐ ④ 모르겠다

4. 학생의 부모님은 살아 계세요?

☐ ① 모두 살아 계신다 ☐ ② 아버지만 살아 계신다
☐ ③ 어머니만 살아 계신다 ☐ ④ 모두 안계신다

5. 학생의 어머니와 아버지는 이혼 했거나 별거 중인가요?

☞ 별거란? 이혼하기 전에 따로 사는 경우를 말합니다.

☐ ① 예 ☐ ② 아니오
☐ ⑨ 부모님 중 한분만 살아계시거나 모두 안계신다

6. 학생은 태어나서 초등학교까지 주로 누가 학생을 키워주셨나요? (1가지만 응답해 주세요)

☐ ① 어머니와 아버지가 함께 ☐ ② 어머니
☐ ③ 아버지 ☐ ④ 친할머니(외할머니)
☐ ⑤ 친할아버지(외할아버지) ☐ ⑥ 형제자매
☐ ⑦ 이웃 ☐ ⑧ 도우미 아주머니
☐ ⑨ 기타

7. 학생의 아버지는 학교를 어디까지 나오셨나요?

☐ ① 학교를 안다녔다 ☐ ② 초등학교
☐ ③ 중학교 ☐ ④ 고등학교
☐ ⑤ 대학교 ☐ ⑥ 대학원
☐ ⑦ 모르겠다 ☐ ⑨ 아버지가 안계신다

8. 학생의 어머니는 학교를 어디까지 나오셨나요?

☐ ① 학교를 안다녔다 ☐ ② 초등학교
☐ ③ 중학교 ☐ ④ 고등학교
☐ ⑤ 대학교 ☐ ⑥ 대학원
☐ ⑦ 모르겠다 ☐ ⑨ 어머니가 안계신다

9. 학생은 학교를 어디까지 다니고 싶으세요?

☐ ① 중학교 ☐ ② 고등학교
☐ ③ 대학교 ☐ ④ 대학원

10. 현재 학생의 부모님은 돈을 벌기 위해 일을 하고 계세요?

☐ ① 두 분 모두 일을 하신다 ☐ ② 아버지만 일 하신다
☐ ③ 어머니만 일 하신다 ☐ ④ 두 분 모두 일을 안하신다

11. 학생은 현재 친할머니(외할머니) 또는 친할아버지(외할아버지)와 같은 집에서 살고 있나요?

☐ ① 예 ☐ ② 아니오

12. 학생은 본인이 생각하기에 집안형편이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 ① 매우 잘 사는 편이다 ☐ ② 잘 사는 편이다
☐ ③ 보통이다 ☐ ④ 못 사는 편이다
☐ ⑤ 매우 못 사는 편이다 ☐ ⑥ 모르겠다

13. 학생의 종교는 무엇인가요?

☐ ① 불교 ☐ ② 개신교(기독교)
☐ ③ 천주교 ☐ ④ 기타 종교
☐ ⑤ 종교 없음

다음은 가족관계에 관한 질문입니다.

14. 학생 본인과 부모님과의 관계는 어떠세요? (부모님 중 한분만 계시는 학생도 응답해 주세요)

☐ ① 매우 좋은 편이다 ☐ ② 좋은 편이다
☐ ③ 보통이다 ☐ ④ 나쁜 편이다
☐ ⑤ 매우 나쁜 편이다 ☐ ⑥ 좋은지 나쁜지 모르겠다
☐ ⑨ 아버지와 어머니 모두 안계신다

15. 아버지와 어머니와의 관계는 어떠세요?

☐ ① 매우 좋은 편이다 ☐ ② 좋은 편이다
☐ ③ 보통이다 ☐ ④ 나쁜 편이다
☐ ⑤ 매우 나쁜 편이다 ☐ ⑥ 좋은지 나쁜지 모르겠다
☐ ⑨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안계신다

16. 학생은 가족에 관한 다음의 내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구 분	매우 찬성함	대체로 찬성함	별로 찬성안함	전혀 찬성안함
1) 아버지나 어머니가 혼자서도 자녀를 잘 키울 수 있다고 생각 한다	☐ ①	☐ ②	☐ ③	☐ ④
2) 결혼하지 않아도 자녀를 가질 수 있다고 생각 한다	☐ ①	☐ ②	☐ ③	☐ ④
3) 입양한 아이도 내가 낳은 자식과 같이 애정을 갖고 잘 키울 수 있다고 생각 한다 ☞ 입양이란? 다른 사람의 아이를 데려다 키우는 것을 말합니다.	☐ ①	☐ ②	☐ ③	☐ ④
4) 사별(부부 중 한 사람이 사망)이나 이혼 후에도 재혼을 해서 새 삶을 시작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 한다	☐ ①	☐ ②	☐ ③	☐ ④
5) 남녀가 사랑한다면 결혼하지 않고 함께 사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한다	☐ ①	☐ ②	☐ ③	☐ ④
6) 외국인과 결혼해도 상관 없다고 생각한다	☐ ①	☐ ②	☐ ③	☐ ④

☺ 다음 글을 잘 읽고 학생의 생각과 일치하는 해당란에 ☑를 해주세요.

흔히 친부모와 함께 사는 가족을 일반적인 가족형태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부모님 중 한 분하고만 사는 가정, 재혼 부모님과 함께 사는 가정, 형제자매들끼리만 사는 가정, 할아버지(할머니) 하고만 사는 가정 등 다양한 가족형태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 17번과 18번 문항에 대해 응답해 주세요)

17. 학생은 위의 글에서 설명하고 있는 다양한 가족형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 ① 다양한 가족형태도 일반적인 가족처럼 행복할 것이다
☐ ② 일반적인 가족이 아닌 경우 행복하지 못할 것이다
☐ ③ 행복과 불행은 가족 형태와 상관없다
☐ ④ 모르겠다

18. 학생은 다양한 가족형태가 생기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1가지만 응답해 주세요.

☐ ① 부모님의 별거·이혼·재혼이 많아져서
☐ ② 자녀의 교육을 위해 따로 살아야 해서
☐ ③ 부모님이 편찮으시거나 일찍 돌아가셔서
☐ ④ 부모님의 맞벌이로 자녀를 돌볼 수 없어서
☐ ⑤ 모르겠다

다음은 학교에서 배운 가족에 관한 질문입니다.

19. 학교에서 가족에 대한 내용은 어떤 시간에 배웠는지 모두 응답해 주세요.

☐ ① 국어
☐ ② 도덕
☐ ③ 사회
☐ ④ 과학
☐ ⑤ 기술·가정(실과)
☐ ⑥ 외국어(영어)
☐ ⑦ 특별활동이나 재량활동(교과 외 시간)
☐ ⑧ 기타 과목
☐ ⑨ 배운적 없다

20. 가족에 관한 내용 중 어떤 내용을 배웠는지 모두 응답해주세요.

☐ ① 가족의 소중함과 중요성
☐ ② 가족의 형태와 구성원의 역할
☐ ③ 가족 의식주에 관한 내용
☐ ④ 가족 내 남녀 간 역할평등
☐ ⑤ 가족구성원간의 갈등과 화해
☐ ⑥ 가족과 이웃의 관계
☐ ⑦ 가족과 사회, 국가의 관계
☐ ⑧ 기타
☐ ⑨ 배운적 없다

21. 수업시간에 가족에 관한 내용을 배우고 난 후, 학생은 어떤 생각이 들었는지 1가지만 응답해 주세요.

☐ ① 식상한 이야기라서 지루했다
☐ ② 화목한 가정을 만들어야겠다고 생각했다
☐ ③ 가족간의 갈등을 슬기롭게 극복하는 법을 알게 되었다
☐ ④ 갈등 없는 이상적 가정 분위기만 다루고 있어 현실과 많이 다르다고 생각했다
☐ ⑤ 아무 생각이 안들었다
☐ ⑥ 기타
☐ ⑨ 배운적 없다

2 다음은 결혼에 관한 질문입니다.

1. 결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 ① 반드시 해야 한다 ☐ ② 하는 편이 좋다
☐ ③ 해도 좋고 하지 않아도 좋다 ☐ ④ 하지 않는 게 낫다
☐ ⑤ 모르겠다

2. 사람들이 결혼을 한다면 몇 살에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세요? (하나의 연령만 기입해 주세요)

1) 남자: ☐☐ 세
2) 여자: ☐☐ 세

3. 학생은 결혼에 대한 다음의 내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구 분	매우 찬성함	대체로 찬성함	별로 찬성안함	전혀 찬성안함
1) 결혼은 개인보다 가족간의 관계를 먼저 생각해야 한다	□ ①	□ ②	□ ③	□ ④
2) 마땅한 상대를 만나지 못하면 결혼을 꼭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 한다	□ ①	□ ②	□ ③	□ ④
3) 직장을 구하지 못하거나 안정된 직장을 가지지 못하면 결혼을 늦추거나 안할 수도 있다고 생각 한다	□ ①	□ ②	□ ③	□ ④
4) 결혼생활을 유지할 정도로 수입이 충분해야 결혼을 할 수 있다고 생각 한다	□ ①	□ ②	□ ③	□ ④
5) 내가 하고 싶은 공부나 일을 하기 위해 결혼을 안 할 수도 있다고 생각 한다	□ ①	□ ②	□ ③	□ ④
6) 독신(혼자 사는 것)의 삶을 즐기기 위해서는 결혼을 안 할 수도 있다고 생각 한다	□ ①	□ ②	□ ③	□ ④
7) 결혼 생활이 부담스러우면 결혼을 안 할 수도 있다고 생각 한다	□ ①	□ ②	□ ③	□ ④
8) 결혼은 보통 사람들이 결혼하는 나이에 해야 한다고 생각 한다	□ ①	□ ②	□ ③	□ ④
9) 사귀는 사람이 있으면 결혼은 그 사람과 해야 한다고 생각 한다	□ ①	□ ②	□ ③	□ ④
10) 결혼과 관계없이 성관계를 가질 수 있다고 생각 한다	□ ①	□ ②	□ ③	□ ④
11) 부부간의 갈등을 해결할 수 없다면 이혼하는 게 낫다고 생각 한다	□ ①	□ ②	□ ③	□ ④
12) 자녀가 있어도 이혼할 수 있다고 생각 한다	□ ①	□ ②	□ ③	□ ④

4. 학생 본인은 결혼할 생각이 있으세요?

☐ ① 결혼할 생각이 있다 ☐ ② 결혼할 생각이 없다 ☐ ③ 모르겠다

5. 학생이 결혼을 한다면 '결혼할 사람' 의 조건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보기에서 순서대로 3가지 까지만 응답해주세요.

■ 첫 번째 중요한 것 ( ) ■ 두 번째 중요한 것 ( ) ■ 세 번째 중요한 것 ( )

< 보 기 >

① 외모 등 신체적 조건	② 건강	③ 직업(직종 및 직위)
④ 경제력(소득, 재산 등)	⑤ 연령	⑥ 학력
⑦ 학벌(유명한 학교를 나온 것)	⑧ 성격	⑨ 믿음과 사랑
⑩ 종교	⑪ 궁합	⑫ 형제순위(장남, 장녀 등)
⑬ 가정환경(부모님, 형제 및 친척 관계, 성장 배경)		
⑭ 출신지역(배우자 집안이 뿌리내리고 있는 지역)		⑮ 기타 조건
⑯ 조건 없다	⑲ 결혼할 생각이 없거나 결혼할지 모르겠다	

다음은 자녀에 관한 질문입니다.

6. 사람들이 어른이 되면 반드시 자녀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세요?

☐ ① 꼭 있어야 한다 ☐ ② 있는 것이 없는 것보다 나을 것이다

☐ ③ 없어도 상관없다 ☐ ④ 모르겠다

7. 학생은 앞으로 자녀를 둘 생각이세요?

☐ ① 반드시 자녀를 가지고 싶다 ☐ ② 가능하면 가지고 싶다

☐ ③ 별로 가지고 싶지 않다 ☐ ④ 전혀 가지고 싶지 않다

☐ ⑤ 모르겠다

8. 학생은 앞으로 몇 명의 자녀를 둘 생각이세요?

☐ ⓪ 0명 (자녀를 둘 생각이 없다) ☐ ① 1명 ☐ ② 2명 ☐ ③ 3명

☐ ④ 4명 ☐ ⑤ 5명 이상 ☐ ⑥ 모르겠다

9. 학생이 자녀를 둔다면 꼭 아들을 갖고 싶으세요?

☐ ① 예 ☐ ② 아니오 ☐ ⑨ 자녀를 둘 생각이 없다

10. 학생은 자녀를 둘 생각이 <u>있다면</u>, 가장 중요한 이유가 무엇인지 <u>1가지만</u> 응답해주세요.

☐ ① 대를 이어야 하니까 ☐ ② 늙어서(노후에) 외롭지 않기 위해서
☐ ③ 늙어서(노후에) 경제적으로 의지할 수 있으므로 ☐ ④ 부부관계가 더욱 좋아지니까
☐ ⑤ 자녀를 키우는 것은 삶의 중요한 가치이자 보람이니까
☐ ⑥ 결혼하면 아이는 당연히 생기는 것이니까 ☐ ⑦ 부모님을 기쁘게 해 드리기 위해서
☐ ⑧ 기타 ☐ ⑨ 모르겠다
☐ ⑩ 자녀를 둘 생각이 없다(또는 결정하지 못했다)

11. 학생은 자녀를 둘 생각이 <u>없다면</u>, 가장 중요한 이유가 무엇인지 <u>1가지만</u> 응답해 주세요.

☐ ① 자녀에 대한 양육비와 교육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 ② 부부만의 시간과 행복이 줄어드니까
☐ ③ 내 일에 전념하고 싶어서 ☐ ④ 자녀가 힘든 공부를 하게 되므로
☐ ⑤ 자녀가 학교나 사회에서 왕따(체벌)를 당할까 염려 되어서
☐ ⑥ 부모님을 돌보는 것이 어려울 것 같아서 ☐ ⑦ 기타
☐ ⑧ 모르겠다 ☐ ⑩ 자녀를 둘 생각이 있다(또는 결정하지 못했다)

12. 학생은 자녀에 대한 다음의 내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구 분	매우 찬성함	대체로 찬성함	별로 찬성안함	전혀 찬성안함
1) 부모가 되는 것은 인생에서 가치 있는 일이라고 생각 한다	☐ ①	☐ ②	☐ ③	☐ ④
2) 자녀를 낳아야만 부부가 사회적으로 인정받는다고 생각 한다	☐ ①	☐ ②	☐ ③	☐ ④
3) 자녀가 있으면 부부관계가 더 좋아진다고 생각 한다	☐ ①	☐ ②	☐ ③	☐ ④
4) 자녀가 있는 사람들은 노년에 덜 외롭다고 생각 한다	☐ ①	☐ ②	☐ ③	☐ ④
5) 자녀가 있으면 늙어서(노후에) 경제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 한다	☐ ①	☐ ②	☐ ③	☐ ④
6) 자녀를 통해 부모의 꿈을 이루는 것은 바람직 하다고 생각 한다	☐ ①	☐ ②	☐ ③	☐ ④
7) 집안의 대를 잇기 위해 자녀를 두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 한다	☐ ①	☐ ②	☐ ③	☐ ④
8) 자녀를 갖는 것은 사회에 대한 의무이기도 하다고 생각 한다	☐ ①	☐ ②	☐ ③	☐ ④
9) 자녀의 양육도 중요하지만 부모의 생활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 한다	☐ ①	☐ ②	☐ ③	☐ ④
10)자녀의 교육은 힘들더라도 끝까지 시켜야 한다고 생각 한다	☐ ①	☐ ②	☐ ③	☐ ④

13. 학생은 학교에서 아이를 키우는 방법에 대한 교육을 받은 적이 있으세요?
☞ 아이를 키우는 방법이란? 출산, 아이 돌보기, 교육 등을 말합니다.

☐ ① 예 ☐ ② 아니오

14. 학생은 남자가 아이를 키우는 방법에 대해 배워야 한다고 생각하세요?

☐ ① 예 ☐ ② 아니오

다음은 남녀의 역할에 관한 질문입니다.

15. 학생의 아버지와 어머니는 가정 일을 서로 공평하게 나누어 하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 ① 매우 그렇다 ☐ ② 대체로 그렇다
☐ ③ 별로 그렇지 않다 ☐ ④ 전혀 그렇지 않다
☐ ⑨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안계신다

16. 일반적으로 부부 중 누가 집안일(식사준비, 설거지, 빨래 등)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세요?

☐ ① 전적으로 부인이 해야 한다 ☐ ② 대체로 부인이 해야 한다
☐ ③ 부부가 함께 해야 한다 ☐ ④ 대체로 남편이 해야 한다
☐ ⑤ 전적으로 남편이 해야 한다

17. 일반적으로 부부 중 누가 자녀를 돌봐야 한다고 생각하세요?

☐ ① 전적으로 부인이 해야 한다 ☐ ② 대체로 부인이 해야 한다
☐ ③ 부부가 함께 해야 한다 ☐ ④ 대체로 남편이 해야 한다
☐ ⑤ 전적으로 남편이 해야 한다

18. 일반적으로 가정에서 중요한 일은 누가 결정해야 한다고 생각하세요?

☐ ① 전적으로 부인이 해야 한다 ☐ ② 대체로 부인이 해야 한다
☐ ③ 부부가 함께 해야 한다 ☐ ④ 대체로 남편이 해야 한다
☐ ⑤ 전적으로 남편이 해야 한다

19. 학생은 부부의 역할에 관한 다음의 내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구 분	매우 찬성함	대체로 찬성함	별로 찬성안함	전혀 찬성안함
1) 남편은 직업을 가지고 아내는 가정을 돌보는 것이 좋다고 생각 한다	□ ①	□ ②	□ ③	□ ④
2) 맞벌이 부부의 경우에도 가족의 생계는 남편이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 한다	□ ①	□ ②	□ ③	□ ④
3) 남편도 아내와 마찬가지로 자녀를 잘 돌볼 수 있다고 생각 한다	□ ①	□ ②	□ ③	□ ④

3 다음은 성교육에 관한 질문입니다.

1. 학교에서 받은 성교육은 어떤 내용인지 모두 응답해주세요.

□ ① 생식기 구조, 야뇨증상 (월경, 몽정) □ ② 이성교제, 성관계, 혼전순결 □ ③ 피임방법
□ ④ 임신, 출산 □ ⑤ 미혼모, 인공유산 □ ⑥ 성병, 에이즈
□ ⑦ 기타 □ ⑨ 성교육을 받은 적이 없다

2. 학생은 지금까지 학교에서 받은 성교육 내용이 어느 정도 도움이 되었나요?

□ ① 매우 도움이 되었다 □ ② 약간 도움이 되었다 □ ③ 보통이다
□ ④ 별로 도움이 되지 않았다 □ ⑤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다 □ ⑨ 성교육을 받은 적이 없다

3. 학교에서 받는 성교육 이외에 성에 대한 정보를 주로 어디에서 얻는지 1가지만 응답해주세요.

□ ① 부모나 친인척 □ ② 형제자매 □ ③ 친구나 선후배
□ ④ 비디오(CD, DVD) □ ⑤ 인터넷(동영상) □ ⑥ TV
□ ⑦ 잡지, 만화 □ ⑧ 사회·종교단체(청소년단체, 교회 등)
□ ⑨ 기타 □ ⑩ 없다

4. 학생은 성문제와 관련된 고민은 주로 어떻게 해결하고 있는지 1가지만 응답해주세요.
☞ 가장 최근에 경험했던 고민에 대해 응답해 주세요.

□ ① 부모와 상담 □ ② 형제자매와 상담 □ ③ 학교선생님과 상담
□ ④ 상담전문가와 상담 □ ⑤ 친구나 선배와 상담 □ ⑥ 성교육 관련 책
□ ⑦ 인터넷 또는 PC 통신 □ ⑧ 혼자 해결 □ ⑨ 기타 방법
□ ⑩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 ⑨⑨ 고민한 적 없다

5. 학생은 다음의 내용에 대해 얼마나 잘 알고 있나요?

구 분	매우 잘 안다	아는 편이다	모르는 편이다	전혀 모른다
1) 피임방법에 대하여 알고 있다	□ ①	□ ②	□ ③	□ ④
2) 인공유산의 부작용에 대하여 알고 있다 ☞ 인공유산이란? 임신한 경우 아이를 낳지 않고 일부러 없애는 것	□ ①	□ ②	□ ③	□ ④
3) 성병, 에이즈 예방 방법에 대하여 알고 있다	□ ①	□ ②	□ ③	□ ④
4) 남녀의 신체적 구조에 대하여 알고 있다	□ ①	□ ②	□ ③	□ ④
5) 임신 및 출산과정에 대하여 알고 있다	□ ①	□ ②	□ ③	□ ④

6. 학교에서 출산에 대한 내용은 어떤 시간에 배웠는지 모두 응답해 주세요.

□ ① 국어 □ ② 도덕 □ ③ 사회
□ ④ 과학 □ ⑤ 기술·가정(실과) □ ⑥ 외국어(영어)
□ ⑦ 특별활동이나 재량활동(교과 외 시간) □ ⑧ 기타 과목
□ ⑨⑨ 배운적 없다

7. 출산에 관한 내용을 배우고 난 후, 학생은 주로 어떤 생각을 하게 되었는지 1가지만 응답해주세요..

□ ① 아는 내용이라 지루하고 재미없었다 □ ② 생명의 탄생 과정을 알게 되어 신기하고 재미있었다
□ ③ 출산과 육아에 대해 걱정하게 되었다 □ ④ 출산이 사회나 국가를 위해 중요하다는 것을 알았다
□ ⑤ 아무 생각이 안들었다 □ ⑥ 기타
□ ⑨ 배운적 없다

8. 학생은 일반적으로 남자가 결혼 전에 순결을 지켜야 한다고 생각하세요?

□ ① 반드시 지켜야 한다 □ ② 가급적 지켜야 한다 □ ③ 지키지 않을 수도 있다
□ ④ 지킬 필요가 없다 □ ⑤ 모르겠다

9. 학생은 일반적으로 여자가 결혼 전에 순결을 지켜야 한다고 생각하세요?

□ ① 반드시 지켜야 한다 □ ② 가급적 지켜야 한다 □ ③ 지키지 않을 수도 있다
□ ④ 지킬 필요가 없다 □ ⑤ 모르겠다

10. 학생은 일반적으로 결혼하지 않은 남녀가 임신을 했다면 어떻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세요?

☐ ① 낳아야 한다 ☐ ② 아이를 기를 수 있는 경우에만 낳는다
☐ ③ 낳아서는 안 된다 ☐ ④ 모르겠다

11. 학생은 지금 이성교제를 하고 있나요?

☐ ① 현재 교제 중이다 ☐ ② 교제한 적이 있으나 지금은 없다 ☐ ③ 교제 한 적이 없다

다음은 현재 자녀를 적게 낳는 사회현상에 관한 질문입니다.

☺ 다음 글을 잘 읽고 학생의 생각과 일치하는 해당란에 ☑를 해주세요.

앞으로 우리나라 인구가 줄어들 것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우리나라 각 가정에서 아이를 낳지 않거나 적게 낳고 있기 때문입니다.
☞ 12번, 13번 문항에 대해 응답해 주세요

12. 아이를 적게 낳거나 낳지 않으려고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 ① 아이를 키우는 일이 힘들어서 ☐ ② 늦은 결혼으로 출산의 시기를 놓쳐서
☐ ③ 아이를 교육시키는데 돈이 많이 들어서 ☐ ④ 부모가 모두 일을 해야 하므로
☐ ⑤ 자녀를 키우는 일에만 얽매이고 싶지 않아서 ☐ ⑥ 기타

13. 우리나라 인구가 줄어들면 주로 어떤 일이 생긴다고 생각하세요?

☐ ① 사람들 사이에서 경쟁을 하거나 다툴 일이 줄어들 것이다
☐ ② 나라의 힘이 약해질 것이다
☐ ③ 공해가 줄어들어 쾌적한 환경에서 살 수 있을 것이다
☐ ④ 일할 사람이 줄어들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것이다
☐ ⑤ 식량과 주택 부족 문제가 해결 될 것이다
☐ ⑥ 우리가 세금을 지금보다 많이 내야 할 것이다
☐ ⑦ 기타

14. 학생은 우리나라에서 아이를 적게 낳고 노인들이 많아지고 있는 현상에 대해 학교에서 교육을 받은 적이 있나요?

☐ ① 예 ☐ ② 아니오

15. 학생은 아이를 적게 낳고 노인들이 많아지고 있는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국가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나요?

☐ ① 예 ☐ ② 아니오

16. 학생은 할아버지, 할머니와 같은 집에서 함께 사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 할아버지, 할머니가 돌아가신 학생도 응답해 주세요

☐ ① 매우 좋을 것 같다 ☐ ② 좋을 것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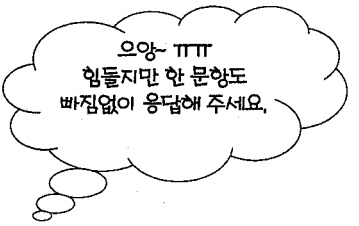
☐ ③ 싫을 것 같다 ☐ ④ 매우 싫을 것 같다

☐ ⑤ 모르겠다

17. 학생의 부모님이 노인이 되면 주로 누가 돌봐야 한다고 생각하세요?

☐ ① 부모님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 ☐ ② 가족이 돌봐야 한다

☐ ③ 사회나 국가가 돌봐야 한다 ☐ ④ 모르겠다



4 다음은 가치관에 관한 질문입니다.

1. 학생은 다음의 내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구 분	매우 찬성함	대체로 찬성함	별로 찬성안함	전혀 찬성안함
1) 남자들이 부엌일을 하는 것은 보기에 좋지 않다.	□ ①	□ ②	□ ③	□ ④
2) 집, 땅과 같은 재산을 남편과 아내 공동 이름으로 하는 것을 찬성한다.	□ ①	□ ②	□ ③	□ ④
3) 설거지나 빨래와 같은 집안 일은 남자와 여자가 다 같이 해야 한다.	□ ①	□ ②	□ ③	□ ④
4) 집안의 대를 이어가기 위해서 아들이 있어야 한다	□ ①	□ ②	□ ③	□ ④
5) 아내와 남편은 집안의 모든 일에 대해서 똑같은 결정권을 가져야 한다.	□ ①	□ ②	□ ③	□ ④
6) 여자는 사업에 관한 중대한 결정을 남자만큼 잘 내리지 못한다.	□ ①	□ ②	□ ③	□ ④
7) 남자는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기 때문에 여자보다 월급을 더 많이 받아야 한다.	□ ①	□ ②	□ ③	□ ④
8) 차심부름이나 복사는 남자직원보다 여자직원이 하는 것이 어울린다.	□ ①	□ ②	□ ③	□ ④
9) 여자가 판사·검사와 같이 남자들이 주로 맡았던 직업을 갖는데 찬성한다.	□ ①	□ ②	□ ③	□ ④
10)남자가 여자 상사 밑에서 일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 ①	□ ②	□ ③	□ ④

2. 학생은 다음의 내용에 대해 중요하다고 생각하세요?

구 분	매우 중요함	대체로 중요함	별로 중요 않함	전혀 중요 않함
1) 편안한 생활	□ ①	□ ②	□ ③	□ ④
2) 풍요로운 물질생활	□ ①	□ ②	□ ③	□ ④
3) 더불어 사는 삶	□ ①	□ ②	□ ③	□ ④
4) 다른 사람에게 필요한 사람	□ ①	□ ②	□ ③	□ ④
5) 자유로운 생활	□ ①	□ ②	□ ③	□ ④
6) 인간에 대한 사랑	□ ①	□ ②	□ ③	□ ④
7) 화목한 가정	□ ①	□ ②	□ ③	□ ④
8) 여가생활	□ ①	□ ②	□ ③	□ ④
9) 사회적으로 인정 받는 것	□ ①	□ ②	□ ③	□ ④
10)다른 사람들에게 명령할 수 있는 힘	□ ①	□ ②	□ ③	□ ④
11)목표를 달성하고 성공하는 것	□ ①	□ ②	□ ③	□ ④

☺ 학생 여러분! 고맙습니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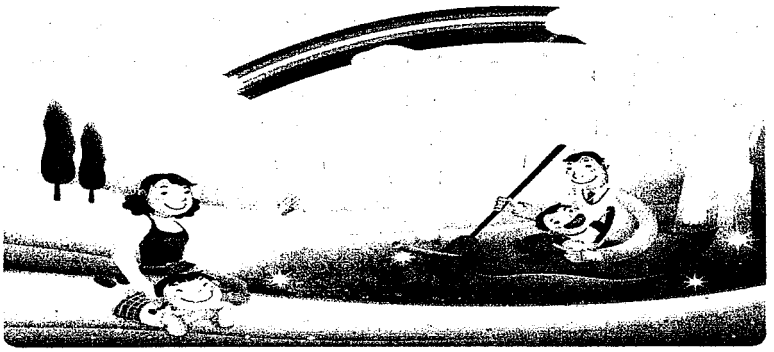
조사에 관한 궁금한 모든 사항은 아래로 연락주세요.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락처 : 02 - 380 - 8182 02 - 380 - 8264	1004phil@kihasa.re.kr

〔부록 2〕 결혼·자녀·양성평등에 관한 교육실태 조사 (교사용) 조사표 양식

조사기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결과공표(예정시기)	2007년 1월

결혼·자녀·양성평등에 관한 교육 실태 조사 (교사용)



고유번호	시도명	시·군·구명	학교구분	학교특성	학년	응답자일련번호
1	2-3	4-6	7	8	9	10-11
2	※기입 안함	※기입 안함	☐ ① 초등학교 ☐ ② 중학교 ☐ ③ 고등학교(인문계) ☐ ④ 고등학교(실업계)	☐ ① 남학교 ☐ ② 여학교 ☐ ③ 남녀공학		※기입안함

대통령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인사말

금번 저희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는 대통령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와 공동으로 「결혼·자녀·양성평등에 관한 교육 실태 조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사는 전국에서 표본추출한 약 130개 초·중·고 학교의 교사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것으로, 선생님께서 재직 중인 학교가 표본학교로 선정되었습니다.

선생님께서 응답해 주신 내용은 결혼, 출산 및 자녀 양육에 적합한 사회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관련 정책 수립 및 프로그램 개발에 필요한 기초 자료로 활용됩니다.

응답해주신 모든 사항은 통계법에 따라 비밀이 절대적으로 보장되며, 그 내용은 통계 자료로만 이용되오니 솔직하게 질문에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원 장 김 용 문

※ 이 곳에는 기입 안함

CARD 01

다음은 저출산·고령사회에 대비한 학교교육 내용에 관한 인식을 알아보기 위한 질문입니다

※ 선생님의 생각과 일치하는 번호에 ☑를 해 주세요.

1. 선생님께서는 현재 우리나라의 저출산·고령사회 문제가 얼마나 심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심각하다 ☐ ② 심각한 편이다
☐ ③ 보통이다 ☐ ④ 심각하지 않은 편이다
☐ ⑤ 전혀 심각하지 않다

2. 저출산·고령사회를 대비하여 학교교육 내용이 개선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필요하다 ☐ ② 필요한 편이다
☐ ③ 보통이다 ☐ ④ 필요하지 않은 편이다
☐ ⑤ 전혀 필요하지 않다

3. 저출산·고령사회를 대비하여 학교교육에서 출산이나 가족의 소중함에 대한 가치관 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필요하다 ☐ ② 필요한 편이다
☐ ③ 보통이다 ☐ ④ 필요하지 않은 편이다
☐ ⑤ 전혀 필요하지 않다

다음은 현재 출산(인구포함)에 대한 학교교육 실태를 알아보기 위한 질문입니다

4. 현재 선생님께서는 출산(인구 포함) 관련 내용을 가르치고 계십니까?

☐ ① 예(☞ 4-1번으로 가시오) ☐ ② 아니오(☞ 5번으로 가시오)

※ 4번 문항에서 ①을 선택하신 분만 4-1에서 4-6까지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4-1. 교과서 내용이 출산에 대한 긍정적 가치관을 길러주는데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적절하다 ☐ ② 적절한 편이다
☐ ③ 보통이다 ☐ ④ 적절하지 않은 편이다
☐ ⑤ 전혀 적절하지 않다

4-2. 교과서에 제시된 출산(인구 포함) 관련 내용이 학습자의 수준과 흥미에 적합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적합하다 ☐ ② 적합한 편이다 ☐
☐ ③ 보통이다 ☐ ④ 적합하지 않은 편이다
☐ ⑤ 전혀 적합하지 않다

4-3. 교과서에 제시된 출산(인구 포함) 관련 소재가 시대성이나 현실성을 어느 정도 반영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충분히 반영하고 있다 ☐ ② 반영하고 있는 편이다 ☐
☐ ③ 보통이다 ☐ ④ 반영하고 있지 않은 편이다
☐ ⑤ 전혀 반영하고 있지 않다

4-4. 교과서에 제시된 출산(인구 포함) 관련 내용의 분량이 교육목표를 달성하기에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충분하다 ☐ ② 충분한 편이다 ☐
☐ ③ 보통이다 ☐ ④ 부족한 편이다
☐ ⑤ 매우 부족하다

4-5. 교과서의 출산(인구 포함)관련 내용을 다룬 삽화, 사진, 도표 등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적절하다 ☐ ② 적절한 편이다 ☐
☐ ③ 보통이다 ☐ ④ 적절하지 않은 편이다
☐ ⑤ 전혀 적절하지 않다

4-6. 출산(인구 포함)에 관한 수업을 하실 때 애로사항은 주로 무엇입니까?

☐ ① 내용이 진부해서 학생들의 흥미를 유발시키기가 어렵다 ☐
☐ ② 수업에서 활용할 보조 지도 자료가 부족하다
☐ ③ 현실이나 교사의 가치관과 다른 경우가 있어 어떻게 가르쳐야 할지 당황스럽다
☐ ④ 내용을 재미있게 지도할 수 있는 수업방법을 잘 모른다
☐ ⑤ 기타 ☐ ⑥ 모르겠다
☐ ⑦ 애로 사항이 없다

다음은 가족에 대한 학교교육 실태를 알아보기 위한 질문입니다

5. 현재 선생님께서는 가족 관련 내용을 가르치고 계십니까?

☐ ① 예(☞ 5-1번으로 가세요) ☐ ② 아니오(☞ 6번으로 가세요) ☐

※ 5번 문항에서 ①을 선택하신 분만 5-1에서 5-6까지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5-1. 교과서에 제시된 가족 관련 내용이 가족친화적 가치관을 길러주는데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적절하다 ☐ ② 적절한 편이다 ☐
☐ ③ 보통이다 ☐ ④ 적절하지 않은 편이다
☐ ⑤ 전혀 적절하지 않다

5-2. 교과서에 제시된 가족 관련 내용이 학습자의 수준과 흥미에 적합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적합하다 ☐ ② 적합한 편이다 ☐
☐ ③ 보통이다 ☐ ④ 적합하지 않은 편이다
☐ ⑤ 전혀 적합하지 않다

5-3. 교과서에 제시된 가족 관련 소재가 시대성이나 현실성을 어느 정도 반영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충분히 반영하고 있다 ☐ ② 반영하고 있는 편이다 ☐
☐ ③ 보통이다 ☐ ④ 반영하고 있지 않은 편이다
☐ ⑤ 전혀 반영하고 있지 않다

5-4. 교과서에 제시된 가족 관련 내용의 분량이 교육목표를 달성하기에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적절하다 ☐ ② 적절한 편이다 ☐
☐ ③ 보통이다 ☐ ④ 적절하지 않은 편이다
☐ ⑤ 전혀 적절하지 않다

5-5. 교과서의 가족 관련 내용을 다룬 삽화, 사진, 도표 등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적절하다 ☐ ② 적절한 편이다 ☐
☐ ③ 보통이다 ☐ ④ 적절하지 않은 편이다
☐ ⑤ 전혀 적절하지 않다

5-6. 가족에 관한 수업을 하실 때 애로사항은 주로 무엇입니까?

☐ ① 내용이 진부해서 학생들의 흥미를 유발시키기가 어렵다
☐ ② 수업에서 활용할 보조 지도 자료가 부족하다
☐ ③ 현실이나 교사의 가치관과 다른 경우가 있어 어떻게 가르쳐야 할지 당황스럽다
☐ ④ 재미있게 지도할 수 있는 수업방법을 잘 모른다
☐ ⑤ 기타 ☐ ⑥ 모르겠다
☐ ⑦ 애로 사항이 없다

☐

다음은 향후 출산 및 가족 친화적 가치관 교육을 위해 교육내용을 개선하고자 할 때 고려해야 할 내용에 관한 질문입니다

6. 학교교육에서 출산(인구 포함) 관련 가치관 교육은 어느 시간에 다루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중복응답 가능)

☐ ① 국어 ☐ ② 도덕 ☐ ③ 사회
☐ ④ 과학 ☐ ⑤ 기술·가정(실과) ☐ ⑥ 외국어(영어)
☐ ⑦ 특별활동이나 재량활동 ☐ ⑨ 기타

☐☐☐☐☐☐☐☐

7. 학교교육에서 가족 관련 가치관 교육은 어느 시간에 다루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중복응답 가능)

☐ ① 국어 ☐ ② 도덕 ☐ ③ 사회
☐ ④ 과학 ☐ ⑤ 기술·가정(실과) ☐ ⑥ 외국어(영어)
☐ ⑦ 특별활동이나 재량활동 ☐ ⑨ 기타

☐☐☐☐☐☐☐☐

8. 학교교육에서 출산 친화적 가치관 교육은 언제부터 다루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초등학교 저학년부터 (1학년~3학년) ☐ ② 초등학교 고학년부터 (4학년~6학년)
☐ ③ 중학교부터 ☐ ④ 고등학교부터

☐

9. 학교교육에서 가족 친화적 교육은 언제부터 다루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초등학교 저학년부터 (1학년~3학년) ☐ ② 초등학교 고학년부터 (4학년~6학년)
☐ ③ 중학교부터 ☐ ④ 고등학교부터

☐

10. 출산(인구 포함)에 관한 교육내용은 어떤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출산이 개인적 차원을 넘어 사회·국가와 관계가 있음을 인식하도록 개선한다
☐ ② 저출산의 원인, 실태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교육내용을 개선 한다
☐ ③ 현재의 교육내용으로도 충분하므로 개선할 필요가 없다
☐ ④ 출산은 개인의 선택이므로 출산 장려나 산아 제한과 같은 내용은 교육내용에 포함시킬 필요가 없다
☐ ⑤ 기타 ☐ ⑥ 모르겠다

11. 출산 및 가족 친화적 가치관 교육을 위하여 교육내용을 개선하고자 할 때 가장 고려해야 할 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교과 간 내용의 중복성을 피해야 한다
☐ ② 특정 가치가 주입되는 방향을 지향해야 한다
☐ ③ 학생들의 학습동기를 유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④ 시대성과 사회성을 반영해야 한다
☐ ⑤ 기타 ☐ ⑥ 모르겠다

12. 앞으로 출산 및 가족 친화적 가치관 교육을 실시할 때 학교교육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교사가 출산 및 가족 친화적 내용을 잘 가르칠 수 있도록 교사 연수를 실시 한다
☐ ② 교과 교육과정 운영시 적용할 수 있는 보조 지도자료를 개발하여 보급 한다
☐ ③ 재량활동 시간이나 특별활동 시간 등 교과 외 활동에 적용할 수 있는 지도자료를 개발하여 보급 한다
☐ ④ 출산 및 가족 친화적 내용이 담긴 독서 지도 자료를 개발하여 보급한다
☐ ⑤ 기타 ☐ ⑥ 모르겠다

다음은 성교육에 관한 학교교육 실태를 알아보기 위한 질문입니다.

13. 현재 선생님께서는 성교육 관련 내용을 가르치고 계십니까?

☐ ① 예(☞ 13-1번으로 가세요) ☐ ② (☞ CARD 02의 1번 문항으로 가시오)

※ 13번 문항에서 ①을 선택하신 분만 13-1에서 13-5까지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13-1. 선생님께서는 타기관이나 단체에서 주관하는 성교육 과정을 이수한 경험이 있습니까?

☐ ① 있다 ☐ ② 없다

13-2. 교과서에 제시된 성교육 관련 내용이 성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을 길러주는데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적절하다 ☐ ② 적절한 편이다 ☐
☐ ③ 보통이다 ☐ ④ 적절하지 않은 편이다
☐ ⑤ 전혀 적절하지 않은 편이다

13-3. 교과서에 제시된 성교육 관련 내용이 학습자의 수준과 흥미에 적합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적합하다 ☐ ② 적합한 편이다 ☐
☐ ③ 보통이다 ☐ ④ 적합하지 않은 편이다
☐ ⑤ 전혀 적합하지 않은 편이다

13-4. 학생에 대한 성교육은 어느 정도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필요하다 ☐ ② 필요한 편이다 ☐
☐ ③ 보통이다 ☐ ④ 필요하지 않다
☐ ⑤ 전혀 필요하지 않다

13-5. 성교육에 관한 수업을 하실 때 애로사항은 주로 무엇입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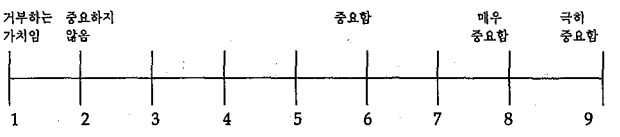
☐ ① 내용이 진부해서 학생들의 흥미를 유발시키기가 어렵다 ☐
☐ ② 수업에서 활용할 보조 지도 자료가 부족하다
☐ ③ 현실이나 교사의 가치관과 다른 경우가 있어 어떻게 가르쳐야 할지 당황스럽다
☐ ④ 성에 관한 태도나 가치관을 재미있게 지도할 수 있는 수업방법을 잘 모른다
☐ ⑤ 기타 ☐ ⑥ 모르겠다
☐ ⑦ 애로사항이 없다

다음은 일반적 가치 측정에 관한 질문입니다

CARD 02

선생님은 아래에 제시한 가치들을 삶에 있어서 어느 정도 중요하게 생각하십니까?
그 가치를 거부한다면 1점을 골라주시고, 그 가치가 중요하지 않다면 2점 극히 중요다면 9점으로 할 때 선생님은 이 중 어디에 속하십니까?

보기



1. 다음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세요?

가 치	점 수	
1) 평등 (모두에게 기회가 동등함)		1)
2) 사회적 권력 (타인에 대한 통제, 지배)		2)
3) 자유 (행동과 사고의 자유)		3)
4) 사회적 인정 (다른 사람들로부터 인정과 존경을 받는 것)		4)
5) 권위 (다른 사람을 지도하고 명령하는 권리)		5)
6) 사회 정의 (불의를 바로 잡음, 약자를 보살핌)		6)
7) 독립성 (자기 자신을 믿음, 자족적임)		7)
8) 야망 있음 (무엇을 이루고자 갈망하고 열심히 일함)		8)
9) 마음이 넓음 (나와는 다른 사상이나 신념에 대해 관대함)		9)
10)환경보호 (자연을 보존하기)		10)
11)정직 (거짓 없음, 진실함)		11)
12)도움이 됨(타인의 복지를 위해 일하는 것)		12)
13)성공 (목표를 달성함)		13)

다음은 양성평등에 관한 질문입니다

2. 선생님께서는 다음의 내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구 분	매우 찬성함	대체로 찬성함	별로 찬성 안함	전혀 찬성 안함	
1) 남자들이 부엌일을 하는 것은 보기에 좋지 않다	□ ①	□ ②	□ ③	□ ④	1)
2) 집, 땅과 같은 재산을 남편과 아내 공동 이름으로 하는 것을 찬성한다	□ ①	□ ②	□ ③	□ ④	2)
3) 설거지나 빨래와 같은 집안 일은 남자와 여자가 다 같이 해야 한다	□ ①	□ ②	□ ③	□ ④	3)
4) 집안의 대를 이어가기 위해서 아들이 있어야 한다	□ ①	□ ②	□ ③	□ ④	4)
5) 아내와 남편은 집안의 모든 일에 대해서 똑같은 결정권을 가져야 한다	□ ①	□ ②	□ ③	□ ④	5)
6) 학교에서는 학생들에게 남녀평등의식을 심어주어야 한다	□ ①	□ ②	□ ③	□ ④	6)
7) 역사나 정치에 대한 상식을 쌓는 것은 여학생보다 남학생에게 더 중요하다	□ ①	□ ②	□ ③	□ ④	7)
8) 반장은 여자보다 남자가 더 잘할 수 있다	□ ①	□ ②	□ ③	□ ④	8)
9) 학교를 통솔하는 교장, 교감은 남자가 되어야 한다	□ ①	□ ②	□ ③	□ ④	9)
10)여학생이 과학기술 분야에 더 많이 진학하도록 권장해야 한다	□ ①	□ ②	□ ③	□ ④	10)
11)여자는 사업에 관한 중대한 결정을 남자만큼 잘 내리지 못한다	□ ①	□ ②	□ ③	□ ④	11)
12)남자는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기 때문에 여자보다 월급을 더 많이 받아야 한다	□ ①	□ ②	□ ③	□ ④	12)
13)차심부름이나 복사는 남자직원보다 여자직원이 하는 것이 어울린다	□ ①	□ ②	□ ③	□ ④	13)
14)여자가 판·검사와 같이 남자들이 주로 맡았던 직업을 갖는데 찬성한다	□ ①	□ ②	□ ③	□ ④	14)
15)남자가 여자 상사 밑에서 일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 ①	□ ②	□ ③	□ ④	15)
16)남학생이 성적인 호기심을 보이는 것은 괜찮지만 여학생은 좋지 않다	□ ①	□ ②	□ ③	□ ④	16)
17)여자는 사귀는 남자보다 더 똑똑해 보이지 않는 것이 좋다	□ ①	□ ②	□ ③	□ ④	17)
18)더 많은 여자들이 정치에 참여해야 한다	□ ①	□ ②	□ ③	□ ④	18)
19)여자가 욕설이나 야한 이야기를 하는 것은 남자보다 더 보기 좋지 않다	□ ①	□ ②	□ ③	□ ④	19)
20)남자는 우는 모습을 보이면 안된다	□ ①	□ ②	□ ③	□ ④	20)

다음은 결혼에 관한 질문입니다

3. 선생님은 결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 ① 반드시 해야 한다 ☐ ② 하는 편이 좋다
☐ ③ 해도 좋고 하지 않아도 좋다 ☐ ④ 하지 않는 게 낫다
☐ ⑤ 모르겠다

☐

4. 선생님은 사람들이 결혼을 선택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시간을 갖기 위해 ☐ ② 정신적 안정을 찾기 위해서
☐ ③ 자녀를 갖기 위해서 ☐ ④ 부모의 가정에서 독립하기 위해서
☐ ⑤ 경제적인 안정을 위해서 ☐ ⑥ 사회의 관습을 따르기 위해서
☐ ⑦ 부모가 원하기 때문에 ☐ ⑧ 기타
☐ ⑨ 모르겠다

☐

5. 선생님은 사람들이 결혼을 한다면 몇 살에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세요?

1) 남자: ☐☐ 세
2) 여자: ☐☐ 세

☐☐
☐☐

6. 선생님은 남자가 35살 넘어서도 결혼을 하지 않으면 흉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그렇다 ☐ ② 그렇다 ☐ ③ 보통이다
☐ ④ 아니다 ☐ ⑤ 전혀 아니다 ☐ ⑥ 모르겠다

☐

7. 선생님은 여자가 35살 넘어서도 결혼을 하지 않으면 흉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그렇다 ☐ ② 그렇다 ☐ ③ 보통이다
☐ ④ 아니다 ☐ ⑤ 전혀 아니다 ☐ ⑥ 모르겠다

☐

다음은 결혼생활과 직장생활에 관한 질문입니다

8. 일반적으로 결혼 생활 중 직장 일과 가정 일을 하면서 겪은 가장 힘든 점은 무엇입니까?

☐ ① 자녀 양육 시간의 부족 ☐ ② 직장 일과 가정 일의 이중 부담
☐ ③ 부부간의 대화 시간 부족 ☐ ④ 직장 일에 전념하기 어려움
☐ ⑤ 직장에서의 눈치와 불이익 ☐ ⑥ 문제 없다

☐

9. 일반적으로 자녀 출산 때문에 직장생활을 그만 두어야 한다면, 둘 중 어느 것을 포기하시겠습니까?

☐ ① 출산 ☐ ② 직장 ☐ ③ 모르겠다 ☐

10. 일반적으로 교직이라는 특성이 다른 직업보다 자녀 출산과 육아에 대한 부담을 덜어준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그렇다 ☐ ② 그렇다 ☐ ③ 보통이다
☐ ④ 아니다 ☐ ⑤ 전혀 아니다 ☐ ⑥ 모르겠다 ☐

다음은 자녀관에 대한 질문입니다

11. 결혼을 한 부부는 자녀를 가져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그렇다 (☞ 11-1번으로 가세요) ☐ ② 대체로 그렇다 (☞ 11-1번으로 가세요)
☐ ③ 아니다 (☞ 11-2번으로 가세요) ☐ ④ 전혀 아니다 (☞ 11-2번으로 가세요)
☐ ⑤ 모르겠다
⑤번을 선택하신 경우 'CARD 03'의 1번으로 가세요. ☐

※ 11번 문항에서 ①, ②번을 선택하신 분만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11-1. 자녀를 두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부부의 유대를 강화시켜 주기 때문이다 ☐ ② 노후에 의지가 되기 때문이다 ☐☐
☐ ③ 보살피는 재미가 있기 때문이다 ☐ ④ 집안의 대를 잇기 위해서이다
☐ ⑤ 생의 의욕을 주기 때문이다 ☐ ⑥ 화목한 가정을 형성하기 위해서
☐ ⑦ 부모가 되는 일은 인생에서 가치로운 일이기 때문이다
☐ ⑧ 기타

※ 11번 문항에서 ③, ④번을 선택하신 분만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11-2. 자녀를 두지 않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자녀에 대한 양육비와 교육비가 많이 들기 때문이다 ☐
☐ ② 부부만의 시간과 행복이 줄어드니까
☐ ③내 일에 전념하고 싶어서
☐ ④ 자녀가 힘든 공부를 하게 되므로
☐ ⑤ 자녀가 학교나 사회에서 왕따(체벌)를 당할까 염려 되어서
☐ ⑥ 부모님을 돌보는 것이 어려울 것 같아서
☐ ⑦ 기타

다음은 선생님의 일반적 사항에 관한 질문입니다

CARD 03

1. 선생님의 성별은 무엇입니까?

☐ ① 남자 ☐ ② 여자

2. 선생님의 담당 교과는 무엇입니까?(중·고등학교 교사만 응답해 주세요)

☐ ① 국어 ☐ ② 도덕 ☐ ③ 사회
☐ ④ 과학 ☐ ⑤ 기술·가정 ☐ ⑥ 외국어(영어)
☐ ⑦ 기타 ☐ ⑨ 비해당(초등학교 교사)

3. 선생님의 교직 경력은 몇 년 되셨습니까?

( ) 년

4. 선생님께서는 출산 경험이 있으십니까?(남자 선생님의 경우 배우자)

☐ ① 있다 (☞ 4-1번으로 가세요) ☐ ② 없다 (☞ 5번으로 가세요)

※ 4번 문항에서 ①번을 선택하신 분만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4-1. 선생님 자녀의 주 양육 형태는 무엇입니까?

☐ ① 본인 및 배우자 ☐ ② 친인척 ☐ ③ 육아도우미
☐ ④ 육아지원시설(보육시설, 유치원 등) ☐ ⑤ 기타

5. 선생님께서는 저출산 현상을 극복하기 위하여 국가가 어떻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출산지원을 위한 적극적인 정책을 실시해야 한다
☐ ② 출산은 개인이 선택할 문제이기 때문에 국가가 개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 ③ 기타 ☐ ④ 모르겠다

6. 가족 형태에 대하여 선생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중복응답 가능)

☐ ① 매체를 통해 가족형태(한 부모 가정, 재혼 가정 등)에 많은 변화가 생겼다는 것은 알고 있다
☐ ② 다양한 가족형태가 생겨난다고 하더라도 기존의 전형적인 가족 형태가 바람직 하다고 본다
☐ ③ 변화된 가족 형태에 대한 편견을 바꾸려고 노력하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사고 전환의 필요성을 얘기하는 편이다
☐ ④ 기타 ☐ ⑤ 특별히 생각해 본 적 없다

*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조사에 관한 궁금한 모든 사항은 아래로 연락주세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락처 : 02 - 380 - 8182 02 - 380 - 8264	1004phil@kihasa.re.kr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06-07-01
협동연구 2006-01-1

저출산 및 인구고령화 대응 연구

- 미래세대의 결혼·출산 친화적 가치관 정립을 위한 종합연구 -

Study on Response to Low Fertility and Population Aging - Comprehensive Study on Fostering Fertility and Marriage-Friendly Values for the Future Generations -

발행일 2006년 12월 일 값 14,000 원
저 자 이 삼 식 외
발행인 김 용 문
발행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서울특별시 은평구 불광동 산42-14(우: 122-705)
대표전화: 02) 380-8000
http://www.kihasa.re.kr
등 록 1994년 7월 1일 (제8-142호)
인 쇄 대명기획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6

ISBN 978-89-8187-384-4 93330
ISBN 978-89-8187-383-7 93330(전6권)